

將軍面誌



장군면지발전추진위원회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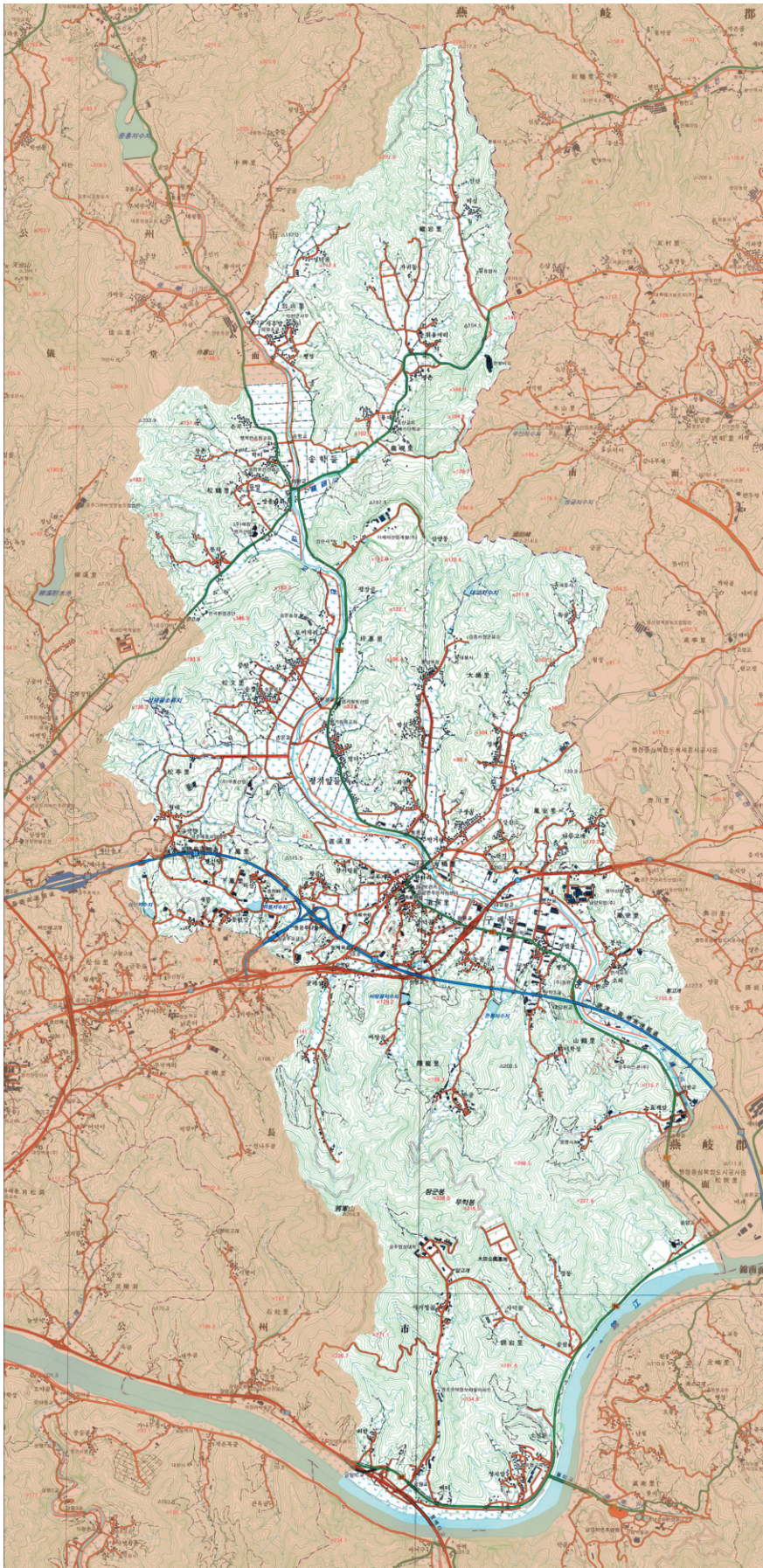
-
-
-
-
-
-

1. 편찬방침

- * 장군면지의 편찬 목적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의 출범을 기념하여 구 장기면과 의당면 편입지역의 지나온 발자취와 그 속에 담겨진 숨결을 재조명하고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관련 자료를 총망라하여 장군면의 과거에서 오늘까지를 기록하기 위한 것임
- * 발간에 앞서 발간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하고 공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의 연구진 및 각 분야 전문가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하였음
- * 장군면지는 총괄편과 마을자료편으로 나뉘며 총괄편에 자연 및 인문환경, 역사, 행정과 정치, 산업과 경제, 교육·문화, 민속, 문화유적을 서술하고, 마을자료편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후의 14개 법정리(23개 행정리)와 출범 전 구 장기면의 5개리에 대한 답사와 설문을 통해 마을의 문화와 전통을 서술함
- * 원고 집필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전문성과 객관성을 도모하였음
- * 내용의 전개는 장군면의 특성이 최대한 표현되도록 하였음

2. 서술내용

- * 선사시대에서 최근까지 장군면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함
- *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음
- * 총론편의 통계자료는 통계청과 세종시청의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음
- * 마을자료편은 연구진이 직접 답사하고 주민들의 면담을 통해 정리된 것으로 제보자에 따라 다른 의견과 중복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음
- * 마을자료편의 통계는 각 마을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및 설문에 의하므로 총론편의 통계와 다를 수 있음





대동여지도 장군면 일대



김종서 장군 추모제



영평사 산사음악회



충렬사 제례



영평사 구절초 축제



덕천군 제례 2013년 시제 봉행 장면



장군축제와 민민화합 체육대회



이장협의회



이장협의회



이장협의회



송학리 보호수(향나무)



은용리 보호수(향나무)



태산리 보호수(느티나무)



하봉리 보호수(은행나무)



금강



장군산 전경



도계리 전경



대교리 김종서 장군묘



평기리 전경



봉안리 전경



금암리 전경



하봉리 전경



은옹리 전경



산학리 표지석과 팔각정



송문리 전경



송정리 전경



송학리 전경



용현리 전경



용암리 전경



태산리 전경

장군면지 | 발간사



이 충 열

장군면지 발간추진위원장

장군면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선인들의 지나온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화하는 지역주민의 문화의식을 반영한 장군면지를 발간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구 장기면과 의당면 일부가 포함되어 장군면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면민의 통합과 전통성 확립을 위해 면지 발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장군면지의 발간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장군면지는 우리 선조들의 삶과 소중한 유산 등의 기록들을 총 망라하여 유구한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이해를 돕고 우리 고장을 알리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장군면은 백지계획의 중심지였으며 세종시와 공주시의 거점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고장으로 후손에게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하고, 새로운 장군면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장군면지는 학문적, 실용적인 두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편찬에 온 힘을 다하였으나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장군면의 발전은 물론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발굴, 보존, 전승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군면지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자료를 모아주시고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추진위원 및 기관 사회단체장님과 면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1년여 동안 장군면지 발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공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충심으로 거듭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4월

축 간 사 | 장군면지



이 종 윤
장군면장

역사와 문화는 그 지역의 생활이자 삶이라 생각합니다.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장군면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장군면지 발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면지 발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면의 유구한 역사의 흔적을 찾아 주시고 체계적이고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된 면지에는 우리 고장의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발자취와 선조들의 생활상 그리고 우리 세대의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면지는 면민들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일깨워 후세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면지가 장군산의 정기와 김종서 장군과 류형 장군의 위상처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장군면의 정신적 자료가 되고 면민들의 애郷심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장군면지가 역사와 미래를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지침서가 되고 행복도시 세종시 발전의 기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장군면의 건승을 빌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장군면지 | 축 간 사



박 항 기

장군면 이장협의회 회장

장군면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동안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장군면에 면지가 없어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까워하여 왔으나, 지금이라도 우리 면민들이 갈망 해 왔던 장군면지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장군면은 예전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장기면은 공주시 신관동, 금흥동, 무릉동, 월송동 뿐만 아니라 예정지역인 제천리, 당암리 그리고 연기군 남면 라성리, 송원리 까지 매우 큰 지역이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번에 발간된 장군면지는 장군면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인문환경, 산업과 경제, 민속 그리고 각 마을의 자료를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지는 우리 면민들의 고향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넓고 깊게 해 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될 것 입니다. 이런 소중한 장군면지를 잘 활용하면 장군면의 발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그 동안 장군면지 발간에 힘써 주신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님들, 여러 자료를 제공해 주신 각 마을 이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장군면지가 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목 차

Ⅰ 총괄편 Ⅰ

제1장 _ 자연 및 인문환경	17
제1절 위치와 영역	18
제2절 지질과 지형	22
제3절 기후 및 토양	42
제4절 동·식물	63
제5절 자연재해	80
제6절 인 구	88
제7절 가옥과 촌락	107
제8절 지역개발	130
제2장 _ 역사	139
제1절 선사~원삼국(마한)시대의 장군면	141
제2절 백제시대	157
제3절 신라·고려시대	174
제4절 조선시대의 장군면	182
제5절 개화기·한말의 장군면	220
제6절 일제 강점기의 장군면	233
제7절 해방 이후의 장군면	247
제8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전·후의 장군면	259
제3장 _ 행정과 정치	265
제1절 행정구역	266
제2절 행정조직 및 인력	271
제3절 지방자치선거	281
제4장 _ 산업과 경제	295
제1절 산업	296
제2절 주택 및 환경	312
제3절 관광산업	315
제5장 _ 교육·문화	321
제1절 교육	322
제2절 문화	341

제6장 _ 민속	359
제1절 장군면 민속 개설	360
제2절 장군면 마을 신앙	362
제3절 민간(개인·가정) 신앙	379
제4절 세시풍습과 놀이	381
제5절 마을 조직	392
제6절 마을 농사 조직과 생산 풍습	398
제7절 기타 마을 여건	410
제8절 장군면의 민요	417
제9절 장군면의 풍장(농약)들	424
제10절 구비 전승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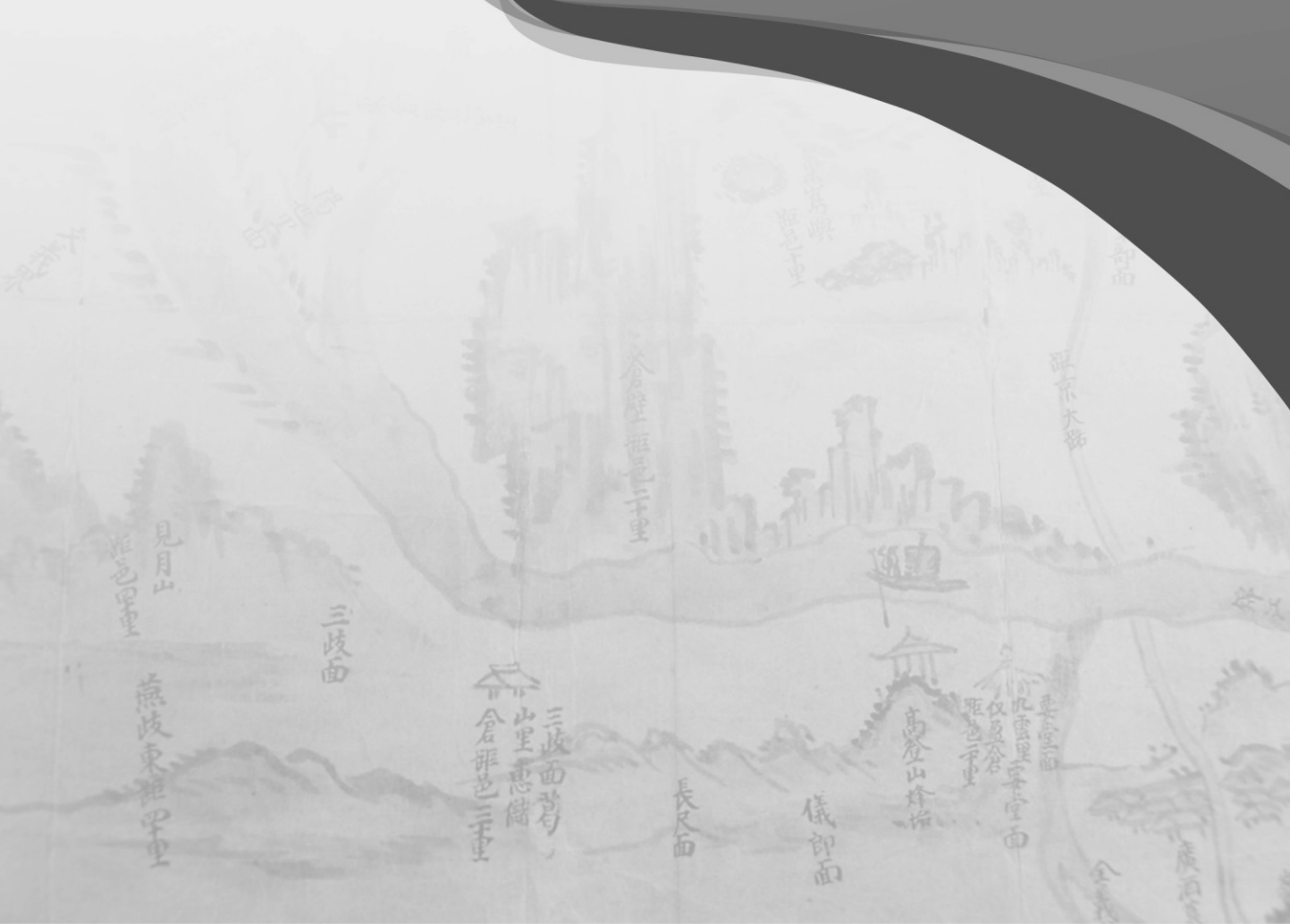
제7장 _ 문화유적	429
제1절 문화재와 문화유적	430
제2절 선사유적	440
제3절 백제시대 유적	453
제4절 통일신라·고려 유적	470
제5절 조선시대 유적	479
제6절 기타 유적	512

■ 마을 편 ■

도계리	519	송학리	641
대교리	530	용현리	654
평기리	543	용암리	661
봉안리	554	태산리	675
금암리	564	송선리	683
하봉리	574	동현리	687
은용리	588	석장리	691
산학리	605	당암리	697
송문리	622	제천리	701
송정리	632		

將/軍/面/誌

총괄편



將軍面誌

제 1 장

자연 및 인문환경

제1절 _ 위치와 영역

제2절 _ 지질과 지형

제3절 _ 기후 및 토양

제4절 _ 동·식물

제5절 _ 자연재해

제6절 _ 인구

제7절 _ 가옥과 촌락

제8절 _ 지역개발

자연 및 인문환경

제1절 위치와 영역

1. 위치

장군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체로 볼 때 세종특별자치시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공주시 월송동 및 의당면과 맞닿아 있다. 동쪽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연기면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금남면, 공주시 석장동과 접하며, 북쪽으로는 연서면 및 공주시 의당면과 접하고 있다(〈그림 1〉).



〈그림 1〉 장군면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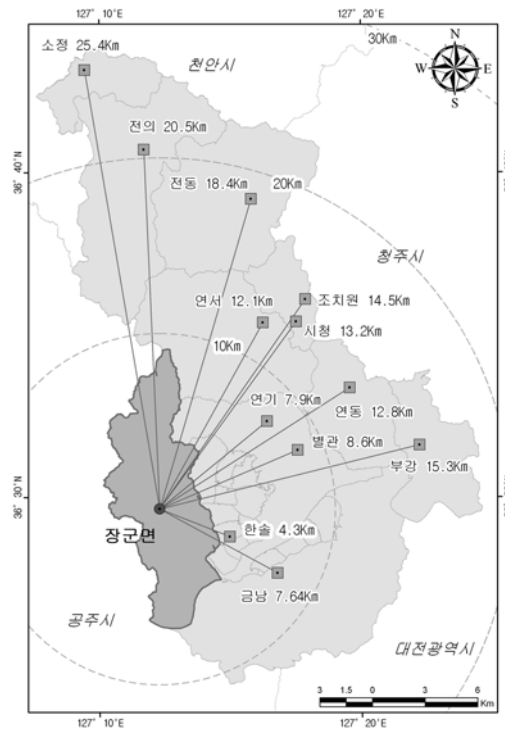
장군면의 동단은 봉안리로 한솔동과의 경계부인 동경 $127^{\circ} 10' 09''$ E, 북위 $36^{\circ} 30' 23''$ N 이며, 서단은 송정리로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와의 경계부인 동경 $127^{\circ} 14' 37''$ E, 북위 $36^{\circ} 27' 28''$ N로 동서간 거리는 약 6.7km이다. 북단은 용암리로 연서면 기룡리 경계부인 동경 $127^{\circ} 12' 36''$ E, 북위 $36^{\circ} 34' 34''$ N이며, 남단은 금암리로 금남면 도남리와의 경계부인 동경 $127^{\circ} 12' 58''$ E, 북위 $36^{\circ} 25' 58''$ N로 남북간 거리는 약 15.9km이다(〈표 1〉).

〈표 1〉 장군면의 위치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400-1	동단	봉안리	동경 127° 10′ 09″ 북위 36° 30′ 23″	동서간 6.7km
	서단	송정리	동경 127° 14′ 37″ 북위 36° 27′ 28″	
	북단	용암리	동경 127° 12′ 36″ 북위 36° 34′ 34″	남북간 15.9km
	남단	금암리	동경 127° 12′ 58″ 북위 36° 25′ 58″	

장군면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400-1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은 한솔동주민센터로부터 약 4.29km 떨어져 있으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공공기관은 소정면사무소로부터 약 25.37km 떨어져 있다.

(〈그림 2〉 및 〈표 2〉)



〈그림 2〉 장군면사무소와 관내 공공기관과의 이격거리

〈표 2〉 장군면사무소와 관내 공공기관과의 이격거리(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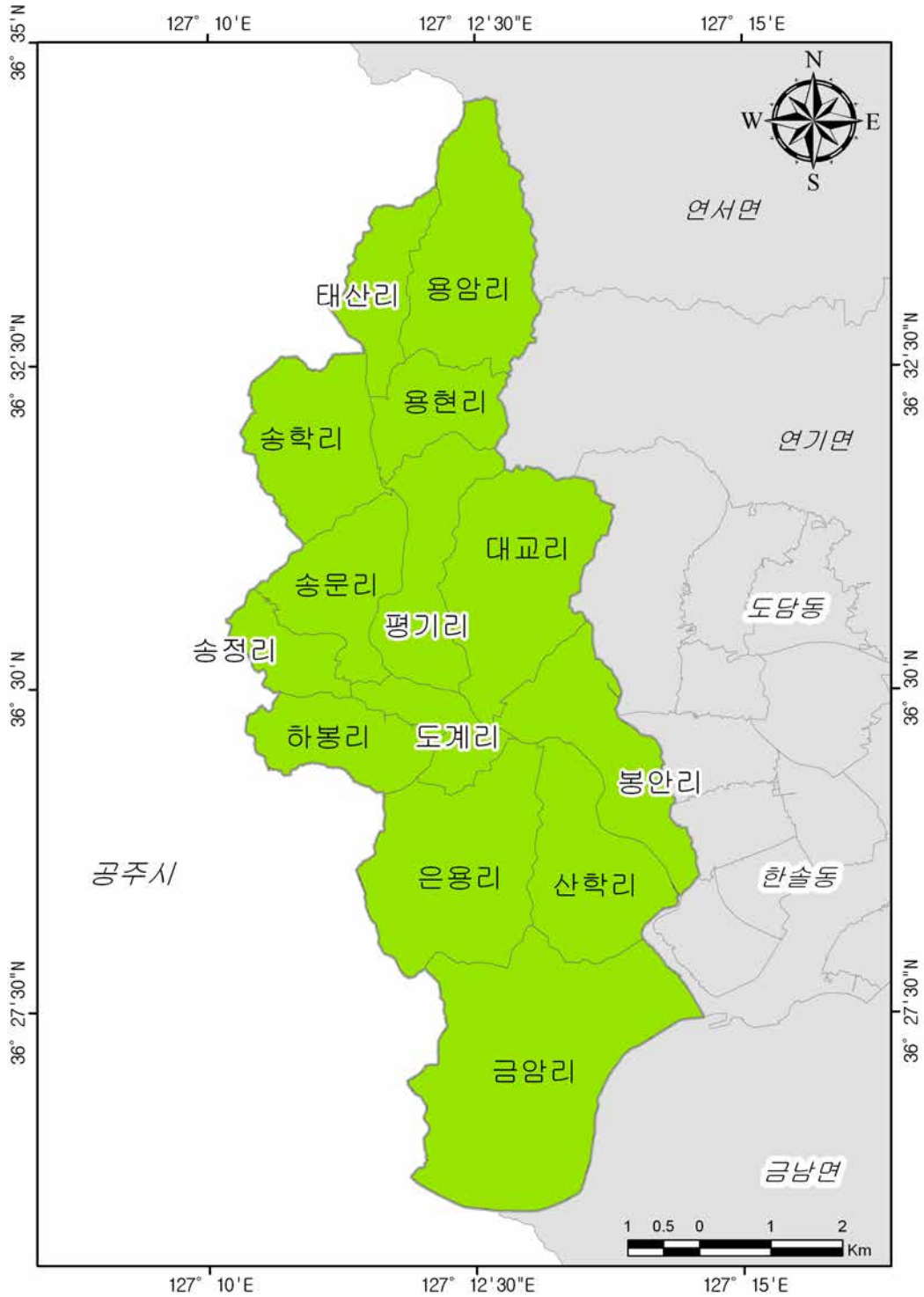
공공기관명	이격거리(km)	공공기관명	이격거리(km)
금 남 면 사 무 소	7.64	연 동 면 사 무 소	12.85
부 강 면 사 무 소	15.25	연 서 면 사 무 소	12.14
세 종 시 청	13.21	전 동 면 사 무 소	18.42
세 종 시 청 별 관	8.56	전 의 면 사 무 소	20.49
소 정 면 사 무 소	25.37	조 치 원 읍 사 무 소	14.55
연 기 면 사 무 소	7.91	한 솔 동 주 민 센 터	4.29

2. 행정구역 구성

장군면의 행정구역은 금암리, 대교리, 도계리, 봉안리, 산학리, 송문리, 송정리, 송학리, 용암리, 용현리, 은용리, 태산리, 평기리, 하봉리 등 14개 법정리와 23개 행정리, 9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14개의 법정리 중 송정리의 면적이 1.41km²로 가장 좁고, 금암리가 9.60km²로 가장 넓다(〈그림 3〉 및 〈표 3〉).

〈표 3〉 장군면 마을별 면적(가나다 순)

리	면적(km ²)	리	면적(km ²)
금암리	9.60	용암리	5.00
대교리	5.45	용현리	2.18
도계리	1.59	은용리	5.92
봉안리	3.55	태산리	2.03
산학리	3.94	평기리	3.29
송문리	3.03	하봉리	2.50
송정리	1.41	합계	53.19
송학리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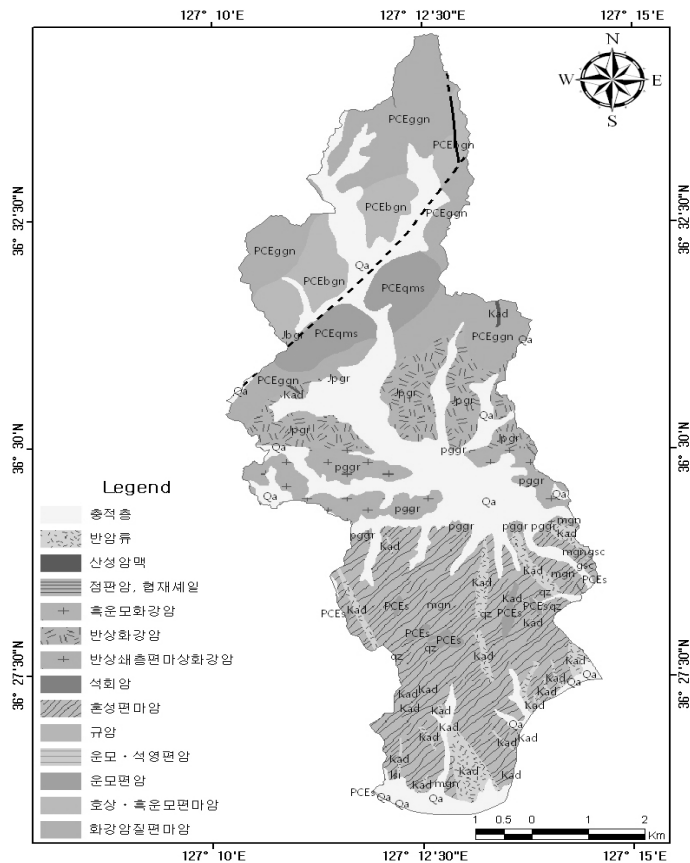
〈그림 3〉 장군면 소재 리 위치도

제2절 지질과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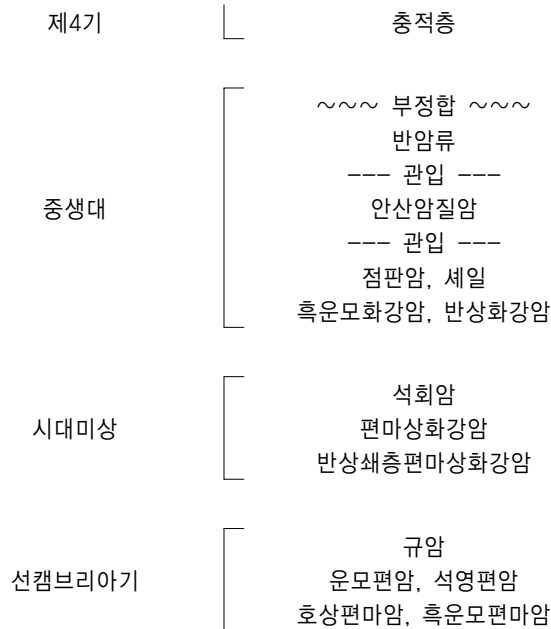
1. 지질

1) 지질개요

장군면에 분포하는 암석은 선캠브리아기부터 서산층군에 속하는 석영운모편암, 경기편마암복합체에 속하는 화강암질편마암, 반상변정편마암, 호상 흑운모편마암, 그리고 위의 암석들을 관입하고 있는 주라기의 화강암류, 그 외에 맥암류가 있으며 충적층이 하천 연변에 따라 위의 암석들을 피복하고 있다. 장군면 지역의 지질 분포는 <그림 4>과 같고 지질계통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4> 장군면 지역의 지질도(1:50,000)



〈그림 5〉 장군면의 지질계통도

장군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된 운모편암과 편마암이다. 운모편암은 주로 흑운모편암이고, 편마암은 화강암질편마암, 호상편마암 및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모편암은 주로 장군면의 북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편마암은 장군면의 중남부에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중생대 쥐라기에 장군면 지역의 중부에서 화강암류가 상기 암석들을 관입하였다. 이 화강암류는 편상흑운모화강암과 반상화강암으로 구분되며, 면의 중앙부인 송문리와 대교리, 하봉리, 도계리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후 중생대 백악기에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부근에서부터 금강변을 따라 남서쪽으로 뻗어서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를 지나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부근까지 공주충군이라고 불리는 퇴적암류가 상기 암석들을 부정합으로 덮었고, 그 후 이 부정합면을 따라 2차적으로 단층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 후 이 지역의 동부에 반암류가 주로 남북 방향에 따라 여러 줄기의 암맥군이 관입하였다. 그 후 오랜 침식이 있었고, 상기 암층들의 낮은 지대에 신생대 제4기 총적층이 퇴적되었다. 이들 각 암층들의 특징을 지질시대가 오래된 것으로부터 기술하면 다음 지질 각론과 같다.

2) 지질각론

(1) 편마암

편마암은 화강암질편마암, 호상편마암 및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강암질편마암과 호상편마암은 니질 및 사질 퇴적암이 변성 받아 형성된 퇴적 기원의 편마암이고, 화강편마암은 고기화강암이 변성 받아 형성된 화성 기원의 편마암이다.

화강암질편마암은 등립 변정질 조직이 발달된 편마상구조를 보이지만, 곳에 따라서는 편마상구조의 발달이 미약해지기도 한다. 이 암석과 호상편마암과는 그 경계부에서 점이적인 관계를 보인다. 이 암석의 주 구성광물은 석영, 장석, 흑운모이고, 부 성분광물로 석류석, 규선석, 견운모, 저어콘, 녹니석이 산출된다.

호상편마암은 석영 및 장석류로 구성된 폭 1cm 내외의 우백질대와 주로 흑운모로 구성된 폭 0.5cm 정도의 우흑질대가 교호하는 호상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암석의 주 구성광물은 주로 석영, 정장석, 미사장석, 사장석 및 흑운모이며, 이 밖에 백운모, 각섬석, 녹렴석, 스피넬 등이 소량 수반된다.

화강편마암은 대체로 흑운모 등의 유색 광물대에 의한 뚜렷한 편마구조가 보이는 흑운모화강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암석의 주 구성광물은 석영, 장석, 흑운모이고 이 밖에 석류석, 백운모, 녹니석, 방해석이 포함되기도 한다.

(2) 운모편암

운모편암은 주로 흑운모편암이며, 이밖에 견운모편암, 흑운모-견운모편암, 석영-견운모편암, 석영편암 등이 분포한다. 운모편암 중 가장 많은 흑운모편암은 주로 흑운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하관찰에 의하면 석영, 백운모, 견운모가 주 구성광물이며, 화강암질편마암과의 접촉부에서는 사장석과 정장석이 보이는데 이들은 대체로 안구상(Augen form)을 보이며 이는 후기 남동부에 관입한 화강암류의 암장에서 유래된 물질의 주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부 성분 광물은 풍화작용의 잔유물인 갈철석이 입자 사이를 충전하고 있다. 신선한 경우 회흑색을 나타내지만 대체로 풍화가 심하여 적갈색의 토양으로 변한 곳이 많다. 운모편암은 편리의 발달이 양호하며 부분적으로 편마암과 점이적 이거나 편마암의 관입을 받기도 하였다. 운모편암 중에는 흑연편암, 석회규산염암, 대리암 및 규암

의 불연속 박층이 협재되어 있기도 하다. 편리는 잘 발달되어 있으나 심하게 교란되어 미습곡이 많이 나타나며, 뚜렷한 방향성은 없으나 대체로 북동방향의 주향을 보이며, 경사는 다변적이다. 엽리는 대체로 뚜렷하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곳도 있다.

(3) 반상화강암

반상화강암은 광정도폭의 동남방향에 분포되며 청주도폭으로 연속된다. 암상은 담홍색의 장식 거정이 반정을 이루는 반상조직을 보인다. 구성광물은 석영, 장식, 흑운모인데 흑운모가 약간의 방향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다.

암상은 반상조직을 보여주며 심하게 풍화작용의 영향을 받았고, 부분적으로 압쇄대(Shear zone)가 발달되어 있다. 담홍색 장식 반정이 산재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흑운모가 연약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암은 주위의 편마암류에 심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경계 부근의 편마암은 석영과 장식의 양이 많고 흑운모 중에도 녹리석화 된 부분이 많다. 주 구성광물은 장식, 석영 및 흑운모로 되어 있으며, 채취한 표본에 대한 관찰에 의하면 석영, 정장석, 사장석(Albite), 흑운모, 각섬석이 주 구성광물이며 지르콘, 모나자이트, 견운모가 부 성분광물로 나타난다. 정장석의 큰 결정은 흑운모와 기타 부 성분광물을 포획물로 가지고 있다.

(4) 안산암

장군면 지역은 맥암류 황반암과 안산암, 각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암록색의 치밀질 암석이다. 현미경관찰에 의하면 석기는 작은 막대기 모양의 사장석 결정들이 조면암질 조직을 이루며, 반정은 감람석, 휘석, 녹렴석, 흑운모, 장식 및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반암류

반암류는 주로 장군면 장군봉 부근에서 청벽을 거쳐 계룡산에 이르기까지 남북방향에 따라 폭 1~40m정도의 암맥상으로 상기 암석들을 여러 줄기로 관입하여 평행 암맥군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의 반암류는 규장암, 석영반암 및 화강반암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암과 석영반암은 대체로 풍화에 강하여 산 능선을 이루어 능선부에 잘 발달되어 있으며, 절리의 방향에는 산 능선 방향과 일치되는 것이 많고, 주된 절리의 주향은 NS이고, 대체로 경사는 수직이 우세하다. 이들이 분포된 산 사면에는 직경 약 5~7cm 및 10~50cm의 전석들이 많다. 규장암과 석영반암은 백색 내지 회백색을 띠며, 석영반암의 반정은 1~2mm크기의 둥근 석영이 주이고, 직사각형의 백색 또는 담홍색의 장석이 반정을 이루기도 한다. 규장암과 석영반암의 석기는 주로 미립질의 규장질 및 흑운모, 녹니석이며, 소량의 자철석이 포함된다. 부분적으로 석영과 장석이 미문상 조직을 보이고, 석영의 반정은 반자형이다. 사장석은 올리고클레이스에 해당하며 부분적으로 견운모화 되어 있다. 화강반암은 규장암 및 석영반암과 혼재하여 분포되며 주로 담홍색을 띤다. 석기는 세립 화강암질이며, 대체로 원형의 석영과 장석이 반정을 이룬다. 석기는 사장석, 정장석, 미사장석, 석영 및 흑운모로 구성되어 있고, 사장석은 심히 견운모화 되어 있다.

3) 지질구조

장군면 지역의 변성암류들은 서로 점이적이거나 관입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동남방향에서 이들 변성암류를 주라기의 화강암류가 관입하고 있다. 변성암류의 엽리발달 상태가 단층들과 습곡작용에 의하여 교란을 받고 있으나 대체로 호계리-장원리-청라리를 잇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엽리의 경사가 서로 반대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북서부에서는 대체로 N30°~80°E의 주향에 NW방향으로 변화성 있는 경사를 보여주고 있으나, 여러 곳에 소습곡이 발달 되어 있고 축 방향은 북동-남서를 보여주고 있다.

남동부에서는 대체로 N30°~80°E의 주향에 남동방향으로 역시 다변적인 경사를 보여주고 있고 소습곡이 여러 곳에 발달되어 있다. 이들의 축방향도 북서부의 것과 거의 같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곳에서 압쇄대(Shear zone)와 Slickenside가 엽리면에 따라서 또는 절단하면서 발달되어 있으며 압쇄암이 얇은 층리로 발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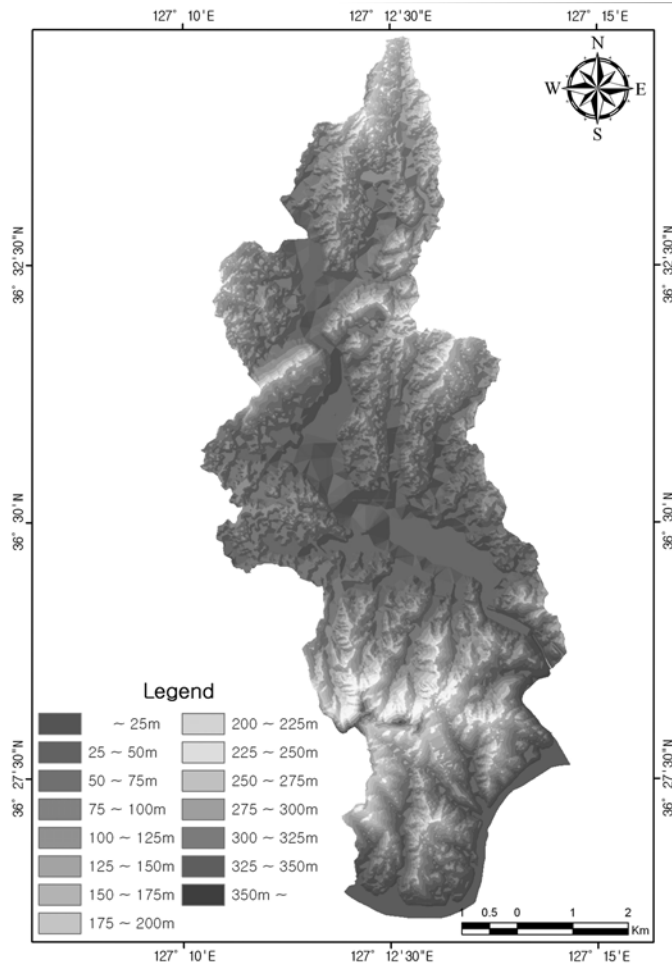
4) 지사

장군면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선캠브리아기에 속하는 변성암류들 중 서산층군인 석영운모편암이 서산일대에 걸쳐 발달되었던 유역에서와 같은 시기에 퇴적 되었으며 후에 경기육괴에 속하는 화강암질편마암이 관입했다. 그 후 다시 침강이 일어나서 반상변정편마암과 호상흑운모편마암의 원암의 퇴적이 일어났는데 호상 흑운모편마암 중에 규질석회암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암의 일부가 해성퇴적물로 판단된다.

그 후 수차의 지각운동에 수반되는 변성작용에 의하여 이들 퇴적암류와 화강암류는 심하게 변질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중생대의 쥬라기 말에 있었던 대보조산운동의 영향으로 구조작용을 받았으며 동시에 대보화강암에 속하는 반상화강암과 흑운모화강암의 관입이 일어났다. 그 후, 세종특별시 지역 남서부에 남북 방향의 단층계 또는 절리계를 따라 반암류가 관입하였으며, 이후 이 지역은 계속 침식작용을 받아 현재의 지형에 가깝게 변화되었고, 신생대 제4기(약 100만 년 전)에 하천을 따라 충적층이 쌓이게 되었다.

2. 지형

장군면의 북부에서 남부는 국사봉(213.8m), 장군산(354.3m) 등 200~3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장군면면의 중부는 남북 방향으로 금강의 지류인 대교천(大橋川)이 흐르며, 평기앞들, 구례들 등 비옥한 충적 평야가 있다. 동부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의 금강 연변에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장남평야(長南平野)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면의 남부 경계 지대에는 100~200여m의 산지에 바로 잇닿아 금강이 지나고 있어 작은 규모의 충적 평야와 저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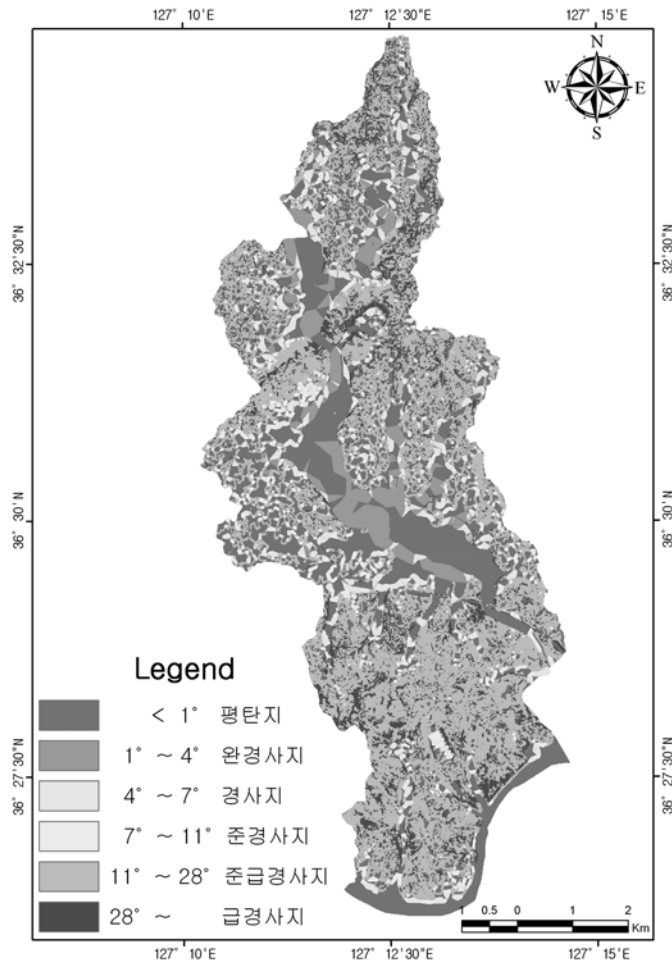


〈그림 6〉 장군면 고도분포도

장군면의 북부와 남부에 형성된 200~300여m의 산지의 영향으로 준급경사지~급경사지의 분포가 매우 넓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면적의 약 53.1%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준급경사지~급경사지는 면의 중앙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교천 주변부를 제외하고 거의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대교천 주변부와 대교천의 지류, 금강 주변부에서는 평탄지가 발달해 있는데, 전체 면적의 약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표 4〉 및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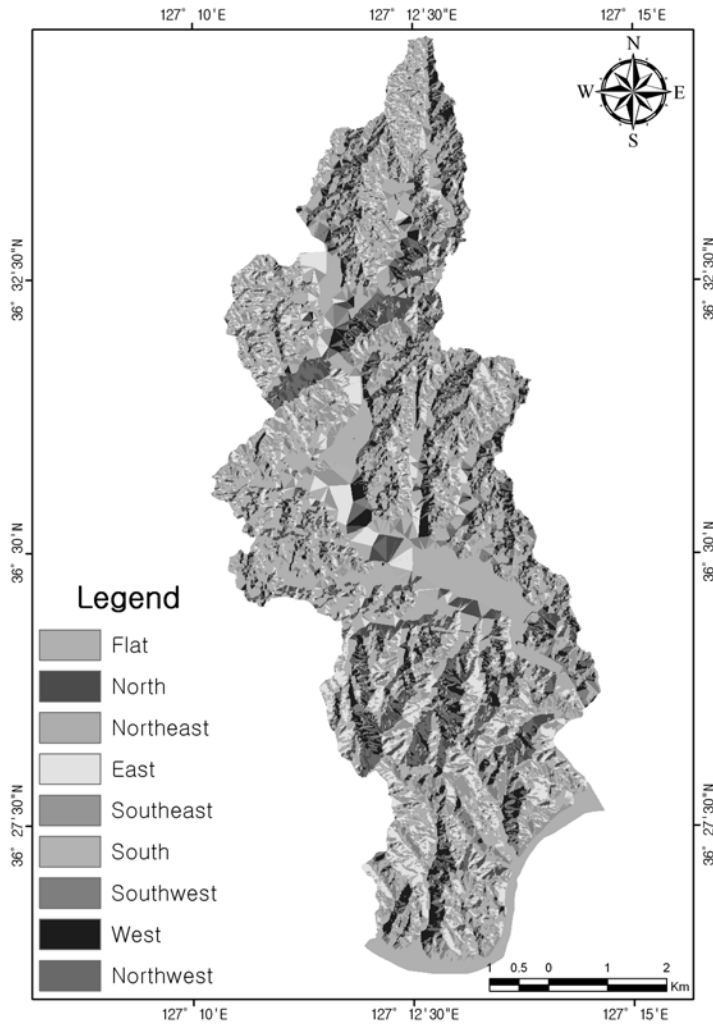
〈표 4〉 장군면 경사분포별 면적

경사	구분	면적(km ²)	비율(%)
< 1°	평탄지	16.6	30.8
1° ~ 4°	완경사지	2.9	5.4
4° ~ 7°	경사지	2.1	4.0
7° ~ 11°	준경사지	3.6	6.6
11° ~ 28°	준급경사지	23.2	43.1
28° 이상	급경사지	5.4	10.0
합계		53.7	100.0



〈그림 7〉 장군면 경사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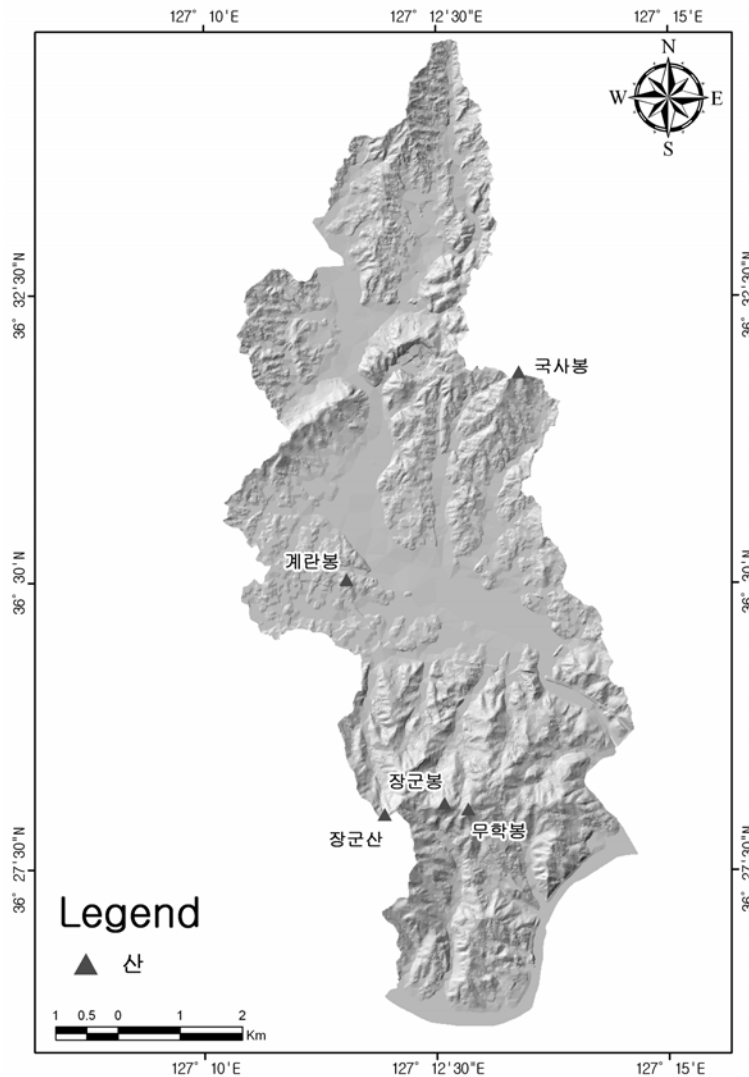
산지들 사이의 골짜기와 낮은 평지 곳곳에는 송정천(松亭川), 정계천, 은룡천(隱龍川), 율곡천, 근동천 등 작은 하천이 흐른다. 이들 하천의 연변에 소규모의 충적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면의 곳곳에 대교저수지, 하봉저수지, 바탕골저수지, 은룡저수지 등이 축조되어 있다. 대교천은 40~60여m의 해발고도에서 흐른다. 면의 곳곳에는 고개가 분포하는데 동부의 다름고개·구농고개·돌고개, 남부의 앞고개, 서부의 버드래고개·구령고개, 북부의 동막고개·봉화재 등이 있다.



〈그림 8〉 장군면 향분포도

1) 산지지형

면의 남부와 북부에 비교적 200~300m 이상의 산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장군면의 산지지형은 경사가 비교적 급하지만, 산지의 정상은 비교적 평탄한 것이 특징이다. 면내에 가장 알려진 산은 금암리와 은용리 경계에 위치한 해발고도 354.3m의 장군산이며, 이외에 국사봉과 장군봉, 무학봉, 계란봉 등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9〉 장군면 주요산지



〈사진 1〉 장군산 전경

(1) 장군산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와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해발고도는 354.3m이다. 봉우리가 장엄하여 장군의 기상이라 하며, 또는 풍수적으로 금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룡(逆龍)이라 하여 기운이 세찬 장군대좌형의 명당이 있어 장군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장군산의 북쪽은 대체로 반상쇄층편마상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잔구성 구릉지가 나타난다. 혼성편마암으로 이루어진 구릉성 산지로 곳에 따라 석회규산암, 규암, 흑연편마암을 협재하고 있다. 금강은 장군산의 이러한 지질 구조 때문에 이를 침식하지 못하고, 비교적 침식이 약한 지질 구조선을 따라 장군산에서 북서 방향으로 유로를 변경하여 흐르고 있다. 금강은 장군산을 기점으로 북서 방향으로 흐르다가 연미산 부근에서 나타나는 단층대와 역암층대를 따라 다시 남서 방향으로 유로를 변경하여 서해로 유입된다.

장군산의 동쪽에는 구절초축제로 유명한 영평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장군산을 두르고 있는 작은 골짜기를 따라 크고 작은 마을들이 위치해 있다. 장군산 서쪽 능선에는 장군봉과 무학봉이 있으며, 동남쪽에는 한국영상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남쪽에는 청벽대교와 불티교가 있는데, 청벽대교를 지나면 청벽산과 계룡산에 이를 수 있고, 불티교를 통해 금강을 넘어서면 산림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장군산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활발할 당시 청와대 이전지로 거론될 만큼 풍수가 뛰어난 곳이라 한다.

(2) 장군봉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와 은용리에 걸쳐 있는 봉우리로 해발고도는 약 354.3m이다. 장군산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km정도 떨어져 있다. 장군봉 부근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운모편암이며, 주변으로



〈사진 2〉 장군봉 전경

혼성편마암이 분포하고 있다. 혼성편마암으로 이루어진 구릉성 산지로 곳에 따라 석회규산암, 규암, 흑연편마암을 협재하고 있다. 장군봉 주변은 장군면내에서 비교적 경사가 급하나 능선부는 비교적 완만하다. 장군봉 주변으로 남북방향의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은룡천이 흐르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사진 3〉 무학봉 전경

(3) 무학봉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와 은용리에 걸쳐 있는 봉우리로 해발고도는 316.5m이다. 장군봉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다. 무학봉 부근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운모편암이며, 주변으로 혼성편마암이 분포하고 있다. 혼성편마암으로 이루어진 구릉성 산지로 곳에 따라 석회규산

암, 규암, 흑연편마암을 협재하고 있다. 무학봉 주변은 장군면내에서 비교적 경사가 급하나 능선부는 비교적 완만하다. 무학봉 주변으로 남북방향의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다. 북쪽과 남쪽으로는 3개소의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4) 계란봉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황골마을 뒷산 봉우리로 해발고도는 115.5m이다. 장군봉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다. 계란봉은 반상쇄층편마상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잔구성 구릉지로 마지막 북서~남동 방향의 능선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4〉 계란봉 전경



〈사진 5〉 국사봉 전경

(5) 국사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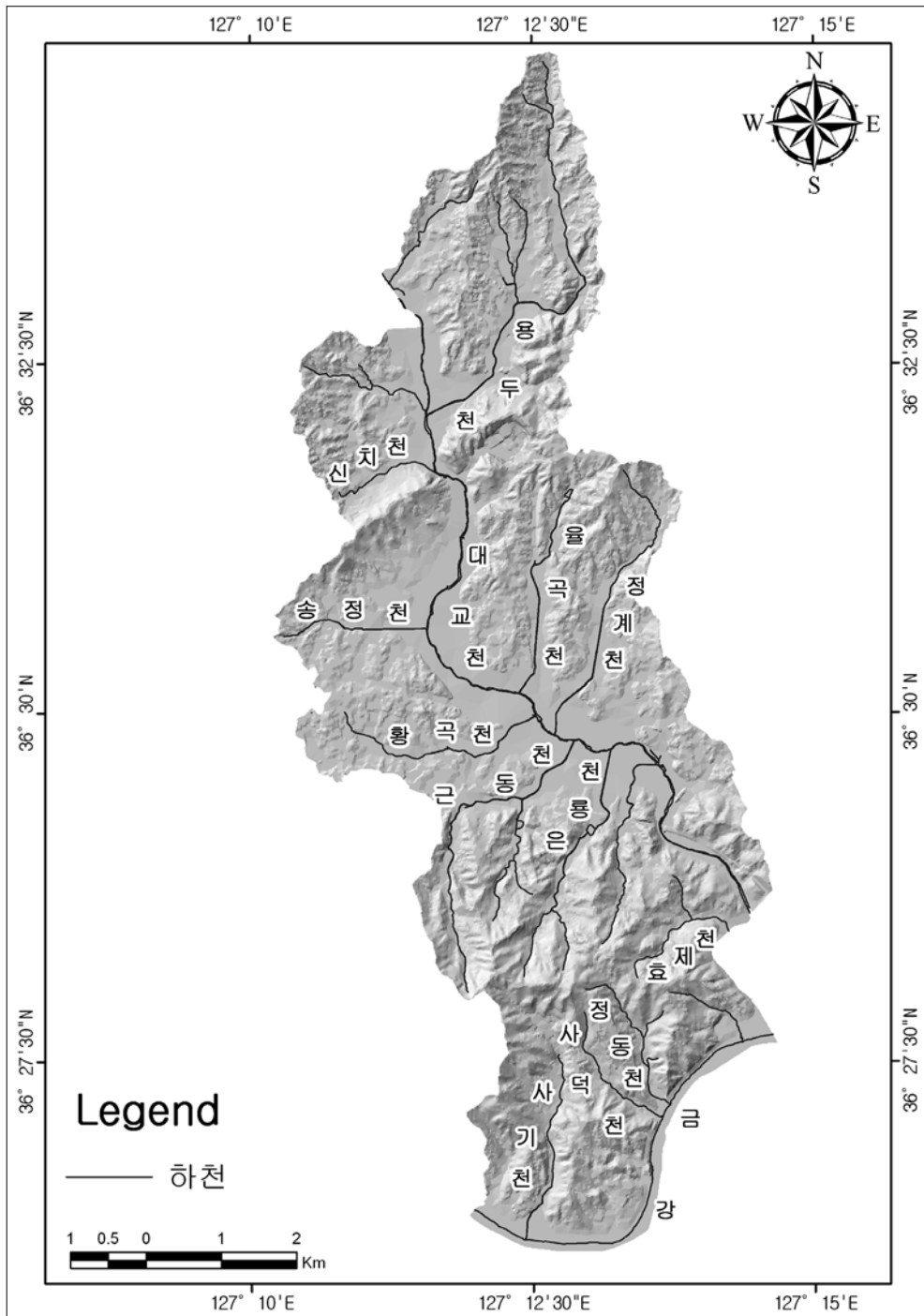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북동부에 위치하는 산으로 연기면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213.8m이다. 장군산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다. 선캠브리아기 화강암질편마암을 관입한 중생대 산성암맥이 차별침식을 받아 형성된 봉우리로 경사는 비교적 완만하다. 국사봉 주변으로는 남서방향 및 북동방향의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남서방향의 골짜기는 울곡천, 정계천을 이루고 있다.

2) 하천지형

하계(river system)는 하천의 본류와 지류 모두를 포함한 총칭으로 공통배출구를 가진 유로의 집합체를 말한다. 그리고 하나의 유역분지 내에서 본류 하천과 이에 합류하는 수많은 지류들로 이루어지는 하천의 망을 하계망(drainage network, channel network) 또는 수계망이라고 한다. 하계망의 패턴에는 크게 수지상 패턴(dendritic pattern), 직각상 패턴(rectangular pattern), 방사상 패턴, 격자상 패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계망은 유역분지의 지질·기후·식생 등의 영향을 예민하게 반영하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지형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일련의 하천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계망의 공간구조, 즉 하계망의 패턴(drainage pattern)은 지층의 경사, 암석의 경연, 지질구조, 지반운동 등 여러 지질적인 요인을 예민하게 반영한다. 따라서 하계망의 패턴에 관한 분석은 어떤 지역의 지형과 지질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장군면내에는 국가하천인 금강과 지방하천인 대교천, 용두천, 정계천, 울곡천, 은룡천, 신치천, 근동천, 송정천 등 9개의 하천이 존재한다. 면내를 통과하는 유로만 놓고 본다면 대교천이 가장 큰 하천이며, 송정천이 가장 작은 하천이다. 그러나 유역면적을 따지면 신치천이 1.66km²로 가장 작다(〈그림 10〉 및 〈표 5〉).



〈그림 10〉 장군면 하계망도

〈표 5〉 장군면 하천 현황

하천명	구분	하천연장(km)	유로연장(km)	유역면적(km ²)
금강	국가	360.7	397.79	9,912.15
대교천	지방	18.60	21.64	65.75
용두천	지방	2.50	6.50	7.05
정계천	지방	2.38	3.99	3.17
근동천	지방	2.40	3.98	3.71
은룡천	지방	1.45	2.79	2.33
신치천	지방	0.90	2.26	1.66
황곡천	지방	1.80	2.13	3.08
송정천	지방	1.30	1.97	2.32

※ 하천연장: 하천법령에 의한 하천의 시점과 종점간의 거리

※ 유로연장: 하천의 지형도상에 청색으로 표기된 구간의 최상류지점에서 하천 종점까지길이

(1) 금강

금강의 발원지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뒷산인 신무산의 뜯봉샘이다. 신무산에서 발원한 금강은 상류의 전라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북도 옥천군 등을 거쳐 중류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논산시 등을 지나, 하류의 충청남도



〈사진 6〉 금강 전경

서천군, 전라북도 익산시·군산시 등으로 흘러간다. 금강의 최상류부는 지방하천에 해당하며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호부터는 국가하천에 해당한다. 국가하천인 금강의 경우 하천 연장은 360.7km이고, 유로 연장은 397.79km이며, 유역면적은 9,912.15km²이다. 금강 기점의 계획상 홍수량은 1,520m³/s, 홍수위는 272.46EL.m, 하폭은 125m이고, 종점의 계획상 홍수량은 14,320m³/s, 홍수위는 4.62EL.m, 하폭은 1,715m이다. 장군면을 통과하는 금강의 총 길이는 약 7.15km이며, 면의 남부에 위치한 금암리를 통과한다.

장군면의 금암리는 대체로 반상쇄층편마상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잔구성 구릉지가 나타난다. 혼성편마암으로 이루어진 구릉성 산지로 곳에 따라 석회규산암, 규암, 흑연편마암을 협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질 구조 때문에 금강이 이를 침식하지 못하고, 비교적 침식이 약한 지질 구조선을 따라 무학봉 동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유로를 변경하여 흐르고 있다.



〈사진 7〉 대교천 전경

(2) 대교천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에서 발원하여 금암리에서 금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상류부에서는 해발고도 약 200m 지점을 흐르며, 중류부에서는 약 100m, 하류부에서는 약 40m 지점을 흐른다. 대교천은 공주시 의당면 북서부 지역의 덕학리에서 시작되어 의당면 중

부의 중흥리·가산리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의 송학리·용현리·송문리·평기리·도계리·대교리·봉안리·산학리를 거쳐서 금암리에서 금강으로 합류한다.

대교천의 하천 연장은 18.6km이고, 유로 연장은 21.64km이며, 유역 면적은 65.75km²이다. 대교천 기점의 계획상 홍수량은 140m³/s, 홍수위는 107.60EL.m, 하폭은 9m이며, 종점의 계획상 홍수량은 560m³/s, 홍수위는 24.13EL.m, 하폭은 200m이다.

대교천의 상류부인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에는 중흥저수지가 축조되어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송학리와 용현리 일대에는 송학들이 형성되어 있다. 송문리·도계리·평기리 일대는 평기앞들이, 그리고 은용리 일대에는 구레들이 형성되어 있다. 규모가 큰 충적평야에는 역시 큰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송학들의 학미·들말, 평기앞들의 벌터·송정·문성·회골·구셋골, 구레들의 장밭들·행정 등이 대표적인 마을들이다.

(3) 용두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용암리에서 발원하여 용현리에서 대교천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으로, 하천 연장 2.50km, 유로 연장 6.50km, 유역 면적 7.05km²이다. 용두천은 장군면 북동부에 위치하는 비교적 큰 하천으로 금강으로 유입되는 대교천의 지류이다. 해발고도 약 80m 곡간지에 비교적 대규모의 충적평야를 형성해 놓고 있는데, 용현리에 있는 송학들이 대표적이다. 송학들 주변으로 약 100~200m의 구릉성 산지들이 발달해 있고, 송학들의 용두천 연변에는 용대 등의 마을이 있다.



〈사진 8〉 용두천 전경



〈사진 9〉 정계천 전경

(4) 정계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국사봉에서 발원하여 대교천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으로, 하천 연장 2.38km, 유로 연장 3.99km, 유역 면적 3.17km²이다. 정계천은 장군면 중동부에 위치하는 비교적 큰 하천으로 금강으로 유입되는 대교천의 지류이다. 해발고도 약 60m의 곡간

지에 좁고 길다란 충적평야를 형성해 놓고 있다. 정계천의 상류부와 하류부는 비교적 평탄하여 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경사가 있는 중류부 주변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계천 주변 마을로는 독골, 정계, 구셋골, 강산소 등의 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5) 율곡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 1리 북쪽골짜기 저수지와 김종서 장군 묘역 앞에 흐르는 물이 진동 날(지네혈) 앞에서 만나 남쪽으로 흘러 대교천과 만나며 회동 부근에서 평기리와 경계를 이룬다. 율곡천은 상류 부근에서는 좁고 긴 형태의 충적평야를 보이다가 대교천과 만나는 지점에서 너른 들을 형성하고 있다.



〈사진 10〉 율곡천 전경

(6) 은룡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리 장군봉 북쪽골짜기에서 발원하여 구례들에서 대교천으로 흘러들며, 하천 연장 1.45km, 유로 연장 2.79km, 유역 면적 2.33km²의 지방하천이다. 장군면에 위치한 하천 중 발원지부터 합류점까지 유일하게 북류하는 하천으로 하천의 중류부에 은룡저수지가 축조되어 있다. 하천의 상류부 및 중류부는 좁고 길다란 곡저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류부는 경사가 완만하고 넓은 들인 구례들이 형성되어 있다.



〈사진 11〉 은룡천 전경



〈사진 12〉 신치천 전경

(7) 신치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송학리 종고개 부근에서 발원하여 송문리와의 경계부에서 대교천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으로, 하천 연장 0.90km, 유로 연장 2.26km, 유역 면적 1.66km²이다. 과거에는 몸치 앞들의 중앙부를 가로질러 흘렀으나, 현재는 남측 능선으로 유로가 변경되어 있다.

(8) 근동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군산 북쪽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북동류하다가 도계리와 경계부에서 대교천으로 흘러들어간다. 하천 연장 2.40km, 유로 연장 3.98km, 유역 면적 3.71km²의 지방하천이다. 근동천은 상류 부근에서는 좁고 긴 형태의 충적평야를 보이다가 대교천과 만나는 지점에서 비교적 너른 들을 형성하고 있다. 경사가 있는 상류부의 주변부는 주로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경사가 완만한 중·하류부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 13〉 근동천 전경

(9) 황곡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새뜸마을에서 발원하여 대교천으로 흘러들며, 하천 연장 1.80km, 유로 연장 2.13km, 유역 면적 3.08km²의 지방하천이다. 장군면의 중서부에 위치하는 하천으로 장군면소재지를 북쪽으로 관통한다. 황곡천의 상류부에는 하봉저수지가 축조되어 있으며, 하봉저수지의 용수는 대부분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 14〉 황곡천 전경

(10) 송정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송정리에서 발원하여 송문리 송문교 하류 약 100m 지점에서 대교천으로 흘러들며, 하천 연장 1.30km, 유로 연장 1.97km, 유역 면적 2.32km²의 지방하천이다. 유로연장에 비해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지역은 모두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행하며 대교천과 합류하였으나, 현재는 직강화 사업으로 대교천과 직교하며 유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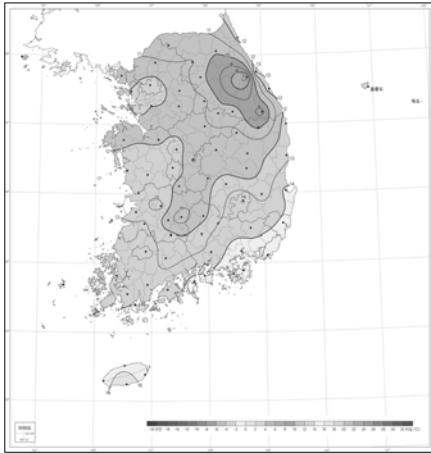
〈사진 15〉 송정천 전경

제3절 기후 및 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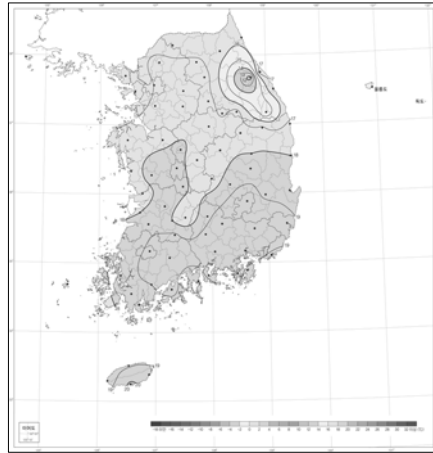
1. 기후

기후란 매일의 일기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평균한 대기의 특성과 현상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즉, 기후는 대상으로 하는 지역 또는 전구에 미치는 대기상태를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평균해서 유도되는 대기의 물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기상이란 기온, 습도, 운량, 강수, 기압, 바람, 폭풍 등과 같이 시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일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상과 기후의 특성 때문에 서양속담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후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기상이다’ 또는 ‘기후는 사람을 유혹하는 반면, 기상은 사람을 떠나게 한다’ 라는 표현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북반구의 극동지역에 위치하고, 온대성 기후에 속하여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겨울철에는 비교적 춥고, 여름철에는 무더운 날씨를 보여, 서유럽과 같은 중위도 국가의 계절변화와는 다른 기후형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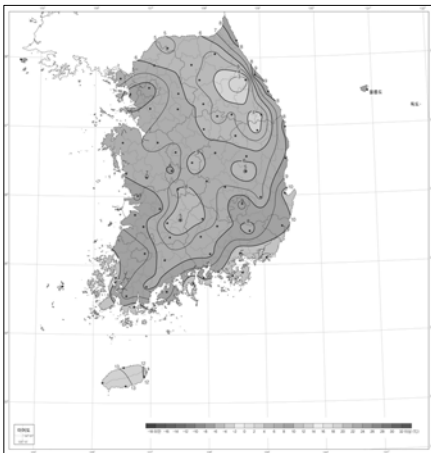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6.6~16.6℃ 분포로 지역차가 매우 큰 편이며, 산악지대를 제외하면 10~16℃이다.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로 16.6℃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의 대관령으로 6.6℃이다. 연중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의 평균기온은 25℃이고,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평균 기온은 -0.7℃이다. 연 강수량은 남부 지방이 1,500mm이고, 중부지방이 약 1,300mm 정도이다(〈그림 11~14〉). 계절적으로 연강수량의 약 50~60%가 여름에 내리고, 5~10%가 겨울에 내린다. 바람은 일반적으로 북서 계절풍이 남서 계절풍보다 강하고, 특히 12월에서 2월까지의 북서 계절풍이 강하게 나타난다. 9월과 10월은 남서 계절풍에서 북서 계절풍으로 바뀌는 계절이므로 바람은 대체로 약하고 해안 지방에는 해륙풍의 영향이 뚜렷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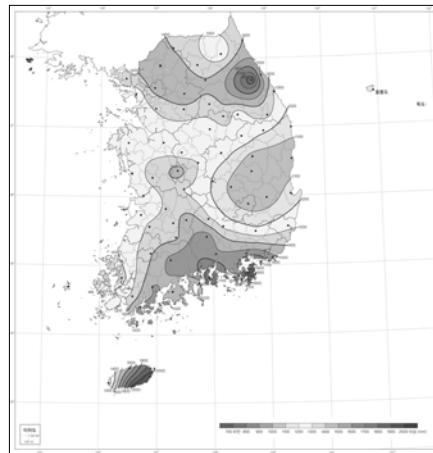
〈그림 11〉 연평균기온 분포도



〈그림 12〉 일최고기온 연평균 분포도



〈그림 13〉 일최저기온 연평균 분포도



〈그림 14〉 연평균 강수량 분포도

최소 10년 이상의 관측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군면과 가장 가까운곳에 자리하는 기상 관측소는 공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시행하는 이 지역의 공식적인 기상관측은 무인 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tation : AW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무인기상 관측소는 우성면의 농업기술센터와 정안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다양한 표는 공주시 우성면에 설치된 무인기상 관측소 자료 및 대전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1) 기온

장군면의 연평균최고기온은 25.5℃로 연평균기온 12.8℃보다 약 13.3℃ 정도 높게 나타나며, 연평균최저기온 8.0℃ 보다는 무려 17.5℃가 높게 나타난다(〈표 6〉). 이러한 차이는 계절별로 차이가 커서 가을철과 봄철에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차이가 적게 나타난다. 여름철은 일사량이 많고 낮의 길이가 길어서 충분히 가열된 후 야간에도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일교차가 적고, 겨울철은 일사량이 작고 낮의 길이가 짧아 아주 적게 가열되기 때문에 일교차가 적게 나타난다. 반면 봄철과 가을철은 적당히 가열되고 적당히 냉각되어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충남지역의 봄철 일 최고기온의 분포는 평균기온의 분포와 유사하지만 등온선의 간격은 다소 다르다. 평균기온의 등온선 간격은 내륙의 대도시 주변에서 밀집되어 나타나는 반면 최고 기온의 등온선은 서해안 주변에서 더 조밀하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의 도시화에 의한 기온 상승 현상이 최고 기온에서는 평균기온보다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 기온의 지역 간 차이가 서해안에서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낮 동안에 육지는 가열이 쉽게 되는데 비해 해양은 잘 가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여름철에도 잘 나타난다.

장군면의 봄철 최고 기온은 약 23.6℃로 봄철 평균 기온보다 약 5.5℃ 높게 나타나며, 여름철 최고기온은 약 29.3℃로 여름철 평균기온보다 약 5.1℃ 높게 나타난다. 여름철의 최고 기온도 평균기온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주변 지역보다 낮은 특성이 있다.

〈표 6〉 장군면의 연평균 및 월평균 기온(2003~2011년, 단위: °C)

년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3	11.7	-3.8	0.9	4.8	12.0	18.1	21.0	22.9	23.5	20.2	11.9	8.1	0.2
2004	13.9	-0.5	3.6	7.0	13.9	18.6	23.5	26.1	25.9	21.4	14.7	9.1	3.1
2005	12.4	-1.4	-0.9	4.7	13.6	17.3	22.7	25.4	25.1	22.1	14.2	8.3	-2.9
2006	13.1	0.3	0.9	6.1	11.7	18.5	22.3	23.1	26.7	20.0	17.1	8.8	1.5
2007	12.9	-0.2	3.3	6.3	11.0	17.9	22.7	24.6	26.5	21.4	14.4	5.8	1.5
2008	13.0	0.9	0.9	7.6	14.0	18.1	21.1	26.1	24.6	21.4	15.2	7.6	1.7
2009	12.8	-1.7	3.5	6.7	12.7	18.3	22.1	22.9	24.5	21.4	15.6	7.4	0.2
2010	12.7	-2.7	2.1	5.3	10.0	17.8	23.4	25.7	27.1	21.9	14.2	6.9	0.1
2011	13.0	-6.0	2.0	5.0	12.0	18.0	23.0	26.0	26.0	21.0	14.0	11.0	0.0
평균	12.8	-1.7	1.8	5.9	12.3	18.1	22.4	24.8	25.5	21.2	14.6	8.1	0.6

2) 강수량

장군면 지역에서는 연평균 약 1,447.3mm의 비가 내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이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 강수량(약 1,200~1,300mm)과 비교할 때 약 15%이상 높은 값이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우기인 여름철(6, 7, 8월)에 전체 강수량의 약 60% 이상이 내리고 있는데 장군면 지역도 유사하게 전체 강수량의 약 61%가 여름철에 발생하였다. 여름철 강수 중에서는 8월(293.8mm)보다 7월(397.0mm)에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장마에 의한 지속적 강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비가 가장 적게 내리는 달은 12월과 1월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동절기 가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름을 중심으로 5~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약 80% 이상이 내리고 강수량이 계절적으로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강수량의 계절적 편중이 해마다 경험하는 봄 가뭄, 식수 문제, 수질오염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다.

<표 7> 장군면의 연평균 및 월평균 강수량(2003~2011년, 단위: mm)

년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3	1,693.0	11.0	61.5	45.0	183.5	137.5	231.5	477.0	292.0	164.5	30.0	41.5	18.0
2004	1,466.0	14.2	37.2	46.9	72.0	132.8	325.5	322.4	234.4	188.8	4.9	50.2	36.7
2005	1,656.1	6.0	37.5	38.8	48.5	60.5	209.6	463.3	499.5	226.4	30.5	20.3	15.2
2006	1,195.2	31.2	33.1	8.1	94.2	119.7	131.0	531.0	113.6	24.1	19.3	60.0	29.9
2007	1,525.0	15.0	33.0	121.0	27.0	131.0	128.0	287.0	235.0	470.0	42.0	16.0	20.0
2008	1,037.6	45.3	9.1	29.1	34.4	59.2	148.3	253.4	325.2	85.5	19.6	12.1	16.4
2009	1,090.4	15.4	27.5	60.3	34.5	124.3	87.3	429.2	148.3	46.0	24.7	54.7	38.2
2010	1,419.7	46.4	81.5	100.1	88.5	117.6	65.6	223.1	376.4	250.5	17.9	16.4	35.7
2011	1,943.0	4.0	45.0	19.0	71.0	162.0	392.0	587.0	420.0	92.0	37.0	103.0	12.0
평균	1,447.3	20.9	40.6	52.0	72.6	116.1	191.0	397.0	293.8	172.0	25.1	41.6	24.7

3) 상대습도

상대습도는 단위부피의 공기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의 질량과 그 온도에 대응하는 포화수증기밀도와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상대습도는 기온과 반대로 새벽에 극대가 되고 오후에 극소가 된다. 연변화는 일변화만큼 뚜렷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높고 겨울철에 낮다.

장군면 지역의 연평균 상대습도는 66.6% 정도이며, 상대습도가 가장 높은 계절은 여름철로 7월 평균 상대습도가 79.0%에 달한다. 반면 상대습도가 가장 낮은 계절은 겨울철로 1월평균 상대습도는 63.7%이다(〈표 8〉).

〈표 8〉 장군면의 연평균 및 월평균 상대습도(2003~2011년, 단위: %)

년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3	75.5	69.6	69.5	64.1	77.4	69.9	76.9	86.2	87.4	84.5	73.0	77.6	69.9
2004	64.0	63.0	56.0	50.0	49.0	65.0	63.0	77.0	73.0	73.0	63.0	69.0	61.0
2005	63.0	56.0	53.0	53.0	50.0	57.0	68.0	76.0	78.0	74.0	71.0	60.0	63.0
2006	67.0	65.0	60.0	51.0	60.0	64.0	69.0	85.0	75.0	70.0	69.0	65.0	70.0
2007	73.1	72.2	67.7	68.5	60.8	67.8	69.6	80.3	81.3	82.9	75.4	72.3	78.6
2008	63.4	61.1	49.1	54.0	53.2	57.0	68.1	75.1	72.2	71.8	71.2	66.0	61.5
2009	63.0	60.3	61.3	54.2	52.4	57.9	63.1	76.3	71.3	68.5	64.0	66.7	65.8
2010	66.3	66.0	63.0	62.0	55.0	60.0	62.0	75.0	79.0	77.0	70.0	60.0	66.0
2011	64.0	60.0	60.0	49.0	53.0	60.0	66.0	80.0	78.0	70.0	68.0	67.0	60.0
평균	66.6	63.7	60.0	56.2	56.8	62.1	67.3	79.0	77.2	74.6	69.4	67.1	66.2

4) 바람

바람은 기후와 날씨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압의 수평·수직 경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의 분포는 기압의 분포와 밀접하다. 지표 부근에서 바람은 일반적으로 저기압과 고기압의 주변부에서 분다. 저기압의 경우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불고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분다. 고기압 중심에서의 풍계는 위와 반대 방향이다.

기온이나 강수량과 같은 다른 기상요소와 달리 월평균 풍속은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풍속도 다른 해안가 지역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관측소가 내륙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 중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계절은 봄철로 4월로 평균풍속이 약 2.2m/s이며, 가장 약하게 부는 계절은 가을철로 10월 평균풍속이 약 1.4m/s이다. 순간 최대풍속도 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10월에 바람이 가장 약하고(12.3m/s), 8월에 강하게(15.6m/s) 불고 있다(〈표 9〉).

〈표 9〉 장군면의 월별 바람 특성(2003~2011년, 단위: m/s)

요소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풍속	1.8	1.6	1.7	2.1	2.2	2.1	1.9	1.9	1.8	1.8	1.4	1.6	1.5
최대풍속	9.4	6.4	7.4	7.1	7.5	7.0	7.8	6.4	7.0	6.6	5.7	6.8	6.2
순간최대풍속	17.2	13.5	12.8	14.1	14.8	13.7	13.6	13.2	15.6	12.5	12.3	14.2	12.7

2. 토양

1) 토양의 모재 및 분류

(1) 토양의 모재

토양의 특성은 토양 광물에 포함된 여러 가지 물질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암석의 혼합물로부터 생성되었거나 생성되고 있는 토양을 토양모재라 한다. 토양모재는 기반암과 풍화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풍화된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고 원위치에 그대로 잔적하여 이루어진 잔적성 모재나 우수·동력·빙하·바람·파랑·연안류 등에 의하여 풍화된 장소에서 멀리 운반되어 생성된 운적성 모재로 이루어져 있다. 토양의 모재는 토양생성 인자 중 토양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 모재의 특성 및 풍화환경의 저항정도 등에 따라 토양특성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표 10〉).

〈표 10〉 모재별 토양특성

모재	생성과정	분포지형
잔적층 모재	모암이 풍화되어 원위치에 생성	저구릉, 구릉 및 산악지
붕적층 모재	중력에 의한 운반퇴적	산록경사지
충적층 모재	물에 의한 운반퇴적	선상지, 하성충적지, 하해혼성충적지
화산회 모재	화산 분출	용암류대지, 분석구
유기질 모재	식물잔해의 집적	이탄, 흑니

잔적층을 모재로 한 토양의 특성은 모암에 따라 다르다. 모재는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아 토양 생성과정에 있는 것으로 암석의 종류에 따라 토양의 특성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토양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 즉 지질을 보면, 신생대 제3기에

속하는 암석은 미고결의 사암, 혈암, 역암으로 분포면적은 매우 적어 전국 지질 분포의 1.5%를 점유하며, 동해, 남부에 분산 분포되어 있다. 경상계는 경상북도에 넓게 분포되며 기타 지방은 적은 면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 속하는 낙동층군의 암석은 혈암, 사암, 역암이며 신라층군은 안산암, 현무암, 유문암 및 응회암으로 되어 있다. 신라층군에 속하는 암석에서 유래된 토양은 비교적 세립질이며 토심이 깊고 발달이 좋은 토양도 있으나 일부 토양은 암석이 노출된 토양이다. 사암 및 역암에서 유래된 잔적층을 모재로 한 토양은 비교적 조립질이며 담색을 띠고, 혈암에서 유래된 토양은 암석의 풍화정도에 따라 토심이 깊고 토양발달이 좋은 적색 식질계 토양과 토심이 얇고 자갈 혹은 암석이 노출된 토양이 있다.

조선계에 속하는 주요 암석은 석회암이며 강원도(충북 및 경북 일부)에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다. 석회암에 유래된 토양은 세립질이며, 토심이 비교적 얇으며 담색을 띤다. 변성퇴적암류는 가장 오래된 암석으로 경기 연천지방의 운모편암, 천매암, 석회암, 규암, 각섬암, 사암 및 점판암 등이다. 운모편암에서 유래된 토양은 토양 중 운모함량이 많으며, 토심은 보통이고 적색 혹은 갈색을 띤다. 점판암 및 천매암에서 유래된 토양은 비교적 세립질이고 자갈을 많이 함유한 토양으로 암갈색을 띤다.

현무암은 주로 제주도에 분포하며 현무암에서 유래된 토양은 비교적 세립질로 토심이 보통이고 암황갈색을 띤 토양들이 많다. 불국사화강암 및 대보화강암 등 화강암에서 유래된 토양은 일반적으로 조립질 토성이고 토심은 보통이며 갈색토양이나 일부는 풍화가 심하게 되어 조립질 토성으로 토심이 깊은 적색 토양도 있다. 염기성 심성암은 산청, 하동, 함양의 일부지역에 분포하며 이를 모재로 한 토양은 세립질로 토심이 깊고 적색을 띤다.

잔적층을 모재로 한 토양은 토성이 비교적 세립질이고 토심이 얇으며 토양 단면은 약간 담색을 나타내고 있다. 운적층을 모재로 한 토양은 다양한 입경을 보이고 잔적층 모재에 비해 토심이 깊다.

(2) 토양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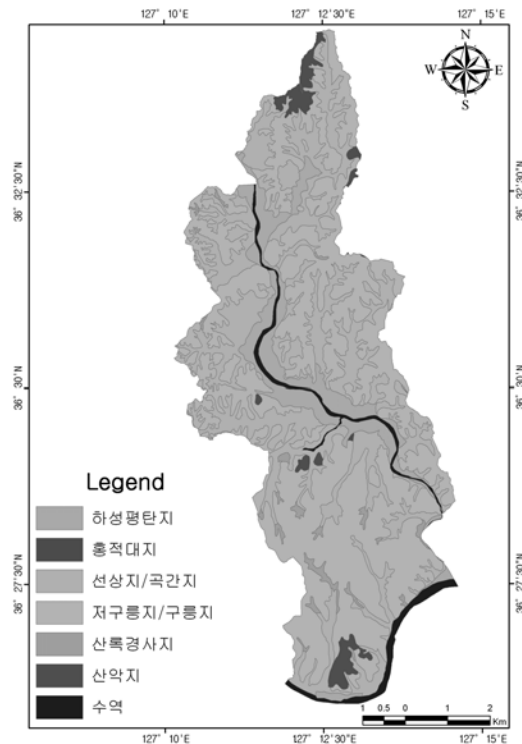
토양분류란 토양의 특성과 이들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양을 종류별로 정리한 것이며 국가마다 각각 분류방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48년부터 미국에서 설정한 구분류 방법을 사용하여 오다가 1975년부터 미국의 토양분류법(soil taxonomy)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현재 토양분류는 이러

한 신분류법에 의하여 분류하고 구분류에서 사용하는 대토양군도 병기하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토양생성발달의 정도와 특징에 따라 목(目: order), 기후와 수분상태에 따라 아목(亞目: suborder)으로 구분하고, 다시 대군(大群: great group), 아군(亞群: subgroup), 속(屬: textural family), 통(統: soil series)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분된 국내의 토양은 문헌이나 각종 매체에 따라 다르지만 국립농업과학원 기준으로 7개의 목과 14개의 아목 그리고 27개의 대군과 약 390개의 토양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장군면의 지형특성에 따른 토양 종류 및 분포

토양은 지역에 따라 모양이 다르고 기후나 지형, 식생, 시간 등 각기 다른 환경에 따라 형성되는 토양의 성질도 다양하다. 장군면의 토양은 지형특성에 따라 하성평탄지, 홍적대지, 선상지/곡간지, 저구릉지/구릉지, 산록경사지, 산악지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분포지역은 다음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장군면의 지형특성에 따른 토양분류 및 분포

(1) 하성평탄지 토양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하천만의 퇴적물로 형성된 토양으로 농업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양이다. 이 토양은 소하천변이나 큰 강변을 따라 2% 미만의 경사를 가진 지역에 분포하는데 이러한 지역을 하성평탄지라고 한다. 특히 한국의 4대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 토양은 하성 충적층을 모재로 한 사양토로 배수는 약간 불량하며 토심이 깊다. 표토는 회색, 암회색, 암회갈색 및 회갈색의 양토 또는 미사질양토이며 심토는 황갈색, 진갈색 혹은 황적색의 반문이 있는 올리브회색, 암회색 혹은 회갈색의 세사양토, 극세사양토, 미사질양토 혹은 양토이다. 기층은 황갈색 또는 진갈색의 반문이 있는 회색, 명회색, 회갈색 혹은 암회갈색의 세사양토, 극세사양토, 사양토이며 점토함량은 18%미만이다.

장군면 내에서는 대교천 주변과 금강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장군면내의 하성평탄지의 면적은 4.68km² 정도이다.

(2) 홍적대지 토양

홍적대지 토양은 홍적세(플라이스토세)의 홍수에 의하여 운반 퇴적된 토양으로 이들 토양이 분포하는 지역을 홍적대지라 한다(한국토양총설, 1992). 하천에 의해 형성된 하성평탄지 보다 비교적 높은 대지에 적색, 황갈색 또는 황갈색을 띠는 세립질 적황색 토양들이 분포한다. 홍적세에는 빙기가 수차 내습하였으며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는 온난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들 기후의 영향을 받아 적황색토가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적층을 모재로 한 식질토양이고 배수가 약간 양호하며 토심도 깊다. 표토는 밭으로 이용할 경우 황갈색 또는 암황갈색의 미사질양토 혹은 미사질식양토이며 논으로 이용될 경우 회갈색, 암회갈색으로 황갈색의 반문이 있다. 심토의 점토 집적층은 진갈색 내지 황갈색의 미사질식양토 또는 미사질식토로 흑색의 망간결핵이 있다. 심토 하부층은 황갈색, 암황갈색, 갈색혹은 암갈색의 식양토 혹은 미사질양토이고 기층은 황갈색 혹은 갈황색의 미사질양토, 미사질식양토 혹은 미사질식토이다.

장군면에서는 대교천과 은룡천이 만나는 은용리 일대에 일부 분포하고 있으며, 분포면적은 약 0.02km²이다.

(3) 선상지 및 곡간지 토양

한국의 내륙에는 수많은 저구릉, 구릉 및 산악지가 있으며 구릉지와 산악지 사이에는 곡간지가 발달되어 있고 이들 사이에는 대소 하천이 있으며 하구에는 부채꼴 모양의 선상지가 분포되어 있다.

장군면 내 저구릉지 사이의 곡간지에 분포하는 이 토양은 식양질 및 사양질토로 배수가 양호하고 토심이 깊다. 주로 논과 밭,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장군면 내의 구릉지 사이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선상지 및 곡간지 토양의 분포 면적은 16.11km²이다.

(4) 저구릉지/구릉지 토양

한국의 서부와 남부지역에는 해발 300m 이하이고, 경사 30% 미만인 완만한 저구릉 및 구릉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저구릉 및 구릉지에 분포하고 있는 토양은 각 암석의 풍화 잔적물을 모재로 하여 생성된 토양이며 산지개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릉지 토양은 화강암과 편마암, 편암의 풍화물을 모재로 한 토양으로 식양질 또는 식질토양으로 배수가 양호하고 토심은 보통이다. 표토는 갈색 내지 암갈색 혹은 암황갈색의 양토이며, 심토는 황적색, 적갈색, 적색 혹은 암적색의 식양토나 양토이다. 기층은 진갈색, 황적색 또는 적색의 화강편마암 및 편암의 풍화잔적물인 양토, 사양토 혹은 미사질양토이다.

구릉지 토양은 장군면 내 전 지역에 가장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며, 그 분포 면적은 28.82km²이다. 본 토양의 토지이용은 주로 과수원이나, 초지, 임지로 이용되고 있다.

(5) 산록경사지 토양

한국은 지형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릉지와 산악지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구릉 및 산악지 하부에는 중력에 의하여 붕적 퇴적된 토양이 경사도 30% 이하의 산록지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분포하고 있다.

산록경사지 토양은 산성암 및 중성암의 풍화물을 모재로 한 토양으로 식질 및 사력질 토양으로 배수가 양호하고 토심은 보통이다. 표토는 전 작물재배지에서 갈색, 암갈색, 암황갈색 및 담갈색의 자갈이 있는 양토 또는 사양토이며, 심토는

황갈색, 진갈색 및 암황갈색의 자갈 및 잔돌이 있는 양토 또는 식양토로 약간의 점토 피막이 있는 반각 괴상구조이며 기층은 황갈색, 감갈색 및 갈색의 자갈 및 잔돌이 많은 양토 또는 식양토로 약간의 혼층을 이룬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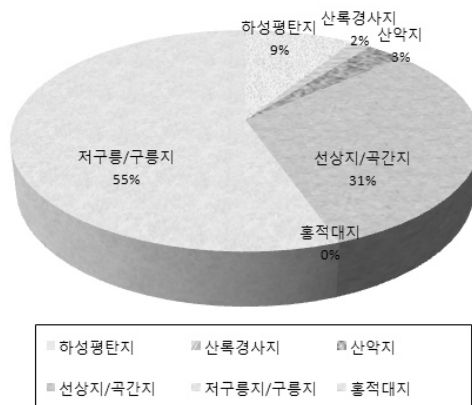
산록경사지 토양은 장군면의 남부 및 북서부인 금암리와 은용리, 송학리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송문리와 평기리, 산학리에 일부 분포하고 있다. 토지이용은 밭과 초지이며, 장군면 내 본 토양의 분포면적은 0.83km²이다.

(6) 산악지 토양

산악지란 험준하고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한 지형을 의미한다. 한국의 동부는 서부와 남부에 비하여 산악지가 많이 분포하는데 경사가 완만한 고원지 토양은 해발고도가 높으므로 산악지에 포함된다.

장군면내 산악지 토양은 화강편마암의 잔적토, 운모가 있는 편암 및 퇴적암의 풍화물을 모재로 한 식양질의 토양으로 배수가 매우 양호하고 토심은 보통이다. 표토는 갈색 내지 암갈색 또는 갈색의 판상 자갈이 있는 양토 또는 미사질양토이다. 심토는 황적색, 적황색, 적갈색, 암적갈색 또는 적색의 판상자갈이 많은 양토, 미사질양토 또는 사질식양토이다. 기층은 황적색 및 진갈색의 판상자갈이 많은 사양토 또는 양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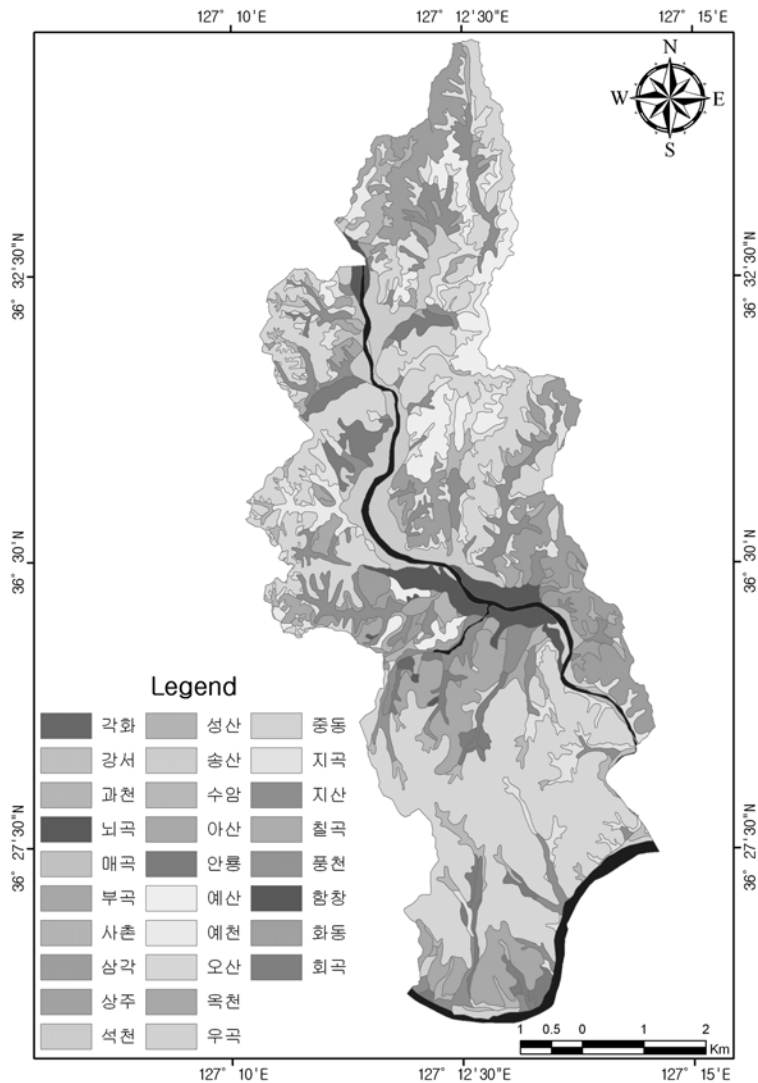
산악지 토양은 장군면 남부의 금암리와 북부의 태산리·용암리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토지이용은 초지이며, 분포면적은 1.58km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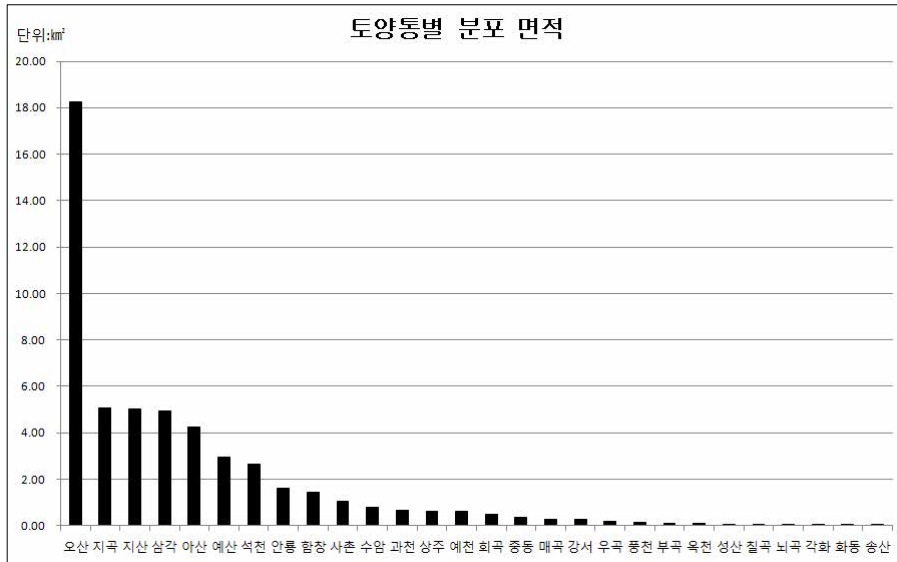
〈그림 16〉 장군면의 토양 종류별 면적비율

3) 장군면의 대표 토양통

장군면에 분포하는 토양통은 총 30개이며,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양통은 아산통으로 면적이 18.24km²에 달하며 장군면 전 지역의 저구릉지 및 구릉지에서 관찰되고 있다(〈그림 17〉). 또한 면적이 1km² 이상인 토양통은 지곡통(5.06km²), 지산통(5.02km²), 삼각통(4.94km²), 아산통(4.24km²), 예산통(2.97km²), 석천통(2.64km²), 안룡통(1.61km²), 함창통(1.43km²), 사촌통(1.04km²) 등이다(〈그림 18〉).



〈그림 17〉 장군면 토양통별 분포지역



〈그림 18〉 장군면 토양통별 분포 면적

(1) 오산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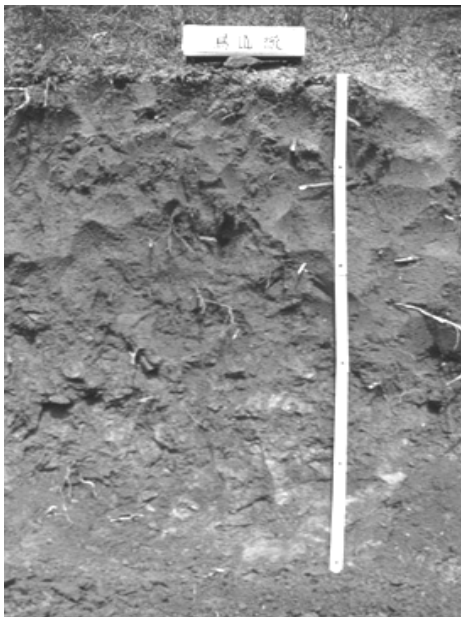
오산통은 사양질계 적황색토로서 미농무성의 새로운 분류방법에 의하면 coarse loamy, mesic family of Typic Dystrudepts에 속한다. 이 토양의 표토는 진갈색의 자갈이 있는 양토이며 심토는 토심이 보통인 발달이 약한 심토층을 가진 황적색의 자갈이 있는 양토이다. 기층은 잡색인 진갈색 혹은 황적색의 화강암의 풍화 모질물인 자갈이 있는 사양토이다. 토양의 모재는 화강편마암, 운모가 있는 편암과 편암의 잔적층으로서 주로 구릉지나 산악지에 분포하며, 경사는 7~60% 범위이나 주로 15~30% 이다.

토심은 50~100cm 범위이고 암반까지의 깊이는 2m 이상이다. 전단면에 소 내지 중인 백색 및 황색의 운모가 있으며 염기포화도는 비교적 다양하나 60% 이하이다. 토양반응은 강한 산성내지 약한 산성이다. 표토는 10~20cm 두께이며 진갈색의 10~35% 정도의 자갈 및 잔돌이 있는 양토, 미사질양토, 사양토 혹은 양토이다. 침식된 곳은 표토의 두께가 10cm 이하로 황적색이다. 약하게 발달된 심토는 황적색, 적갈색, 적색 내지 암적색의 10~35% 정도의 자갈 및 잔돌이 있는 양토 혹은 미사질양토이다. 기층은 진갈색, 황적색 혹은 적색의 화강암 풍화모질물로 15%~30% 자갈 및 잔돌이 있는 사양토 혹은 양토로 토심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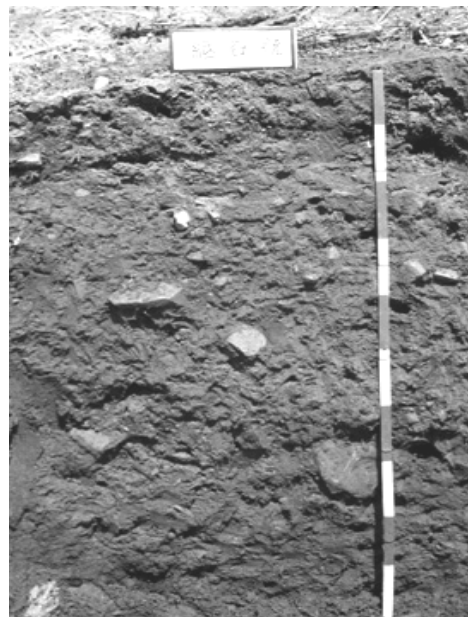
(2) 지곡통

지곡통은 사양질계 퇴적토로서 미농무성의 새로운 분류방법에 의하면 coarse loamy, mixed, mesic family of Typic Dystrudepts에 속한다. 이 토양의 표토는 갈색의 자갈이 있는 사양토이고 심토는 황갈색의 자갈이 있는 사양토이며 기층은 황갈색의 자갈이 있는 조사양토이다. 토양의 모재는 산성암 충전봉적층으로 산록경사지 및 저구릉지에 분포하며, 경사의 범위는 2~30% 범위이나 주로 2~7% 이다

토심은 50~100cm 범위이며 암반까지는 일반적으로 2m 이상이다. 전 층에 약 10~35%의 자갈이 있으며 염기포화도는 50% 이하이다. 토양반응은 강한 산성 내지 약한 산성이며 표토는 두께가 20cm 정도이고 갈색 내지 암갈색 또는 암황갈색의 자갈이 있는 사양토, 양토, 미사질양토 또는 조사양토이다. 심토는 명황갈색, 황갈색, 암황갈색 또는 진갈색의 자갈이 있는 사양토 또는 조사양토이며 기층은 갈색, 황갈색 또는 갈황색의 자갈이 있는 사양토, 조사양토, 양질사토 또는 양질조사토이다.



〈사진 16〉 오산통 대표토양의 단면
출처: 농촌진흥청 한국토양정보시스템



〈사진 17〉 지곡통 대표토양의 단면
출처: 농촌진흥청 한국토양정보시스템

(3) 지산통

지산통은 식양질계 회색토로서 미농무성의 새로운 분류방법에 의하면 fine loamy, mixed, mesic family of Fluvaquentic Endoaquepts에 속한다. 이 토양은 표토가 암갈색의 양토로 두께는 약간 두껍고 심토는 황갈색 및 황적색의 반문이 있는 회갈색의 식양토로 두께는 매우 두꺼우며 기층은 반문이 적고 장소에 따라 자갈이 약간 있는 암회색의 양토이다. 이 토양은 화강암, 안산암질반암 및 이들과 유사한 암석에 기인된 산성암 충적층을 모재로 한 토양이며 매우 약한 경사의 곡간과 선상지에 분포하며, 경사는 2~30% 범위이고 주경사는 2~7% 이다.

토심은 75~125cm 범위이며, 암반까지의 깊이는 3m 이상이다. 염기포화도는 60% 이상이고, 토양반응은 약한 산성 내지 매우 약한 산성이며 운모가 있다. 표토는 20~30cm의 두꺼운 토양 두께로 덮여 있으며, 황적색, 진갈색 또는 황갈색 반문이 있는 회갈색, 암회갈색, 명회색 및 회색의 미사질양토, 양토, 식양토 또는 미사질양토이다. 심토는 50~100cm의 매우 두꺼운 토양 두께를 갖고, 황갈색, 적색, 진갈색, 황갈색 및 적갈색 반문이 있는 회색, 회갈색, 암회갈색, 농암회갈색 또는 올리브회색의 양토, 식양토 및 미사질식양토이다. 기층은 반문이 있는 회색 회갈색, 농암회갈색 또는 암갈색의 미사질식양토, 양토 또는 양질사토로 혼층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층에서는 자갈이 나타난다.

(4) 삼각통

삼각통은 사양질계 암쇄토로서 미농무성의 새로운 분류방법에 의하면 coarse loamy, mesic family of Typic Distudepts에 속한다. 이 토양의 표토는 갈색의 사양토이고 심토는 진갈색이나 황갈색의 사양토이며 기층은 매우 두꺼운 갈황색의 풍화모질물인 사양토 내지 양질사토이다. 토양의 모재는 화강암의 잔적층으로 구릉지 및 산악지에 분포하며, 경사는 7~100%의 범위이나 주로 30~60% 이다.

토심은 일반적으로 50cm 이하이고 30~75cm 범위이며 암반까지의 깊이는 보통 2m 이상이다. 염기포화도는 보통으로서 그 범위는 좁으며 토양반응은 강한 산성 내지 약한 산성이다. 이 토양단면 전체에 작은 각괴상 석영입자가 있으며 운모도 있다. 일반적으로 암반층의 노출은 없으나 등근 바위나 바위가 어떤 지형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층은 없으나, 있는 경우 5~15cm로서 갈색 내지 암

갈색의 사양토나 세사양토이다. 침식된 지역은 암황갈색, 황갈색 혹은 담갈색이다. 유사심토는 20~50cm 로서 색상 10YR 이나 7.5YR인 적황색, 명갈색, 진갈색, 갈색이나 황갈색인 20% 미만의 작은 석영입자와 발달이 약한 괴상구조를 가진 사양토, 조사양토 및 양토이다. 기층은 주로 담갈색, 명갈색 혹은 명황갈색의 사양토, 조사양토, 양질조사토로서 그 두께는 매우 두꺼우며 심히 풍화된 화강암의 풍화모질물이다. 기층에는 종종 둥근 바위가 있다. 암반층상의 기층의 층계는 매우 점변하고 파상 혹은 불규칙상이다.



〈사진 18〉 지산통 대표토양의 단면
출처: 농촌진흥청 한국토양정보시스템



〈사진 19〉 삼각통 대표토양의 단면
출처: 농촌진흥청 한국토양정보시스템

(5) 아산통

아산통은 식양질계 적황색토로서 미농무성의 새로운 분류방법에 의하면 fine loamy, mesic Family of Typic Dystrudepts에 속한다. 이 토양의 표토는 적갈색의 자갈이 있는 양토이고 심토는 적색의 자갈이 있는 식양토이며 기층은 황적색의 자갈이 있는 사양토이다. 토양의 모재는 화강편마암, 편암, 운모가 많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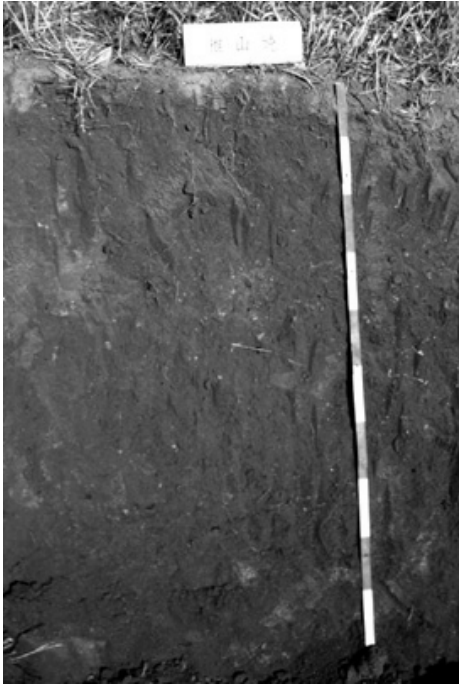
암 및 유사한 모재의 잔적층으로서 저구릉지나 구릉지에 분포하며, 경사는 2~60%의 범위이나 주로 7~15% 이다.

아산통에는 약 10~30%의 화강편마암 및 편암의 자갈 및 잔돌이 전단면에 있다. 염기포화도는 60% 이하이며, 토양반응은 매우 강한 산성 내지 강한 산성이다. 표토는 10~20cm 두께로 갈색 내지 암갈색 혹은 암황갈색의 양토이며, 침식된 곳은 10cm 이하의 두께로 적색, 황적색, 적갈색, 적색 혹은 암적색의 20~30% 정도의 점토가 있는 식양토 혹은 양토이다. 발달이 약한 심토는 황적색, 적갈색, 적색 혹은 암적색의 식양토나 양토로 점토함량이 20~30%정도 된다. 기층은 토심이 보통인 진갈색, 황적색 또는 적색의 화강편마암 및 편암의 풍화잔적물인 양토, 사양토 혹은 미사질양토이다.

(6) 예산통

예산통은 사양질계 적황색토로서 미농무성의 새로운 분류방법에 의하면 coarse loamy, mixed, mesic family of Typic Dystrudepts에 속한다. 이 토양의 표토는 갈색이나 암갈색의 양토이고 심토는 약하게 발달된 층위를 가지며 황적색이나 적색의 사양토이다. 기층은 매우 깊은 적황색의 조립질 화강암의 풍화모질물의 사양토나 양토이다. 토양의 모재는 화강암의 잔적층으로서 구릉지나 저구릉지에 분포하며, 경사는 7~60% 이나 대부분 7~30% 이다.

토심은 50~100cm 범위이고 암반까지의 깊이는 3~10m 범위이다. 염기포화도는 60% 이하이며 토양반응은 매우 강한 산성 내지 강한 산성이다. 전단면에 백운모와 흑운모가 있고 또 석영입자도 있으며 점토함량은 18% 이하이다. 표토는 10~25cm 두께로 갈색이나 암갈색의 양토, 미사질양토 또는 세사양토이다. 침식된 곳은 표토가 10cm 이하의 두께로서 황적색의 사양토, 세사양토, 양토, 또는 미사질양토이다. 심토는 토층의 발달이 약한 황적색, 적갈색, 적황색 및 적색의 사양토, 양토, 미사질양토이다. 심토는 황적색, 적황색, 담갈색, 적색이나 적갈색의 잡색이며 혼합색은 적황색이다. 기층은 명적색, 적색, 진갈색 혹은 황적색의 사양토, 양토, 미사질양토 및 양질세사토로서 토심은 매우 깊고 심하게 풍화된 화강암 모재이다.



〈사진 21〉 아산통 대표토양의 단면
출처: 농촌진흥청 한국토양정보시스템



〈사진 21〉 예산통 대표토양의 단면
출처: 농촌진흥청 한국토양정보시스템

(7) 석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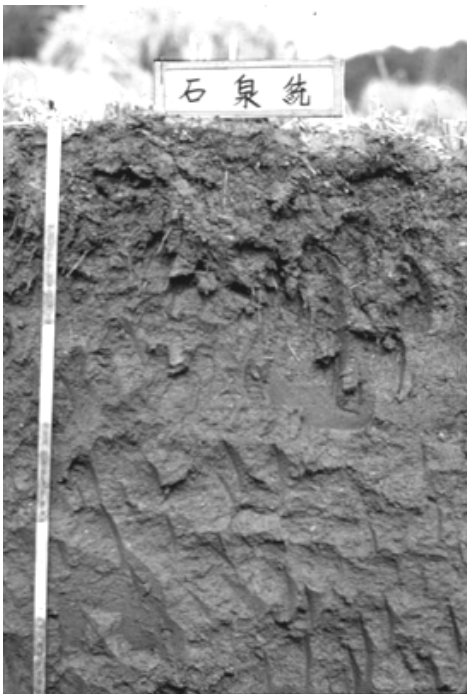
석천통은 사양질계 회색토로서 미농무성의 새로운 분류방법에 의하면 coarse loamy, mixed, nonacid, mesic family of Fluvaquentic Endoaquepts에 속한다. 이 토양은 표토가 회색 혹은 회갈색의 미사질양토이다. 심토는 암회색의 미사질양토이고 기층은 회색의 사양토이다. 이 토양은 하성층적층을 모재로 한 하성평탄지에 분포하며 경사는 2% 미만이다.

토심은 50~100cm 범위이며 토양반응은 강한 산성 내지 약한 산성이고 염기포화도는 60% 이상이다. 표토는 회색, 암회색, 암회갈색 및 회갈색의 양토 또는 미사질양토이며 심토는 황갈색, 진갈색 혹은 황적색의 반문이 있는 올리브회색, 암회색 혹은 회갈색의 세사양토, 극세사양토, 미사질양토 혹은 양토이다. 기층은 황갈색 또는 진갈색의 반문이 있는 회색, 명회색, 회갈색 혹은 암회갈색의 세사양토, 극세사양토, 사양토이며 점토 함량은 18% 미만이다.

(8) 안룽통

안룽통은 식양질계 적황색토로서 미농무성의 새로운 분류방법에 의하면 fine loamy, mesic family of Typic Hapludalfs에 속한다. 이 토양의 표토는 암갈색의 자갈이 있는 양토이고, 심토는 암황갈색의 자갈이 있는 양토이며 기층은 암황갈색의 자갈이 많은 양토이다. 토양의 모재는 산성암 및 중성암이며 산록경사지에 분포하며, 경사는 2~30% 범위이나 주로 7~15% 이다.

토심은 50~100cm 범위이며 암반까지의 깊이는 3m이상이다. 염기포화도는 전층을 통해 60% 이상이다. 표토와 심토에 약간 풍화된 자갈, 잔돌 및 돌이 10~35% 정도가 있으며 기층에는 35% 이상이다. 표토는 15~25cm 이며 전작물 재배지에서 갈색, 암갈색, 암황갈색 및 담갈색의 자갈이 있는 양토 또는 사양토이다, 심토는 황갈색, 진갈색 및 암황갈색의 자갈 및 잔돌이 있는 양토 또는 식양토로 약간의 점토피막이 있는 반각괴상구조이며 기층은 황갈색, 담갈색 및 갈색의 자갈 및 잔돌이 많은 양토 또는 식양토로 약간의 혼층을 이룬 곳도 있다.



〈사진 22〉 석천통 대표토양의 단면
출처: 농촌진흥청 한국토양정보시스템



〈사진 23〉 안룽통 대표토양의 단면
출처: 농촌진흥청 한국토양정보시스템

(9) 함창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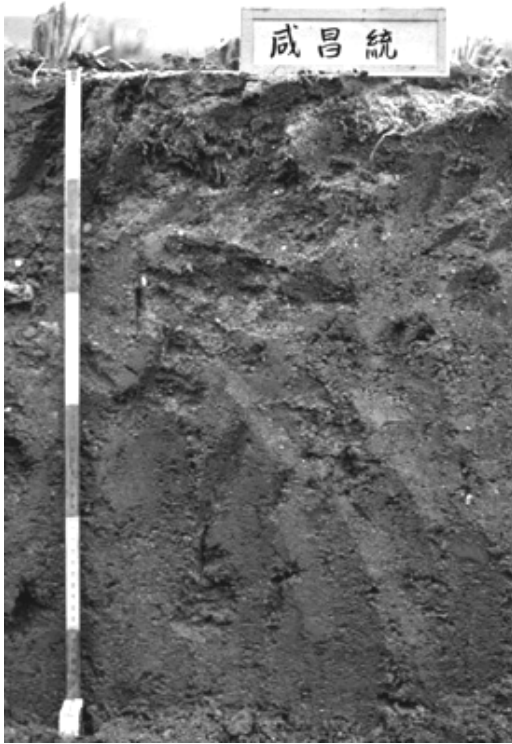
함창토는 사양질계 회색토로서 미농무성의 새로운 분류방법에 의하면 coarse loamy, mixed, mesic family of Typic Endoaquepts에 속한다. 이 토양은 표토가 암회갈색의 미사질양토이고 심토는 암회색 혹은 암회갈색의 미사질양토로 암황갈색의 반문이 있으며 기층은 명올리브색의 반문이 있는 회색의 세사양토이다. 이 토양은 하성층적층을 모재로 하성평탄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경사는 0~2% 이다.

토심은 50~100cm 범위이고 암반까지의 깊이는 5m 이상이며 염기포화도는 60% 이상이다. 토양반응은 매우 강한 산성 내지 약한 산성이고 전 층을 통하여 백색 및 황색의 운모가 있다. 표토는 명올리브갈색, 회갈색, 밝은 올리브회색, 명회색, 회색, 회갈색 혹은 암회갈색의 미사질양토 혹은 양토로 황갈색, 진갈색, 혹은 암황갈색의 반문이 있고 심토는 암회색, 암회갈색 혹은 회갈색의 사양토, 미사질양토 혹은 양토로 올리브갈색의 반문이 있으며 기층은 회색, 올리브회색의 사양토, 세사양토에 올리브갈색의 반문이 약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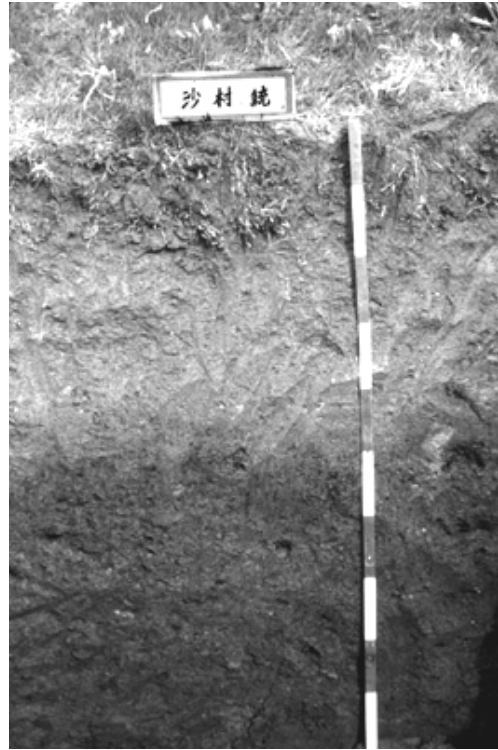
(10) 사촌토

사촌토는 사양질계 층적토로서 미 농무성의 새로운 분류방법에 의하면 coarse loamy, mixed, nonacid, mesic family of Aeric Endoaquepts에 속한다. 이 토양은 표토가 농암회갈색의 양토이며 두께는 약간 두껍고 심토는 암회갈색의 반문이 있는 황갈색의 사양토로 심토층을 가지며 토심은 보통이다. 기층은 황적색 또는 진갈색의 반문이 있는 암회갈색의 양토 또는 사양토이다. 이 토양은 화강암에 기인한 곡간 층적층을 모재로 생성된 토양이며 곡간선상지 및 산록경사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경사는 2~30% 범위이며 주로 2~15% 이다.

토심은 50~100cm 범위이며 암반까지의 깊이는 3m 이상이다. 염기포화도는 60% 이상이고 토양반응은 표토에는 강한 산성 내지 약한 산성이며 심토는 약한 산성 내지 매우 약한 산성이다. 기층은 약한 산성 내지 중성이며 운모편은 전 층을 통하여 적다. 표토의 토심은 20~30cm로 두껍고 선명하거나 현저한 농암회갈색, 암회갈색, 회갈색 혹은 회색의 양토, 사양토 및 미사질양토이다. 심토는 발달도가 약한 대 각주상구조로 연속성이거나 불연속성인 회색, 회갈색, 올리브회색의 두꺼운 피막이 있으며 황갈색 또는 진갈색의 사양토, 양토 또는 미사질양토이다. 기층은 진갈색의 반문이 있는 회갈색의 사양토 및 양토로 약한 혼층을 이루고 있다.



〈사진 24〉 함창동 대표토양의 단면
출처: 농촌진흥청 한국토양정보시스템



〈사진 25〉 사촌동 대표토양의 단면
출처: 농촌진흥청 한국토양정보시스템

제4절 동·식물

1. 동물

현대사회는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문화생활의 발달에 따라 토지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 및 도로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 등의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도 심화되고 있다. 자연자원은 미래에 대한 보험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토지이용 및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의 수요에 대한 자연자원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보존이 요구된다.

자연환경의 개발계획은 자연생태계 보전, 야생동물보호 및 자연경관보호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자연환경목표에 부응하는 미래상 및 장기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향후 장군면의 각종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장군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장군면 일원에 분포하는 동물상 및 식물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록하였다.

1) 포유류

장군면 일대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13종 54개체였다(〈표 11〉). 이 중 멸종위기 포유류 I 급은 확인되지 않았고, 멸종위기포유류 II 급인 삵이 발견되었다. 특히 장군면의 남쪽에 위치한 장군산, 장군봉, 무학봉 일대는 양호한 산림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다람쥐, 청설모, 너구리, 삵, 오소리, 족제비, 두더지,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등 많은 종이 서식하고 있어 보호되어야 할 지역으로 생각된다.

〈표 11〉 장군면 일대의 포유류 목록

종명	학명	개체수
두더지	<i>Mogera wogura</i>	4
너구리	<i>Nyctereutes procyonoides</i>	6
개	<i>Canis familiaris</i>	2
족제비	<i>Mustela sibirica</i>	5
오소리	<i>Meles meles</i>	2
살	<i>Prionailurus bengalensis</i>	3
고양이	<i>Felis catus</i>	4
멧돼지	<i>Sus scrofa</i>	3
고라니	<i>Hydropotes inermis</i>	6
염소	<i>Capra hircus</i>	1
멧토끼	<i>Lepus coreanus</i>	6
청설모	<i>Sciurus vulgaris</i>	6
다람쥐	<i>Tamias sibiricus</i>	6
합계(총13종)		54

2) 조류

장군면 일대에서 확인된 조류는 76종 212개체였다(〈표 12〉). 멸종위기조류 I 급은 확인되지 않았고, 멸종위기조류 II 급은 3종(가창오리, 말뚝가리, 흰목물떼새), 특정종은 14종(피꼬리, 되지빠귀, 매사촌, 물총새, 병어리빠꾸기, 붉은배새매, 빠꾸기, 새매, 오색딱다구리, 원앙, 청딱다구리, 청호반새, 파랑새, 황조롱이)이 확인되었지만 집단번식지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번식종은 5종(꼬마물떼새, 동고비, 찌르레기, 파랑새, 흰뺨검둥오리)이었다.

장군면은 남쪽으로 산림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대교천 주변으로 비교적 넓은 농경지가 분포하고, 금강과 같은 큰 하천 및 저수지가 많이 있어 새들의 다양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압력이 높게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형편이다.

〈표 12〉 장군면 일대의 조류 목록

종명	학명	개체수
가 창 오 리	<i>Anas formosa</i>	1
검 은 머 리 축 새	<i>Carduelis spinus</i>	1
곤 줄 박 이	<i>Parus varius</i>	3
굴 독 새	<i>Troglodytes troglodytes</i>	1
긴 발 톱 할 미 새	<i>Motacilla flava</i>	1
까 마 귀	<i>Corvus corone orientalis</i>	1
까 치	<i>Pica pica</i>	5
깎 작 도 요	<i>Actitis hypoleucos</i>	2
꼬 마 물 떼 새	<i>Charadrius dubius</i>	2
피 꼬 리	<i>Oriolus chinensis</i>	5
평	<i>Phasianus colchicus</i>	5
노 량 턱 멧 새	<i>Emberiza elegans</i>	5
노 량 할 미 새	<i>Motacilla cinerea</i>	1
논 병 아 리	<i>Podiceps ruficollis</i>	5
동 고 비	<i>Sitta europaea</i>	3
되 지 빠 귀	<i>Turdus hortulorum</i>	2
딱 새	<i>Phoenicurus aureoreus</i>	5
때 까 치	<i>Lanius bucephalus</i>	5
말 뚱 가 리	<i>Buteo buteo</i>	3
매 사 촌	<i>Cuculus fugax</i>	1
멧 비 들 기	<i>Streptopelia orientalis</i>	5
멧 새	<i>Emberiza cioides</i>	1
물 까 치	<i>Cyanopica cyana</i>	5
물 총 새	<i>Alcedo atthis</i>	2
박 새	<i>Parus major</i>	5
방 울 새	<i>Carduelis sinica</i>	2
발 종 다 리	<i>Anthus rubescens</i>	1
백 할 미 새	<i>Motacilla lugens</i>	2
병 어 리 뼈 구 기	<i>Cuculus saturatus</i>	2
북 방 검은 머 리 속 새	<i>Emberiza pallasi</i>	1
붉 은 머 리 오 목 눈 이	<i>Paradoxornis webbianus</i>	5
붉 은 배 새 매	<i>Accipiter soloensis</i>	5
뼈 구 기	<i>Cuculus canorus</i>	5
빽 빽 도 요	<i>Tringa ochropus</i>	2
새 매	<i>Accipiter nisus</i>	1
쇠 기 러 기	<i>Anser albifrons</i>	1
쇠 딱 다 구 리	<i>Dendrocopos kizuki</i>	4
쇠 물 닭	<i>Gallinula chloropus</i>	1
쇠 박 새	<i>Parus palustris</i>	5

〈표 12〉 장군면 일대의 조류류 목록(계속)

쇠 백 로	<i>Egretta garzetta</i>	5
쇠 오 리	<i>Anas crecca</i>	4
쑥 새	<i>Emberiza rustica</i>	5
알 락 도 요	<i>Tringa glareola</i>	1
알 락 할 미 새	<i>Motacilla alba</i>	4
어 치	<i>Garrulus glandarius</i>	5
오 목 눈 이	<i>Aegithalos caudatus</i>	3
오 색 딱 다 구 리	<i>Dendrocopos major</i>	3
왜 가 리	<i>Ardea cinerea</i>	5
원 양	<i>Aix galericulata</i>	2
제 비	<i>Hirundo rustica</i>	1
중 대 백 로	<i>Egretta alba modesta</i>	5
중 백 로	<i>Egretta intermedia</i>	2
직 박 구 리	<i>Hypsipetes amaurotis</i>	5
진 박 새	<i>Parus ater</i>	3
찌 르 레 기	<i>Sturnus cineraceus</i>	3
참 새	<i>Passer montanus</i>	5
청 등 오 리	<i>Anas platyrhynchos</i>	2
청 딱 다 구 리	<i>Picus canus</i>	2
청 머 리 오 리	<i>Anas falcata</i>	1
청 호 반 새	<i>Halcyon pileata</i>	2
촉 새	<i>Emberiza spodocephala</i>	3
콩 새	<i>Coccothraustes coccothraustes</i>	1
큰 발 종 다 리	<i>Anthus richard</i>	1
큰 부 리 까 마 귀	<i>Corvus macrorhynchos</i>	2
큰 유 리 새	<i>Cyanoptila cyanomelana</i>	1
파 랑 새	<i>Eurystomus orientalis</i>	2
해 오 라 기	<i>Nycticorax nycticorax</i>	1
호 반 새	<i>Halcyon coromanda</i>	1
홍 머 리 오 리	<i>Anas penelope</i>	2
황 로	<i>Bubulcus ibis</i>	3
황 조 롱 이	<i>Falco tinnunculus</i>	4
흰 목 물 떼 새	<i>Charadrius placidus</i>	3
흰 배 멧 새	<i>Emberiza tristrami</i>	1
흰 배 지 빠 귀	<i>Turdus pallidus</i>	1
흰 뺨 검 등 오 리	<i>Anas poecilorhyncha</i>	5
흰 등 새	<i>Anthus hodgsoni</i>	1
합계(총 76종)		212

3) 양서·파충류

장군면 일대에서 확인된 양서류는 10종 38개체였다(〈표 13〉). 환경부 멸종위기 II급은 맹꽂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생태계위해동물인 황소개구리도 서식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이는 것은 도롱뇽과 청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장군면 지역은 양서류의 다양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장군면 일대의 양서류 목록

종명	학명	개체수
도 롱 뇽	<i>Hynobius leechii</i>	7
꼬 리 치 레 도 롱 뇽	<i>Onychodactylus fisheri</i>	1
두 껌 비	<i>Bufo bufo gauguizans</i>	2
움 개 구 리	<i>Rana rugosa</i>	3
청 개 구 리	<i>Hyla japonica</i>	6
참 개 구 리	<i>Rana nigromaculata</i>	5
한 국 산 개 구 리	<i>Rana coreana</i>	5
북 방 산 개 구 리	<i>Rana dybowskii</i>	6
황 소 개 구 리	<i>Rana catesbeiana</i>	2
맹 껌 이	<i>Kaloula borealis</i>	1
합계(총 10종)		38

장군면 일대에서 확인된 파충류는 7종 12개체였다(〈표 14〉).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이는 것은 유�혈목이로, 장군면 전역에서 관찰되었다.

〈표 14〉 장군면 일대의 파충류 목록

종명	학명	개체수
도 마 뱀	<i>Scincella vandenburghi</i>	1
누 룝 뱀	<i>Elaphe dione</i>	1
아 무 르 장 지 뱀	<i>Takydromus amurensis</i>	1
줄 장 지 뱀	<i>Takydromus wolteri</i>	2
무 자 치	<i>Elaphe rufodorsata</i>	1
유희목이	<i>Rhabdophis t. tigrinus</i>	5
쇠 살 모 사	<i>Agkistrodon ussurensis</i>	1
합계(총 7종)		12

4) 어류

장군면 일대에서 확인된 어류는 총 4과 14종 이었다(〈표 15〉). 이중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외래종이며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인 큰입배스, 블루길 또한 출현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고유종인 긴몰개, 돌마자, 참종개, 얼룩동사리 등 3과 4종이 확인되었다. 장군면 지역의 전체 우점종은 피라미였으며, 아우점종은 버들치로 나타났다.

〈표 15〉 장군면 일대의 어류 목록

종명	학명	개체수
잉어과	<i>Cyprinidae</i>	
피라미	<i>Zacco platypus</i>	382
긴몰개*	<i>Squalidus gracilis majimae</i>	4
왜몰개	<i>Aphyocypris chinensis</i>	2
버들치	<i>Rhynchocypris oxycephalus</i>	170
붕어	<i>Carassius auratus</i>	19
참붕어	<i>Pseudorasbora parva</i>	25
돌고기	<i>Pungtungia herzi</i>	19
참마자	<i>Hemibarbus longirostris</i>	40
모래무지	<i>Pseudogobio esocinus</i>	46
돌마자*	<i>Microphysogobio yaluensis</i>	8
미꾸리과	<i>Cobitidae</i>	
미꾸리	<i>Misgurnus anguillicaudatus</i>	12
참종개*	<i>Iksookimia koreensis</i>	2
동사리과	<i>Odontobutidae</i>	
얼룩동사리*	<i>Odontobutis interrupta</i>	5
망둑어과	<i>Gobiidae</i>	
밀어	<i>Rhinogobius brunneus</i>	24
합계(총 14종)		758

* 한국고유종

5) 육상곤충

장군면 일대에 대한 육상곤충 조사는 면의 북서부에 위치한 송학리, 태산리, 용암리에서 2006년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발견된 곤충류는 총 7목 43과 150종이 나타났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이종은 14종이 확인되었다. 분류군별 출현종 현황은 <표 16>과 같다. 각 분류군 별로 살펴보면 사마귀목 1과 1종, 메뚜기목 3과 8종, 노린재목 7과 20종, 매미목 1과 2종, 딱정벌레목 1과 1종, 벌목 9과 25종, 나비목 21과 93종이 조사되었다.

<표 16> 장군면 일대의 육상곤충 목록

목	과	종	학명	종수	특정종
나비목(Mantodea)	갈고리나방과 (Drepanidae)	노랑갈고리나방	<i>Oreta pulchripes</i> Butler	1	
		참나무갈고리나방	<i>Agnidra scabiosa</i> (Butler)	1	
		황줄점갈고리나방	<i>Nordstr omia japonica</i> (Moore)	1	
	네발나비과 (Nymphalidae)	네발나비	<i>Polygonia c-aureum</i> (Linne)	1	
		애기세줄나비	<i>Neptis sappho</i> (Pallas)	2	
		왕은점표범나비	<i>Fabriciana nerippe</i> (C. et R. Felder)	1	멸종 위기종2, 특정종
		큰멋쟁이나비	<i>Vanessa indica</i> (Herbst)	1	
	누에나방과 (Bombycidae)	멧누에나방	<i>Bombyx mandarina</i> (Moore)	1	특정종
	독나방과 (Lymantriidae)	꼬마독나방	<i>Euproctis pulverea</i> (Leech)	1	
		독나방	<i>Euproctis sublava</i> (Bremer)	1	
		무늬독나방	<i>Euproctis piperita</i> Oberthur	1	
		엘-무늬독나방	<i>Arctornis l-nigrum</i> (Muller)	1	
		콩독나방	<i>Cituna locuples</i> Walker	4	
	명나방과 (Pyralidae)	개오동명나방	<i>Sinomphisa plagialis</i>	1	특정종
		검은빛포충나방	<i>Chrysoteuchia porcelanella</i> (Motschulsky)	1	
		목화명나방	<i>Notarcha derogata</i> (Fabricius)	1	
		몸노랑들명나방	<i>Dichocrocis chlorophanta</i> (Butler)	1	
		복숭아명나방	<i>Dichocrocis punctiferalis</i> (Guenee)	2	
		앞노랑무늬들명나방	<i>Herpetogramma rudis</i> (Warren)	1	
		콩명나방	<i>Maruca testulalis</i> Geyer	4	
		큰점노랑들명나방	<i>Botyodes principalis</i> Leech	3	
포도들명나방		<i>Herpetogramma luctuosalis</i> (Guenee)	2		
회양목명나방		<i>Glyphodes perspectalis</i> (Walker)	1		
흰띠명나방		<i>Hymenia recurvalis</i> (Fabricius)	9		
박각시과 (Sphingidae)	박각시	<i>Agrius convolvuli</i> (Linne)	1		
	우단박각시	<i>Rhagastis mongoliana</i> (Butler)	1		
	주홍박각시	<i>Deilephila elpenor</i> (Linne)	1		
		포도박각시	<i>Acosmeryx naga</i> (Moore)	1	

〈표 16〉 장군면 일대의 육상곤충 목록(계속)

나비목(Mantodea)	밤나방과 (Noctuidae)	검은 끝 짚 림 나 방	<i>Pangrapta obscurata</i> (Butler)	1
		긴 금 무 니 밤 나 방	<i>Ctenoplusia albostrata</i> (Bremer et Grey)	1
		꼬 마 봉 인 밤 나 방	<i>Sphragifera biplagiata</i> (Walker)	1
		버 애 나 방	<i>Naranga aenescens</i> Moore	7
		사 과 저 녁 나 방	<i>Acronicta intermedia</i> (Warren)	1
		솔 버 짐 나 방	<i>Panthea coenobita</i> (Esper)	1
		수 중 다 리 밤 나 방	<i>Parallelia stuposa</i> (Fabricius)	1
		쌍 띠 밤 나 방	<i>Mythimna turca</i> (Linne)	1
		쌍 복 판 눈 수 염 나 방	<i>Edessena hamada</i> (Felder et Rogenhofer)	1
		쌍 줄 푸 른 밤 나 방	<i>Pseudoips fagana</i> (Fabricius)	1
		씩 은 밤 나 방	<i>Axylla putris</i> (Linne)	2
		은 무 니 밤 나 방	<i>Macdunnoughia purissima</i> (Butler)	2
		점 박 이 밤 나 방	<i>Hermonassa cecilia</i> Butler	1
		줄 회 색 밤 나 방	<i>Zanclognatha griselda</i> (Butler)	1
		콩 은 무 니 밤 나 방	<i>Ctenoplusia (Acanthoplusia) agnata</i> (Staudinger)	1
	밤눈나비과 (Satyridae)	부 처 나 비	<i>Mycalesis gotama</i> Moore	2
		부 처 사 촌 나 비	<i>Mycalesis francisca</i> (Cramer)	2
		애 물 걸 나 비	<i>Ypthima argus</i> Butler	2
	부전나비과 (Lycaenidae)	작은 주 흥 부 전 나 비	<i>Lycaena phlaeas</i> (Linne)	1
		푸 른 부 전 나 비	<i>Celastrina argiolus</i> (Linne)	4
	불나방과 (Arctiidae)	노 랑 배 불 나 방	<i>Eilema deplana</i> (Esper)	1
		목 도 리 불 나 방	<i>Paraona staudingeri</i> Alpheraky	1
		배 점 무 니 불 나 방	<i>Spilosoma lubricipeda</i> (Linne)	1
		알 락 주 흥 불 나 방	<i>Mittochrista pulchra</i> Butler	1
		앞 선 두 리 불 나 방	<i>Agylla gigantea</i> (Oberthur)	1
		외 줄 점 불 나 방	<i>Spilarctia luteum</i> (Hufnagel)	1
		점 무 니 불 나 방	<i>Spilosoma punctaria</i> (Stoll)	1
		주 흥 테 불 나 방	<i>Mittochrista miniata</i> (Forester)	1
		줄 점 불 나 방	<i>Spilarctia seriatopunctata</i> Motschulsky	1
		흰 제 비 불 나 방	<i>Chionarctia nivea</i> (Menetries)	1
	뽕족날개나방과 (Thyatiridae)	뽕머리뽕족날개나방	<i>Tethea ocularis</i> (Linne)	1
		앞 흰뽕족날개나방	<i>Tethea albicostata</i> (Bremer)	1
		애기담홍뽕족날개나방	<i>Habrosyne aurorina</i> (Butler)	1
뽕나비과 (Libytheidae)	뽕 나 비	<i>Libythea celtis</i> Fuessly	1	

〈표 16〉 장군면 일대의 육상곤충 목록(계속)

나비목(Mantodea)	썩기나방과 (Limacodidae)	꼬 마 썩 기 나 방	<i>Microleon longipalpis</i> Butler	1	
		노 랑 썩 기 나 방	<i>Monema flavescens</i> Walker	1	
		뒷검은푸른썩기나방	<i>Latoia sinica</i> (Moore)	1	
		흰 점 썩 기 나 방	<i>Austrapoda dentata</i> (Oberthur)	1	
	왕갈고리나방과 (Cyclidiidae)	왕 갈 고 리 나 방 (왕민갈고리나방)	<i>Cyclidia substigmatica</i> (Hubner)	1	특정종
	자나방과 (Geometridae)	검 띠 푸 른 자 나 방	<i>Agathia carissima</i> Butler	1	
		네 눈 가 지 나 방	<i>Hypomecis punctinalis</i> (Scopoli)	1	
		네 눈 썩 가 지 나 방	<i>Ascotis selenaria</i> (Denis et Schiffmuller)	1	
		네 눈 푸 른 가 지 나 방	<i>Ophthalmitis irrorataria</i> (Bremer et Grey)	1	
		네 점 푸 른 자 나 방	<i>Comibaena amoenaria</i> (Oberthur)	1	
		노 랑 애 기 자 나 방	<i>Idaea denudaria</i> (Prout)	1	
		노 박 덩 굴 가 지 나 방	<i>Amraica superans</i> (Butler)	1	
		별 박 이 자 나 방	<i>Naxa seraria</i> (Motschulsky)	1	
		쌍 줄 푸 른 자 나 방	<i>Geometra glaucaria</i> Menetries	1	
		알 락 흰 가 지 나 방	<i>Percnia albinigrata</i> Warren	1	
		오얏나무가지나방	<i>Angerona prunaria</i> (Linne)	1	
		참빗살얼룩가지나방	<i>Abraxas latifasciata</i> Warren	1	
		흰 띠 푸 른 자 나 방	<i>Geometra sponsaria</i> (Bremer)	1	
		흰 물 결 자 나 방	<i>Glaucothoe unduliferaria</i> (Motschulsky)	1	
		흰 제 비 가 지 나 방	<i>Ourapteryx maculicaudaria</i> (Motschulsky)	2	
		흰 줄 무늬 애 기 푸 른 자 나 방	<i>Chlorissa anadema</i> (Prout)	1	
	흰 줄 푸 른 자 나 방	<i>Geometra dieckmanni</i> Graeser	1		
	재주나방과 (Notodontidae)	배 얼 록 재 주 나 방	<i>Phalera sangana</i> Moore	1	
		참나무재주나방(끝노랑참나무재주나방)	<i>Phalera assimilis</i> (Bremer et Grey)	1	
	제비나방과 (Uraniidae)	제 비 나 방	<i>Acropteris iphiata</i> (Guenee)	1	
	창나방과 (Thyrididae)	창 나 방	<i>Striglina cancellata</i> (Christoph)	1	
	팔랑나비과 (Hesperiidae)	왕 팔 랑 나 비	<i>Lobocla bifasciata</i> (Bremer et Grey)	1	
	호랑나비과 (Papilionidae)	호 랑 나 비	<i>Papilio xuthus</i> Linne	1	
흰나비과 (Pieridae)	대 만 흰 나 비	<i>Artogeia canidia</i> (Linne)	4		
	배 추 흰 나 비	<i>Artogeia rapae</i> (Linne)	4		
	큰 줄 흰 나 비	<i>Artogeia melete</i> (Menetries)	5		

〈표 16〉 장군면 일대의 육상곤충 목록(계속)

노린재목	긴노린재과 (Lygaeidae)	더듬이긴노린재	<i>Pachygrontha antennata (Uhler)</i>	1	
		애긴노린재	<i>Nysius (Nysius) plebejus Distant</i>	37	
		어리민반날개긴노린재	<i>Dimorphopterus pallipes (Distant)</i>	12	
	노린재과 (Pentatomidae)	가시점동글노린재	<i>Eysarcoris aeneus (Scopoli)</i>	1	
		배동글노린재	<i>Eysarcoris ventralis (Westwood)</i>	1	
		알락수염노린재	<i>Dolycoris baccarum (Linne)</i>	2	
		풀색노린재	<i>Nezara antennata Scott</i>	1	
	뿔나무노린재과 (Malcidae)	게눈노린재 (게눈긴노린재)	<i>Chauliops fallax Scott</i>	1	
	실노린재과 (Berytidae)	실노린재	<i>Yemma exilis Horvath</i>	1	
	잡초노린재과 (Rhopalidae)	붉은잡초노린재	<i>Rhopalus (Aeschyntelus) maculatus (Fieber)</i>	1	
		삿포로잡초노린재	<i>Rhopalus (Aeschyntelus) sapporensis (Matsumura)</i>	1	
		흑다리잡초노린재	<i>Stictopleurus crassicornis (Linne)</i>	4	
		흑다리잡초노린재	<i>Stictopleurus crassicornis (Linne)</i>	3	
	장님노린재과 (Miridae)	고사리장님노린재	<i>Monalocoris filicis (Linne)</i>	1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i>Lygocoris (Apolygus) spinolae (Meyer-Dur)</i>	1	
		초록장님노린재	<i>Lygocoris (Apolygus) lucorum (Meyer-Dur)</i>	8	
	허리노린재과 (Coreidae)	파리허리노린재	<i>Acanthocoris sordidus (Thunberg)</i>	1	
		넓적배허리노린재	<i>Homoeocerus dilatatus Horvath</i>	1	
		애허리노린재 (오파카허리노린재)	<i>Hygia (Hygia) opaca (Uhler)</i>	2	
우리가시허리노린재		<i>Cletus schmidtii Kiritshenko</i>	1		
딱정벌레목	검정풍덩이과 (Melolonthidae)	왕풍덩이	<i>Melolontha incana (Motschulsky)</i>	1	
매미목	매미총과 (Cicadellidae)	말매미총	<i>Cicadella viridis (Linne)</i>	1	
		알락매미총	<i>Psammotettix striatus (Linne)</i>	1	
메뚜기목	메뚜기과 (Acrididae)	등검은메뚜기	<i>Shirakiacris shirakii (Bolivar)</i>	1	
		방아깨비	<i>Acrida cinerea cinerea (Thunberg)</i>	1	특정종
		버메뚜기	<i>Oxya japonica japonica (Thunberg)</i>	1	
		팔중이	<i>Oedaleus infernalis Saussure</i>	2	
	모메뚜기과 (Tetrigidae)	모메뚜기	<i>Tetrix japonica (Bolivar)</i>	2	

〈표 16〉 장군면 일대의 육상곤충 목록(계속)

메뚜기목	여치과 (Tettigoniidae)	베 짱 이	<i>Hexacentrus unicolor</i> Serville	1		
		쌩 새 기	<i>Conocephalus chinensis</i> (Redtenbacher)	6	특정종	
		여 치	<i>Gampsocleis sedakovi obscura</i> Walker	3		
벌목	개미벌과 (Mutillidae)	벌 개 미 벌	<i>Smicromyrme rufipes lewsi</i> Michel	1		
		(국 명 미 정)	<i>Psen caocinnus</i> Tsuneki	1		
	구멍벌과 (Sphecoidae)	쉬레테레은주둥이벌	<i>Ectemnius (Hypocrabro) schlettereri</i> Kohl	1		
		일 본 나 나 니	<i>Ammophila sabulosa nipponica</i> Tsuneki	1		
		양 봉 꿀 벌	<i>Apis mellifera</i> Linne	1		
	꿀벌과 (Apidae)	일 본 광 채 꽃 벌	<i>Ceratina japonica</i> Cockerell	1	특정종	
		청 줄 벌	<i>Anthophora zonata</i> Linne	1	특정종	
		대 모 벌	<i>Cyphononyx dorsalis</i> (Lepelletier)	1		
	대모벌과 (Pompilidae)	벌 대 모 벌	<i>Anopilus eous</i> Yasumatsu	1		
		(국 명 미 정)	<i>Allodynerus mandschuricus</i>	1	특정종	
	말벌과 (Vespidae)	(국 명 미 정)	<i>Polistes djakovi</i> Kostylev	1		
		(국 명 미 정)	<i>Stenodynerus chinensis kalinowskii</i> (Radoszkowski)	1		
		(국 명 미 정)	<i>Eumenes labiatus flavoniger giordani</i> Soika	1		
		꼬 마 쌍 살 벌	<i>Polistes japonicus japonicus</i> Saussure	1	특정종	
		어 리 별 쌍 살 벌	<i>Polistes mandarinus</i> Saussure et Geer	2	특정종	
		좀 말 벌	<i>Vespa analis parallela</i> Andre	3	특정종	
		큰 호 리 병 벌	<i>Polistes nipponensis</i> Perez	1		
		한 국 황 숭 감 탕 벌	<i>Anterhynchium flavomarginatum koreanum</i> Yamane	1		
		맵시벌과 (Ichneumonidae)	누 런 줄 몽 툯 맵 시 벌	<i>Metopius (Metopius) rufus browni</i> Ashmead	1	
	밑들이벌과 (Leucospidae)	밑 들 이 벌	<i>Leucospis japonica</i> Walker	1		
	청벌과 (Chrysididae)	끝 보 라 청 벌	<i>Chrysis splendidula</i> Rossi	2		
		사 치 청 벌	<i>Chrysis ignita</i> (Linne)	1		
		육 니 청 벌	<i>Chrysis principalis</i> Smith	1		
		줄 육 니 청 벌	<i>Chrysis fasciata</i> Olivier	1		
	호리병벌과 (Eumenidae)	줄 무 니 감 탕 벌	<i>Orancistrocerus drewseni</i> (Saussure)	1	특정종	
	사마귀목	사마귀과 (Mantidae)	황 라 사 마 귀	<i>Mantis religiosa</i> (Linne)	1	특정종
	총 출현종				150	14

2. 식물상 및 임상

1) 식물상

장군면 일대의 식물상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어, 2006년 실시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때 장군면 북서부 경계부에서 행해진 식물상을 수록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조사기간 동안 56과 106개 속 137종 17변종 5품종 등, 모두 159종이 채집, 조사되었다(〈표 17〉). 법정 멸종위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특정식물종 I등급인 백선(*Dictamnus dasycarpus* Turcz.), 거미고사리(*Asplenium ruprechtii* Sa.Kurata), 큰꽃으아리(*Clematis patens* C.Morren & Decne.), 물오리나무(*Alnus sibirica* Fisch. ex Turcz.), 두루미천남성(*Arisaema heterophyllum* Blume) 등 5종이 확인되었다.

〈표 17〉 장군면 일대의 식물상 목록

과	종명	학명	식물구계학적 등급
가 지 과	파 리	<i>Physalis alkekengi</i> var. <i>francheti</i> (Mast.) Hort	
	땅 파 리	<i>Physalis angulata</i> L.	
개 미 탐 과	개 미 탐	<i>Haloragis micrantha</i> (Thunb.) R.Br. ex Siebold & Zucc.	
고 비 과	고 비	<i>Osmunda japonica</i> Thunb.	
	평 고 비	<i>Osmunda cinnamomea</i> L.	
골 풀 과	골 풀	<i>Juncus effusus</i> var. <i>decipiens</i> Buchenau	
	평 의 밥	<i>Luzula capitata</i> (Miq.) Miq.	
국 화 과	고 들 빼 기	<i>Crepidiastrum sonchifolium</i> (Bunge) Pak & Kawano	
	등 골 나 물	<i>Eupatorium japonicum</i> Thunb. ex Murray	
	떡 쑥	<i>Gnaphalium affine</i> D. Don	
	선 씌 바 귀	<i>Ixeris strigosa</i> (H.Lev. & Vaniot) J.H.Pak & Kawano	
	씌 바 귀	<i>Ixeridium dentatum</i> (Thunb. ex Mori) Tzvelev	
	영 경 귀	<i>Cirsium japonicum</i> var. <i>maackii</i> (Maxim.) Matsum.	
	우 산 나 물	<i>Syneilesis palmata</i> (Thunb.) Maxim.	
	좁 씌 바 귀	<i>Ixeris stolonifera</i> A. Gray	
	좁은 잎 영 경 귀	<i>Cirsium japonicum</i> for. <i>nakaianum</i> (H.Lev. & Vaniot) W.T.Lee	
	지 칭 개	<i>Hemistepa lyrata</i> Bunge	
꼬리고사리과	꼬 리 고 사 리	<i>Asplenium incisum</i> Thunb.	
	거 미 고 사 리	<i>Asplenium ruprechtii</i> Sa.Kurata	I
	애기꼬리고사리	<i>Asplenium varians</i> Wall. ex Hook. & Grev.	
꼭두서니과	개 갈 귀	<i>Asperula maximowiczii</i> Kom.	
	솔 나 물	<i>Galium verum</i> var. <i>asiaticum</i> Nakai	
	네 앞 갈 귀	<i>Galium trachyspermum</i> A.Gray	
골 풀 과	골 무 꽃	<i>Scutellaria indica</i> L.	
	골 풀	<i>Prunella vulgaris</i> var. <i>lilacina</i> Nakai	

〈표 17〉 장군면 일대의 식물상 목록(계속)

꿀 풀 과	들 깨 풀	<i>Mosla punctulata</i> (J.F.Gmelin) Nakai	
	배 암 차 즈 기	<i>Salvia plebeia</i> R.Br.	
	산 꿀 무 꽃	<i>Scutellaria pekinensis</i> Maxim.	
	석 잠 풀	<i>Stachys japonica</i> Miq.	
난 초 과	쉽 싸 리	<i>Lycopus lucidus</i> Turcz.	
	옥 잠 난 초	<i>Liparis kumokiri</i> F.Maek.	
넉 줄 고 사 리 과	은 대 난 초	<i>Cephalanthera longibracteata</i> Blume	
노 루 발 과	넉 줄 고 사 리	<i>Davallia mariesii</i> T.Moore ex Baker	
	노 루 발	<i>Pyrola japonica</i> Klenze ex Alef.	
노 박 덩 굴 과	매 화 노 루 발	<i>Chimaphila japonica</i> Miq.	
	노 린 재 나 무	<i>Symplocos chinensis</i> for. <i>pilosa</i> (Nakai) Ohwi	
녹 나 무 과	노 박 덩 굴	<i>Celastrus orbiculatus</i> Thunb.	
	화 살 나 무	<i>Euonymus alatus</i> (Thunb.) Siebold	
느 린 나 무 과	비 목 나 무	<i>Lindera erythrocarpa</i> Makino	
	생 강 나 무	<i>Lindera obtusiloba</i> var. <i>obtusiloba</i> Blume	
단 풍 나 무 과	팽 나 무	<i>Celtis sinensis</i> Pers.	
대 극 과	신 나 무	<i>Acer tataricum</i> subsp. <i>ginnala</i> (Maxim.) Wesm.	
돌 나 물 과	광 대 싸 리	<i>Securinega suffruticosa</i> (Pall.) Rehder	
	기 린 초	<i>Sedum kamtschaticum</i> Fisch. & Mey.	
두 린 나 무 과	돌 나 물	<i>Sedum salmentosum</i> Bunge	
	음 나 무	<i>Kalopanax septemlobus</i> (Thunb. ex Murray) Koidz.	
때 죽 나 무 과	때 죽 나 무	<i>Styrax japonicus</i> Siebold & Zucc.	
	쪽 동 백 나 무	<i>Styrax obassia</i> Siebold & Zucc.	
마 디 풀 과	며 느 리 배 곱	<i>Persicaria perfoliata</i> (L.) H.Gross	
	소 리 쟁 이	<i>Rumex crispus</i> L.	
	애 기 수 영	<i>Rumex acetosella</i> L.	
마 편 초 과	누 리 장 나 무	<i>Clerodendrum trichotomum</i> Thunb.	
	작 살 나 무	<i>Callicarpa japonica</i> Thunb.	
면 마 과	가느잎족제비고사리	<i>Dryopteris chinensis</i> (Baker) Koidz.	
	바위족제비고사리	<i>Dryopteris saxifraga</i> H.Ito	
	애기족제비고사리	<i>Dryopteris sacrosanta</i> Koidz.	
	족제비고사리	<i>Dryopteris varia</i> (L.) Kuntze	
물 레 나 물 과	고 추 나 물	<i>Hypericum erectum</i> Thunb.	
	물 레 나 물	<i>Hypericum ascyron</i> L.	
물 푸 레 나 무 과	쥐 똥 나 무	<i>Ligustrum obtusifolium</i> Siebold & Zucc.	
미나리아재비과	으 아 리	<i>Clematis terniflora</i> var. <i>mandshurica</i> (Rupr.) Ohwi	
	큰 꽃 으 아 리	<i>Clematis patens</i> C.Morren & Decne.	I

〈표 17〉 장군면 일대의 식물상 목록(계속)

백합과	비짜루	<i>Asparagus schoberioides</i> Kunth
	선밀나물	<i>Smilax nipponica</i> Miq.
	애기나리	<i>Disporum smilacinum</i> A.Gray
	용동굴레	<i>Polygonatum involucreatum</i> (Franch. & Sav.) Maxim.
	윤판나물	<i>Disporum uniflorum</i> Baker
	은방울꽃	<i>Convallaria keiskei</i> Miq.
	죽대	<i>Polygonatum lasianthum</i> Maxim.
	청미래덩굴	<i>Smilax china</i> L.
	털중나리	<i>Lilium amabile</i> Palib.
	하늘말나리	<i>Lilium tsingtauense</i> Gilg
범의귀과	노루오줌	<i>Astilbe rubra</i> var. <i>rubra</i> Hook.f. & Thomson
	말발도리나무	<i>Deutzia parviflora</i> Bunge
	매화말발도리	<i>Deutzia uniflora</i> Shirai
버과	바위취	<i>Saxifraga stolonifera</i> Meerb.
	개밀	<i>Agropyron tsukushiense</i> var. <i>transiens</i> (Hack.) Ohwi
	도랭이피	<i>Koeleria cristata</i> (L.) Pers.
	속털개밀	<i>Agropyron ciliare</i> (Trin.) Franch.
보리수나무과	오리새	<i>Dactylis glomerata</i> L.
	보리수나무	<i>Elaeagnus umbellata</i> Thunb.
뽕나무과	구지뽕나무	<i>Cudrania tricuspidata</i> (Carr.) Bureau ex Lavallee
	뽕나무	<i>Morus alba</i> L.
사초과	이삭사초	<i>Carex dimorpholepis</i> Steud.
산형과	왜당귀	<i>Angelica acutiloba</i> (Siebold & Zucc.) Kitag.
	참반디	<i>Sanicula chinensis</i> Bunge
	큰피막이풀	<i>Hydrocotyle javanica</i> Thunb.
새모래덩굴과	덩덩이덩굴	<i>Cocculus trilobus</i> (Thunb.) DC.
석죽과	개별꽃	<i>Pseudostellaria heterophylla</i> (Miq.) Pax ex Pax & Hoffm.
	버룩나물	<i>Stellaria alsine</i> var. <i>undulata</i> (Thunb.) Ohwi
	별꽃	<i>Stellaria media</i> (L.) Vill.
	쇠별꽃	<i>Stellaria aquatica</i> (L.) Scop.
	패랭이꽃	<i>Dianthus chinensis</i> var. <i>chinensis</i> L.
소나무과	소나무	<i>Pinus densiflora</i> Siebold & Zucc.
십자화과	개갓냉이	<i>Rorippa indica</i> (L.) Hiern
	냉이	<i>Capsella burapastoris</i> (L.) L.W.Medicus
	장대나물	<i>Arabis glabra</i> Bernh.
	황새냉이	<i>Cardamine flexuosa</i> With.
아욱과	어저귀	<i>Abutilon theophrasti</i> Medicus
양귀비과	애기똥풀	<i>Chelidonium majus</i> var. <i>asiaticum</i> (Hara) Ohwi

〈표 17〉 장군면 일대의 식물상 목록(계속)

웃 나 무 과	개 웃 나 무	<i>Rhus tricarpa</i> Miq.	
우 드 풀 과	뺨 고 사 리	<i>Athyrium yokoscense</i> (Franch. & Sav.) H.Christ	
운 향 과	백 선	<i>Dictamnus dasycarpus</i> Turcz.	
	산 초 나 무	<i>Zanthoxylum schinifolium</i> Siebold & Zucc.	
인 동 과	가 막 살 나 무	<i>Viburnum dilatatum</i> Thunb. ex Murray	
	병 꽃 나 무	<i>Weigela subsessilis</i> L.H.Bailey	
	인 동 덩 굴	<i>Lonicera japonica</i> Thunb.	
자 리 공 과	미 국 자 리 공	<i>Phytolacca americana</i> L.	
자 작 나 무 과	물 오 리 나 무	<i>Alnus sibirica</i> Fisch. ex Turcz.	
장 미 과	개 벗 나 무	<i>Prunus verecunda</i> var. <i>verecunda</i> (Koidz.) Koehne	
	곰 딸 기	<i>Rubus phoenicolasius</i> for. <i>phoenicolasius</i> Maxim.	
	국 수 나 무	<i>Stephanandra incisa</i> var. <i>incisa</i> (Thunb.) Zabel	
	귀 룡 나 무	<i>Prunus padus</i> for. <i>padus</i> L.	
	산 딸 기	<i>Rubus crataegifolius</i> Bunge	
	찔 레 꽃	<i>Rosa multiflora</i> var. <i>multiflora</i> Thunb.	
제 비 꽃 과	고 깔 제 비 꽃	<i>Viola rossii</i> Hemsl.	
	남 산 제 비 꽃	<i>Viola albida</i> var. <i>chaerophylloides</i> (Regel) F.Maek. ex Hara	
	졸 방 제 비 꽃	<i>Viola acuminata</i> Ledeb.	
취 방 울 덩 굴 과	족 도 리 풀	<i>Asarum sieboldii</i> Miq.	
지 치 과	꽃 마 리	<i>Trigonotis peduncularis</i> (Trevir.) Benth. ex Hemsl.	
진 달 래 과	산 철 쪽	<i>Rhododendron yedoense</i> for. <i>poukhanense</i> (H.Lev.) Sugim.	
참 나 무 과	갈 참 나 무	<i>Quercus aliena</i> Blume	
	밤 나 무	<i>Castanea crenata</i> Siebold & Zucc.	
처 녀 고 사 리 과	처 녀 고 사 리	<i>Thelypteris palustris</i> (Salisb.) Schott	
천 남 성 과	두 루 미 천 남 성	<i>Arisaema heterophyllum</i> Blume	
콩 과	고 삼	<i>Sophora flavescens</i> Solander ex Aiton	
	땅 비 싸 리	<i>Indigofera kirilowii</i> Maxim. ex Palib.	
	싸 리	<i>Lespedeza bicolor</i> Turcz.	
	얼 치 기 완 두	<i>Vicia tetrasperma</i> (L.) Schreb.	
	자 귀 나 무	<i>Albizia julibrissin</i> Durazz.	
	조 록 싸 리	<i>Lespedeza maximowiczii</i> C.K.Schneid.	
파 리 풀 과	파 리 풀	<i>Phryma leptostachya</i> var. <i>asiatica</i> H.Hara	
포 도 과	개 머 루	<i>Ampelopsis brevipedunculata</i> (Maxim.) Trautv.	
	새 머 루	<i>Vitis flexuosa</i> Thunb.	
현 삼 과	개 불 알 풀	<i>Veronica didyma</i> var. <i>lilacina</i> (H.Hara) T.Yamaz.	
	선 개 불 알 풀	<i>Veronica arvensis</i> L.	
	큰 개 불 알 풀	<i>Veronica persica</i> Poir.	
총 56과	총 137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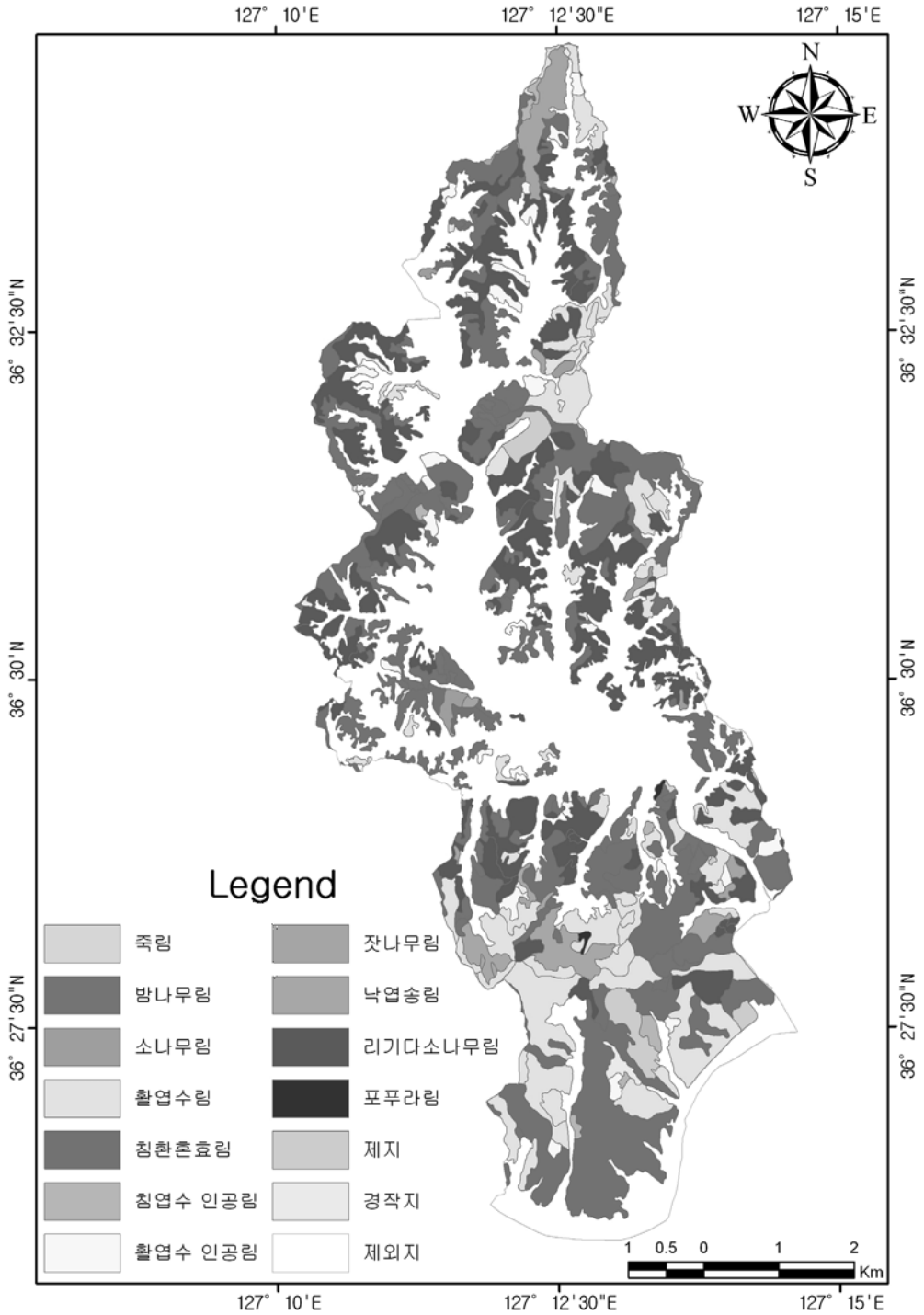
2) 임상

장군면의 산림분포현황은 임목지 97.9%, 무임목지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목지 중 침활혼효림이 1,115ha(34.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리기다소나무림 853.3ha(26.4%), 활엽수림 618.4ha(19.2%), 밤나무림 259.2ha(8.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표 18〉 장군면 임상별 면적 및 비율(산림과학원, 제5차 임상도)

임상	면적(ha)	비율(%)	임상	면적(ha)	비율(%)
죽림	1.0	0.0	활엽수 인공림	109.9	3.4
밤나무림	259.2	8.0	잣나무림	66.2	2.1
소나무림	22.7	0.7	낙엽송림	85.1	2.6
활엽수림	618.4	19.2	리기다소나무림	853.3	26.4
침활혼효림	1115.0	34.6	포푸라림	4.2	0.1
침엽수 인공림	23.2	0.7	제지	68.1	2.1

침활혼효림은 150m 이상의 산지와 경사가 급한 지역인 금암리와 산학리, 대교리, 송문리, 태산리에 주로 분포하며, 리기다소나무림은 150m 이하의 산지 지역인 은용리, 송정리, 평기리, 송학리, 용현리에 주로 분포하며, 활엽수림은 주로 장군산 서측인 금암리와 은용리 경계부에서 대규모로 분포한다. 밤나무림은 면의 100m 이하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면의 북부인 용암리에는 잣나무림이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다(〈그림 19〉).



〈그림 19〉 장군면 일대의 임상분포

제5절 자연재해

1. 자연재해

재해는 자연 작용에 의하여 우리 인간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해일, 태풍, 홍수, 바닷물 역류, 지진, 산사태, 낙뢰 등에 의한 사고 및 산불 등이 이에 속한다.

재해는 기후의 변화, 지구상의 지리적 위치 및 자연적 환경 조건에 따라 발생되는 위치와 횡수가 달라진다. 이와 같은 조건만 형성되면, 재해의 경우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재해는 발생하는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군면의 재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재해 발생과 피해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 장군면이 공주시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공주시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장군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상재해

기상재해란 기상현상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재해이다. 강풍·호우·대설·뇌우·이상건조·지속적인 저온현상 등이 있다. 이러한 기상현상으로 건조물풍해·눈사태·낙뢰·화재·고조·홍수·산사태·설해·한발·농작물냉해 등이 발생한다. 하지만 기상재해는 기상현상에 의한 원인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원인과 겹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태풍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보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내습했을 때 더 많은 재해를 초래한다. 또 호우는 분명히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어느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지형·토양·지질의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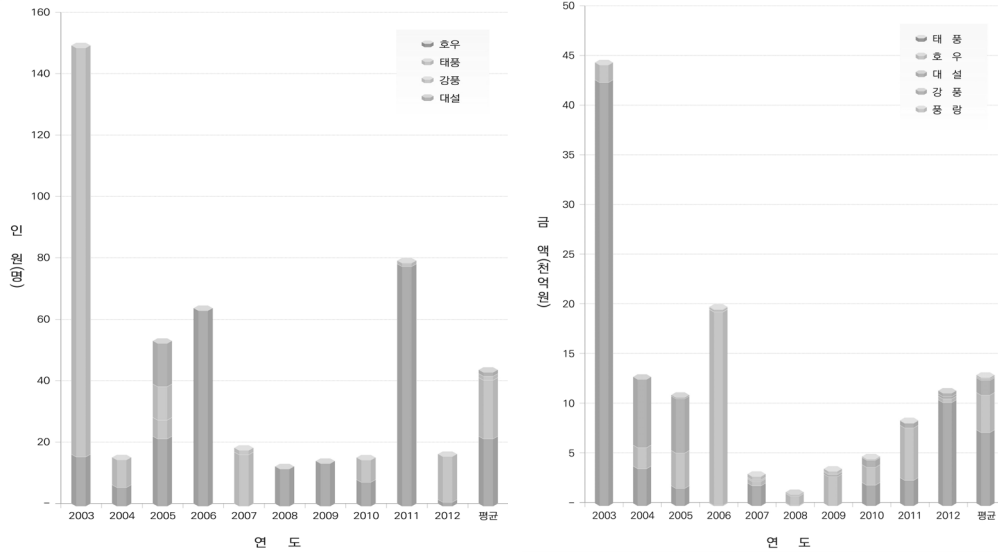
이와 같이 기상현상에 어떤 다른 조건이 겹쳐짐에 따라 일어나는 재해를 기상재해로 취급하는 것은 재해대책을 세울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기상현상 그 자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상재해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방지·경감할 수 있다. 따라서 기상청은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주의보·경보를 발표하여 국민·방재담당부서·모도기관에 통보한다. 우리나라는 태풍·저기압·전선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리

적 위치에 있고, 또한 산이 많아 홍수·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우며, 인구밀도도 높아 기상재해가 많이 일어난 편이다.

최근 10년간(2003~2012) 우리나라에서 기상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의 경우 148명의 인명피해와, 약 4조 4,08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연평균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1조 1,500억 원의 시설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높게 발생한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을 살펴보면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9〉, 〈그림 20〉, 〈그림 21〉). 이러한 태풍과 호우는 인명피해 뿐 만 아니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도 야기시킨다.

〈표 19〉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총괄(2003~2012)

연도	이재민 (인)	사망 (인)	침수면적 (정보)	건물 (억원)	선박 (억원)	농경지 (억원)	공공시설 (억원)	기타 (억원)	합계 (억원)
2003	63,133	148	51,411	963.9	323.9	1,169.4	30,985.7	10,639.5	44,082.4
2004	30,446	14	56,903	80.1	4.7	206.4	5,168.3	6,844.8	12,304.4
2005	9,914	52	26,782	150.3	9.7	280.3	4,462.3	5,595.8	10,498.4
2006	2,883	63	34,759	250.7	16.0	1,410.7	16,929.5	823.0	19,429.8
2007	675	17	4,859	59.1	26.1	109.7	1,561.1	762.0	2,518.1
2008	4,627	11	602	15.3	1.7	38.3	520.0	61.7	637.0
2009	11,931	13	5,677	22.5	7.1	76.4	2,441.8	440.3	2,988.1
2010	76,110	14	12,925	283.5	27.8	89.6	2,076.8	1,790.1	4,267.8
2011	70,099	78	14,892	281.4	18.0	154.0	6,871.0	617.6	7,942.0
2012	18,356	16	487	333.7	38.0	128.3	6,393.4	3,998.6	10,892.1
합계	288,174	426	209,298	2,440.5	473.1	3,663.1	77,409.9	31,573.5	115,560.1
평균	28,817	42	20,930	244.1	47.3	366.3	7,741.0	3,157.4	11,556.0



〈그림 20〉 최근 10년간 원인별 인명피해 현황 〈그림 21〉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현황

다음 〈그림 22〉은 최근 10년간(2003~2012) 우리나라 시·군·구별 우심피해 발생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4회 이상 7회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경우 서해안을 따라 8회 이상 발생한 지역이 두 곳이나 존재하고 있다. 과거 장군면이 속해 있었던 공주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우심피해가 4회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최근 10년간 시·군·구별 우심피해 발생 현황

〈표 20〉 공주시 통계연보에 나타난 장군면(구 공주시 장기면) 지역의 기상재해 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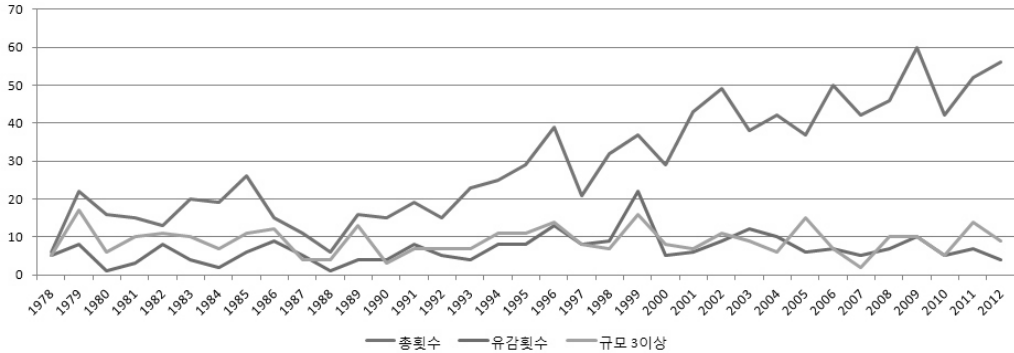
연도	사망	실종	부상	이재민 (세대/인원)	침수면적 (ha)	계 (천원)	건물 (천원)	농경지 (천원)	공공시설 (천원)	기타 (천원)
2004	-	-	-	-	3	8,120,773	-	2,494	486,456	7,631,823
2005	-	-	-	-	-	-	-	-	-	-
2006	-	-	-	1/2	-	15,000	15,000	-	-	-
2007	-	-	-	-	-	-	-	-	-	-
2008	-	-	-	-	-	-	-	-	-	-
2009	-	-	-	-	-	-	-	-	-	-
2010	-	-	-	-	-	146,411	-	1,134	145,277	-
2011	-	-	-	-	-	-	-	-	-	-
계	-	-	-	1/2	3	8,282,184	15,000	3,628	631,733	7,631,823

〈표 20〉는 최근 10년간(2004~2011) 장군면(구 공주시 장기면) 지역에서 발생한 기상재해 피해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과 2006년, 2010년 등 총 3회에 걸쳐 기상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82억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3ha의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받았다. 또한 1세대 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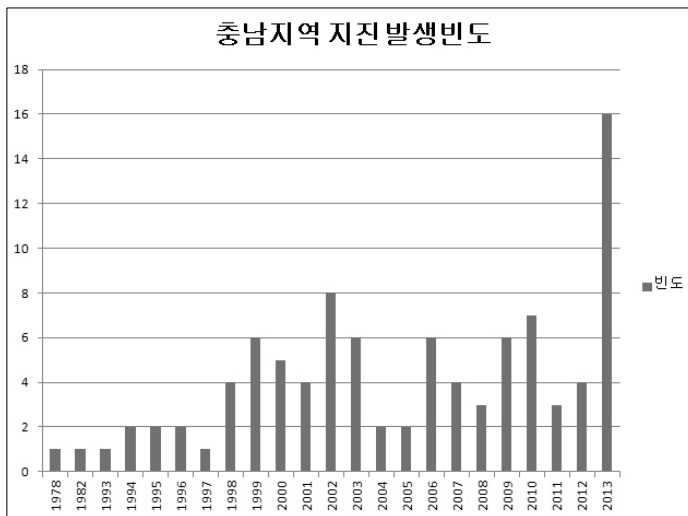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진관측망 현대화 및 지진분석 시스템의 성능 향상으로 규모 2.0~3.0의 지진 감지 횟수가 증가하여 총 발생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총 발생횟수의 뚜렷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그림 23〉). 우리나라의 전체 지진발생 경향은 지진관측망의 증가와 현대화가 시작된 1988년 이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감지진¹⁾과 규모 3.0 이상의 지진의 발생경향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1) 유감지진 : 지진발생시 건물이 흔들리는 등의 자연현상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진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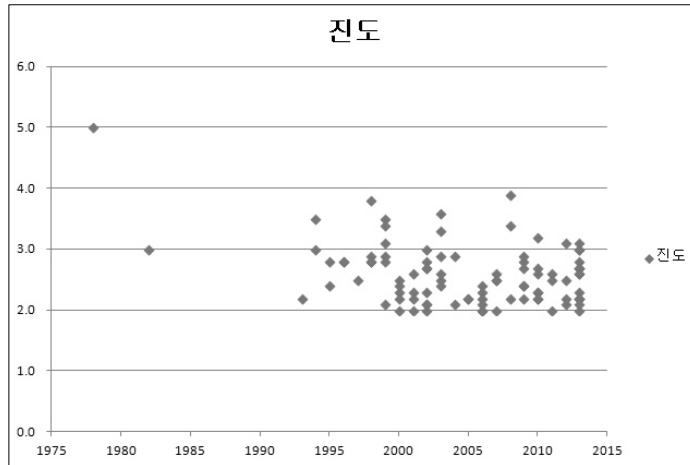


〈그림 23〉 국내 지진 발생 총 횟수,有感 횟수 및 규모 3.0이상 현황(1978 ~ 2012년)

과거 장군면이 위치한 공주시 장기면이 포함된 충청남도의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1978년 9월 홍성읍에서 발생한 진도 5.0규모의 지진 이후 2013년까지 총 96회에 이르고 있다(〈표 21〉). 충청남도의 과거 연간 지진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1995년 전까지는 년 2회 이하로 발생하다, 1998년 이후 년 2~16회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4〉). 그러나 1998년 이후 발생 빈도에 비해 지진의 세기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설명한 지진관측망의 증가와 지진 관측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그림 25〉).



〈그림 24〉 충남지역 지진 발생 빈도(1978 ~ 2013년)



〈그림 25〉 충청남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도(1978 ~ 2013년)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진은 서해 해역에서 발생하였지만, 장군면이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접한 공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난 35년간 총 8회 발생하였다. 총 8회의 지진 중 규모가 컷 던 지진은 2008년 10월 29일 공주시 남동쪽 15km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3.4의 지진과 2012년 9월 7일 충남 공주시 동남동쪽 12km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3.1의 지진 정도이다.

〈표 21〉 충남지역의 지진발생 현황(1978년 9월 이후)

진원시	규모(M)	위도(N)	경도(E)	위치
1978-10-07 18:19	5.0	36.60	126.70	충남 홍성읍
1982-03-30 6:13	3.0	36.40	127.60	충남 대전시 북동부 지역
1993-04-09 2:28	2.2	36.60	126.90	충남 예산 남동쪽 15km 지역
1994-01-11 8:09	3.0	36.30	123.90	충남 태안반도 서남서쪽 약 200km 해역
1994-02-12 11:58	3.5	36.40	127.30	충남 공주 남동쪽 20km 지역
1995-08-04 10:15	2.8	36.30	123.70	충남 대천 서쪽 약 260km 해역
1995-09-17 0:13	2.4	36.30	126.80	충남 부여 북서쪽 약 10km 지역
1996-04-19 2:39	2.8	36.30	127.00	충남 부여 동쪽 약 7km 지역
1996-07-15 4:58	2.8	36.90	126.50	충남 서산 북쪽 약 15km 지역
1997-04-23 1:39	2.5	36.20	126.00	충남 대천 서남서쪽 약 60km 해역
1998-06-05 19:42	2.9	35.90	123.90	충남 격렬비열도 서남서쪽 약 165km 해역
1998-06-08 19:55	2.8	36.00	125.20	충남 격렬비열도 남남서쪽 약 70km 해역
1998-09-03 16:52	3.8	36.60	125.70	충남 격렬비열도 주변해역
1998-10-22 17:34	2.8	36.60	125.50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
1999-04-04 11:29	3.1	36.40	124.00	충남 태안 서남서쪽 약 200km 해역
1999-04-21 11:24	2.1	36.70	127.10	충남 천안 남남서쪽 약 15km 지역
1999-05-09 8:17	3.5	36.20	123.70	충남 격렬비열도 남서쪽 약 200km해역
1999-07-17 15:22	2.9	36.20	127.00	충남 논산 서쪽 약 10km 지역
1999-09-11 3:17	3.4	36.10	123.70	충남 격렬비열도 서남서쪽 약 180km 해역
1999-12-14 14:46	2.8	36.70	127.30	충남 조치원 북쪽 약 10km 지역
2000-03-15 1:10	2.5	36.30	125.90	충남 보령 서남서쪽 약 70km 해역
2000-03-21 13:43	2.3	36.50	126.00	충남 보령 서북서쪽 약 55km 해역
2000-05-26 21:41	2.4	36.20	127.10	충남 논산 지역
2000-10-03 0:01	2.0	36.70	127.20	충남 천안 남남동쪽 약 15km 지역
2000-11-05 21:39	2.2	36.20	127.20	충남 논산 동쪽 약 10km 지역
2001-07-15 20:01	2.3	36.70	127.00	충남 아산 남쪽 약 10km 지역
2001-07-26 19:55	2.0	36.20	127.40	충남 금산 북서쪽 약 15km 지역
2001-09-13 6:07	2.2	36.40	127.00	충남 부여 북동쪽 약 15km 지역
2001-09-19 8:47	2.6	36.60	126.90	충남 예산 남동쪽 약 10km 지역
2002-01-17 6:28	2.8	36.20	126.20	충남 보령 남서쪽 약 35km 해역
2002-03-07 23:30	3.0	36.50	126.60	충남 홍성 남서쪽 약 15km 지역
2002-10-19 21:31	2.7	36.20	127.60	충남 금산 북동쪽 약 15km 지역
2002-12-05 10:05	2.0	36.70	126.30	충남 서산 남서쪽 약 15km 지역
2002-12-05 11:01	2.1	36.70	126.20	충남 서산 서남서쪽 약 25km 지역
2002-12-12 21:42	2.3	37.10	126.40	충남 서산 북쪽 약 35km 해역
2002-12-17 8:44	2.1	37.10	126.40	충남 서산 북쪽 약 35km 해역
2002-12-26 23:41	2.7	36.50	127.00	충남 공주 서북서쪽 약 10km 지역
2003-04-05 0:25	2.5	36.20	127.30	충남 금산 북서쪽 약 20km 지역
2003-04-05 0:31	2.9	36.20	127.30	충남 금산 북서쪽 약 20km 지역
2003-04-05 0:56	2.4	36.20	127.30	충남 금산 북서쪽 약 20km 지역
2003-04-16 2:55	3.3	36.40	126.30	충남 안면도 약 10km 해역
2003-06-08 2:07	2.6	36.50	125.10	충남 격렬비열도 서남서쪽 약 40km 해역
2003-10-13 18:12	3.6	37.00	126.50	충남 당진 북서쪽 약 20km 지역
2004-01-05 6:11	2.9	36.20	127.00	충남 논산 서쪽 약 5km 지역
2004-05-17 15:05	2.1	36.40	125.90	충남 서산 남서쪽 약 60km 해역
2005-03-31 19:32	2.2	36.43	125.57	충남 격렬비열도 남남동쪽 약 20km 해역
2005-08-25 19:33	2.2	36.75	126.30	충남 태안군 북동쪽 약 2km 지역
2006-03-11 4:52	2.1	37.13	126.00	충남 태안군 북서쪽 약 42km 해역
2006-07-18 14:49	2.0	36.13	126.65	충남 서천군 북서쪽 6km 지역
2006-07-24 2:44	2.0	37.17	126.32	충남 서산시 북북서쪽 30km 해역
2006-08-09 8:16	2.3	35.70	124.80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남서쪽 100km 해역

〈표 21〉 충남지역의 지진발생 현황(1978년 9월 이후)(계속)

진원시	규모(M)	위도(N)	경도(E)	위치
2006-10-22 14:09	2.2	37.13	125.98	충남 태안군 북서쪽 44km 해역
2006-11-11 1:16	2.4	35.97	127.45	충남 금산군 남남서쪽 10km 지역
2007-04-25 8:36	2.0	36.94	126.53	충남 당진군 서북서쪽 12km 해역
2007-05-26 19:59	2.5	36.10	125.05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서남서쪽 63km 해역
2007-07-22 13:49	2.6	36.88	126.66	충남 당진군 동남동쪽 3km 지역
2007-08-18 15:09	2.5	35.99	125.78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남남동쪽 71km 해역
2008-01-14 18:03	2.2	36.19	127.54	충남 금산군 북북동쪽 10km 지역
2008-01-16 19:58	3.9	35.65	125.37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남쪽 107km 해역
2008-10-29 9:26	3.4	36.35	127.25	충남 공주시 남동쪽 15km 지역
2009-02-23 21:47	2.8	37.13	126.01	충남 태안군 북북서쪽 50km 해역
2009-05-14 20:50	2.2	36.25	127.13	충남 논산시 북쪽 11km 지역
2009-05-15 22:41	2.4	36.59	126.41	충남 홍성군 서쪽 20km 해역
2009-06-20 4:05	2.9	37.09	124.74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북서쪽 85km 해역
2009-06-29 11:52	2.7	37.14	126.00	충남 태안군 북북서쪽 51km 해역
2009-12-15 9:02	2.4	36.76	127.10	충남 아산시 동남동쪽 9km 지역
2010-01-05 20:12	2.6	36.97	126.52	충남 당진군 북서쪽 13km 지역
2010-02-21 21:17	2.3	36.75	127.10	충남 천안시 남서쪽 8km 지역
2010-03-09 12:50	3.2	36.42	125.75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남동쪽 28km 해역
2010-07-06 3:44	2.3	36.47	127.13	충남 공주시 북북동쪽 3km 지역
2010-07-27 18:32	2.2	36.34	127.26	충남 공주시 남동쪽 17km 지역
2010-11-20 0:07	2.7	36.83	126.76	충남 당진군 동남동쪽 13km 지역
2010-12-20 6:56	2.2	36.93	125.50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북북서쪽 37km 해역
2011-01-04 1:22	2.0	36.41	127.15	충남 공주시 남동쪽 4km 지역
2011-03-12 8:15	2.6	37.00	125.27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북서쪽 50km 해역
2011-06-05 22:53	2.5	36.05	127.53	충남 금산군 남남동쪽 7km 지역
2012-07-11 19:27	2.5	36.90	125.27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쪽 41km 해역
2012-07-11 19:33	2.1	36.87	125.28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쪽 38km 해역
2012-08-18 18:06	2.2	36.20	125.26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남남서쪽 51km 해역
2012-09-07 2:34	3.1	36.40	127.25	충남 공주시 동남동쪽 12km 지역
2013-07-23 16:03	2.7	36.19	126.16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4km 해역
2013-07-26 11:23	2.2	36.19	126.14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5km 해역
2013-07-28 9:10	2.8	36.20	126.14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5km 해역
2013-07-29 10:29	2.7	36.20	126.13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6km 해역
2013-07-30 14:57	2.7	36.21	126.14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5km 해역
2013-07-31 20:05	2.2	36.21	126.17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2km 해역
2013-07-31 20:27	2.2	36.20	126.17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3km 해역
2013-07-31 22:30	3.0	36.20	126.15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4km 해역
2013-08-01 0:57	2.6	36.20	126.16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3km 해역
2013-08-01 17:22	3.1	36.19	126.17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3km 해역
2013-08-04 19:58	2.3	36.20	126.16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3km 해역
2013-08-07 21:08	2.0	36.19	126.08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51km 해역
2013-09-14 17:33	2.2	36.20	126.16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3km 해역
2013-11-08 19:14	2.6	36.23	126.36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25km 해역
2013-11-08 21:02	3.0	36.24	126.36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25km 해역
2013-11-22 23:29	2.1	36.99	126.40	충남 서산시 북북서쪽 24km 지역

〈표 23〉 장군면의 리별 세대 및 인구 (2013년 12월 기준)

법정동명	세대수	인구			세대당 인구
		계	남자	여자	
금암리	306	546	288	256	1.78
대교리	323	706	379	327	2.19
도계리	472	990	510	480	2.10
봉안리	267	511	284	227	1.91
산학리	146	318	168	150	2.18
송문리	131	285	143	142	2.18
송정리	31	70	33	37	2.26
송학리	142	302	159	143	2.13
용암리	101	180	92	88	1.78
용현리	45	87	50	37	1.93
은용리	157	346	190	156	2.20
태산리	74	159	82	77	2.15
평기리	189	416	210	206	2.20
하봉리	196	392	206	186	2.00

2. 장군면의 인구증감

1) 공주시 시대까지의 장기면과 의당면

현 장군면에 속한 도계리, 평기리, 대교리, 봉안리, 하봉리, 산학리, 은용리, 금암리, 송문리(구 장기면) 지역과 송정리, 송학리, 용현리, 용암리, 태산리(구 의당면) 지역의 인구는 1963년 말 9,858명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공주시와 공주군이 도·농통합되기 직전인 1994년에는 5,912명으로 6천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장군면 지역의 196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마다의 인구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표 24〉과 같다. 장군면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보이다가 2003~2013년에 증가로 전환되었다.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하여 세대수는 초반에 약간 감소하였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그 결과 지속적으로 ‘세대수 축소 현상’ 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장군면의 상대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공주지역 전체와의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1963~1994년 기간 동안 공주지역의 세대 증가율은 26.7%, 인구 증가율은 -30.8%인 반면, 동 기간 현 장군면 지역의 세대 증가율은 3.4%, 인구 증가율은 -40.0%로 장군면 지역은 공주 지역에 비해 세대 증가율은 적게 증가했지만 인구 증가율을 더 심각하게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연평균증가율로 공주지역과 비교해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공주 지역의

세대 연평균증가율은 0.77%, 인구 연평균증가율은 -1.18%인 반면, 현 장군면 지역의 세대 연평균증가율은 0.11%, 인구 연평균증가율은 -1.64%로 나타났다.

〈표 24〉 장군면의 인구 변화 (1963~2013년)

연도	인구(명)	인구 증가율	세대	세대당 인구
1963	9,858		1,523	6.47
1973	8,495	- 13.8%	1,418	5.99
1983	7,249	- 14.7%	1,434	5.06
1993	6,017	- 17.0%	1,568	3.84
2003	5,082	- 15.5%	1,805	2.82
2013	5,526	8.7%	2,580	2.14

〈표 25〉 장군면의 세대수와 인구수 (1963~1994)

연도	세대	인구		
		계	남	여
1963	1,523	9,858	5,075	4,783
1964	1,532	9,673	5,074	4,599
1966	1,561	8,907	4,533	4,374
1967	1,499	9,454	4,856	4,598
1968	1,469	9,259	4,748	4,511
1969	1,436	8,996	4,618	4,378
1971	1,432	8,556	4,382	4,174
1972	1,422	8,648	4,491	4,157
1973	1,418	8,495	4,403	4,092
1974	1,394	8,511	4,383	4,128
1976	1,460	8,572	4,438	4,134
1977	1,436	8,259	4,254	4,005
1978	1,456	8,204	4,225	3,979
1979	1,411	7,643	3,932	3,711
1980	1,423	7,453	3,819	3,634
1981	1,418	7,456	3,847	3,609
1982	1,407	7,186	3,673	3,513
1983	1,434	7,249	3,749	3,500
1984	1,430	6,909	3,558	3,351
1986	1,418	6,522	3,387	3,135
1987	1,450	6,657	3,425	3,232
1988	1,467	6,465	3,273	3,192
1989	1,237	6,335	3,199	3,136
1991	1,479	6,318	3,200	3,118
1992	1,553	6,165	3,153	3,012
1993	1,568	6,017	3,087	2,930
1994	1,575	5,912	3,025	2,887

2) 공주시의 장기면과 의당면

(1) 1995~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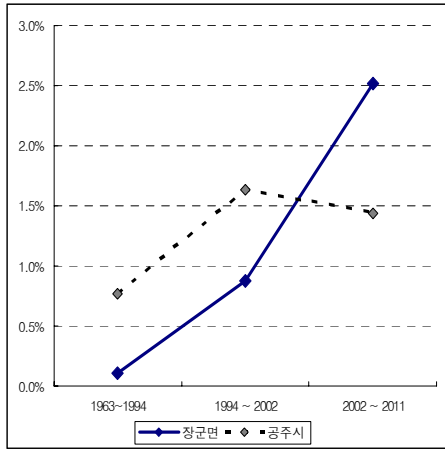
장군면 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부터 계속 이어지던 인구감소 경향은 1995년 공주시·공주군 통합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2002년 4,898명으로 5천명 이하로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2년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멈출 수 있게 되었다.

〈표 26〉 장군면의 세대수와 인구수 (1995~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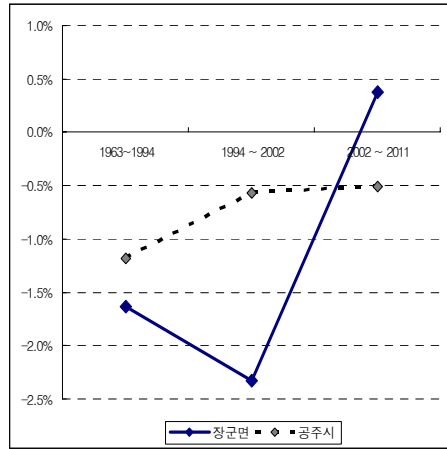
연도	세대	인구		
		계	남	여
1995	1,601	5,792	2,944	2,848
1996	1,606	5,648	2,916	2,732
1997	1,631	5,474	2,818	2,656
1998	1,661	5,334	2,785	2,549
2000	1,678	5,175	2,704	2,471
2001	1,700	5,071	2,662	2,409
2002	1,689	4,898	2,628	2,370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공주시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주시의 세대 연평균 증가율은 1.64%,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0.57%인 반면에, 현 장군면 지역의 세대 연평균 증가율은 0.88%,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2.32%를 나타냈다.

공주시와 현 장군면 모두 세대수는 증가하고 인구수는 감소하는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 장군면 지역이 공주시에 비해 세대수는 덜 증가하고, 인구는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은 그 이전 시기(1963~1994)와 동일하지만 인구 연평균증가율 격차가 심각해진 점이 중요하다. 즉 공주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여전히 (-)를 나타내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진 반면에, 현 장군면의 연평균증가율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장군면의 인구 감소 문제가 공주시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과 〈그림 27〉 참조).



〈그림 26〉 세대 연평균증가율 비교



〈그림 27〉 인구 연평균증가율 비교

공주시를 전체 평균으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공주시의 동지역은 공주시 인구 감소 추세와는 달리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농통합 이후 공주시의 동지역이 지역적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농통합시의 공간적 형태는 일반적으로 통합 전의 시가 군의 중앙에 위치한 시중심형, 통합전의 시가 한쪽 외곽에 치우쳐 있는 시편심형, 군의 내부에 둘 이상의 시가 위치한 쌍자도시형, 통합 전의 시가 군을 분할하고 있는 군분할통합형 등 4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공주시는 이 가운데 시중심형에 속한다. 공주시의 이러한 공간적 형태는 도·농통합시의 공간적 형태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에 해당되며, 공주시의 내적 중심지체계는 다른 중소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심지가 읍, 면 중심지를 포섭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27〉에서 보듯, 공주시 전체는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신시가지 신관동과 구시가지 중학동 지역은 인구 유입에 따른 높은 인구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 장군면에 해당되는 지역이 속해 있는 장기면과 의당면 지역을 살펴보면, 장기면은 -13.6% 인구 감소를 보이지만 의당면은 공주시 읍·면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27.0%)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당면 청룡리 일대에 1999년 신한1차·2차 아파트 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하여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청룡리를 제외한 의당면 지역에서는 모두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28〉 참조).

〈표 27〉 공주시의 인구증감 (1995~2002년)

구분	1995년	2002년	증감수(명)	증감율(%)
공주시	138,202	133,012	-5,190	-3.8
유구읍	14,000	11,620	-2,380	-17.0
이인면	5,924	4,684	-1,240	-20.9
탄천면	5,479	4,277	-1,202	-21.9
계룡면	8,939	7,478	-1,461	-16.3
반포면	5,706	5,576	-130	-2.3
장기면	6,895	5,954	-941	-13.6
의당면	5,503	6,990	1,487	27.0
정안면	7,534	6,142	-1,392	-18.5
우성면	8,549	7,284	-1,265	-14.8
사곡면	5,086	4,075	-1,011	-19.9
신평면	4,840	4,141	-699	-14.4
중학동	5,798	8,355	2,557	44.1
산성동	5,656	4,653	-1,003	-17.7
웅진동	7,195	7,168	-27	-0.4
금학동	5,171	5,392	221	4.3
옥룡동	15,492	13,094	-2,398	-15.5
신관동	13,856	26,129	12,273	88.6

〈표 28〉 장기면과 의당면의 인구증감 (1995~2002년)

지역 구분	1995년	2002년	증감수	증감율(%)	
장기면	6,895	5,954	-941	-13.6	
	현 장군면	4,628	4,061	-567	-12.3
	현 장기면	2,267	1,893	-374	-16.5
의당면	5,503	6,990	1,487	27.0	
	현 장군면	1,164	837	-327	-28.1
	현 의당면	4,339	6,053	1,714	39.5
	(청룡리)	(686)	(2,986)	(2,300)	(3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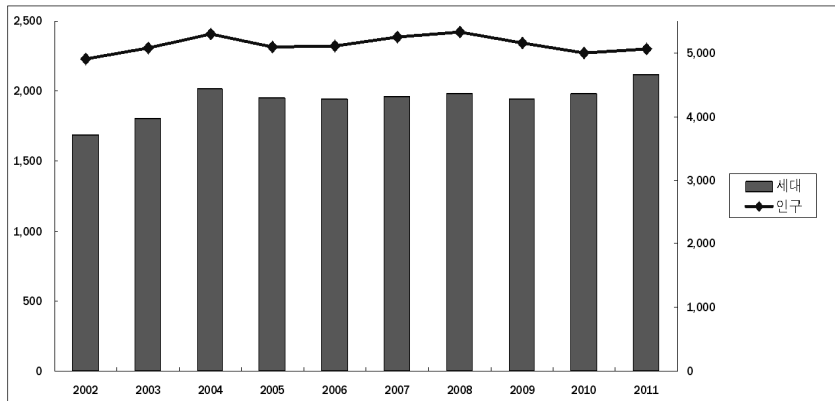
(2) 2003~2011년

장군면 지역의 1960년대부터 계속 이어지던 인구감소 경향은 2002년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비로소 멈출 수 있게 되었다. 〈표 29〉과 〈그림 28〉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인구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인구 연평균증가율이 0.37%로 나타났다.

이는 공주시가 비록 지난 기간에 비하여 그 감소 추세가 둔화된 편이지만, 여전히 동 기간 -0.51% 인구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내어 감소 경향이 이어지는 것에 비교된다. 참고로 2003~2011년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는 2002년 12월 31기 준 자료로 변화율을 정리하였다.

〈표 29〉 현 장군면의 세대수와 인구수 (2002~2011)

연도	세대	인구		
		계	남	여
2002	1,689	4,898	2,628	2,370
2003	1,805	5,082	2,671	2,411
2004	2,016	5,302	2,770	2,532
2005	1,955	5,087	2,677	2,410
2006	1,947	5,107	2,682	2,425
2007	1,959	5,252	2,747	2,505
2008	1,981	5,329	2,746	2,583
2009	1,941	5,153	2,637	2,516
2010	1,983	5,004	2,562	2,442
2011	2,113	5,065	2,624	2,441



〈그림 28〉 장군면의 세대와 인구수 변화

2002~2011년 동안 공주시의 인구는 -4.5% 변화한 것에 비하여 장기면은 -8.4%로 더 많이 감소하였고 의당면은 -2.8%로 더 적게 감소하였다. 특히 현 장군면 지역이 이 기간 동안 미비하게나마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것은 장기면 금암리 인구가 326명에서 723명으로 397명 늘어나 121.8% 증가한 것과 의당면 송학2리 인구가 55명에서 125명으로 70명 늘어나 127.3% 증가하한 것에 기인한다.

〈표 30〉 장기면과 의당면의 인구증감 (2002~2011년)

지역 구분	2002년	2011년	증감수	증감율(%)
장 기 면	5,954	5,454	-500	-8.4
현 장군면	4,061	4,291	230	5.7
현 장기면	1,893	1,163	-730	-38.6
의당면	6,990	6,793	-197	-2.8
현 장군면	837	774	-63	-7.5
현 의당면	6,053	6,019	-3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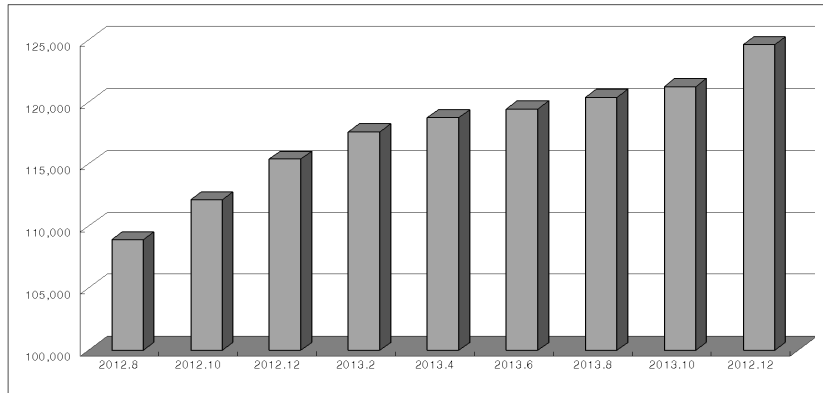
3) 세종특별자치시 시대의 장군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2005년 5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공포된 후에 2006년 12월 21일 행복도시명칭을 '세종시'로 확정지은 후 2010년 12월 27일 『세종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을 공포(법률 제10419호)하여 세종시 출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고, 2012년 7월말 인구 현황은 〈표 31〉과 같다. 세종시는 1읍 9면 1동으로 출범하였으며, 2014년 2월 도담동이 한솔동에서 분리 개칭함으로써 1읍 9면 2동 체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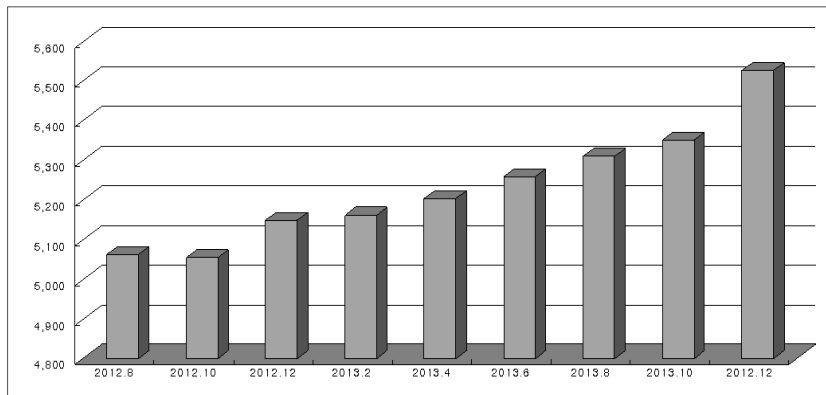
세종시의 지역별 인구는 조치원읍이 42.4%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장군면은 4.6%를 차지하고 있다. 세대당 인구를 세종시(2.38) 중심으로 살펴보면, 조치원읍(2.53)과 한솔동(3.05) 두 지역만이 세종시 대푯값보다 높게 나타나 세대 구성 인원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 도시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조치원읍과 한솔동 지역은 세대 구성 인원수가 많은 반면에 중심성이 미약한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대 구성 인원수가 적게 나타났다. 세종시청이 위치하는 조치원읍과 정부청사가 위치하는 한솔동은 단순히 인구 규모가 크다는 것 뿐 만 아니라 인구밀도도 높고 세대 구성원수도 높게 나타나 자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표 31〉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현황(2012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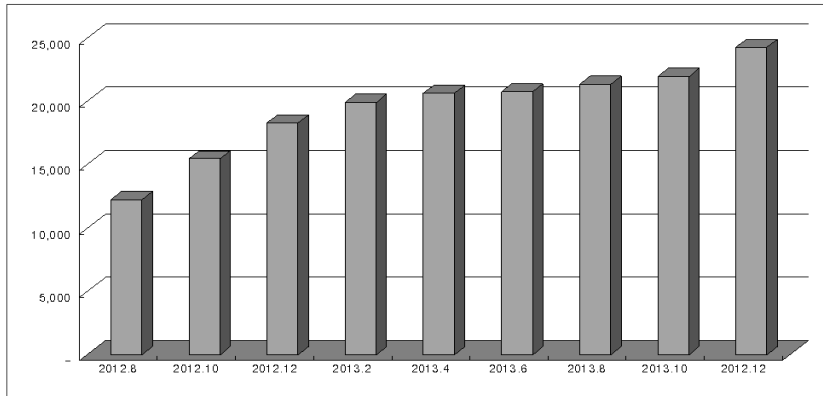
	전체인구 (내국인)	인구비율	인구		세대수	세대수 비율	세대당 인구
			남	여			
계	103,127	100.0	52,624	50,503	43,364	100	2.38
조치원읍	43,760	42.4	22,104	21,656	17,318	39.9	2.53
연기면	3,249	3.2	1,665	1,584	1,456	3.4	2.23
연동면	3,951	3.8	2,015	1,936	1,954	4.5	2.02
부강면	6,659	6.5	3,465	3,194	2,839	6.5	2.35
금남면	10,489	10.2	5,392	5,097	4,867	11.2	2.16
장군면	4,791	4.6	2,495	2,296	2,199	5.1	2.18
연서면	7,874	7.6	4,091	3,783	3,349	7.7	2.35
전의면	6,955	6.7	3,570	3,385	3,191	7.4	2.18
전동면	4,099	4.0	2,214	1,885	2,181	5.0	1.88
소정면	2,949	2.9	1,502	1,447	1,272	2.9	2.32
한솔동	8,351	8.1	4,111	4,240	2,738	6.3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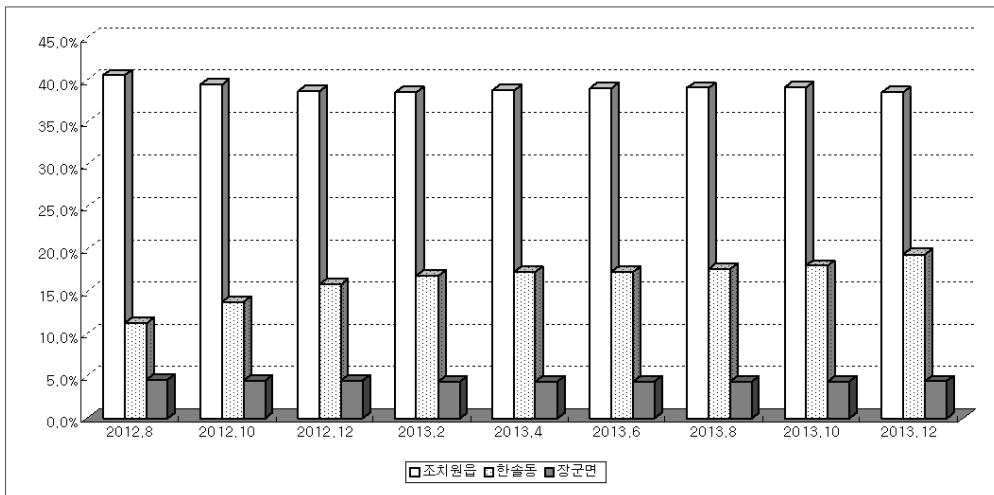
〈그림 29〉 세종시의 인구 추이



〈그림 30〉 장군면의 인구 추이



〈그림 31〉 한솔동의 인구 추이



〈그림 32〉 세종시 주요지역과 장군면의 인구 비중 변화

〈그림 29〉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시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지만, 세종시 모든 지역에서 인구 증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011년 8월 ~ 2013년 12월 기간 동안 한솔동은 12,007명 늘어난 인구 규모와 98.2% 늘어난 인구증가율로 인구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다. 동 기간 세종시의 인구가 14.4% 늘어난 것은 한솔동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한솔동을 제외하면 모두 14.4% 미만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청이 위치한 조치원읍의 경우 3,872명 증가하였으며 8.8% 늘어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 장군면이 464명 증가한 가운데 9.2% 늘어났다. 〈그림 32〉의 인구 비중 추이에서 한솔동이 유일하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연기면(428명), 금남면(240명), 연서면(96명), 전의면(79명)은 동 기간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였다.

장군면 지역 역시 세종시 평균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9개 면 지역 중 가장 많은 인구수와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공주시와 한솔동과 인접한 장군면 지역의 위치적 우위성으로 인해 한솔동 첫마을지역과의 물리적 연계가 밀접할 뿐만 아니라 세종시와 외부와의 교통 연결성도 높은 지역이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군면의 서세종IC를 이용하여 당진대전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연결되며, 대전 및 공주지역과의 동일생활권으로 인해 통행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3. 장군면의 인구분포와 인구밀도

인구분포와 인구밀도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방식, 경제발달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인구분포는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경지의 대소가 오랫동안 인구분포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지만 생산양식의 전환으로 상대적 인구 지지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를 잘 반영해주는 또 하나의 지표인 인구밀도는 생활양식, 생산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구 수용력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게 된다. 1960년대 부터 시작된 농촌지역의 과소화 및 인구 유출 문제는 장군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장군면의 인구밀도의 변화 추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인구 규모의 변화 추이와 동일하다.

세종시 지역 내에서 기존 중심지인 조치원읍의 인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정부청사가 들어선 한솔동의 인구 비중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군면은 한솔동, 조치원읍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가 늘어났지만 그 비중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세종시 지역별 인구밀도도 조치원읍이 여전히 가장 높은 가운데 한솔동의 인구 밀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솔동의 경우 2012년 8월 기준 1,058명/km²에서 2013년 12월 기준 2,098명/km²으로 두 배 가까운 성장을 하였다. 동 기간 한솔동 다음으로 장군면이 인구밀도 9.2% 증가하였다.

〈표 32〉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별 인구 분포

구분	2012년 8월		2013년 12월		증감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계	108,920	100.0%	124,615	100.0%	15,695
조치원읍	44,176	40.6%	48,048	38.6%	3,872
연기면	3,375	3.1%	2,947	2.4%	-428
연동면	4,084	3.7%	4,116	3.3%	32
부강면	6,836	6.3%	6,937	5.6%	101
금남면	10,579	9.7%	10,339	8.3%	-240
장군면	5,062	4.6%	5,526	4.4%	464
연서면	7,991	7.3%	7,895	6.3%	-96
전의면	7,256	6.7%	7,177	5.8%	-79
전동면	4,263	3.9%	4,312	3.5%	49
소정면	3,074	2.8%	3,087	2.5%	13
한솔동	12,224	11.2%	24,231	19.4%	12,007

〈표 33〉 장군면의 인구 현황 (2013년 2월)

구분	세대수	인구	면적(km ²)	인구밀도	비고
금암리	257	471	9.60	49.1	농사, 한국영상대학
대교리	278	623	5.45	114.3	농사
도계리	432	933	1.59	586.8	농사
봉안리	207	410	3.55	115.5	남양유업 공주공장
산학리	141	303	3.94	76.9	농사
송문리	123	273	3.03	90.1	농사
송정리	31	70	1.41	49.6	농사
송학리	137	303	3.70	81.9	농사
용암리	99	175	5.00	35.0	농사
용현리	38	76	2.18	34.9	농사
은용리	144	331	5.92	55.9	농사
태산리	73	160	2.03	78.8	농사
평기리	175	396	3.29	120.4	농사, 아세아산업
하봉리	183	385	2.50	154.0	농사

장군면의 인구 분포와 인구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장군면사무소가 위치한 도계리는 최소 면적에 최대 인구가 분포하여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도계리는 농촌지역의 1차 중심지이자 교통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도계리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장군면의 인구밀도 변화를 상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밀도를 병기하였고, 중심지의 배후지 역할을 하는 농촌지역이기에 낮은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4〉 참조).

〈표 34〉 장군면의 인구밀도 변화 (1963~2013년)

단위: 명/km²

구분	1963	1973	1983	1993	2003	2013
장군면	170.0	146.5	125.0	103.7	87.6	95.3
공주시	219.0	193.6	177.8	150.5	140.1	-
세종시	-	-	-	-	-	267.9

4. 인구이동

인구이동의 원인은 정치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이유 등의 여러 원인이 있다. 현 장군면을 포함한 공주 지역도 1960년대 이후 농어촌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 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출했으리라 본다. 최근의 인구이동은 주로 경제적 이유와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이나 상공업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주된 경향이다.

〈표 35〉에서 보듯이 공주의 인구이동은 2000년부터 2011년 기간동안 총전입 인구는 212,268명이고 총전출인구는 224,652명으로 약 1만2천여명 정도 전출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매년 전출초과되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 및 ‘세종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공포 시기를 전후하여 전출초과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는 공주시의 장기면과 의당면의 인구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현 장군면에 해당되는 지역만으로 산출하여야 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장기면과 의당면 전체로 대략적이거나 현 장군면의 인구이동 경향을 짐작해보고자 한다. 이 지역 역시 2000년부터 2011년 기간동안 총전입인구는 22,513명이고 총전출인구는 23,470명으로 약 1천여명 정도 전출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공주시가 동 기간에 모두 전출초과된 것에 비하여, 이 지역은 세종시 관련 상황에 따라 전입초과되기도 하였다.

〈표 35〉 공주시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2000~2011년)

(단위 : 명)

연도	총이동		시내	시군간		시도간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2000	17,636	19,019	7,856	2,511	2,553	7,269	8,610	-1,383
2001	17,754	19,492	8,497	2,255	2,484	7,002	8,511	-1,738
2002	18,268	19,583	8,684	2,488	2,561	7,096	8,338	-1,315
2003	18,437	19,928	8,259	2,480	2,782	7,698	8,887	-1,491
2004	20,143	20,678	7,621	2,967	3,977	9,555	9,080	-535
2005	18,772	19,437	8,392	2,638	2,864	7,742	8,181	-665
2006	18,612	19,667	8,225	2,617	2,670	7,770	8,772	-1,055
2007	17,065	18,753	7,082	2,680	3,023	7,303	8,648	-1,688
2008	15,854	17,308	6,674	2,374	2,911	6,806	7,723	-1,454
2009	17,272	18,260	8,192	2,380	2,604	6,700	7,464	-988
2010	16,139	16,193	6,853	2,353	2,314	6,933	7,026	-54
2011	16,316	16,334	6,762	2,208	2,474	7,346	7,098	-18

〈표 36〉 장기면과 의당면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2000~2011년)

(단위 : 명)

연도	총이동		시내	시군간		시도간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2000	1,100	1,064	1,041	281	219	819	845	36
2001	1,028	1,128	929	182	253	811	875	-100
2002	1,829	1,984	790	252	299	787	895	-155
2003	2,269	2,225	1,019	329	324	921	882	44
2004	3,007	2,626	1,161	420	418	1,426	1,047	381
2005	2,443	2,460	1,247	280	314	916	899	-17
2006	2,010	2,226	899	312	333	799	994	-216
2007	1,973	2,257	886	340	385	746	986	-284
2008	1,790	2,060	858	252	357	680	845	-270
2009	1,618	2,080	757	201	245	660	829	-462
2010	1,601	1,607	653	238	259	710	695	-6
2011	1,845	1,753	827	194	212	824	714	92

또, 공주시 시·도간 전입(2000~2011년 총전입인구 89,220명)과 전출(2000~2011년 총전출인구 98,338명)이 시·군간 전입(2000~2011년 총전입인구 29,951명)과 전출(2000~2011년 총전출인구 33,217명)보다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공주시의 전출 초과는 시·군간 인구이동보다는 시·도간 인구이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번에는 세종시와 장군면의 인구이동에 대해 살펴보겠다. 세종시는 첫마을 입주를 시작으로 전형적인 신도시 전입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시·도간 인구이동이 전입 인구의 84.6%, 전출인구의 55.4%를 차지하여 세종시의 인구이동은 주로 광역적인 시·도간 인구이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시 장군면 역시 전입초과지역인데, 이는 이미 2011년 장기군과 의당면의 인구이동이 전입초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예상된 바이다. 동 기간 시·도간 인구이동이 전입인구의 91.1%, 전출인구의 81.4%를 차지하여 장군면의 인구 이동도 주로 광역적인 시·도간 인구이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나 세종시 장군면 모두 시·군간 인구이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시·군간 인구이동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37〉 세종시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단위 : 명)

연도	총계		읍면동 간		시·군간		시·도간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2012 (7월~12월)	20,108	7,921	2,638	2,638	0	0	17,470	5,283	12,187
2013 (1월~12월)	23,816	15,121	4,107	4,107	0	0	19,709	11,014	8,695

〈표 38〉 장군면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단위 : 명)

연도	총계		읍면동 간		시·군간		시·도간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2012 (7월~12월)	436	337	36	77	0	0	400	260	99
2013 (1월~12월)	1,095	675	100	111	0	0	995	564	420

〈표 39〉 장기면과 의당면의 인구동태

구분	출생(명)	사망(명)	자연증가	혼인(쌍)	이혼(쌍)
1995	123	159	-36	239	42
2000	186	137	49	131	37
2005	110	138	-28	92	26

〈표 40〉 장군면의 인구동태 (2012년)

구분	출생(명)	사망(명)	자연증가	혼인(쌍)	이혼(쌍)
계	19	35	-16	16	10
남	6	26	-20		
여	13	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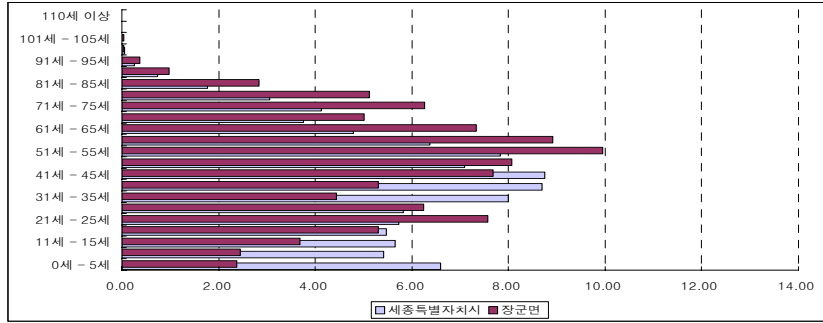
6. 장군면의 인구구조

1) 장군면의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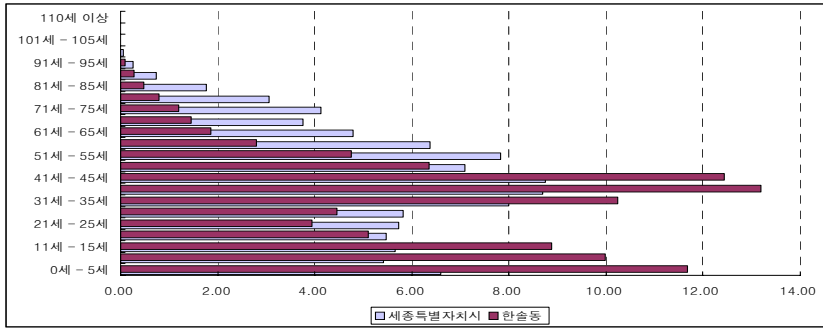
인구구조는 각종 인구현상 중에서도 인구의 질적 해석, 특히 사회·경제적 조건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구의 성·연령별 구조는 인구 구조의 가장 기본이 되며,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인구 피라미드를 통하여 인구의 특징을 비교·파악할 수 있다. 인구 피라미드는 출생, 사망, 인구 이동 상태에 따라 모양에 변화가 나타난다.

장군면의 인구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솔동의 인구피라미드와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장군면의 인구구조는 유소년층의 비중이 낮고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종형의 형태를 보이는 반면, 한솔동의 인구구조는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고 노년층의 비중이 낮은 표주박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세종시와 비교하여 세종시와 장군면, 세종시와 한솔동의 인구피라미드를 그려보면 〈그림 33〉, 〈그림 34〉와 같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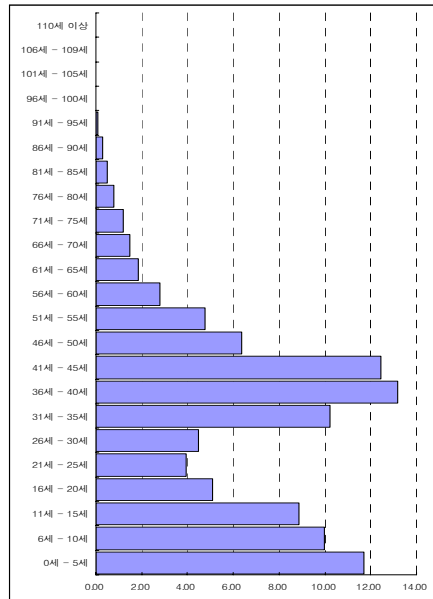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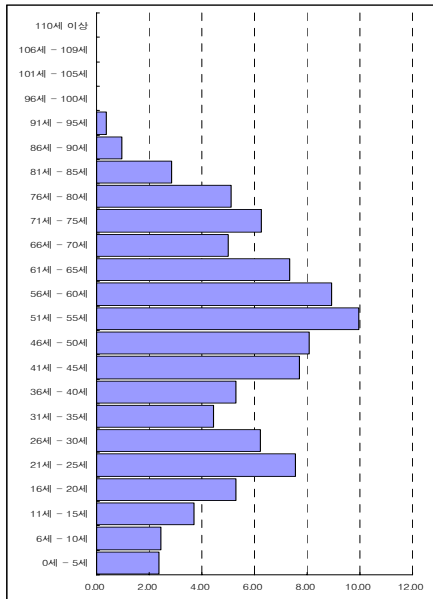
장군면은 세종시에 비해 15세 미만의 인구와 31~45세 인구는 적은 비중을 나타내지만 45세 이상 인구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솔동은 세종시에 비해 15세 미만의 인구와 31~45세 인구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지만 45세 이상 인구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 2013년 세종시와 장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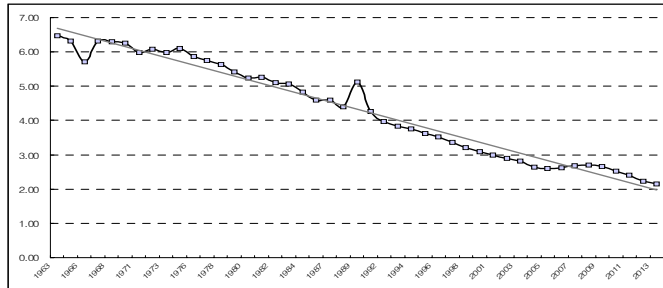


〈그림 34〉 2013년 세종시와 한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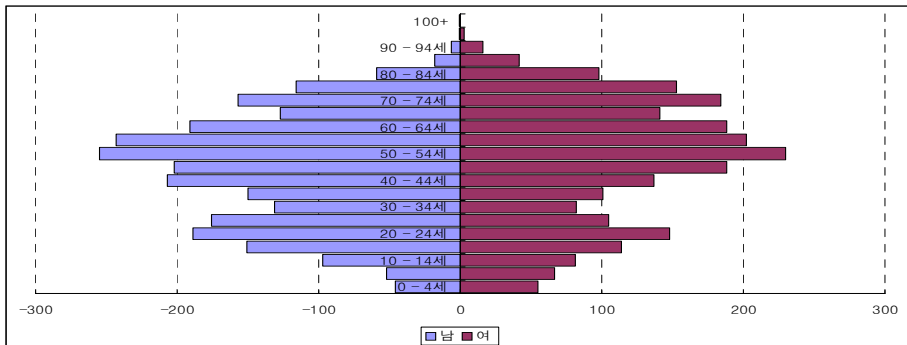


〈그림 35〉 장군면의 인구구조(좌)와 한솔동의 인구구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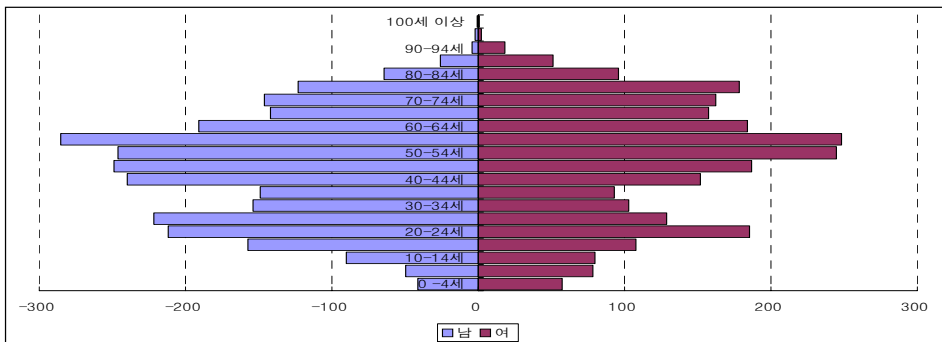
세대당 인구를 살펴보면 2012년~2013년 사이 세종시의 세대당 인구수는 2.5명인데 비하여 한솔동은 3.2명, 장군면은 2.2명으로 나타나 세대 구성이 인구 피라미드와 연결되어 설명되어진다. <그림 36>에 의하면 장군면의 평균 가구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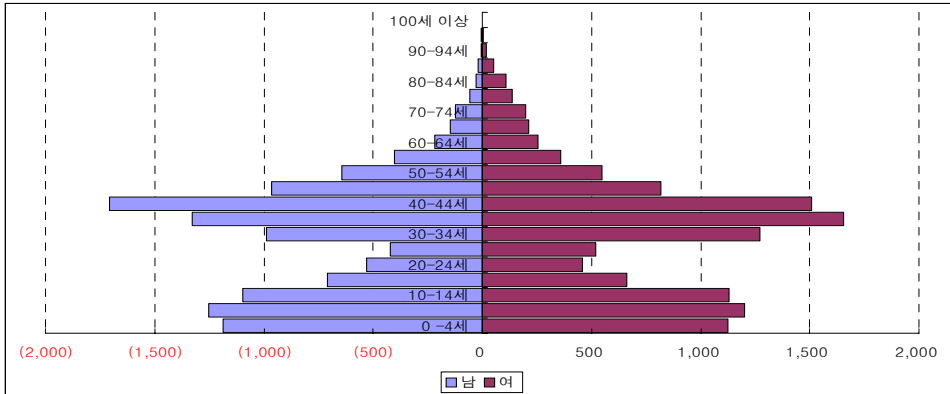
<그림 36> 장군면의 평균 가구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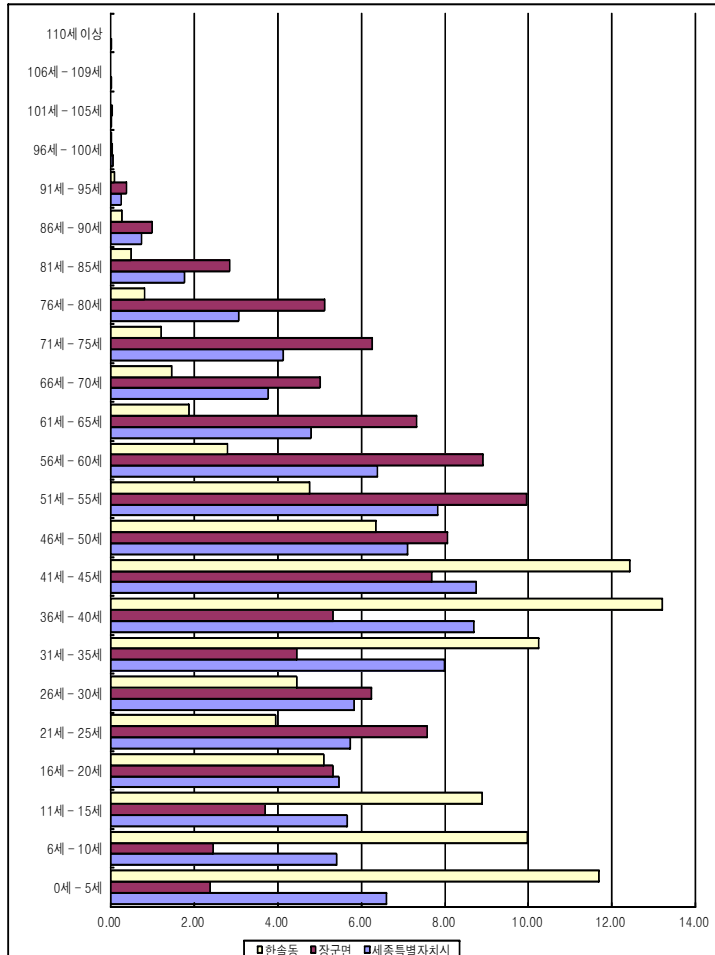
<그림 37> 장군면 2012년 12월



<그림 38> 장군면 2013년 12월 기준



〈그림 39〉 한솔동 2013년 12월



〈그림 40〉 인구구조

제7절 가옥과 촌락

인간의 기본 욕구 중 주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옥이다. 협의의 취락은 이러한 가옥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옥이 고립하여 있는 경우는 희소하고, 대체로는 모여 촌락과 도시를 형성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상부상조하여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취락’이며, 지리적으로는 단지 가옥의 집합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부속건물, 울타리, 토지, 도로, 공지 등 일상생활의 무대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류가 취락을 형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집단적 사회성에 기인하나, 그것의 위치·형태·크기·구조·기능 등의 구체적 성격은 각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제 요인에 의하여 규정된다. 또, 취락은 한번 형성되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착성을 나타내는 만큼 지리적으로 각 지역의 인간생활을 살피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취락은 인간이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취락의 유형에는 크게 촌락(村落, rural settlement)과 도시(都市, urban settlement)가 있다.

이 두 유형의 취락은 인구수나 인구밀도, 행정구역의 성격, 주민의 경제활동 양상, 주민의 사회적·문화적 행태, 경관과 토지이용 등의 차원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의 취락을 분류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취락의 기본요소가 되는 가옥에 대하여 언급하고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1. 장군면의 가옥

1) 주택의 종류와 점유형태

공주시의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물의 재료는 목조, 철근철골조, 조적조, 기타로 되어 있으며, 용도는 주거용, 농림수산용, 상업용, 공공용, 문교용, 사회용,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공주시의 주택의 종류는 <표 41>과 같다. 현재 공주시의 주택 보급율은 111.1%이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모두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단독주택은 공주시 전역에 걸쳐 어느 곳에서나 건립되어 있으며, 특히 아파트의 증가가 현저하다. 아파트는 중학·산성·웅진·금학·옥룡·신관동의 도시지역과 의당면·유구읍·반포면·정안면의 농촌지역에도 건립되어 있다. 연립주택은 중학·산성·웅진·금학·옥룡·신관동의 도시지역과 유구읍·장기면 지역에 건립되어 있으며, 다세대주택은 중학·산성·웅진·금학·옥룡·신관동의 도시지역과 유구읍·장기면·신평면·이인면에 건립되어 있다.

현 장군면과 연관된 공주시의 장기면, 의당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장기면은 현저히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으나, 의당면은 청룡리 일대에 1999년 신한1차·2차 아파트 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하여 인구 증가한 것에 기인하여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의 주택 현황 (2011년)

(단위 : 호)

구분	합 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공주시	49,345	32,285 (65.4%)	5,799 (11.8%)	14,454 (29.3%)	1,046 (2.1%)	697 (1.4%)	863 (1.7%)
동 지역	28,638	13,320	5,590	12,947	1,035	693	643
장기면	1,941	1,629 (83.9%)	20 (1.0%)	285 (14.7%)	-	-	27 (1.4%)
의당면	2,177	1,211 (55.6%)	2 (0.1%)	966 (44.4%)	-	-	-

<표 42> 공주시의 주택의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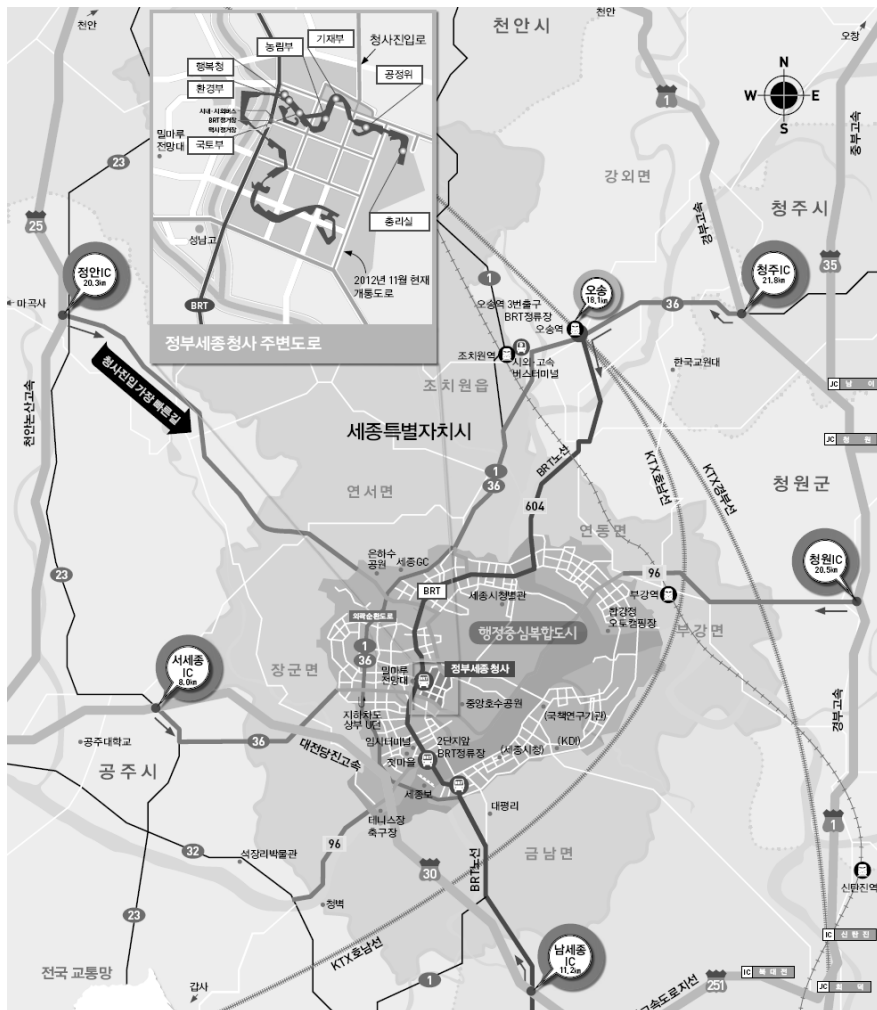
(단위 : 호)

연도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1995	38,141	29,004	3,953	1,531	1,408	1,160	1,085
2000	37,192	29,355	3,195	2,826	390	336	1,085
2005	43,965	29,248	5,358	4,236	1,390	2,191	1,542
2010	44,317	30,288	5,190	4,799	1,534	1,235	1,271

최근 장군면은 세종시의 배후지로서 원룸신축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 원룸촌은 장군면 금암리의 한국영상대학교 인근 원룸촌 정도였으나, 세종시를 기반으로 하는 도계리, 봉안리 일원에 집중적으로 신축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12월~2013년 12월동안 도계리 인구는 616명에서 990명으로 60.7% 증가하였으며, 봉안리 인구는 303명에서 511명으로 68.6% 증가하였다.

정안IC와 서세종IC 등을 통해 세종시로 들어오는 국도 도로변에 집중 개발되고 있는데, 세종시 서부지역 중에서 정부청사 최인접지역인 봉안리가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1〉 정부 세종청사 진입 경로도



〈사진 26〉 장군면 봉안교차로 주변의 원룸촌 경관



〈사진 27〉 장군면 봉안리 주변의 신축 경관

2) 전통가옥

전통사회 장군면의 주택은 지붕의 분류로 초가와 기와집이 있고 건축의 용도로 안채와 사랑채, 헛간, 짐승우리 등이 있다. 건축의 방식으로 나누어 보면 목조와 벽돌집이 있는데 흙벽돌의 건축방식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본격 시행되었으며 벽채를 현대의 시멘트 건축 시 거푸집을 지어 건축하는 방식과 흡사하게 거푸집을 지고 흙을 이겨 붓고 말려 만드는 틀집(틀담)의 형태가 있었다. 이 밖에도 벽돌을 쌓듯이 이긴 흙과 돌을 사용하여 쌓기도 하였다.

건축의 면적은 가로 세로 2m, 4m를 한 칸이라 하는데 보통은 한 칸의 방을 만들고 큰방은 한 칸 반이나 두 칸을 통합하는 방도 있었다.

초가삼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서민들의 안채는 안방 옷방이 각 한 칸이며 부엌은 나무간이 있어 한 칸 반에서 세 칸에 이르고 마루나 들 자리가 한 칸이었다.

서민의 집으로 조금 큰 집은 안방 옷방, 건너방을 각 한 칸 반으로 하고 부엌은 두 칸에서 세 칸 사이며 건너방은 바깥부엌이라 하여 가마솥을 걸었는데 이곳에서 소의 여물을 끓이는 화력으로 난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을의 부잣집들은 사랑채를 짓는데 사랑채에는 대부분이 방 한 칸 곡광 헛간채를 포함하여 짓기도 하고 잘 지어진 사랑채는 사랑 안방과 옷방으로 방이 두 칸이며, 벼를 저장하는 곡광과 헛간을 이어짓는다.

(1) 집터

집을 짓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집터를 확보하는 일이다. 집터는 대부분 마을을 형성하는 주변의 공터에 확보하는데 묵은 집터에 집을 짓는 경우와 새로운 터를 확보하여 짓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새 터의 경우 자기 소유의 전답에 터를 만드는 것과 남이 보유한 집터를 얻어 짓는 2가지가 있다.

집터는 70-200평 정도가 일반적이며 집터를 지관이 잡는 사례는 부잣집에서나 행하였던 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집터는 단순히 자신의 소유 토지 중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인 경우 외에는 하지 못하였다. 일반 서민들은 필요에 의하여 확보 가능한 땅에 지었다는 말이며 지관의 역할은 정해진 터의 지형에 맞추어 방향을 정하는 정도였다.

전통사회 장군면에서 남의 터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매우 적었다.

또한 땅이 많은 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집터를 빌려 주는데도 인색하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땅이 많아 부자(地主)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한 터를 빌려 달라하는데 빌려주지 않으면 지탄을 받았다. 단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남의 땅에 집을 지으려 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였다.

집이 생산적인 토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남의 땅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고 대지와 건물이 각각 거래되는 관행이 만연하여 집을 사는 사람도 터와 집을 따로 구입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현재까지도 장군면의 일부 마을은 집터가 한사람의 소유인 사례가 남아 있으며 집터의 임대료인 도조(공주말 텃도지)는 터의 면적에 따라 다르며 연 백미 2-5두였다.

(2) 주택의 형태

장군면 일원에는 1자(一字)형 주택, 2자(二字)형 주택 기역자형주택, 디근자형 주택, 미음자형 주택 등이 있는데 이중 일자형과 기역자형과 디근자형, 미음자형의 4종류가 조사되었다.

- 일자형 주택 : 안채 건물이 일자형으로 방 2-3개에 부엌 1개의 구조로 지어지고 헛간은 일정한 격식 없이 지은 주택들
- 기역자형 주택 : 안채 건물이 기역자형으로 방 3~4개에 부엌 2개, 대청이 있는 구조로 지어지고 헛간은 일정한 격식 없이 지은 주택들
- 디근자형 주택 : 안채 건물은 기역자형, 사랑채나 문간채는 일자형으로 방 4~5개, 부엌 2개, 대청이 있는 구조로 지어지고 헛간은 사랑채나 문간채를 전통의 목조 건물로 지은 주택들
- 미음자형 주택 : 안채와 사랑채나 문간채를 모두 기역자형으로 지은 집으로 방 4~5개, 부엌 2개, 대청이 있으며 사랑방 앞 뒷마루를 놓는 구조로 지어지고 사랑채나 문간채를 전통의 목조건물로 지은 주택들

주택의 형태를 구분함에 있어서 사랑채나 문간채와 헛간의 구조에 따라 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의 변화에 가장 많이 변한 부분 중 하나인 헛간채의 개념과 건물 방식이 현재와 전통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시멘트 벽돌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랑채나 헛간 등이 재건축되거나 철거되어 옛 모습을 지니고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매우 적다.

(3) 건축의 규모

앞서 기록한대로 장군면 일원에서는 썸하는 집의 규모의 기준이 <칸>이다. 칸의 개념은 기둥과 기둥의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이지만 공주에서의 칸은 사방 여덟자, 즉 가로 세로 2m 40cm의 규격을 이르는 말이다.

주택은 최소 방 1칸 부엌 2칸의 3칸 집이 조사되었으나 현재는 소멸되어 남아있는 것이 매우 적고 남은 것도 1970년 새마을 운동 이후 주택개량 사업에 의해 변형된 것들 뿐이다. 현재 남은 주택은 6칸에서 13칸 사이다. 9~10칸이 가장 많고 사랑채를 포함하여 20칸 이상의 가옥도 보인다.

(4) 지붕

장군면 일원에서 전통 가옥의 면면을 살펴 볼 수 있는 가옥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지붕은 기와, 초가, 돌기와, 스투트, 함석이다. 장군면 중, 구 의당면의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필자가 표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건축 당시의 기준으로 지붕 형태는 초가지붕이 54%, 기와지붕이 38%, 스투트 8% 였다.

지붕을 무엇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건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무엇보다 주택 신축에 드는 자원(費用)이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초가지붕은 별도의 기술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마을 내 자체 노동력이나 가족 노동력만으로 신축이 가능하지만 지와 지붕은 기와 구입비용 외에도 <기와쟁이>로 일컬어지는 기술 인력이 필요했으며 작업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일반 노동력을 확보하는데도 비록질 일꾼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와쟁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조정하여 제공하기에 차이가 매우 컸다.

(5) 방

장군면의 주택에서 본채의 경우 3개의 방이 가장 흔하고 적은 집은 2개, 많은

집은 4개다. 방의 크기는 1칸 반이 가장 많고 다음이 1칸이며 방 하나에 2칸인 방은 아주 적었다. 구 의당면 지역에 평균 방의 수는 3개, 3개 방의 평균 칸수는 4.3칸으로 방 1개당 1.3칸이다. 사랑채는 평균 2개, 방 1개당 칸수는 1칸이다.

방의 크기는 반 칸 방, 한 칸 방, 한 칸 반 방의 3종류이며, 반 칸 방의 경우는 골방이 많고 나머지는 집안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리 짓는다.

장군면에서 방을 부르는 이름은 집의 구조와 마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안방 옷방은 공통이며 안방이나 옷방의 경우 한 칸 반의 크기로 만들면서 반 칸에 벽을 쌓아 문을 달거나 미닫이문을 설치한 경우는 골방이나 뒷방이라 부른다.

건너방의 경우에는 사랑채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를 보였다. 사랑채가 있는 집의 건너 방은 대부분 건너 방으로 부르는데 반하여 없는 집의 건너 방을 사랑방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이한 것은 부엌 옆이나 뒤에 있는 부엌 머릿방인데 머릿방이라 칭하는 집은 없고 <부엌 뒷방>으로 부른다.

(6) 부엌

부엌은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으로 솥을 건 부뚜막, 땀감을 쌓아두는 나뭇간,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는 문건을 보관하는 작은 창고인 부엌광, 찬장 등의 부엌 가구를 비치하거나 조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살강으로 부르는 부엌 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부엌으로 일컫는다.

이런 연유에서 부엌은 방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 1개는 커야 1.5칸인데 반하여 가장 작은 부엌이 2칸이었으며 보통은 2.5 내지 3칸이 일반적이었다.

사랑방이나 건너방의 부엌은 벽을 설치하지 않은 형태가 많은데 이를 바깥부엌이라 통칭하며 크기는 대부분 0.5칸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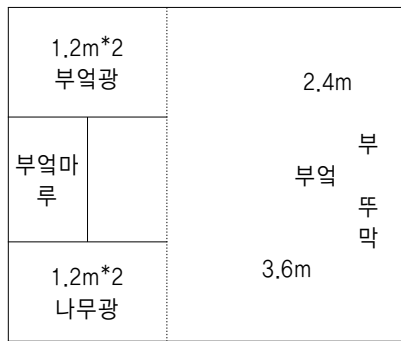
전통사회 부엌에 필수적으로 배치했던 공간은 부뚜막과 나뭇간이다. 아궁이에 불을 때야 했고 연료인 나무를 쌓아둘 공간이기 때문이다. 나뭇간은 사방 너자(120cm) 정도이고 나뭇간이 큰집은 반 칸으로 너자에 여덟 자를 두기도 하였다.

살강으로 불린 부엌 마루는 빈 공간으로 두기도 하며 3칸의 부엌에는 역시 사방 너자 규모의 부엌 광을 설치하기도 한다.

부엌은 앞문 뒷문의 2개의 문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뭇짐이 들어가야

하기에 다른 문들 보다 높다. 부엌에 내는 창은 부엌의 앞뒷문 상단에 연기가 빠지도록 설치하는 간살을 고정하고, 창과 미닫이 창이나 전통의 방문을 가로로 설치하여 밀어 괴는 밀창을 내는 정도인데 이는 정통의 목수가 잘 지은 집에 설치하고 서민의 가옥에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엌으로 내는 벽장은 부엌 전체를 벽장으로 만들어 방처럼 넓게 쓰는 누다락과 안방의 벽장이 있는데 이 모두 안방에 문을 내어 출입하며 누다락의 경우 부엌 앞뒷문 쪽으로 작은 밀창을 내기도 한다.



〈그림 42〉 전통사회의 부엌 구조



〈사진 28〉 옛 모습 그대로의 부엌 광



〈사진 29〉 부엌 내 나뭇간(장군면 봉안리)

(7) 마루

장군면의 전통가옥에서 보이는 마루는 대청을 비롯해 모두 7종류가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청 : 기억자 집의 경우 안방과 옷방 앞에 설치하고 일자집은 옷방 옆에 설치하며 크기는 1칸, 1.5칸, 2칸, 3칸 등이다. 손님의 접대와 가족의 일반적인 사용 공간인 동시에 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 마루(안방마루) : 거의 모든 가옥에 안방과 옷방 앞에 설치된 곳으로 폭 1.2m 길이 4.8m가 일반적이며 대청을 넓게 설치하는 구조가 아닌 모든 가옥에 설치되었다. 집안이 가난한 경우 마루를 놓지 못하고 맨 흙바닥에 밀 대방석이나 자리를 깔고 사용하였으며 이때의 호칭은 <뜰팡>이었다.
- 사랑방 마루 : 사랑채의 사랑방 앞에 놓는 마루로 크기는 집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 건너방 마루 : 대청의 맞은편 또는 옷방의 옆으로 설치된 건너방의 앞에 놓이는 마루. 벽이 없는 바깥부엌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바깥 부엌의 바닥을 파고 대청보다 45~60cm 높게 마루를 놓기도 하였다.
- 건너방 뒷마루 : 건너 방의 옆에 놓이는 마루
- 대청 뒷마루 : 대청 뒤에 놓는 마루로 <뒷마루>라고 불리기도 한다. 기둥에 의지하지 않고 별도의 기둥을 세워 놓으며 폭이 좁다.
- 살강 : 부엌 마루

(8) 광(塲)

장군면의 전통가옥에서 보이는 광(倉庫)은 곡식의 알곡, 주로 벼를 담아 저장하는 곡광(穀塲)과 일반의 살림 물품을 저장하는 토광(土塲)으로 나뉜다. 토광의 경우 헛청과 유사하지만 헛청은 앞부분 벽이나 문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이르고 토광은 벽을 설치하고 문을 달아 쓰는 실내형의 창고를 이룬다. 일부 부잣집에서는 별채 건물로 곡광을 짓기도 하였으며 이는 가장 양지바른 곳에 짓고 1년에 한 번은 곡광을 모두 비워 말리는 것이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사진 30> 별채로 지은 곡광의 모습

(9) 벽장

장군면의 전통가옥에서 보이는 벽장은 설치의 장소와 규모에 따라 이름을 달리 하는데, 모두 6종의 벽장이 있으며 이는 모두 건축 당시의 기준이다. 이를 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벽장(안방 벽장) : 누다락을 설치하지 않는 거의 모든 집에서 안방에서 부엌 쪽의 벽에 설치하는 수납공간이다. 깊이는 2자 이내, 폭은 5-8자 정도다. 다른 이름은 없고 모두 벽장이라 하며 2개 이상의 벽장이 있는 경우만 안방 벽장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 누다락(벽장 방) : 부엌의 바닥을 파내어 방보다 깊은 구조에서 설치되는 안방의 벽장 중 가장 큰 규모다. 대부분 부엌 본 칸 네 기둥에 수장을 걸어 마루바닥을 깔아 만든다. 안방으로 출입문을 내고 앞뒤로 통풍을 위한 작은 창을 내며 누다락에 사람이 거하는 경우 일부에서 벽장방이라 부른다.
- 건너방 벽장 : 건너방에 불을 때기 위해 설치하는 바깥 부엌 상단에 설치되는 벽장으로 마루 다락이 설치되면 만들지 못한다.
- 사랑방 벽장 : 사랑방 부엌 상단에 만들며 건너방 부엌과 같다. 단 사랑방의 부엌이 바깥부엌이 아니라 실내형인 경우 누다락을 만들기도 한다.
- 마루 벽장 : 주택 본채의 안방 마루 중 벽의 일부에 설치하는 벽장. 문을 달지 않아 편한 수납공간으로 활용한다. 문을 다는 벽장도 있으나 마루 벽장은 문을 달지 않기도 하는데 이런 벽장은 <난달 벽장>이라 이른다.
- 다락 벽장 : 건너방 바깥 부엌의 벽장 자리에 설치한 건너방 앞마루에 누다락처럼 천정까지 벽을 쌓은 혼합형 벽장을 이르는 말. 아직도 원형이 보존된 다락 벽장이 있는데 건너방 벽장과 다른 점은 1) 천정이 높고 마루 전 면적을 벽장화 하여 면적이 넓으며 2) 문의 구조가 미닫이 형이 아니라 누다락의 구조와 같아 사람이 출입 할 수 있게 하며 3) 문을 대청에서 출입하게 낸다.



<사진 31> 난달벽장



<사진 32> 다락 벽장의 내부

3) 개량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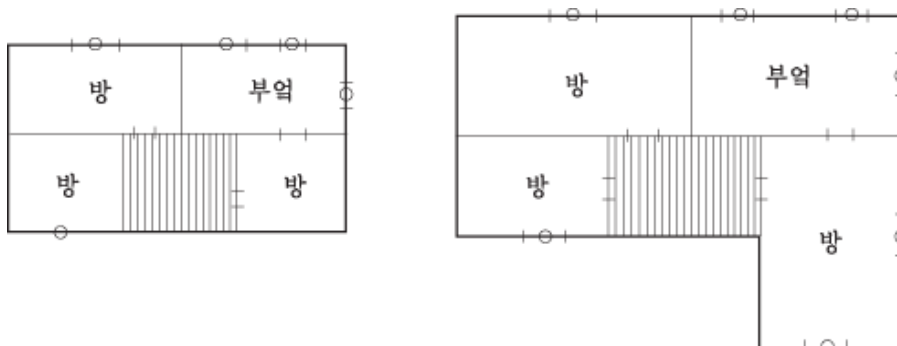
1960년대부터 농촌에 파급된 새마을운동, 1977년부터 추진되어 온 취락개선사업, 그리고, 산업화 내지 도시화의 물결이 농촌지역에 침투하면서 우리나라의 농촌은 사회경제적구조 뿐만 아니라, 가옥의 재료, 형태, 구조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주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 공주지역에서 조사한 대상 가옥을 건축년대로 나누어 보면, 1900년 이전에 건축한 가옥이 5.5%, 1900~1945년 사이가 16.1%, 1945~1960년 사이가 12.8%, 1960~1977년 사이가 25.6%, 그리고, 1977년부터 실시된 취락개선사업 이후에 건립한 것이 40%로 조사된 바가 있어, 공주지방에서도 이미 80년대에 개량주택의 보급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의 농촌주택은 건설부에서 일정한 표준형주택을 제시해 주고, 농민들이 그 중에서 선택하는 형식이었다. 이 때 공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권장된 개량주택형은 건설부 표준형주택 15평 다형과 18평 다형이었다.

현재는 30평 이상의 농촌주택은 허가를 얻어야만 건축할 수 있지만, 30평 이하의 주택은 신고만 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공주지방에서도 전통적 민가는 거의 없어진 대신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에 의한 개량주택의 가옥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농어촌주택은 그동안 농어촌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도시의 주택을 그대로 이전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답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의 향의 배치, 향후의 증축여부, 창고, 대문, 마당, 화단, 텃밭, 지붕의 모양과 벽면의 색깔 등을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그림 43 참조>.



<그림 43> 개량주택의 구조

이러한 개량주택의 보급은 전통적 농촌주택에서 도시형주택으로, 대가족 중심의 가옥구조에서 핵가족 중심의 가옥구조로, 홑집형에서 겹집형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개량주택의 평면상 공통점은 주택의 전면 중앙에 마루(거실)가 있고, 마루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방이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는 전통적 가옥에서 대청이 갖는 기능과는 전혀 다른 구조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통가옥에서의 대청마루는 안방과 건너방을 분리시키는 공간이라면, 개량주택(도시형주택)에서의 마루는 각 방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가옥의 구조가 대가족제도의 생활체제에 맞추어진 구조라면, 개량주택에서의 그것은 핵가족생활체제에 맞추어진 가옥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겹집인가 홑집인가의 유형으로 구분할 때, 공주지방의 전통민가는 1방쪽의 홑집이지만, 개량주택은 완전한 2방쪽의 겹집형(전자형)이다.

이와 같이, 공주지방 가옥의 평면구조는 ‘겹집형→홑집형→겹집형’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아파트와 연립주택

인구구조가 소가족화,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주택 수요는 크게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활발하게 건축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주택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파트의 건설이다. 전국적인 주택유형별 주택 분포를 살펴보면, 1995년까지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 센서스 조사 결과 처음으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에도 아파트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수요의 급증, 교통의 발달과 생활의 편리함, 도시지역 보다 저렴한 지가와 부지 확보의 수월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이 점차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다.

금암리의 경우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통가옥의 흔적은 점차 사라지고 한국영상대학교 인근 원룸촌 모습만 남아있다.



〈사진 33〉 금암리 일대의 주택 경관

2. 장군면 촌락의 발달

1) 공주 촌락의 형성과 발달

공주지역에 이미 오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석장리 구석기 유적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며, B.C 4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오는 신석기인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신석기인들의 생활무대는 대개가 큰 하천의 하류지역이나 해안 또는 도서지방이었다. 마제석기와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고 대체로 수변생활자였던 신석기인들의 유적은 한반도의 서남해역이나 한강유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B.C700년경에 이르면 청동기문화시대가 전개되는데, 이 시대의 유적들은 충남의 모든 지역에서 나온다. 그 대표가 되는 것이 부여 송국리 선사유적지와 해미 휴암리 선사유적지이다. 이들은 내륙의 낮은 구릉지대에서 농경생활을 시작하며, 주거지가 밀집화하기 시작한다. 철기문화는 B.C 4세기경에 들어오는데, 이 철기 문화는 초기 국가의 성립과 농경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마한의 시대를 거쳐 백제시대에 이르면, 공주는 백제의 중심지였다. 백제의 땅은 3국 중 지리적으로 가장 발전의 가능성이 큰 지역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면, 공주지역은 신라의 지배를 받는데, 이 통일신라시대에 작성된 촌락문서가 발견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신라 촌락문서는 경덕왕14년(755)에 작성된 서원경(西原京) 및 그 부근 4개 촌락에 대한 장적(帳籍)이다. 3년마다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이 장적에는 촌역(村域), 연 [호] 수(烟[戶]數), 구수(口數), 전답(田畝)의 면적,

우마수(牛馬數), 뽕나무(桑), 잣나무(柏), 대추나무(楸)의 수와 그 변동이 기록되어 있어, 8세기 중엽 고대 촌락의 사정을 살피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더욱 서원경(西原京)은 오늘의 청주이니, 청주의 인근인 공주지방의 고대 촌락의 실상을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되는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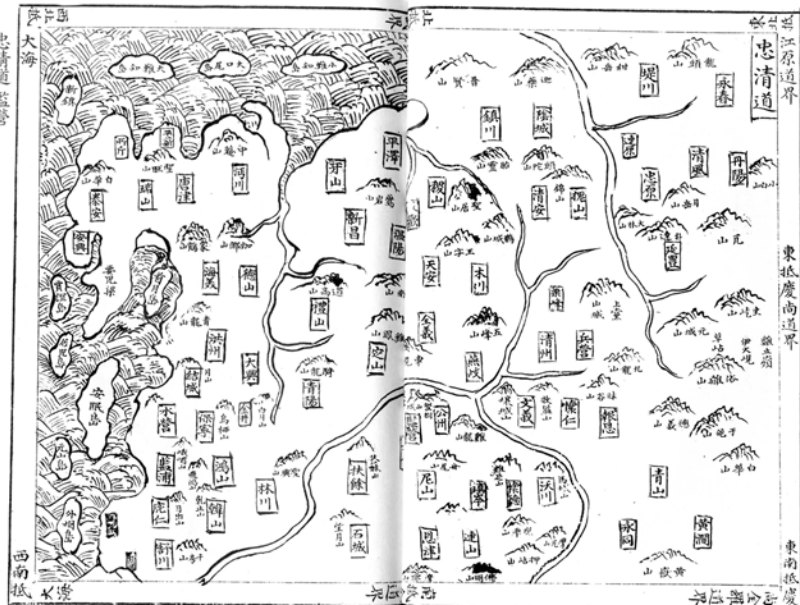
이 신라 촌락문서에 등장하고 있는 4개 촌락의 실상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완전히 통합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들 촌락을 우리나라 자연촌(自然村)의 원형(prototype)이라고 보기로 한다. 이 4개의 촌은 인구수에 비하여 엄청나게 넓은 촌역(村域)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각 촌역(村域)을 표기하는데 있어 획일적으로 ‘견산내여지(見山內與地)’라고 적고서 다음에 둘레 몇 보(步)라고 적고 있는데, 그 범위가 오늘의 상식으로 보아 대단히 광대하여 이것은 경지뿐만 아니라, 아직 미개척의 산림지(山林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범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의 경지개척방식은 화전개척방식(火田開拓方式)이었을 것이며, 화전개척은 원칙적으로 대체경작(代替耕作)을 수반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국가에서 촌락을 파악할 때도 각 호가(家戶) 중심이 아니라 촌역(村域) 중심으로 파악했다고 생각된다. 결국, 통일신라시대의 촌은 촌주(村主)로서 대표되는 지역촌(地域村)[연합촌]이 있고, 지역촌 안에 몇 개의 자연촌(自然村)이 포함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촌은 소촌(小村) 내지 산촌(散村)의 형태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자연촌들이 그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경지가 개척되고 또 숙전화되면서, 다시 말해 내적 충진이 이루어지면서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후기정도에 이르면, 면·리[동] (面·里 [洞])로 성장·발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촌락 역시 그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신라 장적에서 보여지는 촌의 구조와 대략 비슷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고려시대에도 지역촌이 있고, 그 안에 몇 개의 자연촌이 존재하는 이중구조를 이루었다고 본다. 이 지역촌의 촌주(村主)는 위로 군·현(郡·縣)에 대하여 지방자치세력을 대표하고, 아래로 몇 개의 자연촌을 통솔하는 지배적 권위를 지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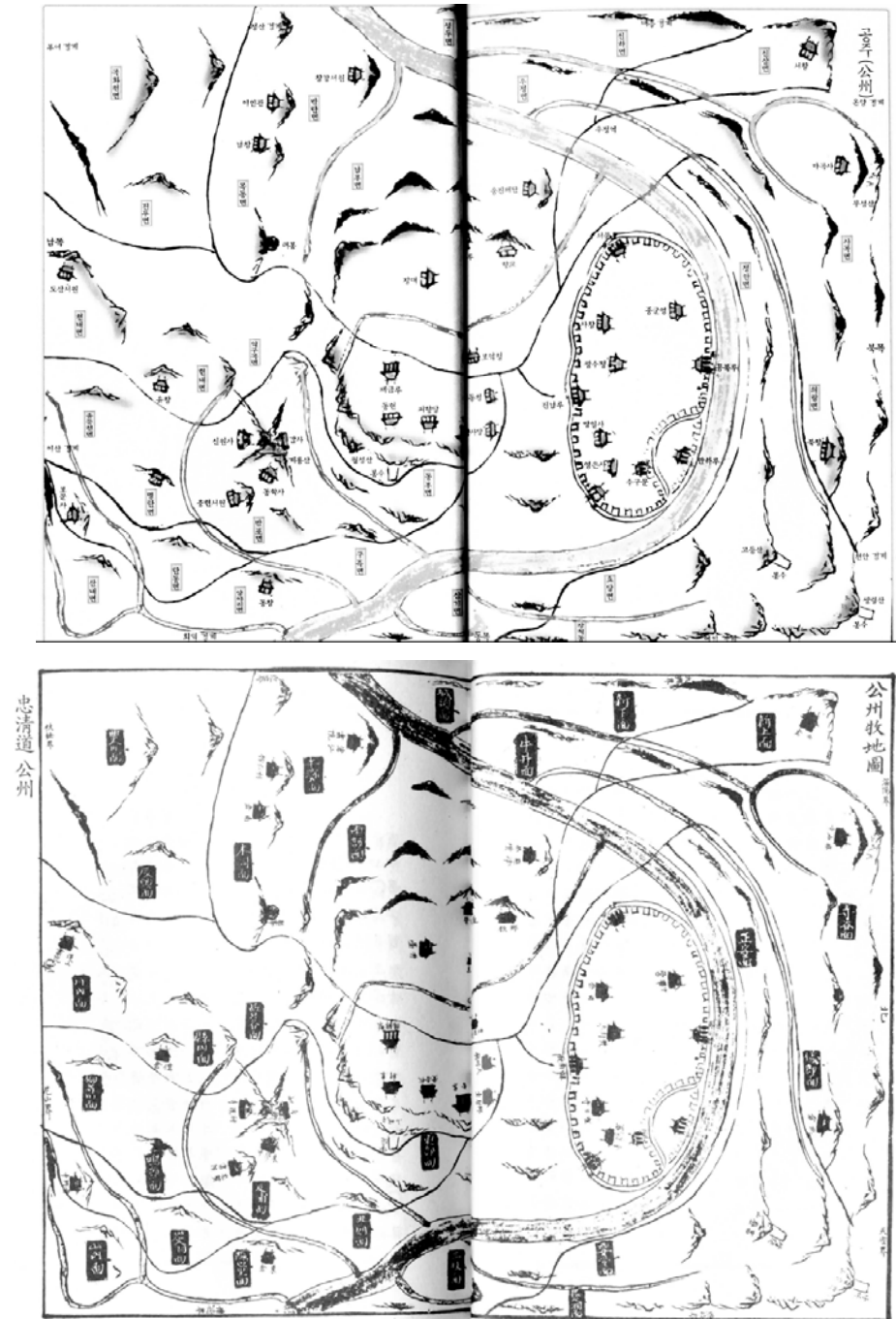
조선전기까지는 하나의 자연촌(自然村)이 하나의 리(里)를 형성할 만큼 자연적 최소생활공간이 규모화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룰수록 인구의 증가, 경지의 개간과 확대, 농법의 개량과 생산량의 증대 등으로 점차 생활공간이 규모화하고, 이러한 변화는 자연촌의 성장·발달, 나아가 이것은 집촌

(集村)으로의 성장·발달로 진전되어 왔다. 더욱 15세기 이후 수전농업(水田農業)의 발달과 종법사상(宗法思想)의 강화는 우리나라의 촌락을 집촌(集村)으로의 성장과 아울러, 동족촌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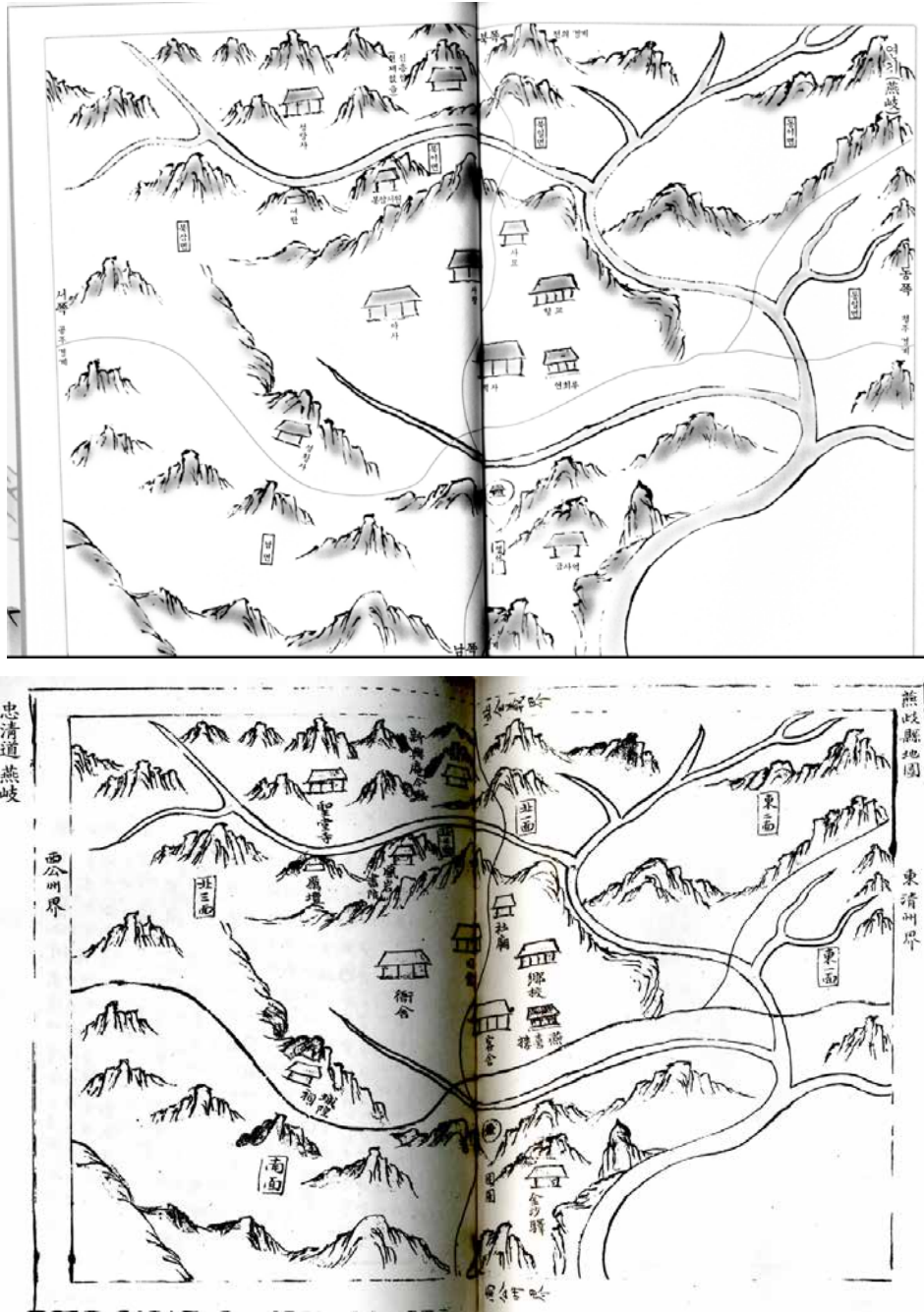
촌락의 응집이 거의 오늘날과 같이 고정되는 것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이다. 그것은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영조 35년(1759) 자료인 「여지도서」를 보면, 전국이 완전히 면·리 체제(面·里體制)로 확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호·구수(戶·口數), 남·여수(男·女數)가 파악되어 기록되고 있다. 「여지도서」 이전의 자료, 즉,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아직 구체적 리(里)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여지도서」 당시 공주목(公州牧) 소속의 면·리(面·里)를 보면, 면은 26개, 리는 207개로 기록되어 있다. 더욱 그 약 30년 후인 정조 13년(1789) 자료인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보면, 공주목(公州牧) 소속의 면은 26개, 리는 1,010개로 기록되어 있어, 리의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후, 이러한 면·리는 그 명칭과 관할 구역의 변화, 그리고 인구수의 변화는 있어도 이것들이 바탕이 되어 현재의 면·리의 근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리하여 1996년 현재 공주시 관내의 리는 285개이고, 그 안에 자연부락이 966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4〉 「여지도서」의 충청도 지도



〈그림 45〉 「여지도서」의 공주목 지도 (상: 채색, 하: 원본)



〈그림 46〉 「여지도서」의 연기현 지도 (상: 채색, 하: 원본)

2) 장군면의 촌락 형성 및 발달

우리나라 농촌취락은 거의 다 자연발생적 취락이며, 이러한 점에서 공주시의 농촌취락도 예외가 아니다. 자연발생적 촌락은 자연환경에 인간생활이 가장 밀접하게 적응한 형태로서, 우리는 이를 ‘자연촌락’ 혹은 ‘자연부락’ 이라고 부른다. 자연촌락은 촌락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을’ 이라 부르며, 행정적 파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연부락’ 이라 통칭한다. 따라서 자연부락은 촌락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단위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지표위에 분포하고 있는 촌락의 모습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주시는 966개의 자연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자연마을수가 많은 읍·면을 순서대로 보면, 유구읍, 계룡, 우성, 탄천, 정안, 이인, 사곡, 장기, 의당, 신평, 반포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군면의 연혁을 살펴보면, 백제시대 웅천관할지역에 속하였으며 신라시대에는 웅천, 웅주관할 지역에 속하였다가 고려시대에 이르러 공주목 관할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공주목 관할에서 공주군 장척면, 요당면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장척면, 요당면, 삼기면 일부의 이름을 따서 장기면으로 하게 되었다.

1973년 나성리와 송원리가 연기군 남면으로 편입되고, 1983년 무릉리, 월송리, 신관리, 금흥리가 공주읍으로 편입되고 의당면 송정리 일부가 장기면으로 편입되면서 송문리로 개칭되는 과정 등 여러 차례 행정구역 변경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2012년 7월 공주시 장기면 14개 마을과 의당면의 7개 마을을 합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출범하게 되었다. 장군면의 도계리는 면사무소가 위치한 중심지역으로 상업 기능체들이 집중 분포하는 경관을 보이고 있다.

〈표 43〉 세종시 지역별 행정구역(2013년 2월)

	법정리	행정리	반수
조치원읍	14	29	
연기면	9	15	58
연동면	10	26	69
부강면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금남면	27	43	170
장군면	14	20	88
연서면	13	25	123
전의면	15	31	103
전동면	11	23	60
소정면	4	11	33
한솔동	14	-	-





〈사진 34〉 장군면 중심지 경관

3) 동족촌

동족촌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파생되어 동성동본의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을 또는 한 지방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상태’ 혹은 ‘하나 또는 두 세 개의 동족집단이 지연을 바탕으로 일정지역에 공존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여러 성씨가 함께 거주하는 일반촌락과 달리 동족촌이 가지는 특징적 요소로는 혈연(씨족의 유대감), 장소(지리적 유대감), 주민의 의식구조 등을 들 수 있다. 곧, 동족촌은 지연(地緣)이라는 기초위에 혈연(血緣)이라는 끈으로 맺어진 가장 기초적인 사회단위로써의 삶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족촌은 이러한 독립된 생활이 기초공간으로써 자연촌을 단위로 응집하고 있다. 공주의 경우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동족촌의 단위는 행정촌이라기 보다는 그 하위의 자연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족촌의 발생 및 발달의 주된 배경으로는 남계장자(男系長子) 우선의 상속제도,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보급과 예학(禮學)의 발달, 종법적(宗法的) 가족제도의

수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들은 대체로 17세기에 보급화되는 현상으로, 이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조선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족촌은 대체로 17세기 이후에 형성되어 18·19세기를 거치면서 보편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동족촌은 입향조가 정착하면서 바로 형성된다고 보기보다는, 입향조가 정착한 이후 개간과 점유 등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기반으로 그 후손이 증가하고, 이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추게 된다. 또한 동족 구성원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진출이 계속되면서, 기존 촌락에서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과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동족촌이 계속 발전하여, 한 지역에서 확실한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토대와 사회적 지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경제적 기반은 소유 농경지와 노비 등 노동력의 증대를 통해, 사회적 지위는 중앙관계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유력 사족과의 통혼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었다.

동족촌의 발생연대에 대해 선생영조(善生永助)의 「조선의 취락」(1935)에 의하면, 전국 1,685개의 저명한 동족촌 중 그 발생연대가 300~500년 전의 것이 38.3%, 100~300년 전의 것이 20.8%, 500년 이전의 것이 12.3%, 100년 미만의 것은 1.4%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동족촌의 발생지점에 대해서는 풍수설의 영향을 받아 산록이나 배산임류 지역에 위치한 것이 많다고 하였다. 조사 당시, 충청남도에는 642개의 동족촌이 있는데, 그 중 서산군이 가장 많아 67개이고, 서천군이 64개, 공주군이 그 다음으로 많은 61개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모가 큰 동족부락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혹자는 공주는 관찰사의 주둔지라는 점에 두기도 한다. 다만, 「조선의 취락」 중 공주지역에서 50호 이상의 동족부락으로서 의당면 태산·용현·용암·송학리 일대의 전주 이씨 동족마을과 계룡면 화은리의 천안 전씨 동족마을이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은 <표 44>과 같다.

〈표 44〉 공주시의 50호 이상의 동족부락 (1935년)

구분		송학리(태성, 상룡, 하룡, 은곡, 창촌)	공주시 의당면·태산·용현·용암· 공주시계룡면화은리(원화은리)
발 생 연 대		400년	200년
동 족 성 씨		전주이씨	천안전씨
동족	호수	147	60
	인구	632	410
동족외	호수	161	10
	인구	936	39

자료 : 조선총독부, 1935, 「조선의 취락」.

장군면의 옛 지명들은 공주목과 연기현의 일부지역에 걸쳐 있으므로 「여지도서」 중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주목의 산천(山川)으로는 계룡산(鷄龍山)은 전라도 대둔산으로부터 뻗어 나와 공주 월성산의 으뜸이 되는 줄기가 되며, 무성산(茂城山)은 천안 광덕산으로부터 뻗어 나와 마곡사의 으뜸이 되는 줄기가 되며, 금강(錦江)은 보은 속리산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옥천 군을 지나 적등진(赤登津)이 되고, 회인현을 지나 말흘진이 되며, 문의현을 지나 형각진이 되고, 공주에 이르러 금강이 되고 웅진이 되며, 부여현에 이르러 백마강이 되고, 임천과 석성 두 고을의 경계에 이르러 봉로진이 되며, 서천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공주목의 성씨(姓氏)는 이(李), 정(鄭), 송(宋), 박(朴), 황(黃), 고(高), 임(任)씨와 촌성(誠)으로는 황(黃), 백(白), 하(河)이며, 중국의 투화성(投化性)인 김(金)씨, 역성(驛性)인 현(玄), 최(崔)씨가 있다. 이들의 풍속(風俗)으로는 남자는 쟁(箏)과 피리(笛)를 좋아하고, 여자는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

연기현의 산천(山川)으로는 성산, 원수산, 용수산, 송현굴, 전월산, 대박산, 봉황산 등 대부분이 공주 무성산에서 뻗어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기현의 姓氏는 전(全), 경(耿), 장(蔭), 하(河), 위(魏)와 속성(續性)인 김(金), 강(康), 그리고 본관이 개경(開京)인 왕(王)씨가 있다. 이들의 풍속(風俗)은 곡식 농사에 부지런히 힘쓰는 풍속으로 남을 고자질하는 풍속이 없다.



〈그림 47〉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도 : 공간구조 및 생활권

(2) 장군면 개발 방향

- 난개발 우려가 있는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금지를 통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 시행 및 주변지역내 대규모 집단취락 등은 근린생활권 또는 소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
- 주변지역 지정 이전에 지정된 구역 등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방향에 저촉되거나 난개발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생활편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2006~2020)

(1) 목적 및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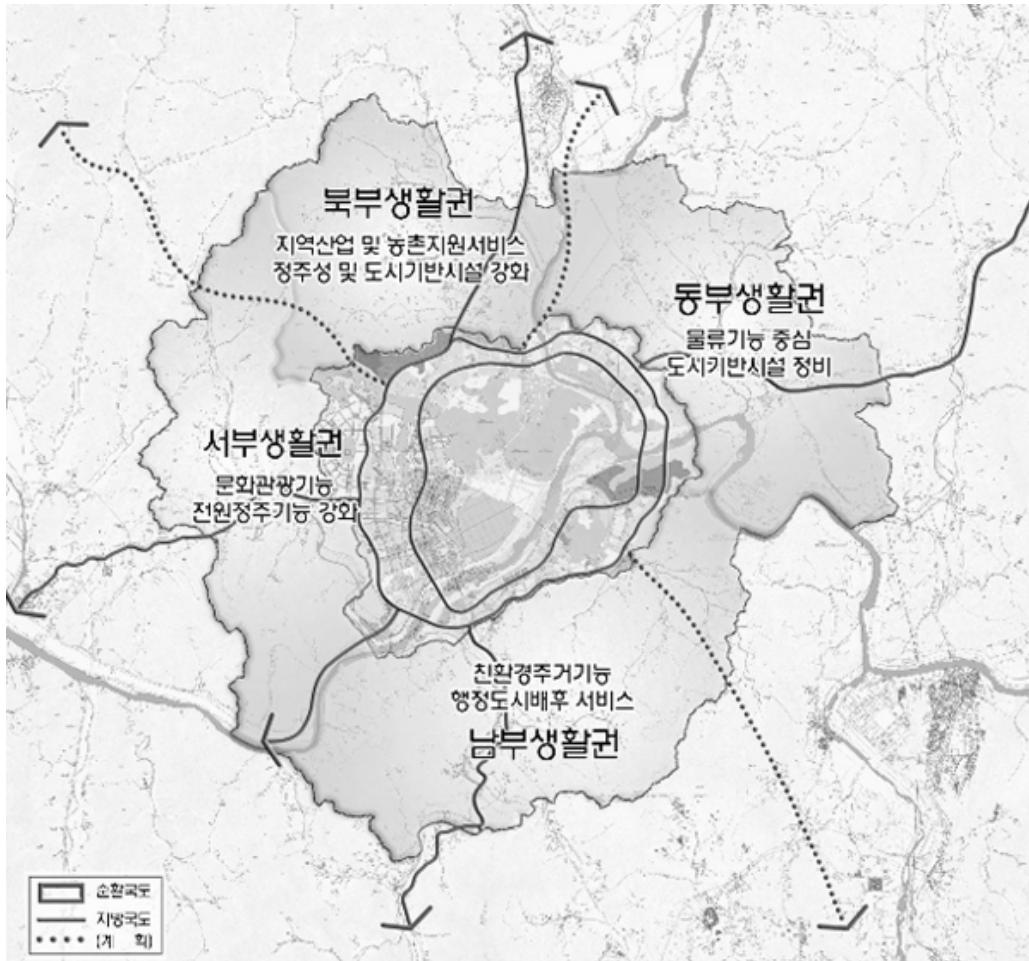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예정지역 등과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 2030년 행정도시 건설 완료 시점을 목표로 행정도시와 주변 광역시를 대상으로 수립
- 부분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계획, 녹지관리계획, 경관계획, 환경보전계획, 광역시설계획, 문화 및 여가계획, 방재계획, 행정도시 주변지역 계획으로 수립

(2) 장군면 개발 방향

- 장군면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연결되는 지역으로 도시기능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 도모
- 장군면이 속하는 서부생활권은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과 난개발 방지, 도시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 등 정주생활권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농촌 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 편리한 교통접근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문화, 관광 중심지로 개발

〈표 46〉 생활권별 기능배분 및 발전방향

구분	기능 및 발전 방향
동부 생활권	중부권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물류유통 기능 수행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정주생활권 기능과 주변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기능 강화
서부 생활권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정비하여 정주생활권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농촌 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편리한 교통접근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문화, 관광기능 강화
남부 생활권	공주시의 반포면과 세종시 금남면 소재지의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확충·정비 하여 정주생활권 기능 강화 행정도시의 배후 전원주거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주거 기능 강화
북부 생활권	조치원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정비하여 생활권 중심성 강화 연기리 일대는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해 주변 농촌 지원 및 관광지원 기능 강화



〈그림 48〉 주변지역 생활권 구상(안)

〈표 47〉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

사업종류	지원방법
생활편의사업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그 부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주택개량, 마을회관 등의 관련시설 설치·정비 및 그 부대사업
소득증대사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등

2. 2030 세종도시 기본계획

1) 목적 및 기본방향

- 어울림과 창조의 일류도시 “세종”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21세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광역 경제권 중 주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슬로건	미래상	추진전략(핵심 추진과제)
어울림과 창조의 일류도시 “세종”	국가 중추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중심기능 수행 ▶ 문화·국제교류, 연구개발·교육, 첨단산업, 의료복지기능 담당 ▶ 행정지원 등 기능보완 및 분담체계 확립
	지역·세대·계층간 조화로운 “상생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간 연계 및 교류 강화 ▶ 읍면지역과 건설지역의 유기적 연계방안 마련 ▶ 도·농 통합형 도시로 교통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
	역사·문화·사람·과학이 소통하는 “교류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거점 조성 ▶ 전통문화 및 체험형 관광휴양지 조성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공간·프로그램 제공 ▶ 첨단과학기술 및 신성장동력산업을 통한 글로벌경쟁력 강화
	경제·산업이 역동하는 “자족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 구축 ▶ 첨단 R&D 연구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 신성장(첨단산업) 기반 마련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친환경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친화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 친환경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실현 ▶ 도시·생태·환경의 생태네트워크 구축

〈그림 49〉 2030 세종도시 기본구상



〈그림 50〉 2030 세종도시 기본방향

2) 장군면 지역 개발 방향

(1) 장군면 개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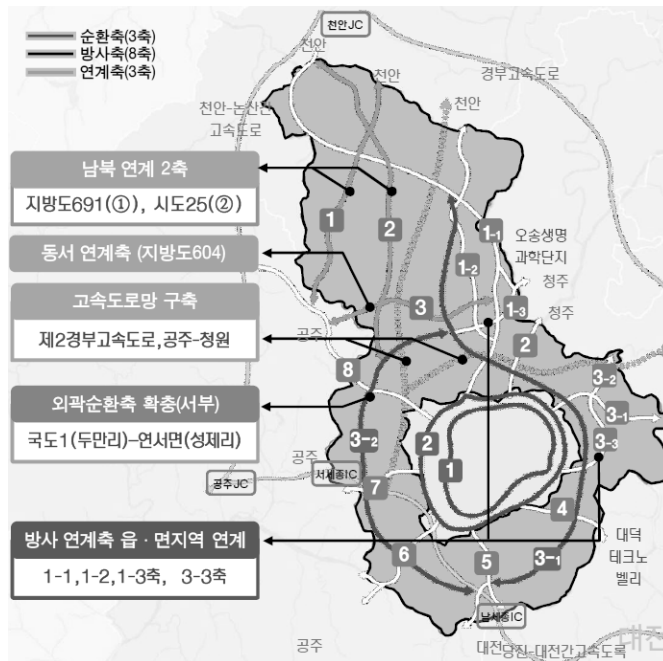
- 역사·문화와 연계한 관광 특성화 : 백제문화권, 김종서 장군, 등 역사문화와 금강변 관광지 조성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 중심지로 조성
- 전원 주거단지와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정주환경조성 : 근교 농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산물 특화단지 조성, 전통문화 및 농촌 체험 테마 전원마을 조성 등을 통해 정주 환경 조성

〈표 48〉 서부생활권 개발방향

기능배분	개발방향	주요 사업계획
역사·문화와 연계한 관광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근교권 문화·여가를 위한 도시문화시설 도입 -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역사·문화벨트 구축 - 금강변 관광사업 활성화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서장군묘 재정비 - 유형장군사당 재정비 - 국가첨단융합산업단지 - 미니산업단지 - 첨단문화 산업단지 - 농산물 특화단지 - 근교농업 활성화 - 관광벨트화 사업 - 역사문화관광단지 - 금강변 복합타운 조성
전원 주거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교류 및 체험 테마 전원마을 조성 	
특화단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물 특화단지 육성 - 한국영상대학교와 연계한 연관산업 유치 - 신성장(첨단융합산업, 복합산업) 기반 마련 	
정주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소재지 및 취락지 일원의 계획적 개발 유도 	
중앙행정 및 문화·국제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상업·주거용지 및 대중교통중심도로와 인접하여 시민이 쉽게 접근하도록 배치 - 중앙녹지공간과 대중교통중심도로를 연결하는 특화 거리를 조성 	▶건설지역



〈그림 51〉 서부생활권 구상도



〈그림 52〉 도로망 계획

(2) 장군면의 난개발 방지 방안

- 읍면지역에 저렴한 지가와 개발이 용이한 농지 및 산지 집중
 - 읍면지역의 저렴한 지가 및 양호한 교통여건 등으로 인근도시의 연계기능 등 용이하여, 다소 행정절차 늦어지는 계획적 입지보다 소규모 입지를 위한 개별입지를 선호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추진전략
 - 시가화예정지역의 체계적 관리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관리 및 무분별한 개발 제어,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 마련
 - 비도시지역 성장관리 방안 수립 :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적 관리방향 설정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將軍面誌

제 2 장

역 사

제1절 _ 선사~원삼국(마한)시대의 장군면

제2절 _ 백제시대

제3절 _ 신라 · 고려시대

제4절 _ 조선시대의 장군면

제5절 _ 개화기 · 한말의 장군면

제6절 _ 일제 강점기의 장군면

제7절 _ 해방 이후의 장군면

제8절 _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전 · 후의 장군면

제2장

역사

장군면은 세종시의 서쪽에 위치하는 면으로, 지형상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본래 충청남도 공주시에 편제되어 있었으나 2012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공주시 장기면 9개 리와 의당면의 5개 리를 합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장군면에는 금암리·대교리·도계리·봉안리·산학리·송문리·송정리·송학리·용암리·용현리·은용리·태산리·평기리·하봉리의 14개 법정 리가 속해 있다. 따라서 장군면의 역사는 현재의 행정구역상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되어 기존의 연기군 역사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나, 그 근원은 공주시 장기면의 역사속에서 살펴질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장군면 일대는 공주시에 포함된 지역으로 백제~통일신라시대에는 웅천·웅주관할지역에,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공주목 관할지역에 포함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공주군 장척면, 요당면에 포함되었으며, 1914년에 장척면, 요당면, 삼기면 일부의 이름을 따서 장기면으로 하였다. 1973년에 나성리와 송원리가 연기군 남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983년에는 무릉리, 월송리, 신관리, 금흥리가 공주읍으로 편입되고 의당면 송정리 일부가 장기면으로 편입되면서 송문리로 개칭되는 등 행정구획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2012년 7월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으로 출범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 속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현재 장군면 내에서 확인된 유적을 중심으로 장군면의 역사적 정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파악한 내용을 제외하면 장군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기록한 역사적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공주시에서 확인되는 역사전개와 더불어 그동안의 발굴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다양한 유적의 정황을 기초로 하여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역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상황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1절 선사~원삼국(마한)시대의 장군면

일반적으로 “원시인” “선사시대 사람들” 하면 야만적 혹은 미개한 사람들을 연상하게 된다. 도구의 발전이 아직 완전하지 않고, 문명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기에 오늘날 과학화된 환경에서 선사시대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문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였는가를 기준 삼아 인류의 역사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지역과 민족에 선사와 역사시대의 구분 시기에 큰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선사시대는 문자에 의한 역사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문명이나 사회, 문화적 환경이 아직 크게 발달하지 않은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사시대도 엄연히 인류의 역사에 포함되는 시기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수백만년이 지났지만, 역사시대 즉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수천년 전에 불과하기에 인류사의 전체는 대부분이 이 선사시대에 포함된다 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올바른 인류사의 이해와 인류사의 변천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사시대상의 이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는 단지 기록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삶을 영위하는 동안 그들의 흔적을 어떤 방식으로 남겨 놓는데, 기록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즉 그들이 사용한 각종의 물적 자료에도 그러한 흔적이 남아 있고, 이를 통해서 선사시대인의 삶의 자취를 탐구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인류학이나 고고학이 담당한다. 특히 고고학자들은 고대의 마을이나 무덤의 흔적을 발굴해서 발견한 유물을 토대로 하여 옛날 사람들의 생활을 추측한다. 발견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조물이 있었던 흔적이나, 농구, 무구, 생활용기, 장식품 등이 있다. 고고학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유물들이 모두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선사시대의 연구는 인류학이나 고고학이 담당하지만 연구 분야는 매우 넓다. 당시의 환경이나 기후, 그리고 선사인들의 형질적 특성, 그리고 물적자료가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선사시대의 문명발전을 도구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구석기시대, 중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그리고 철기시대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도 이러한 역사경험을 충분히 간

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서 확인된 선사시대 유적은 현재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유적이 있는데, 청동기시대 이전의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유적의 흔적도 인근 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1. 선사시대의 장군면

1) 구석기시대의 장군면

구석기시대는 지구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신생대인 제3기말과 제4기의 홍적세에 이룩된 문화로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난 다음 신석기시대가 전개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인류 최초의 도구는 인류문화의 여명기인 구석기인들의 출현과 함께 등장하였다. 일정한 정착지가 없이 이동생활을 하면서 수렵채집생활을 하던 구석기인들은 돌이나 나무, 짐승의 뿔·뼈 등을 깨뜨려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돌을 제외한 도구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대부분 썩거나 삭아 없어져 실제 모습을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는 이들 유적조사를 바탕으로 전·중·후기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정확한 유적의 편년은 아직 논란이 많으나 전기 구석기유적으로는 공주 석장리, 제천 점말동굴, 상원 검은모루동굴, 단양 금굴, 연천 전곡리유적이 있다. 전곡리의 유적에서는 유럽 아슐리안계의 주먹도끼가 출토되어 전기 구석기유적으로 판단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렇듯이 전기 구석기시대 유적이 여럿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70만~50만년 전 정도까지 그 연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석장리의 후기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두 문화층의 연대가 각기 약 3만년 전과 2만년 전의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구석기인은 수십만년의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점점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향상시켜 나갔던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구석기시대 유적은 모두 50여 곳에 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큰 강가에서는 야외유적이, 그리고 석회암지대에서는 동굴유적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 나라 구석기시대에서 생활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로는 석기·동물화석·예술품·주거지 등이 발견된다. 이 가운데 석기는 구석기

시대의 표지적(標識的)인 유물로, 주거지와 같은 구체적인 유구가 잘 확인되지 않는 구석기시대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석기는 유기물제 도구와 달리 흙속에서도 부식되지 않고 오랜 세월을 견뎌 인류의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또한 석기 제작기술은 다른 재질의 도구제작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석기자료가 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의 제작기법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유기물 재질로 제작되었을 도구의 제작기술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인접한 지역인 공주에서 확인된 석장리구석기유적은 남한지역에서는 최초로 조사된 것으로, 1935년에 함경북도 동관진에서 조사된 유적과 더불어 일본에 의해서 부정되었던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존재를 확고하게 입증시켜주게 된 중요한 유적이다. 이 밖에 대전·천안 등지에서 구체적으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는 유적이 조사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장군면 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구석기시대유적은 없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주 석장리유적이 인접한 지역에 있으며,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과정에서 송담 2리 유물산포지, 종촌리 도림이마을 유물산포지, 진의리 유물산포지 등 12곳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수습되었다. 따라서 금강을 중심으로 지류인 군계천, 방축천, 연기천, 미호천, 삼성천 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일대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추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구역 내 I-2구역의 32지점 종촌리 도림이마을 유적에서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세석인석핵, 굽개, 찌르개, 뚜르개, 격지 등의 유물이 소량 확인되었다¹⁾. 기존에 종촌리 도림이마을은 행정구역상 연기군 남면에 속하는 곳인데, 장군면의 옛 지역인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와 군계가 되는 하천을 경계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지형상 매우 인접한 지역에 입지하는 종촌리 도림이마을에서 확인된 구석기시대유적의 존재는 결국, 장군면 일대에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존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이기도 하다. 즉 장군면 일대를 아우르는 금강 중류지역은 산줄기와 물길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구석기시대부터 인류의 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 한국고고환경연구소·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부지 내 I-2구역, 연기 송담리·송원리 유적』

2) 신석기시대의 장군면

기원전 8,000년경이 되면 홍적세가 끝나고 충적세가 시작된다. 문화적으로는 구석기시대가 끝나고 중석기시대를 거쳐 신석기시대가 시작되는 때이다. 기후도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되어 점점 따뜻해져서 현재와 거의 같아진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구석기시대의 타제석기에 비하여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드는 마제기법(磨製技法)이 나타나고 토기가 새로 발명되어 용기로 사용되게 된다. 이렇듯이 상당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신석기시대이다.

신석기시대는 기본적으로 수렵채집경제 사회였으나, 지역에 따른 환경의 차이와 시간에 따른 생업경제의 변화가 있었다. 기원전 4천년기가 되면 중서부지역을 시작으로 조를 경작한 초기농경이 시작되었으며, 기원전 3500년 무렵 남부지역까지 확산되었다고 보인다. 주요 재배 곡물은 조와 기장이다. 주거지는 수혈주거지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토기는 용기문과 압날문 계열의 토기에서 침선문 계열, 즉 빗살무늬토기로 변화한다. 주거지의 평면은 원형이나 방형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변화한다. 후기 단계의 주거지는 장방형으로 정립되며 구릉위에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신석기인은 어떤 계통의 인종이었을까. 이들 신석기인이 이전 구석기인과 연결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찬반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고아시아족으로 보는 경향이 농후하지만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 다만 중국과는 다른 북방계통의 인종인 것만은 분명하다. 신석기시대 전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의 파상적인 이동을 해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후기에는 중국계 신석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통구스계의 종족이 만주로부터 이주해 왔을 것이다. 이들 신석기인의 혈통은 구석기인과는 달리 끊이지 않고 계승되어 오늘날 한국민족 형성의 모체가 되었다.

신석기인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당시의 집자리가 한군데에 여럿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취락을 이루고 집단생활을 하였다는 것은 짐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상의 복원은 전설이나 유습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태를 추측하거나 미개사회에 대한 사회인류학적인 연구를 응용하여 복원할 수밖에 없다.

즉 신석기시대는 구석기시대와는 달리 부족사회를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즉 씨족을 중심한 부족사회는 아직 권력과 계급이 발생하지 않은 평등사회로서 부족장은 부족을 대표하는 지도자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씨족은 자급자족하는 경제적인 독립체였다. 다른 씨족의 영역 안에서 채집이나 사냥, 고기잡이 등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으며, 만일 그러한 위법적인 일이 있었을 경우에 배상을 지불해야 했던 것은 동예의 책화라는 풍습으로 추측이 된다. 그러나 씨족 상호간에는 교역이 행해져 있어서 비교적 먼 거리로부터 흑요석과 같은 석재를 가져다가 석기를 제작하던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취락을 형성하여 정착적인 농경생활을 영위하면서, 종래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이 더욱 확산되어 부족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성끼리 결혼하지 않았다는 동예의 풍속에서 알 수 있듯이 족외혼이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석기인들은 아직 자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신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즉 우주의 만물, 산이나 물과 같은 모든 자연물이나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에 영혼이 머물러 있다는 애니미즘(Animism)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간도 영혼을 지니고 있으며,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는 영혼불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시체의 주위에 돌을 둘러서 이를 보호하려 하기도 하고, 혹은 살았을 때 쓰던 물건들을 함께 묻어 주기도 하고, 머리를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두기도 하였다. 더불어 인간과 영혼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주술사로서의 무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샤머니즘(Shamanism)이 널리 유행하였다. 이러한 것은 후대 단군이나 삼한의 천군, 신라의 차차웅 등에서 주술사의 모습이 발견된다.

신석기시대의 예술은 즐문토기로 대표된다. 약간 배가 부른 V자 모양의 토기 표면에 평행으로 사선을 그어서 장식을 하였는데, 선의 방향을 줄에 따라서 엇갈리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각종의 문양은 당시 사람들의 주술적 의미와 더불어 미적 감각이 잘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목걸이 팔찌 등으로 보이는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에 이미 장신구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동삼동 패총유적에서는 큰 조개껍질에 세 개의 구멍을 뚫어 만든 인면 조가비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즉 대부분의 예술품이 식량의 풍요나 악귀의 축출을 비는 따위의 종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서, 종교와 밀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미술품은 사실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추상적인 수법으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석기제작에 있어서 마제기술의 초현은 후기 구석기시대에 이루어지나 본격적인 사용은 신석기인에 의해서이며, 석기제작기술에 있어 타제기술에서 마제기술로의 변화는 하나의 혁신이다. 신석기시대의 석기는 돌을 알맞게 다듬은 후 일부 혹은 전부를 마연하는 용도에 맞는 석기를 제작하나, 후기에 이르기까지 타제석기도 계속 사용되었다. 이러한 마제기술은 정착생활과 농경기술의 보급 등 새로운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데, 이는 변모하는 생활에 적응하면서 발전된 기술임을 의미한다. 마제기술은 석기 뿐만 아니라 골각기, 옥 등 장신구의 제작에도 두루 사용되며, 기술적으로는 마연과 찰절(자르기), 구멍 뚫기 기술이 있다.

석기의 종류에는 어로, 수렵구, 농경구, 일상용구로 크게 구분된다. 어로와 관련되는 조합식어구와 작살, 그물추가 있는데, 외낚시와 결합식 낚시, 역T자형 낚시가 확인된다. 사냥에 이용되는 돌화살촉과 돌창이 있는데, 석촉은 이른 시기에는 주로 타제이며, 동북지역에서는 늦게까지 흑요석제 타제석촉이 나타난다. 농경구는 낫·삽(보습)·가래·괭이가 있는데, 농경도구의 대표 격인 삽(보습)은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 전기 후반에 등장해 중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이밖에 일상용구인 돌도끼와 갈돌 등이 있다. 석재에는 자갈돌을 계속 사용하지만 화강암, 섬록암, 점판암, 혈암, 사암 등 다양하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신석기문화는 변화 발전 속에서 청동기문화로 접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래의 신석기시대 문화인이 새로운 문화의 소지자인 청동기시대인에 의해 정복되었다는 것보다는 서로의 혼거 속에 보다 발달된 문화의 경제체계를 갖고 있었던 청동기시대의 문화로 발전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 유적이 전국에서 발견되는데, 기원전 2000년기에 접어들면 유적의 수와 규모가 급감한다. 이러한 변화는 청동기시대로의 이행과 관련될 것이라 짐작되지만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약 400여 곳에 달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내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유적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만 인접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에 포함된 송담리유적과 금강 남안의 집현리에 포함된 연기 석삼리유적에서 일부 신석기시대 관련유적의 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 송담리유적 수혈유구 내부에서 황주어골문 토기편이 확인되었으나 유구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성격은 파악하기 어렵다. 연기 석삼리유적에서는 방형의

신석기시대 주거지 1기가 확인된 것이 정확한 성격과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예이다. 행복도시에 대한 지표조사 당시 남면 연기리 유적 1·2의 전체적인 입지와 지형이 경기도 광주 미사리유적과 유사하여 신석기시대 관련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구체적인 유적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주변에서 확인된 유적으로는 공주 장원리유적, 대전 둔산동유적·관평동유적, 청원 쌍청리유적 등이 있다. 특히 공주지역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정안면 장원리유적은 유물퇴적층에서는 주거지와 같은 구체적인 유구의 윤곽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빗살무늬토기편과 보습형 석기편 등 신석기 관련유물이 수습되어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신석기시대 유적이 많지 않은 것은, 신석기시대 유적이 다른 유적들보다 제한적이고 한정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주변지역에서 확인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청동기시대의 장군면

자연물을 깨트리고 갈아 만든 석제 도구에서 자연물에 열을 가하여 추출한 금속의 사용은 인류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 인류가 자연계로부터 획득하여 이용한 최초의 금속은 구리와 주석이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 청동이며, 이 청동으로 만든 도구가 생활의 이기로 사용되는 시대가 바로 청동기시대이다. 청동은 열을 가해 녹이게 되면, 마음먹은 형태와 크기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다시 녹여 쓸 수 있는 재활용도 가능하였다. 청동은 석기나 골각기와는 달리 재료의 크기나 형태의 제약을 받지 않은 장점이 있었다. 청동기문화가 발전한 중동지역과 중원 대륙에는 생산도구와 용기뿐만 아니라 무기, 제기, 악기 등에 이르기까지 청동기가 사용되었다. 청동기문화가 발전한 주변지역은 무기와 제기 등은 청동기가 사용되었으나 일상생활 도구, 특히 생산도구는 여전히 마제석기와 목기가 사용되었다.

청동기시대는 본격적인 농경사회의 시작, 무문토기의 등장, 마제석기의 본격적 사용, 고인돌의 축조, 사회복합도의 증가로 정의된다. 그러나 구대륙 다른 지역의 청동기시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청동기시대 후반부야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정착농경을 기초로 취락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무문토기가

제작되며, 이시기의 무덤으로는 고인돌(지석묘), 돌널무덤(석관묘), 독무덤(옹관묘) 등 새로운 양식이 등장했다. 청동기시대는 이전의 신석기시대와는 여러 면에서 단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조사된 고고학자료를 기초로 하여 청동기시대의 상한은 기원전 15세기까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즉 넓은 의미로 해석하려는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제작된 청동기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부에서나마 사용이 시작되었다면 그 시기부터를 청동기시대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좁은 의미로 해석하려는 입장에서는 청동기에 대한 주조기술이 습득된 이후를 가리켜서 청동기시대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대립 현상은 유럽의 선사고고학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전자를 청동기시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으며, 그에 따라 무문토기문화 전체를 청동기문화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따라서 무문토기가 출현하는 단계를 빗살무늬토기가 유행하던 신석기시대 다음에 이어지는 청동기시대로 시대 구분하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관련유적 가운데 최근에 가장 많이 확인된 것으로는 주거유적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선사유적은 입석이나 고인돌과 같이 지표면에서 형태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나, 토기편 수습을 통해서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를 추정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국토개발과 더불어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유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거지는 대부분 개발의 과정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이유로는 주거지의 구조형태가 지상의 구조물로 남아있기 어렵다는 특징과, 별도의 시설 없이 지하에 수혈(竪穴)을 파서 주거지를 조성하는 청동기시대 주거문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우연한 기회에 확인될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는 자료상의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지의 확인을 위해 특정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주거지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한계(限界)가 있다. 반면에 유물산포지는 구체적인 발굴·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기 보다는 지표면 답사를 통하여 관련유물을 수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유물산포지는 유적의 존재 가능성만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유적의 성격을 추론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작은 편 한 점이 수습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전혀 간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유구의 형상이 확인된 다른 어떤 유적에 못지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청동기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곳곳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유적이 확인된다. 물론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금강중류역의 주변지역에서도 매우 밀집된 형태로 유적의 존재가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 유적이 형성되기 적합한 지형은 하천주변에 형성된 낮은 구릉지로, 장군면의 대교천 주변에 넓게 발달된 구릉지에서도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되어 행정구역이 바뀌었으나, 당암리와 제천리유적에서도 일찍부터 청동기시대 유적이 발굴조사되었다. 그리고 현재 장군면에 포함되어 있는 봉안리와 도계리, 평기리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 이들 유적은 대부분 금강중류에 포함되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금강중류의 청동기시대 취락의 분포와 함께 이해될 수 있다.

평기리유적은 최근에 발굴조사되었는데, 청동기시대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출토유물 가운데 다수의 무문토기편이 확인되고 있어, 청동기시대 관련유적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태이다. 특히 평기리유적을 중심으로 동남쪽에 청동유물이 출토된 봉안리와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지가 발굴조사된 제천리유적, 당암리유적이 동일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유적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천리유적은 원래 공주시 장기면에 포함되었던 지역인데, 현재 세종시 한솔동에 포함되어 있다. 지형상 장군면 대교리·봉안리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발굴조사를 통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3기와 옹관묘 2기, 석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 장방형의 수혈주거지인데, 중앙에 바닥면을 얇게 굴착한 후 소형의 판석재를 돌려 만든 위석식노지와 주초석식 기둥배치의 구조가 확인된다. 특히 토기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이 시문된 토기가 확인되는 등 청동기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유형중에 하나인 ‘가락동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당암리유적에서도 평면 장방형의 수혈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특히 중앙에 위석식노지가 있는 가락동식 주거지와 더불어 원형·방형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함께

조사되어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의 문화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가락동유형’의 특징은 주거지의 구조적 측면에서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위석식노지와 주초석을 이용한 기둥 축조 방식, 저장공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토기상에서 이중구연과 단사선문으로 대표되는 가락동식토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단병식 또는 유혈구식 마제석검을 비롯한 삼각만입촉, 이단경석촉, 양인석부, 반월형석도 등의 마제석기가 공반된다. 이와같은 유형은 주로 대전·청주 일대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세종특별시 내에서 발굴조사된 송원리, 송담리, 대평리, 석삼리유적에서도 밀집된 형태로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와같이 세종특별시 장군면을 포함한 금강중류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주로 청동기시대 전기의 문화상을 보이고 있다. 즉 금강중류역의 청동기시대 취락은 주로 가락동유형의 장방형 주거문화를 보이며, 토기는 가락동식토기와 각목돌대문 토기로 분류되는 미사리식 토기가 확인된다. 특히 취락의 규모와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전기취락 중 상위와 중위취락의 구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변화상도 이해가 가능하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에 포함된 송담리·송원리 취락의 경우 중심취락으로 자리잡고, 주변의 중소규모 취락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기도 하다.

4) 초기철기시대의 장군면

한반도에서 청동기의 제작이 활발해져 가는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북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중국 연나라의 주변에서 들어오는 철기문화(鐵器文化)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원 전후가 되면 의기화한 청동기(靑銅器)의 제조가 중단되고,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더불어 이제까지는 낮은 온도에서 굽던 토기도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어 단단한 회청색경질토기를 제작하게 된다. 이 단계에는 보다 체계화된 사회조직의 등장과 더불어, 삼국이 국가로 성장해가는 바탕이 마련된 때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분류할 경우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합류지점에 해당하는 시대로 볼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감안할 때 장군면 선사시대 역

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함께 정리하였다. 그러나 초기철기시대 문화상을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유적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대략적인 입지와 현황을 기초로 살필 수 있다.

장군면이 위치한 중서부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분묘과 확인된 유적은 장군면 봉안리유적을 포함하여, 공주 수촌리, 대전 괴정동·탄방동, 논산 원북리, 부여 연화리·구봉리·합송리유적, 아산 남성리, 예산 동서리 등이 있다. 이들 유적의 입지는 주로 구릉부나 능선의 완만한 사면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 유적들은 해발고도 20 ~ 40m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는 유적이 위치한 지역의 지형적인 조건이나 세형동검을 영위하던 집단의 생활영역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세형동검이 출토된 유적에서 확인된 매장시설로는 적석목관묘, 토광묘, 목곽묘, 귀퉁무덤과 지석묘, 석관묘 등이 있다. 중서부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기 묘제는 적석목관묘와 토광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적석목관묘는 목관을 안치하고 목관과 토광사이, 또는 목관 위까지 돌로 충전한 구조로 일반적인 토광묘와는 구분된다. 물론 적석목관묘와 토광묘 내에 목관의 안치여부는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내부에서 목질흔적이나 목질이 부식된 니질점토가 상당수 확인되고 있고, 화순 대곡리유적에서는 통나무관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목관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묘제는 성립기부터 쇠퇴기까지 사용되었다.

장군면 봉안리유적은 수습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구체적인 매장시설의 현황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적석목곽묘보다는 토광묘 계통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출토유물은 청동제 창과 세형동검, 유리제 대롱옥이 출토되었다. 세형동검은 무혈구식의 단봉형으로 검신의 하단부 형태가 역제형을 보인다. 철기는 공반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유적 내에서 공반된 유물을 보면, 주로 동모·동과와 더불어 철기가 추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봉안리유적에서는 철기가 추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마한시대의 장군면

삼국시대로 불리는 고대사회가 성립되기 이전, 이들 지역에는 각지에 크고 작은 소국들이 존재하였다. 고고학 자료에서는 이 시기를 원삼국시대라고 명칭하는데,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대략 300년까지에 해당된다. 한국사에서 원삼국시대는 선사시대에서 진정한 의미의 역사시대로 전환되어 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고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역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삼국사(三國志)』 등의 중국문헌에 따르면 원삼국시대 경기 이남지역에는 마한 54국, 진한 12국, 변한 12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찍이 최치원은 마한이 고구려, 진한은 신라, 변한은 백제라 하여 삼한을 삼국에 비정하였다. 그 뒤, 마한-백제, 변한-고구려로 약간의 변화가 있기도 했지만 대체로 조선 초기까지 삼한을 삼국과 연결시켜 보는 견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한백겸(1552~1615)이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에서 마한을 경기·충청·전라지역, 진한과 변한을 경상도지역에 비정한 이래 조선 후기의 대부분의 실학자들은 이 견해를 따랐다. 이 후, 진한을 경기도 일대에 비정하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백겸의 견해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한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려준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에는 마한 54국, 진한 12국, 변한 12국 등 모두 78개의 국명(國名)이 실려 있다. 이러한 ‘국(國)’에 대해서는 부족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 적도 있지만 용어의 부적절성이 지적된 이후 다수의 음락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음락국가로 부를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토성이나 목책으로 둘러싸인 도시국가와 같은 개념을 염두에 두고 성읍국가로 부를 것을 제안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그런가 하면 국가 성립 이전 단계의 정치집단이라는 의미에서 Chiefdom(군장사회, 추장사회, 족장사회로 번역)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고, 삼한의 국(國)은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 영토나 인구가 훨씬 작다는 의미에서 소국(小國)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대·소(大·小)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소국이란 용어는 정치집단의 성격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국이라는 용어가 갖는 간단명료한 장점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

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국(國)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국(國)의 성격과 함께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마한·진한·변한의 구분은 소국이 개별적인 성격이나 전체적인 문화기반의 차이는 아닌 듯하며, 오히려 소국사기에 내재되어 있는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삼한의 소국은 큰 것은 1만여 가(家)로부터 작은 것은 600~700가(家)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다양하였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2,000~3,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정치 집단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국은 중심인 국읍과 다수의 일반 읍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읍은 상대적으로 세력이 강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주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대읍락이었다. 국읍에는 소구의 규모에 따라 신지, 험축, 변예, 살해, 읍차 등과 같은 정치적 통솔자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단일한 단위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국읍의 주수(主帥)는 읍락간의 교역을 장악하고, 군대 통솔권도 확보되어 있었으며, 제천의식도 주관하였다. 그러나 제천의식은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주관함으로써 제정은 분리되어 있었다.

국읍은 하천을 끼거나 구릉지대 위에 위치함으로써 인근지역의 조망과 방어에 편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토성이나 목책과 같은 방어시설을 축조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는 토성과 남해안지대의 초기 철기시대 패총은 이 시기 대표적인 취락으로 볼 수 있는데, 표고 20~100m의 구릉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주의 월성, 대구의 달성, 서울의 풍납토성, 몽촌토성, 김해패총, 양산패총, 웅천패총, 고성패총, 마산 성산패총 등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토성, 혹은 패총유적이다.

이 시기 들어 주거지의 입지에 변화가 생기고, 토성이나 목책이 출현한 것은 각 집단 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무력 대결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삼한 사회에서 이러한 양상이 빚어지는 것은 철기문화의 확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소국과 소국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연맹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2~3세기 경에는 경주의 사로국(斯盧國)을 중심으로 하는 진한소국(辰韓小國)연맹체와 한강유역의 백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국연맹체, 그리고 마한지역의 토착 맹주세력인 목지국(目支國)을 중심으로 한 연맹체 등이 형성된다.

기록에 의하면 삼한은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재배하였으며, 양잠을 하여 생사와 비단을 생산하였다고 한다. 그 중 변한의 포(布)는 폭이 넓고 섬세하여 낙랑에 수출되어 낙랑산 비단의 원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진한지역은 철자원이 풍부하여 철을 마한, 동예, 왜, 낙랑, 대방 등지로 수출할 정도였다. 당시에 철은 화폐처럼 각종 교역활동의 매개물로 사용되었다.

마한인들은 움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형태가 마치 무덤과 같았다고 중국측 사서에는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진변한의 가옥은 통나무를 가로로 쌓아 올려 귀틀집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모양이 마치 중국의 감옥과 같다고 하였다. 최근 이 시기 주거지가 많이 조사되고 있는데,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원형, 방형, 말각방형, 여자형(呂字形), 철자형(凸字形) 등 다양하다. 또한 집의 형태는 움집과 반움집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풀과 진흙을 섞어 벽체를 형성하였고, 지붕은 갈대나 이엉으로 덮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주 장선리유적에서는 토실형태의 주거지가 발굴조사 되어, 마한의 대표적인 주거유적으로 인지되고 있기도 하다.

장군면이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는 금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금강은 노령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서 여러 작은 지류들이 합류하여 신탄진까지는 곡류하지만 부여부터는 커다란 강폭을 가져 평탄한 충적평야를 지나 서해로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금강은 마한사회와 백제문화권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강유역과 인접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의 각 지역에서도 당시의 생활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들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공주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조사되는 마한사회의 유적은 주로 소하천을 끼고 있는 넓은 평야지대와 인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중복되고 있다. 때문에 발달한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당시 농경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지리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는 많은 읍락들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읍락들이 발전하여 소국을 이루었을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들어서 철기가 대량 생산되면서 종전의 목제 농기구가 점차 철기로 대체 되었고, 이로 인해 식량 생산에 획기적인 전기(轉機)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부터 등장하는 철겸(鐵鎌)의 존재를 수확량이 그 만큼 많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잉여 생산물은 소수의 지배집단에게 집중되었고, 그로 인해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철제 농기구의 보급은 계층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사회·경제적인 성장을 촉진시킨 것도 사실이다. 백제와 신라의 성립은 삼한시대에 형성된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장군면이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기 전 속했던, 공주·연기지역도 원삼국시대 마한의 영역에 속하였다. 중국 역사서에 마한 54국의 명칭이 보이고 있으나 마한을 구성한 54국의 위치는 아직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마한 사회에 54개의 소국만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마한 소국의 영역은 대략 50리 내외의 반경을 가졌으며, 인구는 만 명 내외였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때 공주지역에는 불운국(不雲國) 또는 감원비리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군면 지역에서 마한시기의 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하봉리 토광묘군과 최근 발굴조사된 평기리유적, 그리고 도계리 273-15번지 내 유적이 있다. 평기리 유적은 원삼국시대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수혈 주거지와 굴립주 건물지, 구상유구, 수혈 등 다양한 유구가 조사된 유적이다. 특히 환호형상으로 시설되어 있는 구상유구의 경우 여러차례 중복하여 조성된 흔적과 더불어 대단위의 지형변형을 동반하는 의도적인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의례와 관련된 유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기리유적은 서쪽의 대교천을 경계로 하봉리 고분군과 도계리 273-15번지 내 유적에 인접해 있는 유적으로, 당시의 분묘와 취락, 그리고 의례관련 유적의 분포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하봉리 토광묘군은 세종시에 편입되기 전에는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산 4-49번지 일대에 분포하였는데, 1993~1994년 국립 공주박물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봉리 토광묘군의 동쪽으로 도계리 273-15번지 일대에서도 동일한 토광묘유적이 발굴되었다. 유적이 입지한 지역인 공주시 북쪽 장기면 일대는 작은 하천을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평야와 적당한 높이의 야산(野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야산은 토양이 붉은 황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찍부터 사람이 살았을만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그간 각종의 마제석기들이 종종 발견되었으며, 봉안리에서는 세형동검·동과·유리관옥 등이 발견된 바 있어서 이미 상당한 세력이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봉리유적은 목관묘 12기가 주류를 이루고 목곽묘 1기와 옹관묘 4기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목관묘(木棺墓)와 목곽묘(木槨墓)에는 대부분 주변에 주구를 파서 둘러 주구 토광묘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무덤을 조성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 행해졌던 제사흔적들도 확인되었다. 토광묘는 구릉상에 등고선과 평행하게 장축을 두어 축조되었는데, 1개의 방형주구에 2실의 토광묘가 합장되었거나, 주구내(周溝內)에 옹관묘가 부장되는 등 다양한 장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토유물들은 대부분이 토기류(土器類)이고 철기나 장신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토기류는 인근의 천안 청당동이나 청주 송절동유적과 같이 주구가 있는 무덤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로서 이들과 큰 차이를 볼 수 없으나, 심발형토기(深鉢形土器)가 없는 것은 특징적이다. 시기는 청당동이나 송절동유적과 비교하여 볼 때 서기 3~4세기대로 추측할 수 있다. 이 3~4세기대는 백제가 공주로 천도하는 475년에 비해 1~2세기가 앞서는 시기로, 백제가 공주로 천도하기 이전에 공주지역에 있던 재지세력(在地勢力)의 추이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하겠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삼한의 장례 풍속에는 ‘관(棺)’은 있으나 ‘곽(槨)’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변한에서는 큰 새의 깃털을 함께 묻어주었는데, 이는 죽은자가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기원 후 2세기까지 진변한의 묘제는 목관묘였다. 처음에는 통나무를 잘라서 속을 파내어 관으로 사용하였으나 이후에는 나무판재로 된 목관을 사용하고 있다. 2세기 이후가 되면 목곽묘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피장자가 살아 생전에 사용하던 각종 유물들이 부장된다. 진변한과 달리 마한지역에서는 주구토광묘가 주로 사용되었다. 진변한과 마찬가지로 목관묘나 목곽묘에 해당되지만 주변에 도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편 하봉리유적은 중부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상을 밝히고, 남부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와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인접해 있는 공주시 의당면의 수촌리일대와 정안면 장원리 일대에서도 토광묘(土壙墓)를 비롯하여 원삼국시대 토기나 철기가 주민들에 의해 자주 수습되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에 포함된 송담리·송원리유적 일대에서도 주구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유적의 분포로 미루어 볼 때, 역시 이 일대도 하봉리와 함께 커다란 원삼국시대 마한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제2절 백제시대

장군면이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는 백제시대 웅진의 도읍지였던 공주의 북동쪽 외곽에 위치하는 곳이다. 그리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인 한성도읍기에는 백제의 지방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백제가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는 북방성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그 역사적 중요성을 살필 수 있는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사회의 역사를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삼국시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군면을 포함하는 지역 일대에서 삼국시대 백제의 역사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물론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 웅진이었던 공주지역과 관련된 기록은 확인할 수 있으나, 공주의 북동쪽 외곽에 위치한 장군면 일대의 관련기록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적내용은 당시 장군면이 백제의 영역으로 존재했음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지금까지 장군면에서 조사된 백제시대 유적은 10곳으로 산성 2곳, 사지 1곳, 생활유적 1곳, 고분 3곳, 유물산포지 3곳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생활유적은 원삼국시대~한성도읍기, 고분은 원삼국시대와 웅진도읍기에, 산성과 사지는 웅진도읍기~사비도읍기로 편년되고 있다. 장군면에서 확인된 백제시대 유적은 그 수량이 많지 않으나, 동쪽으로 인접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굴조사된 송담리·송원리유적을 비롯하여 대평리, 석삼리, 장재리유적 등에서 백제시대 고분과 생활유적이 매우 밀집된 상태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백제사의 전개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의 역사적 위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1. 한성기 백제의 장군면

백제의 건국에 대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8년 주몽의 서자였던 온조(溫祚)가 부여(夫餘)에서 주몽의 전처 소생인 아들이 찾아오자 형 비류(沸流)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유역에서 백제라는 고대국가가 건국된 것으로 전한다. 즉 비류는 미추홀(彌鄒忽:인천)에 나라를 세운 반면 온조는 하남위례

성(河南慰禮城)에 도읍하여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는데 후일 국가 경영에 실패한 비류 세력이 온조에 합세함으로써 백제(百濟)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같은 기록에는 백제의 건국자가 비류라는 설도 소개되어 있어 혼란을 주고 있지만 백제 건국의 주체세력이 부여족 계통의 고구려 유이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백제(百濟)는 마한의 한 군장사회(君長社會)였던 백제국(伯濟國)이 성장·발전하여 이룩된 국가였다. 백제국은 한강유역에 자리하여 일찍이 철기문화를 받아들였으므로 삼한의 여러 소국가운데 우세한 세력이 되어 이웃의 여러 군장사회를 아울러 국가형태를 갖추었던 것이다. 마한을 구성하는 한 소국으로서의 백제국으로부터 발전하여 기원 전후에 초기국가를 형성한 백제는 한군현의 압박에 대항하면서 성장하여 3세기 중엽에 이르면 고대국가를 이룩하였다. 한강유역에서의 정치적 세력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던 중국군현에 대해서도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백제가 2세기 후엽에 한군현의 대항세력으로서 상당히 강력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백제는 2세기 후반에는 중국 내부의 혼란으로 군현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많은 유이민이 북방으로 내려왔는데 이를 수용한 백제의 성장은 가속화된다. 그러다가 3세기 중엽인 고이왕(234~286)대에 이르러 백제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정복사업을 활발히 하였다. 즉 그는 동왕 27년(260) 관제를 정비하여 6좌평(佐平)을 두고 16단계의 관등(官等)을 제정하였으며 품계에 따른 복색(服色)을 정하였다. 이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신료들의 서열과 체계를 정할 수 있을 만큼 왕권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이왕 29년에 관리로서 재물을 받은 자와 도둑질하는 자는 물건값의 3배를 보상하고 종신(終身)토록 금고(禁錮)에 처한다는 법령을 반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고이왕은 전제왕권의 체제를 강고히 하고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장군면 일대에서 한성기 백제와 관련된 유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예는 없다. 다만 장군면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공주시 의당면의 수촌리 유적은 백제 한성도읍기 고분군으로 중국제 자기와 더불어 금동관모, 금동신발, 금동제 귀걸이, 목걸이 등 다양한 위세품이 출토되어 백제 한성기 지방에 존재하는 최상위급 유력자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또한 남동쪽에 위치하는 연기 나성리 유적에서는 원삼국~백제시대 해당하는 약 200여기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특히 나성리 토광묘에서 금동신발과 더불어 금동과대, 금동제 화살통 등의 위세품이 출토되었다.

이와같이 장군면 주변에 분포하는 금동관모와 금동식리가 출토된 유적은 한성기 백제의 지방세력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하다.

특히 장군면과 지형상으로 매우 인접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한솔동에 포함된 나성리유적의 토광묘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장송용품으로 백제 중앙에서 지방의 수장에게 사여하는 물품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동식리는 금동관과 마찬가지로 동판을 판금가공한 후 아말감 도금기법으로 제작하였는데, 이러한 도금기술은 백제의 중앙에서만 가질 수 있는 당시 최고의 금공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동식리는 중앙에서 피장자의 위상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을 이어주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였다.

금동식리가 지금까지 발견된 예는 적지만 대체로 한성기 백제의 전지역에서 골고루 출토되고 있다. 그 형식 또한 일정한 계통을 이루고 있는데, 기본 구조는 측판 2매와 바닥판 1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닥판에 좌우 측판을 접어 콧등과 뒤축을 여며 붙이는 형태로 양면이 대칭되는 구조를 가진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많은 적든 간에 바닥에 뾰족한 금동 못을 부착하여 신라의 금동식리와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고이왕(古爾王) 27년에 6좌평(佐平) 이하의 16관등이 정비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당시에 좌평을 비롯한 중요한 관등조직이 마련되었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고구려나 신라와는 달리 백제에서는 처음부터 세련된 한자어로 된 관등명이 쓰이고 고유명칭이라 생각되는 것은 별로 없다. 이는 백제에서는 유이민 집단이 주축이 되어 건국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족적세력이 약하여 처음부터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기 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관등과 그 복식 등은 표 3과 같다. 좌평은 내신좌평(內臣佐平) 이하 6명이 있어 합좌하여 국무를 총괄하였는데, 이들의 관계와 관직명이 분화되지 않고 있음이 주목된다. 좌평 밑에는 30명의 달솔(達率)이 있으며 은솔(恩率) 이하 정원이 없다. 또한 좌평 이하 나솔(奈率)까지의 이른바 솔류는 자주색 관복을 입고 7등급인 장덕(將德)에서 11등급인 대덕(對德)까지의 덕류는 비색의 관복을 입는 등 관등에 따라 관복의 색이나 관식(冠飾)이 다르다. 이것은 신라의 의관제(衣冠制)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이들 관등에 오를 수 있는 신분이 따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표 1〉 백제의 관계조직

등급	관계명(官階名)	복색(服色)	복식(服飾) 및 의대(衣帶)
1	좌평(佐平)	자 의 (紫 衣)	관(冠)을 은화(銀花)로 장식함
2	달솔(達率)		
3	은솔(恩率)		
4	덕솔(德率)		
5	한솔(扞率)		
6	나솔(奈率)		
7	장덕(將德)	비 의 (緋 衣)	자대(紫帶)
8	시덕(施德)		조대(皂帶)
9	고덕(固德)		적대(赤帶)
10	계덕(季德)		청대(靑帶)
11	대덕(對德)		황대(黃帶)
12	문독(文督)	청 의 (靑 衣)	황대(黃帶)
13	무독(武督)		백대(白帶)
14	좌군(佐軍)		백대(白帶)
15	진무(振武)		백대(白帶)
16	극우(剋虞)		백대(白帶)

이러한 백제의 관등제도는 고이왕대에 좌평이 설치되고, 솔계(率系) 관등과 덕계(德系) 관등이 설치됨으로써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 뒤 백제가 최대의 판도를 완성한 근초고왕대에는 관등제와 관직제가 마련되었고, 사비시대에는 6좌평, 16관등, 22부제로 정비되었다.

백제의 관등조직은 그 명칭이 한식(漢式)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만큼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족제적(族制的)인 요소가 희박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16관등의 명칭이 좌평 및 달솔(達率)에서 나솔(奈率)까지의 솔(率)과 장덕(將德)에서 대덕(對德)까지의 덕(德), 그리고 문독(文督) 이하로 크게 3구분 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 중 16관등제는 좌평(佐平)과 솔계(率系), 덕계(德系)가 핵심이다. 더불어 이들 16관등은 복색(服色)과 관대(冠帶)의 색깔에 의해 구분되는데 이도 1품 좌평(佐平)에서 6품 나솔(奈率), 7품 장덕(將德)이하 11품 문독(文督), 12품 무독(武督)에서 16품 극우(剋虞)까지로 구분하는 것도 주목된다. 즉 이러한 구분은 관등의 명칭의 구분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복색과 달리 관제(冠制)는 관등(官等)과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하다. 나솔 이상은 은화(銀花)로 관을 장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백제 고지(故地)에서는 은화관식(銀花冠飾)이 출

토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다만 은화관식은 주로 사비기 백제 황혈식석실묘에서 출토되고 있어, 고이왕대 기록의 구체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성기 백제의 지방사회에서 금동관모가 출토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한성기 백제 중앙에서 지방사회를 통제하였던 적극적인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장군면 내에서 한성기 백제의 지방사회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문헌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한성기 백제 중앙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세력이 장군면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성리유적의 경우 지형상 매우 인접해 있는 지역이어서 문화적으로도 동일한 지방사회의 문화를 영위했던 지역으로 이해된다.

한성기 백제는 고이왕대에 고대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춘 백제는 그 뒤 몇 번에 걸쳐 직계와 방계 사이의 왕위교체 이후 4세기 후반인 근초고왕대(346-375)에 이르러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는 활발한 대외정복을 이룩한 위대한 정복군주로, 이후 백제의 왕권이 더욱 강대해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왕위계승에 있어서 직계인 초고계를 중심으로 한 부자상속을 이루었으며, 당시 대표적인 귀족세력인 진씨를 왕비로 맞아 왕권지지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아신왕대까지 진씨왕비족시대를 열게 되었다.

대내적 체제를 완비한 백제의 대외발전은 북쪽으로 고구려, 남쪽으로는 마한지역, 그리고 남서쪽의 가야에의 진출로 귀결된다. 백제의 북진은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선제공격에 의해 촉발되는데 백제 근초고왕의 반격이 성공을 거두어 백제의 대 고구려 관계는 광개토왕대 이전까지 백제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동시에 이 시기에 백제는 마한의 대부분 지역에 자기중심적 질서를 관철시키면서 남변에서도 상당한 진출을 이루었다. 아울러 여러 가야 세력권 내부에까지 부분적으로 침투를 하였다.

백제의 마한지역에 대한 관심은 온조왕대 이후 꾸준히 유지되었다. 그러한 영역적 지향성은 근초고왕대에 와서 마한 잔여세력의 성공적 장악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일본서기(日本書紀)』 백제관계 기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추론할 수 있다. 즉 『일본서기』 신공기(神功紀)에 보이는 신라 및 비사벌(比斯伐) 등 가라 7국 평정사건이나 전남 강진 일대의 백제·왜군의 회동사실은 『일본서기』 편년을 수정하여 근초고왕대 백제의 마한 경략을 가리킨다는 지적은 주

목할 만하다. 다만 남부 마한 지역에 잔존하고 있는 강인한 문화 특질로 미루어 해당지역에 대한 통제는 상당기간 완만한 수준이 유지되었던 것 같다.

한성기 백제 지방사회에 존재하였던 세력들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면, 마한사회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장군면의 하봉리유적과 도계리유적에서 확인된 주구토광묘, 그리고 평기리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의례 관련 시설은 원삼국시대 장군면 일대에 입지했던 마한사회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이다. 물론 이들 유적의 변화상을 구체화할 수는 없으나, 인접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일대의 송원리 · 송담리유적에서 확인된 주구토광묘와 횡혈식석실묘의 출현 등의 과정을 통하여, 장군면 일대에 존재했던 한성기 백제 지방사회가 마한사회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마한사회에 기반한 한성기 백제의 지방사회가 백제 중앙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추후 백제의 웅진천도와 이후 역사전개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2. 백제 웅진기의 장군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후반에 이르는 약 1세기 동안의 한성시대 후기는 백제의 역사상 일대 격동의 시기였다. 대외적으로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침공세와 함께 대내적으로 잇따른 왕위계승 분쟁과 이에 따른 진씨 · 해씨 · 목씨 등의 유력한 정치세력의 발호로 인하여 왕권은 극도로 쇠미해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권력구조는 왕족과 왕비족간의 연합체를 이루는 가운데 왕권과 유력한 귀족세력 사이의 타협물인 상좌평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전지왕을 거쳐 등극한 개로왕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부왕의 능을 개수하고, 북위에 사신을 보내어 군사원조를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왕권전제화 정책은 안으로는 귀족들의 반발에 부닥치고 밖으로는 고구려의 대대적인 공격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475년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왕도가 함락되고 왕이 전사함으로써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여 새로운 역사적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문주는 신라에 원병을 요청하러 갔다가 원병 1만명을 얻어 돌아왔으나, 이미 개로왕도 전사하고 한성도

함락된 뒤였다.

문주왕의 웅진천도는 고구려군의 침공에 의해 갑작스럽게 행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웅진은 우선 고구려의 직접적인 예봉을 피할 수 있고, 또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도로 선정될 수 있었다. 여기서부터 웅진시대(475-538)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 그러나 개로왕의 죽음과 함께 웅진으로 천도한 문주왕의 즉위는 정상적인 왕위계승이 아니었다. 특히 문주왕의 세력기반이 미약하여 유력한 귀족의 발호를 제어하기에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웅진천도 이후에 백제의 부흥을 꾀한 이는 동성왕(479-501)이었다. 그는 신라왕족인 이찬 비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신라와의 동맹체제를 돈독히 하는 한편, 사씨, 연씨, 백씨 등 신진지방세력들을 중앙정치에 등용하여 한성시대 이래의 세력과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다.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는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나제간의 화친은 백제의 고구려에 대한 봉쇄전략과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신라의 필요성에 따른 양국간의 이해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산물로 이해된다.

대외적으로는 남제(南齊)와의 교통을 재개함으로써 국제적인 고립을 벗어나게 되었다. 동성왕대에 추진된 일련의 왕권안정과 지배기반의 확대를 위한 시책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후대의 무령왕·성왕대로 이어지는 왕권 중심의 정치운영에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는 위사좌평 백가의 세력을 억제하려고 그를 가림성 성주로 파견하였다가 도리어 그가 보낸 자객에 의해 피살되고 말았다.

동성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무령왕(501-523)은 백가의 난을 평정한 뒤, 동성왕대에는 비대해진 신진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백가와 같은 신진세력을 지방의 거점지역에 전보시킨 것과는 달리 무령왕대에는 22개의 담로에 왕족들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백제의 담로는 중국의 군현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옛 소국의 영역을 통치범위로 하여 종래의 국읍을 대성(大城)으로 편제하고, 읍락들은 성(城(村))으로 개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담로에 파견된 지방관은 대성을 치소(治所)로 하였다. 이러한 담로체제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웅진시대에는 이러한 담로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담로에는 자제종족(子弟宗族)이 파견되었다고 하는데, 유력 귀족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왕족출신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백제 때 몇 개의 담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웅진시대의 사실을 전하는 『양서(梁書)』 「백제전(百濟傳)」에는 22개의 담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령왕은 대내적으로 유식자(遊食者)들을 귀농시켜 생산력의 증대와 농민생활의 안정을 꾀하였고, 또 호남지역의 적극적인 개발과 가야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강유역의 상실로 인하여 축소된 경제기반을 확대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로써 무령왕대에 와서 백제는 정국의 안정을 이룩하게 되었고, 강국을 칭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에 대하여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여 군사적 압력을 물리치고 세력균형을 이루면서, 가야지역으로는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백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대중관계에 있어서는 무령왕대에 들어와서 남제의 뒤를 이은 양과 교류하였는데, 무령왕 21년에 양나라로부터 영동대장군의 작호를 받아 국제관계상에서도 백제의 위치를 확립하였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호화롭고 풍부한 부장품들은 무령왕대의 왕권의 신장과 국력의 성세를 보여주는 물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백제가 대내적으로 천도 후의 정국불안을 극복하여 왕권 안정을 되찾았고,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났음을 천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동성왕·무령왕대의 안정기반을 바탕으로 등극한 성왕(523-554)은 538년에 협착한 웅진에서 광대한 별관인 사비(지금의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라 고쳤다. 중국 남조와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그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본에 선진문물을 전수하였다. 또 오부율(五部律)을 갖고 온 겸익을 우대하여 백제적 계율종을 설립시키고 불교를 진흥시켰다. 16관등제와 22부제 등 중앙관제를 정비하고 수도 5부와 지방통치조직으로서 5방, 군제를 갖추어 지방통치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사비천도 후 성왕대의 이러한 조치는 동성왕·무령왕·성왕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의 정치가 왕권중심으로 움직여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웅진·사비도읍기의 장군면은 백제의 웅진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장군면에서 확인되는 웅진·사비도읍기의 유적으로는 봉안리 고분군, 송문리 사지, 송정리 산성, 은용리 산성①이 있다. 봉안리 고분군은 웅진·사비기 백제의 전형적인 고분인 석실분으로 전해지는 고분이다. 송문리 사지가 위치한 송문리 토끼자리는 1974년 백제관음보살입상이 출토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

서는 경작 때 마다 주춧돌이 많이 나왔다 하여 사지로 비정된 곳이다. 여기서 출토된 불상은 7세기대의 불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 국보247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제시대 당시 사찰은 민중보다는 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왕권불교로 대부분의 사찰은 도읍지와 그 주변으로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장군면에 백제시대 사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 지역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장군면에 위치한 산성은 송정리 산성과 은용리 산성① 외에도 평기리 산성과 은용리 산성②가 위치한다. 하지만 지표조사 당시 성 내에서 직접적인 유물이 확인된 것만 우선 백제시대 산성으로 분류하였다. 웅진도읍기에는 왕성인 웅진성 즉 공산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 분지형 지세와 소규모의 산성을 웅진으로 통하는 중요 교통로상에 환상으로 배치해 이원적인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웅진도읍기 방어체제의 기본골격으로 이해되고 있다. 장군면에서 확인된 송정리 산성과 은용리 산성①은 공산성의 북동쪽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산성들이다. 즉 장군면에서 확인된 백제시대 산성은 백제 웅진도읍과 그 주변의 방어성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장군면에는 평기리 유물산포지, 송정리 유물산포지, 은용리 백제 토기출토 고분 추정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지표면에서 확인된 유물을 가지고 유적의 존재를 추론한 것으로, 이와 같은 유물산포지들은 장군면에서 앞으로 백제시대 문화유적이 계속 조사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즉 장군면에서 확인된 백제시대 유적들은 유적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생활유적부터, 분묘유적, 그리고 사찰유적과 더불어 관방유적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장군면이 이른 시기부터 한성 백제의 지방에서 웅진도읍기에 백제 웅진도성에 인접해 있는 외곽지역으로 입지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백제시대 사비기의 장군면

성왕 16년(538)에 이루어진 사비천도는 정치세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성왕의 사비천도의 목적은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왕권이란 국가사회 내부의 이해관계와 분쟁을 조정하고 외부와의 교섭을 독

점하는 최고의 정치권력으로서 국가라는 강력한 제도적 기구를 기반으로 하여 행사되는 권력을 말한다. 따라서 왕의 권력은 국가사회의 제도·조직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행사된다. 천도 이후 성왕은 국왕의 권력 강화를 위해 모든 장치를 동원해서 왕권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하는 데 박차를 가하였다.

성왕의 사비천도를 계기로 정비된 중앙통치조직의 핵심은 16관등제·6좌평·22부사제·수도 5부·5항제이다. 16관등제는 1품의 좌평 관등, 2품 달솔에서 6품 나솔에 이르기까지의 5개의 솔계 관등, 7품 장덕에서 11품 대덕에 이르기까지의 5개의 덕계 관등, 12품 문독과 13품 무독의 문무계 관등, 14품 좌군에서 16품 극우에 이르기까지 무계 관등 등 모두 16관품으로 이루어졌다. 좌평의 정원은 5인이고 달솔은 30인이며, 3품 은솔 이하는 정원이 없었다.

좌평은 처음에는 관등과 관직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6관등제가 정비되면서 관직적 요소는 분리되어 6좌평으로 성립되어 가고 관등적 성격은 제1관품으로 계속 남았다. 이 6좌평은 최고귀족회의체를 구성하였다. 16관등제는 의관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이 의관제에는 복색 및 대색(帶色)·관식(冠飾) 등이 포함된다. 복색의 경우 3색공복제로 운영되었는데 1품~6품은 자색의 옷을, 7품~11품은 비색의 옷을, 12품~16품까지는 청색의 옷을 입었다. 대색의 경우 좌평에서 장덕까지는 자주색, 시덕은 검은 색, 고덕은 붉은 색, 계덕은 푸른 색, 대덕·문독은 모두 누른색, 무독부터 극우까지는 모두 흰 색이었다. 관식의 경우 왕은 금화로 된 관식을 사용하였고, 좌평에서 5품 나솔까지는 은화로 된 관식을 착용하였다.

이 시기에 정비된 행정관서의 핵심이 22부였다. 22부는 왕실 업무를 관장하는 내관(內官) 12부와 일반 서정을 맡는 외관(外官) 10부로 이루어졌다. 각 부의 장관은 3년마다 한번 교대하였다. 이중 핵심적인 관청으로는 내관의 경우 왕명 출납을 담당할 전내부를 들 수 있고, 외관의 경우 군사업무를 관장한 사군부, 교육·의례 업무를 관장한 사도부, 토목업무를 관장한 사구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22부의 장관은 재관장·장리 또는 장사라고도 하였다. 부 아래에는 사가 있었다. 사의 사례로는 공덕부 아래에 두어진 공덕사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관직과 관등과의 관계는 1관직 1관등제가 아니라 하나의 관직을 여럿의 관등이 맡을 수 있는 1관직 복수관등제가 행해졌다.

22부제의 특징을 보면 먼저 내관의 수가 외관보다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왕권이 그만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내관의 곡부·내경부·외경부와 외관의 점구부·조부 등 재정을 담당한 부서는 그 수가 많고 또 직능상의 분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발전함에 따라 재정의 수입과 지출업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22부의 책임자는 3년 임기제의 적용을 받았다는 점이다. 장관의 3년 교대제로 왕은 22부의 장의 임명에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고, 국왕의 전제적인 권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넷째로 22부의 완비는 중요 국정을 논의·결정하는 최고의 귀족회의체인 좌평회의체의 위상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22부의 설치에 성왕의 왕권강화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백제 사비시대에 가장 완비된 형태의 지방통치제도는 방(方)-군(郡)-성(城)체제이다. 즉, 전국을 동·서·남·북·중의 5개 큰 방으로 나누고, 방 아래에는 다시 37개의 군이 있었으며, 군 아래에는 다시 200~250개에 이르는 성(縣)이 있었다. 큰 방은 10개의 군을 거느리고, 작은 경우에는 6~7개의 군을 거느렸던 셈이다. 방의 장관은 방령이었는데, 달솔(達率)의 관등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었다. 각 방성(方城)에는 700~1,000명에 해당되는 군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방령은 최고의 지방행정관임과 동시에 군지휘관이기도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추정된 백제 오방성의 위치와 규모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백제의 5방(方)

5 방(方)	방성(方城)	방위 및 거리	방성(方城)의 규모	병력	추정 위치
중방(中方)	고사성(古沙城)	남 260리	방 150보	1,200인	전북 고부
동방(東方)	득안성(得安城)	동남 100리	방 1리	700 - 1,000인	충남 은진
남방(南方)	구지하성(久知下城)	남 360리	방 130보	"	전남 남원
서방(西方)	도선성(刀先城)	서 350리	방 200보	"	충남 예산
북방(北東)	웅진성(熊津城)	동북 60리	방 1리반	"	충남 공주

군은 방과 기본성격이 동일하나 군사적 측면에서는 방령의 관할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군의 장은 군장(郡將) 또는 군령(郡令)이라고 하였는데, 그 명칭으로

보아 방령과 마찬가지로 군지휘관의 기능도 수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군장에는 덕솔(德率) 관등의 소지자가 임명되었다. 방과 군의 통할을 받는 하위의 지방조직은 성이었다. 이 성은 현(縣)으로도 표기되었는데, 성주(城主) 또는 도사(道使)라고도 하였다. 이들 성주나 도사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어떤 사람들이 임명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백제의 중흥을 이룩한 성왕은 대외적인 중흥을 꾀하여 한강유역 회복 작전을 기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라·가야군과 연합하여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당시 서북으로부터 돌궐의 위협과 귀족세력의 내분에 처해 있던 고구려의 위기를 이용하여, 551년에는 고구려군을 물리치고서 백제는 한강하류를, 신라는 한강상류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배신으로 인하여 553년에 다시 한강하류지역을 상실하였다. 이에 격분한 성왕은 신라에 대한 보복공격을 단행하였으나, 관산성전투에서 대패하여 전사하였다. 이때부터 삼국의 관계는 반전하여, 백제는 고구려와 연맹하여 동맹국이었던 신라를 적으로 삼아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게 되었다.

백제는 성왕이후 위덕왕이 등장하지만 성왕대의 혼란을 틈타 귀족들의 정치에 대한 발언권이 증대되어 정치의 일선에 나서게 되었다. 이 시기에 대두되기 시작한 대성팔족의 성립은 귀족 중심의 정치운영체제를 낳게 되었다. 이것이 6좌평제이다. 이후 백제왕실은 관산성패전 이후 귀족 중심의 정치운영체제에 의해 위축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룩하지 못하였다.

위덕왕, 무왕을 거치면서 관산성 전투에 대한 복수를 꿈꾸었던 백제는 의자왕이 즉위하자 더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의자왕 2년에는 신라의 서부 40여성을 공취하였으며, 특히 신라 남부의 요충인 대야성(합천)을 점령함으로써 신라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의자왕의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의자왕의 독단과 귀족층의 분열로 정치가 어려워지고, 당나라와의 외교관계에서도 실패하는 등 내외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7세기 전후의 형세를 보면 백제는 삼국 중 가장 영토가 작았다. 그러나, 실제 인구나 경제력은 고구려에 못지않았고, 신라보다는 우세하였다.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비옥한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발달된 해로를 통해 중국, 일본과 교류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위도 고구려나 신라에 못지 않았다. 그러나 도읍지를 두 번이나 옮김에 따라 새로운 지방세력이 진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서 중앙 귀족층이 수적으로 팽창되고,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내부적 모순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혜왕과 법왕은 재위기간이 2년을 넘지 못했고, 무왕 역시 귀족들의 합의하에 왕위에 오르는 등 왕권은 귀족들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무왕을 뒤이어 등장한 의자왕은 그 2년에 귀족층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40여 명의 귀족층을 몰아냄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의자왕 초기에 백제가 신라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정계개편의 결과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자왕대에도 귀족층의 분열은 재연되었고, 이러한 귀족들의 정쟁에 휘말린 의자왕은 결국 그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사치한 생활로 위엄을 갖추고, 또한 위안을 받으려 했다. 그런가 하면 귀족들보다는 왕족들을 중용함으로써 왕실의 안전을 도모하려 하였다. 성충(成忠)과 흥수(興首)는 의자왕의 탈선을 충고하며 나당연합군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을 제시하였지만, 대신들의 극심한 반대로 이들을 투옥시키고 귀양 보냈었다. 실제로 성충이 의자왕의 사치생활을 충고한 것은 의자왕 16년 3월인데, 그 반년 전인 15년 8월, 백제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신라의 30여 성을 공취하였다. 이것은 의자왕의 사치 생활로 갑자기 조정이 혼란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귀족간의 정쟁이 조정을 혼란케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백제가 내분에 휩싸이자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공격하였다. 신라는 대야성 전투에서 희생된 김춘추의 딸과 사위의 원수를 갚는 것이 되었지만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최종 목표인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한 우회작전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신라는 김유신과 품일, 흠춘 등이 거느린 5만 군사가 탄현을 넘어 황산벌로 진격하였고, 당나라는 소정방(蘇定方)이 거느린 13만 대군이 산동반도를 출발하여 덕물도, 백강을 거쳐 부여로 진격하였다. 계백의 5천 결사대는 신라군의 진격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기는 하였지만 끝내 수적열세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당나라 군대 백제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마침내 사비도성에 도착하였다.

백제는 5방 37군 200성으로 조직된 지방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나당연합군의 기습공격으로 별다른 저항 한번 못하고 도성이 함락되었다. 도성은 함락되었지만 각 지방에 남아 있었던 군사력은 견제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중심이 되어 곧 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 왕족인 복신(福信)과 승려였던 도침(道琛)은 주류성을 근거지로 하였고, 흑치상지(黑齒常之)는 임존성을 근거지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부흥군은 한 때 부여와 공주지역을 제외한 백제 고지(故地) 전역을 장악함으로써 나당연합군에게 크나큰 타격을 입히기도 하였지만 뒤이어 본국에서 지원군이 파견되고, 부흥군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복신은 다시 풍왕(豊王)에게 죽임을 다하면서 왕조의 부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사비도읍기 백제와 관련된 유적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일대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는 구체적인 발굴조사가 덜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 북쪽에 위치한 전의면에 있는 운주산성의 경우 백제 주류성으로 비정되기도 할 정도로 백제 멸망기 부흥운동의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세종자치시 곳곳에서 확인된 불비상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백제유민들의 흔적으로 파악되었듯이, 웅진·사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었던 백제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백제 부흥운동과 웅진도독부

백제는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함락된 직후부터 백제부흥군이 봉기하여 나·당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남잠·정현 등지의 성에서 백제유민이 쫓겨하고 있으며, 두시원악(두릉운성; 청양 정산 계봉산성 비정)에서는 좌평 정무가, 구마노리성(웅진성으로 비정)에서는 달솔 여자진이, 임존성(대흥 봉수산성)에서는 복신·도침·흑치상지 등이 세력을 규합하여 나·당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두시원악에서 부흥군을 일으킨 좌평 정무와 구마노리성에서 봉기한 달솔 여자진의 국내 활약상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상세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임존성에서 결집한 복신과 도침 및 흑치상지의 행적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부흥운동 초기에 활약상을 보이다가 말기에 당군에 투항하여 임존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흑치상지에 비하여서 복신과 도침은 시종일관 부흥운동과정의 중심에 나타나고 있어, 백제 부흥운동의 핵심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백제멸망기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을 포함한 지역 일대에서 확인되는 부흥운동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 지역의 지리적인 요인이나 웅진도독부의 움직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의 세종특별자치시는

백제시대에 3개의 지역으로 편성 분리되어 있었다. 문의지역인 일모산군에 속한 두인지현(구 연기군 남면 등)과 대목악군에 속하는 구지현(전의면, 전동면), 그리고 웅진에 속하는 금남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은 지리적으로는 북쪽으로 산과 구릉이 주로 분포하고, 동남부 지역으로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금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 즉 세종시는 북쪽으로는 천안, 동쪽으로는 보은과 청주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군사와 교통상의 요지였다.

이러한 까닭에 세종시 전의지역에 주류성이 위치한다는 설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 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사실은 연기지방이 백제 부흥운동의 주요거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백제의 웅진도읍기 이래 백제의 도읍과 바로 이웃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도방비를 위해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리고 사비시대에 들어와서는 5방성 가운데 하나인 북방성의 웅진성에 속해 있으며, 웅진성의 관할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흥운동의 주요 거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주요 거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백제부흥군의 4년간에 걸친 이와 같은 항쟁이 비록 무위로 끝났지만, 당군의 활동 범위를 사비 및 웅진으로 제한시킴으로써 당이 웅진도독부 등 5도독부를 설치하여 백제고지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좌절케 하였으며, 남북으로 협공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키려는 당의 의도를 수년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660년 이후 백제는 멸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근거로 당시 당이 백제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했던 웅진·마한·동명·금련·덕안 도독부라고 하는 5도독부의 존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백제 부흥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일과 더불어, 관부가 설치되더라도 그 지배의 형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국가의 멸망과 직결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역대 중국왕조의 대외정책 양상을 살펴보면 이민족 국가를 점령한 것이 곧 그 국가를 병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대왕조들은 국외의 나라들을 점령한 후 그곳의 구세력들을 인정하여 책봉하고 이들에게 점령전과 같이 자치를 허용하여 그 댓가로 조공을 받는 것으로 양국 간의 외교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국외의 영토를 점령한 후 그곳의 자치를 허용하던 대외정책을 ‘기미정책’이라고 부른다. 기미정책의 당대적 표현인 ‘기미부주체제’ 역시 그 지역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당의 체제 내로

편입되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당의 도독부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백제고토가 당의 영토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백제지역에서의 주권은 아직 백제인들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백제고토에 설치된 도독부는 초기부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줄곧 사료 상에 나타난 도독부의 설치 자체에만 주목하여 도독부의 지배가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또한 백제 멸망 직후에 관한 몇몇 사료는 도독부 이외의 관부가 설치되었음을 알려주는 사료도 있어서 도독부체제가 유일한 당의 지배체제였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어떤 형태로든 당이 백제를 지배하였다면 그 기간은 660년부터 신라가 백제를 병합한 673년까지 13년간일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백제에 대한 당의 지배는 어떠한지, 사실 구체적 기록은 백제의 멸망과 함께 체계적인 역사의 기록도 사라졌다. 따라서 우리는 이후 백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세한 기록을 볼 수 없다. 대신 660년 이후 백제에 대한 기록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여러 역사서에 흩어져 있다. 백제 부흥운동과 더불어 당의 백제지배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호부는 본래 당의 대외정벌에 있어서 전진기지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관부이다. 그러나 백제 도호부에서는 전혀 그런 기능을 기대할 수 없었다. 처음 백제의 수도인 사비에 진을 치고 도호부체제를 갖추었던 당군은 부흥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도호부 자체가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도호부가 제 기능을 시작도 하기 전에 도호부체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은 백제의 옛 왕과 지역의 수령들을 도독으로 임명하여 자치를 허용하는 도독부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당은 백제점령 초기부터 끊임없이 백제부흥군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어 백제 전역에 대한 완전한 점령에 실패하였다. 당이 점령하였던 지역은 백제의 백제도호부가 있었던 사비지역과 웅진도독부가 설치된 지역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지역들도 부흥군에게 포위되어 있었으므로 당의 점령은 사실상 몇 개의 성을 점령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백제도호부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백제에 도호부를 설치했던 본래 목적은 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고구려 원정에 투입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

도호부체제를 고수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도호부의 존속기간은 660년부터 662년 7월 이전까지로 짧은 기간이다. 662년 7월 이후에는 도호부체제는 무너지고 응진도독부체제로 바뀌었다. 또 백제부흥군의 세력이 소멸되었던 663년경 이후에는 신라와 백제지역을 반분함으로써 여전히 백제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이룰 수 없었다.

결국 당은 백제부흥군의 완강한 저항과 신라의 강경한 태도로 인하여 백제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이룰 수 없었다.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나, 이 또한 고구려 부흥군의 공격을 받아 곧 요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더욱이 676년 신라의 통일로 당은 한반도의 북부 일부만을 차지하는 선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백제지역에 있어서 당의 지배체제가 백제도호부체제에서 응진도독부체제로 전환된 것은 또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당의 기미부주체제에서 도호부와 도독부는 그 성격상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도호부에는 당인(唐人)이 임명되지만 도독부에는 그 지역의 지도자를 임명함으로써 도독부가 설치된 지역은 정치적인 자립정권이 수립된다. 만일 백제도호부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백제지역은 도호의 관할하에 5도독부가 종속되는 구조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부흥운동으로 도호부가 폐지됨으로써 백제는 응진도독부체제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응진도독부로의 전환은 당의 직접적 지배를 간접적 지배로 전환시킨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백제부흥군과 고구려부흥군의 저항은 신라의 통일로 연결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의 역사에서 신라의 통일이 갖는 의미만큼이나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3절 통일 신라 · 고려시대

1. 통일신라시대의 장군면

장군면은 통일신라 당시, 웅천·웅주 관할주에 속하였다. 나당전쟁의 승리로 671년 신라는 옛 백제지역 전체를 신라의 영토로 완전히 병합하였다. 이후 세종 특별자치시 일대의 백제 유민들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로 ‘비암사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 국보 106호’와 ‘서광암 계유명삼존천불비상, 국보 108호’가 있다. 모두 백제 유민이 673년 4월에 만든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세종시 일대의 백제유민들은 신라의 대대적인 옛 백제지역에 대한 점령과 함께 신라에 편입되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 백제의 군현조직은 어떻게 편재해 나갔을까 의문이다.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와 본기에 보이는 연혁관계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671년(문무왕 11) 신라가 옛 백제지역에서 일부지역의 지방제도 명칭을 바꾸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나당전쟁의 승리 이후 신라가 옛 백제지역의 어느 곳을 중심으로 지배정책을 펴나고자 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삼국통합 이후 신라가 옛 백제지역에 대한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한 때는 9주가 완성된 686년(신문왕 6)으로 볼 수 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한 뒤에 새로이 편입된 지역을 포함하여 이를 9주로 정비하였는데, 3국을 기준으로 각기 그 옛 땅에 3개의 주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 밑에 전국에 군과 현을 두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제 중국식 군현제도가 신라에도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됨을 보여준다.

옛 백제지역에 두어진 3개의 주는 현재의 장군면이 속한 웅천주(공주), 완산주(전주), 무진주(광주)이다. 이때 충남지역은 모두 웅천주에 소속된다. 여기에는 13개의 군과 29개의 현이 설치되었다. 현의 숫자는 웅진도독부의 7주 51현과 비교할 때 충남지역에 현은 모두 26개가 설치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숫자이다. 군현의 범위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전라도 지역은 전주와 무주로 나누어

졌다. 그리고 신문왕대 정비된 9주 체제 하의 군현명은 문무왕대의 군현 명을 약간 개정한 것 외에는 모두 백제 □□군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백제 통합 이후 문무왕~신문왕대에 이르기까지 몇몇 군현명의 변경 이외에는 백제시대의 군현명이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당나라가 설치한 7주 51현 가운데 통일기 신라의 주군현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당이 옛 백제 지역을 포기하여 7주 51현이 신라의 영역으로 되었지만, 지방통치조직으로 이어져 편제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즉 신라가 옛 백제지역에 대한 군현조직을 정비할 때 당이 만든 명칭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 이후 신문왕 때까지 백제지역의 군현명이 기본적으로 백제시대의 군현명을 그대로 답습하였다는 것은 백제유민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3개의 주를 고르게 배정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준왕경인 5소경 가운데에서 옛 백제지역에 서원경(청주)과 남원경(남원)에 2개 설치하였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옛 백제지역의 지방지배에 대해서 통일신라가 각별한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대 말인 경덕왕 대에 이르면 다시 전반적으로 개정되게 된다. 경덕왕 16년(757)의 일련의 군현명 개정이 그것이다. 백제 지명의 답습에서 벗어나 한자식의 우아한 지명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것은 경덕왕대에 와서 전제적 왕권의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과 연관된 것으로 바로 군현명의 통일로 나타났다. 이에 웅천주는 웅주로 개정되었는데, 소속 군현의 숫자는 차이가 없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군현명 개정은 재지세력의 지역의식을 약화시키고 중앙과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옛 백제지역의 군현도 새로운 명칭으로 개정됨에 따라 백제적인 의식이나 전통도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지역세력의 기반도 그만큼 약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은 옛 백제지역 토착세력의 반발을 낳았으며, 후백제의 건국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주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통일 이후 신라가 백제의 지방통치체제인 5부 37군 200(250)현을 3주 2소경 37군 104현으로 개편하면서 현의 수를 대폭 축소시켰고, 이 과정에서 군을 현으로 바꾸거나 현을 군으로 승격시키는 등의 조치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신라적 기준에 의해 옛 백제지역의 군현을 정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옛 백제지역의 수도가 자리를 잡았던 웅천주 보다 서남해안을 포함한 웅천주의 군현 숫자가 오히려 많다는 사실에서 신라의 옛 백제지역 지배정책의 또 다른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 백제유민에 대한 관동 수여, 그리고 지방제도의 개편과 함께 옛 백제지역의 재지세력을 크게 약화시키면서 군사적 중심지는 무진주에, 정치적 · 종교적 중심지는 웅천주에 두어 부여지역을 서로 상호 견제하도록 하면서 옛 백제지역을 통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중대에도 나라에 기근이 드는 예가 흔히 있었으며, 하대에 접어들면서 굶주린 농민들의 반발과 반항의 흔적이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물론 경덕왕대에는 웅천주의 판덕향에 사는 효자 향덕의 효행에 대하여 포상하는 등 피상적인 대책을 통하여 백제유민을 위무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일신라 이후 웅천주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갔고, 웅천주지역의 불만은 다음 시대인 신라 하대에 폭발하게 된다. 즉 822년 김헌창의 난이다. 김헌창의 반란은 단순히 정권쟁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안국을 세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사회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웅천주에 거점하여 일어난 김헌창의 반란은 전라도와 충청도 일원과 경상도에 있어서는 남으로 김해 · 진주 지역과 북으로 상주지역의 호응을 기대했었다. 즉 옛 백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의 경주를 먼 거리에서 포위하는 형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김헌창의 난은 옛 백제지역인 공주가 역사의 무대에 새롭게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이후 신라사회의 분열을 더욱 촉진시키는 지방 호족들이 웅천주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대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고려시대의 장군면

통일신라 말에 오면 진성여왕 3년(889)부터 시작된 농민봉기를 기화로 전국이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다 결국은 몇 개의 세력권으로 모아지면서 견훤의 후백제와 궁예의 태봉국이 건국되어 소위 후삼국시대가 연출되었다. 후삼국기 고려의 통일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일대는 대체로 공주지역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즉 905년 공주장군 홍기의 내항으로 궁예의 수중에 들어갔던 공주가 왕건 즉

위 후 후백제에 가담하자 세종시 일대도 후백제 영토가 되었다. 두 지역은 다 같이 삼국시대 백제의 영토이었을 뿐 아니라 신라 통일기에도 웅주(공주) 관할하에 있었다. 그러나 태조 8년(925) 고려장군 유금필의 공격으로 연산군이 점령당하면서 고려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리고 태조 10년(927) 고려가 웅주 전투에 패배하고 이듬해 유금필이 청주로 떠나자 다시 후백제로 붙었다. 그러나 후백제 견훤의 심복이었던 매곡성(충북 회인)의 성주 공작이 고려에 귀순하여 일모산군(연산군)을 점령하면서 다시 고려의 영토가 되었다. 이와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일대는 후백제와 고려의 경계 지역이었던 까닭에 반부를 반복하였던 것이다.

고려조에 들어와 장군면과 그 주변지역은 현종이 파란을 오면서 다시한번 역사의 주목 대상이 되었는데, 거란의 침입을 맞아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공주가 중요지역을 등장하게 된다.

현종이 피난을 갔던 여정은 다음과 같다. 개경을 출발하여 양주-광주-비노역-장곡역-인의역-수다역-노령을 넘어 나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피난 가는 도중에 왕이 공주에 들르게 되었다. 돌아올 때는 나주에서 북룡역-고부군-금구현을 거쳐 전주에 도착하여 7일간 머물렀다. 전주를 출발한 후에는 여양현을 거쳐 다시 공주에 와서 6일 동안 머물렀다. 이때에 김은부의 맏딸을 들여다가 왕비로 삼았다. 현종이 공주에 올 때 김은부 등은 웅진도에 나아가 그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왕의 지위가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때문인지 피난 도중 많은 관리들이 도망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당시 공주 절도사였던 김은부가 먹을 것을 마련하여 왕에게 드렸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공주에 들르자 김은부는 딸을 시켜 어의를 지어 받쳤다. 이에 현종은 개경으로 돌아온 후 김은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이다.

당시 공주에 머무른 현종은 청주를 거쳐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공주에서 청주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이다. 즉 공주시 신관동에 해당하는 일신역을 지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남면으로 지나는 중요한 교통로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세종특별자치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주의 역사전개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려 때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국왕이 수도 개경을 버리고 파천을 한 경우는 요의 침입으로 나주로 피난한 현종이 처음이었다. 이후 몽골 침입으로 강화도로 들어간 경우와 홍건적의 침입 때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

주나 안동은 친고려적 성향을 보이면서 줄곧 왕실의 어항지처럼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공주만큼은 예외였다. 물론 개인적으로 공주절도사였던 김은부가 이후 외척으로서 문벌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주는 나주나 안동만큼 국왕과 왕실의 각별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유는 공주가 지닌 역사적 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왕건과 견훤의 후삼국 쟁패과정에서 공주와 홍성 등이 일대 10여 군현과 함께 후백제에 호응한 때로부터 출발한다. 왕건은 이러한 공주지역을 재점령하고자 934년 후백제와 정면대결을 벌였는데, 이 때 웅진이북 30여 성의 항복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태조 이래 친고려적이던 안동이나 나주와는 다른 모습이다. 태조가 훈요십조에서 ‘차령이남 공주강외(車嶺以南公州江外)’의 인물을 등용하지 말라는 유훈을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의 이와 같은 상황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공주는 백제의 수도, 그리고 신라 통일기는 9주(州)의 하나였지만 신라 하대 김현창의 난을 계기로 더욱 지역세가 약화되었다. 후삼국시대인 904년에 공주장군 홍기(弘奇)가 궁예에게 귀부한 적은 있었으나, 궁예를 타도한 왕건이 후고구려를 장악하자 다시 백제에 편입되어 전세가 완전히 왕건에게 기울어진 934년에 이르러서야 고려에 투항하였다. 따라서 공주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을 시기에는 왕건과 연결된 호족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 토성세력도 미약하여 고려 후기에 이르기까지 명문으로 성장한 집안은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중앙으로 진출했던 인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940년(태조 23) 군현제 개편 때 광주(廣州)·충주·원주·청주·상주·양주·전주·광주(光州)·춘주·명주 등과 함께 공주를 11개의 대응으로 인정하고, 종전의 웅주가 공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점은 그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983년(성종 2)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의 12개 주에 외관을 파견하였을 때 양주·광주(廣州)·충주·청주·진주·상주·전주·나주·승주·해주·황주 등과 함께 공주도 상주하는 외관이 파견되었다는 점 역시 공주의 지역적 위상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 12목제는 995년(성종 14)에 12절도사 체제로 개편되었는데, 당시 공주는 ‘안절군(安節軍)’이라는 군사체제의 행정구역명으로 바뀌었다. 요의 침입에 대비한 이때의 개편은 군정적(軍政的) 성격을 띤 것이어서 방행정상 군사적인 면이 크게 강조된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이루어진 일련의 지방 행정개편은 곧 부·군

의 읍호가 바로 부활되었으며, 1005년(목종 8) 관찰사 · 도단련사 · 단련사 등의 외관이 폐지되었다.

고려 중기에 들어서 고려 귀족사회는 문종 대를 정점으로 발전하였다가 숙종, 예종을 거치면서 귀족들의 전횡이 심해지면서 점차 내부모순이 쌓여갔다. 문벌귀족들은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였을 뿐 아니라 관직에 따른 전 시과와 공음전 외에도 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탈점을 통해 막대한 토지를 겸병하였다. 일부 지배층의 정치권력과 경제력의 확대는 지배층 내부의 분열을 야기시켰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었다. 이 난은 일단 수습되기는 하였지만 이 같은 문신 귀족들의 권력다툼은 귀족사회를 동요시켜 무신란 발생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 무신집권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농민봉기 중 하나가 서북지방 조위총의 난에 이은 공주 명학소민의 봉기였다. 명학소는 오늘날의 대전시 서구 탄방동(숯골) 부근으로서 명칭이 숯골인 것으로 보아 탄소일 가능성이 있다. 당시 명학소의 망이 · 망소이 등은 무리를 모아 산행병마사를 지칭하면서 봉기하여 공주를 함락시켰으며, 공주를 기점으로 점차 세력의 범위를 넓혀 예산 충주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명학소민의 봉기가 거세지면서 단순히 천민집단이 신분해방을 갈구하며 중앙정부의 선처를 바라는 지역적이고 소극적인 규모에서 벗어나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충청도 전역의 농민층이 정부타도 의사까지 표명한 반정부 세력이었다. 이에 정부는 회유책을 버리고 본격적인 토벌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연기지역의 경우도 정부의 제제에서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명학소민의 봉기 이후 연기현이 국가의 감무 파견이 취소되고,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다시는 연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고려후기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일대의 주요한 역사적 사실은 원 합단적의 침입이다. 즉 연기군 남면 원수산, 전월산 주변 일대는 7백여 년전 동아시아 국제전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다. 원 쿠빌라이 정권에 반기를 든 합단적을 여원연합군이 바로 이곳에서 궤멸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은 몽고와의 전란이 종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충렬왕 17년(1290)부터 다음해 18년(1291)에 걸치는 사건이다. 이들은 강원도 동부지역으로 침입해 들어와 원주, 충주 등을 거쳐 연기에까지 이르렀다가 연기군 남면 원수산 일대에서 여원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대파되었던 것이다. 현재 장군면이 소속된 세종특별자치시가 바로 이 전투의 주 무대였다는 점에서 새삼 흥미를 끄는 사건이다. 합단군에 대한 연기현에서의 승전은 그 규모가 무척

큰 전쟁이었고 이 때문에 그 승전의 상황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 대첩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고려 말기에 고려를 괴롭힌 외침세력으로 홍건적과 더불어 왜구가 있었다. 왜구는 왜인침구의 줄인 말로서 왜구의 약탈행위가 일상화되면서 관용화 된 것이다. 왜구의 침입은 고종 10년부터 나타났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충정왕 2년(1350)부터이며 가장 빈번하게 침략했던 시기는 공민왕과 우왕대였다.

이 시기에 왜구와 창궐한 이류로는 먼저 혼란한 일본의 국내사정을 들 수 있다. 당시 일본은 충숙왕2년(1333)에 북조씨의 염창막부가 망하고 새로 족리씨에 의한 실정막부가 들어서면서 황실이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는 남북조 시대가 139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왜구가 창궐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일본은 고려와의 통교를 통하여 필요한 물자를 수입했으나 일본의 국내 혼란으로 교역이 단절되자 무역왜인까지도 왜구로 바뀌게 되었다. 셋째, 여원연합군의 일본 정벌 실패는 일본 서부 지역민의 자만심을 북돋아주어 인접국가에 대한 약탈행위로 나타났다.

이같이 일본 국내사정의 혼란으로 왜구가 고려를 침입하였으나 고려는 제대로 왜구를 제압하지 못하였다. 공민왕 이전은 원 간섭기였고, 공민왕대는 원의 간섭을 벗어났으나 친원세력이 그대로 온존하고 있어 통치력이 정비되지 않았고 또한 홍건적의 침입까지 바다 국방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침입한 왜구들은 닥치는 대로 약탈과 파괴를 행하여 어느 것 하나 온전할 수가 없었다. 왜구를 피해 내륙인 해인사에 소장된 역대 기록과 경사 등 모든 서적을 선주의 득익사(得益寺)로 피신할 정도였다. 왜구로 인해 백성들이 유랑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자 우왕 원년에는 3도 주민들의 상요 잡공 염세를 감면할 정도였으며 천도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제 왜구는 초기의 해안지방을 약탈하던 것에서 벗어나 점차 내륙까지 침입하면서 장군면의 주변지역인 연기지방도 역시 왜구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이에 고려는 왜구에 대해 양면으로 대처하였다. 즉 회유와 무력토벌이었는데, 왜구에 대한 회유책으로서 공민왕 13년(1364) 6월에 경상·전라에 왜인만호부를 두고 이들을 불러 달라고 금부를 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투화한 왜인들이 다시 침탈을 하는 일이 빈번하여 회유책은 실패하였다. 또한 왜구 방어책으로 연해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군으로서의 진수군을 증설하고 기선군의 재건

에 착수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에 따라 점차 우왕 9년부터 왜구의 침입횟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장군면의 주변지역인 연기현도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왜구소멸의 가장 큰 이유는 화약 화포 등의 신병기로 인해 고려군의 전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그 외에 일본 군내의 안정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관련 유적이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내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된 예는 많지 않다. 그러나 고려시대 유적의 분포 특성상 무덤과 같은 매장유적은 넓은 지역에 걸쳐 확인되고 있으며, 인근의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리와 한솔동 일대에서도 고려시대 건물지와 관련유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장군면 일대에도 관련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문화유적 분포지도-공주시-』, 충청남도.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공주대학교박물관, 1999,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12집 -연기군편-.
 한국토지공사,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내 문화유산 지표조사 역사분야』 .

제4절 조선시대의 장군면

1. 조선전기의 장군면 지역

조선시대 장군면 지역은 충청도 공주목에 속하였다. 특히 장군면 일대의 경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대교천이다. 현재의 대교천은 중흥저수지에서 발원해 금강을 흘러드는 하천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대교천의 물길이 전의현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보다 수량이 풍부하던 시기에는 공주에서 전의현이나 연기현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바로 이 대교천을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조선후기의 지리지인 『여지도서』에는 ‘공주 관아에서 동북쪽으로 연기(燕岐) 경계까지 대교로(大橋路)인데 20리이고 중로(中路)이다.’ 라고 하여 이 길을 대교로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교통로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들어 도시가 발달하게 마련이었으니 고을과 고을을 이어주는 이와 같이 중요한 육로 및 수로 교통은 전통시대에 특히 매력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해주었을 것이다.

현재 대교천 주변에서 평기리와 은용리의 산성, 김종서가의 전장 소재지, 그리고 조선후기 여러 동족마을이 확인되는 것도 지역사에서 자연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일대의 지명에서 ‘월계’ ‘속계’ ‘송계’ ‘후계’ ‘도계’ ‘수회’ 등 흐르는 물의 뜻을 가진 것이 많이 남아 전하는 것도 금강 및 대교천과 관련이 있다.

장군면 지역의 조선시대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공주의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전기에는 지역 관련 사료 자체가 매우 부족한데다 면리 단위의 기록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장군면 지역은 공주의 중심지역이 아닌 북동쪽으로 전의현, 연기현과 접경하고 있는 시외 지역이었으므로 역사 기록 속의 ‘공주’의 모습이 장군면 지역에도 전부 해당된다 하기도 어렵다. 정확하게 장군면 지역의 것으로 확인되는 조선초기 기록은 절재 김종서에 관한 것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조선시대 장군면의 역사를 밝히는데 있어 절재 김종서에서부터 출발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2. 절재 김종서와 장군면

1) 공주의 유력가 순천김씨

장군면은 조선의 충신 절재 김종서(金宗瑞, 1383~1453)의 자취가 남아있는 고장이다. 그의 묘는 국사봉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장군면’은 장군산의 지명을 따 행정구역명을 정하였으므로 김종서는 장군면의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김종서가 태어난 곳은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천태산 남쪽 끝자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요당면 비계곡[비계리]이었다. 그의 묘는 세종시 장군면 소재지 국도를 따라 약 2.5km 정도 떨어진 대교리 밤실마을 산 45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그가 태어난 곳에서 불과 6k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김종서의 본관은 순천(順天)이며 자는 국경(國卿), 호는 절재(節齋),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1383년(고려 우왕 9)에 공주 월곡리에서 김추(金陞)와 성주배씨 배규(裴規)의 딸 사이에서 3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인은 파평윤씨 윤원부(尹元富)의 딸이며, 슬하에 아들 승규(承珪), 승벽(承璧), 승유(承琉)와 세 딸, 그리고 서자 석대(石臺)와 목대(木臺)를 두었다. 장형 목재(默齋) 김종한(金宗漢)은 이조판서를 지냈고, 동생은 흑재(黑齋) 김종흥(金宗興)이고 매부는 남원윤씨 윤감(尹臧)이다(『순천김씨대동보(順天金氏大同譜)』 권 1 1984, 대전 농경출판사).

김종서는 조선초기 6진을 개척한 용명한 장수이자, 동시에 「고려사절요」를 편찬한 문신으로 활약하고 좌의정에까지 올랐다. 그의 집안인 순천김씨가 공주에 세거하게 된 것은 김종서의 조부 김태영(金台泳)때부터였다고 알려진다.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로는 그가 본래 순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순천과 서울을 왕래하기가 힘들어 그 중간 정도에 집을 마련한 곳이 공주 요당이었고 이때부터 공주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김종서의 묘비문(구비)에도 공주 요당은 김종서의 세장지(世葬之地)라 하여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김태영 처의 외가인 전의이씨가 주목된다. 당시 전의이씨는 전의 및 공주지역에 토착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1439년(세종 7) ‘김종서의 아내가 공주에 살면서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니, 어육(魚肉)을 대어 주라’거나, 1452년(단종 즉위년)의 ‘김종서가 장차 충청도 공주에 가서 성묘하고자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니, 음식을 대접하고 마장(馬粧) 1부를 하사하였다’라는 세종실록과 단종실록의 기록에서도 공주에 그의 세거지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훗날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김종서

의 둘째아들인 김승벽이 청주·공주·전의로 피신하였고²⁾ 전의(全義)의 피신처로는 이노(李老)의 집이 거론되었으며³⁾ 김종서의 아들 김승벽이 공주의 농장 등지에 숨어있다.’ 는 등의 단종실록 기록⁴⁾도 주목된다.

대교리에 김종서의 묘소가 정해지게 된 과정에는 몇 가지 전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김종서 장군에게는 평소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1453년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말이 갑자기 뛰어들어 다리 한 쪽을 물고 한양을 뛰쳐나와 공주까지 쉬지 않고 달려와서 죽었다는 이야기다. 이 때 말이 물고 온 한쪽 다리를 이곳에 묻었는데, 그후부터 마을 이름을 ‘한다리’ 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것이 변하여 ‘대교리(大橋里)’가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김종서의 아들 김승벽이 아버지의 시신을 말에 싣고 고향 공주로 달려와 장사지낸 후 다시 도주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2) 김종서의 삶과 기록

김종서는 일반적으로 육진을 개척한 용맹한 장군으로 알려졌지만 전형적인 문인이었으며 신장이 작고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1405년(태종 5)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리로 진출하였고, 또한 일생동안 전투를 이끈 장군보다는 군사문제를 지휘하는 문관 지휘관으로 살았다.

이처럼 문무를 겸비한 그가 세종에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31세 때 행대감찰로 강원도 지방을 감찰하며 빈민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하면서 부터였다. 그는 이후 정확하고 적극적인 공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행대감찰로 다시 충청도에 파견되었고 관료로서의 기민하고 충성스런 행정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간원 정언직으로 승진하였고, 1423년(세종 5)에는 의주·삭주도 경차관으로 나가 또 다시 빈민구제 상황을 조사하였다. 그는 특히 사헌부 관료로서 군주의 정치를 비판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오히려 세종의 신임을 받아 더욱 의기투합한 군신의 관계를 이어갔다. 세종은 51세의 김종서를 함경도 지역으로 보내 절정으로 무르익은 그의 경륜으로 여진족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후 10여년간 북변에서 육진(六鎭)을 개척하여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정하는 데

2) 『단종실록』 권8, 단종 원년 10월 을미조.

3) 『단종실록』 권8, 단종 원년 10월 기해조

4)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 3월 계축조, 『단종실록』 권4, 단종 즉위년 12월 계묘조, 동 권8, 단종 원년 10월 기해조.

큰 공로를 세웠다.

1446년(세종 28) 지춘추관사로 고려사 139권을 편찬하였고 고려사절요의 편찬을 주청하여 마무리지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즉위한 후에는 세종실록의 편찬 책임을 맡아 완료하였다. 그러나 계유정난으로 김종서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됨으로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편찬자 명단에서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에 관한 자료는 실록 이외에 1910년에 김두익(金斗翼)의 『절재선생실기』 상·하 4권이 목판으로 후손들에 의해 출판되었으나 이에 연보조차 없어 아쉬움이 크다.

조선초기 공주의 유력 가문이었을 김종서의 집안은 계유정난 이후 철저히 몰락하였다. 김종서와 그의 장남은 서울에서 죽었고,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대명률』의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가 준거가 되어 노비가 되거나 외방에 안치되고 재산은 적몰되었다. 여자나 어린이도 열외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김종서의 행적은 이후 공주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각종 지리지의 인물조에서조차 전혀 언급되지 않게 되었다. 김종서의 묘 역시 어떤 과정으로 공주 대교리에 조성된 것인지는 앞서 언급한 전설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그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순천김씨의 족보를 통해 이들의 피해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⁵⁾.

김종서(金宗瑞, 좌의정) - 화를 당함(被禍)
 김승규(金承珪, 병조참의) - 화를 당함(被禍)
 김만동(金萬同) - 화를 당함(被禍)
 김조동(金祖同) - 화를 당함(被禍)
 김말동(金末同, 幸南) - 유모에 의해 무주에서 양육되다 성장하여 위도(蟬島)로 들어감
 ⇒ 가게 계승
 김승벽(金承璧, 주부) - 화를 당함(被禍)
 김종남(金仲男, 참봉) - 화를 당함(被禍)
 김차동(金次同) - 은둔하여 몸을 피함(隱躲)
 김삼동(金三同, 澎) - 은둔하여 몸을 피함(隱躲) ⇒ 가게 계승
 김사동(金四同) - 은둔하여 몸을 피함(隱躲)
 김승유(金承琉, 승정원주서) - 은둔하여 몸을 피함(隱躲)
 김효달(金孝達) - 요동으로 달아나 숨음 ⇒ 가게 계승
 김석대(金石臺) - 화를 당함(被禍)
 김목일(金木臺) - 화를 당함(被禍)

5) 『순천김씨충의공파보(順天金氏忠翼公派譜)』 권1, 일문동화록에 의함.

그의 인물됨에 대한 당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세종실록』 22년 7월 5일조 (외모에 대한 세종의 평가)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는 본디 유신(儒臣)으로서 몸집이 작고, 관리로서 재주는 넉넉하나 무예는 모자라니 장수로서 마땅한 체격은 아니다. 다만 그가 일을 만나면 부지런하고 조심하며 일 처리하는 것이 정밀하고 상세하다. 4진(鎭)을 설치할 때에도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알맞아서 그 효과를 보았으니 포상할 만하다.”

- 『서정록(西征錄)』 (세종때 이순원이 서북의 야인을 토벌한 사실을 기록한 책)

“宗瑞既設四鎭 徙南民以實之 日置大饗將士 一日 夜宴 有反側之徒 射中酒樽 左右驚擾 宗瑞自若曰 奸人試我身 何能爲哉”

김종서는 북관에 부임하여서 정무처리에 매우 엄격하였다. 그런가하면 변방에서 고생하는 장수와 병졸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밤에는 큰 잔치를 베풀어 배불리 먹이면서 위로했다. 변방의 무관들은 문신인 김종서를 반발하며 얹보는 분위기가 있었다. 어느날 밤 잔치중에 화살이 날아와 술 항아리를 맞추자, 좌우가 모두 놀라 소란스러웠으나 김종서는 태연자약하여 말하길, “간사한 무리들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찌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를 보면 그는 곧 무관 못지않은 큰 담력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 『동각잡기(東閣雜記)』

“端宗癸酉 皇甫仁 金宗瑞 鄭棻 爲三公 而宗瑞尤多智略 時人目爲大虎”

“단종(端宗) 계유년에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정분(鄭棻)이 삼공(三公)이 되었는데, 종서는 더욱 지략이 많아서 그 때 사람들이 지목하여 ‘대호(大虎)’ 라고 하였다.”

- 『실기(實記)』 권삼(卷三)

“世宗朝 咸吉道 都節制使 平定六鎭…入爲左議政 嚴毅有大節 時人目之以大虎”

“세종 때 함길도 도절제사로서 그로 하여금 6진을 평정하게 하였는데…조정에 들어와서는 좌의정이 되었다. 엄격하고 강직하며 큰 절개가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대호라고 지목하여 불렀다.”

● 『실기(實記)』 권삼(卷二) 좌의정 절제김선생종서 신도비명병서(左議政 節齊金先生宗瑞 神道碑銘并序)

“端宗冲年嗣位 中外危疑 而先生匡綏鎮伏 有大臣之度 上下倚焉 世祖在首陽潛邸 將靖難 以先生多智略 有大虎之目 欲先除去 癸酉十月十日 親率諸武士 至先生家 使林雲 椎擊 先生仆地”

단종이 어린 나이로 등극하자 조야에서 모두 위태롭게 여기며 오직 좌상 김종서에게 의지하였다. 그러므로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자비하게 좌상을 격살하였다.

● 『문종실록』 1년 11월 29일조

“김종서는 경전과 사기에 통달한 학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과 문장도 본받아 법으로 삼을만하니 진신(縉紳)의 영수이며, 사림의 표준이라고 이를 만 합니다. 명을 받은 이래로 성상께서 위임한 중대한 사항을 두루 살피지 않음이 없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어, 유학을 일으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신등이 얼굴을 대하여 김종서의 덕을 생각하면 태산북두(泰山北斗)같이 우러러 봅니다. ……특별히 우의정 김종서에게 영성군관사를 겸하게 하시면, 오직 학문을 계승하는데 다행일 뿐만 아니고 성세(盛世)에 학문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정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종서를 칭하던 ‘대호(大虎)’ 라는 명칭은 지략이 많으며, 엄격하고 강직하면 서도 큰 절조를 지녔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민속과 설화 속 호랑이는 대개 신령스런 존재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외경(畏敬)과 추앙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김종서가 생전에 지은 다음의 시를 보면 그의 담대한 인격을 느낄 수 있다.

“ 삭풍(朔風)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明月)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萬里邊城)에 일장검(一長劍) 짚고 서서
긴파람 큰 한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⁶⁾ ”

6)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한편 이 시조는 한문으로 번문(翻文)되어 다음과 같이 전하기도 한다. “朔風吹木末 明月雪裏寒 萬里邊城杖修劍 長嘯一聲無滯礙” (節齊先生實記 卷二) 이하 실기(實記)라 한다.

“ 장백산(長白山)에 기를 꽃고 두만강(豆滿江)에 말을 씻겨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냐
 어떻다 인각화상(麟閣畫像)을 누구먼저 하리오⁷⁾ ”

현재 김종서의 묘소 아래에는 김종서·김승규의 정려가 세워져 있고, 조선후기 공주 소재 요당서사와 동학사 숙묘전(肅慕殿)에 제향되었다. 김종서의 묘는 1977년 1월 6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되었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2012년 12월 31일 시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되었다.

3) 조선후기의 추송과 요당서사

김종서에 대한 본격적인 신원작업은 김종서가 죽음을 당한지 227년만인 1680년(숙종 6) 무렵부터 시도되었다. 김종서와 황보인, 그리고 사육신의 억울함이 거론되고 김종서가 진정한 충신(忠臣)이라는 주청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숙종 말 그의 후손에 대한 서용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 시기 김종서의 복관운동을 추진한 사람들은 주로 호서의 서인계 사림이었다.

이후 영·정조에 이르면 김종서를 비롯한 황보인, 정분 등에 대한 선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1746년(영조 22) 드디어 김종서를 비롯한 삼상의 관작이 추복되면서 비로소 김종서의 묘비를 ‘조선좌의정절재김선생종서지묘(朝鮮左議政節齋金先生宗瑞之墓)’라고 새길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도 김종서의 묘소 앞에 비석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있었다면 당시 황보인의 묘에 ‘영천황보공지묘(永川皇甫公之墓)’라고만 쓰여 있고 관작과 이름은 쓰여 있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종서의 묘비도 ‘순천김공지묘(順天金公之墓)’라고만 쓰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 6일이 지난 영조 23년 1월 2일에서는 황보인·김종서와 함께 죽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와 김승벽도 복관되었다. 이듬해에는 김승규에 대한 정려가 내려졌고, 10여년이 흐른 1758년(영조 34)에는 김종서에게도 충익공(忠翼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공주 요당면에는 그를 제향하는 요당서사(蓼塘書社)가 세워졌다. 요당서사는

7) 진본 『청구영언』. 이 시조 역시 한문으로 번문(飜文)되어 전한다. “長白山樹幟 豆滿江洗馬 彼哉腐儒此不誠 丈夫哉麟閣圖像 不知誰爲先者” (實記 卷二)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에 있었는데, 『공산지』, 『호서읍지』와 『조선환여승람』, 1971년에 간행된 『공주승람』을 보면 제향인물은 조선 초기 세조의 왕위찬탈과 관련하여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왕 단종을 보필하다가 계유정난(癸酉靖亂)으로 죽임을 당한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정분(鄭本)과 사육신의 단종 복위사건과 관련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된 김문기(金文起), 성희(成熹), 조순생(趙順生),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운 정천경(鄭天卿)과 경종조의 인물인 윤원(尹愿)·윤각(尹戩) 형제 등 모두 9명이다. 건립과 관련한 문헌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정분의 집안인 진주정씨가에서 발간된 「고로서원지발취(古老書院誌拔萃)」에는 1797년 김종서의 세장지지(世場之地)인 공주 요당에 요당서사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00여년이 채 못된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어 현재 터만 남아 있다.

우리 역사상 김종서라는 인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 크게는 “문무를 겸비한 당대 제일의 장군이며, 명재상이며, 역사가”라 할 수 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첫째, 바른 행정가의 표상이다. 김종서는 조선 초기 세종대의 행정관료로서 국가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며 세종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약하였다. 둘째, 국경을 두만강까지 확보하려는 세종의 뜻에 따라 경원, 종성, 회령, 경성, 온성, 부령 등 육진을 개척하여 우리의 영토로 만드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셋째, 어린 단종의 왕위를 지켜주려다가 수양대군의 계유정란에 의하여 철퇴를 맞고 쓰러졌으나 훗날 그의 정신은 다시 재조명받으며 사림정신의 표상이 되었다. 넷째, 백성을 위한 정책을 폈으며, 문화적으로 유교입국을 세우는 데 헌신하였다.

3. 조선전기 성씨의 입향과 정착

1) 성씨 기록과 입향

공주의 성씨 기록 중 조선초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에는 본주(本州), 신평(新豐), 유성(儒城), 덕진(德津), 완부부곡(輓釜部曲), 귀지부곡(貴知部曲), 육역(六驛), 유구역(維鳩驛) 등 8개 지역의 성씨가 구분되어 있다.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에는 육역과 유구역이 ‘역성’으로 본주 성씨에

붙고, 양화(良化) 갑촌(甲村) 박산(樸山)의 성씨가 새로 등장한다. 이중 장군면 지역을 지칭하는 지명은 없으므로 본주 성씨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 중 공주목 본주 성씨

구 분	성 씨
토성(土姓)	이(李) · 정(鄭) · 송(宋) · 박(朴) · 황(黃) · 고(高) · 임(任)
외촌성(外村姓)	황(黃) · 백(白) · 하(河)
당투화성(唐投化姓)	김(金)

그러나 위의 성씨 중 장군면 지역의 성씨로 추정할 만한 성씨는 알 수 없다. 장군면의 주민들은 대부분 수백년전 이 땅에 자리잡은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러나 언제 어떤 인물이 무슨 이유로 입향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 현재 장군면에 거주하는 주요 성씨들의 입향과정을 추적해보면, 대부분 16세기 이후에 터를 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이전에 살았던 성씨들에 대해서는 간혹 전설상에 ‘○씨가 살았다고 전해오는 골짜기’ 또는 ‘누구네 묘’ 와 같은 내용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다음의 표는 마을조사를 통해 밝혀진 각 마을의 입향조에 관한 사항이다.

〈표 3〉 장군면에 터를 잡은 성씨들

마을	성씨	입향조	입향시기	입향사유
대교리	순천김씨	김태영(金台泳)	고려말	절재 김종서의 조부 김태영이 처의 외가인 전의이씨가와의 인연으로 입향
용암리	진주류씨	유성추	1722년(경종 2) 경	노소론의 당쟁을 피해 관직을 버리고 떠실에 낙향
	광산김씨	미상	미상	미상
	해주오씨	오수원	1600년대 후반	청주한씨 한태동(韓泰東)의 딸과 혼인
태산리	전주이씨	이몽경	1600년대 추정	이몽경의 어머니가 공주이씨 병사 이에(李藝)의 딸. 외가의 인연으로 입향
평기리	한산이씨	이덕사	1620~1630년대	이덕사의 처가인 밀양박씨가 세거하던 평기리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
	밀양박씨	박치신(朴致新) 처 청주한씨 (1626~1689)	1600년대 중반	공주에 세거하던 청주한씨와의 관련 추정
	수원백씨	백시유(白時裕, 1662~1724)	1600년대 말	처가인 풍양조씨와 관련 추정
금암리	전주이씨	미상	1600년대	화를 피해 낙향
	풍양조씨	조대수(趙大壽, 1655~1721)	1600년대 말	낙향
하봉리	파평윤씨	윤여(尹礪, 1507~?)	1500년대	연산군때 과천현감을 지냈던 윤여가 입향. 입향사유 미상
	안동권씨	미상	조선초기	구전됨.(고총과 신도비가 전함)
	진주류씨	류충걸(柳忠傑)	1700년대	광해5년 인목대비 폐모론을 반대하는 상소를 하고 낙향

장군면의 여러 성씨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입향하여 세거한 성씨는 그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들과 또 다른 성씨의 입향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지역사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까지 후손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에 유허가 남아있는 주요 성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평기리 밀양박씨

밀양박씨는 지금부터 약 350여년 전으로 박치신(朴致新, 1624~1649)의 부인인 청주한씨(1626~1689)가 과천에서 거주하다가 남편이 일찍 죽자 어린 아들을 데리고 평기리 별터로 이거함으로써 입향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민들은 당시 한산이씨의 동족 마을이었던 별터에 그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한산이씨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한산이씨 이덕사의 부인이 말양박씨(朴廷老의 딸)이기 때문에 박치신의 부인 청주한씨가 이곳으로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덕사가 처가인 밀양박씨들의 마을인 별터에 입향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전에 마련되어 있던 밀양박씨들의 세거지에 자리한 시택으로 귀의가 아니었나 추정되기도 한다. 원래 박치신의 묘는 과천 갈현리에 있던 것을 근래에 부인인 청주한씨의 묘가 자리하고 있는 요당면 평장곡에 이장하였으며 박치신의 아들인 한혁(漢赫, 1643~1701)과 손자인 경환(慶煥, 1664~1704)의 묘가 장기 평장곡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 이 마을에 계속 세거한 것으로 보인다. 별터에 밀양박씨와 관련된 유적이거나 유물은 전하지 않고 별터 주변의 대교리, 동현 등에도 밀양박씨가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인 1920년의 동족마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교리에 밀양박씨 17호가 거주하고 있어, 평기리의 박씨가 대교리로 이거하여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 평기리 수원백씨

수원백씨는 송인수, 유희춘, 이이, 성혼 등 당대의 사림계 인물들과 널리 교유한 백인걸(白仁傑, 1497~1579)의 후손들인데 수원백씨가 평기리에 입향시키는 정확치 않으나 백시유(白時裕, 1662~1724)의 묘가 평기리에서 멀지 않은 정안면 내촌리 남산 어은곡에 있고 그의 아들을 비롯하여 후손들의 묘가 계속 공주 장기면 일대에 조성되었다. 왜 이곳으로 입향하였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으며 백시유의 자는 공유(公裕), 부인은 풍양조씨이다. 아들인 백상후(白尙厚, 1685~1754)의 묘는 장기면 도계리 작곡(作谷)에 있고 백시유의 손자인 백사희(白師喜, 1714~1768)의 묘가 평기리 분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사희 때부터는 별터에 본격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백사희의 자는 덕순(德順)으로 홍문관 부제학을 지냈으며 부인은 진주 강씨이다.

■ 평기리 부안임씨

부안임씨는 세종시의 유력한 토착세력으로 현재에도 세종시 일대에는 부안임씨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평기리의 부안임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해지지 않지만 지명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세종시의 부안임씨의 입향조인 임난수(林蘭秀, 1342~1407)는 고려시대 호군(護軍)·흥복도감(興福都監)등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나 고려가 명망하자 조선에 출사하지 않고 세종시로 낙향하였다.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세종시로 낙향하던 중 평기리에 이르러 터를 잡으려고 주변을 둘러 보았으나 북쪽이 터져 풍수상 인적이 드물다 하여 평기리의 남쪽 입구인 청용 끝에 있는 바위에 앉아 분하다고 탄식하여 분탄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그 터를 버렸다고 하여 벌터라고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1970년에 이전까지만 해도 청용끝 주변에 있던 바위가 있었는데 새마을 사업과 도로확장으로 없어졌다.

■ 금암리 전주이씨



전주이씨 재실

금암리는 전주이씨가 대대로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사기정골에 세거하는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본래 경기도 김포 일대에서 살다가 약 400여년 전 난리를 피해 우성면 내산리를 거쳐 이곳으로 입향하였다고 전한다.

당시 소나무가 많은 곳으로 피하면 좋다고 하여 들어선 곳이 금암리 송치미였다고 하나 자세한 유래는 알기가 힘들다. 사기정골 가운데에는 현대에 건립한 전주이씨 재실이 있으며 사덕골에는 중정대부 의정부 우찬성을 지낸 이구순(李久洵)의 신도비가 종산 아래에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조선의 동쪽마을을 조사했던 자료인 『조선의 성』에 의하면 전주이씨는 금암리를 포함 인근의 공주 장기면 송선리와 금흥리까지 총 116호가 거주하고 있었고 용현리, 용암리, 태산리에도 총 150호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하봉리 파평윤씨

하봉리 별신당에 자리를 잡은 파평윤씨들은 연산군 때부터 터를 잡고 살아왔다고 한다. 후손들에 의하면 여진정벌의 개척공신이자, 판병부사에 이르고 문숙이라는 시호를 받은 윤관(尹瓘, ?~1111)의 후손들 이라고 한다. 그의 후손 중 연산군 때 과천현감을 지냈으며 중종 정묘년(1507년) 이조 판서에 증직된 윤여(尹礪, 1507~)가 이 지역으로 입향한 이후 대대로 살아왔다고 한다. 현재 이 마을에는 1990년에 건립한 재실이 있고 현재에도 30호 가량이 살고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10일 제향을 올리고 있다.



봉곡재 재실 및 회관 (하봉리 390번지)

■ 하봉리 안동권씨

하봉저수지 북서쪽에 비성골이 있는데 안동권씨의 비가 많이 모여 있어 비석골, 혹은 비성골이라고 불린다. 비성골에는 권순창(權順昌, 1609~1687)의 신도비가 있는데 비문은 윤증이 짓고 신익상이 쓰고 최석정이 전서 하였다. 안동권씨는 정조대 이후 일시 세거 하였다고 하며 현재 안동권씨는 한사람 정도가 살고 있을 뿐이다. 전설에 의하면 안동권씨의 비를 옮길 때 고개가 높아서 고개를 깎아 옮기려고 할때 산에서 피(혈)가 났다고 전해지며 큰 비석이 놓여진 이후 비석골(비성골)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 하봉리 진주류씨

하봉리 하산마을에는 충의공 류병연의 제당이 있는데 류병연은 입향조인 류충걸의 4남이다. 류충걸은 1613년(광해5년) 인목대비 폐모론을 반대하는 상소를 하고 이지역에 입향하였다. 진주 류씨는 1600년대 이후 하봉리 뿐만 아니라 대교천의 주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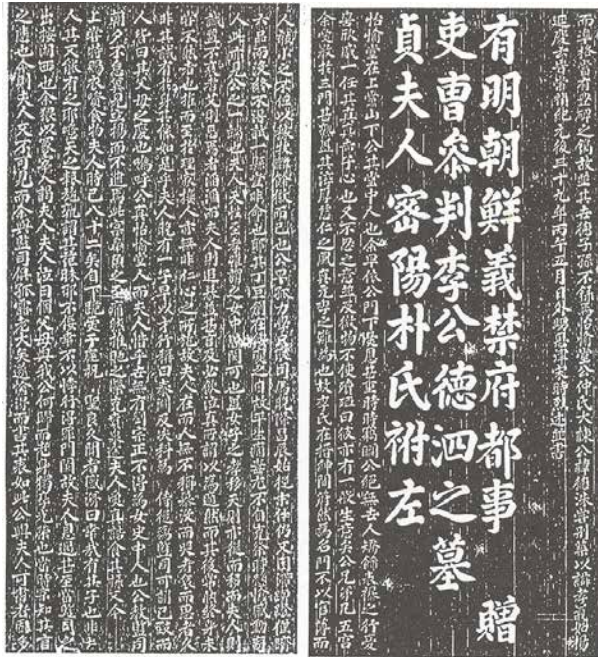
2) 평기리 벌터 한산이씨

평기리의 뒷산에는 여씨들의 것이었다고 추측되는 묵은 묘와 묘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 없어졌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여씨 마을에 한산이씨들이 들어와 세력이 커지면서 여씨는 자연히 마을을 떠나게 되고 이후 벌터에 한산



〈사진 1〉 이덕사 묘소 전경

이씨들이 중심을 이루어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마을에 정착한 한산이씨는 입향한 직후부터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여 벌터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굳혔으며 마을 사람들은 벌터의 윗뜸에는 승지댁이, 아랫뜸에는 감사댁이 있어 서로 위세를 자랑하며 살았다고 전한다. 그러나 한산이씨들은 일제강점기에



〈사진 2〉 이덕사 묘비 탁본

대부분 이거하여 현재는 살고 있지 않다. 다만 벌터 마을에서 약 1km 떨어진 산소골이라 불리는 곳에 입향조이자 송시열의 장인인 이덕사의 묘비와 아들인 이태연의 신도비와 묘비가 조선 시대 한산이씨의 번성을 알려 주고 있을 따름이다.

이 마을에 정착한 한산이씨는 목은 이색과 그의 둘째 아들인 종학(種學; 인제공)의 장자 숙야(叔野; 광목공)의 후예들이다. 원래 이들 광목공의 가계는 경기도 고양지역에 세거하였는데 임진왜란 중 충청도로 피난길에

올랐다가 피해를 당하면서 그 일파가 새롭게 충북 청원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평기리 벌터에 터를 잡은 한산이씨들은 바로 이 가계의 인물인 이덕사(李德泗, 1539~1592)였다.

이덕사의 부친 도(濤, 1539~1592)는 5형제 중 셋째로 임진왜란 때 둘째 형인 태(漆), 조카인 덕제(德濟)와 피난길에 올랐다가 충북 청원 아수고개에서 적을 만나 함께 피살되었다. 이후 그 자손들은 청원 북일면 일원에 터전을 마련하였는데 충청도 일대에서는 이들을 별도로 ‘수름재 이씨’라고 부를 만큼 번창 하였다. 도(濤)에게는 모두 네 아들이 있었는데 유독 4자인 덕사만이 청원에서 공주 장기면 벌터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므로서 이 마을의 한산이씨 입향조가 되었다.

그가 어떠한 이유로 장기면 평기리로 입향하였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다만 현재로서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는 그의 부인이 밀양박씨 박정노(朴廷老)의 딸(1583~1664)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이다. 즉 벌터는 밀양박씨들과 오랜 인연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덕사가 그의 처가인 이곳에 이거 정착한 것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은 다른 성씨들의 입향 과정에서도 거의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덕사나 그의

처 밀양박씨의 나이 그리고 이덕사의 관련(1616년 진사, 의금부도사)을 미루어 이덕사는 1620~1630년대 어간에 이 마을에 정착한 것 같다. 진사시에 합격한 뒤 의금부도사를 역임하였으며 아들 태연(泰淵)이 높은 관직에 올라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아들 태연과 조카 홍연(弘淵)이 관찰사를 역임하였고 특히 사위가 호서사림의 종장이었던 우암 송시열로 이 가문은 입향 이후 곧바로 호서의 명문가로 발돋움한다. 그의 묘소는 마을 뒷산의 산소골이라 불리는 곳에 위치하며 묘비는 1666년(현종 7)에 사위 송시열이 비문을 짓고 썼다.

아들 이태연(1615~1669)은 호를 놀재(訥齋)라 하였고 1624년(인조 24)에 문과에 급제한 뒤 1650년(효종 1)에 공주현감을 지내고 김자점의 일파로 탄핵을 받아 파직 당하였다가 당진 현감, 교지, 필선을 거쳐 1659년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그의 묘소는 아버지인 이덕사의 묘소와 같은 곳에 위치하며 묘비는 1713년(숙종 39)에 권상하가 짓고 썼다. 1725년(영조 1)에 아들 만직(萬稷)이 강원감사 때 세운 것이다.

한편, 한산이씨가 사람들의 글을 모아 엮은 『한산세고(韓山世稿)』에는 「평기지서(平基誌序)」와 평기리의 경치를 읊은 시가 전한다.

이태연의 증손인 이사질(李思質, 1705~1776)의 문집에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사질은 조카와 함께 평기리 마을지를 만들고 그 서문인 「평기지서(平基誌序)」를 지었는데, 자신의 증조[이태연]가 처음 공주 평기에 복거한 지가 107년이 되었다고 하였다. 평기지 서문이 쓰여진 연대가 없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아버지 이태사의 묘를 이곳에 쓰는 1666년 이전에는 공주 평기에 우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산세고(韓山世稿)』에 실린 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坪基誌序

誌者識也古有三國誌西湖誌蓋有山水之勝則有誌事蹟之偉則有誌使人識其然也我國多有名山勝蹟又多人物產處而未聞有村誌不知其故抑文獻不足而然邪名人傑士雖有產出之地而世濟其美絕無而董有故雖或有地以人顯之處而至於世居之德則接續斯難無以久保其基而然邪保其基為難故喬木之村大半易主其世德無記出之蹟而然也坪基者吾李氏之舊基粵我曾祖考始卜居焉古則只是愚氓之所居惟土沃人稠外無可稱一自李氏占居之後風俗不變上下之分尊卑截然又人民知畏法又知祭祀賓客之奉又終年不見邑吏之侵依然有古淳民之俗此不惟民俗素樸而然抑亦無上行下化之風李氏之無得罪於下民可知李氏寓居此村今百七歲世則更六代而姑不墜家聲無有悖子孫之出惟以修行業文為遵守之法既往之感雖不敢再望而來頭之保家容或可期愚嘗與家姪奎恒論此事要作村誌而載其事以寓宗族子孫與感法先之資矣奎恒始此事而起例未訖奄忽而逝嗚呼悲夫夫去年自仁川下來墓窺其遺草見之一依輿地勝覽条目出草故就其中刪其不緊添八世代積德累仁以示其遺蔭所由來者遠而姑未大發復焉此愚作誌之本意也子孫宗族宜勉乎斯之

矣嗚呼草創奎恒潤色者愚質兩家子姪識此而敬

〈그림 1〉 『평기지』 서문

坪基十景

出岫舒還遲樓巖卷亦情盡日看無心悠然但似我
母嶽閑雲

霏霏連野霧淡淡接村烟晚嶺雖晴色猶看露半巔
城嶺積靄

蒼然來遠暝松際露新光捲箔邀清影故來入酒觴
東峯新月

野逕僧歸急山門欲閉時風端傳數響隱隱渡溪蓮
西寺暮鍾

垂絲看潑潑隨隊上春滯莫問濠梁樂
前溪釣魚

數頃勤柳樊鋤藝及時雨會待丹溪過要治十載痼
後圃蒔藥

步屨行春日緣崖細路高滿山紛應接閑極亦勞勞
春山賞花

滿目黃雲動長謠野興豪歸來謀婦子重九辨新醪
秋郊觀稼

穿郊橫一路直北走長安多少行行者如何不暫閒
長路行人

山童晚牧歸吹葉渡橫約欲辨聲來處月生烟漠漠
短橋牧篋

〈그림 2〉 『평기지』 중 평기 십경

3) 풍양조씨와 금벽정(錦碧亭)

금암리에는 풍양조씨의 터와 유적이 전한다. 금암리는 금강의 북단에 위치하여 금강변을 접한 마을로 강을 사이로 청벽을 마주보고 있다. 이와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풍양조씨가에서 배터마을에 있던 탁금정을 정자말로 옮겨 지면서 금벽정이라고 불렀다.

금암리의 풍양조씨 지와(止窩) 조대수(趙大壽, 1655-1721)가 낙향하여 머물면서 그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대수 이전에 이미 조씨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평기리의 수원백씨 입향조인 백시유(白時裕, 1662~1724)의 처가 풍양조씨였던 것도 이 지역내에 일찍이 풍양조씨가 거주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금벽정은 도로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철거하여 공주시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보관중이다. 금벽정의 맞은편으로는 한 폭의 그림같은 기암절벽 창벽이 우뚝 솟아있고, 그 아래로 금강이 흐르고 있어 금강의 절경으로 꼽힌다. 창벽은 조선시대에도 승경(勝景)으로 명성이 높았다. 논산에 살던 은진 송씨(1803-1860)부인이 공주판관에 재임중인 시숙(媿叔) 권영규(權永圭)를 예방하고 1845년(헌종11)에 지은 규방가사집인 『금행일기(錦行日記)』에도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녹수 장강의 어부선이 오락가락
 칠패곡 어부스틀 풍뉴소리 화답하네
 덕동강 부벽누는 여기와 엇더하네
 쌍계스 지척이요 흥벽앞 금벽정니
 심니안뵈 된다하네 여편네 이 구경도
 꿈인가 의심하네 이뵈슬 더 보랏가



〈그림 3〉 충청도 공주목지도(1872년) 창벽부분

1872년에 제작된 공주목 지도에는 기암절벽의 창벽과 함께 배를 탄 사람이 노 젓는 것을 잠시 멈추고 창벽을 바라보는 모습이 표시되어 있어 그 명성을 짐작케 한다.

한편,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금벽정의 위치는 4번 가량 이전되었다고 한다. 첫 번째는 ‘탁금정’이라 불리는 곳, 두 번째는 ‘전주너머’, 세 번째는 금암리 마을회관 근처의 풍양 조씨 종가 옆이었다. 풍양 조씨의 후손들이 대부분 마을을 떠나고 건물이 남아 관리하기 힘들게 되자 1982년 철거되었으며, 기와와 목재는 마곡사 보수에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1992년 공주시에서 고(故) 김진갑 씨의 땅을 회사 받아 창벽 건너편에 복원하였으나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헐리게 되었으며, 그곳이 본래 금벽정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금벽정은 ‘탁금정’으로도 불리웠고 시대에 따라 명칭과 위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며, 1933년에 작성된 『연기지』에서는 탁금정과 금벽정을 별개의 누정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어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역에서 전해지기로 금벽정이 처음에 탁금정이라는 곳에 위치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하나의 누정이 두개의 이름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탁금정의 누명(樓名)은 주로 노성(魯城)의 파평 윤씨가에서 쓰여진 기록들에서

나타난다. 1658년 윤선거(尹宣舉, 1610-1669)가 탁금정에서 지은 시, 그의 백씨인 윤순거(尹舜舉, 1596-1668)가 1661년에 지은 시, 그리고 1년 뒤 윤선거의 아들 명재 윤拯(尹拯, 1629-1714)이 지은 시가 전한다. 윤선거는 1664년 2월 14일에도 탁금정을 유람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탁금정은 1694년에 희암 채팽윤이 충청도사 김천여에게 주는 시의 마지막 부분 세주(細註)에 ‘금강(錦江)의 선각(船閣)’이라고 하였다. 선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알기 어렵지만, 없지만, 향후 금벽정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 주목되는 점이다.

‘금벽정’은 현재까지 『송자대전(宋子大全)』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된다. 우암 송시열(1607-1689)은 1669년(현종 10)에 금벽정에서 충청도 관찰사이자 자신의 문인이었던 이숙(李勳, 1626-1688)과의 만남을 시(詩)로 남겼다. 송시열 이후 지와(止窩) 조대수(趙大壽, 1655-1721)의 문집인 『지와고(止窩稿)』에는 창벽에 낙향한 후 1719년(숙종 45)에 금벽정을 매화나무 향기가 그윽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조대수는 증좌찬성(曾左贊成) 상정(相鼎)의 아들이며 배위 서씨(1655-1685)는 정치적으로 소론입장이었던 서문중(徐文重)의 딸이며, 후배위 송씨(1666-1693)는 예조참판 송국택의 손녀이자 첨지 송구명의 딸이다. 조대수는 장인인 서문중과 같이 정치적으로 소론에 속했으며, 소론의 거두 명재(明齋) 윤증을 애도하는 만사를 쓰기도 하였다.

조대수의 이후 이중환(李重煥, 1690-?)은 1751년에 지은 《택리지(擇里志)》〈팔도총론(八道總論)〉에서 금강가의 이름난 정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금강가에 정자를 세운 것으로는 사송정(四松亭)·금벽정(錦碧亭)·독락정(獨樂亭)이 있다. 사송정은 우리집의 정자(四松卽吾家)이고, 금벽정은 조상서의 정자(錦碧爲趙尙書庄)이며, 독락정은 임씨의 옛 정자이다”

여기에서 금벽정을 ‘조상서(趙尙書)의 정자’라 하였는데, 조상서는 형조판서와 판돈녕부사를 역임한 조대수의 아들 조석명(趙錫命, 1674-1753)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풍양조씨세보』에 의하면 조석명의 부인 남원(南原) 윤씨(尹氏)의 묘소가 금벽정(錦碧亭) 후록(後麓) 해좌(亥坐)에 위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조대수의 낙향 이후 풍양 조씨가 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 적어도 『택리지』가 작성되는 시기에는 세력가로서 급부상하였으며, 그 결과 금벽정이 풍양조씨 집안의 별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금벽정을 조대수가 건립하였다고 인식될 정도이나, 조대수는 창벽에 낙향하여 호해루

(湖海樓)를 건립한 적은 있어도 분명한 것은 금벽정을 건립하지는 않았다.

이후 1871년에 간행된 『호서읍지(湖西邑誌)』에 금벽정은 헐려서 없다고 되어 있다. 그 후 몇 차례 이설(移設)을 거듭하다 결국 도로 확포장 공사로 헐리게 되었다.

금벽정은 조선의 선비들이 자연을 조망하며 학문을 논하고 시를 읊으며 여유를 즐기던 문화공간이었다. 우암 송시열은 1669년(현종 10)에 당시 충청도관찰사였던 이숙(李翮)과 금강에 배를 띄우고, 금벽정에서 여흥을 즐기며 당시 세태를 비판하는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찾을 수 있는 자료로 보기에 주로 서인 소론계 인물들이 교유하던 장소로 애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조선후기 동쪽마을의 발달과 사족활동

1) 조선후기의 입향성씨

■ 용암리 광산김씨

용암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씨가 광산김씨이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마을 주민의 40% 정도를 차지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4호가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광산김씨는 진주유씨들이 들어오기전 부터 살고 있던 성씨였다. 그러나 신분과 경제적 생활상의 차이로 진주유씨와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고 주로 유씨들의 산지기 및 신씨들의 산지기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들어와 광산이 개발되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고 신교육을 받아 야학활동을 주체적으로 이끌기도 하였다고 한다.

■ 용암리 해주오씨

해주오씨는 경기도 용인에서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 왔는데 1724년(경종 4) 홍문관 교리(弘文館 校理)를 역임한 오수원(吳遂元, 1682~1745)이 용암리(용복리)로 이거하면서 세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오수원은 대제학 오도일(吳道一, 1645~1703)의 아들이자, 조선 중기의 저명한 정치가로 영의정을 역임했고 학자였던 추탄 오윤겸(楸灘 吳允謙, 1559~1636)의 증손자였다.

오수원이 왜, 그리고 이때에 공주로 이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다만 오수원이 공주의 저명 성씨인 청주한씨 한태동(韓泰東)의 딸과 혼인하였다는 것은 공주 이거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사실이 아닌가 한다. 오수원의 혼인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큰아들 명관이 1699년생이므로 이 무렵 혼인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처가인 청주한씨가 1600년대 후반에 입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한씨의 공주 이거는 한태동의 아들인 한지(韓祉, 1675~1720)에 의한 것이지만, 이미 이전부터 가문의 전장이 공주에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오도일과 한태동이 사돈으로 맺어지게 된 것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뉠 때에 함께 활동했던 소론계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인의 노소분기 때에 박세채·윤증·조지겸·한태동·오도일을 지지했던 이들이 소론으로 분리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학맥 뿐만 아니라 오도일의 배위는 연일정씨 정엄(鄭淹)의 딸이고 한태동의 처가 또한 연일정씨였다. 연일정씨 또한 공주의 유력 사족가문이다. 이와같은 인연으로 오도일의 아들 오수원이 공주로 입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듯 하다.

오수원의 아버지 오도일의 묘소는 1719년(숙종 45) 10월에 공주 용복동(公州龍伏洞)으로 이장되었다는 기록(『서파집』 연보)이 보이는데 아마 이 시기 어간에는 공주로의 완전한 정착 기반과 준비가 완료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오수원이 아버지인 오도일의 묘소를 공주로 옮겨온 것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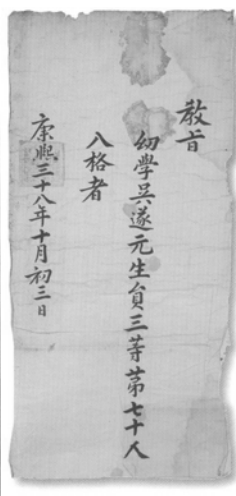
오도일(吳道一, 1645~1703)은 추탄 오윤겸의 손자로 문과에 합격하여 1694년(숙종 20)에 개성부유수를 거쳐 주청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대사간·부제학·대사헌·이조판관·병조판서 등 많은 관직을 역임 하였다. 오도일은 숙종 초반 정쟁의 와중에서 울진현감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는데 정사를 맑게 하고 교화를 잘하여 울진민들이 생사당을 건립하고 진영을 그려 제향 했을 정도였다. 또한 오도일은 소론의 강경파로 한태동(오수원의 장인)과 소론의 중심인물 박태보(朴泰輔, 1654~1689) 등과 함께 활동하였는데 이 세사람은 모두 명재 조선시대 저명 학자인 윤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혼인으로도 맺어졌는데 오도일은 소론의 일파인 한태동의 딸과 자신의 장남인 오수원을 결혼시켰고, 4째 아들인 오수채는 파평윤씨 윤증의 손녀이자 윤행교의 딸과 혼인하여 명실상부한 소론 가문임을 입증하였다. 1729년(영조 5) 4째 아들인 오수채의 녹훈으로 승정대부의정부좌찬성으로 추증되었다.

오수원(1682~?)은 오도일의 첫째 아들이며 해주오씨 공주 입향조라고 할 수 있는 인물로 충청감사 한태동의 딸과 혼인하여 공주에 터전을 마련하였다. 자는 자장(子長) 호는 성헌(省軒)이다. 그는 명재 윤증의 문인으로 그는 사마시를 거쳐 1712년(숙종 38) 31세로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여 1724년(경종 4) 홍문관교리를 역임하였다. 오수원의 아들인 오명관(命觀)은 간성군수를 지냈으며 금오계첩의 주인 오태창은 1812년 입사하여 의금부도사 적성현감을 지냈다. 이처럼 오도일부터 오수원 오명관에 이르기까지 사환가로서의 입지가 탄탄하였으나 명관의 아들인 오언각(吳彦覺)대 부터 벼슬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런 추세는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태창 이후로는 직계로 단 한명의 관리도 배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가계는 서파 가문이라는 점에서 소론사회에서는 위상이 높았으며 덕수이씨, 나주임씨, 한양조씨, 여산송씨 등 소론 명문가와의 통혼으로 한 말에 이르기까지 높은 위상을 유지해왔다. 오도일과 아들 오수원의 묘소는 용암리 용머리 북서쪽 자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옛날부터 오씨의 산소가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오산’ 이라고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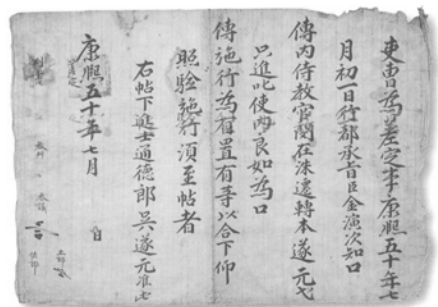
특히 해주오씨 집안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 유물이 2011년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기획한 ‘공주의 명가 2’ 에서 전시 되었는데 오선경(吳先敬)이 1401년에 작성한 것으로 원본이 전하는 가장 오래된 족도인 해주오씨족도(海州吳氏族圖)를 비롯하여 오윤겸 그리고 손자인 오도일, 그리고 공주의 입향조인 오수원의 교지를 비롯하여 시고 등이 전시 되었다.



〈사진 3〉 오도일 초상



〈사진 4〉 오수원 백패



〈사진 5〉 오수원 차첩

2) 무반가로 이름 떨친 진주류씨

진주류씨들은 원래 경기도 고양지역에 세거하고 있었다. 공주지역으로 처음 이거한 사람은 류형의 장남 금사공 류충걸로 추정되며 그 시기는 광해군의 폐모사건과 관련된 1620년을 전후한 시기로 보인다.

류충걸이 왜 공주로 이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 다만 류충걸의 어머니인 전주이씨가 공주에 세거하던 전주이씨 이세장의 후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세장은 한재(寒齋) 이목(李穆)의 아들로써 이목이 유배되자 그의 외향인 공주 부전동으로 이거한 인물이다. 류형의 부인은 바로 이세장의 증손녀로 그 후손들이 아직도 현 한솔동에 세거하고 있다. 따라서 광해군의 폐모사건 등 정국이 어수선해지자 류충걸이 외향인 공주로 이거하여 용암리 띠실에 자리잡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훗날 충걸의 동생 신걸의 손자 성추(1657~1733)는 하봉리에 터를 잡아 이 일대에도 진주류씨가 대대로 거주하게 되었다.].

공주에 세거하던 진주류씨 집안은 무인집안으로 꾸준히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나름대로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공주지역의 사족활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후기 금사공의 차남인 담연(覃然)은 송시열의 덕원 유배길을 동행할 만큼 친분이 돈독하였다. 하봉리에는 이순신의 막료로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유형 장군의 영정과 위패가 봉안된 충렬사가 있다. 사우는 1972년 9월에 조성되었지만 사우의 건립연원은 1827년(순조 27)후손들에 의해 건립된 금호서사(錦湖書社)비롯된다. 즉 류형장군의 후손들은 1827년에 금호서사를 세워 충민공 류진동(柳辰叢, 1497~1561), 충경공 류형(柳珩, 1566~1615), 금사 류충걸(柳忠傑) 3인을 배향해 오다가 공주의 유생 이계원(李繼遠) 등 37명이 1851년에 등장을 올려 사액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거듭된 요청에도 허락을 얻지 못하다가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러나 아쉬움이 컸던 후손들은 류형장군 관련 고문서와 유품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1971년 류형장군을 모신 충렬사를 장기면 하봉기에 건립하기 이르렀던 것이다.

류형(柳珩)의 자는 사온(士溫), 호는 석담(石潭)이다. 그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효심을 갖춘 인물이었다. 류형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이미 그가 등에 ‘진충보국’을 문신하였다는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의 조부 진동은 두차례나

성절사로 북경을 다녀왔으며 문신으로서 뿐만 아니라 평안병사, 오위도총부 부총관과 도총관을 겸직하는 등 무신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는데 특히 활을 매우 잘 쏘았다고 전한다.

류형은 27세인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북상하던 중 강화도에 이르러 창의사 김천일을 따라 강화에서 활동하다가 선조가 있는 의주 행재소로 가서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다가 1594년에 무과에 급제했다. 이후 1596년 해남현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1597년 정유재란 때 통제사 이순신의 막료가 되어 수군 재건에 노력하였으며 조명연합군으로 출전하여 왜군과의 싸움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특히 광양만 근처에서 이순신과 진린제독의 조·명연합작전 중 진린(陳璘)과 이순신을 곤경에서 구하는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1698년(선조 31) 왜교성 전투와 노량해전 등 임진왜란의 막바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 특히 노량해전에서는 적탄을 맞고 전사한 이순신을 대신하여 군을 지휘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냄으로써 혁혁한 이름을 날렸다.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되어 부산진 첨절제사에 발탁되었다. 종전 후 선무원종공신으로 책봉되고, 경상도우수사에 이어 전라우수사(1601), 통제사(1602), 사헌부 감찰(1595), 함경북도 병사(1607), 경상좌병사(1608), 평안도절도사(1608) 등을 두루 역임했다.

그의 행적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북방지역 전문가로 인정받은 일이다. 류형은 회령부사로 있을 때에 성곽 수축에 공을 들였으며, “항상 조련을 실시하여 기율이 정제되어 온 진의 군정(軍情)이 믿고 근심하지 않으며 설험(設險)이 웅장하고 견고하여 육진 중에 제일입니다.” 라는 암행어사의 평가를 받았다.⁸⁾ 또 『무예제보(武藝諸譜)』를 만든 한교와 함께 전차(戰車)를 만들어 실험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광해군으로부터 “국사에 마음을 다해 거리낌 없이 용감하게 매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당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다.⁹⁾

부인 전주이씨 사이에서 충결(忠傑)·효결(孝傑)·신결(信傑)의 세 아들을 두었으며, 이 밖에도 예결(禮傑)·제결(悌傑)·지결(智傑)·의결(義傑)의 네 아들을 두었다. 후일 이 자손들이 크게 번창하면서 명실상부한 무반가로서 진주 류씨 가계가 탄생하게 되었다. 차남 효결, 삼남인 신결, 4남인 효결(孝傑, 1594~1627)은

8) 『선조실록』 권199, 선조39년 5월 정해

9) 『선조실록』 권164, 선조36년 7월 정축 ; 『광해군일기』 권14, 광해군1년 3월 신묘 ; 『광해군일기』 권57, 광해군4년 9월 무술

이괄의 난에 전공을 세워 진무공신 2등에 책록되고 진양군에 봉하여졌다. 6남인 지결은 강홍립이 명의 요청으로 출병할 때 형인 효걸을 차출하여하자 어린나이에 형을 대신하여 출병하여 절개를 지키고 순사 하였다. 또한 손자대에도 무인이 많이 나왔는데 충걸의 4남인 병연(炳然, 1625~1681)도 이완의 추천을 받아 북벌계획에 참여하였다. 또한 그의 조부를 본받아 등에 정충보국의 문신을 하여 유명하다. 후손들도 무인이 매우 많아 무과 출신자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이며 병사나 수사는 물론 통제사를 거친 사람만도 수십명에 이른다.

류형은 죽은 후 1618년(광해군 10)에 병조판서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종직되었고 이어 1620년(광해군 12)선무원종 1등공신으로 녹훈되어 송정대부의정부좌찬성겸판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으로 추증되었다. 1624년(인조 2)에는 차남 효걸이 진무공신2등에 책록되고 진산부원군에 추증되었다. 1722년(영조 48)에는 전라도 해남 사람들이 장군의 충절을 기리지 위해 해남읍 용정리에 오충사를 세워 이충무공과 함께 배향하였다. 1796년(정조 20)에는 ‘충경’이란 시호교지를 받았으며 1827년 금호서사에 제향되었다.

금호서사의 건립과정에는 진주류씨가 사족활동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아마도 이 무렵 공주지역에서 족세가 가장 번성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금호서사는 송원리에 위치했는데, 이곳은 대교천이 금강에 합수되는 위치로, 류충걸과 류비연의 후손들의 세거지였다. 1832년(순조 32)에 김리양(金履陽)(1755~1845)이 쓴 『금호서원기(錦湖書院記)』(1871년, 호서읍지 수록)에 의하면, 정조의 특명으로 류씨세가(柳氏世家)가 『존주록(尊周錄)¹⁰』에 편입되자, “향선생이 죽으면 그 사례(社禮)를 지낸다. 우리 향리에 류씨의 집안과 같은 일문삼현(一門三賢)이 있으나 일찍이 숭봉(崇奉)의 예가 있지 않았으니, 이것은 향선생과 같이 앓은 것이다. 향리에 모현(慕賢)의 풍속이 있지 않은가?” 라 하며 선비들과 상의하였고 마침내 금호 위에 사우를 세우고 류진동(柳辰叟), 류형(柳珩), 류충걸(柳忠傑) 삼현을 병향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851(철종 2) 공주 유생 이계원(李繼遠) 등 37명이 등장을 보면 “죽당 류진동, 석담 류형, 금사 류충걸의 충절을 찬양하고, 이미 해남과 함평에 사당을 지어 모시고 있으니 공주에도 사우 건립을 허락해 줄 것” 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거

10)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인 李泰壽가 조선 역대의 尊周攘夷의 정책·이념과 군사력강화책을 정리한 책. 1716년(숙종 42)에 완성됨.

들된 요청에도 사액을 받지 못하다가 건립 40여년 만인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당하는 운명을 맞았다. 금호서사터는 일반 민가로 이용되어 건물의 부재 조차 찾아 볼 수 없었다. 그 후 100여년이 1971년 류형 장군 관련 고문서와 유품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후손들이 마음을 모아 하봉리에 류형 장군을 모신 충렬사를 건립하였다.

3) 덕천군의 후손 전주이씨

장군면에서 전주이씨의 자료와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은 태산리이다. 태산리는 덕천군 사우가 있는 곳으로, 덕천군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덕천군은 조선 2대 왕인 정종의 열 번째 왕자로 자는 후생(厚生)이다.

덕천군 이후생(德泉君 李厚生, 1397~1465)은 정종의 10남으로 성빈(誠嬪) 충주 지씨(忠州 池氏) 소생이다. 덕천군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깊어 정종이 특별히 사랑하여 ‘후(厚)’자로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1456년(세조 2)에 원종공신이 되었으며, 1460년(세조 6)에 비로소 덕천군(德泉君)에 봉해졌다. 봉군할 때에 인덕이 출중하다하여 덕(德)자를 넣어 덕천군이라 하였다고 한다. 1465년(세조 11)에 69세로 죽었고, 1873년(고종 10) 광록대부 영종정경(光錄大夫 領宗正卿)이라는 관직이 내려졌다. 부인의 본관은 장수로 대마도정벌로 유명한 이종무(李從茂)의 딸이다.

종실임에도 평소 항상 검약하고 사치를 멀리하였으며, 누이 덕천옹주 댁에서 누이의 병을 간호할 때에는 도둑이 들었는데 사정을 듣고 필요한 물품을 도둑에게 주었다는 일화는 널리 회자되고 있다.

덕천군은 공주에 사유지인 논과 밭이 있었는데 왕자의 신분으로도 몸소 농사를 돌보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어느 해 여름 공주에 장마가 저 금강이 넘치는 바람에 수백 호가 떠내려가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에 덕천군은 자신의 가산을 털어 이들을 구제하였고, 이후 공주에서는 적덕공(積德公)이라는 별호로 불려졌다고 한다.

덕천군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모두 세조·예종·성종조 시기에 무재로써 임금의 아낌을 받았으며, 또한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공을 세움으로써 중앙에서 탄탄한 가문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덕천군의 후손들은 ‘일밀이덕(一密二

德’이라고 할 만큼 전주 이씨 중 밀성군파(密城君派)와 함께 매우 번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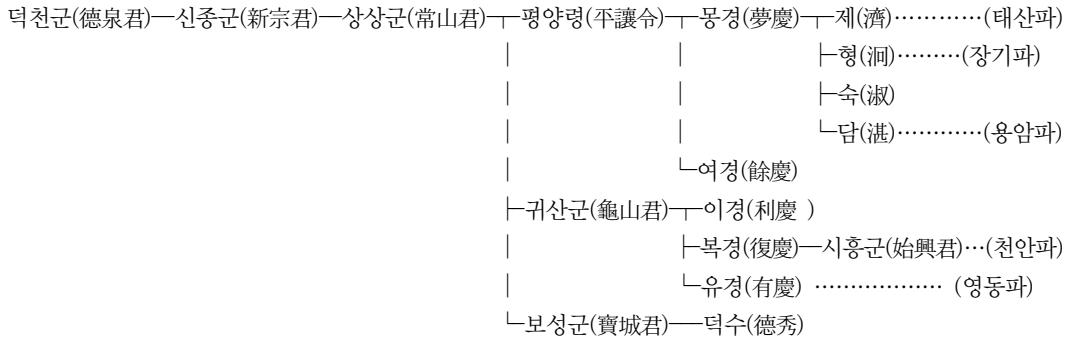
원래 이들은 양주(楊州) 지역에 세거하였으나 임진왜란 당시 난을 피해 낙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확실한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현재 사우가 있는 태산리는 전주이씨 이몽경의 외향(外鄕)으로 추정된다. 이몽경의 어머니인 신부인 이씨가 공주이씨 병사 이에(李藝)의 딸이고, 사우가 있는 마을의 원래 지명은 신대(新垔)로, 공주이씨들의 세거지였다는 사실로 보아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전주이씨들이 입향한 이래 마을 이름도 사우말로 바뀌었고, 이곳에 세거하던 공주이씨들도 그 수가 줄어들어 지금은 공주이씨들의 고총(古塚)만 남아 있다.

1654년(효종 5)에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이 연기 방축리에 부조묘를 건립한 이후 1677년(숙종 3)과 1704년(숙종 30)에 충청감사로 부임한 후손 이덕주(李德周)와 이덕성(李德成)이 사우 수리와 제전을 정비하였다. 1714년(숙종 40)에는 도운(陶雲) 이진망(李眞望)이 암행어사로 충청지역에 왔을 때 사우를 살펴본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다.

이진망은 1722년(경종 2) 청주목사로 왔을 때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이기성(李麒成)과 함께 사우 중수를 발의하였고, 이듬해 1723년(경종 3) 황해감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평안감사 이진검(李眞儉)과 후원하여 이진급(李眞汲)이 물자를 모으고 관양(冠陽) 이광덕(李匡德)이 유사가 되어 전면적인 사우중수에 착수하였다.

이때의 대대적인 사우중수와 함께 현 위치로의 이진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까닭은 종손이 어리고 생활이 어려워 사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까 염려하여서였다고 전한다. 이 일대에는 이미 덕천군의 손자인 상산군(常山君)의 후손인 이몽경(李夢慶)이 낙향하여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태산리의 이광세(李光世)·이광언(李光彦) 등이 사우이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약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어 종손을 도와 사우관리의 일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표 4〉 공주 입향 가계도



1723년(경종 3)에 시작된 사우 이건은 영조의 즉위와 소론의 실각으로 인하여 정국이 어수선해지자 일시 중지되었으나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1739년(영조 15)에 완공되었다. 당시의 중수서문은 이진망이 짓고, 이광태가 이건기를 작성하였다. 사우건립과 함께 종손이 거쳐할 집을 지어 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전을 장만함으로써 현재의 위치에 있는 사우의 모든 시설을 완비하였다.

그 후 약 50여년이 지난 다음 이조판서 이면공·이조판서 이면승·승지 이면구 등이 다시 사우를 중수하였으며, 고종 때에는 이건창이 암행어사로 내려와 사우 보수와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일제시대에는 서울과 공주에 거주하는 종인들이 합심하여 재실(齋室)을 건축하였으며, 1960년에 대대적으로 사우를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덕천군 사우는 1654년 이경석이 부조묘로 건립한 것으로 본래 옛 연기고을 방축동에 있었던 것을 1739년(영조 15)에 후손들이 많이 사는 이곳으로 이 건한 것이다. 전주이씨 덕천군 가문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였는데, 임진왜란 시 공을 세운 이억기(李億祺)를 비롯하여 이른바 ‘석문백헌(石門白軒)’으로 일컬어지며 덕천군 부조묘를 건립하기도 한 이경직(李景稷)과 이경석(李景奭) 형제, 이경석의 증손으로 영조가 왕이 되기 전 사부로서 왕의 예우를 받은 이진망(李眞望), 양명학으로 유명한 이광사(李匡師)와 이광덕(李匡德), 『연려실기술』의 저자 이금익(李肯翊), 조선시대 최연소 과거급제자 이건창(李建昌) 등이 모두 그의 후손들이다.

5. 지방제도의 개편과 면리편제

1) 지방행정제도의 개편

조선초기의 지방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이를 모체로 몇 번의 수정을 거쳐 1413년(태종 13)에 확립되었다. 이때의 지방제도는 부분적인 변동은 있었지만, 대체로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우선 조선초기 군현은 330여 고을로 정리되고 각 고을에는 고을의 등급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수령이 파견되었다. 그리고 주·부·군·현의 고을 치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등 몇 개의 방위면을 나누고, 방위면 아래 리·초·동의 자연촌을 예속시켰는데, 이것은 면리제가 시행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 대동여지도 장군면 일대

조선초기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면에 권농관, 리에는 이정을 두어 촌락을 교화하고 통제하며 면리(面里)의 수취체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면리제가 전국의 말단 행정구역까지 보급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면리제가 시행될 수 있었다.

조선초기에 장군면 지역의 행정적인 존재 형태나 사회상을 보여주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조선후기 1700년대에 편찬된 관찬읍지의 방리조에서 드디어 장군면 지역의 공간 구성과 지명, 인구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장군면 일대는 공주목의 장척면, 의량면, 요당면 등으로 편제되어 있었고, 그 안에 여러개의 동리가 속해 있었다.

현재의 장군면을 이루는 여러 마을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공주목 의량면이고 훗날 장척면과 요당면 및 주변지역 일부가 합쳐져 장군면으로 편제되었다.

2) 조선후기 장군면의 면리와 호구변화

장군면 지역의 면리편제와 호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1759년~1765년 경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공주목 방리조이다. 이중 공주목의 의량면과 장척면, 요당면에 관한 기록은 <표 5>와 같다.

세 개의 면 중 요당면의 인구와 동리가 가장 많고, 의량면과 장척면은 비슷한 수준이다. 요당면의 평기리 문성리는 호구수가 큰 마을이다. 이들 마을은 지금의 평기리와 송문리로 대교천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다. 조선 시대의 지형을 추측해 보면 지금의 면소재지인 도계리 일대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마을이 형성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 것이지만, 평기리나 송문리는 넓은 농경지를 앞에 두고 뒤편으로는 낮은 산줄기가 이어져 있어 골짜기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했을 것으로 보인다. 요당면의 규모가 큰 데에는 평기리와 문성리가 크게 한몫을 하였다.

여지도서 편찬 이후 조선후기 행정구역의 상황을 가장 상세히 알려주는 자료는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戶口總數)』이다. 호구총수는 1789년(정조 13)의 전국 호구 수를 총망라하여 정리해 놓은 인구 통계집이다. 총 9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으로 면별로 소속 마을이름을 나열하였고, 호수와 인구수를 남녀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표 5〉 여지도서 방리조 중 의랑, 장척, 요당, 동부면의 동리 현황

면	동리	관아로부터 거리	호수	인구		
				남	여	계
의랑면 (儀郎面)	신치리(身峙里)	북 30리	91	135	188	323
	방동리(方洞里)	북 35리	66	100	119	219
	도리산리(道理山里)	북 35리	95	132	155	287
	태평동리(太平洞里)	북 30리	64	105	105	210
	용두리(龍頭里)	북 30리	50	64	74	138
	소계		366	536	641	1,177
장척면 (長尺面)	광평리(廣坪里)	동북 15리	22	49	52	101
	금벽정리(錦碧亭里)	동북 20리	42	74	95	169
	이성리(理城里)	동북 30리	51	125	154	279
	만자동리(滿子洞里)	북 30리	60	81	131	212
	대교리(大橋里)	북 20리	46	69	91	160
	효재동리(孝齋洞里)	북 25리	32	40	41	81
	어은동리(於隱洞里)	북 20리	40	78	83	161
	노은동리(老隱洞里)	북 20리	22	45	36	81
소계		315	551	682	1,233	
요당면 (要堂面)	평기리(坪基里)	북 30리	131	190	162	352
	문성리(文城里)	북 30리	134	182	175	357
	와룡리(臥龍里)	북 20리	24	40	28	68
	울정리(栗亭里)	북 20리	88	128	106	234
	덕곡리(德谷里)	북 27리	64	89	78	167
	월봉리(月峯里)	북 25리	76	88	92	180
	비계곡리(飛溪谷里)	북 27리	108	184	161	345
	속계리(涑溪里)	북 30리	105	143	135	278
	수촌리(水村里)	북 20리	145	180	194	374
	소계		875	1,193	1,131	2,324
※ 동부면 (東部面)	무릉리(茂陵里)	동15리	85	107	119	226
	사송정리(四松亭里)	동10리	98	140	188	328
	마근동리(麻根洞里)	동15리	34	48	39	87
	봉무동리(鳳舞洞里)	동10리	137	178	187	365
	효가리(孝家里)	동10리	204	279	205	484
	일신리(日新里)	동7리	121	161	112	273
	성내리(城內里)	동3리	136	195	143	338
	관현리(官峴里)	주내	70	42	94	136
	소계		887	1,150	1,087	2,237

※ 조선시대의 동부면은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일부는 공주군 장기면으로, 일부는 공주군 공주면, 주외면 등으로 편제되었던 지역이며 현재의 장군면 지역과는 관련 없으나, 장군면의 역사에서 장기면의 시기를 기록하기 위해 포함.

호구총수에서도 여지도서와 마찬가지로 공주목의 26개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리는 무려 1,010개로 여지도서의 213개리에 비해 약 5배 가량 증가되었다. 면과 면도 각각 개, 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났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의 편찬 시기는 25~30년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인데, 마을의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조선전기의 자연촌들은 조선후기의 경우처럼 <군(郡)-면(面)-리(里, 洞)-촌(村)>의 행정편제가 확연하지 않은채 반독립적인 형태로 자연촌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전농법(논 농사)이 일반화되면서 논지가 점차 평야·저지대로 확대되고, 농업이 발달하면서 마을의 규모가 커지고 집촌화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마을은 농경지를 중심으로 중심촌락과 주변의 소규모 자연촌이 공존하게 되었는데, 조선후기의 ‘里[洞]’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촌락이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이후 중심 리(里) 아래에 있던 자연촌이 점차 분화되어 독자적인 조직과 규모를 지니면서 독립된 마을로 발전하였고, 지명상에 상○○(上○○), 하○○(下○○), 내(內○○), 외(外○○), 원(元○○), 구(舊○○), 신(新○○), 본(本○○) 등으로 남아 전하게 되었다. 호구총수의 기록은 바로 이러한 마을분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즉, 상도동(上都洞)과 하도동(下都洞), 신대리(新垔里), 신촌리(新村里), 신성리(新城里), 등의 마을명이 등장하는 것은 분동의 일례라 할 수 있다.

아마도 호구총수 편찬의 주요목적이 부세(賦稅)를 균등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각 군현의 면별 통계가 더욱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호구총수 이후의 기록인 충청도읍지와 공산지 등의 지리지에 다시 마을 수가 축소된 것도 『호구총수』라는 기록이 가진 특수성을 짐작케 한다.

〈표 6〉 호구총수의 방리

<p>의랑면 (儀郎面)</p>	<p>구암리(龜巖里), 은곡리(隱谷里), 용산리(龍山里), 천수동리(千壽洞里), 월곡리(月谷里), 모곡리(茅谷里), 망월정리(望月亭里), 상산소리(上山所里), 태평리(太平里), 신치리(身峙里), 양지리(陽地里), 방동리(方洞里), 중흥리(中興里), 용복리(龍伏里), 성덕리(聖德里), 흥암리(興巖里), 용두리(龍頭里), 내대리(內垔里), 대성리(大成里), 방축동리(方築洞里), 송정리(松亭里), 백안리(白鴈里), 황산리(黃山里), 신촌리(新村里), 신성리(新城里), 수암리(水巖里), 가학동리(歌樂洞里), 관동리(官洞里), 백자동리(栢子洞里), 월계리(月溪里), 중산리(中山里), 봉황리(鳳凰里), 용소리(龍巢里) 동리 : 33, 원호 : 389, 구 : 948(남 522, 여 426)</p>
<p>장척동면 (長尺洞面)</p>	<p>노음동(老陰洞), 광평리(廣坪里), 행정리(杏亭里), 송계(松溪), 외암리(外巖里), 말천리(末川里), 신촌리(新村里), 봉암리(鳳巖里), 명학동(鳴鶴洞), 대교리(大橋里), 풍덕리(豐德里), 효재동(孝梯洞), 노음동(老陰洞), 중산리(中山里), 귀래곡(歸來谷), 성산소(成山所), 월현리(月峴里), 안기리(安基里), 상신대(上新垔), 백운동(白雲洞), 중앙리(中陽里), 노전리(蘆田里), 유산소(柳山所), 사덕동(四德洞), 우산리(牛山里), 탁금정(濯錦亭), 이성리(理城里), 어은동(於隱洞), 하신대(下新垔), 묵정(墨亭), 장현리(壯賢里), 억미치(億美峙) 동리 : 32, 원호 : 367구 : 1,164(남 812, 여 352)</p>
<p>요당면 (要堂面)</p>	<p>옹회동(龍回洞), 세청동(洗淸洞), 하룡동(下龍洞), 정난리(淨難里), 광덕리(廣德里), 평기(坪基), 상문성(上文城), 수정리(水亭里), 천변(川邊), 덕곡(德谷), 중독곡(中獨谷), 비계곡(飛溪谷), 울암(栗巖), 하산소(下山所), 울정(栗亭), 신촌(新村), 운교(雲橋), 학연동(鶴連洞), 신흥리(新興里), 월대리(月垔里), 상산리(上山里), 상도동(上都洞), 어인포(於仁浦), 구곡리(九曲里), 독정리(獨亭里), 원대리(院垔里), 속계(涑溪), 두만(斗滿), 요동(要洞), 평리(坪里), 북촌(北村), 월은(月隱), 기동(基洞), 태성(台城), 신흥(新豐), 월계(月溪), 도계(道溪), 내동(內洞), 대교(大橋), 한곡리(閑谷里), 회동(檜洞), 후계(後溪), 윤산소(尹山所), 서당리(書堂里), 별운산(別雲山), 송정(松亭), 신대리(新垔里), 하도동(下都洞), 오룡동(五龍洞), 월봉리(月峯里), 비계곡(飛溪谷), 상용연(上龍淵) 동리 : 52, 원호 : 705, 구 : 1,502 (남 900, 여 602)</p>
<p>동부면 (東部面)</p>	<p>중산리(中山里), 월암리(月巖里), 상무릉동리(上武陵洞里), 하무릉동리(下武陵洞里), 중무릉동리(中武陵洞里), 석장리(石莊里), 매산리(梅山里), 신주막리(新酒幕里), 관동리(館洞里), 마근동리(麻根洞里), 상오공동리(上梧公洞里), 당산리(堂山里), 기산리(箕山里), 한적동리(閑寂洞里), 산소리(山所里), 효포리(孝浦里), 용동리(龍洞里), 송곡리(松谷里), 중등동리(中登洞里), 송정리(松亭里), 오대리(五垔里), 초왕리(草旺里), 월천리(月川里), 금강리(錦江里), 장대리(將垔里), 소학동리(巢鶴洞里), 남교리(納橋里), 와야동리(瓦也洞里), 봉명동리(鳳鳴洞里), 수원동리(水源洞里), 보통동리(浦通洞里), 금곡리(金谷里), 오송정리(五松亭里), 사갈치리(沙葛峙里), 신근리(新根里), 기산리(基山里), 오공동리(五公洞里), 수운동리(水雲洞里), 백운동리(白雲洞里), 금사동리(金沙洞里), 하오공동리(下五公洞里), 확현리(確峴里), 시목동리(柿木洞里), 효주막리(孝酒幕里), 서운동리(瑞雲洞里), 가흥리(嘉興里), 세량리(稅糧里), 대오동리(大梧洞里), 성내리(城內里), 관현리(官峴里), 강경강동리(江景江洞里), 옥화동리(玉花洞里), 성본리(城本里) 동리 : 53, 원호 : 973, 구 : 2,778(남 1457, 여 1321)</p>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를 비교해보면 동리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랑면은 5개에서 33개로, 장척면은 8개에서 32개, 요당면은 9개에서 52개, 동부면은 8개에서 53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인구의 변화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의랑면은 366호 1,177명에서 389호 948명, 장척면은 315호 1,233명에서 367호 1,164명, 요당면은 875호 2,324명에서

605호 1,502명이 되었다. 호수는 약간 늘었지만 인구는 3개면 모두 줄었다.

여지도서 후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충청도읍지에서는 면리제는 차이가 없으나 호구의 변화가 보인다. 3개면 모두 호수가 늘었다. 그러나 인구도 증가한 것은 아니어서 장척면은 360명이나 줄었는데 특히 여자의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의 표는 조선후기의 인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1700년대~1800년대의 인구 변화를 알 수 있다.

〈표 7〉 호수와 인구의 변화

면	출전	동리 수	호	인구		
				남	여	계
의량면	여지도서	5	366	536	641	1,177
	호구총수	33	389	522	426	948
	충청도읍지	5	437	699	449	1,148
장척면	여지도서	8	315	551	682	1,233
	호구총수	32	367	612	352	1,164
	충청도읍지	8	326	530	343	873
요당면	여지도서	9	875	1,193	1,131	2,324
	호구총수	52	705	900	602	1,502
	충청도읍지	9	895	1603	845	2,448
동부면	여지도서	8	887	1,150	1,087	2,237
	호구총수	53	973	1,457	1,321	2,778
	충청도읍지	8	898	1,767	908	2,675

한편, 1859년에 편찬된 『공산지(公山誌)』는 여지도서의 방리조와 거의 같은데, 의량면의 황산리(黃山里)와 신대리(新垔里)가 추가된 정도로, 황산리는 호구총수에는 표기되어 있지만, 신대리는 요당면에서 확인되는 동리명이다.

3) 지방행정의 근대화

지방행정 체제가 근대화된 것은 갑오·을미개혁 이후의 일이었다. 1895년 모든 군현을 군(郡)으로 통일한 뒤 각 군에는 군수, 각 면에는 면장을 두었으며, 1910년 9월에 새로운 지방관제(칙령 357호)에 의거하여 군마다 군수와 군서기, 기수를 두는 군행정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의 행정편제 상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 표의 기록은 1913년 편찬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나타나며, 여기에서는 요당면 45개, 의랑면 51개, 장척면 49개의 마을이 기록되어 있는데, 호구총수가 편찬되었던 1700년대 후반 이후에도 자연마을은 분화와 생성 과정을 거쳤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8〉 1913년의 행정구역 상황(『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면명	동리명
요당면 (要堂面)	옹와당(龍臥堂), 북촌리(北村里), 두만리(斗滿里), 수촌리(水村里), 평촌리(坪村里), 울암리(栗岩里), 양촌리(陽村里), 두릉리(斗陵里), 동계리(東溪里), 울동(栗洞), 월계동(月溪洞), 어인포리(於仁浦里), 울정리(栗亭里), 덕곡리(德谷里), 천변리(川邊里), 월봉리(月峰里), 여덕리(與德里), 오유리(五柳里), 울동(栗洞), 송정리(松亭里), 기동(基洞), 독정리(獨亭里), 평기동(坪基洞), 신양리(新陽里), 신성리(新城里), 평장동(平章洞), 부평리(富坪里), 월대동(月垜洞), 산양리(山陽里), 세청동(洗淸洞), 봉곡리(鳳谷里), 상독리(上獨里), 유계리(柳溪里), 점촌리(店村里), 하독리(下獨里), 비계리(飛溪里), 문성리(文城里), 봉○동(鳳○洞), 신대동(新垜洞), 유산소동(柳山所洞), 정계동(靜溪洞), 회동(會洞), 호성리(豪城里), 신주막리(新酒幕里), (45개)
의랑면 (儀朗面)	일라동(日羅洞), 학년동(鶴年洞), 덕재동(德才洞), 도산동(道山洞), 서대동(西垜洞), 중산리(中山里), 송암리(松岩里), 하산정리(下山亭里), 소방동(小方洞), 신성리(新城里), 방 동(方洞), 행목리(杏木里), 천수동(泉水洞), 중신리(中新里), 월계동(月溪洞), 태평동(太平洞), 중리(中里), 성덕동(聖德洞), 용복동(龍伏洞), 주암리(舟岩里), 소용동(巢龍洞), 오산리(吳山里), 중산리(中山里), 용대동(龍岱洞), 신흥리(新興里), 가락리(佳樂里), 용두리(龍頭里), 신장리(新場里), 구산리(具山里), 용연동(龍淵洞), 신기동(新基洞), 대산리(臺山里), 용계리(龍溪里), 수회동(水回洞), 사우리(祠宇里), 향현리(香峴里), 석현리(石峴里), 상대동(上垜洞), 중대동(中垜洞), 풍천리(豐川里), 백자동(柏子洞), 미동(美洞), 유산리(柳山里), 학산동(鶴山洞), 신소동(新沼洞), 은곡리(隱谷里)/ (51개)
장척면 (長尺面)	묵정리(墨亭里), 반상동(盤床洞), 세동(細洞), 장현리(長峴里), 창암리(蒼岩里), 노은리(老隱里), 진목정리(眞木亭里), 회부동(回富洞), 별당리(別堂里), 중산리(中山里), 릉동(勒洞), 사천리(沙川里), 동우개리(東右介里), 백운리(白雲里), 우진리(牛津里), 외암리(外岩里), 어은리(魚隱里), 봉덕리(鳳德里), 정동(靜洞), 구월현동(舊月峴洞), 도계리(道溪里), 송침 리(松沈里), 안기리(安基里), 삼거리(三巨里), 봉산리(鳳山里), 강산동(姜山洞), 하산동(下山洞), 죽동(竹洞), 상풍리(上豊里), 대동(大洞), 행리(杏里), 와용동(臥龍洞), 채운리(彩雲里), 만자동(滿子洞), 중풍리(中豊里), 대교리(大橋里), 소용리(巢龍里), 우산리(牛山里), 학림동(鶴林洞), 송학리(松鶴里), 시식동(時食洞), 효제동(孝悌洞), 송계리(松溪里), 행정리(杏亭里), 신촌리(新村里), 원호리(遠湖里), 장성치리(長城峙里), 원촌리(院村里), 상산치리(上山峙里), (49개)
동부면 (東部面)	강경동(江景洞), 納橋里, 기동(基洞), 산성리(山城里), 向孝浦里, 沙葛里, 玉龍洞, 月城里, 明山里, 수원동(水原洞), 당산리(堂山里), 중평리(中坪里), 보통동(浦通洞), 효주동(孝酒洞), 평리(坪里), 장기대리(將基臺里), 월암리(月岩里), 신기동(新基洞), 요덕동(要德洞), 금주막동(錦酒幕洞), 일신동(日新洞), 소학리(巢鶴里), 매산리(梅山里), 오공리(五公里), 와야동(瓦也洞), 궁동(宮洞), 요동(要洞), 대오동(大梧洞), 한적리(閑寂里), 중산리(中山里), 막동(幕洞), 재궁리(才宮里), 장흥리(長興里), 중호동(中湖洞), 하주리(下酒里), 마근리(麻斤里), 시목동(柿木洞), 봉무동(鳳舞洞), 선유동(仙遊洞), 금동(錦洞), 상리(上里), 수운리(水雲里), 자은리(自隱里), 상무리(上武里), 가흥리(佳興里), 약천리(藥川里), 하신동(下新洞), 상송리(上松里), 상산동(上新洞), 사송리(四松里), 송곡리(松谷里), 하무동(下武洞), 초왕동(草旺洞)(53개)

그후 1914년에 행정구역개편이 단행되어 공주군 장기면과 의당면이 새로 설치되었다. 1918년 ‘월지유칠(越智唯七)’이 편찬한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서 1914년의 동리 통합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장척면은 장기면, 의랑면과 요당면 일부는 의당면으로 편제되었다. ‘장기면’이라는 지명은 장척면과 삼기면의 글자를 각각 따 온 것이고, 의랑면과 요당면이 합쳐져 의당면이 되었다.

〈표 9〉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시 동리의 변화(현재의 장군면 지역)

1914年 以後	1914년 이전	
금암리 (錦岩里)	松○里(松○里), 반상동(盤床洞), 정동(靜洞), 사덕리(四德里), 사천리(沙川里), 우진동(牛鎭洞), 구암리(舊岩里), 외암리(外岩里), 원호동(遠湖洞) 各一部	장척면 (長尺面)
산학리 (山鶴里)	효제동(孝悌洞), 송학리(松鶴里), 신학리(新鶴里), 소학리(巢鶴里), 학○동(鶴○洞), 행정리(杏亭里), 중산리(中山里), 우산리(牛山里) 各一部	
도계리 (山鶴里)	삼거리(三巨里), 상풍리(上豊里), 중풍리(中豊里), 하풍리(下豊里), 도계리(道溪里), 요당면 봉곡리(要堂面 鳳谷里)	
은옹리 (隱龍里)	노은리(老隱里), 노은리(魯隱里), 백운리(白雲里), 회부동(回富洞), 륝동(勒洞), 세동(細洞), 와옹동(臥龍洞)	
봉안리 (鳳安里)	구월현동(舊月峴洞), 봉산리(鳳山里), 시식동(詩食洞), 강산동(姜山洞), 안기리(安基里), 중산리(中山里), 우산리(牛山里), 요당면 신주막리(要堂面 新酒幕里), 정계동리 각일부(淨溪洞里 各一部)	
대교리 (大橋里)	대교리(大橋里), 강산동(姜山洞), 안기리(安基里), 요당면 정계동(要堂面 淨溪洞), 신주막리(新酒幕里) 各일부(各一部)	
평기리 (坪基里)	산양리(山陽里), 평장리(平章里), 회동(會洞), 태성리(台城里), 평기리(平基里) 各일부(各一部)	
송학리 (松鶴里)	평촌리(坪村里), 송정리(松亭里), 양촌리(陽村里), 유산리(柳山里), 풍천리(豊川里), 학산리(鶴山里), 구암리(九岩里), 미동(美洞), 백자동(栢子洞), 은곡리(隱谷里)	의랑면 (儀朗面)
태산리 (台山里)	사우리(祠宇里), 상태동(上台洞), 용연리(龍淵里), 성덕동(聖德洞), 태산리(台山里) 일부(一部)	
용현리 (龍峴里)	천변동(川邊洞), 주암리(舟岩里), 향현리(香峴里), 용대동(龍垜洞), 용두리(龍頭里), 용계리(龍溪里), 소용리(巢龍里), 일부(一部)	
용암리 (龍岩里)	용복리(龍伏里), 오산리(吳山里), 수회리(水回里), 송암리(松岩里), 신산리(申山里), 상용리(上龍里), 석현리(石峴里), 소용리일부(巢龍里 一部)	
송정리 (松亭里)	문성리(文城里), 점촌리(店村里), 송정리(松亭里), 월대리(月垜里), 평기리(坪基里) 各일부(各一部)	요당면 (要堂面)
무릉리 (武陵里)	수운리(水雲里), 상무리(上武里), 중무리(中武里), 도원리(桃源里), 신무리(新武里)	동부면 (東部面)
송선리 (松仙里)	자은리(自隱里), 송곡리(松谷里), 금동(錦洞), 선유리(仙遊里), 마근리(麻斤里), 중산리(中山里)	
월송리 (月松里)	오공동(五公洞), 약천리(藥川里), 상송리(上松里), 성덕리(聖德里), 사송리(四松里), 가흥리(佳興里)	
금흥리 (錦興里)	한적리(閑寂里), 봉무리(鳳舞里), 진현리(陳峴里), 장흥리(長興里), 오아동(五也洞), 설교리(矢橋里), 평동(平洞), 재관리(才官里), 중산리(中山里), 하주막리(下酒幕里)	
신관리 (新官里)	매산리(梅山里), 일신동(日新洞), 관동(官洞), 금송동(錦松洞), 기산리(箕山里), 이산리(李山里), 시목동(柿木洞)	

출처: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위의 표중 금암리~송정리는 현재의 장군면 지역인 마을이고, 무릉리~신관리는 조선시대 동부면에서 장기면으로 편제되었던 지역이다.

그리고 1917년 6월에는 총독부 제령(제1호)에 따라 조선면제가 실시되면서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의 지방행정체계가 완성되었다. 이와같은 행정구역은 이 후 몇차례의 소소한 변화를 겪고 지속되어 오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장군면으로 통합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제5절 개화기 · 한말의 장군면

1. 한말 행정구역 개편과 장군면

1) 한말의 행정구역 개편

행정 개편의 표면적 의미는 행정체제나 구역의 변화를 뜻한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재정 체계의 개편, 조세의 확보 · 징수 · 집행, 관리의 임명과 자치제도 및 지방 세력 설정과 통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개항을 전후한 1870년대부터 식민통치의 기반이 마련되는 1910년대까지의 행정구역 개편은 근대적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 역사적 ·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적 기초 범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시기 지방 행정개편은 1895년의 23부제로부터 1896년의 13도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방향성이 드러났으며, 1914년 일제의 행정 개편으로 전체적인 윤곽이 나타났다.

장군면의 근대공간과 삶의 환경도 이 당시 큰 변화를 겪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전통적인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로 바뀌는 1895년 5월 26일이었다. 지방행정 단위와 장관의 명칭도 군(郡), 군수(郡守)로 통일되었다. 장군면의 경우 당시 공주부(公州府) 관할의 27개의 군현 중, 공주군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래의 표는 1895년 개편에 따른 23부와 소속 군현의 수, 그리고 충청도 지역의 행정 관할 구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 10〉 1895년 23부 및 소속 군현의 수

부 명	소속군수	부 명	소속군수	부 명	소속군수	부 명	소속군수
한 성	11	나 주	16	춘 천	13	함 흥	11
인 천	12	제 주	3	개 성	13	경 성	10
충 주	20	진 주	21	해 주	16	흥 주	22
동 래	10	평 양	22	공 주	27	대 구	23
의 주	13	전 주	20	안 동	17	갑 산	2
남 원	15	강 릉	9	강 계	6		

출처 : 윤정애, 1985, 「한말 지방제도 개혁의 연구」 『역사학보』 105: 발췌 인용

공주부에는 전국 22개 부(府)에 재판소를 둔다는 법령에 따라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는 관찰사 이하 지방관으로부터 재판권을 분리하는 조치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옛 군사기관과 군인들을 모두 폐지하고, 이를 군부의 신설과 훈련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조직으로 대치하였다. 이로써 군사권도 옛 지방관의 권한에서 떨어져 나갔다. 다만 지방 경찰권은 관찰사의 지휘를 받는 구조를 유지하였다. 이에 관찰부 산하에 각각 경무관 1인, 경부관보 2인, 총순 2인 이하, 50~100인의 순검을 배치하였다. 조세징수권도 개혁의 대상이었다. 이는 “농민-이서층-군수-관찰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없애고 세무주사와 세무시찰관제도에 의해 조세징수 업무를 맡기려는 것이었다. 이는 기존 조세징수체계를 담당한 계층에게 강한 불만을 불러 일으켜, 그 해 9월 곧바로 군수의 조세징수권이 다시 인정되었다.

〈표 11〉 1895년 충청도의 행정구역

공주부	공주 연기 은진 연산 석성 부여 노성 옥천 문의 회덕 진잠 평택 보은 회인 영동 청산 황간 청주 전의 목천 천안 직산 안성 진위 양성 진산 금산 (27개 군)
홍주부	홍주 결성 덕산 한산 서천 비인 남포 보령 임천 홍산 서산 해미 당진 면천 태안 대흥 청양 예산 신창 온양 아산 정산 (22개 군)
충주부	충주 음성 연풍 괴산 제천 청풍 영춘 단양 진천 청안 여주 용인 죽산 음죽 이천 양지 원주 정선 평창 영월 (20개 군)

출처 : 도면회, 2004, 「한말 일제 초 지방제도 변화와 충청남도의 탄생」 『지역학연구』 3-1: 발췌 인용

지방관으로부터 재판권, 군사권, 징세권을 분리하려는 23부제 개혁은 그 급진적 성향 때문에 지방관 · 이서층 · 구식군인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또 8월 명성왕 후 시해 사건과 11월 단발령의 강행으로 23부제 시행은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1895년 의병은 이러한 배경 하에 일어났다.

1895년의 지방개혁은 이듬해 2월 아관파천으로 굴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1896년(건양 원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로 23부 제도가 폐지되고 1수부(首府) 13도(道) 1목(牧) 7부(府) 331군(郡)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때의 개편 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8도 중 지역이 좁거나 인구와 토지가 적은 경기, 황해, 강원도의 3도는 예전대로 하나의 도로 하고, 나머지 5개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두 개의 도를 만들었다. 1부는 수부로서 한성부를 두었다. 그 결과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관계에 의하여 충청남도의 행정구역은 아래의 표와 같이 37개 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당시 공주부에 속해 있던 금산군, 진산군이 전라북도 관할로 옮겨진 점이 특징적이다.

〈표 12〉 1896년 충청남도 행정구역

충청남도	군 명	전결면적
1등군	공주군	1만결 이하
2등군	홍주군	7천결 이하
3등군	한산군 서천군 면천군 서산군 덕산군 임천군 홍산군 은진군 (8개군)	4천결 이하
4등군	태안군 온양군 대흥군 평택군 정산군 청양군 회덕군 진잠군 연산군 노성군 부여군 석성군 비인군 남포군 결성군 보령군 해미군 당진군 신창군 예산군 전의군 연기군 아산군 직산군 천안군 문의군 목천군 (27개군)	2천결 이하

출처 : 도면회, 2004, 위의 논문 발췌 인용: 『官報』 建陽 元年 8月6日

장군면이 속해 있던 공주의 경우 1등군임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개정에서 지방관의 재판권과 징세권이 원상회복 되었다. 군수·관찰사는 징세권을 이용하여 상업 무역활동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었으며, 재판권은 각종 수탈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보루가 되었다. 군수·관찰사 등 지방관의 징세권·재판권 복구는 대한제국기에 들어서 심각한 악폐를 낳는 근원으로 작용하였다. 충청남도의 행정구역은 1896년 개정 단계에서 진산군·금산군이 전라북도로 이속되고, 안면도가 홍주군으로 귀속되는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1901년에 신설된 오천군으로 안면도가 다른 여러 섬 및 면들과 함께 귀속됨으로써 충청남도는 총 38개 군으로 편제 완료되었다.

장군면이 속해있던 공주군은 1906년 10월 1일 통감부가 시행한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 내용은 13도제와 군(郡)의 숫자는 그대로 두되, 1수부(首府)·13도(道)·11부(府)·332군(郡)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정개편은 전통적으로 대응이었던 공주·홍주·천안의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반면, 면천·회덕·해미·아산의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식민지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만들어낸 대전의 영향권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908년 『충청남도세일반(忠淸南道勢一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 장군면의 경우 공주와 인접해 있었지만 행정은 점차 대전의 영향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2)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장군면이 속해있던 공주, 그리고 충청남도의 근대적 변화는 식민지 시대 초반기에 일단락된다. 강점이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본격적인 지방제도 개편은 1914년 3월 1일과 4월 1일을 기하여 일제히 실시되었다. 하지만 이는 1910년 이후 계속된 행정개편의 결과였다. 즉 강점 직후 조선총독부는 13도는 그대로 두되 관찰사의 칭호를 도장관(道長官)으로 바꾸었다. 부는 몇 군데가 빠지고 평양, 대구, 청진 등이 들어가 12부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통감부 치하에서 일본 이사청(理事廳)과 일본 거류민단이 있던 지역이었다. 부의 장관인 부윤은 예외 없이 일본인이었다. 그러나 군의 군수는 한국인이 임명되었다. 한편 지방행정기구로서의 면(面)을 말단 행정조직으로 통일하고, 가장 친일적인 인사를 그 장으로 앉혔다. 면장은 부윤과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면의 사무를 처리하는 말단기구의 수장이 되었다. 아울러 관아 명칭도 도청·부청·군청·면사무소로 통일되었다. 각도에는 도립(道立)으로 근대식 병원이 생기고, 일본식 동리명도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1914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있게 되었다. 이 때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12부를 도시행정의 기본단위로 하여 일본 거류민단과 가국 공동조계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일원화를 기했다는 점이다. 12부는 경성,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이었다. 그런데 이때 12부는 종전까지 관할하던 농촌지역을 분리하여 별도의 군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시가지 지역만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이에 부의 관할지역은 매우 작아져 전통적인 부가 지니는 대도회의 면모를 잃게 되었다. 부가 처리할 사무 범위는 일본인 교육을 제외한 공공사무였다. 이와 함께 거류민단, 각국 공동조계에서 관리해 온 사무와 재산 및 부채는 새로 창설되는 부와 학교조합이 나누어 승계토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이 많이 사는 부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크게 늘었지만, 한국인이 많이 사는 전통적인 군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게 되었다. 또 기존 거류민단이 관리하던 재산 중 수익성이 높은 것은 학교조합이 승계하고, 수익성이 없거나 부채는 부가 떠맡아 부채의 공동상환 형식으로 한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군의 수를 대폭 감축하고 구역을 개편했다는 점이다. 즉 강점 당시 317개 군을 220개 군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109개의 군을 폐지하고 통합한 것

이다. 면(面)은 4,322개에서 2,532개가 되었는데, 이를 통해 1,801개의 면이 줄고 면사무소의 위치도 크게 바뀌었다. 관내의 동리 또한 대폭 통폐합 하였다. 그 이유는 경비절약과 정책상 편의를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개편은 토지조사사업으로 각 지방의 지형·지세·면적 등이 명확히 드러나고 이를 근거로 주민의 반대나 민심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식민통치 기반이 닦였음을 반증한다.

행정구역의 통폐합은 한국 정부가 근대적 행정, 재판, 조세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필히 거쳐야 할 근대적 개혁이었다. 그러나 총독부가 주도한 통폐합은 근대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포함하는 식민성을 내포하였음은 물론이고 극히 강압적으로 실시되었다. 1914년, 공주군의 일부였던 장군면(당시 장기면, 의당면)을 행정구역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1914년 공주군 장기면·의당면의 행정구역

공주군(1914년, 총13개면 213개리로 구성)	
면	리
장기면	금암리 장암리 산학리 도계리 하봉리 동현리 은룡리 송원리 봉안리 대교리 무릉리 송선리 월송리 금흥리 신관리 평기리 제천리 당암리 나성리
의당면	가산리 도룡리 두만리 덕학리 수촌리 송정리 송학리 오인리 오룡리 유계리 울정리 용현리 용암리 중흥리 청룡리 태산리 월곡리

출처 :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2. 한말 장군면의 사회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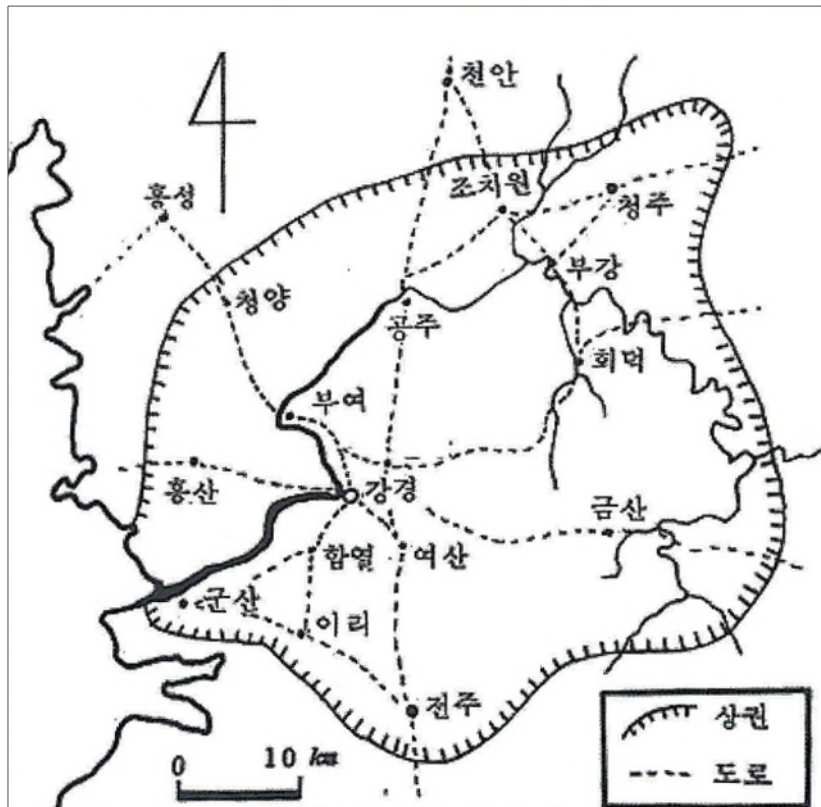
1) 한말 금강 수운과 장군면 주변의 시장권

한말, 장군면과 그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 변화는 전근대 금강 수운에 의한 경제권이 철도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상통한다. 금강 유역의 수로는 구간별로 부강 이상(상류), 부강-강경(중류), 강경-군산(하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류부는 금강본류와 미호천으로 나누어지는데 본류는 한때 신탄진, 회덕을 거쳐 옥천까지, 미호천은 오근장까지 각각 하선이 출입하였던 수로이다. 그러나 지형적 원인과 토사퇴적으로 이미 1900년대에는 범선이 오갈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부강은 금강을 거슬러 올라온 범선의 종착점이자 내륙으로 이어지는 중계 하항(河港)이었다. 부강-공주 사이는 수심이 얕은데다 하폭도 좁은 편이었지만, 바닥이 평평한 길이 8척의 배에 곡식 40~50석 정도를 실은 배는 오갈 수 있었다. 부여-강경 사이는 70석까지도 실은 배가 나닐 수 있었으며, 강경-군산간은 곡식 400~500석 정도를 실은 배는 오갈 수 있었다고 한다.

장기면에는 말어구 나루(馬於口津), 장암 나루(狀巖津), 무릉리에 오얏골 나루(李也津), 꽃나루(花津)가 있었다. 부강에서 미호천으로 가려면 꽃나루로 가야했으며, 부강장을 보려면 주민들은 선주에게 1년에 보리 1말과 벼 1말을 주어 강을 건너 다녀야했다. 당시 장기면에 속해 있던 월산리, 양화리, 종촌리, 송담리 주민이 주로 부강장을 가기 위하여 나루 주변에 야생화가 아름답게 핀 꽃나루를 이용하였다.



〈그림 5〉 1900년대 금강유역의 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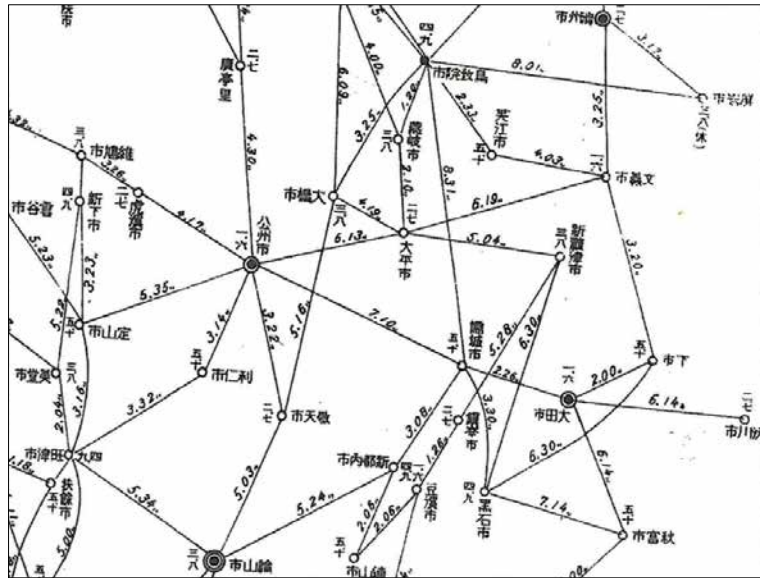
〈표 14〉 공주지역의 장시망

설장일	지역	공 주		
		읍내장(-)	부강장(명천면)	건평장(곡화천면)
1, 6	장시명(소재지)	읍내장(-)	부강장(명천면)	건평장(곡화천면)
2, 7	장시명(소재지)	대전장(산내면)	모로원장(요당면)	경천장(익구곡면)
3, 8	장시명(소재지)	유구장(신상면)		
4, 9	장시명(소재지)	감성장(양아리면)	동천장(우정면)	왕진장(반천면)
5, 10	장시명(소재지)	유성장(현내면)	이인장(반천면)	광정장(정안면)

19세기 금강 상류지역의 전통시장은 공주를 중심으로 부강장, 경천장, 감성장, 유성장, 이인장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1909년 탁지부(度支部) 사세국(司稅局)에서 개시일, 시장세, 집산물품, 화물유통 상황 등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주요한 시장으로는 공주시장, 공주 장척면 대교시장이 꼽히고 있다. 이 중 장척면의 대교시장의 경우, 현재 장군면의 대교리에서 열리던 5일장으로 근대의 시장권에서 장군면이 중심에 서 있었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들 시장은 면포·소가죽·소금·어물·잡화 등이 모이는 곳으로, 금강 수운과 가까운 곳이었다. 시장권은 부강·전의·조치원·대전·논산·군산으로 연결되었다. 1909년, 충청남도의 주요 시세(市勢)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1909년 충청남도 주요 시장

시 장		설장일	시장세	집산물품	유통권		
공주군	공주시장	1, 6	260,600	포백, 술, 소가죽, 소금, 간, 면사, 잡화	공주 군산 대전 논산 부강 전의 조치원		
	장척면 대교시장	3, 8					
서산군	서산시장	2, 7	188,000	잡곡, 포백, 어물, 도자기, 소, 국	태안 당진 면천		
은진군	화지면 논산시장	3, 8	2,172,127	면마포, 잡곡, 간, 어물, 술, 잡화, 소	부여 석성 연산 금산 공주 노성 은진		
	강경 상정시장	4				면포, 마포, 잡곡, 간, 어물, 술, 잡화	금산 연산 논산 부여 공주 홍산 여산 용안 익산 임천 등
	강경 하정시장	9					
예산군	예산시장	5, 10	310,000	잡곡, 어물, 포목, 철기, 토기, 종이	공주 천안 아산 평택 온양 신창 홍주 정산 대흥 결성 해미 청양 면천		
회덕군	회덕시장	4, 9	678,458	잡곡, 건어, 포백, 연초, 면화	금산 진산 공주 진잠 문의 옥천 회인 연기		
	대전시장	1, 6					



〈그림 6〉 1920년대 장군면 주변지역의 시장

출처 : 조선총독부, 1929, 『朝鮮의市場經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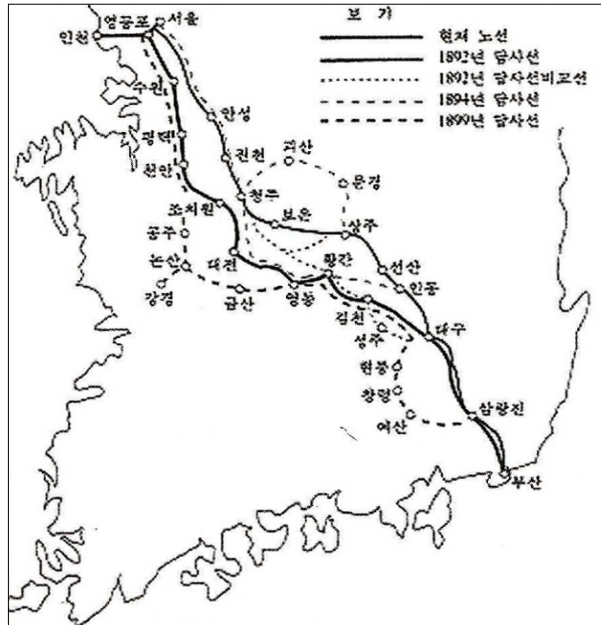
1914년부터 1919년 무렵 충청남도 주요시장은 현재의 장군면인 공주군의 장척면 대교장, 대전군 유성장, 부여군 흥성장, 천안군 병천장, 논산군 논산장, 홍산군 홍주장이 꼽힌다. 공주 대교장에는 연기군에서 면화·곡물·빨감야채 등, 장척면과 삼기면에서 소, 각종잡화는 보부상을 통해 유입되었다. 대교장은 1910년부터 1912년까지 도로의 건설로 시세(市勢)가 점차 커졌으나, 1913년부터 시세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후 1920년대, 대교시(大橋市: 공주 장기면 대교리), 연기시(燕岐市: 남면 연기리), 대평시(大平市: 금남면 대평리)가 1년간 시장세 20만원 이하의 시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는 금강 유역의 시장이 수운이 아니라 경부철도와 도로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의미한다. 즉 조선시대부터 형성되어 온 금강의 내륙 수로는 농업기반을 배후지로 할 뿐만 아니라 남과 북에 전주와 공주의 2대 수부(首府)가 있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부강을 기점으로 충남은 물론 충북과 전북 일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금강유역 경제권은 군산이 개항되는 1899년부터 경부선이 완공(1904년)되어 철도 경제권이 자리 잡는 1909년까지도 생명력을 지니고,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경부철도가 부설되자 점차 철도 역세권의 시장들에게 밀리는 형세가 되었다.

2) 1904년 경부철도 부설과 장군면

철도노선은 그것의 독점성과 고정성 때문에 부설 의도에 따라 철도 연선의 사회 경제구조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배력을 크게 재편성하게 된다. 경부철도의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대규모 현장 답사만 다섯 차례 실시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금강 연변의 하향을 통해 움직이던 경제가 근대적 변화를 맞이한 것도 바로 철도 때문이었다. 특히 경부철도가 그 시작이 되었는데, 일본은 1892년 제1차 답사를 통해 경부철도의 노선을 서울-용인-죽산-청주-문의-상주-대구-밀양-삼랑진-부산진으로 택하였다. 일본은 이 노선이 한국 남부의 군사경제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확신했고, 이후 한국철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1894년 11월 청일 전쟁 중에 실시된 제2차 답사의 목적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선정이었다. 이 노선은 서울-청주-영동-추풍령-금산-인동-대구-밀양-삼랑진-하단-부산이었다. 추풍령을 횡단하는 최적지로 영동을 경유하게 된 것이다. 제3차 답사는 1899년 3월에 실시되었는데 「경부철도합동」이 체결된 이후 한국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답사는 상공업이 발달한 선진지역으로 철도를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에 서울-노량진-영등포-수원-전의-공주-논산-은진-진산-금산-영동-대구-영산-밀양-삼랑진-구포-부산진의 노선을 제안했다. 이 노선은 한국에서 상품유통이 가장 활발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의 평야지대를 통과했다. 경부철도가 논산과 은진 등을 경유케 한 것은 나중에 이곳으로부터 분기하여 전라도에 이



〈그림 7〉 경부철도 답사선 및 장군면의 주변지역
출처: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르는 최단거리의 支線을 부설함으로써 풍부한 농산물을 반출하려고 구상했기 때문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 노선은 노선의 전반부를 경기-충청의 서부와 전라도를 지나도록 구상하고 후반부를 제2차 답사선에 교묘히 접목하여, 한국 남부의 모든 철도가 경부철도를 간선으로 하여 파생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제4차와 제5차의 답사에서는 다시 군사적인 입장이 강조되었다. 제4차에서 전의-회덕-영동으로 이어지는 직행선이 된 점, 제5차에서 공주-금산을 거쳐 영동으로 빠지는 우회선을 택하느냐 아니면 전의에서 회덕을 거쳐 영동으로 나아가는 직행선을 택하느냐 하는 사항이 최대의 검토 대상이 된 것도 이런 입장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후 경부선은 전의-회덕-영동을 잇는 직행선이 되었고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었다.

이 노선은 부강을 통해 금강의 수운과 연결되고, 최단거리로 서울과 부산을 연결시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충청-전라의 곡창지대와 연결이 어렵고 당시 경제적 중심지이던 강경과 지선을 설치할 경우, 34마일의 철도부설이 필요한 단점이 있었다. 이것이 경부철도의 부설과 동시에 바로 금강 수운이 쇠퇴하지 않고 1909년 무렵까지 강경과 부강을 비롯한 금강 수운 상권이 유지되었던 배경이 된다. 경부철도의 열차 운행이 1일간에 1~2회 왕복뿐이어서 내륙 수로의 하항 기능을 탈취할 만한 영향력이 없었던 것도 금강 수운 상권 유지의 또 다른 배경이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 상인의 조선 진출과 조선 살에 대한 일본의 높은 수요 때문이었다. 개항장인 군산의 조계지를 일차적인 교두보로 확보한 일본인들은 하천 연변의 하항이나 도진(渡津) 취락을 이차적인 교두보로 삼아 금강유역의 상류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들 포구와 도진에 거점을 둔 일본인들은 재부분 지주와 상인들로서 금강유역에서 나는 쌀을 매점매석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금강의 수운을 통해 집하된 쌀이 군산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이다. 또한 군산 개항으로 일본은 재래의 대시장 강경을 통해 손쉽게 상권을 확대할 수 있었고, 구매력이 풍부한 공주전주 등 다수의 도시 인구를 수입사육의 소비자로 흡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01년 이후 1907년 사이 군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직행선이 운항되고, 제일은행 출장소가 군산에 개설되자 우선 금강 하구의 강경시작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 여파는 금강 상류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한 이 시기부터는 금강 수운에 의해 강경-공주-군산 등에 연결되었던 부강 동쪽편의 금강 상류지역이

점차 철도 유통권으로 편입되었다. 그간 경상도와 전라도를 거쳐 충남연안으로 들어오던 명태어 등이 부산에서 철도편을 이용해 대전·부강·조치원 방면으로 직송되고, 경인시장에서 석유도자기 등 잡화가 수입되었으며, 이 두 방면으로 미곡을 수출하게 된 것이다. 철도가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해간 것이다.

이에 더해 호남철도 부설은 금강 수운 경제권 몰락에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다. 호남철도 건설은 조선이 통감부의 치하에 들어가자 군산과 목포에 있던 일본인들의 청원운동에 따라 착수하게 되었다. 이 지역 일본인들은 호남철도가 통과하게 될 전라도가 기후가 좋고 인구가 많으며 토양이 비옥하여 곡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의병진압과 면화의 반출을 위해서라도 철도를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와 조선 통감부는 이에 1910년 5월 일단 호남선의 노선을 설정하였다. 이때 선정한 261.3km는 대전-가수원-두계-논산-강경-이리-김제-광주-목포를 통과하는 것이었다. 호남철도는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직후인 1910년 10월부터 착공하여 1914년에 완공하였다.

철도부설로 인해 장군면과 장군면이 속한 공주군의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군면 주변 일대의 최대 상업지역인 부강의 성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부강은 경부철도가 부설된 이후인 1908년에도 출시인원 6,000~7,000명을 헤아렸다. 여름철 최소의 경우도 2,000명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부강 하항의 번창기는 대체로 1909년 이후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부강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금강 수운을 통해서가 아니라 철도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호남철도가 서해안과 내륙 지방 간의 물화 수송을 담당하기 시작하자, 내륙수로에 의한 공급 물화의 운송량은 더욱 격감하였다. 또한 충북선이 개통되면서부터 영서 내륙 지방으로의 상업로도 철도에 빼앗기게 되었다. 이에 부강은 내륙과 해안 지방과의 물화 교역의 중계지로서의 하항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여기에 토사의 퇴적에서 오는 내륙 수로 자체가 마비되자 부강은 하항의 시장 취락이 아니라, 경부철도 연변에 자리 잡은 작은 시장 취락으로 바뀌게 되었다.

〈표 16〉 부강역 도착화물

품 명	수 량(톤)	발 송 지
곡류	94	대전 서울 조치원 인천
해초	37	조치원 강경 초량
염건어	17	조치원 강경 부산
명태	92	조치원 초량 부산
和洋酒	44	대전 서울 인천 조치원
식염	942	강경 군산 인천 조치원
식료품	69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조치원
醬油	21	대전 인천
맥분	25	대전 조치원 인천 시모노세끼
석유	32	인천

출처 : 朝鮮總督府 鐵道局, 1914, 『朝鮮鐵道驛勢一斑』

장군면 주변의 하항(河港)도 마찬가지이다.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내륙 수로 중 부강공주에서 오는 하항 상품이나 소항 상품은 철도로 우회 수송하게 되었다. 기차는 수로에 비해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안전하며, 홍수시나 갈수기에도 기 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운행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공주로 통해 소금 및 생선을 운반해가던 조치원 및 충북 일부 지역이 이제는 반대로 경부선 기차로 물건을 조치원에 하역시키고, 그곳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일이 더욱 많아졌다. 이에 따라 공주 하항은 물화를 교역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행인·우마차·자동차 등 통행을 돕는 나루터로의 명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3) 장군면 일대의 도로건설

일본의 강점이후 조선총독부의 도로건설 계획 역시 목적은 식민통치 기반을 통일적으로 마련하려는 데 있었으나, 통감부 시기 보다는 한국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적인 도로망 체제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 결과 1915년 10월 각종의 도로 규정을 흡수 통합시켜 단일화시킨 도로 규정을 제정하였다. 도로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도로 규칙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로를 1등·2등·3등 도로와 등외도로로 구분하였다. 1등도로는 경성으로부터 도청, 사단사령부, 여단사령부, 요새사령부, 진수부(鎭守部) 각 소재지, 중요

한 개항 또는 정거장에 이르는 도로, 군사상 중요한 도로, 경제상 중요한 도로로 규정되었다. 노폭은 7m 이상, 구배(句配) 1/30이하, 반경 15m 이상의 도로로 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였다. 2등도로는 인접한 도청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도청소재지에서 그 관할 부청,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도청소재지에서 중요한 지점, 항만, 철도 정거장에 이르는 도로, 도내 중요한 지점, 항진(港津), 철도 정거장 또는 도로 상호를 연결하는 도로로 규정되었다. 노폭은 5.5m이상, 구배 1/25이하, 반경 15m이상의 도로 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였다. 3등도로는 부군도청소재지를 상호 연결하는 도로로 규정되었다. 노폭은 4m이상, 구배 1/20이하, 반경 11m 이상의 도로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였다. 등외도로는 1·2·3등 도로에 속하지 않는 도로로 부윤·군수·도사(道司)가 관리하는 도로였다.

1911년부터 1917년까지 진행된 도로공사에서 행복도시와 관련된 1등도로는 경성-목포 선에서 소정리-공주와 공주-논산을 잇는 구간이었다. 2등도로는 공주-충주 선에서 공주-조치원 도로와 공주-대전역까지이다. 3등도로는 대전-공주 간 2등도로를 겸용하여 진잠에 이르는 도로와 공주-강경 간, 공주-부여에 이르는 도로가 있었고, 1918년까지 공주-조치원-청주-충주를 잇는 도로 및 공주-예산 방향이 개통되어 방사망 망구조를 이루었다. 이들 도로들도 통감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도로를 철도와 연결시켜 경제적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제도로의 성격이 짙다. 즉 미곡 집산지역과 미곡 이출항구인 군산 목포항을 연결하기 위해 그리고 이들 지역을 일본 상품의 소비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해, 호남철도와 경부철도에 연결했던 것이다.

장군면 주변 지역의 도로상황을 살펴보면, 1등도로는 조치원리로부터 서면·내창리·신동리와 전동면 노장리·청송리·미곡리와 전의면 동교리·읍내리·유천리·소정리를 거쳐 대곡리와 천안군 목천면 소사리와 의 경계까지 연결되었다. 또한 조치원리로부터 서면 변암리·월하리·봉암리와 남면 보통리·연기리·갈운리·방축리·종촌리·송담리와 금남면 대평리·용포리·발산리·감성리·두만리를 거쳐서 용담리와 대전군 탄동면 안산리와 의 경계까지 이어졌다. 2등도로는 남면 종촌리로부터 공주군 장기면 제천리의 경계까지이며, 조치원부터 청주의 경계까지였다. 3등도로는 남면 갈운리 1등도로 분기점으로부터 공주의 경계까지였다.

제6절 일제 강점기의 장군면

1. 일제 강점기의 행정구역 개편과 기반시설의 확대

1) 일제 강점기의 행정구역 개편

일제시기에 접어들면서 장군면이 속한 공주군은 서서히 행정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914년에 실시된 군면폐합(郡面廢合: 행정구역의 축소 조정)은 공주군의 불안한 미래를 여실히 드러냈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의 편의를 위해 군면폐합을 실시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공주에 소속되어 있었던 여러 구역이 인근 대전군, 연기군, 부여군, 정산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군면폐합 당시, 공주군의 북동쪽 방면(명탄면, 양야리면, 삼지면, 반포면 등지) 79개 동리는 연기군으로, 남동쪽 방면(현내면, 유등천면) 방면의 86개 동리는 대전군으로, 남쪽 방면(반탄면)의 2개 동리는 부여군에 각각 편입되었다. 반면 공주군의 남서부에 입지한 연기군, 노성군, 부여군 및 정산군으로부터는 모두 9개의 동리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일제강점기의 공주군은 공주면, 주외면, 목동면(현재의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정아면, 우성면, 사곡면, 신하면(현재의 신평면), 신상면(현재의 유구읍) 등 총 13개의 면, 6개의 町, 207개의 리를 포함하는 행정구역으로 관할구역이 축소되었다.

1914년, 공주면의 소속 동리는 산성정(山城町, 동부면 관현리, 남부면 허문리 일부), 본정(本町, 관현리, 강경동, 남부면 고상아리, 허문리, 일부), 대화정(大和町, 남부면 고상아리 일부), 상반정(常盤町, 남부면 고상아리, 상봉촌리, 반죽리 일부), 옥정(旭町, 하봉촌리, 교촌리, 반죽리 상봉촌리 일부), 금정(錦町, 교촌리 일부)이었으며, 주외면의 소속 동리는 금성리, 용당리, 봉정리, 주미리, 금학리, 검상리, 신기리, 소학리, 옥룡리, 상황리, 화은리 등이었다.

1917년 조선의 면제 실시 시기 지정면(일종의 특별면)이었던 공주면이 읍으로 승격한 것은 1931년 4월 지방제도 개편 때였는데 이 당시 공주면(읍) 주변의 동리를 포괄하던 주외면이 폐지되었다. 당시 주외면에 소속되었던 검상, 봉정, 오곡, 주미리는 이인면으로, 상황, 소학, 신기, 화은리는 계룡면으로 각각 포함되었다.

2) 관청시설, 그리고 장군면의 면사무소

장군면이 속한 공주에는 17세기부터 충청감영 시설과 공주목 시설이 자리를 잡았다. 게다가 충청도가 충북과 충남으로 분할되는 1896년 8월부터 충청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1932년 10월까지 공주는 충남의 14개 군(군면폐합 이전 37개군)을 관할하는 충청도청의 소재지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공주에는 지방법원, 등기소, 경찰서, 세무서, 형무소, 우체국, 초·중등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등 관청시설이 즐비하였다.

당시 공주군에 속하는 각 면단위 지역에도 면과 관련된 주요 관공시설이 자리하였는데, 장군면의 경우 1900년대 초, 면사무소를 비롯한 주요 관공시설들이 모두 장군면 대교리에 위치하였다. 현재의 장군면사무소는 도계리에 위치하는데, 이 도계리에서 대교(大橋)를 건너 우측에 자리하고 있는 논과 축사의 자리가 장기면사무소와 대교지서, 대교 우체국 등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큰 홍수가 나서 대교리 마을이 전부 물에 잠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면사무소와 관련 관공서를 비롯한 주요 건물들이 가까운 도계리의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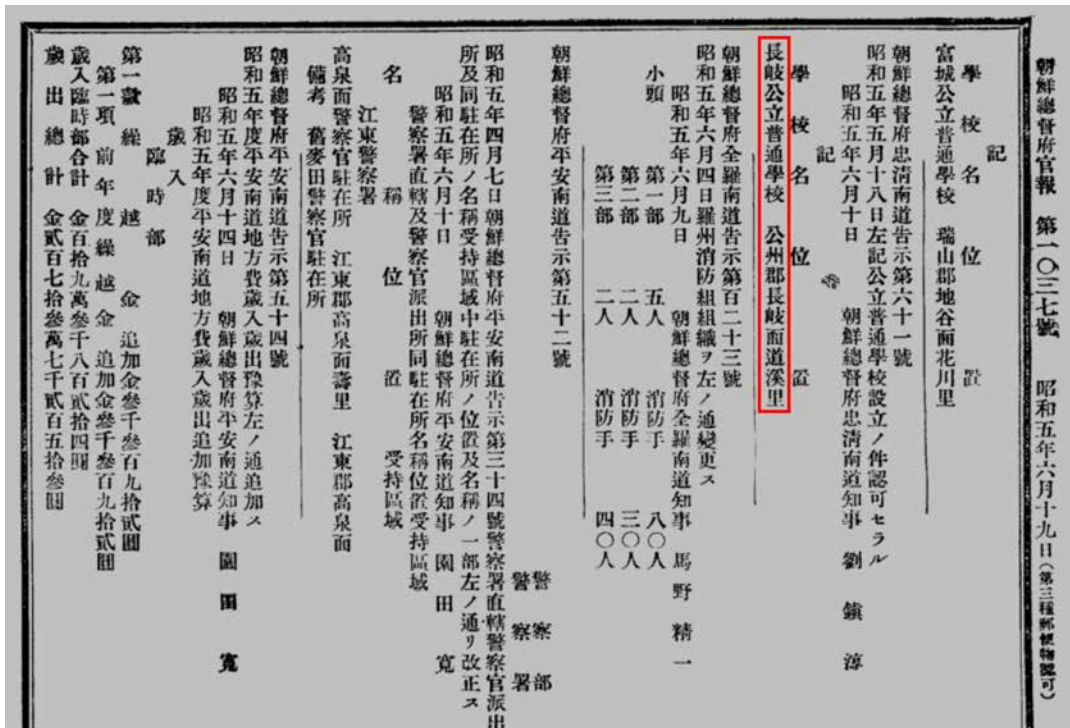
오랜 세월 장군면과 관련한 주요 관공시설들이 대교리에 위치하였던 까닭으로 이 지역의 일부 노인들은 현재까지도 장기우체국을 대교우체국으로, 장기치안센터를 대교지서로 부르고 있기도 하다.

3) 교육시설

일제강점기, 공주군내 각 면에는 이른 시기부터 보통학교가 설립되어 초등교육을 담당하였다. 장군면을 포함한 각 면내 초등학교의 설립연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장군면에 속하는 장기면에는 1930년 장기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표 17〉 일제강점기 공주군 내 각 면의 보통학교 설립연대

공주군 내 면	설립연대	공주군 내 면	설립연대
공주읍	1906년	우성면	1925년
신상면	1913년	금성정	1927년
목동면	1913년	신하면	1927년
반포면	1921년	탄천면	1929년
정안면	1922년	장기면	1930년
의당면	1923년		



〈그림 8〉 장기공립보통학교 건설허가
출처 : 조선총독부 관보, 1930년 6월 19일

「국세조사보고」에 따르면 1930년대 공주군내의 학생 및 생도는 4,471명(남 3,592명, 여 879명), 학교장과 교직원은 121명(남 105명, 여 16명), 기타 교육 종사자는 59명(남 53명, 여 6명)이었다.

2. 일제 강점기의 인구와 산업

1) 인구규모

장군면이 속한 공주군의 인구규모는 일제 강점기 이전 시기까지 다른 읍치지역에 비해 비교적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화기·한말까지 이어졌으나 일제 강점기에는 철도교통의 발달로 인해 급격히 쇠락하였다. 물론 1932년 충남도청 이전까지는 관청이나 학교시설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25년 1만여명 남짓했던 공주 시가지의 인구수는 1930년에 이르러 13,116명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공주군에 외지 학생들이나 관리들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이 실제의 인구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932년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되면서 공주읍내의 인구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1930년 당시, 공주군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면은 공주면, 우성면, 탄천면들이었다. 한편 정안면과 사곡면에서는 1925년에서 1930년 사이에 심각한 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농업공황(쌀 등 농산물 가격 폭락 현상)으로 인한 농촌 피해, 야반도주와 같은 이농 때문이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1931년 연초부터 그 해 4월 초까지 정안면과 의당면(당시 총인구 17,442명)에서만 무려 1천 5백여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등졌다고 한다. 아래의 표는 1930년대 공주군 전체의 인구 증가율을 충남 전체의 것과 비교한 것인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표 18〉 일제강점기 공주군의 인구현황

연도 지역	1925	1930	1935	1925~1930의 인구증감	1930~1935의 인구증감
공주면	10960	13116	12602	+2426	-514
주외면	6130	6967	7240	+864	+273
목동면	6601	6863	8409	+262	+1546
탄천면	10490	10924	13234	+434	+2310
계룡면	9502	10094	10490	+592	+396
반포면	7787	8012	8125	+225	+113
장기면	9587	10078	10565	+491	+487
의당면	7671	7364	8040	-309	+676
정안면	10867	10339	10632	-528	+293
우성면	10909	11568	12561	+659	+993
사곡면	9754	9306	9158	-448	-148
신하면	9757	9474	9389	-283	-85
신상면	8716	8333	8561	-383	+228
공주군	118434	122438	129006	+4044	+6568
총합	1282038	1382888	1526825	+100850	+143937

출처 : 朝鮮總督府, 1937, 「昭和五年 十年, 朝鮮國勢調查報告, 一卷」)

2) 상업과 장군면의 시장

일제 강점기에 들어 공주의 상업은 점차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장군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요컨대 일제 강점 이후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상업이 확대되었으나, 금강의 토사 누적 등으로 인해 수운의 편리함이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공주의 상권이 점차 대전 및 조치원, 혹은 논산과 강경권에 서서히 포섭되었는데 장군면의 경우 철도가 지나는 조치원과 근거리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특히 1931년 8월 천안에서 장항에 이르는 구간에 사설 철도인 조선경남철도가 1931년 8월에 완공됨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공주의 경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의 집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조치원·대전·천안·강경 등지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소비하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기 이르렀다.

그러나 장군면은 상술한 것과 같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정학적 이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본래 장기면의 5일장은 1900년대 초까지 면사무소가 있던 대교리장이었으나, 홍수로 그 일대가 황폐화되면서 면소재지가 도계리로 이동하게 되었고 장터도 도계리가 되었다. 도계리에서 대교리로 건너가는 대교를 지나 의당 쪽으로 나 있는 길이 과거에 시장과 주막거리가 있던 곳으로 전한다. 장이 열리게 된 연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큰 물난리로 인해 마을이 모두 떠내려가고 관공서 또한 도계리로 옮겨진 것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당시 시장은 5, 10일로 열렸고 공주의 의당, 연기군의 대평리와 나성리 사람들까지 모두 모이는 큰 장이었다고 한다. 도계리 장터는 현재 그 터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에도 몇 해 동안은 5일장이 지속되었으나 전쟁 통에 거래되는 물품의 양이 줄어들고, 이동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이 좀 더 큰 시장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5일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3. 관료 및 공직기구의 형성

1) 군·면기관과 면협의회

1895년 모든 군·현을 군으로 통일한 뒤 각 군에는 군수를, 각면에는 면장을 두었으며, 1897년에는 좌수(座首)의 명칭을 향장(鄕長)으로 바꾸고 이속(吏屬)들을 해방하였다. 그런 뒤 1910년 9월에는 새로운 지방관제(칙령 제357호)에 의거하여 군마다 군수(척임관), 군서기 및 기수(판임관)를 두는 군행정 제도를 실행에 옮겼다. 다른 한편 1917년 6월 총독부 제령(제1호)에 따라 조선면제가 실시되면서 각면에는 법인격(독자적인 사업 능력과 권한)이 부여 되었으며, 또 각 면에는 유급 인원이 약간명씩 배치되었다. 리에는 구장을 두어 각 동네일과 관계가 있는 면사무를 보조하게 하였다.

공주의 경우도 위와 같은 지방행정제도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기구와 직책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1917년 조선면제가 실시될 즈음 요즘과 유사한 형태의 지방행정체계가 완성되었다. 조선면제가 실시될 때, 공주면은 보통의 면들과 달리 지정면으로 지정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보통면보다 일본인 거류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합병 초기 부제(1914년)와 면

제(1917년)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일본인 거류민들이 누려왔던 자치권인 거류민단을 인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일원적인 관치적 지배질서를 확립하였다. 하지만 일본인이 밀집해 있었던 부와 면은 보통의 군·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배하였다. 일제시기 부와 지정면(1931년 이후 읍으로 승격)은 자치권이 부분적으로 부여되는 등 총독부로부터 특별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다. 일제시기 공주면 면장은 내내 일본인이었으며, 면협의위원도 70~80%가 일본인들이었다. 1932년의 공주읍장은 중강전길(中岡傳吉), 주외면장 류병각, 목동면장 신상우, 탄천면장 최종악, 계룡면장 정인각, 반포면장 우용제, 장기면장 박인규, 의당면장 심경섭, 정안면장이병주, 신상면장 이달영 등이었으며, 읍내구장은 신태룡, 성고목, 정규홍, 김종학, 이병명, 유병호 등이었다.

일제 강점기 공주의 면협의회원들은 대부분 상당한 자산가들이었다. 1931년 4월 선거에서 당선된 면협의회원은 일본인이 9명 출마하여 7명이 당선되었고, 조선인이 6명 출마하여 5명이 당선되었다. 이들의 연령분포, 직업, 재산상태를 살펴보면 조선인 면협의회원은 연령분포가 매우 고르는데 비해 일본인 의원은 50대 전후가 대부분이었다는 점과 대부분 상업이나 잡업자인 것에 반해 조선인 의원들 가운데는 대지주도 있었다는 점, 조선인이건 일본인이건 자산이 5천원 내외에 불과했던 사람들도 의원이 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이다. 일본인 면협의회원에 비해 조선인 의원의 연령이 훨씬 낮았던 것은 1930년대부터 근대 교육을 받은 조선인 대지주의 아들들이 본격적으로 읍회에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장군면을 포함한 공주군내의 각 면에는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면협의원들이 존재했는데 명단이 확인되는 각 면의 면협의원의 명단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각 면의 면협의원은 공주면(읍) 면협의원과 달리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군수에 의해 지명되었는데 대부분은 면내 유력동족마을(성씨) 대표자, 혹은 토지재산과 사회활동 능력, 혹은 당국신용이나 사회인망이 두터운 면내 유지급 인물들이었다. 일제시기의 면정(面政)은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대부분 이들 집단의 요구나 합의에 기초하여 실시되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각 면마다 특정 성씨, 혹은 특정 돌림자를 쓰는 인물들이 다수 보이는데 이들 성씨는 각 면의 실세로서 해방 이후 시기까지 면장직을 독점하였다.

〈표 19〉 일제강점기 공주군 내 각 면의 면협의회 명단

면단위	면협의회
장기면	임헌유(2회) 신직현 박종래(2회) 신봉희(2회) 이수근 강태문 임기철 이건홍(3회) 이건익(3회) 이세찬 최희영 임영태 이상현 이정영(2회) 박성래 최완수 김중한 설광업 서주태 박길하 백경서
의당면	윤석운 서상혁(3회) 이석준 권중희 임두철 유봉호(2회) 이건식(2회) 이필하(2회) 강낙선 김영 임두철 이건회(2회) 이정하 구자역(2회) 강익선(2회) 심재욱(2회) 이은성 심재순 이승하 이철하 구현서
정안면	강봉주 정용식(2회) 김정식 이승만(2회) 서상신 최병하 이병염(2회) 송계현 신방현 원정희 윤병우 유중학 이원익 유원석 최병무 염진경일 백연순(2회) 원영희 김용식 김홍식 정항식 이용목 원만희 구자역 최덕규 정충식 이자홍 안운선 최병덕 맹경재
우성면	이상교 홍재흥 오병성 신오현(2회) 신승균 노병윤(3회) 최종하 정선 김의권 이기덕(3회) 이박 정희병 강두원작 홍종철 서춘석 노수완 김정옥(2회) 이상흥 오택진 노병현 신승우 이의배 김동하 김일경 남상문 유영욱 노수경 노원선 정규철 김영길
사곡면	오병근(3회) 유희노 정택희(3회) 박인목 오기영 임성철(2회) 박리양 한영수 윤창식 오건섭 이종호 김용기 정헌봉 박영진 이상덕 최기호(2회) 우현성 정종렬 이한원 박재건 김복현 황익희 유기영 임성철
신하면	김준성 이조형 노창섭 김기원 윤영준 김낙중(2회) 홍순응 신희균(2회) 임한철 이승우(2회) 임명철(2회) 임병학(2회) 김순응 정태호 서병설 김대중(2회) 강우선(2회) 유인섭 김종락 홍성덕 양주한 남정호
신상면	윤택보 중도준(3회) 오윤근(2회) 한창수 조병성 박영철 유희국 한백순 이규면 이광규 박창화 이달하 조봉하(2회) 윤기현(2회) 조병오 이돈하 이남식 이두령 신규현 박준국 김교삼 정동진 성낙경 방서경
반포면	성낙운 김세경 홍정식(2회) 박정래 오정기(2회) 서병운 이재봉(2회) 오진영 윤상혁 송학수(2회) 이춘근(2회) 이태주 최치수(2회) 윤상혁 최광하 노필수 이병윤 서정용 김종학 이은철 신태익 이재주 김세배
계룡면	허찬 윤기병(3회) 정인길 진승섭 백남두 조동호 유재국(3회) 한두영(3회) 이기순 임헌규 정일창(2회) 진경태(2회) 임헌직(2회) 성낙중 정인철(2회) 방영근(2회) 정진 삼차구일 오익호
탄천면	임승연 이성훈(2회) 이정전 남철원 윤일병 권공규(2회) 박용식 우좌명 임영돈(3회) 정수화 이조현 송조현 박영승 이건중(2회) 이병원 이용훈 남철구 성낙정 송신석 남송옥 정일양(2회) 이갑희 이규복 윤갑중 윤상덕 박능식 이기영
목동면	이은화 최갑하 김경운 정인해(2회) 신태원 김지항(2회) 양상집(2회) 이해성 이사목 양종호 김효중 이사목 최갑하 이은상 윤은중 김건식 이양건
주외면	정은봉 전형재 이건주 이우영 최봉규 지이봉 이종관 오진성 양관일 전병희 이건성 이병선 임기홍 어재해 이욱 광불숙 황한식 정용모

4. 민족·민중운동과 장군면

1) 충남·공주지역의 민족·민중운동

일제 강점기 공주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우국지사들이 그리 많이 살지 않았다. 「사상휘보(思想彙報)」(9호, 1936, 12)에 따르면 강점 초기부터 1935년 5월까지 사상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주지역 사람은 모두 138명이었다고 한다. 물론 시기를 1945년 8월까지로 넓히고 검거된 적이 없는 숨은 활동가를 합산하면, 공주 출신의 우국지사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의 표는 1935년 5월까지 충남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상사건이 발생하였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표를 살펴보면 공주를 포함한 충남지역의 경우 치안유지법 위반사건보다는 보안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가령 함경도 지역의 경우, 유독 치안유지법 위반자의 비율이 높는데 이러한 사실은 충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주의 운동이 비교적 미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일제하에서 가장 많은 사상범(=우국지사)을 배출한 군은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았던 공주군이나 대전군이 아니라, 예산군과 청양군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치안유지법 위반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군은 논산군과 공주군이었다. 공주군에 치안유지법 위반자 숫자가 비교적 많았던 것은 1930년대 초반기 시내에서 비밀결사사건이 두건이나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집계된 1,353명의 우국지사 가운데 1935년 5월, 무려 781명이 사상전향을 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위장전향자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런 수치는 일제의 회유와 억압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일제는 우국지사들을 전향시키기 위해 각급 행정기관, 특히 경찰서와 더불어 각 지역의 유지(사상선도위원)들도 총동원하였다.

〈표 20〉 일제강점기 충남지방 사상사건 관련자 군별 분포현황

구분	치안 유지법	보안법	폭력행위 처벌법	기타사상 범죄	동맹휴교	기타 주의자	합계
공주	15	80	11	16	7	9	138
대전	12	21	66	10	11	16	66
조치원	1	29	11	2	0	15	58
강경	20	34	13	17	2	29	115
부여	4	37	23	24	4	46	138
서천	3	22	12	0	2	49	88
보령	7	14	4	0	0	17	42
청양	7	114	27	1	1	16	166
홍성	10	22	21	17	8	16	94
서산	6	70	7	3	0	17	103
당진	10	8	8	3	5	20	54
예산	8	137	3	1	2	24	175
운양	12	6	0	0	3	23	46
천안	2	38	0	4	0	26	70
합계	117	632	146	98	37	323	1353

충남·공주지역에서 일어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으나, 1930년대 전반기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사상사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운동 관련사건으로 1932년 공주에서 발생한 안병두(공주면 옥룡리 364번지), 이영근 등의 비밀결사조직사건, 1932년 논산 양촌면에서 발생한 권영민, 신표성 등의 적기시위사건, 1933년 공주에서 발생한 이용하, 윤재명 등의 비밀결사 적색독서회 조직사건, 1933년 예산에서 발생한 예산공립농업학교 생도들의 예산공산주의학생동맹사건(학생들의 만경좌 극단 습격사건 포함), 1933년 청양에서 발생한 비밀결사 신조선투사 결성사건, 1933년 부여에서 발생한 이호철, 노명우 등의 농촌적화공작사건이 있다. 다음으로 무정부주의운동 관련사건으로는 1930년에 발생한 신정현, 최영석 등의 천안 호서은행 습격사건이 있으며, 민족주의운동 관련사건으로는 1932년에 발생한 상해 신공원의 윤봉길 의거와 유진만의 조선총독암살모의사건 등이 유명하였다. 그러나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1934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충남지역의 사상운동은 급속히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르면 1935년 충남지역에서는 홍성의 한명식 및 아산의 이선준에 대한 보안법위반사건과 서천군 농촌지도원의 보안법위반사건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

한편 공주지역에서는 1930년대 초반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두 개의 비밀결사사건과 더불어 1930년에 발생한 윤귀영(당시 조선일보 공주지국장)과 이관세(공주고보생)의 보안법 및 출판법위반사건, 영명학교 교사인 황인식(미군정시기 초대 충남도지사)과 주병건 등의 보안법 위반사건, 1932년에 발생한 김순태(공주군 반포면 공암리 출신)와 노수남(공주군 사곡면 신영리)의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2) 공주군의 3·1 만세운동과 장군면의 3·1 만세운동

1919년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한반도 전역에서는 독립만세 시위가 한창이었다. 연인원 200만명이 참여한 만세시위는 일제의 무력 탄압으로 말미암아 진압되고 말았으나, 만세운동 과정에서 고조된 애국·애족 정신은 이후 시기에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축소 조작된 통계이기는 하나 조선군사령부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만세 시위 과정에서 7,500명의 우국지사들이 피살되었고 중상자들은 1만 6천명에 다다랐으며 4만 5천여명이 검거되었다.

이렇듯 3월 1일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에는 만세시위가 확산되었고, 공주군과 공주군에 속한 장군면 등 여러 면단위의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조선군사령부의 「조선소요사건일람표」에 따르면, 공주에서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10개지역, 신상면 유구리(3월 14일, 31명 검거), 공주 읍내(4월 1일), 정안면 석송리(4월 1일), 장기면 대산리(4월 2일), 장기면 대교리(4월 3일), 우성면 동천리(4월 3일), 주외면 용당리(4월 4일), 목동면 이인리(4월 4일), 계룡면 경천리(4월 4일), 반포면 상신리(4월 5일)에서 만세시위가 발생하여 총 86명이 검거되고 1명이 사망,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재의 장군면에 속하는 지역의 3·1 만세운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술한 것과 같이 공주지역의 3·1 독립만세운동은 종교인, 유학자, 교사가 주도하고 농민과 학생들이 중심이되어 전개되었다. 그 중, 장기면에서는 4월 1일 밤 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도계리 주민들 약 100여 명이 풍덕골 마을 뒷동산에 올라가 태극기를 세우고 횃불을 지피며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이 만세운동의 급보를 접한 공주경찰서는 경찰과 수비대 보병을 함께 출동시켜 총검으로 만세를 부르는 군중을 해산시키고 주도한 인사들을 체포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장군면의 도계리 주민이 백 명이나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즉 목숨을 건 독립만세운동에 한 리에서 무려 백여 명이 단결된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에 대해 주도자가 누구이며, 어떤 과정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시 전국 각지에서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상징하는 행정기관이 있는 곳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지는 일이 많았는데, 도계리 역시, 만세운동의 중심지가 된 것은 면소재지와 가까웠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5. 노동·농민운동과 장군면

1) 노동협성회, 장군면의 노동협성회 지회 설립대회

공주지역에 군 단위 농민운동 조직을 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청년회 혁신운동의 출현과 거의 동시에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1925년 8월 조선일보 공주지국은 노동협성회의 발기취지문을 작성한 뒤 이를 각 면에 돌리는 방법으로, 각 면 출신의 집행위원급 인물과 창립회원 약 500여명 정도를 규합하고자 했다. 당시 동아일보(1925. 8. 18)에 게재된 기사는 이들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방법으로 노동협성회를 조직하고자 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출처 : 동아일보 원문, 1925

〈그림 9〉 노동협성회 관련기사

〈표 21〉 1925년 8월 18일자 노동협성회 관련 기사

동아일보(1925. 8. 18) 노동협성회 기사내용

“충남 공주에는 노동자 기관이 없으므로 노동자의 유감이 많던 바, 금반 k동업자 조선일보 공주지국장 한원교 제씨의 발기로 소작상조, 산업장려, 근검저축 및 호상친목의 4대 강령을 목적으로 노동협성회를 조선일보 지국에서 17일 발기총회 개최한다.”

하지만 당시 노동협성회의 결성작업은 준비위원회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다 농번기가 지난 1926년 1월경부터 다시 읍내에 임시사무실을 개설하고 준비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등 조직결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당시 발기인으로 참가한 사람은 유정현, 김현구, 임창수, 이범규, 유덕영, 김철현, 서겸순, 김기준, 이 익, 김기태, 이석규, 정범모, 한원교, 윤흥중, 김한익, 홍영표, 오세중, 박정극, 이상두, 박동규, 임두철, 서달순, 이민구, 유광열, 서봉순, 서원순, 임현영, 곽세홍, 방영근 등이었는데 이들 가운데는 혁신청년 이외에 대지주나 그 수하의 집사 혹은 마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가령 김현구는 1931년 5월 의당수촌리, 청룡리, 월곡리 등지를 돌면서 소작권 박탈을 협박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한 인물이었다.

1926년 1월 준비위원회는 ‘본부는 읍에 두고, 각 면에는 지회나 출장소를 설치한다’ 는 것과 ‘조직확대를 위해 각 면에 준비위원을 파견한다’ 등의 결정을 했는데, 그때 준비위원으로 피선된 위원들은 주외면·탄천면·목동면은 김현구, 우성면·사곡면은 이익, 장기면·반포면·계룡면은 문봉의, 의당면·정안면은 조중환, 신상면·신하면은 윤흥중, 공주면은 신경순 등이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이런 노력의 결과 준비위원회는 수천명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26년 3월 공주산성 내 영은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창립총회는 공주 경찰의 집회 불허방침으로 말미암아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다.

노동협성회를 창립하기 위한 움직임은 1927년에 접어들면서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주외면 화은리에서는 대지주 황원숙의 주도로 노농협성회를 조직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주외면 화은리 소작인들은 “지주들의 무리한 도조 수봉에 견디지 못하고 향토에서 생활할 도리가 없다” 고 하면서, 황원숙씨를 대표로 하여 화은리 전풍식의 집에서 노농회의 결성을 발기하였다. 당시 화은 노농회의 강령은 ‘소작상조’, ‘무산자교육’, ‘노동공제’ 등이었으며, 창립 준비위원은 김

두홍, 오봉근, 전은봉, 전정식, 오세만 등이었다. 황원숙은 오로지 근검 절약만으로 7~8백석을 수확하는 대지주로 성장한 입지적인 인물로서 많은 자선활동을 전개하여 근동에서 상당한 인망을 누리던 인물이었다.

노동협성회 창립대회는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1927년 3월 5일 화은리 앞산에서 5~6백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당시 창립대회는 문봉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지주의 소작인 착취’를 격정적으로 비판한 황원숙의 연설로 말미암아 군중들 사이에서는 “함루 비극이 연출되어 장내 공기가 험악 긴장미를 띠기도 했다”고 한다. 정사복 경찰의 엄중한 경계하에서 열린 창립대회에서 화은 농민들은 “소작상조, 노동동제, 무산교육, 애경상조” 등의 강령을 채택하였다. 당시 공주 경찰은 회의 명칭에 보이는 노동이라는 두 글자가 불온하다하여 시비를 걸어와 결국 회의 명칭을 노동협성회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장군면이자 당시의 장기면에서는 1927년 4월 주변 농민 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송원리 이덕영의 집에서 장기면 노동협성회 지회 설립대회가 열렸다. 당시 지부위원으로는 소작부위원 임인철씨 외 2인이, 노동부위원으로는 임병구(林炳九)씨 외 4인이, 교육부위원으로는 이원하 씨 외 2인이, 애경부위원으로는 이하병씨 외 3인이 선출되었다. 노동협성회 상무 문봉의의 노력으로 송원리에 지부를 설치한 이후, 송원리 주민들은 학교하나 없는 가난한 면인 장기면 사정을 감안하여 지역 유지를 설득, 세 곳에 야학을 설치(학생 80명)하였다. 당시의 강사는 이성호, 현창학, 유명호, 백남문, 유종호 등이었다.

이 외에도 공주군 내 각 면에서는 장기면과 같이 노동협성회가 창립되었다. 노동협성회는 공주청년회와 마찬가지로 창립과 동시에 경찰의 집요한 탄압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당시 공주 경찰은 공주지역 내의 모든 단체의 집회를 불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이상한 낌새가 보여도 가택수색과 강제연행을 밥먹듯이 해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동협성회는 조직결성과 동시에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어설피게나마 군단위 농민조직을 결성해본 경험은 이후 해방공간의 농민운동 과정에서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1년 공주군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작쟁의가 빈발했을 때, 조직적인 쟁의를 벌인 곳도 다름 아니라 노동협성회 지회조직이 결성되었던 장기면, 계룡면, 우성면 등지의 마을이었다.

제7절 해방 이후의 장군면

1. 통일민족국가 수립과정 속 장군면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민족고난의 항일기는 벗어났지만, 이후 미군의 진주로 인하여 1948년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많은 역사적 사건과 변화가 있었다. 장군면은 당시 공주군에 속해 있었는데, 면단위의 상세한 역사적 정황을 묘사한 기록은 풍부하지 못하다. 따라서 당시 장군면을 포괄하고 있던 공주의 상황을 통해, 그 면단위의 상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으나 공주의 역사적 상황과 맥락을 같이함에 큰 문제가 없다.

1) 해방직후 공주의 관료기구

해방 당일 공주는 라디오를 통해 천황의 무조건 항복소식을 듣자, 일본인 선생과 학생들은 통곡을 했고 조서인도 모두 흩어져 귀가를 했다고 한다. 해방 직후를 기점으로 공주 내 학교는 물론이고 거리에서도 일본인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표 22〉 「충남지방실정조사보고」 내용 中

공주 군청
본군 행정은 군민 전체의 사상태도가 온순 상식적이고 합법적이다. 몇몇 분자의 악행동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군민은 처음에는 비협조적이었으나, 현재는 다소 나아지고 있다. 그래도 일정시대보다는 어렵다고 한다. 현 군수(申求永, 43세, 전 보령 내무과장) 이하 여러명 관료의 행정과 사상이 불량하며, 군내의 몇몇 사람과 몇 개의 면에서 편파적이라는 분만의 소리가 있다고 한다. (이하 생략)
공주 경찰서
본 경찰서 관내 상황은 다른 지방과 달리 별로 없다. 관내 12개 주재소가 자력으로 범죄방지에 전력을 다하여 건국사업에 유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서장(徐謙淳, 46세, 無官職)은 본 읍내의 자치회 청년부장으로 청년들의 사상선도에 노력하여 군내 치안은 일정시대 보다는 못하나, 현재의 치안은 타지방보다 나은 형편이다. 경찰서원은 자기 사상을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고 온순하며, 묵묵하게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 초기 혼미를 거듭했던 정국은 1946년 중반부터 가속화된 미군정의 좌익 탄압(1946년 9월 공산당 간부 체포 및 불법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익들을 중심

으로 대체적인 윤곽이 잡혀가기 시작하였다. 이는 공주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공주의 경우 특별히 좌익세력의 힘이 약했던 곳이므로 매우 이른 시기에 우익 해계모니가 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6년 2월의 공주 상황은 「충남지방 실정조사보고」에 보이는 공주군청과 공주경찰서에 대한 행정상황 조사보고만을 보아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상을 보면 공주군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치안상황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좌우익간의 충돌이나 갈등도 상당히 미약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주된 요인은 혁신청년세력에 비해 지역유지들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2) 해방직후 공주의 사회운동단체 현황

해방과 더불어 공주에서도 일제하의 ‘관료-유지 지배체제’가 붕괴되는 등 새로운 정치적 힘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군청의 ‘유지명부’에 올라 있었던 사람들과 경찰서의 ‘요주의·요시찰인 명부’에 올라있던 사람들의 정치적 지위가 갑작스럽게 뒤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하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축적한 공주유지들의 ‘당국 신용’은 이제는 ‘강점’이 아니라 ‘약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반면, 불령선인이니 좌익분자니 하는 낙인은 오히려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상징하는 ‘신임장’이 되었다.

해방 직후에 나타난 최초의 정치적 움직임은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이었다.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은 1945년 9월 6일 서울에서 열린 이른바 ‘전국민대표자대회’를 전후하여 ‘인민위원회’ 활동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일제하의 ‘관료-유지 지배체제’는 모든 지방에서 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하지만 새로운 국가체제의 형성은 아득하기만 했다. 미국은 미군정부를 수립하자마자 각지의 인민위원회를 불법화하고 좌익세력의 정치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와중에 잠시 숨을 죽이고 지내던 우익세력도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은 뒤 좌익세력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46년에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신탁통치 무조건 반대로’ (우익)과 ‘모스크바 삼상회의안의 총체적 지지론’ (좌익)을 둘러싼 좌우익간의 다툼이 치열하다 못해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는 공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46년 3월, 공주에는 인민위원회 이외에 각종의 정당사회단체들이 난립해 있었는데, 당시의 공주사정은 신익회(당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회장)의 지시로 작성된 이른바 「충남지방실정조사보고」에 자세하다. 신익회는 1945년 12월 임시정부내무부장 자격으로 귀국하여 ‘정치공작대’, ‘정치원회’ 등을 조직하고 활동하였는데, 위 자료는 바로 이런 활동과정에서 준비된 것이었다. 이 자료에는 충남 각 군의 관료기구(군청, 경찰서)와 각종 정당·사회단체의 실상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이 보고서는 두명의 ‘공작요원’이 1946년 3월 초순 충남 각지를 실제로 답사하면서 작성한 것이므로 비교적 정확한 조사보고라고 할 수 있다. 각 단체의 현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해방직후 공주군내의 사회운동단체 현황(1946년 3월)

단체명	임원현황	회원현황
공주군독립촉성협의회	회장 문흥범 45세-소학교, 농업 부회장 염우량 42세-한학, 상업 총부 노수일 38세-소학교, 상업	30여명, 청년 다수
공주군공주읍광복회	회장 오경달 36세-일본대전문부, 무직 부회장 양천손 27세-중학교, 무직	20여명, 전부 청년
공주군인민위원회	회장 정상윤 45세-소학교, 농업 부회장 안병두 41세-소학교, 농업 부회장 조국원 46세-소학교, 상업	11명, 대다수 中老
공주군농민조합	조합장 이창주 42세-소학교, 농업 부조합장 정현 45세-한학, 농업	11명, 대다수 中老, 각 면 조합 가입
공주군합동노동조합	조합장 고희석 41세-소학교, 상업 부조합장 오재원 -소학교, 무직	

해방 후 ‘독촉’이나 ‘광복회’와 같은 우익단체 대표자들은 대부분 일제시기의 공주 유지들이었음에 반해, 좌익단체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요주의·요시찰인물들이었다. 표에서와 같이 공주지역 우익 및 좌익단체의 활동 상황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우익단체에 관해서는 “각 면에 선전뼈라를 뿌리거나 강연 등을 하고 있으나, 인민위원회의 위세에 눌려 활동이 부진하고 청년들이 대다수이므로 기본대로 테로(테러)행동을 하기도 한다”라는 대목, 그리고 좌익단체에 관해서는 “각 촌락에서 악선전과 군정청과 군민들을 이간하는 선전활동을 하고 있으나 부진한 형편이며, 현재 지하운동으로 불량청년단을 조직하고 있음” 등의 대목이

주목된다.

공주군 광복회를 이끈 인물들은 오경달, 양천손 등 공주시민회 임원, 읍회 의원 등을 역임했던 일제시기 공주유지들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들은 이승만과 김구의 노선을 추종하였던 것 같다. 1946년 4월 김구의 공주 강연을 계기로 우익측의 활동은 더욱 기세를 돋구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신문에는 1946년 6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독립촉성애국부인회 전국대회(박신덕 사회, 김구 주석 인사말)에 “좌익에서 전향하여 대표의 일인으로 출석한 충남 공주 문경자가 참여하여 ‘반성하여 손을 잡고 자주 독립을 찾자’ 라는 혈서를 공기하여 일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는 기사(「동아일보」, 1946. 6. 21), 또는 1947년 6월 군중이 동원된 반탁시위가 있었으며, 뼈라가 살포되기도 했다(「동아일보」, 1947. 6. 25; 6. 26)는 기사가 보인다. 김구 주석은 1948년 5월말 마곡사측의 요청으로 불탑 중수 기념식에 참석차 마곡사를 방문하였는데, 마곡사로 출발하기전 기자회견, “전민족의 단결로 통일 독립 쟁취하자” 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당시 공주의 치안상황이 비교적 양호했음은 신문을 통해서도 그 대강이 확인된다. 당시의 신문을 뒤적여 보면 공주와 관련된 특별한 보도라고는 김구 주석이 두차례(46년 4월, 48년 5월) 공주와 마곡사를 방문한 사실, 그리고 1947년 7월 30일 공주형무소의 죄수 200여명이 형무소 간수들로부터 장총 10여종과 실탄을 탈취한 뒤 집단 도주하여 공주 일대에 은신하는 바람에 도내 전체가 계엄상태에 돌입한 사건 뿐이었다(조선일보, 1947. 8. 31). 공주의 경우는 1946년 10월말 전국이 농민소요로 들끓어 오를 때도 아무런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신문에는 1946년 10월말 현재 천안에서 43명, 조치원에서 22명, 예산에서 13명, 청양에서 20명이 검거되었다는 기사가 보이나 공주사람이 검거되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단독정부 수립, 특히 5. 10 제헌의원선거를 반대하는 투쟁도 공주의 경우는 거의 야기되지 않았다. 당시 충남도내에서 발생한 소요사건은 조치원 죽립동 투표소 괴한 습격사건, 청양군 청남면사무소 방화사건, 서산 팔봉면 양길리 투표소 습격사건, 기타 논산 연산군 장전리 자위단원 습격사건, 대전 여러 지역에서의 투표소 방화, 전선 및 철도 파괴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2. 해방이후의 선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10년 대한제국 황제가 일본 천황에게 양여했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천황이 연합군 사령관에게 넘겨진 국권이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권에 기초하여 국민들은 1948년 5월 10일 제헌의원을 선거하였으며,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제헌의원들은 7월 12일 제헌헌법을 통과시키고, 7월 20일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 결과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기구가 정식으로 수립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정치과정에서 공주군 이하 각 면단위의 사람들도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와 관련한 공주지역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48년 5·10선거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6년과 1947년 각각 두 차례나 소집된 미소공동위원회는 아무런 성과가 없이 1947년 말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에 상정하여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안을 이끌어냈다. 1948년 5월 10일에 열린 제헌국회의원 선거는 그런 이유로 완전하지 못한 선거가 되었다. 게다가 김구 등 상해임시정부 세력도 대부분 선거에 불참을 선언하였으므로 선거는 매우 단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주의 제헌의원 선거에는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였다. 당시 공주의 선거는 금강 이남의 갑구와 금강 이북의 을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갑구의 당선자는 김명동이었으며 을구의 당선자는 신방현이었다. 현재의 장군면은 당시 금강 이북의 을구에 속하였다.

〈표 24〉 공주의 제헌의원 선거

공주의 선거구	세부사항	당선자
금강 이남의 갑구	공주읍 이인 탄천 계룡 반포면 : 1개 읍 4개 면	김명동(金明東, 10,676표)
금강 이북의 을구	장기 의당 정안 우성 사곡 신평 유구 등 : 8개 면	신방현(申邦鉉, 8,415표)

제헌의원 선거 시기 갑구와 을구의 출마자 및 득표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공주의 제헌의원 선거 출마자 및 득표수

공주의 선거구	출마자 및 득표수
금강 이남의 갑구	염우량(5,207표) 박충식(4,991표) 권태훈(3,881표) 정인각(3,650표)
금강 이북의 을구	김평중(7,330표) 이종백(6,843표) 이건철(3,954) 이규원(2,618표) 한보순(2,007표) 홍순량(1,865표)

제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인물들은 상당수가 일제 강점기 면장이나 면협의원을 역임했던 공주지역의 유지들이었다. 무소속으로 제헌의원으로서 선출된 김명동은 홍주의병의 중심인물 김복환의 아들로써 해방 직후부터 반탁운동에 참여하는 등 중앙정계에서도 활발한 정치활동을 한 인물이다. 1945년 1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김명동이 탁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의 지방과견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사 등이 보인다. 김명동은 당선 이후 무소속구락부(소속 국회의원 53명)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동구락부의 강령은 ‘조국통일, 완전 자주독립 쟁취’ 등이었다.

2) 1950년 5·30선거

이승만 정권은 성립 초기 여러 가지 실정으로 말미암아 대중적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 결과, 1950년 5월 30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참패하고 말았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은 전체 의석 중 30여석에 지나지 않았고, 그 대신 무소속 출마자가 무려 126명이나 당선되었다. 특히 당시 선거에서는 소장 중간파 의원들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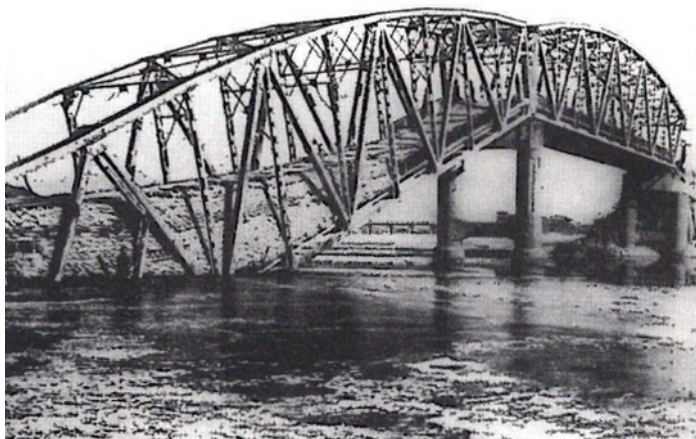
공주지역은 한국전쟁 한달 전에 치러진 5·30선거에서도 상당한 접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주의 5·30선거는 공주갑부 김갑순이 자신의 장남 김종석과 장손 김승태를 갑·을 선거구에 모두 출마시켜 커다란 화제를 불러 모았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김갑순가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럽게 나타났다. 당시 공주 갑구의 당선자는 박충식이었으며 을구의 당선자는 제헌국회의원이었던 김명동이었다. 갑구의 출마자는 염우량, 진상구, 정경모, 김제원, 신현상, 서상빈, 김종석 등이었으며 을구 출마자는 정인각, 이종백, 원종국, 문홍범, 유응호, 신방현, 이은봉, 김승태, 정종열 등이었다.

3) 1951년 보궐선거

1951년 3월, 공주에서는 5·30선거 을구의 당선자였던 김명동의 변고로 인하여 보궐선거가 치루어졌다. 당시 공주 보궐선거에는 중앙 정계의 거물이었던 윤치영(아산 신창 출신)과 조병옥(천안 출신)이 격돌하였는데, 결과는 이승만의 지원을 받은 윤치영의 승리였다. 윤치영은 14,739표, 조병옥은 8,550표를 얻었다고 한다.

3. 한국전쟁과 장군면

회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주사람들은 1950년 6월 25일 월요일,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 북한 괴뢰군의 남침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초기 시기 대부분의 공주사람들은 별 것 아닌 일로 믿고 있었던 듯하다. 왜냐하면 당시 북한군의 군사도발은 흔히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공주사람들은 보통때보다 규모가 큰 삼팔선 침범행동으로 보았다고 한다. 조치원이나 대전 사람들은 전쟁 바로 다음날부터 남쪽으로 향하는 모든 국도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각종 자동차들이 밀리기 시작하는 모양을 보면서 큰 일이 났음을 일찍이 자각할 수 있었으나, 공주사람들은 상당히 늦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비로써 괴변이 생겼음을 감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초기 시기의 전황은 서울에 나가 있던 출향인사, 특히 학생들의 귀향을 통해서 그 전모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림 10〉 한국전쟁 당시 폭파된 공주의 금강철교

제일 처음 공주로 밀려든 외지사람들은 피난 군경이나 그 가족들이었다. 이들은 피난을 하면서도 군청이나 읍사무소에 들러 식사와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며,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공주사람들은 ‘공주시국대책위원회’를 조직한 뒤 이 조직을 매개로 피난군경들에 대한 구호활동을 펼쳤다. 당시 시국대책위원회가 수행한 주요한 시국대책은 다른 지방에서 피난 온 군경이나 관료들, 혹은 그 가족들의 식량 및 숙소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것이었다. 가끔씩 국회의원이나 중앙의 고급 관료들이 식솔을 거느리고 몇 십명씩 떼를 지어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웅진부대’ 다 뭐다 해서 백 수십명씩 몰려와 식량과 숙소를 요구했다. 어떤 군경은 군수를 싸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공주의 관료와 유지들은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줄 여력도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 유지들은 훗날을 위해 아니 당장의 목숨부지를 위해 신산은행과 금융조합의 공주지점에서 연대보증 형식으로 막대한 현금과 식량을 차입하여 특별한 피난민들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당시 공주 유지들로부터 상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피난민은 어찌되었든지 가장 고급의 전쟁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그것도 별 무소용이었다. 온갖 소문이 난무하였고 또 종잡을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7월 6일경부터 공주에서도 멀리서부터 포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차츰 공포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지역 계엄사령관인 공주경찰서장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치안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공주시내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벌써 가재도구를 챙겨 피난행렬에 끼어들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덕순가는 시내 폭격에 대비하여 노인들과 부녀자를 연고가 있는 마름집으로 피난시킨 뒤, 머슴들을 시켜 식량·식기·침구·의복 등을 바리바리 저나르기 시작하였으며 귀중품은 손이 타지 않을 곳에 꼭꼭 숨기는 작업을 개시하였다. 그 때는 미군사령관의 명령이라 하여 야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통행이 금지되었으며, 위반자는 무조건 총살한다는 명령까지 하달된 상태였다. 7월 9일경(토요일) 시가는 밤이나 낮이나 적막강산이었다. 가끔씩 짙차와 군경의 군화소리란 요란하였다.

당시 공주에는 “미군과 국군이 금강 방어선에서 인민군을 격퇴할 계획이니, 안심해도 좋다” 느니 “본토의 미군이 이미 공주까지 와서 각 요소에 포대를 설치하고 방비하고 있다” 는 등 온갖 뜬소문들이 횡횡하였다. 7월 12일경에는 주둔 국

군의 명령이라 하면서 공주시민들을 총동원하여 장깃대나루, 공산성, 곰나루 세 곳에 참호를 파게 하였다. 이는 인민군에 밀려 공주로 남하하던 미 제34연대가 금강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일 미군 정찰기가 공주 상공을 배회하며 포탄을 투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미군은 그 날을 전후하여 나룻배 등 모든 도하장비를 몰수하여 소각했을 뿐만 아니라 13일 새벽 즈음에는 가차없이 금강철교를 공중 폭격하였다.

공주방면을 공격해온 인민군 제3사단의 포격은 13일부터 본격화되었다. 밤이 되자 포성이 방벽을 흔들 정도로 강력해졌으며 새벽녘에는 아예 집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요란해졌다. 귀청을 찢는 듯한 포성이 요란한 가운데, 전막 등 금강 방면에서는 별건 화염도 목격되기 시작하였다. 1933년 도청 이전의 대가로 만들어진 ‘금강철교’가 미군의 폭격으로 강물에 내려 앉은 것은 당일 새벽 4시경이었다. 13일 아침 총성과 포성이 요란한 가운데, 붉은 해가 월성산 너머로 떠올랐다. 그 날밤 이후 공주읍내에서 무슨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한국전쟁 무렵 좌·우익의 사상 갈등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는 장군면에 소속된 여러 마을 또한 예외가 아니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빈부격차로 인해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8·15 광복 이후에는 좌·우익 사상의 대립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는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이웃들을 죽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4. 한국전쟁을 전후한 장군면의 이야기

1) 금암리의 광산과 금방앗간 터

전언에 의하면 장기면 금암리 6반에 속하는 마을 입구 좌측에는 부서진 건물터가 있는데, 금방앗간 터라 불린다. 금암리의 정자마을 뒤편 좌측에 위치하는 산에는 금과 흑연을 캐는 광산이었다고 전한다. 이 광산은 일제 강점기부터 채굴을 하기 시작하여, 한국전쟁 직후까지도 운영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폐광이 되어 굴이 방치되고 있으며 금방앗간도 폐가의 형태로 남아있다.

2) 제천리의 서당

현재 확인된 바로는 제천리 조양동에는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까지 운영된 서당이 있었다고 한다. 이 서당의 운영자는 부안 임씨로 조선시대 낙향한 전서(典書) 임목(林穆)부터 시작되어 4대를 이어 운영한 것으로 회자되는데, 그 이전의 내용은 부안 임씨 중 누군가가 운영하던 서당이 조양동으로 옮겨와 4대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3) 당암리 망골의 변화

당암 2리의 첫 마을인 망골은 그 앞 들녘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6년경에 금강 제방을 축조하면서 펼쳐진 옥토이다. 제방 축조 이전에 망골로 이거(移居)해 온 임씨들은 몹시 가난하여 궁핍하였는데, 매년 금강의 물이 범람하여 농사의 결과물이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1956년 금강 제방의 축조되면서 이 마을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 늘었다고 한다.



〈그림 11〉 당암리 망골의 전경

4. 1970년대 수도 이전 논의와 장군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인구 집중 해소와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임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임시행정수도란 명칭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와 명문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통일 후에는 다시 서울로 수도를 옮긴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1977년 작성된 청와대 직속 조직인 중화학공업추진위 실무기획단의 비밀프로젝트 “백지계획”에 입법, 사법 행정부와 명문대학을 지방 행정수도로 옮기는 계획이 담겨있다. 백지계획이란 모든 것을 백지에서 논의하고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이 보고서에는 행정수도를 만들어야하는 이유로 국토분단의 장기화, 국가 안전보장 개념상 불리,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 및 국토 균형발전 필요 등을 들었다.

행정수도 계획안은 2개로 1안은 격자형 도로망을 주축으로 도시의 주요 영역을 구분한 계획형 도시였다. 도시 중앙 북쪽에는 중앙청, 동쪽에는 국회, 서쪽은 사법부 등 행정지구, 남쪽에는 업무 및 상업지구를 두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2안은 동심원형으로 중앙광장 주변에 행정, 업무, 문화 기능을 배치하고 주변에 주거지역을 두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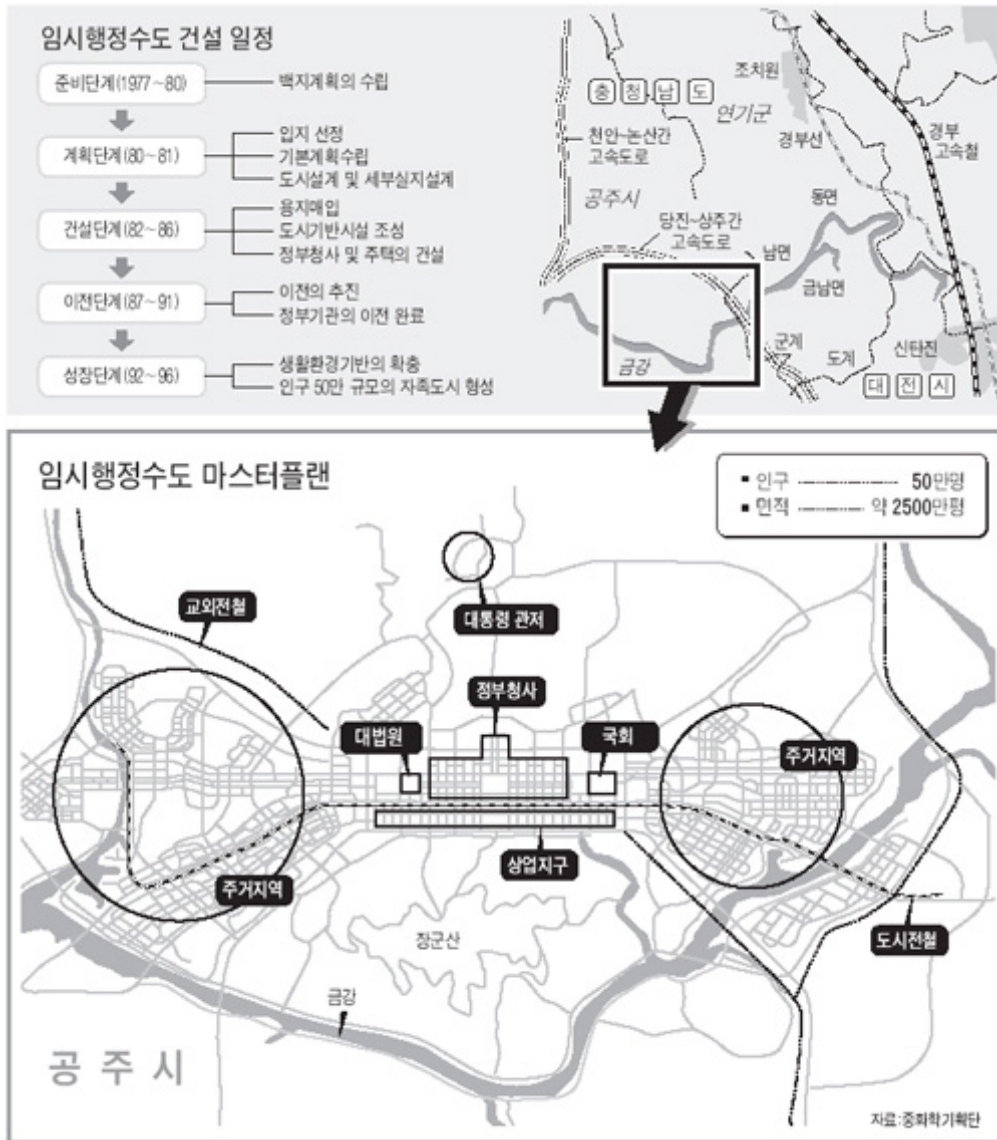
행정수도의 이전 지역은 천안, 진천, 공주, 논산, 보은 등 충청의 10개 지역을 후보군으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공주의 장기면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었다.

장기면이 유력후보지로 떠오르는 것은 장기면 앞에 금강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산이 있는 배산임수 유형으로 한강과 북한산이 있는 서울과 흡사하고 전국과 사통팔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므로 전국을 두 시간 이내로 관할할 수 있고, 동서남북을 두 시간 생활권으로 구축하여 국가 경제의 역동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하였다.

당시 장기면을 대상으로 그려진 계획도를 보면, 도시형태는 타원형으로 도시가운데에 중앙청, 대법원, 국회 등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모여 있고 북쪽 국사봉 서쪽 기슭에 대통령 관저가 위치하는 방안이었다. 또한 서청도 도시 중앙에 위치하는 형태로 현재 서울시의 형태와 비슷했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77년 7월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78년 말에는 입지, 교통, 토지 등 분야별 백지계획 보고서가 만

들어지고 79년 10월에는 충남 공주군 장기면을 임시수도 입지로 삼아 기초적인 마스터플랜의 설계까지 완성됐다. 이러한 백지계획은 2년여 동안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나 오일쇼크, 건설비용 등의 문제로 백지화 되었다.



출처 : 중앙일보 2004.06.22

〈그림 12〉 임시 행정수도 계획안

제8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전·후의 장군면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세종특별자치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진행되었던 국토 재구조화 전략은 실천적 성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기타 특수도시 등의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추진 단계 초기에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제기된 신행정수도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른바 천도론(遷都論), 분경론(分京論), 천도불가론(遷都不可論) 등의 뜨거운 논쟁과 법적 공방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우역곡절 끝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긴 명칭을 달고 출발하게 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당국에서는 이 명칭을 ‘행복도시’라 부르고 있으며, 공식적인 도시 명칭이 부여되기 이전까지 행복도시(happy city)라는 별칭으로 통용되었다.

1) 도시의 입지 선정

우리나라는 근대화·공업화 시기의 성장위주 경제구조와 개발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도시에서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 극심한 교통과 주택문제, 열악한 생활환경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도시 문제에 대해 대안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도시계획은 자연환경이 보전되고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개발과 관리라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우선시 되고 있다.

〈표 26〉 행정중심복합도시 현황

행정구역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 등
면적	2,212만평(주변지역 6,769만 평)
목표인구	50만 명
인구밀도	300~500인/ha
지리특징	중심부에 원수산이 있으며,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점 대전과 청주로부터 10km 거리에 위치
교통요건	동쪽으로 경부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청주공항까지 24km, 서쪽으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현재의 장군면이 포함된 공주시의 일부와 연기군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 도시는 ‘행정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 되는 문화·정보도시’로 건설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선진도시 모델을 지향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정책으로 추진되었는데, 오는 2030년까지 인구 약 50만의 도시로 꾸민다는 장기적인 도시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계획도 자연환경의 보전과 함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생태계의 안정적인 순환구조가 유지되는 환경도시, 생태도시를 표방하였다.

참여정부의 출범 이전 이미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은 대선공약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었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사업이 본격적이 궤도에 오르기까지도 찬반을 두고 지리한 논쟁과 법적공방이 이어졌던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遷都)와 다르지 않다는 견해와 함께 충청권에서는 이전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특히 천도 논쟁은 과거 우리 역사에서 정치적 혼란기나 왕조교체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가불가(可不可)를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있기도 하였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는 신행정수도의 입지선정을 위해 상징성과 국민통합성, 중심성과 접근성, 환경성과 안전성 등에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충청권을 입지범역으로 설정하여 현황조사(2003. 6. 12)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기준, 즉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 필요성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는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00~2,500만 평 내외의 후보지’ 4개를 선정(2004. 6. 15)하였다.

4개의 후보지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충남 연기·공주지역이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등의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점수를 획득하였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는 수 차례의 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드을 거쳤으며, 2004년 8월 1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충남 연기·공주지역이 최종 입지로 심의·확정되었다.

〈표 27〉 신행정수도 후보지 개요

구분	위 치	
	면적	입지여건
가	충북 음성군(대소면, 맹동면), 진천군(덕산면)일원	
	약 2,340만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 북방 20km 지역에 위치 - 내부는 대부분 농지 및 낮은 구릉지 분포 - 동북쪽 외곽에 함박산(390m) 위치 - 중부고속도로 및 충북선(철도) 인접
나	충남 천안시(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일원	
	약 2,230만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부에 백운산(240m) 위치 - 경부고속도로가 후보지 내부를 관통 - 경부고속철도 및 경부선, 장항선 인접 - 천안에서 6km, 청주에서 13km, 독립기념관과 연결하여 위치
다	충남 연기군(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장기면)일원	
	약 2,160만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부에 전월산(260m) 위치 - 미호천과 금강 합류지점 위치 -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인접 - 대전, 청주에서 10km 지역에 위치
라	충남 공주시(계룡면), 논산시(상월면)일원	
	약 2,130만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성산(315m), 계룡산(829m)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 외곽에 천안·논산간 고속국도 및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인접 - 대전시 서쪽으로 13km 지역에 위치

출처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2005, 『2004년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백서』

신행정수도 후보지 입지평가에서는 기본평가항목인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에서 ‘지형의 안전성’, ‘자연환경의 양호성’, ‘경관’과 ‘배산임수’ 등의 세부평가 항목으로 풍수적인 측면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표 28〉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항목

기본평가 항목	가중치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가	나	다	라
국가균형 발전효과	35.95	인구분산 효과	9.83	23.02	25.18	31.85	30.62
		국민통합 효과	7.05				
		경제산업분산 효과	6.74				
		주변도시와의 연계발전효과	6.18				
		수도권 연담화 방지 효과	6.15				
국내외에 서의 접근성	24.01	도로접근성	11.08	16.77	19.44	21.43	17.99
		철도접근성	8.05				
		공항접근성	4.88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19.84	생태계 보전	9.25	13.75	14.75	18.40	14.78
		수질 영향	5.74				
		대기질 영향	4.85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요건	10.20	지형의 안전성	2.82	7.04	8.22	8.93	8.10
		도시유지관리의 효율성	2.56				
		자연환경의 양호성	2.20				
		경관	1.50				
		배산임수	1.12				
도시개발의 비용 및 경제성	10.00	광역기반시설 건설비용	2.86	6.29	7.43	8.35	8.88
		사업추진의 용이성	2.74				
		토지매입 비용	2.64				
		기개발지	1.76				
총 점				66.87	75.02	88.96	80.37
순 위				4	3	1	2

출처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2005, 『2004년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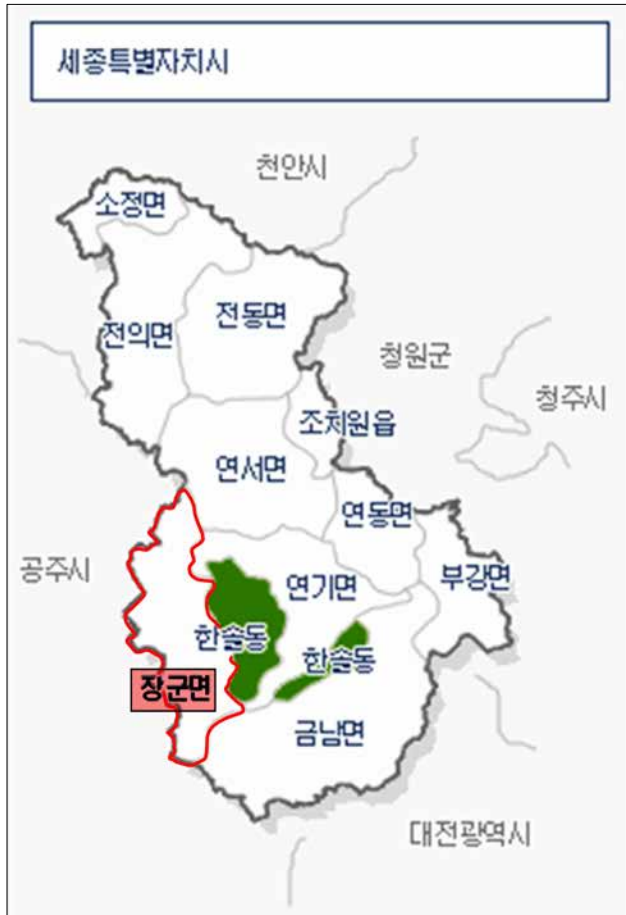
드넓은 금강변의 충적지인 장남평야와 대평들, 고도는 높지 않지만 낮은 구릉 지대에서는 심상치 않은 산형(山形)과 품세(品勢)를 갖춘 원수산(254m)과 전월산(260m)을 끼고 있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은 신행정수도의 입지선정에서 자연환경과 풍수적 요건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공주시 장기면·의당면에서 세종시 장군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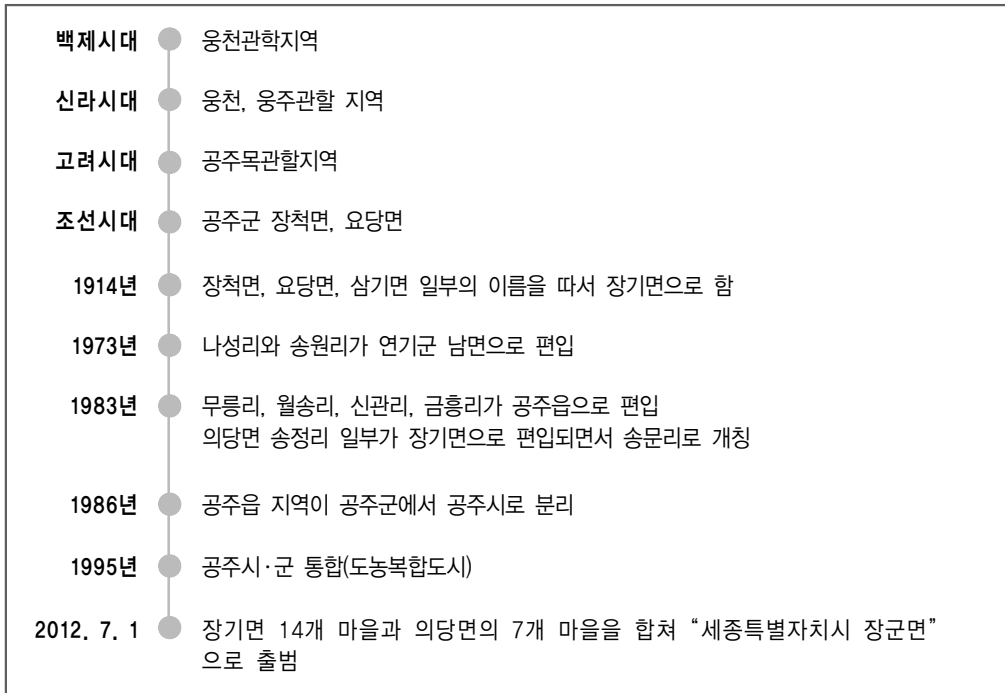
현재의 장군면(將軍面)은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의 면이다. 2012년 7월 1일 충남 공주시 관할이었던 장기면(長岐面)의 9개리와 의당면(儀堂面) 5개리가 합쳐져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다. 세종시에 편입되지 않은 장기면 3개리(석장리, 동현리, 송선리)는 공주시 월송동에 편입되었다.

금암리에 있는 주산이 봉우리가 장엄하여 장군의 기상이 있다하여 '장군산(將軍山)'으로 불리고 있으며, 세종시 명칭의 유래인 조선 세종 재위기에 6진을 개척하고, 조선 단종 때의 정승을 지내던 김종서 장군(將軍)의 출생지가 의당면이고 또한 그의 묘가 장기면 대교리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통합 대상인 의당면과 장기면 주민 간의 화합을 지향하고자 장군면(將軍面)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장군면의 이러한 변화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권 기능의 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할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논의를 기점으로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변화의 중심은 상술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인데,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부 행정 부처만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그림 13〉 세종특별자치시의 장군면



〈그림 14〉 현재 장군면의 연혁

2005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설립된 데 이어 ‘세종시’ 로 명칭을 확정하였다. 2010년 12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12년 6월 충청남도 연기군이 폐지되고 공주시와 청원군 일부를 흡수하여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현재의 장군면은 과거의 장기면과 의당면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이 장기면에 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기면의 경우 과거 충청남도 공주시 동부에 있었던 행정 구역으로, 2012년 7월부로 해당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과 한솔동,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으로 해체·편입되었다.

將軍面誌

제 3 장

행정과 정치

제1절 _ 행정구역

제2절 _ 행정조직 및 인력

제3절 _ 지방자치선거

행정과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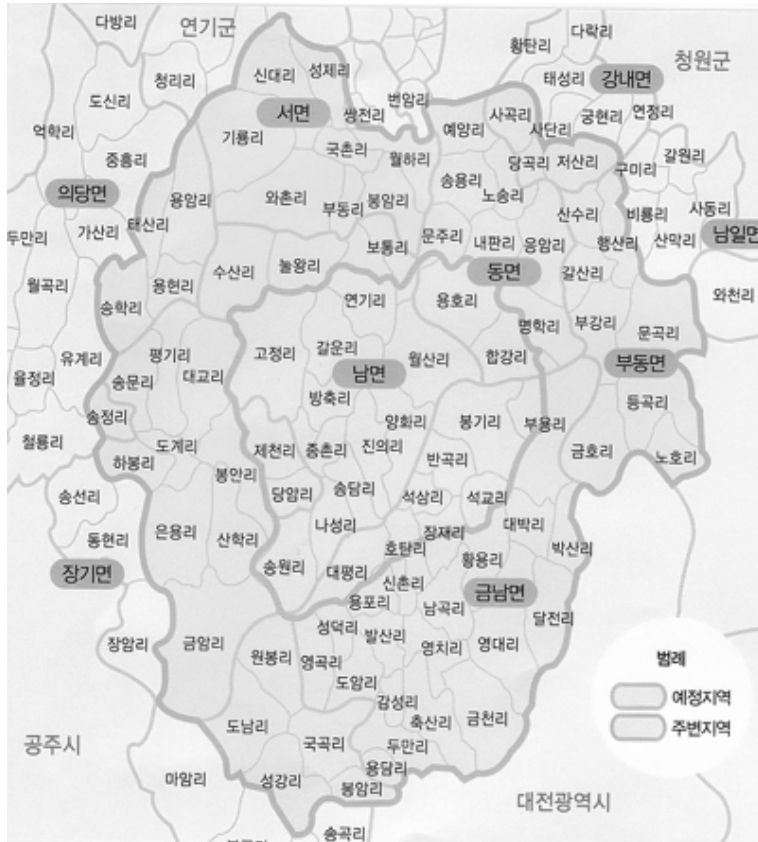
제1절 행정구역

1. 행정구역의 변천

장군면(將軍面)은 지리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남서부에 위치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와 연접하고 있다. 동쪽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과 한솔동, 서쪽은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남쪽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북쪽은 연서면에 접해 있다. 장군면은 2012년 7월 1일부로 기존에 있던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일부의 9개 리(16개 행정리)와 의당면의 5개 리(7개 행정리)를 포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1읍 9면 14동의 1면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장군면의 명칭은 종전의 장기면 금암리에 있는 주산이 봉우리가 장엄하여 장군의 기상이 있다하여 '장군산(將軍山)'으로 불리고 있는 데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세종대왕 재위 명장이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충신인 김종서(金宗瑞) 장군의 출생지가 의당면이고 김종서 장군의 묘지(세종특별자치시 기념물 제2호)가 장기면 대교리에 위치하고 있어 2개 면의 화합과 함께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의와 부락 지명의 유래와 상징성에 적합한 명칭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해졌다.

장군면으로 합쳐진 종전의 충남 공주시 장기면(長岐面)의 법정리는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은용리·산학리·금암리 9개리(16개 행정리)이고 의당면(儀堂面)의 리는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5개리(7개 행정리)이다. 이들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에 의해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을 2010년 12월 27일에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림 3〉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05. 5. 11)

1) 예정지역

□ 편입행정구역 : 2개 시·군, 5개 면, 33개 리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봉기리·석교리·석삼리 전지역, 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 일부 지역
	남 면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월산리·종촌리·진의리 전지역, 보통리·연기리 일부 지역
	동 면	용호리 전지역, 문주리·합강리 일부 지역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 지역
	반포면	원봉리 일부 지역

□ 면적 : 73.14km²(2,212만평), 필지수 : 31,723필지

※ 토지이용현황 : 전(10.1%), 답(22.9%), 대(2.4%), 임야(41.6%), 기타(23.0%)

2) 주변지역

□ 편입행정구역 : 3개 시·군, 9개 면, 74개 리

연기군	금남면	감성리·금천리·남곡리·달전리·대박리·도암리·두만리·박산리·발산리·영대리·영치리·용담리·축산리 전지역, 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 일부 지역
	남 면	눌왕리·수산리 전지역, 보통리·연기리 일부 지역
	동 면	내판리·노송리·명학리·송용리·응암리 전지역, 문주리·합강리·예양리 일부 지역
공주시	서 면	국촌리·기룡리·봉암리·부동리·신대리·와촌리 전지역, 성제리·쌍전리·월하리 일부 지역
	장기면	대교리·도계리·봉안리·송문리·은용리·평기리·하봉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 지역
	반포면	국곡리·도남리·봉암리·성강리 전지역, 원봉리 일부 지역
	의당면	송정리·송학리·용암리·용현리·태산리 전지역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금호리·노호리·등곡리·문곡리·부강리·산수리·행산리 전지역

□ 면적 : 223.77km²(6,769만평)

2. 행정구역의 현황

1) 장군면 관할구역

장군면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계승한 형태로서 현재 14개 법정리, 23개 행정리, 93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군면의 인구는 2013년 12월 현재 5,526명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인구 124,615명에서 4.43%를 차지하고 있다. 48,048명의 조치원읍, 24,231명의 한솔동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10,339명의 금남면, 7,895명의 연서면, 7,177명의 전의면, 6,937명의 부강면 다음의 다섯 번째로 면 지역 평균 인구 5,815명에 근접한 규모로서 면 지역에서는 중간 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적은 58.0km²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면적 465km²의 12.47%를 차지하고 있다.

장군면 관할구역 내 법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법정리(동) 139개에서 14개, 행정리는 전체 행정리(통) 277개에서 20개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장군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기타 읍면동의 관할구역

읍면동명	법정리(동)	행정리(통)	행정리(통) 관할 구역(자연부락)	반수
장군면	도계리	도계1리	안동네, 하풍, 중풍, 상풍 구도계, 장터, 시장, 참시닝골	6
		도계2리		4
	평기리	평기리	회동, 갯정말, 중터, 아랫말, 산소골	7
	대교리	대교1리	두루봉, 중뜸, 아랫말, 저건너 독골, 양달뜸, 음달뜸, 아랫말 주막거리, 구세골	3
		대교2리		4
		대교3리		3
	봉안리	봉안1리	위다름고개, 안기, 강신소, 월현 소미	3
		봉안2리		
	금암리	금암1리	정동, 사기정골, 외암리, 탁금정 정자동, 청벽전원마을, 경동전원마을	4
		금암2리		3
	하봉리	하봉1리	무넘이, 황골, 짐시닝골 하산, 할미터골, 동편말, 새뜸, 별신당, 구석골	4
		하봉2리		6
	은용리	은용1리	논골, 은골 구레실, 바탕골	2
		은용2리		3
산학리	산학리	장밭뜸, 행정, 병풍징이, 효제암, 비학실, 셋집매, 아랫뜸	7	
송문리	송문리	문제, 토끼자리, 성재골, 즈말, 원송정	6	
송정리	송정리	장고개, 아랫뜸, 윗뜸	3	
송학리	송학1리	몸티, 들말, 양지동, 요랑바위 언고개, 창말, 창고, 황미	4	
	송학2리		4	
용현리	용현리	양달, 솔번들, 참삭골, 음지말, 새뜸	2	
용암리	용암1리	평촌, 양달, 사장터, 허둥골, 작은축골, 작위동, 용복골 담안, 신산	4	
	용암2리		3	
태산리	태산리	승덕골, 행정, 음달말, 양달, 솔모랭이	5	
소 계	14	20		88
조치원읍	14	29		478
연기면	9	15		58
연동면	10	26		69
부강면	8	31		88
금남면	27	43		168
연서면	13	25		123
전의면	15	32		104
전동면	11	23		60
소정면	4	11		33
한솔동	14	22		180
합계	139	277		1,449

제2절 행정조직 및 인력

1. 면사무소 조직 및 업무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조직으로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을 두고 있다. 하부행정기관으로서 2013년 12월 현재 1읍·9면·14동을 두고 있는데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고 있다. 장군면은 그 면의 하나이다.

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생활민원처리,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면에는 면장을 두고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면장은 지방행정·농업·시설·사회복지사무관 직급으로 보하고 면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 위임사무와 함께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면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주민 여론·동향 및 리·반 관리·운영
3. 선거, 통계, 문화예술, 문화재 보호, 체육지원, 적십자회비 모금
4.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법정단체 육성 지원
5.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유재산 관리, 시장사용료 징수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주민생활지원, 장애인 등록관리, 보호대상자 관리, 사회복지, 방역, 자활지원사업, 불우이웃돕기,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
7. 노인·가정·여성·아동복지, 행여(환)자 및 사망자 처리, 부랑인 관리
8. 묘지관리, 자원봉사 운영, 청소년증 발급
9.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방위, 학사, 인감, 수형인명표 관리, 신원조회 회보, 제증명 발급 등
10. 생활폐기물 처리, 쓰레기 종량제 관련 사무
11. 옥외광고물,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공중화장실 관리
12. 농지관리, 농정, 농산, 과수·특작, 산림보호, 축산, 농산물 유통 등
1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14. 생활민원 기동처리, 기동봉사에 관한 사항



〈사진 1〉 장군면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개소식(2012.07.06)

현재 장군면사무소는 종전의 공주시 장기면사무소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400-1에 위치하고 있다. 면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면장 밑에 총무, 주민생활, 산업 담당을 두고 있다. 각 담당 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2〉 장기면사무소 업무 분장

담당	업무 내용
총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인사 복무관리 ○ 이장 인사 및 리·반 관리 ○ 선거 민원 업무 ○ 주민여론·동향 및 리·반 관리 ○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법정단체 지원 ○ 공보, 감사, 인사조직담당관실 업무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 통계관련 업무 ○ 민방위 업무 ○ 가족관계업무, 신원조회 업무 ○ 문화예술, 문화재보호 업무 ○ 회계, 예산, 물품관리 업무 ○ 체육지원 업무 ○ 제증명 발급 ○ 인감 관련 업무 ○ 주민등록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관련 업무 ○ 학사 관련 업무
주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업무(개장·매장신고 등) ○ 방역업무 ○ 불우이웃돕기 ○ 노인복지업무 ○ 여성가족(보육료, 한부모가정) ○ 아동·청소년업무 ○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 자활지원사업·차상위계층 관련업무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관리 ○ 기초노령연금 및 의료급여 ○ 보훈대상자 관리 ○ 긴급지원 업무 ○ 희망복지지원 및 서비스 연계업무 ○ 초·중·고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비 지원 ○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업무 ○ 국토대청결운동 ○ 옥외광고물 업무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취득자격증명원 발급 ○ 농지전용 신고업무 ○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 업무 ○ 농지경작사실확인 업무 ○ 지역개발사업 업무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 생활민원 기동처리업무 ○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 축산업무 전반 ○ 산림업무 전반 ○ 이륜차 등록업무 ○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소관업무

현재 총무 분야 7명, 주민생활 분야 7명, 산업 분야 4명으로 면장을 합쳐 19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다.

〈표 3〉 장군면 행정기구 및 인력(2014년 현재)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19	1	3	5	5	2	3
면장	1	1					
부면장	1		1				
총무	6			3	2	1	
주민생활	7		1		2	1	3
산업	4		1	2	1		

장군면에 편입된 종전의 공주시(군) 장기면 및 의당면의 역대 면장과 장군면의 면장은 다음과 같다.

〈표 4〉 공주시(군) 장기면 역대 면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재직기간
초대	이순하	1946.07.26	1947.03.19	8월
2대	이건홍	1947.03.20	1978.10.23	1년 7월
3대	이순하	1948.12.05	1954.02.11	5년 2월
4대	임민수	1954.02.12	1960.08.30	5년 10월
5대	박지현	1960.12.26	1961.12.26	1년
6대	유선호	1962.07.08	1966.06.10	4년 2월
7대	이순하	1966.06.20	1967.12.21	1년 6월
8대	홍종민	1968.01.01	1970.05.04	2년 4월
9대	김석구	1970.05.05	1971.09.17	1년 4월
10대	이병업	1971.09.18	1875.09.18	4년
11대	김석구	1975.09.20	1977.07.07	1년 10월
12대	전병수	1977.07.08	1980.07.07	3년
13대	이창우	1980.07.08	1985.12.31	5년 5월
14대	강인원	1986.01.01	1988.07.11	2년 7월
15대	고용주	1988.07.12	1991.01.18	2년 6월
16대	양병현	1991.01.21	1993.10.17	2년 10월
17대	이창주	1993.10.18	1995.05.19	1년 7월
18대	정용희	1955.05.20	1998.09.10	3년 4월
19대	김종화	1998.09.15	2000.01.09	1년 3월
20대	박선화	2000.01.11	2001.01.14	1년
21대	이학원	2001.01.15	2003.07.07	2년 6월
22대	류재선	2003.07.29	2005.01.17	1년 6월
23대	이석주	2005.01.18	2006.01.26	1년
24대	강근규	2006.01.27	2006.08.10	7월
25대	이동열	2006.08.11	2008.01.13	1년 5월
26대	양윤배	2008.01.14	2009.08.09	1년 7월
27대	원정희	2009.08.10	2011.07.17	1년 11월
28대	임재유	2011.07.18	2012.06.30	1년

〈표 5〉 공주시(군) 의당면 역대면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재직기간
1	이상정	1902. 03. 25	1910. 11. 02	7년 8월
2	심의섭	1910. 11. 10	1919. 05. 05	8년 6월
3	심환섭	1919. 05. 11	1928. 02. 02	8년 10월
4	서상혁	1927. 02. 27	1930. 11. 06	2년 9월
5	이의하	1930. 04. 07	1936. 09. 03	5년 5월
6	최창희	1936. 10. 01	1941. 08. 10	4년 10월
7	최병식	1941. 08. 16	1945. 08. 15	4년
8	이은봉	1945. 09. 01	1946. 09. 08	1년
9	이달하	1946. 09. 09	1956. 05. 14	9년 8월
10	이건신	1956. 06. 26	1961. 06. 26	5년
11	김석구	1961. 07. 08	1970. 05. 05	8년 10월
12	신현관	1970. 05. 05	1971. 09. 18	1년 4월
13	이필주	1971. 09. 18	1981. 09. 05	11년
14	서재흥	1981. 09. 05	1983. 06. 30	1년 9월
15	유석규	1983. 06. 30	1986. 02. 15	2년 8월
16	고용주	1986. 02. 15	1988. 07. 11	2년 5월
17	정원규	1988. 07. 11	1991. 07. 01	3년
18	강병주	1991. 07. 01	1993. 10. 17	2년 3월
19	김정한	1993. 10. 17	1994. 08. 02	10월
20	강병주	1994. 08. 02	1995. 11. 06	1년 3월
21	이창주	1995. 11. 07	1998. 09. 10	2년 10월
22	위기범	1998. 09. 11	2000. 01. 09	1년 3월
23	황우연	2000. 01. 09	2002. 08. 26	2년 8월
24	김영명	2002. 08. 27	2003. 02. 24	6월
25	박중현	2003. 02. 25	2004. 07. 15	1년 6월
26	이창휘	2004. 07. 15	2007. 06. 29	3년 1월
27	임종순	2007. 08. 01	2012. 02. 12	4년 6월
28	김종선	2012. 02. 13	2013. 12. 31	1년 11월

〈표 6〉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면장

대	성명	취임일	이임일	재직기간
초대	이종윤	2012. 07. 01	현재	

2. 리·반 조직 및 업무

면의 하부조직으로 리를 두는데 리의 구역은 자연 마을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리, 이른바 행정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군면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개의 법정리와 23개의 행정리가 있다.

이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이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항상 공익을 우선하여 주민을 지도하고 안팎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면장이 임명한다.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두고 있다. 반은 10 내지 100 가구로 구성하되 자연 마을, 취락형태,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장군면에는 88개의 반을 두고 있다.

반에는 반장을 두고 명예반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장 및 명예반장의 위촉은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항상 공익을 우선하여 반원을 지도하고 반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면장이 위촉한다.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다.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락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 장소 제공 및 준비
2. 행정 시책의 홍보 협조
3. 반원의 단합과 결속
4. 그 밖의 반 운영에 대한 협조

반장은 필요한 때에는 반회의를 개최하고, 이장은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 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반장은 면 공부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주민자치센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장군면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장군면 주민자치센터는 장군면사무소 내(세종시 장군면 장척로 400-1)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풍물교실, 요가교실, 노래교실, 건강댄스, 배드민턴, 헬스장, 차밍댄스 등 7개의 문화·복지·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기능보다는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

〈표 7〉 장군면 주민자치센터 일반현황

구분	내용
위치	세종시 장군면 장척로 400-1 (장군면사무소 내)
전화번호	044-301-5617
주민자치위원	28명 (위원 25명, 고문 3명)
주민자치프로그램	7개
시설현황	장군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216㎡), 1층 헬스장(98.7㎡), 장기초등학교 운동장, 강당

〈표 8〉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2013)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운영시기	비고
풍물교실	34	매주 목 15:00~17:00 매주 금 10:00~12:00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요가교실	30	매주 화 13:30~15:00 매주 목 13:30~15:00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노래교실	50	매주 월 14:00~16:00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건강댄스	20	매주 월 19:30~21:00 매주 목 19:30~21:00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배드민턴	20	월~토 19시	장기초교 강당
헬스장	20	월~토 9:00 ~ 20:00	면사무소 1층 헬스장
차밍댄스	20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장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면장은 당해 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나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현재 장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의 위원과 3명의 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기타 교육기관 및 주요 기업체

현재 장군면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및 주요 기업체는 다음과 같다.

〈표 9〉 장군면 소재 교육기관

기관명	위치	직원수	홈페이지
장기초등학교	장군면 장척로 398-9	22	http://janggi.es.kr
장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군면 장척로 398-9	2	http://janggi.es.kr
의랑초등학교	장군면 태산길 50-1	16	http://real.uirang.es.kr
의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군면 태산길 50-1	1	http://real.uirang.es.kr
장기중학교	장군면 장척로 359	24	http://jangki.ms.kr
한국영상대학	장군면 대학길 312	140 (외래강사제외)	http://www.pro.ac.kr

〈표 10〉 장군면 소재 주요 기업체

기관명	위치	직원수	홈페이지
아세아산업개발(주)	장군면 평기산양길 29-4	90	http://www.asiasan.co.kr
(주)남양유업	장군면 장기로 836-11	500	http://company.namyangi.com
동원유지(주)	장군면 산학리 144	30	-
아이월드(주)	장군면 금암리 510	40	-

제3절 지방자치선거

1. 지방선거 개관

1945년 건국 이래 201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크게 아홉 차례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별도로 실시되고 광역자치단체선거와 기초자치단체선거가 따로 치러진 경우가 많아 선거 건수는 모두 16건이 된다.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의 공식적 설치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새롭게 선출하는 선거가 2012년 4월 11일(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별도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으로 전환되면서 폐지된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충청남도 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종전의 지방선거까지를 포함하면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내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17건의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장군면은 1945년 건국 이래 현재까지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군) 장기면 및 의당면 일부 지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까지 포함하면 16건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56년 8월에 실시된 면장 선거 당시 공주군 장기면장 및 의당면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장기면장 및 의당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표 11〉, 〈표 12〉 참조). 첫 지방선거는 1952년 4월과 5월에 각각 치러진 면의원 선거 및 도의원 선거였다. 당시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서울특별시와 도, 그리고 시·읍·면으로 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시·읍·면장은 시·읍·면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반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지방선거로서는 1956년 8월의 면의원 선거 및 도의원 선거, 그리고 면장 선거가 있었다. 제2대 지방선거가 있기 6개월 전 1956년 2월에 시·읍·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지방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방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선거가 실시되는 8월까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은 8월

선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져 결국 현직 자치단체장을 60%나 유임시킨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공주군 장기면장 및 의당면장의 임기를 보았을 때 8월까지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면 및 의당면에서는 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고 지방의원 선거만 치러진 것으로 추측된다.

세 번째 선거는 1960년 12월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 과 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4·19혁명으로 집권하게 된 민주당 정부는 이승만 정부에 의해 1958년 임명제로 바뀌었던 시·읍·면장은 물론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개정했다. 이로써 건국 이래 처음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주민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의 관할구역이었던 공주군 장기면 및 의당면 일부지역에서도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결국 제1공화국에서 4건, 제2공화국에서 4건의 지방선거를 치른 셈이다.

그러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는 전면적으로 정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중단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91년에 가서야 지방의원 선거부터 부활하게 되었다. 자치단체장 선거는 몇 차례의 연기 끝에 1995년 4년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원 선거와 함께 전국동시선거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는데 자치단체장 선거는 1960년 이래 35년만의 일이었다. 이때의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였다. 제1, 2공화국 시대의 기초자치단체였던 읍·면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군의 하위 행정기관으로 전환되었다. 특별시와 직할시(현 광역시) 내의 자치구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로 신설되었다.

이후 3년 뒤인 1998년,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아래에서 다시 한 번 전국동시선거의 형태로 지방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6공화국 출범(1987년) 이후 세 번째의 지방선거였으며,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형태로는 두 번째 지방선거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과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6년, 다시 두 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10년 건국 이래 아홉 번째의, 전국동시지방선거로서는 제5차의 선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이었던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군 및 의당면 일부 지역에서도 선거가 치러졌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4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신설에 따른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가 별도로 실시되었다. 이 선거가 당시 신설 예정이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관할 구역에서 실시된 첫 지방선거였다.

〈표 11〉 장군면(중전 장기면 및 의당면) 지방자치단체 선거 실시연표

공화국	차수	선거명	선거일
제1공화국	제1차(제1대 지방의원 선거)	면의원 선거	1952.4.25
		도의원 선거	1952.5.10
	제2차(제2대 지방의원·단체장선거)	면의원 선거	1956.8.8
		도의원 선거	1956.8.13
제2공화국	제3차(제3대 지방의원·단체장선거)	도의원 선거	1960.12.12
		면의원 선거	1960.12.19
		면 장 선거	1960.12.26
		도지사 선거	1960.12.29
제6공화국	제4차(제4대 지방의원 선거)	군의원 선거	1991.3.26
		도의원 선거	1991.6.20
	제5차(제1회 지방의원·단체장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1995.6.27
		시 장 선거	
		도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제6차(제2회 지방의원·단체장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1998.6.4
		시 장 선거	
		도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제7차(제3회 지방의원·단체장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2002.5.30
		시 장 선거	
도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제8차(제4회 지방의원·단체장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2006.6.3	
	시 장 선거		
	도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제9차(제5회 지방의원·단체장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2010.6.2	
	시 장 선거		
	도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제1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2012.4.11.

2. 역대 지방선거 결과

1) 제1공화국 지방선거

(1) 제1차 지방선거(제1대 지방의원 선거)

6·25 한국전쟁 중 1952년 4월 25일(금) 면의원 선거, 5월 10일(토) 도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제1대 충남 도의원 선거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공주군 전역으로 이루어진 단일 선거구였으며 의원정수는 4명이었다. 공주군에서는 대한청년단 김영옥(金永沃), 민주당 엄대섭(嚴大燮), 자유당 김달수(金達洙), 민주당 성두기(成斗基) 4명이 당선되어 도의회 의원으로 진출하였다.

(2) 제2차 지방선거(제2대 지방의원·단체장선거)

1956년 8월 8일(수) 제2대 면의원 선거, 8월 13일(월) 제2대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2대 충남 도의원 선거는 당시 공주군에서는 4개 선거구로 나누어서 실시되었다. 4개 선거구로 구분한 것은 동년 7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1선거구 1인선출주의(소선거구제)와 지리교통관계를 고려하여 제정된 내무부령에 따른 것이었다. 공주군 장기면과 의당면은 정안면, 우성면과 함께 공주군의 제3선거구로 지정되어 박찬(朴璨)이 당선되었다.

2) 제2공화국 지방선거

제3차 지방선거(제3대 지방의원·자치단체장 선거)의 제3대 충남 도의원 선거는 1960년 12월 12일(월)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 앞서 동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공포하였으나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내린 것 외에는 도의원 선거에 관해서는 종전과 별로 다른 바가 없었다. 선거구도 4개 선거구로 제2대 도의원 선거구와 같고 공주군 장기면과 의당면이 속한 제3선거구에서는 박찬(신민당)이 당선되었다.

면의원 선거는 도의원 선거 일주일 후 1960년 12월 19일(월)에 실시되었고 면장 선거는 12월 26일(월)에 실시되어 역대 면장 임기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장기면장에는 박지현이, 의당면장에는 이건신이 당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대 충남 도지사 선거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와 함께 1960년 12월 29일(목)에 실시되었다. 선거구는 도 전역이었으며 5명의 후보자가 경쟁하였는데, 결국 신민당과 민주당의 각축전이었다. 선거결과 신민당의 이기세가 도지사로 당선되었다.

3) 제6공화국 지방선거

(1) 제4차 지방선거(제4대 지방의원 선거)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지방선거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1991년 3월 26일(화) 시·군·자치구선거가, 동년 6월 20일(목)에 시·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종류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시·군·자치구로 재분류됨에 따라 제1, 2공화국 시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읍·면은 군의 하위 행정기관으로서 읍·면 단위의 선거는 실시되지 않고 군 단위의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당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원 선거에는 정당 공천이 허용되었으나 시·군·자치구 기초의원 선거에는 선거법에 의해 정당 공천이 금지된 채 선거가 실시되었다.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속하는 종전의 공주군 장기면과 의당면은 읍·면 단위로 구분된 공주군 11개 선거구 가운데 각각 별개의 선거구로 구분되어 군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각 선거구별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형태로 후보자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비교다수득표제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공주군 장기면 선거구에서는 양동호(梁東鎬)가 당선되고 의당면에서는 전봉오(全鳳五)가 군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도의원 선거는 공주군의 경우는 3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민자당)이 3개 선거구에서 전부 당선되었다. 종전의 공주군 장기면과 의당면은 정안면 및 우성면과 함께 공주군 2선거구로 지정되어 민자당 출신 유재원(柳在元)이 당선되었다.

(2) 제5차 지방선거(제1회 지방의원·단체장 전국동시지방선거)

1994년에 이루어진 도농복합형 시·군 통합의 일환으로 공주시와 공주군이 19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공주군 장기면과 의당면도 공주시의 관할

구역이 되었다.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1995년 6월 27일(화) 지방의원 선거와 함께 자치단체장 선거가 동시선거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광역의회 의원선거에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고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에 한해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다른 선거에서는 정당 추천을 허용하였다.

공주시와 공주군이 통합된 후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선거는 19개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총 19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종전 공주시 장기면 선거구에서는 2명이 출마하여 양동호(梁東鎬)가 당선되고 의당면 선거구에서는 4명이 출마하여 전봉오(全鳳五)가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표 12〉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주시 장기면·의당면 시의원 당선자(1995년)

선 거 구	당 선 자
장기면	양동호(梁東鎬)
의당면	전봉오(全鳳五)

공주시장 선거에는 민자당, 자유민주연합(자민련) 후보 및 무소속 3명의 후보를 합쳐 전부 5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각축을 벌였다. 선거결과는 충청권을 휩쓴 자민련의 바람과 함께 과거 공주시장을 경험한 바 있는 자민련의 전병용 후보가 투표자수 중 50%에 가까운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되었다. 장기면 투표구에서는 3,807명의 투표자에서 전병용 후보가 2,142표를, 의당면 투표구에서는 2,916명의 투표자에서 전병용 후보가 1,176표를 얻어 5명 후보 가운데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충남 도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는 5개 선거구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5명 정원에 12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4개 선거구에서 자민련 후보가 당선되었다. 종전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은 정안면, 우성면과 함께 공주시 제4선거구에 속하여 자민련의 임길수(林吉洙)가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충남 도지사 선거는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후보 3명이 입후보하여 각축을 벌였으나 과거 관선 충남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자민련의 심대평(沈大平)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68%에 가까운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종전 공주시 장기면 투표구에서는 3,807명의 투표자에서 심대평 후보는 2,992표를, 의당면 투표구에서는 2,916명의 투표자에서 2,179표를 득표하여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되었다.

(3) 제6차 지방선거(제2회 지방의원·단체장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통합선거법의 부칙 조항에 따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8년 6월 4일(목)에 실시되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및 의원정수의 축소 이외에는 선거제도에 큰 변화 없이 치러졌다.

선거 결과는 전체적으로 집권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가 우세하였으나 대전·충남권에서는 공동 여당이었던 자민련이 우위를 보였다. 공주시의원 선거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17개 선거구로 나누어 총 17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장기면 선거구에서는 3명이 출마하여 양동호(梁東鎬)가 당선되고 의당면 선거구에서는 4명이 출마하여 이계주(李啓周)가 시의원으로서 당선되었다.

〈표 13〉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주시 장기면·의당면 시의원 당선자(1998년)

선 거 구	당 선 자
장기면	양동호(梁東鎬)
의당면	이계주(李啓周)

공주시장 선거에는 2명이 출마하였으나 현역 시장이던 자민련의 전병용 후보가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하였다. 장기면 투표구에서는 3,640명의 투표자에서 전병용 후보가 2,302표를, 의당면 투표구에서는 3,039명의 투표자에서 1,564표를 얻었다.

충남 도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는 2개 선거구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결국 1995년 선거 시의 5개 선거구보다 3개 선거구, 3명의 도의원 정수가 줄어든 셈이다. 이것은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원의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의원 선거구를 둘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광역의원의 수를 줄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주시의 선거결과도 충남권의 자민련 독주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2개 선거구 모두 자민련 후보가 큰 표차로 당선되었다. 종전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이 공주시 유구읍,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신관동, 금흥동과 함께 속한 공

주시 제2선거구에서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자민련 손재탁(孫在卓)이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충남 도지사 선거는 한나라당 한청수 후보와 자민련 심대평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예상 이상의 표차로 심대평 후보가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끝났다. 심대평 후보는 충남 전체 유효투표수 가운데서 85%에 가까운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공주시 지역에서는 심대평 후보에 대한 충남 평균 득표율을 웃도는 유효투표수의 90%에 육박하는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종전 공주시 장기면 투표구에서도 3,640명의 투표자에서 심대평 후보는 3,270표를, 의당면 투표구에서는 3,039명의 투표자에서 2,700표라는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4) 제7차(제3회 지방의원·단체장 전국동시지방선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2년 5월 30일(수)에 실시되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1인1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1인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된 것 외에는 선거제도에 큰 변화 없이 치러졌다.

선거 결과는 전체적으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우세하였으나 대전·충남권에서는 공동 여당에서 이탈한 자민련이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공주시의원 선거는 15개 선거구로 나누어 총 1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장기면 선거구에서는 4명이 출마하여 윤찬중(尹瓚重)이 당선되고 의당면 선거구에서는 2명이 출마하여 이계주(李啓周)가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표 14〉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주시 장기면·의당면 시의원 당선자(2002년)

선 거 구	당 선 자
장기면	윤찬중(尹瓚重)
의당면	이계주(李啓周)

공주시장 선거에는 3명이 출마하였으나 무소속의 윤완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장기면 투표구에서는 3,293명의 투표자에서 윤완중 후보가 1,278표를, 의당면 투표구에서는 3,084명의 투표자에서 1,312표를 얻었다.

충남 도의원 선거는 1998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는 2개 선거구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공주시의 선거결과도 충남권의 자민련 우세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2개 선거구 모두 자민련 후보가 당선되었다. 종전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이 공주시 유구읍,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신평동과 함께 속한 공주시 제2선거구에서는 2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자민련의 최운용이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충남 도지사 선거는 한나라당 박태권 후보와 자민련 심대평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져 심대평 후보가 당선, 3선에 성공하였다. 종전 공주시 장기면 투표구에서는 3,293명의 투표자에서 심대평 후보는 2,677표를, 의당면 투표구에서는 3,083명의 투표자에서 2,472표라는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5) 제8차(제4회 지방의원·단체장 전국동시지방선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6년 6월 3일(수)에 실시되었는데 선거구제와 정당 참여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기초의원선거에서 읍·면·동을 선거구로 하여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1명만 선출하던 소선거구제에서 각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까지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의 기준도 행정구역, 읍·면·동으로 하던 것을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편 그동안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있던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에까지 정당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선거 모두가 정당이 참여하는 형태로 치러졌다. 또한 광역의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1인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선거 결과는 전체적으로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 대전·충남권에서는 자민련을 탈당한 심대평 충남도 지사가 창당한 국민중심당이 강세를 보였다. 공주시 시의원선거구는 가, 나, 다, 라 선거구 4개 선거구로 확정되어 각각 2명, 3명, 2명, 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다. 종전의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은 공주시 신평동 및 정안면과 함께 공주시 라선거

구에 속했는데 9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열린우리당 박병수(朴炳洙), 국민중심당 고광철(高光喆), 국민중심당 이충열(李忠烈) 3명이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표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주시 라선거구 시의원 당선자(2006년)

소 속	당 선 자
열린우리당	박병수(朴炳洙)
국민중심당	고광철(高光喆)
국민중심당	이충열(李忠烈)

공주시장 선거에는 열린우리당 남상균, 한나라당 김선환, 국민중심당 이준원, 무소속 오영희, 무소속 조은호 5명이 출마하여 국민중심당의 이준원(李峻遠)이 당선되었다. 장기면 투표구에서는 3,043명의 투표자에서 이준원 후보가 1,355표를, 의당면 투표구에서는 3,037명의 투표자에서 1,577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하였다. 충남 도의원 선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는 2개 선거구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공주시의 선거결과는 충남권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인 국민중심당 후보가 2개 선거구 모두에서 당선되었다. 종전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이 공주시 유구읍,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신탄동과 함께 속한 공주시 제2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성식, 한나라당 오연근, 국민중심당 박공규, 무소속 심재정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국민중심당 박공규(朴公圭)가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충남 도지사 선거는 열린우리당 오영교, 한나라당 이완구, 민주노동당 이용길, 국민중심당 이명수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한나라당 이완구(李完九) 후보가 당선되었다. 공주시 장기면 투표구에서 3,042명의 투표자 가운데 이완구 후보는 965표를, 의당면 투표구에서는 3,037명의 투표자에서 849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 2개 면 지역에서는 국민중심당 이명수 후보가 각각 1,165표, 1,327표를 얻어 공주시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한 이완구 후보의 득표수를 앞섰다.

(6) 제9차(제5회 지방의원·단체장 전국동시지방선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0년 6월 2일(수)에 실시되었는데 시·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함께 치러진 것 이외에는 선거제도에 큰 변화 없이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는 전체적으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당선자 수나 득표율에서 엇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이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한나라당이 부진했던 반면에 야권이 상당히 선전했다고 할 수 있다.

대전·충남권에서는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공주시 시의원선거구는 지난 제4차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와 동일하게 가, 나, 다, 라 선거구 4개 선거구로 획정되어 각각 2명, 3명, 2명, 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졌다. 종전의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은 공주시 신관동 및 정안면과 함께 공주시 라선거구에 속했는데 한나라당 박병수, 자유선진당 오연근, 자유선진당 고광철, 자유선진당 김규영, 국민중심연합 이충열, 국민중심연합 최현명, 무소속 박정원, 무소속 이민영 8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한나라당 박병수(朴炳洙), 자유선진당 고광철(高光喆), 국민중심연합 이충열(李忠烈) 3명이 다시 당선된다.

〈표 16〉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주시 라선거구 시의원 당선자(2010년)

소 속	당 선 자
한나라당	박병수(朴炳洙)
자유선진당	고광철(高光喆)
국민중심연합	이충열(李忠烈)

공주시장 선거에는 한나라당 김학현, 민주당 김선환, 자유선진당 오시덕, 국민중심연합 이준원 4명이 출마하여 국민중심연합의 이준원이 당선, 재선에 성공하였다. 장기면 투표구에서는 2,649명의 투표자에서 이준원 후보가 810표를, 의당면 투표구에서는 2,969명의 투표자에서 1,212표를 얻었다. 장기면에서는 오시덕 후보가 977표를 얻어 이준원 후보를 앞섰다.

충남 도의원 선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는 2개 선거구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공주시의 선거결과는 충남권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인 자유선진당 후보가 2개 선거구 모두에서 당선되었다. 종전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이 공주시 유구읍,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신관동과 함께 속한 공주시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김명희, 자유선진당 조길행, 국민중심연합 박공규 3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자유선진당 조길행(趙吉行)이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충남 도지사 선거는 한나라당 박해춘, 민주당 안희정, 자유선진당 박상돈 3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민주당 안희정(安熙正)후보가 당선되었다. 종전 공주시 장기면 투표구에서 2,651명의 투표자에서 안희정 후보는 1,255표를, 의당면 투표구에서는 2,969명의 투표자에서 1,40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하였다.

4) 제1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

2012년 7월 1일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식적 설치에 앞서 제1대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2012년 4월 11일(수)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졌다.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으로 지정된 당시의 충청남도 연기군, 충청남도 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확정되어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속하는 지역 주민들이 공주시의 다른 행정구역과 분리되어 신설 예정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일 선거구에 포함되어 선거를 실시한 것은 이 선거가 처음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이때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임기는 2년간,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다.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선거준비와 실시 및 보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초로 실시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의 선거관리는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했는데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충청남도 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충남 연기군의회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충청남도 공주시의회 의원과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청북도 청원군의회의원과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이 경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따로 실시하지 않고 집행기관인 시장 선거만 치러지게 된 것이다.

제1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에는 새누리당 최민호,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이춘희, 자유선진당 유한식 3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유한식(俞漢植) 전 연기군수가 당선되었다. 59.1%의 투표율로 최민호 후보가 유효투표수 46,452표 가운데 9,716표로 20.9%, 이춘희 후보가 17,349표로 37.3%, 유한식 후보가 19,387표로 41.7%를 획득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공주시 장기면의 투표구에서는 유효투표수 1,955표 가운데 최민호 후보가 510표로 26.1%, 이춘희 후보가 839표로 42.9%, 유한식 후보가 606표로 31.0%를 획득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된 의당면 투표구에서는 유효투표수 404표 가운데 최민호 후보가 107표로 26.5%, 이춘희 후보가 144표로 36.0%, 유한식 후보가 153표로 37.9%를 획득하였다

〈표 17〉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 개표 결과

읍면동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최민호 (새누리당)	이춘희 (민주통합당)	유한식 (자유선진당)	계
합계	80,059	47,346	9,716	17,349	19,387	46,452
국내 부재자투표	2,215	2,002	452	718	652	1,822
공주시 장기면	3,452	1,993	510	839	606	1,955
공주시 의당면	665	415	107	144	153	404
조치원읍	32,592	18,705	3,943	7,147	7,405	18,495
동면	3,396	1,953	311	577	1,001	1,889
서면	6,458	3,994	689	1,338	1,909	3,936
남면	5,824	3,742	623	1,977	1,089	3,689
금남면	8,056	4,737	736	1,780	2,134	4,650
전의면	5,622	3,004	611	682	1,660	2,953
전동면	3,274	1,917	441	438	1,000	1,879
소정면	2,345	1,294	253	278	735	1,266
공주시 반포면	848	485	155	155	159	469
청원군 부용면	5,312	3,105	885	1,276	884	3,045

4. 지방의회의원 승계 및 선거구 획정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는 실시되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의해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장군면으로 새롭게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이 속해 있었던 공주시 라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충열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을 선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임기는 다른 지역 의회 의원과 동일하게 2014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지역선거구 의원 정수 13명, 비례대표의원 정수 2명 등 시의회의원의 정수가 15명인데 이를 바탕으로 지역선거구가 2014년 1월 13개 선거구로 획정되었다.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된다. 장군면은 제8선거구 단일 선거구로 지정되었다.

〈표 18〉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지역선거구(2014)

선거구	행정구역
제1선거구	조치원읍(원리,상리,평리,교리,정리,명리,남리)
제2선거구	조치원읍(서창리,신안리,침산리)
제3선거구	조치원읍(신흥리,봉산리)
제4선거구	조치원읍(죽림리,번암리)
제5선거구	연기면, 연동면
제6선거구	부강면
제7선거구	금남면
제8선거구	장군면
제9선거구	연서면, 전동면
제10선거구	전의면, 소정면
제11선거구	한솔동 9동~21동
제12선거구	한솔동 1동~8동, 22동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포함)
제13선거구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포함)

將軍面誌

제 4 장

산업과 경제

제1절 _ 산업

제2절 _ 주택 및 환경

제3절 _ 관광산업

산업과 경제

제1절 산업

1. 지역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12년 기준 세종시 사업체조사에 의하면 지역별 사업체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체 수는 6,640개, 종사자 수는 4만 6,512명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산업별 사업체 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23.3%, 도매 및 소매업이 2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2.1%, 제조업이 10.2%, 운수업이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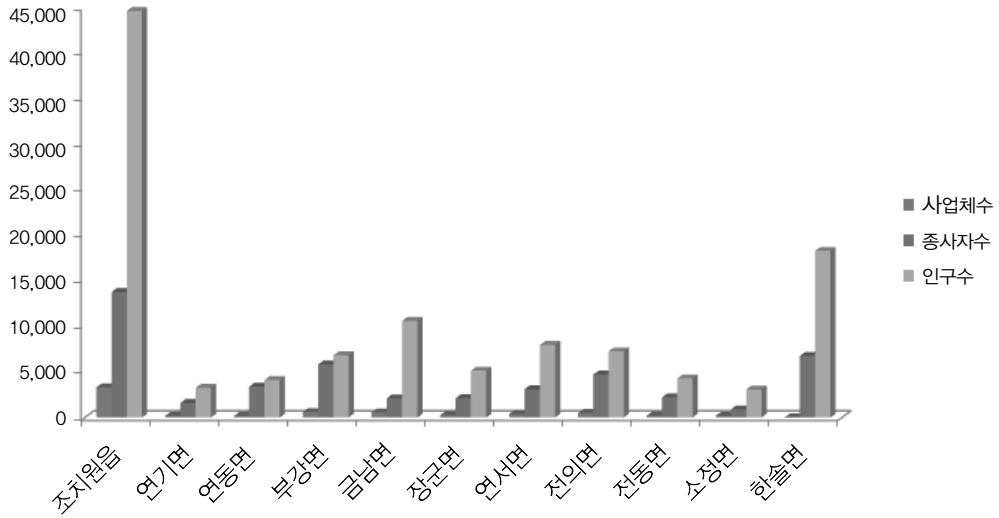
산업별 종사자수는 제조업이 35.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15.1%, 교육 서비스업이 8.7%, 도매 및 소매업이 8.6%, 숙박 및 음식점업이 7.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읍면동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사업체수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조치원읍이 3,309개(49.8%)로 가장 많고, 이어 한솔동 609개(9.2%), 금남면 572개(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종사자수는 조치원읍이 13,761명(29.6%)으로 가장 많고, 한솔동 6,751명(14.5%), 부강면 5,817명(12.5%), 전의면 4,719명(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 장군면 총 사업체의 현황

장군면 사업체수는 총 261개(3.9%)로 나타났으며, 총 종사자수는 2,126명(4.6%)로 나타났다. 장군면의 경우 세종시 전체 지역별 사업체수 6번째, 종사자수는 7번째로 나타났다.



〈그림 1〉 세종시 읍·면·동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2년)¹⁾

〈표 1〉 장군면 사업체수, 종사자수(2012년)²⁾

(단위: km^2 , 개, 명, %)

구분	면적		주민등록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면적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합계	464.8	100.0	115,388	100.0	6,640	100.0	46,512	100.0
조치원읍	13.7	2.9	44,569	38.6	3,309	49.8	13,761	29.6
연기면	43.9	9.4	3,260	2.8	183	2.8	1,599	3.4
연동면	28.3	6.1	4,114	3.6	177	2.7	3,392	7.3
부강면	27.8	6.0	6,823	5.9	609	9.2	5,817	12.5
금남면	78.1	16.8	10,603	9.2	572	8.6	2,113	4.5
장군면	53.2	11.4	5,149	4.5	261	3.9	2,126	4.6
연서면	54.6	11.7	7,958	6.9	398	6.0	3,110	6.7
전의면	62.4	13.4	7,264	6.3	507	7.6	4,719	10.1
전동면	57.7	12.4	4,294	3.7	222	3.3	2,227	4.8
소정면	16.5	3.5	3,075	2.7	192	2.9	897	1.9
한솔동	28.6	6.2	18,279	15.8	210	3.2	6,751	14.5

1) 자료: 2012년 기준 세종시 사업체조사 보고서(2012).

2) 앞의 보고서.

2. 장군면 지형과 농업

〈표 2〉 장군면 농업여건

농업여건	
경지면적	전- 4.5km ² / 답- 9.5km ² / 임야- 36.0km ² / 기타- 8.0km ²
농가호수	1,256호/ 농업경영인(후계자)- 69명
주요생산물	고추, 밤, 딸기, 오이, 느타리버섯
농산물유통 및 영농지원시설	영농자재백화점(1), 경제사무실(1), 저온저장고(1), 양곡창고(2), 하나로 마트(1), 농기계보관창고(2)
주요 소득기반	농·축산업, 딸기, 느타리버섯, 감자, 축산(한우/ 낙농)농가

현재 장군면의 농업여건을 보면 경지면적으로 전 4.5km², 답 9.5km², 임야 36km², 기타 경지 8km²을 차지하고 있다. 농가호수는 1,256호이며 농업경영인은 69명이다. 주요생산물로는 고추, 밤, 딸기, 오이, 느타리버섯으로 나타났다.

장군면 농업의 농산물유통 및 영농지원시설로는 영농자재백화점 1개소, 경제사무실 1개소, 저온저장고 1개소, 양곡창고 2개소, 하나로마트 1개소, 농기계 보관창고가 2개소로 나타났다.

장군면 농업의 주요 경제소득기반으로는 농·축산업, 딸기, 느타리버섯, 감자, 축산(한우/낙농)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타지역의 농업경제활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상공업 현황

1) 장군면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현황

(1) 전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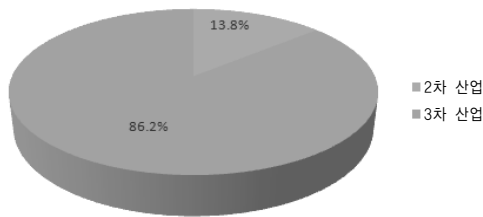
제 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를 적용하여 실시한 사업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군면의 전 사업체수는 261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2,126명으로 나타났다.

2차 산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36개로 장군면 전체 산업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950명으로 장군면 전체산업 종사자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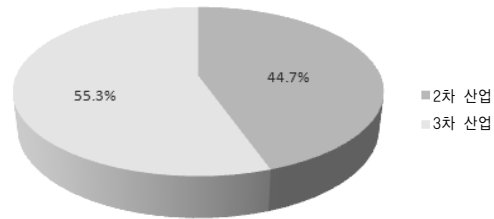
40.2%를 차지한다.

3차 산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225개로 장군면 전체 산업의 86.2%를 차지하고 있으며,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1,176명으로 장군면 전체산업 종사자수의 55.3%를 차지한다.

장군면의 경우 2차 산업 비중이 전체산업의 13.8%로 매우 낮으나 2차 산업에 종사는 종사자수는 절반에 가까이 차지하여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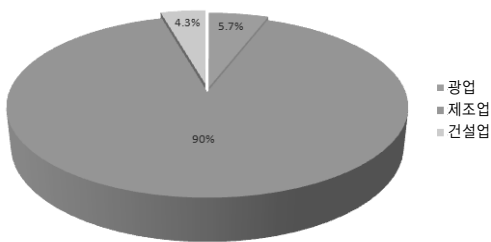
〈그림 2〉 산업 별 사업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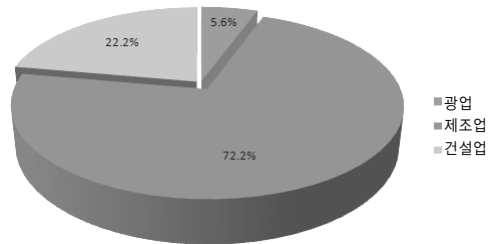
〈그림 3〉 산업 별 종사자수 비율

2) 장군면 2차 산업

장군면의 2차 산업은 크게 광업, 제조업, 건설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산업 사업체 수는 36개(13.8%)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950명(44.7%)으로 나타났다.



〈그림 4〉 2차 산업 업종별 종사자비율



〈그림 5〉 2차 산업 업종별 사업체비율

장군면 2차 산업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업 사업체 수는 2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54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사업체 수는 28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855명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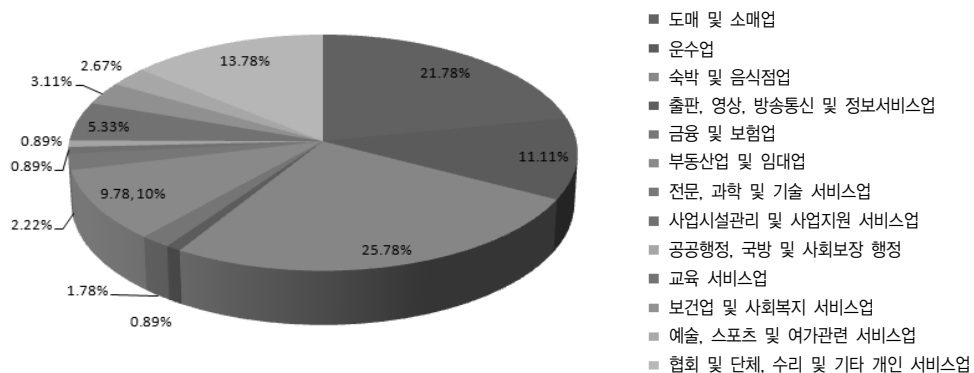
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식물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업체 수는 8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48명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건물 건설업,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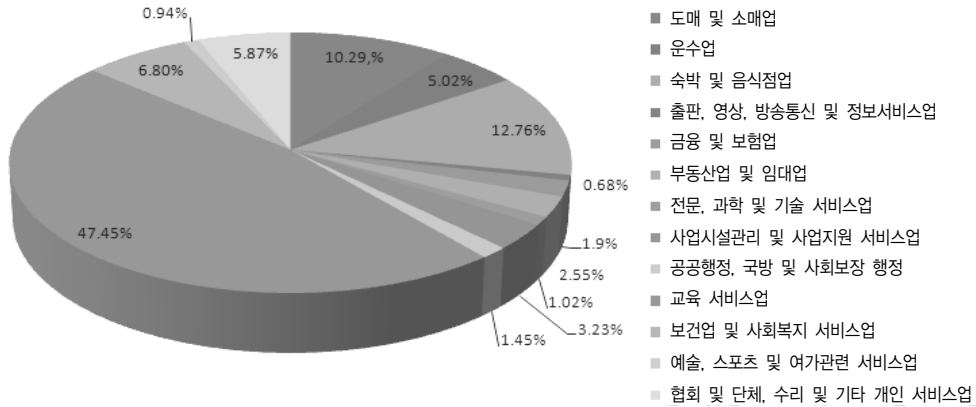
장군면 전산업 종사자중 제조업 종사자수가 855명(40.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남양유업(주) 세종공장의 영향으로 보인다.

3) 장군면 3차 산업

장군면의 3차 산업은 크게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3차 산업 사업체 수는 225개(86.2%)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1,176명(55.3%)으로 나타났다.



〈그림 6〉 3차 산업 업종별 사업체비율



〈그림 7〉 3차 산업 업종별 종사자비율

장군면 3차 산업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수는 49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121명으로 나타났다. 업종의 세부를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기타 전문 도매업,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연료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으로 확인되었다.

운수업 사업체 수는 25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59명으로 파악되었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육상 여객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확인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수는 58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150명으로 파악되었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숙박시설 운영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으로 확인되었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8명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라디오 방송업, 우편업으로 확인되었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는 4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23명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은행 및 저축기관, 기타 금융업으로 확인되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체 수는 22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30명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으로 확인되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5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12명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으로 나타났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38명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사업체 수는 2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17명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12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558명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일반 학습 학원, 기타 교육기관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의 종사자수는 한국영상대학교의 영향으로 보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7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80명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병원,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으로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6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31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69명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기타 협회 및 단체,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4) 장군면 상공업 현황

(1) 건설업 현황

〈표 3〉 장군면 건설업체 현황(2014년 3월 현재)³⁾

종별	업체명	종목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	에스앤지하우징건설	건설	도계리 18-1	044-857-6909
	송백건설	건설	봉안리 189-2	044-863-3900
	성신종합건설	건설	도계리 226-1	044-868-7102
	고운종합건축사사무소	건설	은용리 121-5	044-866-0825
	중안준설	건설	금암리 380-2	044-854-1652
	한국도로공사 서세중영업소	건설	하봉리 177	044-881-2504
	묘향산조경	조경	하봉리 37-20	010-3453-8194
	푸른숲	주택	봉안리 448-10	044-866-5542
	영조주택	주택	금암리 259-1	044-857-2090
	그린철거환경산업	해체	금암리 82-1	042-484-7491
	남영전기공사	배관	도계리 6-1	044-864-6600
	세종설비	배관	도계리 359-21	044-853-9404
	세종전기공사	전기	은용리 121-5	044-866-6801
	장군건설기계조합	중장비	은용리 121-5	044-865-0440
	SUP 건축사사무소	설계	금암리 314-81	044-863-5842
	NEW정우건축사사무소	설계	도계리 163-15	044-864-7741
	종합건축사사무소정림	설계	봉안리 341	044-864-4001
	목림(주)	조경	도계리 41-2	044-868-7848
	(주)대건시스템즈	전기	도계리 154-13	044-863-7945
	대성전력(주)	전기	도계리 156-16	041-734-5944
	대한산업(합자)	배관	도계리 154-8	02-426-2180
	브이이엔지(주)	배관	은용리 121-5	070-4147-0680
	선샤인파워(주)	전기	도계리 359-26	044-858-2366
	성산전기(주)	전기	도계리 52-8	062-956-0654
	(주)우진전력	배선	도계리 154-16	044-864-5711
	우진건설(주)	토목	봉안리 176-1	041-858-9495
	(주)일경건설	조경	도계리 176-2	041-331-2360
	(주)태성에너지	전기	도계리 163-15	041-858-3677
	하남전기개발(주)	전기	도계리 163-6	044-863-5601
	(주)한솔공영	토목	은용리 121-4	044-863-8404

3) 자료: 대전상공회의소 지역기업체현황, 포털사이트 서칭(장군면 건설, 토목, 건축, 중장비, 설비)

(2) 제조업체 현황

〈표 4〉 장군면 기업체 현황⁴⁾

기업체명	소재지	주생산품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종사자수
(주)공간21	장군면 송문1길 118-20	인조석	5,964	994	3
(주)나라엔텍	장군면 산학리길 354	현미효소	2,821	966	9
(주)동원유지	장군면산학리길139	사료, 유지	3,364	1,771	8
(주)부흥산업	장군면 송문1길 118-20	맨홀 및 시멘트관련제품, 페인트희석제	5,964	1,658	9
(주)새 참	장군면 의당전의로 611-10	오리훈제 바베큐	6,179	1,028	34
(주)신우종합상사	장군면 소미길 11	용접철망	-	375	4
(주)쌍기산업	장군면의당전의로603	화장지	10,290	1,844	20
(주)쌍마산업	장군면 당암길 46	스텐레스수세미	2,314	373	8
(주)아주에프아이	장군면 풍덕골길 3	막구조물	2,782	663	5
(주)영평식품	장군면 영평사길 93	죽염, 장류	2,033	985	11
(주)자연나라	장군면월현윗길96-3	발아현미	5,190	821	5
(주)한발비료	장군면 용연로 300-12	유기질비료	11,062	5,679	10
간찬산업개발	장군면 하봉리 147-4	특장차부품 및 철구조물제품	1,435	495	3
공주아스콘(주)	장군면산학리길228-22	아스콘	9,781	1,085	4
남양유업(주) 세종공장	장군면 장기로 836-11	분유, 우유, 저온살균유	88,475	43,980	500
대성아스콘(주)	장군면 평기산양길 29-4	아스콘	1,970	448	6
대화식품	장군면 당암길 46	냉면	-	192	3
세종바이오	장군면용연로300-21	수토 원예용 상토 및 토양개량제	4,519	1,466	10
아세아레미콘(주)	장군면 평기산양길 29-4	레미콘	7,450	1,678	10
아세아산업개발(주)	장군면 평기산양길 29-4	레미콘제조	116,510	8,301	45
장군산한우영농조합법인	장군면산학리길343	사료	4,001	1,170	11
정도에너지(주)	장군면 활미터길 34-11	태양광모듈, 태양광구조물	1,438	768	15
제이디물산	장군면 금송로297-76	포장목, 동목	18,832	582	10
주식회사 아세아산업	장군면 평기산양길 29-4	VR관, 콘크리트블록	10,300	3,375	17
중우산업	장군면 소미길 11	열식살균기, 열식고압살균기	4,477	317	2
햇살식품	장군면 외암길 109	참기름, 들기름, 향미유	890	320	2
성문기획	장군면 장척로 499-11	인쇄물	459	186.23	2
주현기획	장군면 풍덕골길 21-13	인쇄물	1,605	803.8	9

4)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2014년 1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기업체 현황).

〈표 5〉 기타제조업⁵⁾

업체명	업종	소재지	연락처
아이월드(주)	안경렌즈제조	금암리 510	044-858-8990

(3) 식품위생업소 현황

〈표 6〉 장군면 일반음식점 시설⁶⁾

업체명	업종	소재지	연락처
정 든 토 담 집	한식	봉안리 43-3	044-858-2432
한 우 장 군	한식	산학리 7-5	044-856-3468
꿈 의 성	중식당	도계리 156-13	044-852-1588
베 스트 리 아 치 킨	치킨전문	도계리 154-13	044-857-4994
장 원 가 든	한식	도계리 174-5	044-857-2377
또 와 갈 비	한식	금암리 391-8	044-862-9288
경 희 네 손 칼 국 수	한식	대교리 560-1	044-858-9207
미 가	한식	평기리 169-2	044-865-0267
차 우 차 우 짬 뽕	중식당	봉안리 382-1	044-857-4575
영 인 식 당	한식	송학리 68-6	044-856-1112
소 품 나 온 오 리	한식	송학리 126-6	080-525-5251
초 당 칼 국 수	한식	금암리 473	044-856-4331
우 리 집	한식	금암리 387	044-858-2296
초 향 각	중식당	봉안리 380-5	044-867-0901
담 두 만 두 공 주 지 점	분식	도계리 18-1	044-857-1178
낙 원 기 사 식 당	한식	송학리 70-5	044-852-0422
별 미 횃 집	일식	도계리 154-17	044-857-2199
함 바 식 당	한식	산학리 141-12	044-857-0316
청 벽 소 나 무 골	한식	금암리 357	044-858-3384
호 돌 이 산 장	한식	평기리 213	044-856-6860
비 단 내	한식	태산리 103	044-867-3012
동 현 식 당	한식	도계리 90-7	044-853-1562
장 군 해 장 국 집	한식	은용리 36-1	044-868-5329

5) 자료: 대전상공회의소 지역기업체현황.

6) 자료: 포털사이트서칭(장군면 음식점, 식당).

장 원 본 가	한식	송문리 253-1	044-867-8867
아 리 랑 순 대 국 감 자 탕	한식	도계리 160-51	044-857-5999
능 라 도 1 호	분식	봉안리 189-2	044-864-3399
사 랑 방 식 당	한식	도계리 156	044-857-1343
금 강 농 원	한식	금암리 142-3	044-858-1518
산 청	한식	은용리 419-3	044-858-2184
용 자 네 순 두 부	한식	도계리 18-7	044-868-2628
오 가 네	한식	은용리 121-5	044-863-5292
고 향 식 당	한식	도계리 163-9	044-854-6181
신 흥 식 당	중식당	도계리 156-4	044-857-1278
장 총 동 족 발 2 0 0 2	한식	금암리 203-2	044-854-8277
돈 먹 고 돈 내 기	한식	금암리 203-2	044-854-9282
무 조 건 회 센 터	일식	도계리 160-55	044-855-0099
배 부 른 생 오 리	한식	도계리 89	044-864-1152
영 상 식 당	한식	금암리 203-1	044-856-8578
현 대 회 관	한식	도계리 174-10	044-862-2737
용 봉 식 당	한식	도계리 20	044-857-1171
장 기 정 육 식 당	한식	도계리 154-16	044-857-2066
대 광 식 당	한식	도계리 154	044-856-1601
민 속 식 당	한식	금암리 71	044-862-2139
대 흥 식 당	한식	금암리 203-1	044-856-1566
서 해 어 부 가	일식	도계리 204-2	044-852-8235
영 상 관	중식당	금암리 226-1	044-881-8802
선 영 식 당	한식	대교리 587-1	044-858-8523
연 기 회 관	한식	도계리 156	044-857-1256
산 촌	한식	산학리 67	044-857-1845
들 마 루 가 든	한식	봉안리 255	044-863-5444
부 일 가 든	한식	봉안리 437-1	044-857-8834
이 바 돔 농 원 가 든	한식	대교리 102	044-857-1079
은 용 골 농 장 가 든	한식	은용리 419-3	044-858-5292
금 암 가 든	한식	금암리 263-4	044-856-1444

〈표 7〉 장군면 휴게음식점 시설⁷⁾

업체명	업종	소재지	연락처
행운다실	다방	도계리 154-17	044-857-2803
정다방	다방	도계리 154	044-857-1439
지하다방	다방	도계리 154-26	044-858-1122
중앙다방	다방	도계리 169-1	044-858-2220
백마호프	호프	도계리 156-10	044-856-8599

(4) 공중위생업소 현황

〈표 8〉 장군면 공중위생업소 시설⁸⁾

업체명	업종	소재지	연락처
시장이용원	미용실	도계리 154	044-857-1142
대흥이용원	미용실	도계리 154-56	044-857-1402
커파니저미용실	미용실	도계리 154-8	044-856-3125
신세대미용실	미용실	도계리 156-4	044-856-0808
박미숙헤어샵	미용실	도계리 154-2	044-857-0939

(5) 에너지 판매저장시설 현황

〈표 9〉 장군면 에너지 판매저장 시설⁹⁾

업체명	취급품	소재지	연락처
남양대영주유소	주유소	봉안리 190-3	044-856-5175
장기주유소	주유소	도계리 156-3	044-857-3334
송학주유소	주유소	송학리 66-1	044-854-1835
공주휴게소대전주유소	주유소	봉안리 315-5	010-9223-3734
동양고속가스	가스판매	산학리 139	044-853-2588
(주)한발종합에너지	가스판매	도계리 42-8	044-866-2447
대영에너지(주)	유류도매	봉안리 190-4	044-852-5183

7) 자료: 포털사이트서칭(휴게음식점, 다방, 카페, 다실 찻집, 호프).

8) 자료: 포털사이트서칭(장군면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실).

9) 자료: 대전상공회의소 지역기업체현황, 포털사이트서칭(장군면 주유소, 유류, 가스).

(6) 운수업 현황

〈표 10〉 장군면 운수업¹⁰⁾

업체명	업종	소재지	연락처
대 영 운 수 (주)	화물운송	봉안리 190-4	044-866-5182
웅 진 택 시 (합 자)	택시운송	송학리 144	041-855-5710
한 일 여 객 (합 자)	택시운송	송학리 144	041-855-5710

(7) 통신업 현황

〈표 11〉 장군면 통신업¹¹⁾

업체명	업종	소재지	연락처
(주) 상 도 정 보 통 신	통신	용암리 117-2	041-855-7715
(주) 아 워 스 정 보	통신	도계리 154-8	042-273-4268

(8) 병의원, 약국 현황

〈표 12〉 장군면 병의원¹²⁾

업체명	구분	소재지	연락처
공 주 세 증 요 양 병 원	병원	하봉리 441-5	881-1711
우 리 들 의 원	의원	도계리 154-1	857-2345
행 복 한 의 원	한의원	도계리 154-56	856-0075
장 군 면 보 건 지 소	보건지소	장기초교길 11-1	301-2251~4
송 학 보 건 진 료 소	보건진료소	황미창말길 5-4	852-0564
장 기 약 국	약국	장척로 405-2	857-1700
참 빛 약 국	약국	장척로 402-1	881-9543

10) 자료: 대전상공회의소 지역기업체현황.

11) 자료: 대전상공회의소 지역기업체현황.

12)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5) 자동차 등록현황¹³⁾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4년 3월 현재 총 5만 2천 889대다. 이는 광역시 출범 당시인 2012년 7월 1일(3만7천2대)보다 무려 42.9%(1만5천887대)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시 주민등록 인구는 10만3천127명에서 12만2천153명으로 18.4%(1만9천 26명) 늘었다. 결국 차량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무려 24.5%포인트 높은 셈이다.

현재 세종시민은 2.3명 당 자동차를 1대꼴로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평균 가구 원수 2.44명) 당 1대가 넘고, 전국 평균(2.6명당 1대)보다도 보유율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장군면에 대한 추이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3〉 세종시 읍면동별 차량 등 현황

(단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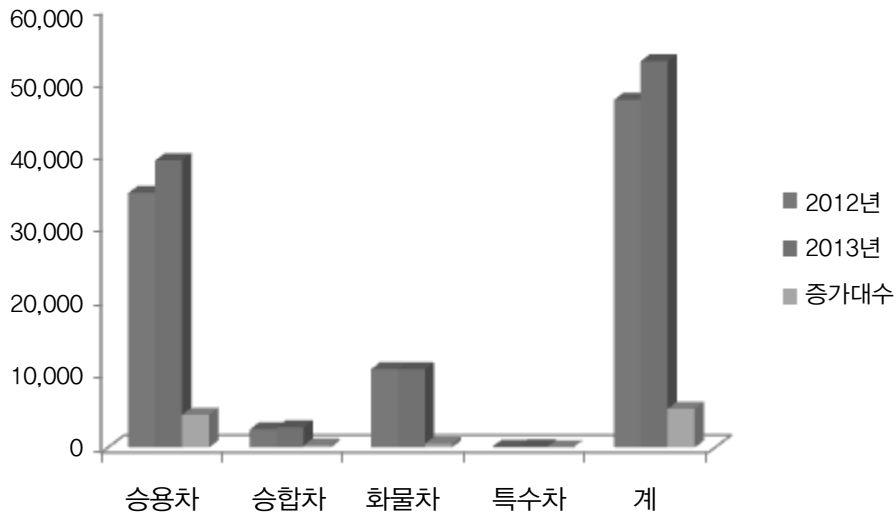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전년대비 증감대수	2012년
합계	52,889	39,301	2,744	10,707	137	5,309 (11.2%)	47,580
조치원읍	19,154	14,971	1,078	3,047	58	2,031 (11.8%)	17,123
연기면	1,470	993	74	399	4	121 (1.4%)	1,491
연동면	1,950	1,290	100	556	4	46 (2.4%)	1,904
부강면	3,476	2,297	207	963	9	307 (9.7%)	3,169
금남면	4,821	3,410	201	1,185	25	103 (2.2%)	4,718
장군면	2,661	1,738	134	784	5	287 (12.1%)	2,374
연서면	3,820	2,442	293	1,074	11	151 (4.1%)	3,669
전의면	3,357	2,076	180	1,097	4	113 (3.2%)	3,470
전동면	1,936	1,151	108	675	2	34 (1.8%)	1,902
소정면	1,426	893	71	456	6	59 (4.3%)	1,367
한솔동	8,818	8,040	298	471	9	2,425 (37.9%)	6,393

13)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충북일보(2014.01.09)

차종 별 증가율을 보면 승용차는 47%, 승합차는 38%, 화물차는 32% 특수차(견인차 등)는 49%로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시 전체 차량 증가율은 11.2%였고, 전체 11개 읍·면·동 중에서는 신도시 지역인 한솔동이 37.9%로 가장 높았다. 1년 간 2천425대가 증가했다. 나머지 읍면동 중에서는 장군면이 12.1%, 조치원읍이 11.8%, 부강면이 9.7% 등 도시지역이나 변두리 편입지역에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신도시 주변인 연기면은 1.4%, 북부권인 전의면은 3.2%가 각각 줄었다.

이것은 광역시 출범과 2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에 따른 인구 증가로 차량 등록 대수가 크게 늘었다.



〈그림 8〉 세종시 차종 별 증가 대수 비교

〈표 14〉 장군면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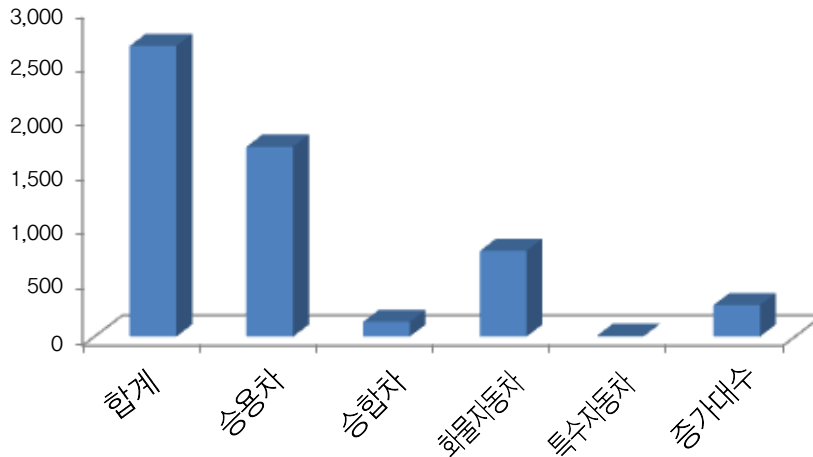
(단위: 대)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전년대비 증감대수	2012년
장군면	2,661	1,738	134	784	5	287 (12.1%)	2,374

장군면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현재 총 등록대수는 2,661대로 세종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군면 내에서 승용차가 1,738(65.3%)대, 승합차가 134(5.0%)대, 화물자동차가 784(29.5%)대, 특수자동차가 5(0.2%)대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287(12.1%)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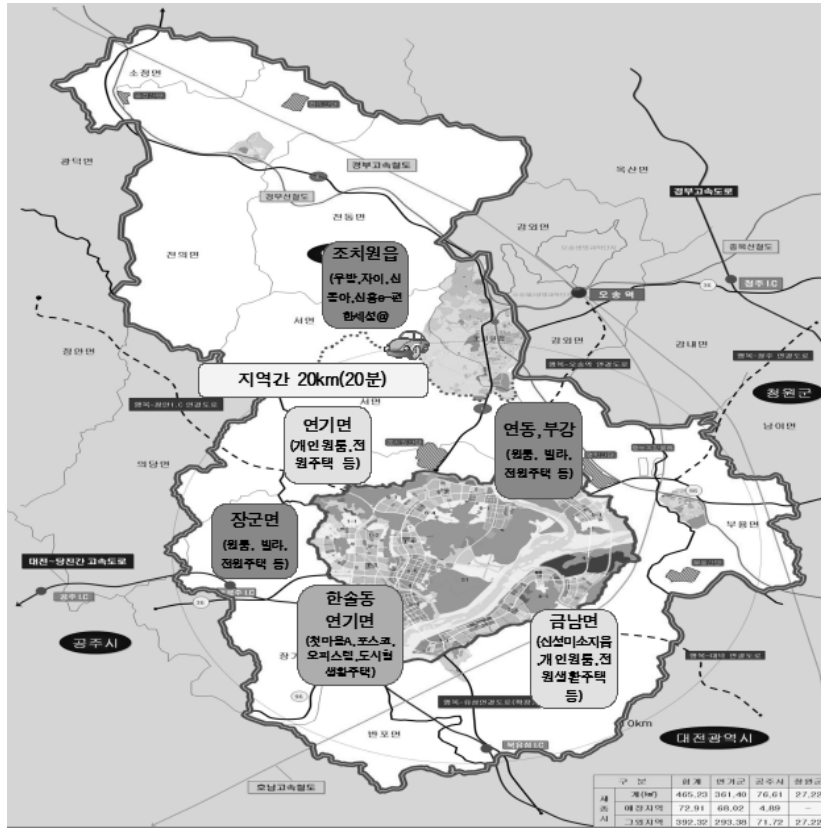
현재 장군면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20세 이상 인구는 4,602명으로 1.7명당 1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급격한 차량 증가는 주차난이 심해지고, 생활비의 증가 등 지역민들의 삶의 질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좁은 도로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가지에는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증편과 다양한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9〉 장군면 자동차 등록현황

제2절 주택 및 환경



〈그림 10〉 세종시 관할 구역 주택 현황¹⁴⁾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기가 과잉 공급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2013년 들어 전국적으로 시들해지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가 건설되는 세종시는 예외로, 향후 주차난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대비 71.00%의 증가율을 볼 수 있다.

14) 자료: 세종시 주택정보(도시건축과 2014.01).

〈표 15〉 전국 시·도별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추이

(단위: 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2년 대비증감률
합계	1,688	20,529	83,859	123,949	69,119	-44.20%
서울	838	6,633	22,256	34,103	20,426	-40.10%
부산	121	3,727	14,659	41,313	8,418	-41.20%
대구	0	292	1,142	1,808	621	-65.70%
인천	184	2,218	6,080	3,718	3,286	-11.60%
광주	0	0	2,282	5,406	1,387	-74.30%
대전	108	1,907	2,790	2,344	834	-64.40%
울산	0	14	2,057	1,815	357	-80.30%
세종	0	0	0	1,267	2,167	71.00%
경기	291	3,127	20,730	36,655	18,909	-48.40%
강원	0	90	321	634	837	32.00%
충북	37	128	2,201	2,106	2,449	16.30%
충남	0	476	945	6,659	2,212	-66.80%
전북	0	32	1,242	2,682	1,693	-36.90%
전남	0	141	390	3,234	1,286	-60.20%
경북	0	284	410	1,857	1,962	5.70%
경남	109	436	1,146	1,368	1,011	-26.10%
제주	0	1,024	5,217	3,980	1,264	-68.20%

출처: 국토해양부

전국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1천688채, 2010년 2만529채, 2011년 8천3천859채, 2012년 12만3천949채 등으로 매년 인허가 양이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만9천119채로 전년보다 44.2%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등 4곳만 제외하고 모두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는 2012년 1천267채에서 지난해엔 2천167채로 1년 사이에 무려 71.0% 늘어나 전국에서 최고다. 증가율도 강원(32.0%), 충북(16.3%), 경북(5.7%)보다 훨씬 높다.

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2012년 7월 1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소재 신도시

(행복도시)를 둘러싼 6개 읍·면지역에 건립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6천385가구로 집계됐다.

읍·면별로는 조치원읍이 2천348가구, 장군면이 1천762가구, 연기면이 815가구, 부강면이 530가구, 연서면이 497가구, 금남면이 433가구 등이다.

게다가 세종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질이 다른 지역보다 나쁘다. 지난해 인허가 실적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단지형'의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37.8%인 반면 세종시는 1.5%에 불과하다. 세종시는 '원룸형'이 전체의 98.5%나 된다는 뜻이다. 결국 이런 소규모 건물들은 장기적으로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도시에서 가까운 장군면 지역은 비도시 지역이어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최근 원룸이 무더기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난개발로 인한 주차난, 쓰레기 무단 투기, 수질 오염, 식수 부족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한 집값 하락, 신도시-편입지역 간 개발 격차 확대 및 주민 간 갈등 심화, 개발 가능 용지 부족, 지역 특산물(복숭아) 생산 용지 부족 등의 문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 장군면 원룸촌

세종시에서는 개발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흔히 '읍면지역' 이라고 통칭한다. 읍면지역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곳이 장군면 일대이다. 장군면은 세종시 개발지역의 중심, 즉 정부 세종청사와 거리가 가장 가깝다. 그러다 보니, 새 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대표적인 것이 원룸 건설이다. 지난 1년 사이 이 곳에 들어선 원룸이나 현재 공사 중인 원룸은 얼추 70동에 이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밭이었던 곳에 자고 나면 원룸 빌딩이 들어서서 형국이다.

도시 미관이나 도시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에 관계 없이, 장군면 원룸촌은 향후 세종시 개발지역 주변의 모습을 미리 점쳐볼 수 있게 한다.

제3절 관광산업

국민소득의 증가,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고속철도와 신설 고속도로 보급과 같은 광역교통 체계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관광인프라의 확대와 관광산업의 다양성, 가치 창출의 중요성 인식, 새로운 관광산업의 개발 등으로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전년대비 9% 증가한 1,210만 명을 기록하면서, 외래관광객 1,200만 명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와 같은 방한 외래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관광의 형태도 이제 단순한 자연탐방관광 보다는 역사문화·레포츠·생태·농촌관광 등의 체험형 관광이 선호되리라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 녹색성장이라는 사회기조를 반영하여 관광분야에 강하게 수용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배출을 저감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원대한 국가 비전의 압축적 내용을 관광부문에서도 반영, 일조하겠다는 의미를 반영하여 녹색관광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녹색관광(greentourism) 개발을 연구함으로써 친환경 저탄소녹색성장의 관광 국가를 실현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자체의 관광지와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키고, 마을의 역사·문화·민속·자연환경·생태자원·농업자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소재로 활용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자원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동시에 관광 자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녹색관광개발 사업은 대부분 마을 또는 단체 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구성원들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이 거주하면서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 장소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농촌에 대한 인식이 점차 쾌적한 생활공간, 여가휴양 공간 등으로 다변화되어가고 있다. 최근 농촌지역은 관광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농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농촌지역은 중요한 관광목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농촌관광은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광 관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관광은 농어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자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여가의 만족을 얻어 농촌관광시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이다. 단순히 농민이 거주하면서 농수산물의 생산 장소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농촌에 대한 인식에서 점차 쾌적한 생활공간, 여가·휴양 공간 등으로 다변화 되어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외래 관광객 1,200만 명 달성은 우리나라가 세계 관광대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쾌거인 동시에,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외래 관광객 1,200만 명 시대에 걸맞은 관광수용태세를 완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1. 장군면 관광자원

〈표 16〉 장군면 문화재 현황분석

구분	총계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계	국보	보물	천연 기념물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 문화재	문화재 자료
세종시	39	3	-	2	1	25	13	10	1	1	11
장군면	3	-	-	-	-	3	-	1	-	-	2

자료: 문화재청, 2013

〈표 17〉 관광명소 현황

구분	총계	관광지	위치
세종시	23	-	-
장군면	2	김종서 장군묘	장군면 대교리 산 45
		영평사	장군면 산학리 441

장군면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은 대교리에 있는 조선 단종 때의 충신인 절재(節齋) 김종서(1390~1453)장군의 묘소이다. 김종서 장군은 세종 16년(1434)에 6진을 개척하여 국토 확장의 위업을 이룩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이때에 확

정되었다. 또 『고려사』, 『고려사절요』, 『세종실록』 등의 편찬에 참여하여 학자적인 면모도 보여주었다. 지용을 겸비한 명신이었으나 단종이 12세로 왕위에 오르자 어린 왕을 보필하다가 왕위를 노리던 수양대군에 의해 1453년(단종1)에 두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였다. 오래된 묘비와 ‘충신정려(忠臣旌閭)’의 현판은 영조 22년(1764)에 세운 것이며, 1963년 새로 건립한 높이 3m, 너비 50cm의 묘비도 있으며, 묘역은 약 200평으로 둥근 담장과 3문으로 되어 있으며 입구에는 홍살문이 있다.

장군면 산학리에 있는 조선시대 중기에 창건된 사찰로 회자되고 있으며, 1987년에 주지 환성이 요사 건립부터 시작하여 중창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평사는 가을이면 절 안팎과 산야가 온통 하얀 구절초 꽃무리로 뒤덮여 장관을 이룬다. 매년 10월 경이면 10만 명 이상 찾아오는 대표적인 지역문화 축제인 “구절초 축제”를 개최하며 문화관광부 등록 템플스테이 지정사찰로서 매년 2천여명의 체험자를 수용하여 생업에 지친 시민들의 심신치유와 행복에 기여하고 있다.

2. 장군면 축제

〈표 18〉 주요축제 현황

구분	총계	축제명	위치	기간
세종시	5	-	-	-
장군면	1	영평사 구절초 축제	장군면 영평사길 124일대	매년 10월

길가에 핀 구절초 꽃이 참 청아해 보였다. 도랑으로 옮겨 심었더니 가을이면 산사를 뒤덮기 시작했다. 혼자 보기 아까워 지인들과 신도들을 불러 같이 꽃길을 걸어보곤 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세종시의 ‘영평사 구절초 꽃 축제’는 이렇게 시작됐다.

세종시 첫마을 인근인 장군면 산학리의 조계종 사찰인 영평사에서 구절초 꽃 축제가 가을에 열린다. 사찰 일대 10만여 m²는 수천만 송이의 구절초 꽃으로 이미 흐드러지게 뒤덮였다.

사찰음식 전시회와 도예전시회, 지역예술인 연주회, 사진작가 사진전,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다례시연과 색소폰 연주회, 시문학의 밤 등의 행사가 집중돼 있다. 축제기간 죽염수로만 간을 한 웰빙 국수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 구절초 꽃차도 무료로 시음할 수 있고, 연꽃 차와 연선식, 구절초 화전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했다.



〈사진 1〉 구절초 축제 영평사 전경

3. 장군면 전설

1) 목거리 전설¹⁵⁾

장군면 산학리 앞길을 ‘목거리’라 부른다. 산골마을인 산학리에는 온갖 산짐승이 나타나곤 했는데, 100여 년 전까지도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와 밤이 되면 주민들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였다. 옛날에 산학리 산기슭의 넓은 공터에 주막집을 차린 과부가 있었다. 어느 날 밤이 깊어 문을 닫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주막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나가보니 기골이 장대한 한 사나이가 서 있었고, 말없이 손짓으로 먹을 것을 달라는 시늉을 하였다.

술과 반찬을 차려 내오자 음식을 부랴부랴 다 먹더니 사나이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별 수 없이 그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15) 자료: 디지털공주문화대전(목거리전설).

남자가 사라지고 없었다. 급히 찾다가 냇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의 옷을 벗고는 물에 제 몸을 씻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게 된 과부는 몰래 다가가 사람의 옷을 집어와 마구 찢기 시작했다. 그러자 호랑이는 냇가로 다가오며 으르렁댔고, 과부가 다시 옷에 기름을 부은 후 불을 지르니 산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그 후 주막집 과부는 다시는 손님을 받지 않았고, 호랑이가 잠자고 간 자리를 호목거리라 부르게 되었다.



〈사진 2〉 장군면 산학리

2) 꿩이똥과 과부 이야기¹⁶⁾

옛날 산학리의 미학실에 한 과부가 살았다. 홀로 살던 과부가 죽어가는 고양이 새끼를 발견하고 집에 데리고 와 키웠다. 고양이가 커가면서 그 수가 늘어나더니 어느덧 십여 마리가 되었다. 어느 해 가뭄이 극심하게 들자 식량을 구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과부는 고양이에게 줄 먹이도 없고 자신도 먹고

살기 어렵게 되자 그 집을 떠나려 하였다. 그러자 이를 눈치 챈 고양이가 방에 들어와 과부의 목을 누르는 것이었다.

과부는 고양이를 달래면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보라.” 고 하였다. 그러나 고양이는 발에 더 힘을 주어 과부의 목을 눌렀다.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몇 번 번쩍 번쩍 하였다. 그러더니, “빠져 죽어라! 주인의 고마움을 알아라. 어서 똥으로 뛰어들어라!” 하는 벼락같은 성난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고양이들이 모두 똥 속으로 들어가 빠져 죽었다. 다음날 과부가 똥에 가보니 고양이 시체는 하나밖에 없었다. 과부는 이것이 천신의 조화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죽은 고양이를 건져내서 똥 근처에 묻어주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연을 지닌 똥을 꿩이똥이라고 이름 지었다.

16) 자료: 디지털공주문화대전(꿩이똥과 과부 이야기).

3) 병풍정이 전설¹⁷⁾

장군면 산학리 장밭들 위쪽에는 병풍정이 자리하고 있다. 오랜 옛날 이 마을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큰 바위가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옆 마을과의 소통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천지신명에게 바위에 구멍을 뚫어달라고 정성을 다해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뚫린 듯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며 하늘에서 불줄기가 바위 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모두 밖에 나와 비를 맞으면서도 바위를 구경하였다. 그러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의 정성이 가룩하여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바위가 땅 속에 들어가면 그 위에 흙이 덮일 것이니 거기에 전답을 만들고 농사를 짓거라.”

바위는 점점 땅 속으로 가라앉았고 비가 그친 후에는 과연 바위가 가라앉은 자리에 흙이 쌓였다. 사람들은 그 땅에 곡식을 갈며 매년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병풍바위가 가라앉은 마을이라 하여 ‘병풍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17) 자료: 디지털공주문화대전(병풍정 전설).

將軍面誌

제 5 장

교육 · 문화

제1절 _ 교육

제2절 _ 문화

교육·문화

제1절 교육

장군면의 교육은 유치원 2개원과 초등학교 2개교, 그리고 중학교 1개교와 전문대학 1개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전체교육기관이 모두 80개교(2014년 개교하는 10개교 포함)인 실태로 볼 때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면지역에 고등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예가 흔치 않다는 점을 볼 때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장군면의 교육기관은 모두 공주시에 소속되었다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학교들인데, 이들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1) 의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태산길 50-1
- (2) 개원: 1984년 3월 1일
- (3) 학급 및 원아수: 1학급 10명
- (4) 교원: 3명(원장: 1, 원감: 1, 교사: 1)

2) 장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398-9
- (2) 개원: 1981년 3월 12일
- (3) 학급 및 원아 수: 3학급 36명
- (4) 교원: 5명(원장: 1, 원감: 1, 교사: 3)

2. 초등학교

1) 의랑초등학교

-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태산길 50-1
- (2) 개교: 1942년 1월 3일 의당초등학교 태산 간이학교로 개교
- (3) 주요 연혁
- 1943. 04. 01 의당초등학교 태산분교장 인가
 - 1947. 01. 15 의랑국민학교로 승격
 - 1967. 09. 03 의랑국민학교 도덕분교장 분리 개교
 - 1968. 03. 01 도덕국민학교 승격 개교
 - 1989. 03. 01 도덕분교장 편입
 - 1993. 03. 01 도덕분교장 통폐합
 - 1996. 03. 01 의랑초등학교로 학교 명칭 변경
 - 2012. 07. 01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 2013. 02. 14 제 65회 졸업(3,761명)
- (4) 학급 및 학생 수: 6학급 44명
- (5) 교직원
- 교원: 9명(교장: 임천수, 교감: 이창덕)
 - 직원: 8명
- (6) 교훈(校訓): 정직, 질서, 성실
- (7) 교표(校標)
- 무궁화의 끈기와 참을성을 배우며 무한 도전의 노력으로 알알이 영글어가는 미래의 꿈을 나타내고 있다.
- (8) 교가(校歌)
- 천태산 기슭의 아늑한 골에/ 포근한 사랑이 담겨진 학원

슬기로 이어온 전통의 자랑/ 새얼을 닦아갈 희망도 높다
나가자 굳세게 배우고 닦아/ 빛내자 떨치자 의랑 어린이

(9) 교목(校木): 향나무

향나무는 사철 푸르고 은은한 향을 발하여 예로부터 높은 기상과 충절을 나타내며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10) 교화(校花): 장미

장미는 화려한 꽃잎으로 강한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부단한 자기 계발로 자신감을 상징한다.



〈사진 1〉 학교 전경



〈사진 2〉 학교의 로고와 교기



〈사진 3〉 개교 30주년 기념상



〈사진 4〉 개교 60주년 기념지



〈사진 5〉 개교 60주년 기념석

2) 장기초등학교



〈사진 6〉 학교 전경

-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398-9
- (2) 개교: 1930년 6월 5일 장기공립보통학교로 개교
- (3) 주요 연혁
 - 1950. 06. 01 장기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 1979. 03. 01 송선분교장 국민학교 승격
 - 1994. 03. 01 장기국민학교 송선분교장 인가
 - 1996. 03. 01 장기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 1998. 03. 01 송선분교장 본교 통폐합 완료

- 2008. 03. 01 당암초등학교 통폐합
- 2010. 03. 01 특수학급 신설
- 2012. 07. 01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
- 2013. 02. 21 제80회 24명 졸업(총 졸업생 8,888명)
- 2014. 03. 01 이민하 교장 부임

(4) 학급 및 학생 수: 7학급(일반: 6, 특수: 1), 107명

(5) 교직원

- 교원: 11명(교장: 이민하, 교감: 이병택)
- 직원: 8명

(6) 교육목표

- 새롭고 즐겁게 꿈을 키우는 학생(자주인)
- 탐구하여 실력을 기르는 학생(창의인)
- 다양한 체험으로 소질을 계발하는 학생(문화인)
- 나눔과 배려로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봉사인)

(7) 교표(校標)

좌, 우에 초록색 잎이 돌아나는 모습을 묶은 형상 위에 한자로 ‘長岐’ 글자를 배치하였다.

(8) 교기(校旗)

배움을 가꾸어 지혜를 얻고 올바른을 행하여 온누리를 밝히려 장기의 정기 있는 깨끗한 기상으로 맑고 밝고 참되게 자라라는 의미를 상징한다.

(9) 교가(校歌)

한 다리 맑은 물에 자라는 기상 / 빛나는 문화의 터 백제의 고을
우리는 싹 터 나는 새 나라의 일꾼 / 바르고 씩씩하게 배우고 닦으세
장기교 장기교 장기교 만만세

(10) 교목(校木): 소나무

소나무의 높은 기상은 하늘로 이어가고 곧은 절개는 겨울에 더 푸르며 온화한 품성은 사랑으로 승화됨을 상징하는 것이니, 소나무는 장기초등학교의 표상이요 연륜이니 소나무를 따라 배우고 행함을 의미한다.

(11) 교화(校花): 장미

장미는 붉게 타오르는 정열과 그윽한 향기를 품어 온유한 미소를 짓고 꿈을 싣고 사랑을 전하며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사진 7〉 교기



〈사진 8〉 교훈비



〈사진 9〉 교가 비



〈사진 10〉 유관순 열사 상

3. 중학교

◇ 장기중학교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359

2) 설립 인가: 1969년 10월 14일(9학급)

3) 주요 연혁

- 1970. 03. 06 개교(장기초등학교 교실을 가교사로 이용)
- 1973. 01. 13 12학급 인가
- 1973. 11. 08 운동장 21,322m² 확장
- 1980. 11. 08 15학급 인가
- 1994. 03. 01 9학급 인가
- 2002. 02. 19 5학급 인가
- 2013. 02. 08 제41회 졸업 34명(총 5,700명)
- 2013. 03. 04 제44회 입학식(22명)

4) 학급 및 학생 수: 6학급 89명

5) 교직원

- 교원: 17명(교장: 이상현, 교감: 백승환)
- 직원: 7명

6) 역대 교장

구분	부임 연월일	교장 성명
초대	1970. 02. 21	백 성 현
2대	1973. 09. 01	박 용 성
3대	1976. 09. 01	채 범 석
4대	1981. 09. 01	이 시 역
5대	1985. 09. 01	백 춘 기
6대	1989. 03. 01	유 재 천
7대	1992. 03. 01	김 덕 락
8대	1994. 03. 29	이 철 호

9대	1997. 09. 01	어 영 상
10대	1999. 09. 01	박 정 혜
11대	2002. 03. 02	지 희 순
12대	2006. 03. 01	김 준 환
13대	2008. 09. 01	정 금 영
14대	2010. 03. 01	정 경 원
15대	2014. 03. 01	이 상 현

7) 교훈(校訓): 지성

8) 교표(校標)



9) 교가(백성현 작사, 안일승 작곡)

1절

한 다리 짧은 슬기 갈고 닦아서
한 나라 부흥 한다 높이 든 햇불
푸른 꿈을 가꾸려는 이상도 크다
전진의 종소리 우렁차여라
장군봉 정기 받은 우리의 기상

2절

비오나 눈이오나 바람 불어도
우리는 용진 한다 진리탐구에
시련의 가시덤불 건너뛰어서
나라 위해 품은 뜻을 완수하리라
장군봉 정기 받은 우리의 기상

10) 교목(校木): 소나무

소나무를 교목으로 선정한 배경은 하늘 향해 뻗어 가는 우람하고 늠름하며 불로장수하는 소나무처럼 장기중학교 학생들이 성실하고 건강하며 늠름하고 기개 넘치는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나라의 훌륭한 동량이 되라는 뜻이다.

11) 교화(校花): 장미

장미는 진실된 사랑, 존경, 우정 등을 의미한다. 인류의 영원한 꿈과 현실인 사

량을 베풀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지며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웃어른을 존경하고 받들며 친구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올곧고 큰 그릇의 장기중학교 학생들이 되라는 높은 뜻이 담겨져 있다.



〈사진 11〉 학교 전경



〈사진 12〉 교명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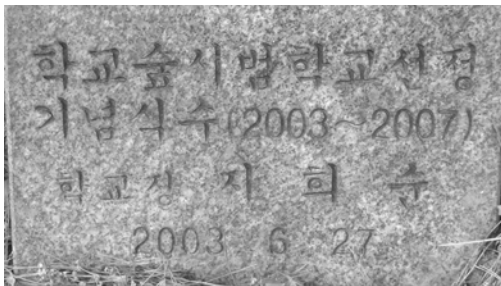
〈사진 13〉 교훈 비



〈사진 14〉 기념식수 표석[1]



〈사진 15〉 기념식수 표석[2]



〈사진 16〉 기념식수 표석[3]



〈사진 17〉 기념식수 표석[4]



〈사진 18〉 기념식수 표석[5]



〈사진 19〉 기념식수 표석[6]



〈사진 20〉 기념식수 표석[7]



〈사진 21〉 기념식수 표석[8]

4. 전문대학

◇ 한국영상대학교

-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학길 312
- 2) 설립: 1992년 12월 11일 학교법인 인산학원에서 2년제 전문대학으로 설립
- 3) 주요 연혁
 - 1986. 12. 학교법인 인산학원 (현, 인산학원) 설립
 - 1992. 12. 웅진전문대학 설립 인가(대지 32만평, 건평 6,230평)
 - 1993. 03. 웅진전문대학 개교
 - 1994. 02. 학교법인 분리, 전문대학 운영 학교법인 출범(설립자: 유재원)
 - 1994. 11. 유재원 이사장 취임
 - 1995. 03. 인풍학원으로 법인명 변경
 - 1997. 07. 전국 우수대학 정원 자율화 대학 선정
 - 1998. 05. 공주영상정보대학으로 교명 변경
 - 1999. 05. 교육부 선정 특성화사업 ‘방송·영상계열 특성화 대학’ 선정
 - 2000. 05. 교육부 중점정책사업 3개 분야 지원 대학 선정(특성화 프로그램 등)
 - 2005. 07. 공주영상대학으로 교명 변경
 - 2007. 12. 4년제(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 2012. 03.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선정
 - 2012. 07.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 2013. 01.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 2013. 02. 제11대 유재원 총장 취임
 - 2013. 03. 한국영상대학교로 교명 변경
 - 2014. 02. 2013학년도 학위수여식 913명 졸업(총 졸업자: 20,935명)

4) 건학이념 및 학훈(學訓)

- 건학이념: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한 철저한 직업 교육과 온전한 인격체 형성을 위한 전인 교육을 통하여 미래국가사회의 중추적 인재로서 다양화 된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직업의식이 투철한 창조적 전문인 양성
- 학훈: 창의(創意) 성실(誠實) 박애(博愛)

5) 법인 로고, 교표(校標), 교기(校旗)

- 교표(대학 로고): 한국영상대학교의 심볼은 “한국”의 “ㅎ”과 “영상”의 “ㅇ”, “ㅅ”을 응용하여 조합한 심볼로 “태극”의 의미를 현대적인 색상을 통해 표현하였으며, 한국에 우뚝 솟은 상아탑의 형상과 “인산학원”의 의미를 시각적인 효과와 인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표현



〈사진 22〉 법인 로고



〈사진 23〉 대학 로고



〈사진 24〉 교기

6) 학과 및 입학정원(2014학년도)

계열	학과	수학 연한	입학 정원
예·체능	영 상 연 출 과	3년	60
	영 상 촬 영 조 명 과		50
	영 상 편 집 제 작 과		50
	음 향 제 작 과		80
	영 화 영 상 과		50
	광 고 영 상 디 자 인 과		50
	방 송 영 상 미 디 어 과		50
	게 임 애 니 메 이 션 과		60
	만 화 창 작 과		50
	이 벤 트 연 출 과		90
	연 기 과		65
	무 대 연 출 과	2년	40
	방 송 영 상 스 피 치 과		50

	3 D 입 체 영 상 과		40
	미 디 어 부 사 관 과		40
	실 용 음 악 과		70
	뷰 티 피 부 미 용 과		40
	헤 어 디 자 인 과		40
인문 사회	유 아 교 육 과	3년	66
	영 유 아 보 육 과	2년	50
	항 공 관 광 과		60
	스 튜 어 디 스 과		130
	중 국 항 공 승 무 원 과		40
	경 찰 행 정 과		60
	사 회 복 지 과		50
계 25개 과			1,431

7) 대학 기구

- 본부: 총장, 부총장, 기획처, 교육지원처, 학생지원처, 행정지원처, 입시홍보처, 산학협력단
- 부속기관: 생활관, 도서관, 전자계산소, 사회봉사단, 교육방송국, 학보사,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단, 교수학습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센터, 창업교육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NCS지원센터, HD미디어센터, PTV방송국
- 부설기관: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인성학교, 부설유치원
- 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 미용예술연구소, SAUS무대연구소, 문화콘텐츠연구소, 유아숲연구소

8) 교직원: 214명

- 교원: 103명(교수: 103명, 조교: 59명)
- 직원: 52명

9) 역대 총(학)장

구분	총(학)장	취임 연월일
초대	성하주	1993. 03. 09
2대~	이진	1997. 02. 03
7대~	김수량	2005. 02. 23
11대~	유재원	2013. 02. 23

10) 주요 보직자 명단

- 총장: 유재원 ○부총장: 류재만 ○기획처장: 한기석
- 입시홍보처장: 김일수 ○학생지원처장: 양광호 ○행정지원처장: 정형진
- 산학협력단장: 최도홍 ○평생교육원장: 백순흠

11) 교가(구 상 작사, 김동진 작곡)

1절

계룡산 정기어린 배움의 터전
 높푸른 장군봉이 우뚝 솟았네
 젊음의 물결이는 영봉 저너머
 하늘 높이 솟아 오른 오늘의 건아
 창 의 성실 박애의 드높은 정신
 온 누리에 빛내세 우리의 모교
 창 의 성실 박애의 드높은 정신
 온 누리에 빛내세 한국영상대학교

2절

백제 땅 신화 속의 꽃을 피우려
 금강에 영재들이 한데 모였네
 달빛아래 목금을 타는 고틀루 저 건너
 푸르른 꿈을 펴는 내일의 지성
 창 의 성실 박애의 드높은 정신
 온 누리에 빛내세 우리의 모교
 창 의 성실 박애의 드높은 정신
 온 누리에 빛내세 한국영상대학교

12) 교목(校木): 느티나무

13) 교화(校花): 백일홍

14) 교조(校鳥): 올빼미



〈사진 25〉 한국영상대학교 전경

15) 대학 특성

한국영상대학교는 세종특별자치시 유일의 방송·영상특성화 대학으로 영상·만화·항공서비스·뷰티 관련 학과 및 유아교육, 복지, 경찰행정 등 행정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학과와 교육과정으로 졸업 후 즉시 현장에서 인정받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 중소기업 기술사관(3D입체영상분야) 육성사업 선정
- 비교과 입학전형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방송·영상 분야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

한국영상대는 방송·영상특성화 대학으로 연출, 촬영, 조명, 편집, 음향 등 관련학과들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심화된 전문 실무교육을 위해 방송기자재 및 방송스튜디오, 다목적 소극장 등 완벽한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위해 최고의 영상 시설을 구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TV방송을 위해 빌려주기도 하는 제1스튜디오와 3개의 소규모 스튜디오, HD 카메라실, 음향제작실, 3D영상제작실,

Avid 편집실 등이다.

학생들은 강의 및 실습뿐만 아니라 IPTV 방송과 금강FM방송에서 한층 수준 높은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는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인 IPTV는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VJ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만든 영상작품들을 방영한다. 또 입학식과 졸업식을 비롯해 축제, 체육대회, 예술제 등 교내외 행사 시 학생들이 직접 방송 중계차를 활용해 제작한 방송을 캠퍼스 곳곳에 생중계한다.

금강FM방송국(FM 104.9MHz)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방송국이다. 매일 17시간씩 공주와 충남 일부지역에 라디오 전파를 송출하며, 음악 선곡부터 방송 진행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제작에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장비를 직접 조정·편집하고, 대본도 작성하고 있어 학내 방송국은 방송 영상분야의 프로를 양성하는 전초기지인 셈이다.

■ 취업지원 장학금 및 프로그램 운영

한국영상대학교는 자기개발 및 취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취업활동 마일리지 장학금이 있다. 자격증 취득, 어학능력 점수 취득, 공모전 입상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실적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1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최대 70만원까지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취업주간행사 장학금, 취업 능력강화 방과 후 교육 장학금 등이 있다.



한국영상대학교는 입학 - 재학 - 졸업까지 재학생에 대한 취업지원 및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 대한 취업 만족도를 높여 명실상부 “취업이 강한 대학” 으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업상담 및 컨설팅 △취업캠프 △직업지도프로그램 (CAP+) △창업 및 전공동아리 활동 △산업체 인사특강 △취업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인성학교 설립으로 ‘도덕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양성’

한국영상대학교는 2013년 7월 ‘인성학교’ 를 설립하고, 인성교육을 위해 ‘스쿨 인 스쿨(School in School)’ 개념을 도입, ▲인성교양 ▲비즈콤(Business Communication) ▲사회문화 ▲글로벌 등 4개의 트랙으로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각 트랙별로 공통의 목적을 지닌 하위 교과목들을 배치해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하며, 언어와 예절, 리더십, 문화, 경제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함양은 물론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대학의 특성 및 발전계획

방송·영상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대학 특성화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영상대학교는 방송·영상 예술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영상 분야에서 최첨단 HD스튜디오와 중계차 등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열정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 방송·영상 특성화 학과 및 계열 구성

- 70% 이상의 학과를 방송·영상분야 학과로 구성
- 실무능력을 겸비한 교수진과 실기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최첨단 방송·영상 교육 시스템 운영

- 최첨단 특수영상제작을 위한 실습실 구축 운영
- 최첨단 스튜디오 및 HDTV 카메라 실습실, 중계차 등 종합영상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운영
- 국내 최초 3D입체영상제작 시스템 구축



■ 해외대학과 다양한 교류

- 미국 : NEIU(노스이스턴일리노 이주립대학)
- 중국 : 낙양대학, 심천직업기술대학
- 몽골 : 국립인문대학
- 필리핀 : San Agustin / San Jose-Recoletos
- 러시아 : Herzen 대학교
- 베트남 : 하노이기술대학



참고 사이트

의랑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uirang.es.kr>

장기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janggi.es.kr>

장기중학교 홈페이지, <http://jangki.ms.kr>

한국영상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3.pro.ac.kr>

도와주신 분

김정현(한국영상대학교)

제2절 문화

장군면의 문화는 크게 축제와 제례 문화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특히 장군면이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면서 편입 전 충남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 일부 지역이 ‘장군면’으로 다시 출범하게 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면민들의 단합과 결집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22일부터 이틀간 장군면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1회 장군축제와 면민화합체육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한편 장군면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가장 큰 사찰인 영평사가 소재하고 있는데, 영평사는 오래 전부터 구절초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명하다.

또한 장군면에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분들을 기리는 제례문화가 계승되어 오고 있다. 류형(柳珩) 장군을 기리는 충렬사(忠烈祠) 제향과 김종서(金宗瑞) 장군을 기리는 추모제가 유림이 중심이 되어 매년 봉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 공주시 의당면에 소재하였다가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으로 편입된 태산리에 소재한 덕천군 묘소와 사우에서 봉행되는 제례 문화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1. 축제 및 행사

1) 장군축제와 면민화합체육대회

장군축제와 면민화합체육대회는 2013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장기중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장군면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한 장군축제와 면민체육대회는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기 6진을 개척한 김종서 장군과 선조 임금 재임 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에 왜적을 크게 무찔렀던 류형 장군을 기리고 장군면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행사이다. 장군면의 모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역사적인 의미도 살리는 한편 주민들의 단합과 결집을 이루는데도 성공했다는 평을 들었다.

2013년 10월 25일 오후 3시부터 야간시간까지 개최되었던 제1회 장군축제는 김종서 장군과 류형 장군을 기리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가장행렬, 풍물놀이, 장군

OX퀴즈, 설운도·박남정 등 초대가수가 출연하는 작은 음악회, LED소원풍선 날리기 등이 진행되었고, 이외에도 장군갑옷 입어보기 체험, 지역특산물 판매,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한편 면민화합체육대회는 풍선 터트리기, 애드벌룬 굴리기, 바구니 공넣기, 윷놀이, 남, 여 페널티킥 차기 등 다양한 종목을 마을 대항으로 진행함으로써 마을 주민들 간에 단합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1회 장군축제와 면민화합체육대회는 여론의 관심도 크게 받았는데, 당시 이 행사와 관련한 특급뉴스의 보도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군축제 홍보물(특급뉴스, 2013. 10. 22)

‘제1회 장군축제’가 오는 25·26일 이틀간 장기중학교에서 열린다.

장군축제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이성규)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오는 25일 오후 3시 30분 장기중학교에서 장군고유제에 이어 이날 오후 6시 개막식이 진행된다.

이 축제는 장군면 출범과 함께 김종서 장군과 류형 장군의 역사적 상징이 있는 장군면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축제 첫 날인 오는 25일에는 ▲장군OX퀴즈 ▲설운도·박남정 등 초대가수가 출연하는 작은 음악회 ▲LED소원풍선 날리기 등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장군갑옷 체험 ▲지역특산물 판매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축제 둘째 날인 오는 26일에는 장군면체육회(회장 이종윤 장군면장)가 여는 ‘장군면민 화합체육대회’가 장기중학교에서 장군축제와 동시에 진행돼 면민 노래자랑 등을 펼치며 지역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성규 위원장은 “제1회 장군축제는 김종서 장군과 류형 장군을 기리고 장군면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는 행사는 물론,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급뉴스, 2013. 10. 22)

이 밖에도 제1회 장군축제와 면민화합체육대회가 개최된 이틀간에 걸쳐 갑옷·전통의상 체험, 이·미용봉사, 손발 마사지, 케리커처, 페이스페인팅, 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제1회 장군축제와 면민화합체육대회와 관련한 사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고유제



가장행렬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사



이종윤 장군면장 인사



이충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인사



가수(설운도) 공연



페널티킥 차기



대진표



행운권 상품



행운권 추첨



시상식



축제 이모저모[1]



축제 이모저모[2]



축제 이모저모[3]

2) 구절초 축제

구절초 축제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가장 큰 사찰인 영평사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장군면 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랑할 만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중양절(음력 9월 9일)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되는 구절초 축제는 축제 이름과 같이 구절초가 중심이 되는 축제이다. 구절초(九節草)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음력 9월에 꽃이 피는데, 단아하면서도 희고 붉은 색의 꽃이 군락을 이루어 함께 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가히 장관이다. 특히 장군산 아래에 자리 잡은 영평사 대웅전 뒷산은 물론 사찰의 입구부터 모든 곳에 널리 퍼져 자란 구절초가 약 9만여㎡에 만개할 때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면 산학리에 소재한 영평사에 구절초가 필 때면 인근 주민들은 물론, 국내의 타지역 사 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1일 3,000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유명해졌다.

다음은 2013. 9. 28부터 10. 13까지 개최되었던 영평사 구절초 축제에 관하여 금강뉴스가 보도한 기사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9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6일간 장군산 영평사(장군면 산학리)에서 '제14회 장군산 구절초꽃 축제'를 연다.

장군산예술제조직위원회(위원장 환성 스님) 주관으로 열리는 이 축제는 개막일인 28일 오후 7시에 산사음악회로 축제의 막을 연다.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조관우를 비롯, 이정열과 솔트레인,

영평사 등근소리합창단 등이 출연해 구절초가 절정인 산사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내달 3·5일에는 △색소폰 연주회 △다레시연 △시문학의 밤 행사가 열리며, 축제기간 상설행사로 △이숙인 도예전 △캘리더셔츠 체험 △국수만발공양과 구절초 꽃차 무료시음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바자회 △문화체험 △전시 등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환성 스님은 “장군산 3만평의 산야를 순백으로 장엄하게 덮은 구절초 꽃에 안기어 멋진 추억을 만들기 위한 인파가 매년 줄을 잇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이들이 방문해 축제를 즐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강뉴스, 2013. 9. 26).

위의 신문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영평사에 구절초가 필 때는 축제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방문객들에게 구절초 꽃차와 국수 공양이 무료로 제공된다.

그리고 구절초 축제가 시작되는 날 저녁시간에는 장군산예술제조위원회(위원장: 영평사 환성 주지스님) 주관으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산사음악회는 매년 유명 사회자와 음악인들이 오는 한편 야간에 보이는 구절초 꽃의 아름다운 광경에 도취되어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관람객이 많이 오는지 대웅전 앞 넓은 광장에 놓여진 의자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이며, 관람객들이 타고 온 자동차는 사찰 입구로부터 약 3Km 밖에 주차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니 구절초 축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영평사 산사음악회(사진: 신용희 작가 촬영)

3) 중양절 축제

중양(重陽)이라는 말은 9가 양수(陽數)이기 때문에 양수가 겹친 것을 뜻한다. 9가 2번 겹치므로 '중구(重九)'라고도 한다. 속설에는 제비가 3월 3일에 왔다가 중양절에 강남으로 간다고 한다.

중국 고대사회에서는 9를 양수의 극이라 하여, 이것이 겹쳤기 때문에 이날을 쌍십절(10, 10)과 같이 큰 명절로 삼아왔다. 이날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며 고향 생각을 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부터 명절로 정하여 잔치를 베풀어 군신이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했으며, 조선시대에는 봄(3. 3)과 가을(중양절) 2차례에 걸쳐 노인잔치를 크게 베풀어 경로사상을 드높이는 동시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다. 지방에 따라서는 이날 성묘하고 시제를 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중양절은 1년 중 가장 양 기운이 강한 날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햅쌀로 떡을 만들고 국화주를 담아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산과 들로 나가 자연과 벗 삼아 호연지기도 길렀다고도 한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가을 소풍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장군면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하기 전에는 영평사에서 10여년 간 중양절 축제가 개최된 바 있다. 중양절 축제는 공주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에서 연중행사 중 하나로 청소년들에게 잊혀져가는 명절 축제를 계승하게 하는 한편, 과거 중양절에 행하여 왔던 놀이와 각종 문화 행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였던 것이다.

한편 중양절 축제가 영평사에서 개최된 이유는 중양절 때 사찰 주변에 가득 피어있는 구절초 꽃 축제와 겹하여 행사를 진행하기 좋고, 또 한 이유는 영평사 주지인 환성스님이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 지원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중양절 축제는 영평사 대웅전 앞에 제단을 차리고 천지신명과 국조삼성, 그리고 여러 성씨의 조상들로 후손이 끊겨 차례를 받지 못하는 혼령의 신위를 모신 제상에 과일과 떡을 진설하고 구절초 차를 올려 차례를 지냈다.

중양절을 학생들이 주축이 된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차례에 참반하였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한글 활기를 준비하여 질서 있게 차례를 진행하였다.

당시 중양절 차례에 쓰였던 활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양절 차례 활기

지금부터 단기 ○○○○년 중양절 차례를 올리는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차례를 올리기 전에 중양절에 차례를 올리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양절은 음력으로 9월 9일이 달는 절기인데, 9라는 숫자는 단자리에서 가장 큰 수라고 해서 이를

극수라고 하지요. 흠수 낚은 양 에너지가 강한 날인데 9월 9일은 극수가 겹쳤으니 일년 중에 가장 에너지가 충만할 때 이지요. 그래서 이때가 공부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은 때랍니다.

그리고 이때는 추석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로 오곡백과가 일년 중 가장 풍성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앙절에는 햇곡식으로 떡을 빚고 여러 가지 과일을 올려 차례를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구절초로 우려낸 차와 술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배운 글 자랑도 하고 가을정취도 즐겼는데,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에는 중앙절의 앞뒤로 낚을 잡아서 각 학교들이 소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차례는 추석에 올렸는데 왜 중앙절 날에 또 올릴까요?

설날과 추석날에는 자기 조상을 위해서 차례를 올리고 성묘를 합니다. 그런데 중앙절 날에는 우리 조상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가 살고 있는 편안한 세계를 열어주신 천지신명과 국조삼성, 그리고 여러 성씨의 조상들로 후손이 끊겨 차례를 받지 못하는 혼령들을 위해 차례를 올린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절은 전통명절이 되었지만, 우리가 삼라만상의 우주와 더불어 존재하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긍지 높은 민족임을 알게 해 주는 민속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체험을 통해 알게 되길 바랍니다.

- 지금부터 단기 4343년 중앙절 차례를 올리겠습니다.
- 헌관과 제 집사들은 제단 왼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리에 계시는 헌관 이하 모든 참반객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제단에 모셔진 신위 전에 선채로 반배하여 참신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 일동 반배!
- 다음에는 분향 명축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 좌 집사들은 제단으로 나아가 촛불을 붙이고 향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 헌관들께서는 헌다하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신위 전에 차를 올리실 헌관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에서 국조삼성께 차를 올리실 초헌관은 오늘의 행사를 주관하는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 이사장 이시면서 이곳 영평사의 주지스님이신 환성스님이십니다.

 - 오른 편에서 천지신명께 차를 올리실 아헌관은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의 운영위원이시면서 ○○○○○으로 계시는 ○○○○이십니다.
 - 왼편에서 각 성씨 조고조비무후영가에 차를 올릴 종헌관은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의 단장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군입니다.
- 좌우 집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 좌 집사는 헌관의 왼쪽 옆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고, 우 집사는 헌다하기 위한 차를 내는 곳으로 이동해 주기 바랍니다.
- 우 집사는 차를 헌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관께서는 헌다의 예를 갖추어 좌 집사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좌 집사는 신위 앞에 차를 올려주기 바랍니다.
- 좌우 집사들은 헌관 뒤로 세 걸음 물러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축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 축관께서는 정해진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축관은 ○○○○○○ ○○○○ ○○○○이십니다.
- 헌관과 제 집사께서는 일어나 신위 전에 삼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 이 자리에 계신 참반객들께서도 헌관을 따라 일어선 채로 반배로써 삼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헌관과 좌 집사는 그대로 서 계시고, 우 집사들은 제단으로 나아가 제단 위의 헌다 뚜껑을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 우 집사들은 촛불 2개 중 하나는 경건하게 끄고, 나머지 하나는 조심스럽게 옮겨 헌관 앞으로 가 서 있기 바랍니다.
- 좌 집사들은 제단 위에 모셔져 있는 신위를 경건하게 모시고 우 집사 앞으로 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 헌관계서는 두 걸음 뒤로 물러나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신위와 헌관, 집사께서는 제단 왼쪽 아래 소지처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헌관계서는 신위를 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단기 ○○○○년 중앙절 차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헌관 이하 참반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오늘 중앙절 차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깃들기 바랍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편 당시 중앙절 차례에 올렸던 고축문은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권정안교수가 한글로 지은 것을 축관이 읽었는데, 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절 헌다례 고축문

유세차 병술년 단기 ○○○○년 음력 9월 중앙절에 즈음하여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 이사장 환성은 삼가 천지신명과 국조삼성과 각성씨선망무후조고조비각열위영가에 삼가 고하나이다.

하늘이 만물을 내시고 네 계절을 두시어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시니, 이 땅에 살아가는 행복이 모두 천지신명의 은덕 아님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하였으니,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더욱 각별하나이다.

이는 천지신명과 조상의 은덕으로 누리는 풍요에 감사하면서 이 아름다운 강산에서 오롯한 삶을 즐기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이 행복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나이다. 이 지혜와 사랑의 정신은 이 도량에서 추구하는 부처님의 큰 지혜와 큰 자비의 정신과 다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천지신명께서 만물을 두루 살리시는 정신과 국조삼성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본 받고, 중앙절의 아름다운 풍속을 전해주시신 옛 분들의 지혜를 거울삼아, 영평사에서 정결한 자리를 마련하여 삼가 조출한 다례를 올리나이다.

후손이 없는 여러 영가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심은 이 여러 영가들도 저희와 같은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국조 삼성의 후손일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 복을 나눔은 천지신명께서 가르치신 교훈이니, 어찌 이 영가들을 소홀히 할 수 있겠나이까? 이 마음 통촉하소서.

우리는 제수는 변변하지 못한 음식과 맑은 차 한 잔에 지나지 않나이다. 부족한 정성이나마 가뜰하게 받아주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이 천지신명과 조상의 은덕에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큰 지혜를 얻고, 유정 무정의 일체 중생이 복을 나누어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를 실천하며, 신명과 사람이 함께 즐거운 영화장의 극락세계를 열어가게 하소서.

부족한 정성에 큰 바람이 어리석은 저희들의 욕심인줄 아오나, 삼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정성을 모아 이 헌다례의 행사를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하오니, 흥향하소서. 상항

그러나 2012년부터는 영평사가 소재한 장군면 산학리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공주시에 소재한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의 행사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할 수 없게 되어 현재는 중앙절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 않고 있다.

2. 제례 문화

장군면 내에는 조선시대 2대왕인 정종의 열째 왕자인 덕천군 묘소와 사우가 태산리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조선 세종대왕 때 6진개척을 한 충익공 김종서 장군의 묘소가 대교리에 있으며 선조임금 때 왜구를 물리쳐 큰 공을 세운 류형 장군을 모신 충렬사가 하봉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군면이 오래 전부터 제례 문화가 계승되어 오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왕자의 신분이었던 덕천군의 제례는 전통적으로 왕실에서 지내왔으나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전주이씨덕천군파종회에서 봉행하고 있다. 또한 김종서 장군 추모제와 류형 장군 제례는 현재까지 줄곧 공주 유림에서 봉행하여 오고 있는데, 이들 제례 문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덕천군 제례

덕천군은 조선 제2대 정종(定宗)임금의 열째 왕자로 태어났다. 덕천군(德泉君)은 어린 시절부터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깊어 정종임금이 특별히 사랑하여 휘(諱: 이름)를 ‘후(厚)’ 자로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덕천군은 항상 검약하고 사치를 멀리하여 봉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반드시 도와주었다고 한다.

특히 전장(田庄)이 있는 공주(현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금강에 홍수가 나서 가택(家宅) 수 백호가 물에 떠내려가고 수 천명의 수재민이 생겼을 때는 가산(家産)까지 털어 이들을 구제함으로써 사람들이 ‘적덕공(積德公)’ 이라고 하였다(全州李氏德泉君派宗會. 全州李氏德泉君波譜, 2003, 卷之一, 1-2).

덕천군(德泉君) 제례는 사우(祠宇)제와 묘제로 봉행된다.

덕천군 사우는 덕천군(德泉君) 이후생(李厚生, 1397~1465. 11. 10; 시호: 積德)을 제향하는 사당이다. 덕천군 묘소에서 봉행하는 시제는 매년 음력 10월 1일 정오

에 봉행하며, 사우(祠宇)에서 봉행하는 기신제는 음력 11월 10일 정오에 봉행한다.

한편 덕천군 시제와 기신제는 전주이씨덕천군파종회(이사장: 이병하 전 공주군수)에서 주관하여 제향 때마다 종회에서 정하는 집사(執事)들이 각기 제향 업무를 나누어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엄숙하게 봉행하고 있다.

덕천군 사우와 묘소가 있는 태산리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2012년 이후에 봉행된 덕천군 시제와 기신제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덕천군 제례는 제향일이 가까워 오면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기 위한 일을 하고, 제향일이 되면 제례를 봉행하는 집사들의 명단을 발표하는데, 이를 집사기(執事記)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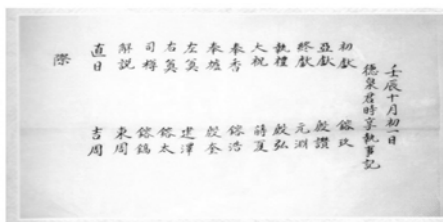
초헌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이 맡고, 아헌관과 종헌관은 문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人士)로 정한다.

제물은 재실에서 마련하여 제향 시각에 맞추어 제례가 봉행되는 사우나 묘정에 마련된 곳에 정중하게 진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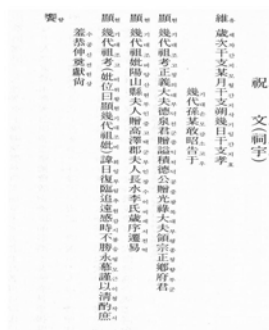
제관들은 재실에서 제복을 갖추고 초헌관을 중심으로 제례가 봉행되는 사우나 묘정으로 나아가 경건하게 자리하며, 참반원들은 제관의 뒤에 엄숙한 자세로 선다.

제관 이하 모든 참반원들은 문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흘기를 읽으면 그 순서대로 질서 있게 제례를 봉행한다.

덕천군파종회 이사장, 2012년 시제 집사기, 제례에 독축되는 축문(태상전, 2004)과 2013년에 봉행된 덕천군 시제를 사진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시제 집사기



사우 제향 축문



시향 축문



2013년 시제 제물



이병하 이사장



2013년 시제 봉행 장면

2) 김종서 장군 추모제

김종서 장군의 자는 국경(國卿), 호는 절재(節齋)이며, 시호는 충익공(忠翼公)이다. 지략이 뛰어나고 강직하였기 때문에 대호(大虎)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김종서 장군의 본관은 순천으로 조선 세종 때 함길도 도관찰사(都觀察使)가 되어 야인들의 국경침입을 격퇴하고 육진을 설치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우리나라 국경선이 이때 확정되었다. 또한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 고려사 절요(節要)를 편찬하기도 했다. 단종이 12세로 왕위에 오르자 좌의정으로 어린 왕을 보필하다 왕위를 노린 수양대군에 의해 단종 원년(1543) 두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太上殿, 2004).

이와 같이 김종서 장군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기개를 기리기 위해 매년 양력 11월 19일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산 45번지에 안장된 장군의 묘소에서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제향은 김종서 선생 현창회에서 주관하는데 김종서 선생 현창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임준길
- 총무: 이흥세
- 자문위원: 유재민(전 공주향교 전교), 노재경(공주향교 전교), 윤석조(단군성조 봉향회 회장), 오병구, 이덕관
- 운영위원: 임완수(연기향교), 허종행, 김명제, 최기현, 성용경, 최달식, 이병춘, 신상철, 이은양, 이성규, 유근우, 김기원, 정창희, 이양호, 박은규, 박항기, 이충열(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박세중

2012년 11월에 봉행된 추모제에서는 초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아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종헌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맡아 제향을 올렸다.

충익공 김종서 장군 추모제의 축문, 제물진설도(太上殿, 2004)와 현창회장, 그리고 제향 장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忠翼公節齋金宗瑞將軍 祝文

維檀君紀元 歲次 干支朔干支後學○○○敢昭告于
 삼가 忠翼公節齋 金宗瑞將軍님의 墓前에서 아뢰옵니다. 翁해는 將軍님
 께서 殉節하신지 周年이 되는 날입니다. 將軍님께서는 檀紀三七七年
 北方地域의 女眞族을 물리치시고 威鏡道에 六鎭을 設置하여 豆滿江을
 國境으로 領土를 收復하시고 國權을 宣揚하여 強大한 國家로 發展케 하
 시였으며 端宗大王 輔弼에 心血을 쏟으신 忠節은 後世에 길이 빛나 이
 民族의 龜鑑이 되셨나이다. 이제 祖國은 光復이 되고 榮光의 發見이 이
 록되어 先進隊列에서 前進하고 있어오며 온거리의 念願인 分斷된 國土
 統一을 爲하여 心血을 기울이고 있나이다. 敬虔한 마음으로 簡素한 祭
 羞를 墓前에 올리오니 歆饗하시옵고 길이 冥福하십시오. 祝願합니다.

축문



제물 진설도



임준길 회장



추모제

3) 충렬사 제례

충렬사 제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에 소재한 충렬사에 모여져 있는 류형(柳珩) 장군(1566~1615)을 기리는 제향 의례이다.

류형 장군은 조선 중기의 무신(武臣)으로 호는 석담(石潭)이고, 본관은 진주이며 후에 진산부원군에 봉해지고 시호는 충경(忠景)으로 받았다(公州崇慕會, 2013).

장군은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의 휘하에서 왜군(倭軍)을 무찌르는데 활약했고, 특히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때에는 이순신 장군의 막료로서 노량해전에서 왜적과 싸우다 부상을 입었으나 끝까지 전투를 지휘하여 승리를 이끌었으며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어 선조 35년(1602)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이와 같이 류형 장군은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외적을 막아냄으로써 국가를 지킨 큰 공을 세움으로써 후세에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어 1974년에 사당을 지어 위패를 모셨으며, 매년 음력 2월 25일 사당제와 10월에 시향을 올리고 있다.

충렬사 제례는 공주승모회에서 주관하여 봉행하고 있는데, 공주승모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표 1〉 공주승모회 임원 명단

전(殿), 원(院), 사(祠)명	도유사명	총무(문중대표)	기타
단군성전	윤석조	맹교성	
태상전	노재경	노 련	부회장
충현서원	서주상	이우병	
용문서원	김영한	이상배	
명탄서원	유재민	이덕배	
고로서원	오병구	정국희	감사
총렬사	노재경	류근우	
삼의사	윤석조	노재경	
화산사	박순규	정덕상	
대도사	노재경	박용악	
송의사	유재민	이종구	회장
삼충사	정종화	유재민	
대성단	황서주	이춘배	
금양단	유재민	오병일	
영규대사	박순규	전철규	
김종서	임준길	이흥세	

2014년 3월 25일에 봉행된 사당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변평섭 정무부시장이 초헌례를 올렸으며, 공주시유도회 최영규회장이 아헌례를, 연기향교 임완수 전교가 종헌례를 올렸다.

한편 총렬사 제례 축문과 2014년 집사기 및 공주승모회장, 그리고 2014년 총렬사 제향 봉행 장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維
檀君紀元三千年歲次干支月十支朔日干支敢昭告于
忠景公石潭柳將軍伏以忠孝大節智勇兼全渥背矢心襄創權錄
廓清氛祲再造乾坤始終義烈百世難忘值吉辰精禋是宜謹
以牲醴饗齋盛庶品式陳明薦尙

축문

宣
甲午年獻官及諸執事分榜記
初獻官 世宗朝易帝孫鄭文 邊平燮
亞獻官 公事使進香七 崔榮圭
終獻官 燕巖執事 林完洙
執禮 李春培
祝史 李亮鎮
祭掌儀 李鍾龜
典祀官 全璉植
陳設 朴容岳
贊引 安廣福
司樽 黃三益
奉香 吳炳秀
奉爐 李鍾國
奉爵 鄭鍾振
奠日 尹泳旭
直日 柳贊符

2014년 집사 분방기



유재민 회장



영정과 제물



제관



초헌례



아헌례



제관과 참반원

참고문헌

- 公州崇慕會 (2013). 崇慕誌. 대전: 애드모아.
- 全州李氏德泉君派宗會 (2003). 全州李氏德泉君波譜, 卷之一, 1-2.
- 全州李氏德泉君派宗會 (2013). 德泉 第三號. 서울: 진흥인쇄랜드
- 太上殿 (2004). 傳統儒林祭享便覽. 공주: 남성인쇄사.

도와 주신 분

- 강정훈 장군면사무소
- 류근우 충렬사 총무
- 신용희 사진 작가, 금강뉴스 대표
- 임준길 김종서 선생 현창회 회장

將軍面誌

제 6 장

민 속

제1절 _ 장군면 민속 개설

제2절 _ 장군면 마을 신앙

제3절 _ 민간(개인, 가정) 신앙

제4절 _ 세시풍습과 놀이

제5절 _ 마을 조직

제6절 _ 마을 농사 조직과 생산 풍습

제7절 _ 기타 마을 여건

제8절 _ 장군면의 민요

제9절 _ 장군면의 풍장(농약)들

제10절 _ 구비 전승

제6장

민속

제1절 장군면 민속 개설

전통사회의 환경으로 볼 때 장군면은 공주시의 북단에 위치하여 농사에 의존하는 고장이었으며 일부 마을이 금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생활을 영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환경은 마을신앙의 경우 장승제와 거리제 나무에 올리는 고목 대신제 농기고사등이 성행하였고 공주 세종의 각 지역에서 흔히 올려진 산신제가 적고 용왕제(水神祭)는 올리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장군면 민속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것은 두레와 민요다. 두레의 경우 모든 마을에서 열렸으며 일을 효율적으로 많이 하기 위한 농사 조직으로의 역할보다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성격이 더 강했고 민요는 일노래, 유희 소리, 관혼상제 관련의 노래 등 매우 다양하게 채록되었다.

농사를 포함한 일노래에 관하여 특이한 점은 노래를 부르는 창법과 노래의 유형 중에 〈메나리〉 소리들이다. 공주시와 세종시의 민요는 충청도의 평조 소리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경재 민요들과 전라도의 육자백이 재 민요가 혼재하여 매우 다양한 노래가 불렸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백두대간을 산골 마을에서 부르는 〈메나리〉 소리는 공주시 반포면 일부 마을과 세종시 장군면의 일부 마을에서 메나리 재의 농요가 불린다.

또 하나 특기할 사항으로는 공주 정통의 느린 아리랑이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공주 긴 아리랑은 이 고장에서 채록되기 전에는 절맥된 소리로 알려져 있었으나 구 장기면 제천리에서 채록되기 시작하여 소리가 복원되었으며 이 소리가 의당면 울정리 채록분과 같아 공주에서 성행한 소리로 확인되었다.

장군면의 민속에서 또 하나 소중한 것은 어린이들이 즐긴 놀이다. 어린이들의 놀이가 제한적이던 전통사회에서 어느 고장에서나 유사한 놀이가 성행하여 타 고

장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놀이가 채록되는 사례가 매우 드문데 이 고장에서는 <콩농사 보리농사><낙화놀이>등 타 고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놀이가 성행 하였던 고장이다.

장군면의 모든 마을은 천렵을 즐겼다. 구 공주시 의당면 지역은 천태산과 대교 천변에서 구 장기면의 지역은 대교천, 장군봉, 금강변에서 봄 천렵을 즐겨하였다. 천렵의 문화는 마을에 따라 정례화되기도 하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여러 가지 유희적인 민속이 성행하는 풍토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장군면의 민속을 정리하면, 마을 고사를 평온하고 즐겁게 지냈으며 그속에서 다양한 민요와 풍장 가락으로 수려한 산수에서 천렵을 즐기며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서도 서로를 돌보면서 즐겁게 살아온 우리 민족의 특징을 참으로 다양하게 간직해 온 고장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제2절 장군면 마을 신앙

1. 장군면 마을 신앙의 개설

장군면의 거의 모든 마을은 동네고사를 올렸다.

이 고장에서 올려진 마을 고사는 농짓고사가 가장 많으며 장승제, 산신제, 거리제, 고목(古木) 고사 등이다. 이를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의당면 지역인 송학리에는 몸티 향나무고사, 들말 장승제, 은적골 농기고사, 구암 산신제, 송정리의 농기고사, 용암리의 거리제, 송문리의 거리제, 구 장기면 지역의 제천리 고목대신제 하봉리의 장승제, 봉안리에서 거리제가 올려졌다. 이 모든 마을 고사는 정월 대보름에 지내졌으며 마을에 따라서 대보름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자시(子時)에 올리는 풍습으로 음력 정월 14일 밤에 11시에 올리고 일부 마을에서는 보름날 밤에 올렸다.

특이한 점은 공주의 마을 신앙으로 가장 흔히 올려진 산신제를 올리는 마을이 적다는 것이다. 산신제가 올려지던 마을로는 장군면 송학리 구암의 산신제가 있었으나 1970년도 이후 올려지지 않았으며 다른 고장에서는 산신제가 보이지 않는다.

장군면에서는 샘고사 또는 삼고사로 불리는 용신제는 독립적인 마을 고사로 올리는 마을은 없으나 정월대보름 마을 고사를 올리는 모든 마을들이 동네 고사를 올리기 전에 우물을 청소하고 주민들의 1년 동안 건강을 기원하는 작은 고사가 마을 고사의 일부로 행해진다.

정월 대보름 외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올리는 고사로는 두레 먹는 날 농기 고사가 유일하다. 이는 마을 신앙으로 보기보다는 두레문화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엄연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고사였으며 이는 장군면의 모든 마을에서 빠지지 않고 모두 올린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마을 고사들은 1970년대 미신 타파의 정책에 의해 사라지고 올리지 않는데 송학리의 향나무고사, 장승제, 농기고사와 송정리의 농기고사, 제천리의 거리제는 지금도 맥을 이어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열리고 있으며 마을 주민 모두 참여하는 윷놀이나 경로잔치를 더하여 예전보다 규모가 줄지 않은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장군면의 마을 신앙은 충청도 들이 넓은 농촌 마을의 일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산신보다는 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자연신을 섬기는 특징이 있다. 엄숙한 가운데 올리는 고사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고사를 지내고 함께 즐기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마을의 마을 고사는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장군면의 마을 신앙 중 특별하게 조명할 필요를 느끼는 몇 마을의 고사는 별도로 기술하였다.

2. 송학리 들말 장승제

1) 신앙의 마을 송학리

송학리에는 많은 마을 신앙이 존재해 왔으며 그 중 일부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자연마을별로 행해졌던 마을 대동신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들말 : 장승제, 거리제, 샘고사, 농기고사
- (2) 학미 : 거리제
- (3) 몸티 : 향나무고사, 농기고사
- (4) 은곡 : 농기고사.
- (5) 구암 : 산신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마을에서는 다섯 개의 작은 마을에서 10개의 대동고사(大洞告祀)가 행해졌으며 이 중에서 현재까지 올려 지는 고사는 들말의 장승제와 농기고사, 몸티의 향나무 고사와 농기고사, 은곡의 농기고사가 남아있다.

2) 들말 장승제

들말은 송학1리 중심에 있는 송학의 본동(本洞)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들말은 산줄기가 양팔로 들을 끌어안은 것처럼 숨겨진 곳에 들판이 있다하여 들말로 불리는 마을인데 마을 어귀 좌우에는 아주 소박한 돌장승이 지키고 있다.



〈사진 1〉 들말 장승(천하대장군)



〈사진 2〉 들말 장승(지하여장군)

돌장승의 높이는 천하대장군이 67cm, 지하여장군이 65cm로 어린아이가 앉은 크기와 비슷하고 돌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에 전혀 인위적인 조형을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다.

들말에서는 장승제를 지내는 정월 대보름날에, 1년에 한 번 먹을 갈아 먹물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행위만 반복하는데, 대부분 먹물이 다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하는 행위라서 장승은 수 백 년 동안 변함없이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장승을 모셔 놓은 장승백이의 모습도 편안하다. 천하대장군은 아름드리 참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있고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작은 계단을 쌓고 제사를 모실 공간을 확보하여 다듬었지만 얼핏 지나치면 장승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정도 자연스럽다. 지하여장군의 터는 십수년 전에 심은 느티나무 정자 아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가까이 지나치면서도 장승이 있는지 모르고 지

나칠 만하다. 현재 다른 고장에서 장승백이를 요란하게 치장하고 대형의 장승을 모시는 풍토에 대비되는 옛 모습 그대로의 장승백이인 것이다.

장승제가 올려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농기 모시기와 유사 선정 : 정월 초사흘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장승제를 지낼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미로 농기를 세우게 하며 마을 모든 호주(戶主) 개인의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 볼 줄 아는 노인과 대동계장(大洞契長) 등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 남자 중 결혼을 한 호주의 당년도(當年度)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아 가장 길(吉)한 사람을 유사로 정한다.

정해진 유사는 동네샘물로 목욕재개 하고 집안에 금줄을 치고 장승제가 끝나기 까지 문 밖 출입을 삼가며 불길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근신(勤愼)한다.

- (2) 동네샘 소제(掃除) 및 새물 받기 : 정월 초이레가 되면 마을의 장정들이 모두 모여 고(告)풍장을 치고 나가 들말의 마을 중심에 있는 동네 샘물을 바닥이 들어나도록 품고 새물을 받는다. 마을의 공동 우물인 동네 샘이 거의 모두 사라졌지만 이 마을의 동네 샘은 아직도 잘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샘고사를 소박하지만 예스럽게 행하고 있다.

유사는 매일 새벽에 다른 사람이 나오기 전에 새물을 길어다가 밥을 지어 먹고 세수를 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

- (3) 제주(祭酒) 담기 : 음력 정월 초나흘에서 초이레 사이 하루를 택하여 마을에서 부정이 들지 않은 여인들 2-3명을 선정 동네샘 물을 길어다가 대동제에 쓸 술을 담는다. 부정이 들지 않은 여인이라 함은 달거리를 하지 않고 지난 1년중 큰 가축이나 사람이 죽거나 상하지 않은 여인 중 생기복덕이 길한 여인을 말한다.

(4) 걸립풍장 : 술을 담은 날부터 마을 풍장패와 일부의 동민들은 장승제에 필요한 재화를 얻기 위한 걸립 풍장을 시작한다. 걸립 풍장은 길나래비 1명, 대동계장 1명, 상쇠 부쇠 장고 북 징챙이가 각 1명이고 마을을 도는데 다른 마을과 다른 점은 유사가 걸립 풍장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유사는 부정한 것을 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문 밖 출입을 삼가 하여 집집마다 다니는 걸립풍장은 함께 하지 않는데 반하여 이 마을에서는 대동계장과 유사가 나란히 호별 방문을 하였다. 추렴한 곡식을 지고 다니는 장정 지계꾼이 풍장챙이의 앞에 서는 것도 다른 마을과는 다른 모습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행해지던 걸립 풍장은 지금 행해지지 않고 있다.

안택풍장의 고사 소리

- 부엌 : 들왔네, 들왔네, 조왕님이 들왔네. (아주 빠른 풍장)
- 장독 : 들왔어, 들왔어, 칠성님이 들왔어. (아주 빠른 풍장)
- 우물 : 뚜르세 뚜르세 물구녕만 뚜르세. (아주 빠른 풍장)
- 마당 : 오셨네 오셨네, 성주님을 오셨네. (아주 빠른 풍장)

(5) 장보기 : 대동고사에 쓸 진설(陳設) 관련 물품과 마을 사람들이 먹을 음식 재료를 공주 장날 사오는데 정월 열사흘 이전의 공주 장날 물품을 구입한다. 이른 아침에 장에 나가 상점의 첫 손님으로 들어가며 신에게 고사를 올리는 신성한 일에 사용할 물품이라 하여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르고 장사꾼이 부르는 값을 깎지 않고 산다.

(6) 장승백이의 청소와 장승 먹물 입혀드리기 : 정월 열나흘 새벽 짐승이 활동하기 전에 마을의 장정들과 유사, 대동계장이 장승의 터로 나가 청소를 하고 기러기 장승(숫대)를 세운다.

숫대 세우기가 끝나면 대동계장의 지도를 받아 유사가 장승에 붓과 먹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이 행위를 <먹물 입혀 드린다>고 표현한다.



〈사진 3〉 소박한 장승백이의 전경 (지하여장군)

(7) 고풍장 : 정월 열나흘 오전에 마을 앞 공터와 농기 주변에서 고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풍장을 친다. 풍장의 의미는 장승제를 지내기 위해서 기러기 장승을 세우고 먹물 입히기가 원만히 끝나 보름날 새벽에 장승제를 지낸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풍장이다. 풍장 가락이 차분하며 춤을 추지 않는다.

(8) 장승제 : 정월 보름 새벽에 유교식으로 올린다. 옛 시간으로는 인시(寅時), 현대의 시간으로는 새벽 4-5시 안에 올리며 절차는 동네 고사 중유 교식(儒敎式)으로 강신례(降神禮), 초헌(初獻), 봉축(奉祝), 아헌(亞獻), 종헌(終獻)의 순(順)이다.

부정한 사람은 구경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웃 마을 사람일지라도 타동 사람은 제례를 올리는 길을 왕래(往來)하지 못하게 하였다.

(9) 대동소지(大洞燒紙) : 지하여장군의 장승 고사를 지낸 자리에서 대동계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를 따지지 않고 호주 1명을 대표로 하여 가정의 무사태평(無事泰平)과 번영을 기원하는 소지를 올린다.

마을 소지는 제주가 올리고 나머지는 참여 제관 모두가 나누어서 올리는데 기원의 소리가 겹치지 않게 진행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주가 아닌 사람의 개인 소지도 올려준다. 소지를 모두 올릴 때쯤이면 날이 밝는다.

- (10) 샘고사 : 정월 초사흘에 물을 품은 동네 샘에서 올리는 고사로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축원한다. 특별한 제물을 별도로 차리지 않고 장승제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에 일부의 제물(북어, 술)을 놓고 풍장꾼들이 풍장을 치면서 샘 주변을 돌때 좌상, 대동계장, 유사가 잔을 올리는 것으로 끝난다.
- (11) 농기고사 : 샘고사를 끝낸 제관들과 풍장꾼들이 농기 마당으로 이동하여 농기를 위하는 고사를 올린다. 깃고사는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당으로 별도의 음식을 마련하지 않고 마른 명태 한 마리를 흰 실로 묶어 농기에 매달고 작은 술상에 잔을 올리며 재배한다. 농기 고사는 단잔복배(單盞伏拜)라 하여 한잔술을 올리는 것으로 끝난다.
- (12) 뒷풍장 : 마을의 고사가 모두 끝났음을 알리는 풍장으로 농기 주변에서 시작하여 거리제 고사장을 돌아 농기 아래에서 끝난다. 고풍장과는 다르게 아주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며 참여한 사람들은 춤을 추며 즐긴다.
- (13) 음복(복나눔) : 고사가 끝난 후 치루는 음복의 예로 제사에 사용한 술을 제주부터 참석한 동민에 이르기까지 고루 나누어 마신다. 특히 고사떡을 얻어먹으면 1년 동안 재수가 좋다하여 남녀노소 불문 모두 나누어 먹었다. 음복의 행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도 정월 대보름 마을 전체의 척사대회를 열어 옷을 놓고 종일 풍장을 치면서 노는 것이 보름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3. 몸티의 향나무와 향나무 고사 및 농기 고사

1) 몸티의 향나무



〈사진 4〉 송학리의 남쪽 몸티에 있는 향나무 (수령 400년)

송학리는 공주, 조치원, 장군면 그리고 정안면으로 연결되는 네 개의 진입로가 있으며 모두 지방도(地方道)로 2차선이다.

몸티는 이중에서 조치원과 공주를 연결하는 남쪽 진입로 변에 자리 잡은 첫 마을이다. 의당면 사무소에서 6km 남짓 북쪽으로 올라가면 〈싸리고개(일명 종고개)〉라는 고개가 나오고, 고개를 넘어가면 왼편으로 작은 마을이 산자락에 숨은 듯이 앉아있는 마을이 〈몸티〉다.

몸티라는 마을의 이름은 싸리고개 밑에 새롭게 조성된 마을이라 하여 새신(新) 고개치(峙)의 충청도 발음인 티를 더하여 신치(新峙)였던 것이 앞의 신자가 몸신(身)자로 바뀌어 신티가 되었으며 몸신을 한자로 하니 잘 통하지 않아서 몸티로 변했다는 것이 이 마을 노인들의 주장이다.

몸티의 동쪽 마을 앞에는 수령 4백년의 향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조선조 중엽에 이 자리에 사창(司倉)을 짓고 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심은 나무라 한다. 특이한 것은 이 나무가 아직도 왕성히 자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나무는 현재 나무의 높이가 6.5m에 이르고 나무 밑둥의 둘레가 2.5m에 이르며 나무의 직경이 20m에 이르는데도 나무는 생육이 왕성하여 전혀 노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1982년 공주시(당시 군)의 보호수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매년 2회는 정기적으로 이 나무를 돌보아 낙엽을 떨어주고 잘못 자란 가지를 잘라주고 있으며 정월 대보름에는 이 마을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대동 고사를 지낸다.

당초에는 이 향나무 아래서 마을의 대동제(大洞祭)가 올려지지 않았다 한다. 다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향나무에 빌면 득남(得男)을 한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해당되는 큰일이 있을 때에 동민들이 모여서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한다. 이것이 1900년대 경이었다.

마을에서 올리는 대동고사는 공주시 일원에서 보이는 두레 풍습의 하나인 농기 고사만 지냈다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일제 강점기 후기로 오면서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늘어나 농기 고사를 올리는 정월 대보름에 정기적으로 고사를 지내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후 매년 올려 지던 고사는 1970년대 미신 타파를 부르짖는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향나무 고사의 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공업적인 힘에 의하여 양산되는 만수향이 없던 시절에는 조상의 제사를 올리는 향을 보급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중심이었던 향나무의 영향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죽는다.』는 주장이 일어 1998년부터 다시 향나무제를 올리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몸티의 향나무제는 매년 올려지고 있다. 1998년 향나무제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들은 구본태, 유남위 등이다.

최근 이 향나무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30년 동안 올려지지 않던 향나무제가 올려지고, 송학리가 신행정 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확정되면서 갑작스럽게 지가(地價)가 상승(上乘)하여 향나무가 서있는 송학리 456번지의 토지가 외지인에게 매각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가가 상승하여 시골에서는 아주 비싼 땅이 되었는데 나무가 차지한 면적이 좁지 않고 보니 땅의 임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향나무로 인하여 점유된 토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마을 공동 재산으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외지의 지주에게 『그 땅을 문제 삼으면 그 논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폐쇄하여 아무 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싸움을 해야 했다. 결국 이 나무의 점유 토지는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문제점으로 부각될 소지를 갖게 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이를 계기로 행정의 이 부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사진 5〉 향나무 앞에 조성된 문화마을

2) 향나무제

몸티의 향나무제는 두 종류가 있었다. 첫째는 개개인이 올리는 것으로 이 나무에서 치성을 드리면 득남을 한다는 믿음으로 올려 지는 개인 차원의 민간 고사였고 또 하나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동고사다.

1970년대 이전에는 『몸티 향나무가 없으면 조상님의 제사도 모실 수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로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에 사용되는 향불용 향을 이 나무에서 얻어 썼기 때문에 『향나무를 위해야 한다.』는 공동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러한 영향이 향나무를 대동고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

몐티의 향나무제는 지금도 다른 마을의 대동제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별도의 유사를 정하기보다 정해진 마을 사람 몇 명이 돌아가면서 유사를 맡는다. 표면적인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인데 60년대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재원이다. 이 부분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건립을 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뜻을 둔 몇몇 인사가 추렴을 하여 제례를 올린다. 이 또한 예전에도 마을 전체의 건립을 하지 않고 뜻이 있는 일부 인사가 추렴을 하여 제사를 올렸다 한다.

셋째 마을의 대동 소지가 올려 지지 않고 제례에 참여하는 사람의 소지만 올린다. 대동고사에서 혹은 대동 소지를 올리지 않는 마을은 있지만 일부만 올리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면과 산신제 장승제 거리제와 서낭제는 올리지만 나무 고사를 올리지 않는 장군면의 대동고사의 흐름을 살펴 유추할 때 앞서 말한 농기고사가 마을을 대표하는 고사라서 향나무를 신성시 하던 기운이 약해지고 『팽나무 밑에서 서낭제는 올려도 팽나무에는 고사를 올리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인하여 향나무의 대동고사를 지내는 동계(洞契)가 서지 못하고 뜻을 함께하는 일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변형된 마을 고사가 올려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현재의 향나무제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한해에 한명씩 젊은이가 죽는 일이 벌어지자 마을을 지켜주는 향나무를 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마음으로 구본태와 유남취가 중심이 되어 고사를 계획하고 마을 사람들의 추렴으로 재원을 만들어 지내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이 마을의 유사는 정초에 몇몇 사람이 모여 정하고 젊은이가 적어 생기복덕을 따지지 않고 정월 대보름에 올리며 제례의 의식은 유교식이다.

3) 농기고사

몐티에는 참으로 소중한 자료가 있다. 그것이 <벼슬한 농기>다.

벼슬한 농기라는 것은 현직에 있는 관료 중 마을(두레)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농기에 글을 쓰고 자신의 수결(手決)을 한 농기를 당해 고을의 관청 수장이 관인(官印)을 찍어 증명한 농기를 말한다.

공주시에서는 계룡면 중장리에 영의정의 수결이 있는 농기가 있었고 정안면 석

송리에 그 마을 출신으로 구한말 한성판윤(漢城判尹) 벼슬을 한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고향 마을에 들러 수결을 하였다는 한성판윤 농기가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필자가 <공주의 두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두레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양반들의 입장에서 본 두레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 가늠하는데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마을 모두 농기가 훼손되어 그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소중한 자료로서 존재가 분명한데도 유산으로 남아있는 물건이 없었던 벼슬한 농기가 송학리 1구 몸티 마을에 현존해 있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농기는 신미년(辛未年)년 정월(正月)보름(十五日)에 중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 노인들이 중건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871년에 중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농기는 중건 당시 이 농기 이전에 존재했던 수결있는 농기의 수결 부분을 잘라 우측 상단에 손바느질로 꿰매서 보존하였다.



〈사진 6〉 한성부당상의 수결이 포함된 몸티의 농기

일반적으로 농기의 수명이 길지 않아 100년을 지탱하기 힘든 반면 60년은 무난히 보존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결을 받은 것이 1770년 이후 1830년 이전으로 추정되는데, 벼슬한 농기는 그렇지 못한 모든 농기에게 절을 받는 중요도를 생각할 때 구전으로라도 누가 언제 수결을 한 것인지 전해질 법도 한데 전혀 기억하는 노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사진 7〉 글씨와 관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농기 수결부분의 모습 붉은 빛이 관인의 흔적

모두 45-50자 정도의 글자가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수결문 중 18자는 비교적 선명하여 글자를 알 수 있으나 10여자는 판독이 어렵고 나머지는 형체가 남아 있지않는데 밝혀진 글씨는 다음과 같다.

○○○○ 公州儀朗/ 面○○○旗/ ○○本邑 都先生善/定○○○○○○○○○/ ○○○○○富/ ○○○丑/ 漢城府堂上 (수결)이다.

남은 글자의 수가 적어 전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영의정 수결 농기의 경우 영의정이 호남으로 민심을 살피러 내려가던 중 마을의 부호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보답으로 농기에 수결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성판윤이 송학리의 도선생의 선정을 칭송하여 이 마을에 왔을 때 수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기록에 남아있는 의량면이라는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의당면으로 바뀐 점과 아직도 흔적이 확실한 관인의 날인 부분을 보면 조선조에 행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농기를 보관했던 동물(洞物) 창고로 1974년에 지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1986년 마곡사 주지에게 글씨를 받아 만들어 현재 사용 중인 송학리 몸티 두레 농기



수결 농기에 관한 증언과 향나무제를 만드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 유남희씨

1870년대 제작된 농기는 1986년에 이르러 중건하는데 1960년 두레의 소멸 이후 정월 대보름에 농기 고사를 지낼 때만 농기를 사용하면서 수명이 길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1986년 중건 농기의 글씨는 당시 마곡사 주지 스님에게 글씨를 받았는데 마을의 주민 중 한분이 마곡사 주지와 친분이 깊어서였다 한다.

몸티의 농기 고사는 앞서 말한 한성부 당상관 수결 농기로 인하여 마을을 대표하는 동네 고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월 대보름에 올리는 농기 고사에는 제물을 따로 마련하여 올렸다 하는데 이는 일반전인 마을과 사뭇 다른 형태다. 공주시 일원의 일반적인 농기 고사의 형태는 대동 고사로서 본고사(本告祀)가 아니라 부설적인 형태를 갖는다. 즉 장승제나 거리제를 지낸 후 농기에 별도의 음식을 차려놓지 않고 술만 올리고 대동 고사의 유사 등이 절을 올리는 정도다.

그런데 송학1리 몸티에서는 농기 앞에 상을 차려 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고사를 지내고 대동 소지를 올렸다 한다.

그러나 이 농기고사도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미신타파의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제례의 절차와 내용이 간소화되어 지금은 향나무제를 지내고 농기고사를 올리는 다른 마을의 농기고사와 유사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4. 은곡 농기 고사

송학리에는 모두 4개의 농기가 섰던 것으로 보여진다. 은곡, 학미, 들말, 몸티의 네 마을에 농기가 있었다. 이는 바꾸어 말해 송학의 두레가 넷이었다는 말이다. 은곡을 제외한 세 마을의 농기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대본기였고 은곡은 신농유업(神農遺業)의 신농기였다.

이 중 은곡의 농기는 아직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관리되고 있으며 들말, 몸티, 은곡은 농기 고사를 지낸다.

몸티의 깃고사는 앞서 설명한대로 장승제를 지낸 끝을 묻어 올리는 몸티는 향나무제를 지내고 마을에서 올려지며 은곡은 다른 제례와 별도로 단독의 깃고사를 올리는 것이 다르다.

또 한 가지 농기와 관련하여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다른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주시 일원의 마을들이 농기를 세울 때 인근의 두레와 격을 따지는 경향을 보인다. 농기의 서열은 용이 그려진 용담기, 신농유업의 신농기, 농자천하지대본의 대본기 동작서성(東作西成)의 동서기 순이며 이는 두레의 크기 본동(本洞) 여부 등을 따져 그 마을의 격에 맞는 농기를 세운다.

이러한 관례로 살펴본다면 당연히 신농기는 들말이나 학미에 있어야 한다. 본동으로 보면 들말이고 학자나 큰 인물을 배출한 곳은 학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학에서는 마을의 규모가 앞서 말한 두 마을 보다 확연히 작은 은곡에 신농기가 있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마을 단독의 대동고사로 올리는 은곡의 깃 고사가 현대로 오면서 간략하게 생략되어 옛 원형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며 몸티와 은곡의 농기 고사의 규모와 격식은 들말의 농기 고사와 유사하다.

5. 장군면 송정리 농기고사

송정리에는 1개의 농기가 섰다. 송정과 송문리가 같은 마을일 때는 2개의 농기가 있었으나 송문리가 장기면으로 분할되고 나서는 단일 두레였다. 농기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대본기며 크기가 작은 형태다.

이 마을의 농기는 아직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관리되고 있으며 정월 대

보름에 마을 고사로 다른 고사와 섞이지 않은 단일 고사가 올려진다.

고사의 진행은 1)정초 안택풍장을 쳐 주고 돈이나 쌀을 걷는 거둬거지 2) 장보기 3) 농기바탕 청소 4) 농기 모시기(세우기) 5) 농기 고사의 순으로 충청 일원의 농기고사와 유사하다.

이 마을의 농기 고사가 다른 마을과 다른 것은 잔을 올리는 횟수다. 일반적으로 공주 세종 일원의 농기 고사는 단잔 복배라 하여 한잔 술을 올리고 두 번 절하며 소지를 올리 것으로 끝나는데 이 마을에서는 3배를 올리고 마을 남자 주민 모두가 함께 절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마을의 농기고사는 아직도 정월 열나흘 밤에 전통대로 열리고 있으며 다음 날인 보름에는 마을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젊은이들이 윗놀이를 즐기는 형태로 이어진다.

6. 그 밖에 마을 신앙(고사)들

장군면에서는 마을에 따라 거리제, 장승제 등의 많은 고사가 아직도 올려진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절차가 간소해졌으며 고사 역시 종교적인 문제 등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마을은 소수다.

1970년대 이전의 장군명의 고사 중에 특기해야 할 마을 신앙은 두레 먹는 날 행해진 두레 농기 고사로 지금까지 조사로 밝혀진 두레 농기고사는 다음과 같다.

은옹리 은골두레, 농골두레, 도계리 풍덕골 두레, 장터 두레, 평기리 윗말두레, 앞서 기록한 송학리 4개 두레, 송정리 갸실두레, 용암리 양달두레, 띠실 두레 용현리 용머리두레, 송정리 송문 두레 등이다.

드러나 이 기록은 장군면에서 조사한 민속에 관해 채록된 모든 마을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마을의 모든 두레가 여름두레 먹는 날에는 농기에 고사를 지냈음을 의미한다.

고사를 지내는 절차와 방법은 모두 유사하다.

여름두레 먹는 날 오전 일찍 세 번째(만물이라 함) 논매기를 모두 끝내는 작업을 모든 두레꾼들이 함께 한다. 이를 <뚜껍 덮는다>라 칭하는데 오전 11시경 모두 끝내도록 운영되며 논매기를 끝내면 호미를 씻는다. 상징적인 의미의 호미씻기가 끝나면 농기를 앞세우고 풍장패와 모든 두레꾼들이 여름두레를 먹는 장소로

이동하는데 이를 <두레 행차>라 하며 이동한 농기는 여름두레 먹는 장소의 중앙에 세워진다.

두레 농기 고사는 이때 올려진다. 농기 앞에 모든 두레꾼들이 서면 서되, 서쪽의 시루떡과 명태와 실 정도의 작고 소박한 고사상이 차려지고 두레의 좌장과 공원 등의 임원이 나서서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역시 단잔 복배로 술은 한 잔만 올리며 이후 모든 두레꾼들이 절을 하거나 허리를 굽혀 예를 차리고 공원이 나서서 농기 앞에 풍년이 들기를 원하는 소지를 올리며 소지 후 임원들이 제주(祭酒)로 음복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고사는 단조롭고 평이하며 별도의 민속을 포함하지도 않는데 농기 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장군면의 모든 마을 모든 두레가 같은 모습으로 올렸다는 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제3절 민간(개인·가정) 신앙

1. 장군면 민간 신앙 개설

장군면 일원의 민속 신앙은 불교와 무속 가정의 신앙으로 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1) 불교

장군면에는 조계종 사찰로 영평사가 있으며 여러 곳에 절골이라는 지명이 있고, 작은 절들이 있었다. 구 공주시 의당면 지역의 장군면 주민들이 주로 찾던 사찰로는 의당면 월곡리의 동혈사, 의당면 가산리의 가산사가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보아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신앙으로서 불교가 가장 성행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민간이 사찰을 찾는 것은 여타 지역과 같이 사월 초파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았으며 개인적인 불공 역시 타 고장과 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2) 무속

장군면에서는 무속인(무당)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당산말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명성이 높았던 계룡산이 40리 안에 있던 경향으로 보인다. 반면 1~2개 마을마다 1명의 무당이나 이른바 이고장에서 <반무당>이라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의 액택이나 굿을 행하였다.

1970년대 이전이라면 장군면에서 굿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경문을 외워 길흉화복에 대한 일을 한다하여 경을 읽다라 하였는데 이 말은 충청권이 발음적 변화로 인해 <정>으로 표현하였으며 무속인을 대우하여 하는 말로는 <큰일을 한다>하였다.

무속인들이 행한 굿의 현재는 다음과 같다.

1. 안택 정 : 부잣집에서 1년에 한번 집안의 평온과 복을 빌기 위해 행하는 굿으로 보통 하루만에 끝나지만 2-3일의 큰 정을 일기도 한다.
2. 병 정 : 몸이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굿.

3. 비선 정 : 무당을 불러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곳이나 많이 생략되어 간략하게 행하는 것을 이르며 필요에 따라 행한다.
4. 나라 정 : 단체나 마을 등 사회적인 다수를 위해 행하는 곳을 이르는 말. 마을 고사에서 유교식 고사를 지낸 후 동네의 평온을 위해 별도로 행하는 곳을 이르기도 한다.
5. 냇 건지기 정 :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달래는 곳.
6. 길땀이 정 : 젊어 죽거나 사고로 죽은 사람을 원을 씻어 주기 위해 행하는 곳.
7. 내림 정 : 무단의 신내림을 위해 행하는 곳. 타 지역과 같이 3~7일의 긴 기간동안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 방법 : 작은 병치레를 없앨 목적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한(도둑을 잡기 위해서) 목적 등으로 무당을 불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말.

〈가정 신앙〉

장군면의 가정 신앙은 소박하며 충청 일원의 일반적인 사항과 같아 특이함이 적다.

1년 중 시루떡 또는 백설기를 해놓고 정성을 드리는 것은 10월 상달 추수가 끝난 후 시루떡을 하여 장독 칠성단지 앞에 놓고 촛불을 밝힌 후 치성을 드린다. 또한 정월 열나흘 밤, 마을 고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루떡이나 백설기를 해 놓고 비는 것을 중요시 하였다.

정성을 드리는 방법 면에서 특이점은 없다. 치성을 드리는 장소는 마을에 따라 서낭당, 산제샘, 동네 위하는 샘, 장승백이, 산신각 또는 산신당 터, 특이하거나 오래된 고목, 강변, 시냇물, 특이한 바위 등에 행하며 마을 고사가 행해지는 장소는 모두 치성을 드리는 곳이었다.

마을 고사를 지내는 곳에서 개인이 가정을 위한 고사를 지내는 경우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 고사 이전에 작은 고사를 행하게 하고 마을의 공식적인 고사가 시작되면 행하지 않았다.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 고사 후에는 개인 고사를 음력 2월 1일까지 엄히 금하기도 하였다.

기타 가정에서 행한 민간 신앙적 금기 사항이나 집안의 성주를 위하는 풍습은 기록을 생략한다.

제4절 세시풍습과 놀이

1. 장군면 세시풍습 개설

장군면의 세시 풍습은 충청일원의 세시풍습과 유사하여 특이함은 없다. 일반적인 세시 풍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설날 - 정월 초하루로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며 성묘를 하고 세배를 다닌다. 설 전날은 <작은 설>이라 부르고 전년도 설날 세배를 하지 못한 어른들, 특히 친구의 부모 등에게 찾아다니며 세배를 올리기도 하는데 이를 <묵은 세배>라 칭한다. 일부 가문을 제외하고는 떡국으로 차례를 올리며 점심에는 고지국을 끓여 먹는다.

세배의 순서는 상청, 문중의 세배, 친구의 부모, 다음으로 연령이 높고 덕망있는 노인으로부터 시작한다. 마을에 따라 단순히 고 연령자 순으로 행하기도 하며 세배꾼에게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과자 차례음식 중 과일과 과자류를 주기도 한다.

② 정월대보름 관련 - 마을 고사와 관련된 일정으로 초 3일 유사 선정, 고사 전반 협의, 초 7일 고사 술 담기와 농기 세우기, 10일 마을 고사 경비를 모으고 가가호호 복을 빌어주기 위한 안택 풍장의 순례인 <거듬거지> 풍장이 시작되어 마을에 풍장(農樂)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14일 이전에 장을 보며 1일전이나 당일 음식을 마련하여 고사를 지낸다.

청소년들은 이 시기 다른 사람의 집에서 밥을 훔쳐 먹는 것이 풍습이며 들키지 않고 많이 훔쳐 먹어야 1년 동안 재수가 있다 믿었으며 14~15일 밤에는 떡과 밥을 얻어 먹는다.

불깁통을 돌리는 쥐불놀이와 논두렁이나 냇둑을 태우는 불놀이, 과일 나무가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나무 장가들이기>, 부럼깨기, 더위 팔기 등도 다른 마을과 같다.

③ 지날(음력 2월 1일) - 콩이나 밤콩과 보리쌀, 수수쌀, 메밀, 벼 등을 함께 볶아 먹으면 논과 밭에 잡초가 나지 않으며 특히 밭의 유해 식물인 근삼과 새삼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어 이를 행했다.

④ 단오날 - 3~7일 전에 그네를 매고 아낙네들이나 젊은 여인들이 그네를 뛰고 장정들은 씨름을 하며 철렵을 즐기기도 한다. 창포로 머리를 감는 등의 민속은 다른 고장과 유사하다.

일찍 키운 상추로 쌈을 싸먹으면 하루거리에 걸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 이를 행하는 마을도 있다.

⑤ 백중음식 - 머슴들의 명절로 머슴이나 농부들이 이 날은 일을 하지 않고 논다. 일반 농가의 경우 자녀 농사꾼에게 용돈을 주며 머슴들은 주인이 용돈을 주어 장에 나가 보신탕이나 닭고기를 사먹게 한다. 마을이 장에서 먼 경우나 집안이 곤궁하면 집에서 이런 음식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⑥ 유두날 - 특별한 풍습은 보이지 않으며 애호박나물을 먹으면 1년 속이 편하다 하여 이를 행하기도 한다.

⑦ 칠석날 - 장군면의 칠석은 가정에서 신을 위하는 날이라는 의식이 매우 강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가고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성주단지의 벼를 방아를 짚어 쌀밥을 지어 성주에게 올린다. 다중이 모여 행하는 기원고사 등은 보이지 않으며 가정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빌기도 한다.

⑧ 추석 - 설날과 함께 년 중 가장 큰 명절로 우리 민족의 일반적인 추석 명절과 같다. 송편을 주 음식으로 하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며 밤이면 달을 보고 빈다. 햅쌀 음식을 조상에게 올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장군면 도계리, 송문리에서는 추석날 밤에 노래 자랑이 열리기도 하였다.

⑨ 10월 3일 - 음력 시월 초3일을 시루구멍 막는 날이라 부르며 팔고물을 이용한 시루떡을 해서 장독의 성주단지에서 고사를 올리고 변소, 사랑채, 외양간, 대문간 등에 부정풀이 음식으로 내놓고 남는 것을 먹는다.

⑩ 동짓날 - 동짓날이 음력으로 1~10일 사이에 닿으면 애동지라 하며 20-말일 사이에 닿으면 노동지라 한다. 애동지에는 떡을 하고 노동지에는 찹쌀 새알심을 한 팔죽을 쑤어 먹는다. 집안에 굶은 일이 많은 집에서만 대문이나 사립문 앞에 팔죽을 뿌린다.

2. 하봉리의여인들의 삶과 민속

1) 재미있는 생활

① 풍성한 놀이 문화

전통사회의 여인들의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었다. 어려서는 남자들처럼 자유롭게 놀지 못했고 어른이 되면 끝없이 밀려드는 일을 하다보면 청춘이 가고 청춘이 가면 늙는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여 살펴보면 여인네들의 삶이 언제나 고단한 것만은 아니었다.

더구나 양반의 가문에서 일생을 사는 여인네들이 아니고 서민으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여인들에게 삼강오륜이나 칠거지악은 사실상 생활을 통제하는 관습이지 못했다. 절대 불문을 처럼 인식되어지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世不同席) 또한 서민들의 삶의 관습이 아니었다.

여인들의 삶이 고단하고 권태로운 것만이 아니라는 징표는 여러 가지에서 나타난다. 그 중대표적인 것이 소리 문화다. 민요 중에서 난봉 소리들의 대부분은 남자의 입장에서 난봉질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아낙네들의 입장에서 말해지는 노랫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음담에 가까운 노랫말 속에는 유교적인 덕목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을 즐기는 말들이 흔하다는 것만으로도 구속과 속박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편견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어린이 놀이 문화 중 남자아이들만 행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대부분의 놀이들을 여자 어린이들도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것도 다시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장군면 하봉리에서 행해진 여인들의 놀이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② 소녀들의 놀이

하봉리 소녀들의 놀이는 참으로 다양하며 어떤 면에서는 파격적이다.

하봉리에서 보이는 소녀들의 놀이는 <보리풍년 옷놀이>, <베틀옷놀이>, <자릿날 세기 옷놀이>, <깎데기 벗기기 옷놀이>, <말판 옷놀이> 등의 옷놀이와 <풍감놀이>, <방맹이 신 놀이>, <춘향각시> 등의 방안에서 노는 놀이 외에도 <콩농사 보리농사>, <널뛰기>, <깡통차기>, <숨기장난>, <도랑 건너뛰기>, <물싸움>, <자치기>, <얼음 배 타기>, <사방치기>, <땅따먹기>, <못 치기>, <가로막기>, <다섯 개 공기>, <땀이 공기>, <줄넘기>, <오재미 치기>, <소꿉장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중에는 일제 강점기 이후 도입된 일부 놀이가 있고 현대식 교육제도의 산물인 학교를 통해 보급된 놀이들도 있지만 다섯 종류의 옷놀이와 세 종류의 방안놀이, 널뛰기, 물싸움, 자치기, 얼음 배 타기 등 대부분의 놀이들이 전통사회부터 시행되어 왔음을 생각할 때 남자아이들만 하는 놀이로 알고 있는 놀이들을 소녀들도 행하였다. 그리고 말판을 쓰는 옷을 놀아 지는 편에서 한 가지씩 옷을 벗는 깎데기 벗기기 옷놀이 등은 소녀들의 놀이가 단순히 소꿉놀이 수준이 아니었음을 알게 한다. 이들 놀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③ 꼬대각시놀이

아낙네들의 놀이 문화는 조용한 것을 즐기는 성향으로 많은 여인네들이 모여 즐겁게 놀기보다는 적은 인원이 모여 소박한 놀이를 즐겼다. 이 중 하나인 꼬대각시 놀이를 어른들 모르게 많이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수의 소녀들이 한방에 모여 앉아 술래 한명을 정하여 중심에 앉게 하고 원형으로 둘러앉는다. 모든 소녀들이 기도하듯이 양손을 모으고 주문을 외면 술래에게 신이 내려 춤을 추고, 나머지 소녀들이 술래의 행동을 따라하며 즐거워한다. 주문은 「춘향 각시 춘향 각시 나이는 십팔세 생일은 사월 초파일 춤을 추며 놀아보세」 였다. 무속적 성격이 강하여 술래에게 신이 내려야 흥이 나는 놀이고, 신이 내린 술래가 신기에서 잘못 풀려나면 병을 얻는다 하여 어른들이 만류하였지만 놀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매우 특별하여 많은 소녀들이 이를 즐겼다.

다른 마을에서는 노랫말이 춘향각시면 춘향각시 놀이라하는데 제천리에서는 노랫말에는 춘향 각시로 하면서 놀이를 일컫는 말은 <꼬대각시 놀이>라 한다.

④ 콩농사 보리 농사

정월 보름에 풍년을 기원하는 소녀들의 놀이로 다른 마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장군면에서도 하봉리와 제천리에서만 보이는 놀이다. 하봉에서는 성행하였고 제천리에서는 일부 가정에서만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풍년을 기원하는 소박한 바램이 담겨있는 이 놀이는 음력 1월 14일에 수수깡의 속과 껍질을 이용하여 콩과 팥 보리 이삭과 콩 모가미를 만들어 추수를 하는 흥내를 내고는 「새해에는 이런 풍년이 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원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놀이다.

수수깡 속살을 곡식의 낱알 만하게 떼어 알곡을 만들고 수수깡의 껍질에 피어 이삭을 만들어 땅바닥이나 잣더미에 꽂으면 고개 숙인 곡식의 이삭처럼 보이는데 보리는 껍질을 달기 위해 수수깡 속살과 껍질을 동시에 이용하여 낱알을 만드는 것이 다르다. 만들어진 이삭은 잣간 재 무더기를 다진 후 이삭을 꼬아 마치 곡식이 익은 것처럼 만들어 두었다가 정월 보름날 아침에 이삭을 모두 뽑아(수확) 모아 탈곡을 하듯이 툰다. 이삭을 털어 모은 곡식은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모아 짚신에 담으면서 짚신 하나를 채울 때마다 「한 섬이요」, 「두 섬이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채워진 짚신은 차곡차곡 쌓아둔다. 「쌓인 더미를 향해 내년에는 꼭 이만큼만 풍년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말로 놀이를 끝낸다.

⑤ 낙화놀이

장군면 일원에서 보이는 정월 보름 하루 전날 밤에 부녀자들이나 소녀들이 즐기는 불꽃놀이이다. 참나무 껍질로 숯을 만들어 잘 부수어 소금과 숨을 넣어 종이에 말아 봉의 형태로 만든다. 이것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아랫부분에서 불을 붙이면 소금성분 때문에 탁탁 튀면서 타 들어가고 숨과 숯은 불이 되어 아래로 쏟아진다. 불이 떨어지는 모습이 꽃이 질 때 꽃잎과 같다 하여 낙화놀이라 부른다. 남자 아이들이 쥐불놀이를 하는 시간에 소녀들이 즐겼다.

⑥ 보리풍년 옷놀이

이 마을에서 행해진 보리풍년 옷놀이는 <풀기>, <채>, <닭이목아지>, <콩꺾기(밀어배기)>, <상투잡이>, <장작패기>, <배가르기>, <둘러잡기>, <떡장사>, <풍감막기>, <기둥받기>, <용그리기>, <채뜨리기>, <곰배팔이> 등 열 네 종류였다.

행하는 방법의 특이성은 없는데 다른 마을에서는 밀어배기라고 부르는 놀이를 콩꺾기라 부르는 것만 다르다. 소녀부터 부인까지 다양하게 즐긴다.

⑦ 베틀 옷놀이

<베짜기>, <북실질>, <바디질>을 행하였으며 베짜기는 대부분 마주잡고 옷을 가볍게 던졌다가 받으며 내는 옷가락 부딪치는 소리를 듣는 정도인데 이 마을에서는 마주 던져서 엮어 잡기 때문에 힘들다.

⑧ 자릿날 세기 옷놀이

자릿날 세기 옷놀이는 말판 옷과 같은 개념인데 4개의 말을 쓰지 않고 한 개의 말을 쓰며 말이 방바닥에 깔린 자리의 날을 말눈 삼아가는 것이 다르다. 진을 치는 것과 말을 빼는 것은 말판 옷과 같다.

⑨ 깎대기 벗기기 옷놀이

말판으로 옷을 놀아 지는 편이 별로 한 가지 옷을 벗는 것을 즐기는 옷놀이이다. 말판 옷이나 자릿날 세기 옷을 모두 사용하는데 이 놀이를 하는 날은 옷을 많이 입고 나간다.

⑩ 풍감놀이

치마 또는 앞 치마를 이용하여 주머니처럼 손을 넣으면 보이지 않게 하고 동전 돌리기를 하는 놀이다. 왼손으로 치마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자기 치마와 옆자리 소녀의 치마 주머니를 번갈아 집어넣고 빼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동전이 자기 치마 속에 들어오면 옆자리로 옮긴다. 술래를 두어 행동을 멈추었을 때 동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맞추게 하며 맞추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된다. 자기 치마에 동전이 들어왔는데 알지 못해도 술래가 되고 술래가 맞추지 못하면 노래를 하는 벌을 받는다.

⑪ 방망이 신놀이

소녀들이 둘러앉아 주문을 외면 신이 오르고 신이 오른 소녀가 하는 기이한 행동을 따라하며 노는 놀이다. 다듬이 방망이를 한 소녀가 두 손으로 잡고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모두 「니 방망이나 내 방망이나 방망이 놀음에 놀아보자」는 말을 주문 외듯 합창을 한다. 신이 오르면 앉은 곳판의 신장처럼 방망이가 놓고 깊이 빠지면 방망이를 잡은 소녀가 신기에 의해 노는데 나머지 소녀들이 흥내를 내며 노는 놀이다. 꼬대 각시 놀이나 춘향 각시 놀이에 비하여 방망이를 잡은 소녀의 몸짓이 크고 무서워 더 재미있어 했다.

⑫ 춘양각시 놀이

꼬대각시 놀이의 다른 이름

3. 하봉리의 세시 음식

1) 명절 음식

- ① 설날 - 떡국과 차례 음식이 주를 이룬다. 점심에는 두부를 넣은 콩나물국이나 고기국을 끓이고 술과 돼지고기 찌개를 반찬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떡은 수수나 고구마 쌀을 이용해서 만드는 엿이나 조청 등을 찍어 먹으면 최상이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식혜가 중요한 몫을 하였으며 세배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과일, 떡, 떡국, 부침개 등의 상을 내고 세배를 다니는 성인들에게는 과일에 술과 안주를 낸다.
- ② 정월 대보름 - 육류를 일체 상에 올리지 않고 나물과 오곡밥이 주를 이룬다. 아주까리 잎. 시래기. 산나물. 고사리. 머위 줄기 말린 것과 고구마 순 말린 것 등을 삶아 양념을 한 나물에 스숙(조), 보리, 쌀, 수수, 팥, 찹쌀을 넣어 지은 오곡밥을 먹는다. 두부를 많이 하여 나누어 먹고 <귀 밝이 술>이라 하여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마시는 것으로 알았다. 남자들은 나무 아홉 짐을 하고 밥 아홉 그릇을 먹는 날이고 여인들은 명 아홉 도배이(꾸리)를 짓고 나물 아홉 그릇을 먹는 풍습이 있다. 시루떡을 해서 고사를 올리며 이웃과 나누어 먹고 음력 시월 초 3일을 시루구멍 막는 날 떡을 하지 못한 집에서는 고사를 올리고 난 후 변소, 사랑채, 외양간, 대문간 등에 부정풀이 음식으로 내 놓고 남는 것을 먹는다.
- ③ 지날(음력 2월 1일) - 콩이나 방풍과 보리쌀, 수수쌀, 메밀, 벼 등을 함께 볶아 먹으면 논과 밭에 잡초가 나지 않으며 특히 밭의 유해 식물인 근삼과 새삼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으며 이런 이유에서 콩을 볶으면서 「근삼을 볶자. 새삼을 볶자. 뒤게 볶자. 디지게 볶자」고 주문을 외듯 중얼거리며 볶았다.
- ④ 단오날 - 상추 쌈을 먹으면 하루 거리에 걸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
- ⑤ 백중음식 - 보신탕과 보신탕을 먹지 않는 집안에서는 삼계탕을 해 먹는다. 돈을 주어 장에 나가 사먹게 하기도 한다.
- ⑥ 유두날 - 유두날 애호박나물을 해 먹으면 1년 동안 속이 편하다 하여 이를 행한다.
- ⑦ 칠석날 - 성주단지의 벼를 방아를 찧어 쌀밥을 지어 먹고 미역국에 호박 나물을 먹는다.

- ⑧ 추석 - 송편과 제사음식 햇과일과 곡식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이 주를 이루며 부잣집에서는 절편과 인절미를 한다. 햅쌀로 술을 빚는 집도 몇 집 되지 않았다.
- ⑨ 10. 3일 - 음력 시월 초 3일을 시루구멍 막는 날이라 부르며 팔고물을 이용한 시루떡을 해서 장독의 성주단지에서 고사를 올리고 변소, 사랑채, 외양간, 대문간 등에 부정풀이 음식으로 내놓고 남는 것을 먹는다.
- ⑩ 동짓날 - 애동지에는 떡을 하고 노동지에는 찹쌀 새알심을 한 팔죽을 쑤어 먹는다. 집안에 굶은 일이 많은 집에서만 대문이나 사립문 앞에 팔죽을 뿌린다.

2) 계절 음식

- ① 봄 - 햇나물이 주를 이룬다. 쑥, 달래, 냉이, 고사리, 풍년초, 나싱게(어린 민들레), 느티나무 새잎, 머위, 두릅, 산나물, 참중 나무 순 등이며 이중 쑥과 느티나무 새잎과 곤단추 꽃, 진달래 꽃, 아카시아 꽃을 이용해서 떡을 해 먹기도 하였다. 쑥떡은 <쑥 버무리기>라 하여 쑥을 삶아 깨끗이 씻어 밀가루를 버무리 시루에 찌는 것과 <절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절편은 부잣집 잔치 음식이고 일반적으로는 버무리기를 해 먹었다. 곤단추 꽃과 아카시아 꽃, 느티나무 새순을 이용한 떡은 모두 버무리기였고 진달래 떡은 화전이다. 참죽나무 순과 옷 순은 생으로 먹기도 하며 삶아 무쳐 먹기도 하며 삶아 음지에 말려두었다가 겨울에 먹기도 하였다.
- ② 여름 - 야채와 장아찌가 주를 이룬다. 야채로는 상추, 아욱, 쑥갓, 어린 배추와 어린 무우로 담은 겉저리와 쌈짜먹기 열무김치 등의 김치를 담아 먹는다. 풋고추를 된장이나 고추장 찍어먹는 것도 주요 반찬이다. 장아찌를 담은 종류는 무, 참외, 오이, 아주까리 잎, 우엉 뿌리, 깻잎, 질경이 등을 된장에 묻어 두었다가 필요한 때 꺼내 양념을 하여 먹는다. 식물의 잎을 이용한 장아찌는 된장에 3-4일 담아 두었다가 먹는 것으로 오래두면 삭아 없어진다. 냇물이나 강에서 잡는 물고기는 별식처럼 인식되어 잡는 것도 먹는 것도 매우 즐겼으며 매운탕으로 지져 먹고 혹은 튀겨 먹기도 하였다.
- ③ 가을 - 햇곡식이 풍성하여 특별한 음식이 없어도 된다는 개념이며 가을에 담은 장아찌로는 감과 도토리묵이 있는데 이는 겨울을 준비하는 음식이다.

- ④ 겨울 - 김장으로 담은 김치류에 간장 된장 통통장 등을 이용한 찌개류가 주를 이룬다. 이 마을에서 담은 김치류는 동치미, 보추김치, 무김치, 깍두기, 생채, 갓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백김치 정도였으며 이중 갓김치, 파김치, 백김치는 부잣집 김치고 생채는 한꺼번에 많이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나 굴을 파고 저장해 놓았던 무를 이용해서 필요한 때 담아 먹는다. 저장해 놓은 배추 잎을 넣어 끓이는 국을 <진잎국>이라 부르는데 이는 손님을 접대하는 날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통통장은 부잣집 음식이다. 발농사를 많이 지어 콩이 메주를 쑤어 사용하고 남아 여유가 있을 때 콩을 삶아 따뜻한 아랫목에 놓고 이불을 덮어 발효시키고 발효된 콩을 적당히 으깨어 된장처럼 조리하여 먹는 것이 통통장이며, 일반 된장과 가장 다른 것은 된장은 메주를 쑤어 간장을 담았다가 건져낸 메주로 담는 것이 된장이라서 한 번 사용하고 남은 것을 두 번 째 사용하는 된장이고 통통장은 직접 담아 쓰는 차이가 있다. 1980년 이후 농촌의 경제에 여유가 생긴 후부터 된장을 담은 메주와 간장을 담은 메주를 분리하여 만들기 시작했다.

빈곤한 사람에게 겨울의 음식은 1년 중 제일 심한 악식(惡食)을 하는 계절이다. 점심은 먹지 못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수제비와 죽이 대부분이다. 살림이 좀 낡은 빈곤 가정에서는 보리쌀과 약간의 쌀을 섞어 밥을 하는데 양(量)을 많게 하기 위하여 고구마, 감자, 무, 시레기, 콩나물 등을 더한다. 겨개떡과 콩깨묵 개떡은 일제 강점기 말과 한국 전쟁 후 곤궁한 시대의 대표적인 악식들이다.

3) 특별한 날의 음식

- ① 두레 일판의 음식 - 막걸리와 안주, 된장과 풋고추, 열무김치와 한두 가지의 장아찌 정도였다. 있는 집에서는 동태나 쫄면, 자반고등어를 사다가 조림을 하기도 하며 돼지고기를 이용한 찌개를 끓이기도 하나 이는 아주 부잣집에서나 해먹는 음식이었다.
- ② 여름 두레 먹는 날의 음식 - 돼지고기 찌개와 국, 밥, 막걸리, 두레 인절미, 야채로 상추와 얼갈이 배추 싹, 풋고추, 된장, 열무김치 정도였다. 돼지를 잡지 못하는 해에는 개를 잡아 보신탕을 해 먹기도 하였다.

- ③ 젓날 음식 - 계의 재정에 따라 달랐으나 다른 어떤 날보다 풍성하였다. 연반계나 대동계 하는 날은 소뼈나 돼지의 뼈를 사다가 고와서 국을 끓이는 것이 관례였으며 돼지고기나 개고기 등이 없는 젓날 음식을 거의 없었다.
- ④ 명 품앗이 음식 - 집에서 먹는 밥상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점심과 새참으로 제공되는 감자 고구마 정도이며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는 막걸리를 낸다.
- ⑤ 깃 고사상 음식 - 시루떡, 곶감, 대추, 통밤, 명태를 제수로 사용한다. 명태는 떡에 꽂고 고사를 지낸 후 농기에 매단다.

4. 장군면의 아이들 놀이 문화

마을 앞을 흐르는 계룡천은 물이 맑고 물고기가 많이 살아 봄부터 늦은 여름까지 천렵이 성행하였던 고장이다.

앞서 기록한 대교천과 금강, 동혈산과 장군봉의 계곡은 물고기 잡이 천렵이 늘 행해지던 장소였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공주 일원의 금강 수계에서는 넓은 내와 계곡이 다르다. 냇물의 양이 많고 시내 바닥에 바위와 큰 돌이 많기 때문에 손그물이나 투망, 가리 등의 전통사회 일반적인 어구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다. 내가 좁고 돌이 많은 계곡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쇠망치로 큰 돌이나 바위를 때리고 돌을 치우면 돌 밑에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죽거나 기절하면 그 고기를 손이나 손 그물로 잡아내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물을 막고 풀어내어 물고기를 잡았다. 또한 물이 나지 않는 시내의 한 부분을 막고 물을 퍼 잡는 방법과 손그물을 대고 긴 쇠몽둥이로 돌을 들썩여 나오는 고기를 잡아내고 낚시로는 주낙을 이용하였다.

장군면의 하천이나 계곡에서 많이 잡히던 물고기는 징계미, 피라미, 메기, 뱀장어, 구구리(돌무치), 계, 동박아, 붕어, 자라, 세피리, 소금쟁이, 새뱅이(새우), 모래무지, 마디, 다슬기, 미꾸라지(미꾸리), 송사리 따위였으며 특히 민물에서 사는 큰 새우 종류인 징계미가 많이 잡히고 맛이 좋아 철렵꾼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물고기를 잡아 천렵을 할 때 해먹는 방법은 <지저 먹는다>는 표현의 매운탕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혹은 튀겨먹는 경우도 있었다.

● 단오 그네

단오 때 모든 마을에서 그네타기를 즐겼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참나무나 소나무 느티나무 등의 나무에 그네를 맨다. 마을마다 그네를 매는 나무가 있으며 이를 그네 터라 부른다.

● 청장년들의 놀이

겨울 장군면의 각 마을에서 가장 흔하게 한 놀이는 장치기다. 장치기를 행한 장소는 마을마다 편덕, 장판골로 불렸으며 도계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마을에서 즐겼다. 청장년들이 겨울에 나무를 하러 가는 길에 즐긴 놀이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경기로 즐기기도 하였다.

장치기는 떡장이라 하여 경기장의 양편이 선을 그어 놓고 공이 선을 통과하여 나가면 점수를 인정하는 형태였으며 겨울 동안은 거의 매일 장을 쳤다.

제5절 마을 조직

1. 장군면 마을 조직 개설

1)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마을의 조직들

전통사회의 장군면의 각 마을들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마을마다 유사한 마을의 조직을 이루고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이 현대적으로 바뀌면서 자연 경계를 대상으로 마을이 리로 변하였고 이 과정에서 마을의 규모는 커졌지만 1970년대 본격적인 산업 사회로의 변화가 일기 전까지는 모든 마을이 각각의 마을 조직을 운영하여 서로 잘못되는 것을 경계하고 잘된 것을 권장하는 체제를 이루고 살아왔다.

어느 마을이나 그 마을의 가장 크며 상위에 있었던 것은 동계(洞契)였다. 농사 조직으로 가장 큰 조직은 남자의 경우 두레였고 아낙네들의 경우 명품앗이가 있으며 그 아래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마을 단위 각종의 계 모임이 있으며 또래(동년배)들이 구성하는 각종의 친목 모임인 계들이 함께 했다.

마을에 뚜렷한 양반의 가문이 있는 경우 이 모든 조직 위에 양반의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양반과 마을 조직과의 관계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양반은 서민들의 마을 조직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레의 운영이나 대동계의 운영은 직간접적으로 양반의 가문과 연결되는 생활이었지만 두레 운영에 양반이 개입하지 않았으며 각종의 계 모임 역시 관여하지 않았다.

양반이 마을일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경우는 동네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내쫓을 때 대동 계장이 임원과 더불어 양반을 찾아가 의견을 물을 때 정도였으며, 두레 운영에서는 두레의 공통 경비가 갑자기 필요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였다.

두레가 마을의 모든 농사일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봄철과 가을철의 농번기나 논을 매는 공동작업은 관장하고 있었기에 농사를 많이 짓는 양반의 집에 일하는 날짜를 조정해서 무난히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두레가 양반에게 행하는 최고의 일이었다.

2) 동계(洞契)

동계는 마을의 가장 크며 권위 있는 조직이며 마을 고사와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을 고사다. 마을 고사의 내용은 앞서 마을 신앙에서 자세히 기록하였으므로 생략하지만 마을 고사 전반을 동계장이 주도하여 시행한다. 마을 고사 다음으로 동계가 행하는 중요한 일은 동네의 물품을 관리하는 일이다. 가난하던 시절 관혼상제에 사용하는 물품은 개인이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일, 병풍, 상여, 관혼상제의 대례상, 관혼상제 발생 시 사용하는 그릇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마을 사람에게 한하여 임대하였다. 일부 가벼운 물품은 무료 임대였지만 차일과 상여, 사모관대 등의 혼례 물품은 유료였고 대부분 쌀 한 말의 기준이었다. 이런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를 <동물창고>, <보관실>, <가마집> 등으로 불렀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은 동계의 자산으로 관리되며 이자가 높던 시절에 이를 다시 마을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하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마을이 적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답(洞畓) 또는 동전(洞田)이라 하여 땅을 가지고 있었다.

동계가 행하는 일중 마을 주민들의 도덕적 기풍을 유지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른바 <동벌(洞罰)>이다. 불효한 사람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 등 이른바 마을 젊은이나 어린이들이 본을 보면 안 될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인데 <동네 회초리>, <조리 돌림> 등을 행하였고 이렇게 벌을 받은 사람은 용서하고 함께 살았다.

동벌의 최상은 삭동계다. 동계원으로 모든 권리를 몰수하고 살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앞서 말한 마을 물품을 빌려 쓸 수 없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도 잘못이 거듭되면 죄지은 사람을 마을에서 내쫓는다.

이는 <동출(洞出)>이라 칭하기도 하였으나 단순히 <내 쫓는다.>는 표현이 가장 많았으며 동출시 동출자의 재산은 동계에서 평가하여 계산한다.

동출이 되는 경우로는 근친상간, 부모나 조부모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큰 불효, 마을 어른이나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소 말 등의 재산이 되는 큰 동물을 도둑질 한 사람 등이다.

3) 두레

두레는 전체 마을의 농사 조직이다. 그러나 동네 제반사가 아니라 남자의 논농사 노동에 한하는 특징을 지닌다. 좌상, 공원, 총각대방, 평배 등의 구분이 있으며 마을의 품삯 결정, 모내기 날짜 결정, 여름 논매기 두레 공동작업의 운영 등을 행하며 각종의 두레별이 있다. 이는 두레편에서 기록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4) 계 모임

장군면 지역의 계 모임은 크게 세 종류로 대별된다.

첫째 연방계 또는 상두계라는 이름으로 결성되는 상례(喪禮)를 함께 하고자 행하는 계 모임으로 마을 단위로 구성되거나 마음에 맞는 다수가 별도로 조직하여 운영하며 상(喪)이 발생하면 초상 소상 대상을 가족적인 입장에서 모두 행하는 계 모임이다. 이런 계는 마을 마다 1개 이상이 존재했으며 연방계의 힘이 큰 마을은 계원 간의 인적 물적 부조를 중시하며 약한 마을은 상여나 상례 물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둘째 계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계 모임으로 주로 연령적 동년배가 모인다. 대부분 관혼상제의 협력과 봄에 놀이를 함께하는 수준이다.

셋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모이는 계 모임이다. 이는 많이 행한 것은 아니나 1년에 한번 보좌를 태워주는 형태로 운영 되었다.

위에 적은 계 중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행하는 계 모임 외의 계들은 대부분 자식에게 계원의 자격이 이어지는 것이 전통사회 계의 특징이다. 1970년대 이후 결성된 계 모임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현상은 전통사회 상호 결속이 얼마나 깊이 있게 노력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인데 권리 승계는 장남이 원칙이며 장남이 멀리 살고 차남이 한마을에 사는 경우는 차남이 승계하기도 한다.

5) 명 품앗이

명 품앗이는 여인들의 노동 조직이다. 여기서 말하는 명이란 길삼을 하는 과정에서 목화나 삼베의 실을 뽑는 작업을 의미하며 여인네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하는 작업 또한 명을 짓는 일에 한하는 특징을 지닌다.

조직의 구성은 일을 하는 작업에 있어서 마음에 맞는 아낙네들이 모여서 규모는 5-10명의 범위가 일반적이었다.

함께 모여서 각각의 일을 돌아가면서 행하며 품삯은 없고 음식은 1식을 하는데 자기 집 명을 갖는 사람이 제공한다.

2. 은용리 마을 조직

은용리는 1960년대 마을이 가장 번성했을 때 50여호 밖에 되지 않던 작고 소박했던 마을이다. 평산 신씨의 집안이 부자로 살면서도 마을 두레에 인심이 후했으며 서로를 걱정하며 사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강하여 「우리 동네는 역사 이래로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동네」라는 말을 노인들이 자랑스럽게 하던 마을이다. 이 마을은 마의의 조직으로도 동계, 두레, 연반계, 이오계 등이 활동하여 장군면의 전통 마을의 조직을 대표적으로 관찰함에 부족함이 없는 마을이다.

1) 은용 동계(洞契)

이 마을은 은골 동계와 농골 동계의 2개 동계가 있었으며 두 마을을 아우르는 대동계가 있어 이를 은용대동계라 불렀다.

계의 조직은 일반적이라서 계장과 총무가 있었으며 총무는 글을 알고 마을 고사의 유사를 선정하기 위해 생기복덕을 살펴 볼 수 있는 인물이 맡아 행하였다. 계장은 특별한 결함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연임하였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후 이장이 맡아 행하였다.

마을 고사는 정월대보름 거리제와 여름 두레 먹는 날 농기 고사였으며 이중 거리제를 동계가 주관하였는데 한국전쟁 이후 지내지 못하고 사라졌다.

마을 창고는 보관실이라 칭하였으며 동답은 지어먹는 사람이 이를 관리하였는데 1960년대 보관실이 무너지고 나서는 다시 짓지 못하고 동네 논을 짓는 사람의 사랑채에 보관하였다. 동답을 대를 이어 계속되었고 동답의 소작료는 이 마을 일반 소작인이 내는 소작료의 2/3 수준이었다.

동네 물품의 임대료는 상사 시 상여, 차일, 그릇 모두 사용하고 백미 1두였으며 부잣집에서는 별도로 쌀을 내기도 하였고 혼례 물품은 사모관대, 원삼족두리

등의 신랑 신부 복식과 병풍이 백미 1두, 동네 그릇의 사용료는 별도 백미 5되를 내었으며 이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동네 기물이 이렇게 운영된 것은 1973년까지였다.

대동계의 계 쌀 임대료는 1년 50% 즉 장리였으며 3인의 보증을 요하였고 3년을 갚지 못하면 다시 빌려주지 않으며 이자를 감면하여 정산하기도 하였으나 이자를 내면 매년 쓸 수 있었다.

이 마을의 <동벌(洞罰)>은 불효에 관한 사항을 특히 엄하게 하여 술에 취해서라도 부모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단번에 마을에서 내쫓았다. 다만 이런 경우 부모가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려 하면 불효자만 내쫓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1998년 이 마을의 민속 조사 시 동네의 부끄러운 면이라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하려는 사람이 없었으나 1978년에는 아낙네의 부정을 책하여 조리돌림을 행하기도 하였고 노름꾼이 불효했다하여 마을에서 내쫓은 사람이 있다는 증언으로 보아 마을의 동네 벌은 매우 엄하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삭동계의 전통은 없었다 한다. 마을에서 내쫓는 것은 있으나 한 마을에서 소외시키고 사는 것은 금했음을 의미한다.

2) 은용 두레

은용과 농꿀 모두 하나의 두레였으며 두레 장정은 50명 내외였다. 임원은 좌상과 부좌상, 공원이 있었으며 신입으로 두레에 드는 나이는 16~7세, 두레 음식은 보통 이상의 집안에서는 쌀 한말, 궁한 집안은 막걸리 한 통을 냈다.

봄 두레 먹는 날 모내기 일정 잡기, 1년 품삯 정하기, 여름 두레 일정 관리, 신입 두레꾼의 승인 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며 여름 논매기 공동 작업은 초벌은 개인이 품앗이로 행하고 두벌과 만물은 공동작업으로 행하였다.

여름두레는 7월 7일인 칠석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윤달이 들어 철이 맞지 않으면 좌상과 부좌상이 택일을 해서 시행하였다.

풍장패는 6명, 농기는 농자천하지대본의 농기를 쓰며 4인이 들었다. 다른 두레와 달리 여름 두레 먹는 날 농기 고사를 성대하게 지냈다. 농기를 반드시 장군봉이 보이는 곳에 세우고 백설기와 삼색 과일을 놓고 깃고사를 올렸으며 모든 두레꾼들이 큰절을 올렸는데 이는 장군면에서 이 마을 두레만 행한 독특한 것이다.

여름 논매는 소리의 선소리꾼에 관하여 좌상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막은 보(洑) 관리는 물을 사용하는 농부들이 작인이라 하여 관리하였으나 두레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 마을 두레의 마지막 좌상은 이교향이며 1968년 마지막 여름두레를 세우고 봄두레는 1990년까지 이어지다가 사라졌다.

3) 은용의 계 모임

은용리의 계 모임으로는 은용 연반계가 마을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례를 주도하였고 산신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산신제계가 있었으나 모두 1970년대 미신타파 때문에 모두 사라졌다.

천렵을 즐기기 위해 동갑네들이 모인 계나 동갑네 계 등은 다른 마을과 다른 특징이 없다.

4) 은용의 명 품앗이

이 마을의 품앗이는 은골에 2개 농골에 2개를 합하여 4개가 있었다. 각각의 모임은 명을 짓는 작업을 할 수 있는 큰 방이 있는 집안을 본거지로 하였으며 두레처럼 임원이나 회장을 정하는 일은 없었으며 4 단체 모두 일하는 순서만 정하여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정도였다.

공동 작업을 하면서 노래를 즐겨 하였으며 가장 인기 있는 아낙은 노래를 잘하는 여인을 서로 끌어가려 했다는 증언으로 보아 일을 하는 분위기는 여인네들만의 공간으로 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화 농사를 짓지 않고 삼베를 짜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

제6절 마을 농사 조직과 생산 풍습

1. 장군면 두레의 개설

장군면의 두레는 충청도 준산간지역의 두레의 특성을 잘 간직한 두레였다. 두레가 단순히 농사일을 빨리 많이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정은 많고 일이 적은 한 여름에 장정들에게 고루 일감을 나누어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였다.

장군면의 모든 두레는 일정 인원의 임원을 두었는데 전통사회에서는 좌상과 공원만 있는 동네가 많았고 부좌상을 두지 않은 듯 조사되나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임원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부좌상을 뽑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군면 일원의 두레 구성원의 역할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좌상은 두레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두레를 대표한다. 공주 세종일원의 두레들이 보통 일을 잘하고 기운 센 사람을 좌상으로 선출하는데 장군면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덕인을 뽑는 두레가 많았다.

좌상은 보통 두레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선출하며 선출된 좌상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연임하다가 연령이 높아 노인 소리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선출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좌상은 여름 공동 작업 시 논에 들어가지 않는다.

부좌상과 공원은 좌상을 보좌하는 임원으로 부좌상은 상징적인 면이 많으나 공원은 총무로서 두레 운영의 실무와 기록을 담당한다. 장군면 용암리와 도계리, 송문리 등 두레 규모가 컸던 마을은 공원과 재무를 임명하여 공원은 총무역할을 재무는 회계를 맡아 운영하였으나 다른 마을들은 공원이 이를 모두 관장하였다.

일반 농사꾼들은 두레꾼으로 일컬어지며 16세 이상 45세 이하의 남자 장정들이다.

아들이 없어 대물림 할 농부가 없는 집에는 남자 호주가 들일을 할 때까지 두레꾼의 역할을 연장해 주기도 하며 힘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1품을 적용한다.

총각좌상은 30세 이하의 장정들, 특히 결혼하지 못한 장정들을 관리하는 우두

머리이며 풍장꾼들은 두레 공동 작업을 하는 내내 풍장을 치기 때문에 중요 역할자로 대접을 받았고 기운 센 장사 중에 농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농기잡이라 하여 수상쇠와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 장군면 두레의 특징이다.

〈풍뎡이〉, 〈뽕배〉, 〈뽕배자리〉 등으로 불린 두레패의 가장 어린 두레꾼은 두레 일판의 심부름꾼 역할을 수행하였다.

1) 두레의 결정권

두레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본 질서를 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일꾼만 골라 높은 임금을 주고 편히 농사지으려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며 가뭄 홍수 등의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줄이는 길을 찾는 것이다.

장군면 일원의 품삯은 1970년대 이전에는 장정 1일 품이 쌀 3되 수준이었으며 일의 경중과 음식제공 방법 사전 품삯(고지) 등의 여건에 따라 변하고 장정의 일에 아낙네와 청소년들의 절반 품삯(반품), 농사에 꼭 필요한 농우(農牛)의 품삯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를 봄 두레 먹는 날 모든 두레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결정하였다.

장군면의 두레가 품삯에 대해 확실히 조정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농촌 경제가 쌀에서 돈으로 바뀌면서부터였다. 장군면의 두레들이 공동작업은 1980년대 초반에 모두 없어지는데 반하여 봄두레 먹는 날의 행사를 1990년대 초까지 이어온 것도 품삯의 결정과 모내기 일정을 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레의 여름 공동 작업은 들이 넓은 고장과 좁은 고장이 다르다. 들이 넓고 장정의 수가 적은 마을은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봄철의 모내기와 세 번 논매기 모두를 공동 작업으로 행하는데 이를 네 물 두레라 한다. 그러나 들이 좁고 장정이 많은 고장에서는 모내기와 초벌 논매기는 1-2회만 공동 작업으로 시행하는데 이를 한물두레, 두물두레라 한다.

장군면의 모든 두레는 한물 두레 또는 두물 두레였다. 모내기와 초벌 논매기는 각자 알아서 일꾼을 얻어 행하고 두벌이나 만물 논매기만 공동작업으로 행한 것이다. 굳이 공동 작업을 하지 않아도 쉽게 행할 수 있는데 공동작업을 행하는 이유는 일감이 적으니 함께 일하고 함께 벌어먹자는 의미다. 일이 적고 사람이 많을 때 각

자 일꾼을 얻어 일하면 힘 센 사람, 일 잘하는 사람에게만 편중되기 때문이다.

장군면 일원의 두레가 1년 동안 행하는 두레의 행사는 1) 봄 두레 먹는 날 2) 여름두레 세우기(논매기 공동작업) 3) 여름두레 먹는 날이 기본이며 홍수로 재방이 터지거나 가뭄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면 두레가 나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안을 찾아낸다. 두레 구성원으로 두레가 원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궐>이라 하여 벌금을 내야하며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삭두레>라 하여 두레에서 내쫓았다.

삭두레를 당한다는 것은 그 마을에 살기 어려운 것임을 뜻한다. 가난한 농부는 품팔이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부자 농부는 일꾼을 얻어 농사일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장군면 일원의 가장 보편적인 품삯은 다음과 같다.

① 장군면의 품삯

- 장정품 : 1일 1인 백미 3되 (마을품삯의 기준)
- 여인들의 품 : 장정의 반품. 전통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일제강점기 모내기 공동 작업부터 인정.
- 소(農牛)품 : 남자 장정품 2품. (일부 마을은 소먹이를 별도로 제공)
- 선일꾼의 품 : 장정 1품. (단 중간에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을 하지 않음)
- 반(半)품 : 두레에 들지 못한 15~18세 남자의 품. (인정하지 않는 마을도 있음)
- 마지기 고지 : 논 한 마지기 농사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미리 받는 품삯. 모내기와 논매기만 하는 마을부터 벼를 베고 묶어 논에서 밖으로 꺼내는 작업까지 마을 간 차이가 있으며 (삭고지의 품) 쌀 1말에서 2말까지 차이를 보임. 모내기만 별도 고지를 주기도 함.
- 삭고지 : 품고지나 마지기 고지를 음식 제공 없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고지. 1일 1인 4~5되로 비싼 가격에 거래됨.
- 품고지 : 쌀 1말이 3~4품으로 거래됨.
- 묵운 : 지계질과 삽질을 일 양에 맞추어 거래하는 품. 봄에 논을 고치는 일에 한정적으로 운영됨. 일이 힘들어 백미 5되가 기준임.
- 절이 : 논갈이와 씨레질을 묶어 품으로 계산하여 선 돈으로 거래되는 고지의 일종. 소품을 고지로 묶는 형태임.

② 장군면 일원의 논농사 일감에 따른 평균 장정품

- 논두렁 붙이기(일명 가래질) : 일감에 따라 품의 소요 차이가 심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음
- 소의 논갈이 : 초벌. 두벌 1일 2,000평 정도. 만물갈이 3,000평 내외. 아시 씨레질 3,000평 정도. 모내기 씨레질 2,000평정도에 소 1두. 장정 1명 필요
- 모내기 : 뒷일 꾀 포함 평균 장정 1명이 하루 0.6~0.7마지기
- 논매기 : 장정 1명이 1일 초벌과 두벌은 200~300평 만물 논매기는 1일 400평, 즉 2마지기
- 벼 베기 : 장정 1명 1일 베어 깔기 400~500평. 베어 묶기 150~200평
- 벼 묶기 : 장정 1명 1일 400~600평
- 탈곡 : 장정 1명 1일 200평 곡식을 탈곡. (자리개질 기준)

2) 장군면 두레 논매는 소리의 특징

두레로 논을 매는 일판에는 언제나 노래를 부른다.

공주시 일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헤헤에이~ 아이헤~어허” “아헤헤에이~ 열(을)러를 가세” “아헤헤에이~ 상사디야” “얼카더어리 잘넘어 간다” 가 주류를 이룬다.

이 소리들은 경기 충청의 경재 일노래의 흐름과 같으며 일부가 전라도 농요재인 상사디야를 노래한다.

그런데 유독 장군면 중에서도 구 장기면에 해당하는 일부 마을에서 먼 “얼카산이야” 의 후렴의 논매는 소리를 부른다는 것이다.

이 민요는 우리나라 민요의 흐름으로 볼 때 백두대간의 산속을 흐르는 이른바 <메나리>조의 민요로 공주·세종시외의 타 고장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소리다.

어떤 경로로 이 소리가 장군면에서 불렸는지 알 수 없으나 은용리, 도계리 등의 여러 두레들이 느린 소리로 얼카산이야, 빠른 소리로 산이 산이냐 하는 후렴의 노래를 부르며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문화 중 하나다.

장군면 일원의 두레의 농기는 2종으로 흰천에 검은 글씨로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고 쓴 신농기, 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대본기 2종이며 용을 그린 용담기나 동작서성(東作西成) 농기는 보이지 않는다.

영기는 흑백 또는 청홍의 2개를 쓰며 농기줄은 3~4줄로 마을에 따라 차이가 있고 모든 마을의 두레가 여름 공동 작업을 시작하면 농기를 세우고 여름 두레가 끝나도 음력 7월 말까지는 농기를 세워두었으며 비가 와도 견지 않았다.

여름두레 먹는 날은 두레의 가장 큰 행사로 논매기 공동작업으로 벌어들인 쌀을 장정들이 출력한 품을 계산하여 <두레 쌀>을 배분하여 지급하고 풍족하게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모든 마을 주민들이 나누어 먹으며 풍장을 치면서 흥겹게 노는 날이다.

장군면의 여름두레 먹는 날은 거의 모든 마을이 유사하다.

매년 7월 7일에서 15일 사이 하루를 정해서 여름두레를 먹는데, 오전 일찍 당해년도 공동 작업을 마무리하고 호미를 씻는다. 상징적인 호미 씻기가 끝나면 농기를 앞세우고 꽃나비를 세우며 풍장패를 앞세워 흥겹게 여름두레 먹는 장소로 이동하는데 이를 <두레 행차>라 부른다.

여름두레 먹는 장소에 도착하면 농기를 세우고 농기고사를 올리며 농기 고사가 끝나면 두레쌀을 나누고 점심을 먹고 하루 종일 흥겹게 논다.

2. 장군면 송학리 들말 두레

송학리의 두레는 들말, 학미(창말, 송정), 몸티, 은곡의 네 두레 골이다. 한 마을에 두레가 많으면 서열을 정하고 서열 문제 때문에 잦은 두레 싸움을 하게 마련인데 몸티 두레가 <벼슬한 농기>를 보유하고 세 마을 농기의 절을 받는 형편이어서 몸티 두레보다 규모가 큰 들말 두레나 학미 두레와 싸우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곡 두레는 마을이 외진 곳에 있는 영향으로 마을 안 두레 간에 싸움이 없어서 이웃 마을과 사이좋은 두레였다. 그리고 송학리의 네 두레는 용현 두레나 태산 가산 두레와 싸울 때 네 두레가 연합하여 싸움에 임하여 규모가 작은 것을 극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들말 두레는 1970년대 까지 활동하고 모심는 날을 잡고 품삯을 정하는 것은 1980년대 중반까지 행하였으나 나머지 세 두레는 1970년대 초반 모두 소멸되었다. 송학의 네 두레는 논매기만 행하는 한물 두레다.

봄 두레는 전통사회에서는 음력 4월 하순에 하루 택일을 하였으나 1970년대 접어들면서는 음력 삼월 삼짇날 주변에 못자리 행해지는 정도를 보아가면서 날을

잡아 행하였다. 봄두레 먹는 장소는 마을 앞 냇물가였고 정자나무 밑에서 하는 품티만 체알을 치고 행하였으며 못날 잡기, 두레 일정 조정, 당해년도 품값 결정, 썩배 결정, 전년도 두레의 재정 결산 등 다른 마을보다는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기능을 행하였다.

1) 송학리의 품삯

- ① 장정의 품 - 백미 3되. (고지는 5되)
- ② 부녀자의 품 - 전통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일제강점기 이후 모내기는 원품. 그 밖의 일은 반품 인정.
- ③ 소(牛)품 - 장정의 2품(소먹이 별도 제공).
- ④ 선일꾼(소몰이하는 일꾼)의 품 - 장정 1품.
- ⑤ 반품 - 썩배에 들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정하던 품.
- ⑥ 고지 - 선고지는 모내기 마지기 당 김매기 3회 모두 각 백미 5되로 이를 합하여 마지기당 쌀 1두로 거래된다. 일반 품고지는 장정의 품삯에 준하여 3일에 백미 1두로 하되 삭고지라 하여 음식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 ⑦ 썩띠기 - 이른 봄 합배 미치는 일에 한하여 기준 백미 1두로 거래됨.

2) 썩배 결정

썩배란 두레의 성년식과 같은 의미. 청소년의 나이 17-18세에 썩배에 들면 장정과 품앗이를 하고 일반적인 품삯을 받고 일을 다닐 수 있다. 썩배에 들기 전 15-6세의 청소년들은 반품이라 하여 장정들의 절반의 품삯으로 품팔이와 품앗이를 하는 차이가 있다.

썩배에 들기 위해서는 두레 좌상과 임원들의 동의를 있어야 하고 동의를 얻어내면 막걸리 대두 1말을 봄두레 먹는 날 공동의 먹매로 제공하여야 한다.

3) 두레 일정

여름 두레를 세우는 날은 두레 공동의 작업으로 논매기를 시작하는 날짜를 의미하는데 대부분 당해년도의 물 사정과 여름두레 먹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음력

6월 그믐 주변 하루를 선택하여 시작한다.

여름 두레를 먹는 날은 칠석(음력 7월7일)부터 백중(음력 7월 15일) 사이의 하루를 정하여 여름두레를 먹음. 단 두레 논매는 공동작업이 날씨 등의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 애당초 정한 날짜를 변경하여 행하기도 한다.

송학리의 네 두레의 여름 두레 공동작업은 대부분 6월 15일에서 그믐사이 정해진 날에 공동의 논매기를 시작한다. 이 마을에서는 이를 <두레를 세운다.>라고 표현한다.

여름두레의 일정은 두레를 세우는 날에는 마을 장정들이 알도록 풍장패가 아침 일찍 마을 앞 공터에서 풍장을 울리기 시작하여 두레 마당인 들판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장정들이 모이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논을 맨다. 두레꾼들의 먹 때는 각 가정에서 모두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끼니와 참이 되면 마을의 모든 가정에서 아낙네들이 각각의 음식을 머리에 인 아낙네들이 들녘으로 향한다.

공동 작업으로 논매기가 끝나는 날에는 두레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마을 공동으로 준비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즐기는데 이 날을 여름두레 먹는 날이라 칭한다. 칠월 칠석과 백중 사이 하루를 잡아 행하는 여름두레 먹는 날은 공동 작업으로 벌어들인 재화를 장정들이 출력한 날짜에 맞추어 나누며 네 마을 모두 두레 좌상과 공방이 이를 주관하였다.

한 해 여름 농사가 끝나는 것을 자축하기 때문에 마을의 행사로는 대동 고사 다음으로 큰 행사일 수밖에 없었으며 네 두레 모두 두레 먹는 날 행사를 시작에 앞서 농기에 잔을 올리는 깃고사를 봉행하였다.

두레 조직은 평범하다. 두레를 대표하는 좌상과 두레꾼을 현장에서 통솔하는 공원, 그리고 현대의 개념으로 회계에 당하는 재무공원이 각 1명, 총각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 총각대방이 1명, 두레 판의 어른들의 심부름꾼인 썰배 또한 각 1명이었다.

두레 풍장의 규모는 네 마을이 각기 달랐으며 규모가 가장 큰 들말 두레 풍장의 경우 상쇠, 부쇠 징이 각 1명, 장구 북이 각 2명, 북구 5명, 꽃나비 2명 1조, 농기 4명, 흑백 령기 2명의 기수와 새납 1명이며 두레 풍장꾼을 선도하는 길나래비 1명이며 잡색은 네 마을 모두 없었다.

두레 풍장가락은 평이하다. 세마치 잣을마치, 춤장단 세마치, 굿거리 정도이고 두령거리는 보이지 않으며 칠채몰이(칠채형의 잣은마치)는 생략되어 연주되었으며 지금은 치는 사람이 없다.

3. 장군면 도계리 장터 두레

도계리의 두레는 본동 두레인 장터 두레와 20여호 남짓의 풍덕골 두레가 있었다. 이는 전통사회에서는 2개의 마을이었음을 의미한다.

이 중 장터 두레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장군면 소재지인 도계들 전역을 관장하는 큰 두레로 무려 80여호에 이르렀으며 작은 장일지라도 장을 포함하고 있기에 다양한 두레 문화를 안고 있었다.

시골 두레보다는 결집력이 약했지만 장군면에서는 가장 큰 두레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며 영농 규모 역시 타 두레가 500~700마지기 범위인데 반하여 도계두레는 1천 마지기에 달할 정도였기 때문에 두레를 운영하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원활하였던 특징을 지닌다.

이런 현상은 도계리 외의 다른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의미하며 다른 마을에 가서 공동 작업을 해야 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은 타동의 두레와 갈등이 많음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전통사회의 두레들은 아주 심한 <텃세>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타동 두레가 자기 마을에 들어와 일을 한다는 것은 마을의 경작지 중 일부가 타동의 소득이 되기 때문이며 안방을 내어준다는 마음들이 있어서 타동 두레가 마을에 들어서면 심사가 틀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두레 간의 서열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지만 서열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많은 두레싸움을 하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도계 두레는 언제나 두레 싸움의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타동으로 갈 때는 모든 장정들이 출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장터두레가 두레싸움을 했던 마을은 봉안리, 산학리, 평기리, 하봉리 등 마을 경계의 모든 두레였다. 그런데 사실 장터 두레가 이런 마을들과 잦은 두레 싸움을 해야 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다.

향토적인 기질이 강했던 인근 두레들이 이른바 <각성반이 두레>, <장사치 두레>라 폄하하여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어른 두레로 인정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아니 어른두레는 고사하고 <막 되먹은 두레>로 폄하하였으니 못된 두레가 내 동네에 와서 농기를 세우고 일하는 것도 보기 싫은 터에 장정의 규모를 내세워 어른 노릇을 하려 했기 때문에 자주 싸움이 났던 것이다.

두레 싸움이 많은 두레는 일반적으로 결속력이 매우 강한 특징을 지닌다. 그런

데도 장터 두레의 결속력이 부족했던 이유는 본디 도계리를 지키고 살아온 농부들과 외지에서 들어와 장사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본디 도계리 농부들은 봉계, 삼거리, 참시렁골, 풍덕골 무맛들 등에 살던 사람들인데 장터에 자리 잡은 농부들은 장사와 농사를 병행하면서 재력을 쉽게 키워 나갔고 세월이 갈수록 외지에서 들어와 농사짓는 사람들의 입김이 세졌기 때문이다.

장터 두레는 1년에 한 차례 논매기만 하는 한물두레였다. 논매기는 농가에 따라 두 물과 만물 중, 농가가 희망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봄 두레 먹는 날의 먹매를 마을의 대농집에 의지하였고 궤등의 운영은 특이한 면이 없다.

두레 풍장의 규모는 상쇠, 부쇠, 장구 2, 북 2, 복구 5~6, 농자천하지대본의 농기를 4명이 들고 영기는 청색 홍색 한 쌍을 세웠으며 특이한 것으로는 길나래비를 질고래비로 부른다.

풍장 가락은 굿거리(길나래비), 늦을마치, 잣은마치, 세마치가 근간이었다.

두레를 구성하는 조직은 일반적이다. 좌상이 1명. 공원과 총각좌상이 각각 1명인데 특이하게도 소렴이라 하여 모든 두레꾼의 심부름꾼을 별도로 두었는데 이는 다른 마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두레 공동 작업 출력에 빠진 사람을 대상으로 징취하는 궤는 도계리 안에서 작업할 때는 적용하지 않고 외지 농토로 일하러 갈 때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몸이 아파 못나온 사람 외에는 모두 궤를 물렸으며 이는 궤이라 하지 않고 추심이라 하였다.

공원은 총무였다. 일감 품의 기록. 두레꾼의 출력 사항 기록, 두레 운영 경비의 기록과 총 수입금에서 지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출력한 장정의 수로 나누어 장정들에게 배분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총각좌상의 역할은 총각들의 지휘자 역할과 좌상의 심부름꾼 역할을 겸임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봄, 여름 2회 두레를 먹었고, 봄 두레 먹는 날은 모심는 일정을 조정하고 당해 년도 품삯을 정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으며 여름두레 먹는 날은 두레가 공동으로 논을 매서 벌은 품삯을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루를 즐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장터 두레 풍장은 마을의 규모가 크며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매우 번성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 풍장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연주해 온 두레 풍장과 백제문화제 등 면을 대표해서 다른 지역이나 시(당시 읍내)에 나가 풍장 실력을 자랑하였기 때문에 면내 다른 마을의 풍장꾼들 중 뛰어난 사람들이 합류하여 가락도 판재도 좋았으나 끝내 칠채를 치지 못하여 상은 타지 못했다 한다.

장터 풍장의 특이한 사항은 열두발 상모였다. 복구는 아무나 칠 수 있다고 믿어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열두발 상모꾼이 판의 중심 예능이라 하여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였고 이 전통은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이런 경향으로 다른 두레 풍장 판에서는 볼 수 없던 열두발 상모놀이 이 마을에는 풍장판의 중심이 되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1960년대 장기면을 대표하는 풍장으로 백제문화제에 출연하였다. 당시 풍장의 규모는 도계리 풍장에 타동의 주요 예능인 다수를 포함하는 정도였는데 이는 상쇠와 부쇠 외 삼쇠, 사쇠를 더하고 장고와 북을 각 2-3명 정도 더한 수준이다. 잡색은 초반에는 세우지 않다가 타 고장의 풍장판을 보고 거짓 양반이나 여장 남자를 세웠으며 복구잡이는 7명, 열두발 상모와 나발등은 마을에서 행하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출연 당시의 연주한 가락은 잣은마치, 늦을마치, 세마치, 꽃내비장단, 길군내비, 짹짹이가락 정도였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마을의 두레 풍장과 장터 사당 풍장이 섞여 재창조되는 과정을 이루었다는데 자료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4. 장군면 명품앗이(길쌈 단체)

명품앗이는 여인들의 노동 조직이다. 여인들의 삶에 속박이 심했던 이유로 현대의 민속을 조사정리하면서 명품앗이 단체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으나 명품앗이 단체는 단순히 <명품앗이 하는 사람들>로 일컬어졌을지라도 분명히 단체로 활동 하였으며 매년 변화가 적고 모든 마을에 있었다는 점에서 정리되어야 할 민속 중 하나다.

앞서 말한대로 명이란 길삼을 하는 과정에서 목화나 삼베의 실을 뽑는 작업을

의미하며 여인네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하는 작업 또한 명을 짓는 일에 한하는 특징을 지니며 가사 노동이 많던 부녀자들이 조직한 구성이라서 모여 일하는 계절이나 시간이 한정적이었지만, 마음에 맞는 아낙네들이 모여서 규모는 5-10명의 범위가 일반적이었다.

여인들만 모여 일을 한다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음을 의미한다. 일은 언제나 같은 일을 하고 노동은 힘을 요하기보다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끝없이 계속되었으며 노래를 부르며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아낙네들이 부르는 신세타령이나 시집살이 노래 등 남편이나 가족의 흥을 볼 수 있는 노래 들이 성행하게 하는 마당이었던 셈이다.

품삯은 없고 음식은 1식을 하는데 자기 집 명을 짓는 사람이 제공하는 명품앗이 중 장군면에서 필자가 조사한 마을의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1) 송문리의 명품앗이

마을의 규모가 크고 장군면에서는 논이 넓은 마을 중 하나라 명 품앗이 단체가 많지 않았다. 현재의 반단위로 활동하였으며 4개의 명품앗이가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명품앗이의 영향으로 특이한 노래가 많이 전하는데 그 중 하나가 <긴 창부타령>으로 남편을 일찍 여윈 여인의 한을 노래하였다.

2) 장군면 도계리의 명품앗이

장터 마을의 특징으로 인하여 현재의 면소재지 중심에는 명품앗이가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봉계, 참시렁골, 풍덕골 무맛들에 각각 1개의 명품앗이가 있었다. 1960년대 이후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공업화된 천이 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었으나 풍덕골의 경우 삼농사를 많이 하여 오래도록 활동하였으며 이 마을 역시 아낙네들의 소리가 많았으나 특별한 소리는 보이지 않는다.

3) 장군면 용암리의 명품앗이

용암리는 띠실을 포함한 모든 마을이 삼베길쌈을 매우 많이 한 마을이다.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았던 마을로 일제강점기 이후 자식 교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다른 마을들보다 일찍 소득원을 개발하였는데 전통으로 내

려온 산업 중 삼베짜기와 담배 농사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명품앗이가 성행하여 6개의 단체가 활동하였다.

용암리의 명품앗이가 다른 마을과 다른 특징은 일을 많이 빨리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점이다. 방이 넓은 곳이 적어 소규모로 행하며 마당이 넓은 집을 택하였고 일을 하면서도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아 부녀자들의 노래를 적게 채록되는 특징을 보인다.

용암리 양달 마을의 명 품앗이는 2010년 이 마을의 민속 조사 시 1922년생 이 건정, 1940년 생 이건분의 두 할머니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구 의 당면과 장기면 일원에서 명품앗이 자체가 매우 어려운 노동이었음을 증언한 최초의 마을이었다.

제7절 기타 마을 민속 · 문화

1. 장군면 주택과 관련된 문화

서민들의 삶에서 주택의 문화는 삶을 포용하는 공간으로서 생업은 물론 각종의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이는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집터다지기>의 각종 소리처럼 소리나 노동 민속, 성주라는 말로 대변되는 가정 신앙 등이 직접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장군면 일원의 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고자 한다.

1) 집짓기와 관련 민속들

사람이 살아가는 집은 오래도록, 대를 이어 살면서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면에서 집을 짓는데는 많은 염원과 노동을 하기 위한 민속이 담겨져 있다.

집을 짓는 과정은 본격적인 건축에 앞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테면 새 끼꼬기, 섶, 기둥 확보 등의 준비를 해야 하며 집터를 마련하고 터를 고른 후 집터를 다져야 집 짓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후 기둥을 세우고 들보와 도리 구연 등 지붕의 나무를 틀을 짠 후 대들보를 상량하고 서까래를 걸고 외를 엮어 흙을 올려 새를 받고 초가나 기와로 지붕을 덮는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수장을 걸고 문틀을 제외한 모든 곳에 외를 엮어 벽을 바르며 구들과 마루를 놓고 뜰을 정리하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집을 짓는 일은 마을 전체의 일이었다. 개인이 집을 지어도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마을의 일이기도 했으며, 민속이 함께 한 분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집터 고르기와 다지기

집을 짓기 위한 터가 마련되면 장정들이 모여 지계질, 팽이질, 가래질 등을 행하여 집터를 고른다. 건물이 지어질 곳을 높이 하고 마당은 낮게 고르며, 묶은 집터에 집을 지을 경우 구들을 놓으며 사용한 돌을 모두 뽑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인위적으로 쌓은 구들 언덕을 헐지 않고 집터를 다질 경우 방 자리가 가라앉는 정도가 달라 방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래질을 할 때 일부 마을에서는 가래질 소리를 하면서 행하였다.

집터 다지기는 100~200Kg 정도의 큰 돌에 줄을 묶어 장정들이 모두 모여 함께 다짐돌을 들어다 놓는 행동을 반복하여 집터를 다진다. 일의 특성상 참여한 장정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써야 하기 때문에 모든 마을에서 집터 다지는 노래를 부르며 행하였다.

집터다지기는 건물이 지어지는 부분과 뜰에 한정되어 마당은 다지지 않으며 다질 모든 면적을 다지는 아시 다지기와 주춧돌 놓을 곳을 중점적으로 다지는 주춧다지기가 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하는 농부들의 마을이라서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 동네 모든 장정들이 모여 행하였으며 보수를 받지 않는 무료 봉사로 행하였다. 청소년들은 벋짚 햇불을 들어야 하며 무료 봉사를 하는 장정들에게 밤참으로 팔죽을 쑤어 내고 술과 안주가 풍부하여 동네 모든 남자들이 모여 행하는 큰 민속이었다.

노랫말의 구조는 선소리꾼이 소리를 먹이면 줄꾼들이 함께 후렴을 노래하며 긴 소리와 잣은소리 2종이 있다. 장군면에서 가장 흔히 쓰인 집터다지기 노래의 후렴은 〈에헤이 지달고〉이며 일부 마을에서는 〈어허이야 광광다져라〉 장군면 용암리와 용현리에서는 〈에헤이 지달묘〉를 사용했다. 1973년 이전의 모든 집을 지으며 행하였으며 장군면 용암리 집터 다지기는 매우 독특했지만 현대의 건축으로 전환하면서 맥이 떨어졌다.

3) 기둥세우기와 상량고사

주춧 놓기가 끝나면 기둥을 세운다. 기둥은 지붕의 각도를 생각하여 안에서 밖으로 세워 나간다. 기둥이 모두 세워지고 들보를 걸면 대들보를 상량하고 상량이 끝나면 수장이라 하여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목제를 걸어 문틀을 설치한다. 집을 짓기 시작하면 상량의 날은 길일을 선택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 행하며 고사를 먼저 올린다.

장군면 일원의 상량고사는 모두 유교식으로 단잔 또는 세 번의 잔을 올리고 잔을 올릴 때만다 두 번 절하며 축문을 읽기도 한다.

고사가 끝나면 대들보를 올리는데 대들보에 상량문을 쓰고 대들보 상하에 흰 천을 걸어 대들보로 올린다. 이때 흰 천을 당기는 사람은 집 주인이 돈을 걸게 하며 이 돈은 목수의 재량으로 쓴다.

상량의 의식에는 몇 가지 금기가 있다.

첫째 대들보에 매단 명태의 대가리는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한다. 반드시 목수가 먹어야 하며 특히 눈을 빼 먹으면 집안에 봉사가 난다하여 금한다.

둘째 대들보의 상하를 바꾸지 않는다. 나무가 땅에서 크는 그대로의 방향을 찾아 만들며 상에는 용(龍) 하에는 구(龜)를 쓰는데 이것이 바뀌면 집안이 혼란해져 망한다고 여긴다.

4) 집들이와 성주 모시기

집짓기가 모두 끝나면 집들을 한다. 새 집을 지을 때 마을 집짓기를 도와 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집들을 하기도 하지만 전통사회 농촌에서는 보통 3월에 시작하여 5월에 입주하여 농번기에 해당되어 성주를 모시고 작은 고사를 지내 고는 입주하고 집들이 잔치를 하는 사례는 매우 귀했다.

성주는 집안의 대들보 하단에 매달거나 안방 윗목 벽에 매다는데 꽃의 형태로 만든다. 성주를 만드는 것은 마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장군면 일원에서는 문종이나 흰 천에 칠성단지에 모아 두었던 볍씨를 방아를 찌어 세 수저의 쌀을 중심에 넣고 명주실로 묶은 것이다.

성주를 모시고 지내는 무당을 불러 행하기도 하며 스님을 불러 독경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호주가 맑은 물과 칠성단지 벼를 방아 찧어 지은 쌀밥 한 그릇과 국을 놓고 제사 지내듯 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5) 집짓기 비력질

우리 민족의 상부상조 덕목은 실질적이며 광범위했다. 개인이 일생 한 두 번 하게 되는 큰 일로 집을 지으며 모두 가난했던 시절 이를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 이러한 관행으로 지을 짓는 모든 집에 마을 장정들이 2~5일의 무료 봉사 출력을 하였으며 이를 <비력질>, <집짓기 비력질>, <집짓는 군>으로 불렸으며 무료 노동이나 무료봉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전통사회에서 집을 짓는 일은 재료 구입비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나마 재료 구입비의 경우 집안이 궁하여 돈이나 쌀을 주고 사지 못할 경우 목재는 남의 산에서 베어 오고 구들은 석산에서 떼어 오며 황토배기에서 흙은 파 오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가장 중요했다.

노동력의 확보가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품에 품삯을 주게 된다면 이는 물건을 사오는 정도의 힘이 들기 때문에 마을의 사람들이 품삯을 받지 않고 도와주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어떤 집은 무료로 해주고 어떤 집은 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짓는 일 중 한꺼번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일, 이를테면 집터를 다지는 일이나 지붕의 외역기, 새반이, 헤이기, 벽채 외역기 등 기술 인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마을의 모든 장정들이 참여하는 것이 관습으로 이어 왔다. 특히 집터다지기 와 지붕 흙 올리는 날, 벽채 바르기는 모두 참여하였으며 마을에 따라 친분의 정도에 따라 더하는 마을도 있었다.

2. 장군면 동네 우물들

전통사회 마을이 선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 모두 먹을 수 있는 우물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장군면의 모든 마을에는 2-3개 이상의 동네 우물이 있었다. 지역에 따라 우물이 없으면 시냇물이나 금강물을 식용수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장군면의 모든 마을은 동네 우물이 있어 우물을 사용하였으며 강물을 길어다 먹은 마을은 없다.

마을의 우물은 이를 사용하는 집들이 모여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물을 바닥까지 퍼내고 새 물을 받으며 천재지변이나 사람의 실수로 이물질이나 황톳물이 들어가는 경우 별도로 우물을 퍼내고 새물을 받았는데 이를 <삼소제>라 칭했다.

동네의 우물들 중 대표적인 한 개의 우물은 마을에서 위하는 고사를 올렸다. 고사에 관련된 사항은 상기 마을 신앙에서 기술하여 생략한다.

장군면에는 아직도 마을에서 관리하는 우물이 남아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며 장승제나 거리제 등의 마을고사 시 고사를 올리고 우물고사만 독립적으로 고사를 올리는 마을은 없다.

1) 현재도 사용되는 장군면 송학리 들말의 동네 샘

마을의 형성과정에서 우물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마음 놓고 먹고 쓸 물이 있어야만 마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송학리에는 동네 속의 작은 마을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가뭄에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 몸티의 가운데 샘, 들말의 동네샘, 창말의 윗샘 등이 그것인데, 1970년대 농촌 환경의 개선과 기계 우물 굴착 기술이 좋아지면서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들말의 중심에 있는 하나의 동네 샘만 남아있다.

들말의 동네샘은 어떤 가뭄에도 물이 마른 적이 없고 홍수(洪水)가 나도 물이 더 나지 않는 용천수(龍泉水)다.

들말에는 현대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정마다 소형 관정을 파서 가정용 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한다. 이 경우 기계로 지하수를 파면 지하의 수맥을 해쳐 용천수가 마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들말 모든 가정에서 호별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 우물이 마르지 않아 아직도 동네의 아낙네들은 허드레 물을 사용할 때는 이 우물가에 모이고 정월이면 샘을 품고 새물을 받으며 샘 고사를 지내고 있다.

더구나 물의 양이 많아서 들말 앞의 논농사에 이용되는데 한섬지기 이상의 논에 매년 동사가 가능하여 용샘 앞에 논을 사면 남이 보지 못하는 밤에 논가에 나가 춤을 추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언제나 같은 양의 물이 나는 동네샘

3. 장군면 정자나무들

장군면의 거의 모든 마을이 <둥구나무>라는 이름으로 정자나무를 가꾸었으며 일부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위하는 나무>라 이르며 동네 고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오뉴월 더위에 농부들이 땀 흘려 일하다가 쉼 참에 찾아드는 둥구나무는 들 가운데 작은 언덕에 의지하여 서있고 마을 어귀에도 어김없이 서있다. 둥구나무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를 이르지 않는다. 아무리 오래되고 늙은 나무라 해도 사람과 관계없는 곳에 서 있는 나무 즉 산속에 든 나무를 둥구나무라 하지 않고 생활권에 있는 큰 나무 중에서 두레 바탕이 되어 여름두레 먹는 장소나 두레꾼들이 쉬는 나무, 여름밤에 마을 삶들이 더위를 피해 의지하는 나무가 둥구나무다. 장군면 일원의 둥구나무는 느티나무가 가장 흔하고 팽나무가 다음이며 더러는 버드나무나 향나무가 있다.

둥구나무 그들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중에도 동네 마당에 서있는 나무에서는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그늘 말고도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야 할 일들로 넘치던 장소였고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의 고사를 지내는 곳이 되는데 마을 고사 중에도 거리제나 고목 대신제 등 올리며 일부 마을은 장승백이도 둥구나무에 의지하기도 한다.

전통사회에서 <두레>는 농사와 동일어로 쓰였고 농사와 관련된 마을의 공동작업은 물론 품앗이나 동네 운영에 관한 협의의 주체가 두레였는데 두레와 둥구나무는 뿔레야 뿔 수 없이 밀접한 관계였다.

봄에 못자리를 해 놓고 모내기를 앞둔 시점에는 <봄두레 먹는 날> 또는 <뽕배 먹는날>이라 하여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누며 모내기 날짜를 조정하고 여름두레 세우는 계획을 협의하며 마을 장정들의 품삯을 조정하는데 이 날의 행사 또한 거의 대부분 둥구나무 아래서 행해졌다.

여름 두레가 운영되는 동안 일하는 장정들이 끼니를 먹는 식사의 장소, 술 참에 술을 먹는 장소였으며 논매는 점심참에는 더위를 피해 단체로 즐기던 낮잠을 자는 자리 또한 둥구나무 아래였다.

또한 동네마당의 둥구나무 그들은 간혹 두려운 곳이 되기도 한다. 마을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벌을 주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의 장군면은 마을단위 자치가 아주 잘 운영된 고장이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대부분을 마을에서 바로 잡았으며 반드시 확보해야 할 효(孝)나

인(仁)의 덕목을 세우기 위해서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였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관청이나 경찰에 발고하기 보다는 마을에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하여 용서하고 함께 살았는데 이 벌을 주는 장소가 둥구나무 아래였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힘을 행세하거나 폭언을 한 불효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냥 두면 다른 젊은이들이 변을 본다.』 하여 마을에서 벌을 주었다. 처음에는 불효한 이를 불러 훈계를 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거듭되면 매를 때리는데 이 때 매를 맞는 장소가 둥구나무 아래였으며 두레에서 두레꾼들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있어서 벌을 주던 곳도 둥구나무 아래였다.

아직도 장군면의 여러 마을에서는 둥구나무를 위하여 심지어 새 나무를 심기도 한다. 마을을 지켜온 둥구나무가 죽으면 어린 느티나무나 팽나무를 심어 기르며 둥구나무가 되어 마을을 지켜줄 날을 기다릴 정도이며 장군면 송학리 몸티의 향나무 정자는 외형이 빼어나 보존의 가치도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제8절 장군면의 민요

1. 장군면 민요의 개설

세종시 장군면으로 분리되기 이전 공주의 소리관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민요권인 경기지방의 소리와 판소리권인 남도 소리가 혼재되어 있는 고장이라는 것이다.

관찰사가 있던 고장으로 호서 지방의 부자들이 집결하여 살아 온 지역적 특성 때문에 소리꾼들이 먹고 살기 편한 곳이었다는 힘이 동편제나 서편제와 같이 중고제라는 평성(平聲)의 소리재의 중심지로 존재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적 성향은 어느 마을을 가든지 옛소리가 보존되어 쉽게 불리워지는 현장의 형태로 존재하게 만들었다.

이중 장군면에서 민요들은 경재 평조의 노래들로 <노랫가락>, <태평가>, <청춘가>, <창부타령>이 주를 이루는데 이중 송정리는 다른 마을에서 채록되지 않는 특색 있는 청춘가가 있고 송문리의 긴 창부타령은 다른 어떤 마을에서도 채록되지 않은 특색 있는 민요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장군면이 현대 판소리꾼 중 국창의 칭호가 당연한 명창 박동진의 고향 고장이었음에도 판소리조의 노래가 채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군면에서 긴 소리재로서 아주 흔하게 채록되는 가사는 고사 소리다.

장군면의 무속이 선거리 굿보다는 얇은 경이 대부분이었던 경향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고사소리는 풍물의 삼채 가락을 반주삼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긴 고사 소리>와 <짧은 고사 소리>로 대별되는데 장군면의 고사소리는 긴 고사소리가 없고 짧은 고사 소리가 주를 이룬다.

장군면의 민요는 <일노래>와 <유희 소리>, <부녀자 민요>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중에서 가장 특이한 민요는 공주의 <긴 아리랑>이다. 이 노래는 필자가 2005년 8월 당시 장기면 제천리에서 채록하였는데 오직 의당면 율정리와 제천리에서만 채록되었다.

제천리는 현재 장군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이를 중시 기록하는 이유는 아주 독특하며 반드시 보존해야 할 민속임에도 제천리의 모든 주민이 이주하여 앞으로는 향토 민속자료로 이를 기록할 근거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제천리의 긴 아리랑은 강원도 정선의 긴아리와 유사하나 더 속도가 느리며 노래를 부르는데 상청을 쓰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은 임채묵으로 제천리 이주시 이주하여 지금은 어느 곳에 사는지 알 수 없다.

송문리의 긴 창부타령은 소리는 여인의 난봉 심리를 길게 노래하는〈긴 범벅타령〉과 유사한 소리로 판소리를 연상하게 하는 독특한 노래다.

긴 창부타령이라는 명칭은 1998년 채록시 이 노래를 부른 창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노래의 기록은 『한국의 농요(이소라, 현암사)』의 공주편에는 비슷한 노래가 〈범벅타령〉으로 기록뿐이다.

노래를 부른 송문리의 창자는 창부타령으로 노래를 불러 앞뒤로 후렴재를 섞어가며 노래하였으나 하기 노랫말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수록하였다.

이 노래를 부른 창자는 이 노래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장군면의 민요 중 특별히 기록해야 할 부분은 농요 중 두레 논매는 소리다. 메나리조의 논매는 소리가 공주, 세종시 일원에서는 장군면의 일부 마을에서만 유일하게 불렸다.

장군면에서 불린 농요 중 메나리 농요는 얼카 산이야의 후렴으로 부르는 논매는 소리와 모내기 소리가 상주 모심기 노래와 유사한 모심는 소리다.

장군면 일원에서 놀기 좋아하고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노래를 편하게 부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상청(上講)으로 잘하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평성(平聲)으로 구수하게 부르는 소리를 좋아한다는 점이였다. 노래가 좋아서 감동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순한 창법(唱法)으로 노래하여 듣기 편하면서도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고 싶은 노래가 가장 잘하는 노래라는 의식이다.

2. 장군면 민요 노랫말

- 송정리의 노랫가락

달아 뚜렷한 달아 임의 영창에 비친 달아
너두 입을 품었더냐 어느 무정자(한량, 건달)를 품었더냐
명월아 본대루 일러라(좋다) 임하구 나하구 사생결단

나 싫다구 수리 찬 밭에 연밥따는 저 기력아
 연화는 내 따 즐겁게 길은 밤이 내방이 잠들어라
 잠들기는 힘들지 않지만 (좋다) 연화 따기가 힘드노라

보름달두 반달이요 그믐달두 반달이요
 열두달을 합하구나 보면 보름달두 지나 둥글둥글
 언제나 정 든 님을 만나서(좋다) 보름달처럼 둥글둥글
 (창자 : 윤귀한)

- 송문리 청춘가

니가(네가) 날만큼 날 사랑한다면
 한강물 천리(千里)래두(라도) (좋다) 발벗구 따르리라

날 다려(데려) 가거라 날모셔가거라
 한양에 낭군아 (좋다) 날 모셔가거라

니가(네가) 먼저 살자구 옆구리 쿡쿡 찢렸지
 내가 널 좋다구서 (좋다) 안구 둥구렸더어나.

돌려라 돌려라 비비뱅뱅이 돌려라
 노래가락은 집어치구(치우고) (좋다) 청춘가루로 돌려라

- 송문리 긴 창부타령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뿌리 옹이두(없이도)나 자란 남귀(나무)
 가지 수(數)루(로)는 열 두 가지요 잎은 피어서 삼백 육십
 동쪽으로 번은 가지는
 해(日)두(도)나 열구 달(月)두(도) 열어
 해는 따서 염량을 짓구 달은 따서 안을 놓아

청실 홍실이 수를 놓고 오근자근이 사쨌더니(살자고 했더니)
 이도령이는 선낭군이요 김도령이는 훗낭군이라
 기집년의 행실을 보자구 외방에 장사를 나간다구
 개나리 붓짐을 썩둘러 메고 길 떠나며 하는 말이
 여보여보 내여보야 이내 한말을 들어나 보오.
 강경이라 뱃장에는 새우 젓갈이 진천이구
 강릉이라 선장에는 오동 칠기가 명산인디
 이장 저장을 땡기면서 돈냥이나 벌어지면
 문전 옥답을 마련하여 오근 자근이 살을지니
 장돌뱅이라 말을 말고 돈 주머니라 이르시오.
 본낭군이 담붓짐을 썩 둘러 미구 대문을 열구 길 떠난다.
 얼씨구나 지화자자자 좋구나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종단 지화자자 좋네 지화자자 좋을 시구.
 본서방이 길 떠나자 기집년의 행실을 보아라
 셋서방을 부르려고 분단장을 곱게하고
 동서남북 사방위를 이리 훑고 저리 훑고
 앓두 서두 못하구서 오락가락하던 끝에
 본서방 읊는 싹을 알구 훗서방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여보 여보 여보시오. 내가 왔으니 문을 여오.
 문열어주오.
 문 열란 소리에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 나가
 대문 밖을 바라보니 훗 사내가 분명구나
 가는 허리 부여 안고 방안으로 들어 와서
 올려다 보니 소라 반자지요 내려다 보니 각자 장판
 인물 병풍을 둘러 치구 일광단 요를 썩 펼치고
 월광단 요를 썩 펼치고 옷 가질랑 흘러뎅 벗구
 창포 밑에서 금붕어 놀 듯 슷달 그믐날 떡메를 치듯
 금실금실이두 잘두 논다. 금실 금실이두 잘두 논다.
 얼씨구나 지화자자자 좋구나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열씨구나 좋단 지화자자 좋네 지화자자 좋을 시구.
 훗냥군과 기집년이 금실금실이 놀아 날 때
 본냥군이 돌아 와서 문두드리며 하는 말이
 여보 여보 벗님네애 내가 왔으니 문을 열어 주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두 사람이 큰일 났네
 별저 벗은 알몸뚱일 숨길 새가 옳구 보니
 기집년에 뒤지를 썩 열며 다급하게 하는 말이
 목소리가 필경에 본 남편이니 이 안에라도 들어 가소
 새 빨간 알몸뚱이의 훗냥군이 어찌할 줄 모르다가
 의복도 못 걸치고 뒤주 안으로 들어 간다.
 기집 년두 옷을 입구 대문 앞으로 나서보니
 꾀나리 붓짐을 풀어들고 선 이 본 낭군이 분명하구나
 여보 여보 벗님네야 이내 한말을 들어나 보오
 외방장사를 나간다면서 속달 열흘이 걸린다더니
 원 사흘두 못되어서 이 밤 중에 원일이요.
 본냥군이 하는 말이
 어느 한 곳을 가다보니 장님 점쟁이를 만나는데
 하두 용탄 말이 높어 복채를 내구 점을 치니
 안방에 놔둔 뒤지 때미 될 일두 안된다기에
 뒤지를 부시러 돌아 왔네
 영글렀다 영글렀다 훗냥군 살기는 영글렀다.
 열씨구나 지화자자자 좋구나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열씨구나 좋단 지화자자 좋네 지화자자 좋을 시구.
 기집년이 털척하여 본냥군 잡구 하는 말이
 삼대 사대 내려 온 세간지물이 그뿐인데
 부신단 말이 원말이요
 본 낭군이 그말을 허수히 듣고 새끼 서발 구해들여
 뒤지 텅여 멜빵지워 어깨에 걸머지고
 대문 밖을 나가보니 갈는 길이 북망산이라

산으로 들자니 북망이요 바다로 가니 용궁이라
 어디루 갈거나 어디루 갈거나 뒤지를 지구서 어디루 갈거나
 서성이던 본낭군이 (주1)대천(大天)바다루 썩나서서
 뒤지를 잡구서 하는 말이 이뒤지를 이대루 띄우면
 만리 창해 돌아 들어 높은 파도에 떠댕기다가
 용궁으로 돌아 들면 용왕님이 들어다가 회치먹으리로다.
 산속이다가 내버리면 집으로 돌아 오라고
 숨죽이고 있던 홯서방이 그말을 알아듣고나서는.
 여보시오 김도령요 이 내말을 들어보오
 내가 분명 잘못했으니 제발 나를 살려 주오
 제발 나를 살려 주오
 얼씨구나 지화자자자 좋구나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종단 지화자자 종네 지화자자 종을 시구.
 뒤주를 열고 홯낭군을 꼬집어 낸 본낭군 하는 말이
 너두나 남의 집에 귀동자(貴童子)요
 나두나 남의 집이 귀동잔디
 내가 자내 죽일 일이 무에 있나
 뒤지 도령을 끄내 놓고 뒤지를 뚜디려 부셔 불을 놓구
 집으로 돌아오니 기집년의 거동을 보소
 홯낭군이 죽은줄을 알고 본낭군을 감기는디
 본 낭군이 화난체하구
 삼단 같은 머리채를 휘휘청청 감어지고
 엮어 놓고 등을 때려 자쳐 놓고 배를 때리니
 마소 마소 그리를 마소 정분만 좋으면 그만이지
 무삼걱정이 또있으랴 하더라니
 본낭군이 그말을 듣고는 허허꼴꼴 웃었다더라
 엮어 놓고 배를 따고 자쳐 놓고 등을 찢다더라
 얼씨구나 지화자자자 좋구나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 장군면 제천리 긴 아리랑

아 ---- (아아하아아하아아) 아이 아롱(아로웅) 아라리아
 아이로웅웅 고오개에로로 나를 냉겨 주오---
 인생이 살므는 멧 백년을 사나. 놀기두 하므서 하므서 살어나 가세

아 ---- (아아하아아하아아) 아이 아롱(아로웅) 아라리아
 아이로웅웅 고오개에로로 나를 냉겨 주오---
 산중이 기물은 머루다레 녁쿨 사람에 기물은 널과 나뿐이라

아 ---- (아아하아아하아아) 아이 아롱(아로웅) 아라리아
 아이로웅웅 고오개에로로 나를 냉겨 주오---
 머루 다레 녁쿨은 능청능청 널과 나으 사랑은 얼그렁 설그렁

아 ---- (아아하아아하아아) 아이 아롱(아로웅) 아라리아
 아이로웅웅 고오개에로로 나를 냉겨 주오---
 바람이 불라구 하므 봄바람이 조쿠요 풍년이 들라므 삭시 풍년이나 들어라

아 ---- (아아하아아하아아) 아이 아롱(아로웅) 아라리아
 아이로웅웅 고오개에로로 나를 냉겨 주오--

※ 긴아리의 조사 기록 정리 : 기록정리 2005년 8월 16일

제9절 장군면의 풍장(농악)들

1. 장군면 풍장의 개설

장군면에서 풍장을 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이 풍장을 치는 것과 같이 3가지 요소가 있다. 이는 풍장을 어떤 때 치는가에 관한 구분으로 1) 기원(고사) 2) 놀이 풍장 3) 일풍장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원 풍장은 염원의 장소에서 치는 풍장이다. 마을 단위의 동네 고사(동제, 대동고사, 마을굿)를 지내는 현장이나 정초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1년 동안의 안과태평을 비는 <터누르기>, 이른바 안택풍장으로 치는 풍장이 대표적이며 일부 곳에서 보이는 풍장 가락이 이에 속한다. 가락이 단조로워 세마치(2채) 잣은 마치, 굿거리의 3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에게 올리는 풍장이라 하여 춤을 추지 않고 조용히 치는 특징이 있다.

둘째, 놀이 풍장은 연희의 장소에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치는 풍장이다. 집단적인 연희나 유희의 흥을 위하여 치는 풍장으로 말 그대로 놀기 위해서 치는 풍장이며 농촌 마을의 여름두레 먹는 날이나 천렵을 하면서 치는 풍장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문적인 예능인들이 연주하는 풍장과 보통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놀이판에서 치는 것이 다르나 장군면에서는 전문 연희패의 공연은 없었고 마을에서 잘 치는 풍장쟁이들이 치는데 정초, 단오, 백중, 여름두레 먹는 날, 칠석, 추석날 등의 명절날 놀면서 치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

풍장의 가락은 매우 다양하며 같은 가락이라 하더라도 변형이 많아 풍장 가락으로는 가장 다양하며 흥겹고 열두발 상모, 잡색 등의 기예와 상쇠 놀음, 북춤, 징춤 등의 풍장꾼 개인 놀이가 함께 한다. 또한 마을 소리꾼들의 노래에 반주 풍장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셋째, 농사일의 현장 즉 노동을 하면서 치는 풍장이다. 대표적인 것은 마을 단위 공동 작업 단체였던 두레가 두레 공동 작업을 하면서 치는 풍장이고 이 중 대부분이 두레 논매는 날에 치는 것이지만 드물게는 소집단의 품앗이 일판에서도 쳤다.

가락은 네 박의 단조로운 장단이 많으며 빠른 가락과 느린 가락이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연주되었다.

장군면에서 구성된 풍장의 악기별 구분은 상쇠와 부쇠가 각 1명, 징 1명, 장고북이 각기 1~3명, 북구짚이 3~7명 정도였으며, 이 또한 마을마다 조금씩 달랐다.

1년을 주기로 마을에서 풍장을 치는 날은 1) 동네 고사의 경비를 모으기 위한 건립 풍장과 정월 대보름 동네 고사 풍장 2) 2월 초하루 콩 볶아 먹는 날 농부들이 치는 놀이 풍장 3) 봄 두레 먹는 날 4) 단오 5) 여름두레 일판과 여름두레 먹는 날 6) 칠월 칠성 7) 팔월 추석 8) 10월 상달의 시루구멍 막는 날 정도였다.

2. 장군면 도계리의 풍장

도계리의 풍장은 놀이 풍장보다는 두레 풍장이 성행했던 마을이었다. 그러던 것이 해방 후 각지에서 벌인 풍장대회와 백제 문화제 풍장대회에 장군면 대표 풍장으로 활동하면서 놀이 풍장이 성행하였다.

이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친 풍장 가락은 현대의 굿거리장단을 느리게 치는 <질 굿나비>와 삼채가 주를 이루었으며 삼채는 기본가락만 세게 치는 <군악풍장>과 춤을 추기 좋게 변형된 <춤장단>, 보통의 삼채가 어우러져 다양하게 즐겼다. 가락과 가락을 바꾸는 <사이 풍장>과 몰아쳐 땀은 <짚은 마치> 장군면의 풍장 가락의 전형인데, 이는 면소재지 마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도계 풍장을 듣고 마을에 가서 침으로 인해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악기의 구성은 상쇠와 부쇠가 각 1명, 징 1명, 장고북이 각기 2명, 새납 1명, 상모를 돌리는 북구짚이 5~6명이며 풍장꾼을 인도하는 길나래비와 가짜 양반, 여장 남자의 잡색이 있었고, 새납은 1명이 불었다.

두레 풍장 판에서는 두레꾼들이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풍장을 쳤으며 논매는 작업 시에는 풍장이 반주를 하지 않고 북으로만 장단을 맞추었다.

제10절 구비 전승

장군면 일원의 구비 전승으로 옛날이야기, 바위나 고목나무 등의 자연과 관련된 전설, 마을 이름의 유래 등 수많은 구비 전승이 전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주시지, 공주의 전통마을, 공주지명지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내용 또한 풍부하다.

이 모든 자료를 본고에 수록하는 것은 지면 관계상 어려움이 있기에 생략하며 상기의 책자에 수록되지 않으면서도 구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 일원의 주민들에게 명당에 관련된 상징적인 믿음으로 존재해 왔던 거북바위의 설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 거북바위의 전설과 지명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장군면 송학리 창말의 앞 쪽에는 거북을 닮은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로 인하여 이곳의 옛 지명이 구암(龜岩)으로 불릴 만큼 마을에서는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아쉽게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바위에는 동해 용왕(龍王)의 명(命)을 받아 지상 최고의 명당(明堂)을 찾아 다니던 거북이의 설화(說話)가 전해진다. 용왕이 자신이 죽은 후 지상에 무덤을 지을 생각으로 명당을 찾다가 물으로 나올 수 있는 거북이에게 명하여 지상에서 가장 빼어난 명당을 찾아 자리를 잡아놓고 오라 하였다.



〈사진 8〉 거북바위 앞에서 바라본 창말의 전경

깊은 동해 바다에서 나온 거북이는 조선 팔도를 모두 살피고 다녀도 용왕의 무덤을 지을 명당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송학에 왔을 때는 기력이 쇠진하였는데 그제서야 명당의 기운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가면 명당이 있는데 더 기어 올라갈 힘이 없는 거북은 그 자리에서 죽어 바위가 되었다 한다.

그런데 거북바위가 생긴 이후 송학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외지에서 이 마을로 상여(喪輿)가 들어오면 모두 거북 바위를 넘지 못하고 탈이 생겨 상주들이 묘를 쓰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거듭 발생한 것이다.

거북이가 잡아 놓은 명당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찾지 못하여 쓰지 못했다는 소문을 들은 정승이 용한 지관을 보내 명당 터를 잡아 놓고 자기 조상의 묘를 쓰기 위해 상여를 메고 이 마을로 들어섰다.

그런데 상여가 막 송학리에 접어들었을 때 상여에 벼락이 떨어지는 참변이 일어났다. 하늘이 울고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상두꾼들이 메고 오던 상여는 바위가 되었고 그 경황에 혼백을 모시는 조이틀(위패를 모시는 틀의 지역 사투리 이름)이 하늘 높이 날아와 들말 앞 산자락에 떨어졌으며 선소리꾼이 흔들던 요령은 몸터 앞산에, 그리고 시신(송장)은 마을 앞산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는 지금도 <상여 바위> <조이틀산> <요령바위> <송장산>이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노인들은 거북이가 본 명당이 있어서 언젠가는 역사가 기록할 큰 인물이 이 자리에 와서 묻힐 것이라고 믿고 있다. 조이틀산은 발음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조털산> <조틀산>등으로 불리는데 원명은 조이틀산이다.



〈사진 9〉 시신을 이르는 말인 송장산의 전경.

참고자료

채록대상자 내역

장군면 도계리 고영기 (1930년생), 장군면 도계리 한상건 (1934년생),
 장군면 도계리 이종락 (1933년생), 장군면 은용리 임병철 (1925년생),
 장군면 은용리 구본홍 (1934년생), 장군면 은용리 신삼철 (1944년생),
 장군면 용암리 이퇴하 (1936년생), 장군면 용암리 이건정 (1922년생),
 장군면 용암리 이건분 (1940년생), 장군면 용암리 이계하 (1942년생),
 장군면 송정리 최정식 (1933년생), 장군면 송정리 신영호 (1926년생),
 장군면 송정리 윤귀한 (1936년생), 장군면 제천리 임채묵 (1924년생),
 장군면 제천리 임준길 (1935년생)

※ 상기 채록사항은 필자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채록 과정에 참여한 분들
 중 중요 내용을 증언 한 분들로 현재는 사망하였거나 이주한 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將軍面誌

제 7 장

문화유적

제1절 _ 문화재와 문화유적

제2절 _ 선사유적

제3절 _ 백제시대 유적

제4절 _ 통일신라 · 고려 유적

제5절 _ 조선시대 유적

제6절 _ 기타 유적

문화유적

제1절 문화재와 문화유적

1. 세종특별자치시와 장군면의 문화유적

문화재와 문화유적은 옛사람들이 남겨놓은 유무형의 자산을 총체적으로 말한다. 특히 그 지역의 문화재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흔적으로, 그 지역의 역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다.



〈그림 1〉 세종특별자치시 위치도(1:500,000)

세종특별자치시는 동으로는 충북 청원군

과 서로는 공주시, 남으로는 대전광역시, 북으로는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한반도의 중앙에 해당한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심을 이루는 연기면, 연동면, 금남면 일대에는 그 중심부에 전월산이 위치하고, 동서로 흐르는 금강을 따라 그 주변으로 범람원이 발달하여 있다. 특히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천 주변으로 낮은 구릉이 형성되어 펼쳐져 있는데, 이러한 지형은 인류의 생활공간으로 적합한 환경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선사시대부터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고 있었음이 문화유적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위치한 지역은 고대국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문화

가 발달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우선 선사시대 유적은 구석기·신석기와 청동기시대 구분되는데 장군면에서는 구석기~신석기시대 유적이 조사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군면 주변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는 최근조사를 통하여 구석기시대의 고토양층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연기리·송담리·봉기리 등지에서 석기류가 수습된 바 있다. 또한 주변지역인 공주 석장리 유적이나 청원 만수리 유적 등에서 구석기유적이 확인되고 있기에, 장군면 지역의 구석기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청동기시대 유적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곳곳에서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이 금강과 대교천 주변의 낮은 구릉지대와 평야가 넓게 펼쳐진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생활하기에 양호한 지형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군면의 봉안리 일대에서 청동유물 일괄이 출토된 바 있으며 하봉리, 도계리 일대에서도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가 확인되고 있어, 장군면 일대가 청동기시대부터 인간의 생활터전으로 적합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추후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장군면 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유역에는 고대국가 성립 이전부터 크고 작은 소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를 일반적으로 원삼국시대라고 통칭하고 있다. 그리고 원삼국시대의 공주·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은 마한의 영역에 속하고 있었다. 특히 금강 중류역의 중심부인 공주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은 마한의 소국인 막로국(莫盧國)·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불운국(不雲國) 등으로 비정되는 등 백제 이전 시기부터 유력한 세력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역사상 세종특별자치시 일대는 삼국시대부터 백제의 영토에 속하면서 웅진의 강역으로, 전의지역은 대목약군(大木岳郡)의 구지현(仇智縣), 연기지역은 일모산군(一牟山) 내 두잉지현(豆仍只縣)이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는 전의지역이 대록군(大麓郡)의 속현으로 ‘금지(金地)’라고 하였으며, 연기현은 연산군(燕山郡)에 속하여 이때부터 ‘연기’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렇듯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대적 변천을 맞이할 때마다 웅진도읍기 도성의 외곽지역으로 공주와 더불어 역사의 기록 속에서 그 흔적이 확인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는 행정복합도시 개발과 관련된 발굴조사를 통하여 원삼국시대 유적의 존재가 증가하고 있어 원삼국시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군면 하봉리, 도계리, 봉안리 일원에서도 원삼국~백제시대 이르는 시기의 고분유적이 확인되며, 송문리 일원에서는 국보 제247호

로 지정되어 있는 백제의 금동관음보살입상이 출토되는 등 공주지역과 더불어 장군면 역시 충청지역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언급되는 공주지역과 밀접한 지역으로, 역사의 큰 맥락을 이해하는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역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고대 삼국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며, 웅진도읍지의 외곽으로 방어를 위한 관방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는 운주산성·이성·고려산성·읍내리 산성 등이 확인되어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백제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한 뒤, 백제 유민들에 의하여 백제의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매우 치열하게 일어났는데, 이때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도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부흥운동이 있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이 속한 웅주 지역이 백제 부흥군의 활동이 가장 심했던 지역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정황은 조치원의 서광암 일원에서 발견된 계유명삼존천불비상(癸酉銘三尊千佛碑像, 국보 제108호) 등의 명문을 통하여 이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의 백제 유민들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이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백제의 중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유적으로는 동면 응암리유적의 통일신라 석곽묘와 남면 월산리에서 고려시대 석곽묘, 건물지 등이 조사된 예가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다. 또한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유교와 관련된 유적으로 사우와 영당, 정려 신도비 등 조선시대의 사족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 대부분이다. 그 밖에 발굴조사를 통하여 조선시대 고분과, 건물지, 사지 등이 확인된 바 있으며 추후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는 계유명삼존천불비상 이외에도 백제부흥기의 대표적인 유물이자 삼국시대의 수준 높은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보와 보물이 확인되며, 이들 문화재들 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재가 약 40여건 가까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와 장군면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문화재 현황들은 장군면 지역이 역사적으로 주목해야 할 곳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재 지정 현황

번호	명칭	시대	지정사항	지정일	소재지	비고
1	세종특별자치시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	통일신라	보물 제649호	'78.12.7.	연서면 연화사길 28-1	12.12.27. 명칭변경
2	세종특별자치시 연화사 칠존불비상	통일신라	보물 제650호	'78.12.7.	연서면 연화사길 28-1	12.12.27. 명칭변경
3	봉산동향나무	근대(약400년전)	천연기념물 제321호	'82.11.04.	조치원읍 봉산동 128 외1필	
4	청원유계화가옥	조선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84.01.14.	부강면 용포동촌길 49-19	
5	전의 비암사 극락보전	조선	시지정유형문화재 제1호	'12.12.31.	전의면 비암사길 137 (다방리 4)	구. 충청남도 유형 제79호
6	연서 효교비	조선(1773)	시지정유형문화재 제2호	'12.12.31.	연서면 기룡리 713-55	구. 충청남도 유형 제108호
7	전의 비암사 삼층석탑	고려	시지정유형문화재 제3호	'12.12.31.	전의면 다방리 4	구. 충청남도 유형 제119호
8	남평조씨 병자일기	조선	시지정유형문화재 제4호	'12.12.31.	금남면 남산길 51-2	구. 충청남도 유형 제153호
9	부강초등학교 강당	일제(1926)	시지정유형문화재 제5호	'12.12.31.	부강면 부강로 15 (부강리 488-1 외)	구. 충청북도 유형 제215호
10	대방광불화엄경 권3	고려	시지정유형문화재 제6호	'12.12.31.	부강면 시목부강로 685-22	구. 충청북도 유형 제278호
11	대방광불화엄경 권32	고려	시지정유형문화재 제7호	'12.12.31.	부강면 시목부강로 685-22	구. 충청북도 유형 제279호
12	대방광불화엄경소 권3~4	조선전기	시지정유형문화재 제8호	'12.12.31.	부강면 시목부강로 685-22	구. 충청북도 유형 제280호
13	선문염송집 권4~6	조선전기	시지정유형문화재 제9호	'12.12.31.	부강면 시목부강로 685-22	구. 충청북도 유형 제281호
14	불설법화삼매경	조선전기	시지정유형문화재 제10호	'12.12.31.	부강면 시목부강로 685-22	구. 충청북도 유형 제282호
15	불설대승조상공덕경 권하	조선	시지정유형문화재 제11호	'12.12.31.	부강면 시목부강로 685-22	구. 충청북도 유형 제283호
16	전의 비암사 영산회 괘불탱화	조선(1657)	시지정유형문화재 제12호	'12.12.31.	전의면 전의면 비암사길 137	구. 충청남도 유형 제182호
17	전의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조선(17C전반)	시지정유형문화재 제13호	'12.12.31.	전의면 전의면 비암사길 137	구. 충청남도 유형 제183호
18	전의 궁인(弓人)	보유자-주창응	시지정무형문화재 제1호	'12.12.31.	전의면 신방리 116-2	구. 충청남도 무형제43호
19	운주산성	삼국	시지정기념물 제1호	'12.12.31.	전동면 청송리 산90 외 4필지	구. 충청남도 기념물 제79호
20	김종서 장군 묘	조선	시지정기념물 제2호	'12.12.31.	장군면 대교리 산45 외 7필지	구. 충청남도 기념물 제16호
21	금남 백로 서식지	-	시지정기념물 제3호	'12.12.31.	금남면 감성리 산4	구. 충청남도 기념물 제71호
22	이성(李城)	고려	시지정기념물 제4호	'12.12.31.	전동면 송성리 산26	구. 충청남도 기념물 제77호

23	금이성(金伊城)	삼국	시지정기념물 제5호	' 12.12.31.	전동면 송성리 산86 외 2필지	구. 충청남도 기념물 제78호
24	연기향교	조선	시지정기념물 제6호	' 12.12.31.	연기면 교촌3길 13(연기리 34)	구. 충청남도 기념물 제123호
25	전의향교	조선	시지정기념물 제7호	' 12.12.31.	전의면 북촌1길 5-8(읍내리 149-1)	구. 충청남도 기념물 제124호
26	연기 세종리 은행나무	조선	시지정기념물 제8호	' 12.12.31.	연기면 세종리 88-5 외 7필지	구. 충청남도 기념물 제157호
27	부강 남성골산성	삼국	시지정기념물 제19호	' 12.12.31.	부강면 부강리 산24 외 29필지	구. 충청북도 기념물 제130호
28	전동 박안생 묘	조선	시지정기념물 제10호	' 12.12.31.	전동면 송성리 산4	구. 충청남도 기념물 제181호
29	금남 문절사	조선	시지정문화재자료 제1호	' 12.12.31.	금남면 문절사길 55-7	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0호
30	연동 합호서원	조선	시지정문화재자료 제2호	' 12.12.31.	연동면 원합강 1길 262-6	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1호
31	소정 대곡리 삼층석탑	통신	시지정문화재자료 제3호	' 12.12.31.	소정면 대곡리 559-1	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2호
32	연동 송응리 마애여래입상	고려	시지정문화재자료 제4호	' 12.12.31.	연동면 송응리 99-3	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3호
33	조치원 봉산영당	조선	시지정문화재자료 제5호	' 12.12.31.	조치원읍 봉산로 90-11	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7호
34	장군 덕천군사우	조선	시지정문화재자료 제6호	' 12.12.31.	장군면 태산길 93-6	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61호
35	금남 남산영당	조선	시지정문화재자료 제7호	' 12.12.31.	금남면 남산길 51-4	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72호
36	나성 독락정	조선	시지정문화재자료 제8호	' 12.12.31.	나성길 10-48 (나성동 101)	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64호
37	금남 모인당	조선	시지정문화재자료 제9호	' 12.12.31.	금남면 도암영곡길 89-25	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57호
38	부강 보만정 및 검담서원 묘정비	조선	시지정문화재자료 제10호	' 12.12.31.	부강면 금호리 금호선말길 15-18	구.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31호
39	장군 보광사 산신도	일제 (1944)	시지정문화재자료 제11호	' 12.12.31.	장군면 은용리 400-6	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97호

〈표 2〉 장군면의 문화유적 현황

구분	유적명	위치	시대	유적성격	비고
1	봉안리 청동기 유적	장군면 봉안리	초기 철기	유물산포지 (무덤)	지표조사
2	평기리 유물산포지	장군면 평기리	청동기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3	하봉리 유적	장군면 하봉리	청동기	유물산포지	발굴조사
4	도계리 유적	장군면 도계리	청동기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5	평기리 유적	장군면 평기리	원삼국-백제	생활유적	발굴조사
6	하봉리 고분군	장군면 하봉리	원삼국	고분	발굴조사
7	도계리 유적	장군면 도계리	원삼국	고분	시굴조사
8	봉안리 고분군	장군면 봉안리	백제	고분	지표조사
9	송문리 사지	장군면 송문리	백제	사지	지표조사
10	송정리 산성	장군면 송정리, 송문리	백제	성	지표조사
11	은용리 산성 ①	장군면 은용리	백제	성	지표조사
12	평기리 유물산포지	장군면 평기리	백제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13	송정리 유물산포지	장군면 송정리	백제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14	은용리 백제토기 고분 추정지	장군면 은용리	백제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15	김종서장군 묘소	장군면 대교리 산45번지 외	조선	묘소	시도기념물 제2호
16	장군 덕천군사우	장군면 태산리 101	조선	사우	문화재자료 제6호
17	총렬사	장군면 하봉리	조선		
18	문성영당 터	장군면 송문리 문성마을	조선		
19	진주류씨 삼효열 정려	장군면 하봉리 6-2	조선	정려	
20	충신 유지걸 정려	장군면 송학리 253-3	조선	정려	
21	충효 김종서·김승규 정려	장군면 대교리 산45	조선	정려	
22	효자 이면주 정려	장군면 용암리 154-1	근대	정려	
23	유충걸 묘와 신도비	장군면 대교리 독골	조선	묘소, 신도비	
24	덕천군 이후생신도비	장군면 태산리 산 17	조선	신도비	
25	유형신도비	장군면 하봉리 하산	근대	신도비	
26	이덕사 이태연 묘비	장군면 평기리 산 42-13	조선	묘비	
27	김태영·김수 묘소	장군면 대교리	조선		
28	충의공 유병연 묘역과 충의사	장군면 하봉리 하산	조선		
29	유담연 묘역	장군면 산학리 미학실	조선		
30	유신걸 묘	장군면 용암리 띠실	조선		
31	오도일, 오수원 묘소	장군면 용암리 용머리	조선	묘소	
32	금암리 요지①②③	장군면 금암리 사기점	조선	요지	3개소
33	산학리 사지	장군면 산학리 미학실	조선	사지	
34	하봉리 장고개 조선시대 건물지	장군면 하봉리 282-2	조선	건물지	
35	도계리 유적	장군면 도계리 273-15번지	조선	분묘	
36	평기리 유적	장군면 평기리 265-4	조선	분묘	
37	평기리 산성	장군면 평기리	미상	성	
38	은용리 산성 ②	장군면 은용리 3구	미상	성	
39	태산리 보호수 ①	장군면 태산리	미상	보호수	
40	태산리 보호수 ②	장군면 태산리	미상	보호수	
41	하봉리 보호수				

장군면의 문화유적 현황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장군면의 문화재 및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선사시대에서 조선·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유적들이 골고루 남아 있으며, 그 종류도 매장유적에서 지상유적까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또한 백제의 웅진도읍지인 공주지역에 인접한 지역이기에 그와 관련된 유적의 분포현황도 추정할 수 있어, 역사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일정 시대에 편중되지 않고 전 시대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통하여 역사의 각 시대별로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장군면의 선사시대 유적은 대부분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확인된다. 장군면에서는 아직까지 구석기시대 유적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군면과 인접한 지역인 공주 석장리에서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인 석장리 유적(사적 제334호)이 확인되고 있으며, 장군면 주변의 세종특별자치시 송담리, 종촌리, 진의리 등 여러 곳에서도 구석기시대로 편년되는 유물이 수습되어 있어 금강변 뿐만 아니라 금강의 지류로 장군면을 흐르는 대교천 주변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동기시대 유적이 형성되기 적합한 지형은 하천주변에 형성된 낮은 구릉지로, 장군면을 흐르는 대교천 주변의 넓게 발달된 구릉지에서도 역시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유적은 봉안리와 도계리, 평기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봉안리에서는 청동제 창과 대롱옥 및 세형동검 등이 출토되었으며, 도계리와 평기리에서도 무문토기편과 석기편들이 확인되어 이 지역이 청동기시대에도 인류와 생활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음이 확인된다. 이들 지역 뿐만 아니라 장군면 일대는 대규모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형성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많이 존재하는 관계로, 추후 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유적의 존재가 확인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개발로 인하여 원삼국시대로 편년되는 분묘와 취락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규모나 역사적인 의미로 미루어보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삼국시대의 유적은 그것이 삼국시대의 기반이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장군면 유적 중 대표적인 원삼국시대 유적으로는 하봉리의 토광묘 유적으로, 수십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어 우리나라의 원삼국시대 묘제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이 밖에 하봉리유적과 인접한 지역인 도계리 일원에서도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가 확인되었으며, 평

기리에서도 원삼국시대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삼국시대의 유적으로는 대부분 백제시대의 유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장군면 지역이 지리적으로 백제의 웅진도읍지인 공주지역과 연접한 곳에 해당하기에, 백제의 도읍지였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군면에서 확인되는 백제 유적은 유물산포지에서 생활유적, 매장유적 그리고 관방유적까지 다양하다. 특히 송문리 사지에서는 1974년 백제의 금동관음보살입상(국보 제247호)이 출토되었다. 입상은 부여 군수리 사지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며 백제의 말기 기법으로 제작되어 백제의 금속공예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그 밖에 매장 유적으로는 봉안리 지역에서 백제의 석실분 계통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유구는 훼손으로 인하여 거의 남아 있지 않았지만 백제시대 토기가 수습되어 백제고분군의 분포 정황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관방유적으로 송정리와 은용리에서 산성이 확인되는데, 공주가 백제의 도읍지였기에 도읍지에 대한 방어를 위한 성곽이 도읍지 주변으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군면의 문화유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선시대 유적이다.

대부분 유교관련 유적으로 사우와 영당, 신도비, 정려 등이 있으며, 정려는 조선시대 장군면의 활발한 사족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대교리에 위치한 조선 단종 때 정승을 지내던 김종서 장군의 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김종서 장군묘는 장군면 명칭의 유래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면의 명칭은 금암리의 주산이 봉우리가 장엄하여 장군의 기상이 있다 하여 '장군산'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과 의당면에 조선 세종 재위기에 6진을 개척한 김종서 장군의 출생지가 있고, 그의 묘가 장군면 대교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통합 대상인 의당면과 장기면 주민간의 화합을 지향하고자 명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종서 정려나 덕천군 사우 등 유교유적과 관련된 유적 등이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이 밖에 매장유적으로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분묘나 건물지, 사지 등이 있으며 현재 불사를 모시고 있는 영평사와 유형(柳珩)장군의 영정과 위패가 봉안된 충열사도 확인된다. 이렇듯 장군면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장군면 전체에 걸쳐 균형있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를 통하여 장군면 지역의 역사가 공주와 더불어 매우 유구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3〉 장군면 마을별 문화유적 현황

구분	리	개소	시대	문화재성격	비고
1	평기리	6	청동기(1)	유물산포지	
			원삼국~백제(2)	유물산포지, 생활유적	
			조선(2)	고분, 묘비	
			미상(1)	산성	
2	금암리	3	조선(3)	요지	
3	은용리	3	백제(2)	산성, 유물산포지	
			미상(1)	산성	
4	하봉리	8	청동기(1)	유물산포지	
			원삼국(1)	고분	
			조선(4)	건물지	
			근·현대(1)	사묘	
			미상(1)	보호수	
5	도계리	3	청동기(1)	유물산포지	
			원삼국(1)	고분	
			조선(1)	고분	
6	대교리	4	조선(4)	묘소, 정려	시지정기념물 제2호
7	봉안리	2	청동기(1)	유물출토지	
			백제(1)	고분	
8	산학리	2	조선(1)	사지	
9	송정리	2	백제(2)	산성, 유물산포지	
10	송문리	2	백제(1)	사지	
			조선(1)	터	
11	송학리	1	조선(1)	정려	
12	용암리	3	조선(3)	묘소, 정려	
13	태산리	4	조선(1)	사묘	시지정문화재자료 제6호
			미상(2)	보호수	

제2절 선사유적

1. 장군면 선사유적의 개관

선사시대는 역사시대와 대비되는 시대구분 용어로, 일반적으로 문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시기, 즉 구석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를 일컫는다. 이 시기는 당시 역사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시대이므로 남아있는 물질자료를 통하여 당시 시대상황을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즉 선사시대의 경우 지표조사나 시굴·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고고자료에 의존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추론하는 것이다.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연·지리적 환경에 순응·적응하고 때로는 극복하며 살아왔다. 이는 원초적인 생활을 하였던 선사시대에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장군면은 남북으로 세장한 형상으로 북서방향에서 남동방향으로 대교천이 장군면을 관통하여 금강으로 유입된다. 면의 중앙부는 이러한 대교천을 중심으로 주변에 낮은 구릉지대와 평야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는 형상이며, 장군면의 북쪽과 남쪽은 비교적 높은 산지지형이다. 면의 남쪽외곽은 금강과 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지리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금강 주변과 면의 중앙부 낮은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는 크게 구석기시대를 비롯하여 신석기, 청동기시대로 구분된다. 장군면의 선사시대 유적 역시 이와 같은 시대구분을 통하여 순서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 초기철기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유적도 함께 정리하였는데, 이는 장군면의 선사시대의 전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는 생물분류학에서 유인원과 구별해 사람으로 분류되는 고인류가 처음 등장한 때부터 1만 2천년 전 무렵 플라이스토세에 이르는 긴 시간대에 걸친 인류문화의 원초단계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돌을 때려 만든 뿔석기(타제석기)를

사용하던 시대라는 기술발전 단계상의 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한반도에서는 1930년대에 두만강가의 동관진에서 구석기로 보이는 유물이 발견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북한 지역에서 1962년 함경남도 웅기 굴포리 서포항 패총의 신석기 시대 아래에서 유물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남한 지역에서는 1964년 공주 석장리의 금강가의 단애에서 유물이 발견되며 시작되었다. 남한 지역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은 1970년대 말까지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1978년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며 연구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 충주댐 수몰지구와 주암댐 수몰지구에서 수양개 유적 등 여러 후기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면서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발견된 구석기 유적은 1000곳이 넘는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장군면 내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된 구석기 유적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의 남쪽 외곽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으며, 이 금강변에는 남한에서 최초로 조사된 석장리 유적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석장리 유적은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현재 사적 제 334호로 지정되어 있다. 석장리 유적은 1964년 미국인 앨버트 모어(Albert Mohr)와 그의 아내 샘플(L. L. Sample)이 금강가 석장리 옛 퇴적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펜석기를 찾아내면서 처음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후 1964년 11월 손보기 교수가 발굴조사를 시작하여 1974년까지 10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과 1992년, 2010년에 각각 조사가 이루어져 모두 1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석장리 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 전기·중기·후기의 다양한 문화층이 조사되었으며, 집터와 불뎀자리 등 주거시설과 찌개, 찌르개, 자르개, 주먹도끼 등 약 3000여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구석기시대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송담 2리 유물산포지, 종촌리 도림이마을 유물산포지, 진의리 유물산포지 등 12곳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수습되어 금강 본류만이 아닌 지류 일원에도 구석기 문화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된 유적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구역 내 I-2구역의 32지점, 4-1-D지점, 종촌 도림이 마을 유적에서 세석인석핵, 굽개, 찌르개, 격지 등의 유물이 수습된 바가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장군면 내에서 확인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거나 유물은 존재하

지 않지만 면의 남쪽으로 석장리 유적과 인접한 금강가와 금강의 지류인 대교천을 중심으로 구석기시대 유적이 조사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는 타제석기를 쓰던 구석기시대에 이어 마제석기(간석기)를 만들고 사용한 시대로, 기후도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시작되어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바와 같이 되었다.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 시작되고 정착생활과 더불어 토기가 새로 발명되어 용기로 사용하게 된다. 즉 세계 각지에서 구석기시대와 질적으로 다른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신석기 시대이다.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다양한 입지조건외 장소에서 발견되고 있다. 당시 사회는 기본적으로 수렵·채집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지역과 시간에 따른 생업경제 양식은 변화하는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듯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수혈주거지(움집)에서 살았으며, 신석기시대의 특징적인 유물인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였다.

장군면 내에서 아직까지 확인된 신석기 시대 유적이나 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장군면의 서쪽으로 인접한 장원리 유적과 신관동 관골유적에서 신석기시대 유물퇴적층과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서도 그간 신석기시대 유적이 조사된 사례가 없었으나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구제조사에 증가함에 따라 금남면 석삼리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된 바 있다. 즉 장군면의 신석기시대 모습은 이들 인접해 있는 주변 유적들을 검토하여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원리 유적은 장군면에서 천태산을 경계로 서쪽에 위치한다. 장원리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유물퇴적층이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와 같은 구체적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층은 북사면으로 동-서 길이가 1,125cm, 남-북 너비 650cm 정도의 범위로 노출되었다. 유물은 작은 강돌과 할석편들 사이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돌괘이, 갈돌, 공이, 숫돌 등의 석기류가 흩어진 상태로 노출되었다.

장군면에서 남서쪽으로 인접한 신관동 관골유적에서는 이른바 ‘대천리식 주거지’로 잘 알려진 ‘ㅁ’자 형태의 대형주거지가 1기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전체 규모는 장축 985cm, 단축 802cm, 깊이 74cm이며, 바깥쪽을 따라 구가 조성되

어 있다. 주거지의 내부 시설로는 출입구 시설, 주공, 토광형 노지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빗살무늬토기류와 더불어 석제 어망추가 4점 확인되었다.

이처럼 장군면의 주변으로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에서 보여지는 신석기시대 유적의 조사성과는 장군면 내에도 신석기시대 유적이 존재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된다.



〈그림 3〉 장군면의 선사유적 위치도

3)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는 농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무문토기와 마제석기가 널리 사용되며, 청동을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던 시기를 말한다. 그러나 이 시기는 단순히 청동이기만 새로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동이기와 더불어 주거지의 위치와 형태 변화, 고인돌·석관묘의 출현과 같은 묘제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 시기인 신석기시대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작은 대개 기원전 10세기까지 올려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조사되는 자료의 증가로 인하여 개시연대가 점차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의 종말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이래 세형동검과 원형점토대 토기의 등장과 더불어 초기철기시대가 시작한다는 설정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군면에서 조사된 선사시대 유적 가운데 청동기시대 유적이거나 유물산포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조사된 유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하봉리 유적이거나 평기리 유물산포지, 세종 도계리 273-15번지 내 유적에서 소량의 무문토기나 석기류가 확인되어 장군면 내 청동기시대 모습의 편린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장군면의 주변으로는 이지역의 청동기시대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수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특히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로 인하여 대규모 지역에 대하여 지표조사에서 발굴조사까지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 부지는 금강 중류역에 위치하는데, 미호천이 합수하면서 주변에 넓은 범람원이 발달되어 있는 지형적 특징을 보이며, 주변의 구릉지대에서 가락동유형에 해당하는 다수의 청동기시대 취락이 조사되었다. 또한 범람원에 해당하는 충적대지에서는 미사리유형의 주거지와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어 가락동유형과의 관계와 더불어 가락동 유형 취락의 발달과정을 파악하는데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암리 소골 유적과 당암리 막음골, 가소골 유적, 연기 합강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주거양식인 송국리식 주거지도 확인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청동기시대 전기를 중심으로 후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분묘유적으로는 연기 합강리와 당골에서 청

동기시대 석관묘가 조사되었으며, 연기 송원리에서는 지석묘가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장군면에는 유물산포지 외에 직접적으로 조사된 대규모 청동기시대 취락이나 분묘유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쪽으로 연결되는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에서 청동기시대 전 기간에 걸친 다양한 유적자료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장군면의 청동기시대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초기철기시대

한국고고학에서 초기철기시대는 대체로 기원전 300년 무렵부터 기원전 100년 경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연(燕)나라의 영향으로 주조철기가 보급되면서 철기문화가 시작되지만 아직은 철 소재와 철기의 대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이다.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철기가 등장하였으며,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의 초기 철기 문화가 기원전 4~3세기경으로 소급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초기철기시대의 상한은 기원전 4세기 이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초기철기시대에는 철기가 보급되기는 하였지만 한반도 안에서는 오히려 청동기의 제작 기술이 최고도에 도달하였으며 청동기시대에 사용되던 마제석기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후기 고조선과 위만조선에 걸쳐 있는 시기이다.

장군면에서 초기철기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로는 봉안리 청동기 유적이 있다. 봉안리 청동기 유적에서는 민묘를 이장하던 도중 청동제 과(창)와 대롱옥 및 세형동검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초기철기 시대 무덤의 대표적인 부장품이다. 이와 같은 유물이 확인된 유적으로는 예산 동서리, 대전 괴정동, 부여 연화리 유적 등이 있으며, 인근지역에는 공주 당암리 소골유적과 연서면 봉암리 지역 출토 청동기가 있다. 이러한 초기철기시대 매장유적은 완주 갈동과 신흥지구에서 대규모로 조사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각 지역마다 1~2기의 무덤만 독립되어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장군면 봉안리에서 출토된 청동유물과 옥은 봉안리에 초기철기시대 무덤의 존재를 추정 가능하게 하며, 이 지역에도 초기철기시대 사람들이 생활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2. 장군면의 선사유적

1) 봉안리 청동기 유적

봉안리 청동기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장군면 봉안리는 낮은 구릉이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으로 장군면을 서북에서 동남쪽으로 가로지르는 대교천 북안에 해당한다. 청동기가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지역은 남서쪽으로 흘러내리는 표고 30~65m 내외의 낮은 구릉지역인데, 세부적으로는 산능선이 서쪽으로 전개되면서 정상에 삼각형의 분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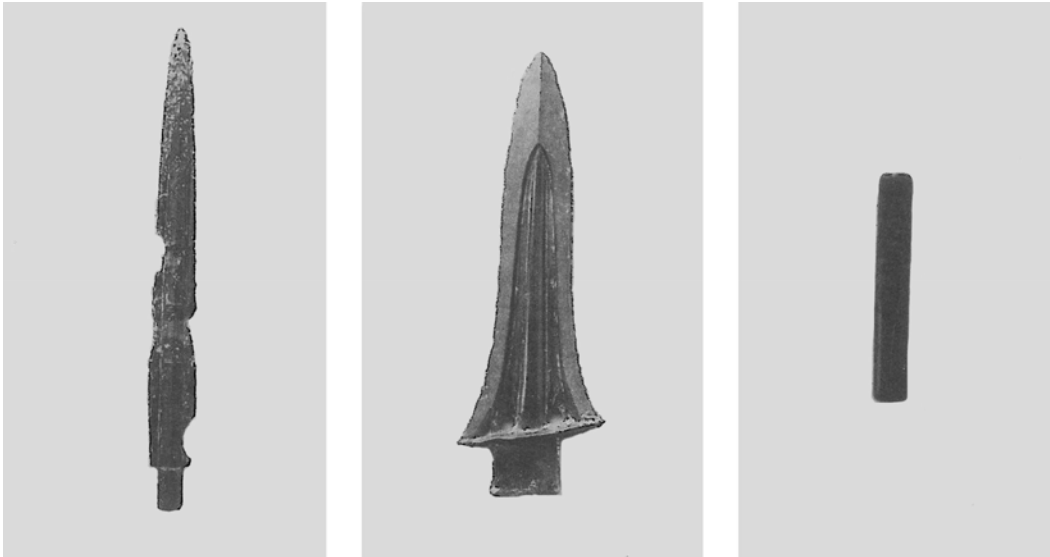
〈사진 1〉 봉안리 청동기 유적 전경

청동유물들은 구릉의 정상 가까이에서 민묘를 이장하던 도중에 발견되었으며, 유구는 초기철기시대 토광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확실하지는 않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유물은 청동제 과(창)와 대롱옥 및 세형동검이 있는데, 공주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들 유물은 세형동검과 함께 분류되어 있으나, 세형동검이 동과와 공반되어 출토된 것인지의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동과는 구체적으로 봉안리 청동기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로 전하고 있다.

동검은 등날이 검신 기부까지 이어지는 형식이며, 양쪽 날 부분은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다. 동과(창)는 거의 완형으로 좌우의 혈구가 봉부 가까이에서 합치면서 혈구가 있는 부위에는 등대를 연마하지 않은 형식이다. 같이 출토된 푸른색의 유리관옥은 부여의 함송리나 소소리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비교적 인접해 있

는 연서면 봉암리 지역 출토 동검·동과(창)도 봉암리와 거의 동일한 형식이나, 출토상황 및 출토지점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없다

현재 봉암리 청동기 유적으로 알려진 지역에서는 더 이상 관련된 유물의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다만 주변에서 원삼국기로 볼 수 있는 타날문 토기편이 간혹 수습되고 있다. 더불어 이 유적지의 동북쪽으로 연결되는 동일한 능선에는 봉암리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약 1km의 거리에는 하봉리 토광묘 유적이 위치한다. 이외의 구체적인 유적현황을 살필 수는 없으나,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으로 보아 봉암리 청동기 유적과 그 주변지역은 유적이 입지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2〉 봉암리 출토 유물

2) 평기리 유물산포지

장군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691번 국도를 타고 약 3km정도 가다보면 평기리 별터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국사봉(213.8m)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흘러내린 능선의 말단부가 마을의 북쪽과 동쪽을 감싸 안는 마안형 지형이며, 서쪽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대교천과 그 주위로 평기앞들이 펼쳐져 있다. 마을 주변에는 북동쪽으로 1.5km 거리에 기념물 제2호(2012.12.31)로 지정된 김종서 장군묘와

북서쪽으로 1.8km 정도 거리에 백제시대 산성인 송정리 산성이 위치한다. 그리고 남쪽으로 1km 내외의 거리에서는 유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 세종 도계리 273-15번지 내 유적이 조사되었다.

유물산포지가 확인된 곳은 벌터마을 배후의 낮은 구릉성 산지로 남쪽으로 흘러 내리는 능선의 표고 45~80m 범의에 해당한다. 현재는 능선 정상부에 개인주택과 석상들이 들어서 있고 근대 민묘가 조성되어 있어 일차적인 지형훼손이 진행된 상태이다. 유물은 근대 민묘가 개설되어 있는 남향사면의 능선 정상부와 절토되어 밭으로 개간된 지역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수습된 유물들은 미완성석기와 무문토기편, 백제시대 토기편 등이다.

미완성석기는 황회색조이며, 부분적으로 마연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무문토기는 저부편인데, 기 내·외면으로 탄착흔이 확인된다. 유물산포지 주변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선사유적은 존재하지 않지만 능선의 정상부와 일부 개간된 지역에 청동기시대와 백제시대 유물들이 다수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선사·역사시대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사진 3〉 평기리 유물산포지 전경 및 수습 유물

3) 하봉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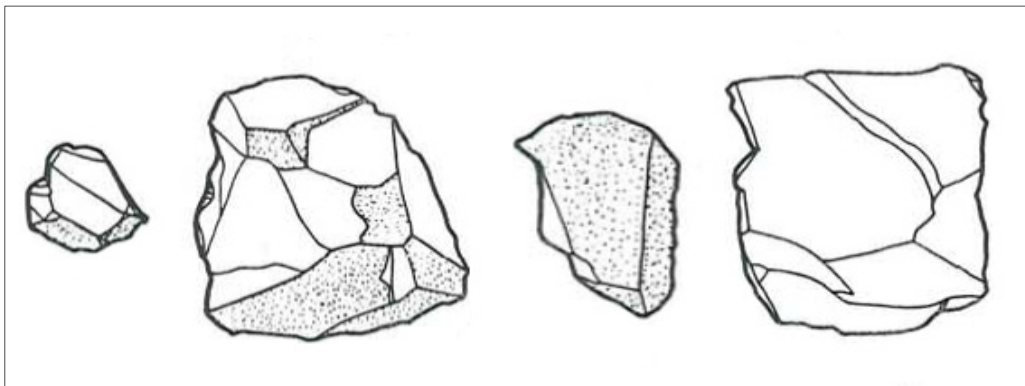
하봉리 유적은 표고 115.5m의 계란봉에서 동남쪽으로 뺀 활상 능선의 말단부, 즉 저구릉의 능선상에 위치한다. 이 능선의 동쪽에는 대교천이 북서에서 남동으로 흐르며, 주변에는 원들, 수만들, 개미살들 등의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유적의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연결하여 세종 도계리 273-15번지 내 유적과 동쪽으로 인접하여 봉안리 청동기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교천을 중심으로 흘러내려오는 저평한 능선들에서 청동기시대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다.



〈사진 4〉 하봉리 유적 전경

하봉리 유적은 1994년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되어 알려진 유적으로 주구 토광묘가 주류를 이루며, 목곽묘와 옹관묘가 함께 분포하고 있는 분묘유적이다. 이 유적에서 구체적인 선사시대 유구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지표면에서 흑요석 1점과, 박편석기가 소량 확인되었다. 흑요석은 12호묘의 주구가 설치되지 않은 북서쪽 개구부에 대한 토층 탐색 트렌치의 최하단에서 출토되었다. 크기는 2.1cm이다. 박편석기는 3점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손도끼가 1점 있다. 석기의 크기는 각각 5.4cm, 4.9cm, 5.4cm로, 3점 모두 5cm 내외의 크기이다.



〈그림 4〉 하봉리 유적 출토 석기류

4) 도계리 유적

도계리 유적이 위치한 도계리 일원에는 해발고도 약 50m 내외의 저산성 구릉 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남부로는 중산천이 동서방향으로 흘러 동부에

서 대교천에 합류하며, 중부와 서부에는 중산천에 의하여 형성된 해발고도 30~40m 정도의 충적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의 지형은 표고 115.5m의 계란봉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낮은 구릉의 북쪽 사면부에 해당하며, ‘공주 하봉리 유적’ 과 연접한 북쪽 사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지니고 있으나, 하단 일부는 급격한 경사를 보이기도 한다.



〈사진 5〉 도계리 273-15번지 내 유적 전경 및 수습유물

현재 유적은 시굴조사만 진행된 상태인데, 트렌치 중상단부의 표토를 제거하는 과정 중 풍화암반상에서 청동기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합인석부 1점이 노출되었다. 유물 주변으로 유구의 윤곽선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물이 노출된 지점 일대가 표토와 기반토의 간격이 10cm 내외인 점으로 보아 지형 훼손에 의해 유구가 결실되었거나, 정상부 일대에 존재했던 청동기시대 유구가 훼손되면서 유물이 경사하부로 흘러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3. 장군면 선사유적의 특징

장군면은 남북으로 세장한 형태로, 북쪽과 남쪽은 비교적 높은 산이 많은 지형이다. 그리고 면의 북서방향에서 남동방향으로는 대교천이 관통하여 금강으로 유입되는데, 이러한 대교천을 중심으로 주변에 낮은 구릉지대와 평야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다. 금강유역의 저평한 구릉지대와 대교천을 중심으로 하는 장군면의

중앙부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선사시대부터 생활터전으로서 매우 양호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군면에서 확인된 선사유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장군면이 선사시대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도시들 사이의 완충지대로 주변지역보다 개발이 덜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변지역에서 확인되는 구석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 선사유적의 현황과 장군면에서 조사된 선사유적들은 이 지역의 선사시대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장군면에서 조사된 선사유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장군면의 선사유적 현황

구분	유적명	위치	시대	유적성격	비고
1	봉안리 청동기 유적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초기 철기	유물산포지 (무덤)	지표조사
2	평거리 유물산포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평거리	청동기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3	하봉리 유적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청동기	유물산포지	발굴조사
4	도계리 유적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도계리	청동기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장군면에서 선사유적은 4곳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가 3곳, 초기철기시대 유물산포지가 1곳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현황으로만 보면 장군면의 선사시대 유적은 청동기시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보다 이른시기의 유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군면의 남쪽 외곽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으며, 이 금강변에는 구석기시대 전기·중기·후기의 다양한 문화층이 확인된 석장리 유적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장군면에서 천태산을 경계로 서쪽에는 신석기시대 유물퇴적층이 확인된 장원리 유적이 있으며, 남서쪽으로 인접한 신관동 관골유적에서는 이른바 ‘대천리식 주거지’로 알려진 대형의 신석기시대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더하여 장군면의 동쪽으로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로 인하여 대규모 지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과거 연기군 송담리, 장재리 등 약 30개 유적에서 300기를 상회하는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장군면 내에서는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에 이르는 유적이거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취락유적이 조사되지도 않았지만 주변의 공주 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에서 보이는 유적의 조사 성과는 장군면 내에도 이와 같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유물산포지의 입지상 특징으로는 장군면 중앙부의 대교천을 중심으로 하는 낮은 구릉지대에 입지하는 분포 특징을 보인다. 이 지역은 대교천과 그 지류들 사이로 넓은 충적지대가 펼쳐져 있으며, 저평한 구릉지대가 밀집되어 있어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유적이 위치하기 적합한 장소이다. 유물산포지가 확인된 곳은 지형상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구릉에 위치하며, 대부분 남향사면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군면에서 확인된 선사유적은 모두 유물산포지라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발굴조사나 시굴조사 등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선사유적도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유물만 수습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사의 부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지형조건상 유적이 보존되기 위한 환경으로 그다지 양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3절 백제시대 유적

1. 장군면 백제시대 유적의 개요

장군면에서 확인되는 백제시대 유적은 생활유적, 관방유적, 분묘유적, 사찰유적 등 그 수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성격의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장군면이 백제가 국가단계에 진입하기 이전, 즉 원삼국시대부터 지방세력이 존재하고 있음과 더불어 백제가 475년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백제 웅진기 도읍의 외곽으로써 위치하고 있다는 지형적인 여건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림 5〉 장군면의 백제시대 유적 위치도

장군면에서 조사된 백제시대 유적은 10곳으로 산성 2곳, 사지 1곳, 생활유적 1곳, 고분 3곳, 유물산포지 3곳이 확인되었다. 이중 생활유적은 원삼국시대~한성도읍기, 고분은 원삼국시대와 웅진도읍기에, 산성과 사지는 웅진도읍기~사비도읍기로 편년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장군면에서 확인된 문화유적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만 장군면에서 확인된 유적의 수가 비교적 소량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검토하면서 주변의 유적도 함께 검토하여 그 존재 현황에 대하여 추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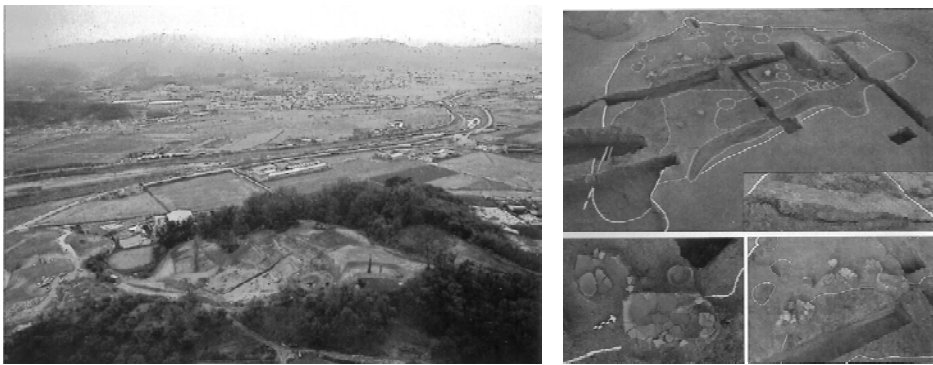
2. 장군면의 백제시대 유적

1) 평기리 유적

평기리 유적은 행정구역상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평기리 265-4번지 일원으로, 장군면의 북쪽에 위치한 국사봉(213.8m)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는 주능선이 대교천과 만나는 부근에서 남서쪽으로 분지한 구릉의 정상부 및 서사면과 이 구릉에서 남서쪽으로 다시 분지한 구릉의 동사면에 해당한다.

유적의 서쪽과 남쪽으로는 대교천과 그 주변의 충적지가 펼쳐져 있으며, 동쪽과 북쪽에는 나지막한 구릉이 이어진다. 특히 조사지역 남서쪽은 대교천이 크게 곡류하면서 퇴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해당하여 ‘평기앞들’이라는 넓은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조사결과 원삼국~백제시대 주거지 10기, 굴립주 건물지 3기, 구상유구 7기, 수혈 12기, 성토면 1면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조사지역 능선의 서사면 중하단부에서 8기, 서쪽의 분지한 능선의 남사면에서 2기가 확인되었는데, 곡부를 중심으로 말굽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형상이다. 평면형태는 원형·방형·말각방형이 확인되며, 내부시설은 주공과 외줄구들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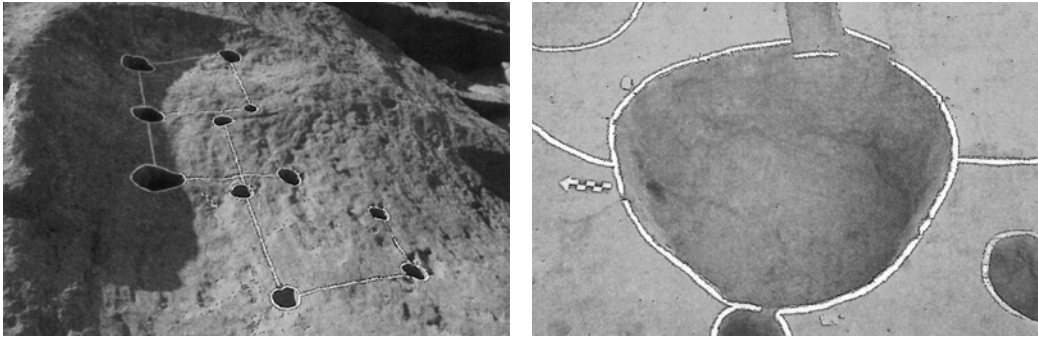


〈사진 6〉 평기리 유적 전경 및 주거지 조사 후 전경

굴립주 건물지는 서사면 중하단부에서 2기, 하단부에서 1기가 확인되었는데, 주공 외에 다른 시설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상유구는 모두 7기로 모두 등고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기도 한다.

수혈은 총 12기가 조사되었는데, 평면은 주로 원형이나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 주로 구릉 정상부의 북쪽에 위치한 곡부의 상단부 양안에서 조사되었다.

원삼국-백제시대 유구에서 확인된 유물은 주거지의 경우 3호 주거지를 제외하고, 편으로만 확인되었다. 구상유구에서는 소량이지만 격자문이 시문된 적갈색 연질호, 경부에 거치문이 시문된 대형옹, 파수, 발 등이 확인되었다.



〈사진 7〉 굴립주 건물지 및 수혈 조사 후 전경

2) 하봉리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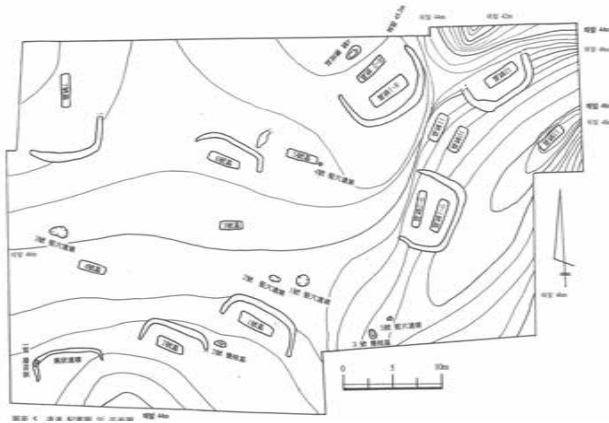
하봉리 고분군은 원삼국기의 토광묘 유적이다. 이는 장군면 하봉리 산 4~49번지 일대에 분포된 것으로 1993년 국립공주 박물관에 의해 조사를 시작하여 1994년까지 계속 진행한 결과 수십기의 토광묘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부장유물도 수습하였다.

유적은 하봉리의 구릉상 낮은 야산에 위치한다. 이곳은 동서로 길게 드리워진 지형으로 토광묘는 구릉상에 등고선과 평행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고분의 내용 중에 1993년에 조사된 무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매장부는 등고선과 평행으로 조성되었는데, 묘광의 크기는 너비 1m 내외에 길



〈사진 8〉 하봉리 고분군 전경



〈그림 6〉 하봉리 고분군 유구배치도

이는 4m 정도이다. 목관묘를 사용하여 바닥에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목관은 너비 58~52cm에 길이는 256cm이고, 깊이는 약 30cm 정도로 남아 있었다. 유물은 이미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토기 5점만이 수습되었다. 이외에 묘광의 경사 윗부분에는 매장부와 1.2m의 간격을 두고 너비 50cm 내외의

규모로 “ㄷ” 형태의 주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후 1994년 정식으로 발굴 조사한 결과, 주구토광묘 8기·토광묘 5기·옹관묘 4기·구상 유구 1기·수혈 유구 5기가 확인되었다. 무덤의 양식은 1993년에 조사된 것과 같다.

유물은 모두 무덤에서 확인된 것으로 토기류와 철기류가 있으며, 옥류도 소량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원저단경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형의 옹형 토기도 출토되었다. 토기의 출토 양상에서 심발형 토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은 인근 천안·아산·청주 일원의 주구토광묘에서 원저단경호와 심발형 토기가 세트를 이루어 출토되는 점과 비교되어 주목된다. 철기류는 환두대도·철모·철검·철부·철준·철착·철도자·철촉 등이 있으나 그 수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봉리 유적은 3세기 중·후반대에 조성된 유적이다. 이와 같이 주구가 딸린 무덤들은 최근에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의 원삼국시대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하봉리 유적은 천안 청당동 유적·아산 갈산리 유적·청주 송절동 유적 등과 더불어 중부 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상 복원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와 연결 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백제가 웅진에 도읍하기 전 공주지역 재지세력들의 모습을 도출해내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9〉 하봉리 고분군 근경 및 고분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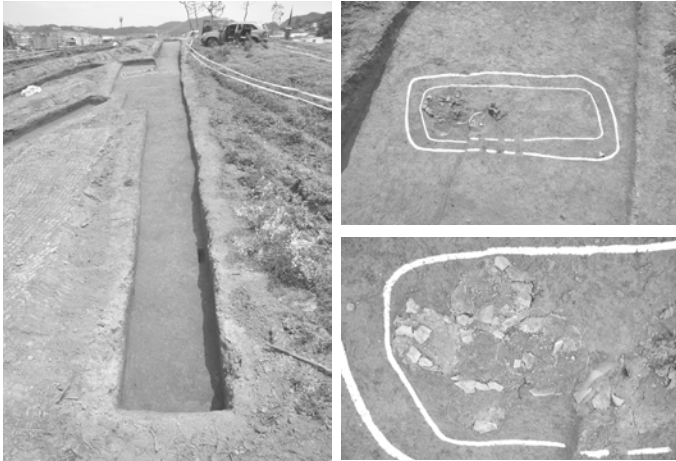
3) 도계리 유적

조사지역의 지형은 동서방향으로 이어지는 구릉지의 북쪽 사면부에 해당하며, 전술한 ‘하봉리 유적’과 연결한 북쪽 사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완만한 경사를 지니고 있는데, 서쪽에 형성된 소곡부를 중심으로 사면방향이 세부적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사진 10〉 도계리 273-15번지 내 유적 전경

구릉 정상부와 인접한 사면 상단부에 해당하는 1~4번 트렌치 상위부에서는 원삼국시대 주구 1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다. 표토와 풍화암반의 간격이 얼마되지 않고 기반토상에 굴지흔적이 다수 확인되는 등 지형훼손이 심한 결과로 유구의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었다. 하지만 완형에 가까운 유물들이 잔존하고 있어 고고학적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 중위부서는 풍화암반 위로 적갈색 점질토로 이루어진 자연퇴적토가 확인되며, 이 층에서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는 1번, 7번, 9번 트렌치의 중하위에 해당하며, 원삼국시대 목관묘, 주구, 수혈유구와 조선시대 토광묘 등이 확인되었다. 유구조성층에 해당하는 적갈색 점질토층 상면을 관찰한 결과, 정상부 일대와 달리 훼손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확인된 유구의 잔존 구조도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비록 유구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합인석부 및 원저단경호가 기반토상에서 확인되었다. 전자는 정상부 일대



〈사진 11〉 조사 트렌치 및 고분 노출 세부

에 존재했던 유구가 훼손되면서 유물이 흘러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며, 후자는 유물이 놓인 위치에 목관묘나 주구가 존재했지만 후대 유실되어 유물만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계리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주구토광묘로 대표되는 원삼국시대 분묘 유적에 해당하며, 이러한

유구는 조사지역과 인접해 있는 하봉리 유적과 함께, 금강 본류와 인접한 송담리, 석삼리 대박골 유적, 미호천의 지류와 인접한 응암리, 용호리 유적 등에서 발굴 조사 되었다. 현재 조사 및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내에서도 분묘유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하면, 향후 원삼국시대 이지역의 위상과 문화상을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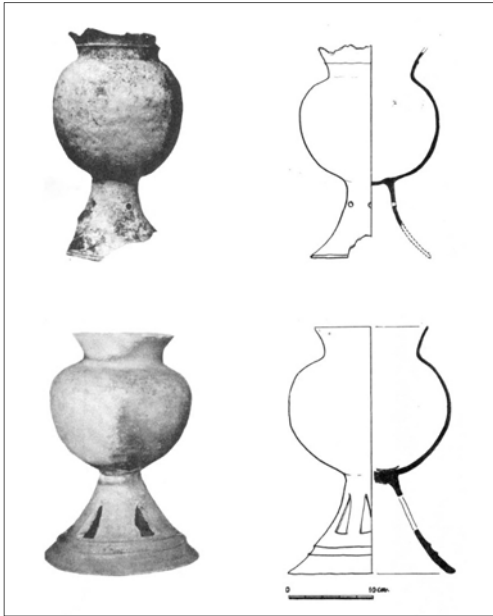
4) 봉안리 고분군

봉안리 고분군은 비교적 일찍부터 알려진 백제의 석실분계통의 고분으로 장군면 봉안리 강산소 동쪽 산의 남동사면 중하단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전한다.

고분에 대한 조사는 1979년에 이루어졌는데, 고분군에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구는 없다. 다만, 지표면에 고분 석



〈사진 12〉 봉안리 고분군 전경



〈사진 13〉 지표수습 토기

재로 추정할 수 있는 석재가 일부 노출되어 있는 것과 지역 주민들의 전언을 기초로 석실분 형태의 고분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수습조사 과정에서 토기만 확인되었는데, 완형 한점과 파손이 심한 대부호(臺附壺) 한점이 주목된다. 파손된 것은 흑회색의 연질토기로 구형의 몸통에 원추형의 굽다리가 부착되어 있는데 굽다리에는 네 개의 작은 원형의 구멍이 일렬로 뚫려 있다. 호의 몸통에는 무늬가 없으며 아가리는 목에서 바라지고 한 가닥의 돌대(突帶)가 돌려져 있다. 입지름 11.2cm, 몸통 지름 16cm, 높이 25cm, 굽다리 높이는 8.5cm의 크기이다.

완형은 흑회색 경질로 어깨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부분에 원추형의 굽다리가 부착되어 있다. 굽 높이에 비하여 굽바닥의 지름이 넓고 하단부에 두 가닥의 돌대를 돌린 뒤 그 위에 삼각형 구멍을 일렬로 다섯 개 뚫었다. 목이 없이 바로 아가리가 바라져 있다. 입 지름 12.9cm, 몸통 지름 19.4cm, 높이 29cm, 굽다리 높이는 11.5cm, 바닥 지름은 19.5cm의 크기이다.

현재 봉안리 고분군의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고분이 분포된 지역에 상당한 잡목이 우거져 있고, 과거 노출되었던 고분도 완전 유실 혹은 매몰되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봉안리 고분군에서 수습된 토기는 백제 토기 중에서도 특이한 양식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분군의 존재는 백제시대 웅진 도읍의 고분 분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5) 송문리 사지

사지는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토끼자리라는 곳에 위치하며, 1974년 백제시대의 금동관음보살입상이 출토되었던 지역이다. 북쪽으로 야산이 중첩되어 전개되고 남쪽으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 지역인데 전면에 대교천이 흐르고 있다.



〈사진 14〉 송문리 사지 전경

에서는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기와편과 벽돌편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되었으며, 발주인의 말에 의하면 경작 때마다 주춧돌(건축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여기서 확인된 불상이 국보 제 247호(1989.04.10)인 공주의당금동보살입상이다. 공주의당금동보살입상은 전체가 하나로 구조되어 있는데, 연꽃모양의 대좌 위에 무릎을 살짝 굽힌 자세로 서 있다. 불신(佛身)의 균형은 비교적 안정감이 있으나 세장한 편으로, 머리에는 삼면보관(三面寶冠)을 쓰고 있다. 장방형에 가까운 얼굴엔 눈·코·입 등이 큼직하여 시원스럽고 입가에는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있어 전체적으로 평온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다. 양 손에는 팔찌를 끼고 있는데, 오른손은 가슴부분까지 들어 연꽃봉오리를 잡고 있으며, 아래로 내린 왼손에는 보병(寶瓶)을 쥐고 있다. 보살이 서 있는 대좌는 원형으로, 표면에는 8장의 연

1974년 겨울, 전승원씨는 인부들과 함께 송문리 토끼자리와 상바지 일대에 소재한 자신의 임야를 초지로 쓰기 위하여 개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가시덤불과 돌무지를 정리하던 당시 21살 김연식씨가 곡괭이로 땅을 파다 우연히 흙속에 묻혀있는 불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불상이 출토된 지역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 이 밭



〈사진 15〉 송문리 수습 불상

꽃무늬를 새겨 놓았다.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백제의 불상은 대부분 6세기 이후의 것들이다. 백제의 불교수용 초기의 불상들은 당시 중국 남·북조인 남제(南齊)와 양(梁), 그리고 북위와 동위 불상의 영향을 두루 받고 있다. 불교 전성기라 할 수 있는 7세기 대의 불상들은 북제(北齊)와 북주(北周)대를 거쳐 통일왕조인 수·당의 불상의 영향을 받아서 독자적인 불상양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공주의당금동보살입상과 더불어 규암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 그리고 선산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백제의 금동보살입상들은 백제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데,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호류지의 백제관음상으로 명맥이 이어진다.

6) 송정리 산성

송문리(산성이름은 산성 발굴 조사시 송정리와 송문리 분리 전으로 송정리로 기록되어있음)의 서쪽에 솟아있는 해발 195.2m “성재” 위에 위치한다. 지형은 성재를 중심으로한 능선 선상부가 북동쪽에서 남서쪽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다. 성은 길쭉하게 뻗어있는 봉우리들 가운데 가장



〈사진 16〉 송정리 산성 전경

높은 봉우리를 둘러싼 둘레 약 500m의 석축산성으로 성선은 정상부의 어깨선과 남서쪽의 계곡부 상단을 포함한 삼태기식을 이룬다.

성벽은 굴곡된 지형을 따라 북쪽과 남쪽이 크게 돌출되거나 서쪽과 남서쪽이 구부러져 있어, 평면형태는 불규칙한 이형을 이룬다. 성벽은 협축식(夾築式)으로 축성하였다. 협축으로 축성된 성벽 대부분은 모두 붕괴되어 현재는 경사면에 편축하였던 흔적만이 남아있으며, 북벽과 남벽 일부에서만 협축된 흔적이 확인된다. 북벽은 외벽 8m, 내벽 2m, 폭 4~5m정도 계측되며, 성내로는 약 10m 내외의 평탄면이 성벽과 접하여 형성되어 있다. 성벽과 접해있는 성내 평탄면은 성벽 전체

에 걸쳐에 편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남벽은 내벽 0.5~1.5m, 폭 5m 정도의 성벽이 잔존해 있으며, 남벽의 계곡부 안쪽에는 길이 20m, 너비 약 10m 정도의 축대가 있어 얼마 전까지도 건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곡부를 가로지르는 남벽 한가운데에는 성내의 유수를 모으는 집수지(集水池) 및 배수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성벽이 심하게 붕괴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성내에는 계곡부 안쪽의 평탄지와 함께 능선 정상부를 따라 건물지로 추정할 수 있는 대지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유물은 기와편 및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기와편은 선조문이 타날되거나 혹은 타날된 이후 표면을 문질러 문양을 지우고 측면을 깔끔하게 정면한 백제 기와편이 대부분이며, 토기는 개배편 등의 백제 토기편이 성외부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성에서부터 북동방향으로 약 100여m 떨어진 능선의 선상부에서도 기와편 및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유물은 성내에서 수습되는 유물과 같은 것으로서, 이를 통해 산성 내부만이 아닌 성내외 주변의 능선 선상부에도 관련 시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수습유물을 고려할 때 성은 백제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7〉 송정리 산성 성벽모습

7) 은용리 산성 ①

은용리 산성 ①은 장군면 은용리 마을의 북쪽에 있는 성재산 정상부에 토축으로 축조되어 있다.

성벽의 대부분은 이미 완전히 붕괴되어 성벽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서벽과 남벽의 극히 일부만이 토루(土壘)의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길이는 50m



〈사진 18〉 은용리 산성① 전경

정도이다. 현 상태에서 보아 성벽의 높이는 원래 3m이상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의 대부분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어 성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민묘가 조성되고 고압선이 통과되면서 성내의 지형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성내 곳곳에는 평탄면이 많아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성내부에서는 많은 양의 유물이 산포되어 있다.

현재 성의 내외를 연결하는 주 통행로인 서벽의 통행로 주변과 민묘 주변에서 특히 많은 양의 토기편과 와편 등이 수습되는데, 대부분 삼국시대 유물이며, 그 중에는 고배편과 같은 특징적인 유물도 있다.



〈사진 19〉 은용리 산성 성벽 모습

8) 평기리 유물산포지

평기리 유물산포지는 국사봉(213.8m)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흘러내린 능선 말단부에 해당하며, 세부적인 지형은 벌터마을 배후의 표고 65m 내외의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구릉성 산지이다. 유물산포지의 서쪽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대교천과 그 주위로 평기앞들이 펼쳐져 있다.

현재 유물이 산포되어 있는 능선의 정상부에 개인주택과 석상들이 들어서 있고 근대 민묘가 조성되어 있어 일차적인 지형훼손이 일어난 상태이다. 유물은 근대 민묘가 개설되어 있는 남향사면의 능선 정상부와 절토되어 밭으로 개간된 지역에서 다수 확인되었는데, 수습된 유물들은 미완성석기와 무문토기편, 백제시대 토기편 등이다.

백제시대 토기편은 대부분 회청색조를 띠며, 외면에 집선문과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대부분 수습된 유물은 동체편으로 그 기형을 알기 어려우며, 이형의 적갈색을 띠는 구연편도 1점 확인되었다. 유물산포지 주변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은 존재하지 않지만 능선의 정상부와 일부 개간된 지역에 청동기시대와 백제시대 유물들이 다수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선사·역사시대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근대 민묘와 개인주택, 석상들이 들어서면서 지형변경이 이루어져 유적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 20〉 평기리 유물산포지 전경 및 수습유물

9) 송정리 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는 송정리로 들어서는 국도 627번 지방도가 나온다. 이 도로를 타고 약 3.5km 정도 가다보면 우측에 표고 180m 지점에 있다.

송정리 백제 기와 산포지의 주변 자연지형을 살펴보면 차령산맥과 계룡산지 사이에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낮은 구릉성 산지로 금강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분지한 낮은 구릉지에 속하고 있다. 유물산포지는 표고 213.8m 국사봉(國師奉)에서 남서사면으로 뻗어 내려오는 작은 능선의 정상부에 해당되는 표고 180m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유물산포지가 위치한 곳은 1998년 문화유적조사 때 송정리 산성으로 확인된 곳이다. 그러나 현재 재조사결과 백제 기와 산포지에서 남서방향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표고 195.2m 능선 정상부 “성재” 위에 위치한다. 송정리 산성은 길쭉하게 뻗어있는 봉우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를 둘러싼 둘레 약 500m의 석축산성으로 성선은 정상부의 어깨선과 남서쪽의 계곡부 상단을 포함한 삼태기식을 이룬다.

수습되는 유물은 와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선조문을 시문하고 재연마에 의해 문양의 일부를 지운 전형적인 백제와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지표조사를 통하여 유적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이곳은 송정리 산성과 불과 180m 떨어진 지점으로 백제 기와가 출토되고 있어, 송정리 산성과 관련된 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21〉 송정리 유물산포지 전경 및 수습유물

10) 은용리 백제토기 고분 추정지

장군면 면소재지에서 대전 방향으로 국도 691번 도로를 타고 1km 정도 가다보면, 은용저수지로 가는 소도로가 나온다. 소도로를 타고 약 700m 정도 가면 은용저수지가 나오는데, 은용리 백제토기 산포지는 은용리 저수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m 정도 거리에 있다.

은용리 백제 토기 산포지의 주변지형은 차령산맥과 계룡산지 사이에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낮은 구릉성 산지로 금강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분지한 낮은 구릉지에 속하고 있다. 비교적 독립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표고 354.3m 장군산에서 북향사면으로 뻗어 내려오는 지류에 속해 있으며, 표고 100~120m의 구릉성 설상대지로 구성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토기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수습되는 유물은 잔편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확히 기종이나 시기를 가늠할 수 없지만, 회청색 경질 계통의 격자문이 시문된 토기편들인 것으로 보아 백제시대 토기편이 아닌가 한다.

은용리 백제토기 산포지는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은용리 산성과 약 30m 정도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산성과 관련된 시설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러나, 은용리 백제토기 산포지에서 산성과 관련된 시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곳의 지형이 남향사면과 설상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묘의 입지 조성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성과 관련된 시설 보다는 분묘와 관련된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추정된다.



〈사진 22〉 은용리 백제토기 고분 추정지 전경 및 수습유물

3. 장군면 백제시대 유적의 특징

장군면은 웅진기 도읍지역의 외곽이었다. 그리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에는 백제의 지방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도 웅진이 중심지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유적이 형성되었다.

장군면에서 조사된 백제시대 유적은 10곳으로 산성 2곳, 사지 1곳, 생활유적 1곳, 고분 3곳, 유물산포지 3곳이 확인되었다. 이중 생활유적은 원삼국시대~한성도읍기, 고분은 원삼국시대와 웅진도읍기에, 산성과 사지는 웅진도읍기~사비도읍기로 편년되고 있다. 장군면에서 확인된 유적들은 비록 그 수량은 많지 않으나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장군면에서 조사된 백제시대 유적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장군면의 백제시대 유적 현황

구분	유적명	위치	시대	유적성격	비고
1	평기리 유적	장군면 평기리	원삼국-백제	생활유적	발굴조사
2	하봉리 고분군	장군면 하봉리	원삼국	고분	발굴조사
3	도계리 유적	장군면 도계리	원삼국	고분	시굴조사
4	봉안리 고분군	장군면 봉안리	백제	고분	지표조사
5	송문리 사지	장군면 송문리	백제	사지	지표조사
6	송정리 산성	장군면 송정리, 송문리	백제	성	지표조사
7	은용리 산성 ①	장군면 은용리	백제	성	지표조사
8	평기리 유물산포지	장군면 평기리	백제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9	송정리 유물산포지	장군면 송정리	백제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10	은용리 백제토기 고분 추정지	장군면 은용리	백제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군면에서 확인된 문화유적은 소량이지만 하나 주변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들과 더불어 살펴보면 그 존재 특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원삼국시대 장군면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으로는 평기리 유적과 하봉리 고분군, 도계리 유적이 있다. 평기리 유적은 원삼국시대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수혈 주거지와 굴립주 건물지, 구상유구, 수혈 등 다양한 유구가 조사된 생활유적이다. 그리고 하봉리 고분군과 도계리 유적은 연결해 있는 유적으로 모두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가 조사되었다. 특히 하봉리 고분군의 서쪽으로 정안천변의 공주 장원리 고분과 동쪽으로 금강 주위의 과거 연기 송원리, 송담리 유적이

위치하는데, 이들은 그 위치와 규모로 보아 각각 지역 취락 단위의 중심고분군 중 하나로 생각된다.

한성도읍기 장군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적ms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있다. 다만 장군면의 북서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공주시 의당면의 수촌리 유적은 백제 한성도읍기 대표적인 고분군으로 중국제 자기와 더불어 금동관모, 금동신발, 금동제 귀걸이, 목걸이 등 다양한 위세품이 출토되어 백제 한성기 지방에 존재하는 최상위급 유력자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또한 남동쪽으로 위치하는 나성리 유적에서는 원삼국~백제시대 해당하는 약 200여기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특히 한성도읍기 백제 토광묘에서 금동신발과 더불어 금동과대, 금동제 화살통 등의 위세품이 출토되어 이 역시 백제 한성기 지방 유력자의 존재가 추정된다. 장군면은 이 두 지방세력 사이의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들 세력과 관련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과 더불어 두 지방세력 사이의 완충지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웅진·사비도읍기의 장군면은 백제의 웅진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장군면에서 확인되는 웅진·사비도읍기의 유적으로는 봉안리고분군, 송문리 사지, 송정리 산성, 은용리 산성①이 있다. 봉안리 고분군은 웅진·사비기 백제의 전형적인 고분인 석실분으로 전해지는 고분이다. 송문리 사지가 위치한 송문리 토끼자리는 1974년 백제관음보살입상이 출토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경작때 마다 주춧돌이 많이 나왔다 하여 사지로 비정된 곳이다. 여기서 출토된 불상은 7세기대의 불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 국보 제247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제시대 당시 사찰은 민중보다는 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왕권불교로 대부분의 사찰은 도읍지와 그 주변으로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장군면에 백제시대 사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 지역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장군면에 위치한 산성은 송정리 산성과 은용리 산성① 외에도 평기리 산성과 은용리 산성②가 위치한다. 하지만 지표조사 당시 성 내에서 직접적인 유물이 확인된 것만 우선 백제시대 산성으로 분류하였다. 웅진도읍기에는 왕성인 웅진성 즉 공산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 분지형 지세와 소형의 산성을 웅진으로 통하는 중요 교통로상에 환상으로 배치해 이원적인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웅진도읍기 방어망을 구축하는 기본골격으로 연구되고 있다. 장군면에서 확인된 송정리 산성과 은용리 산성①은 공산성의 북동쪽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산성들이다. 즉 장군면에서 확인된 백제시대 산성은 백제 웅진도읍과 그 주변의 방어성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장군면에는 평기리 유물산포지, 송정리 유물산포지, 은용리 백제 토기고분 추정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지표면에서 확인된 유물을 가지고 유적의 존재를 추론한 것으로, 이와 같은 유물산포지들은 장군면에서 앞으로 백제시대 문화유적이 계속 조사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즉 장군면에서 확인된 백제시대 유적들은 유적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활유적부터 분묘유적, 그리고 사찰유적과 더불어 관방유적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장군면이 이른 시기 백제의 지방에서 웅진·사비도읍기에 백제 웅진도성의 외곽으로 존재한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제4절 통일신라·고려 유적

1. 장군면 통일신라·고려시대 유적

백제가 660년 당나라 소정방이 이끄는 13만명의 군대와 김유신이 이끄는 5만의 신라군에 의하여 멸망하고, 이어 668년 고구려 역시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통일신라 시대가 시작 되었다. 통일신라는 삼국의 통일에 따라 지방통치 조직을 9주 5소경으로 개편·정비 하였는데 9주 중 하나인 웅천주를 공주에 두었다. 그리고 그 치소를 현 공산성에 설치하면서 충청도지역 일대의 지방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공주지역의 지방행정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고려시대에도 이어진다. 고려는 건국 이후 지방에 12개의 목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 하나인 공주목을 현 공주지역에 두어 덕은군·회덕군·부여군·연산군 4군과 시진현·진잠현·유성현·석성현·정산현·니산현·신평현·덕진현 등 8현을 관할하게 하였다. 공주는 1018년(현종 9년)에 군으로 강등되기도 하는데, 1341년(충혜왕 2년) 다시 목으로 승격한 뒤 조선시대에도 유지되어 충청도 4대 고을로서 차령산맥 이남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통일신라~고려시대에도 공주와 그 주변지역은 충청도지역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지속하였으나 약 730여년이라는 긴 시간적 범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문화유적은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그 일원은 통일신라시대 충청도의 치소였던 웅천주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공산성 내에서 확인되는 통일신라시대 일부 유적과 주변 사찰들을 제외하면 시가지 일원으로는 소수의 유적들만이 확인되고 있다. 더하여 고려시대 유적 역시 공주 시가지 외곽의 능선에서 조사된 일부 고분군을 제외하고 고려시대의 생활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유적은 극히 제한적이다.

장군면에서는 지금까지 통일신라~고려시대의 문화 유적이 조사된 바 없다. 그러나 인접하고 있는 공주지역이 본래 통일신라시대 웅천주의 치소, 고려시대 공주목의 소재지였으며, 장군면 내에서도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생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장군면 내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직접적으로 확인된 예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시기만의 특정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장군면의 통일신라~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문화유적의 모습은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공주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련된 유적을 검토함으로써 장군면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공주지역의 통일신라시대 유적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공산성이다. 공산성은 백제 멸망 이후 웅진도독부와 더불어 웅천주의 치소로서 중심지적 기능이 유지되었기에, 백제시대 유적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 유적도 다수 남아있다. 공산성에서 확인되는 통일신라시대 유적은 대부분 건물지인데 28칸 건물지, 12칸 건물지 등 대형 건물과 더불어 특이한 형태인 12각 건물지도 조사되었다. 또한 백제시대 지당 상면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수습되어 관련 유적의 존재가 추론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공산성 성안마을내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통일신라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 공주지역의 통일신라시대 유적중 주목되는 것은 사지가 많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공주시 주변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사찰관련 유적은 서혈사지, 남혈사지, 주미사지, 구룡사지, 금학동사지, 갑사 철당간, 반죽동 당간지주 등으로 다른 유적들에 비해 넓은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생활유적은 극히 소수만 확인되었는데, 신관동 유적 내에서 통일신라 주거지 1기가 조사된 바 있으며, 최근 2013년에 무령왕릉 주변의 보훈공원 부지에서 건물지가 1동 조사되었다. 생산시설로는 신관동 유적과 가교리 유적에서 각각 토기가마와 도기가마가 확인되었다. 고분유적은 화장묘와 석축묘가 확인되고 있는데, 정자산유적, 웅진동 고분군, 봉암리 유적, 수촌리 고분군 등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이르는 고분들이 조사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인한 대규모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그리고 다수의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사된 유적 중 통일신라~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은 비교적 소수이다. 장군면과 가장 인접하고 있는 통일신라시대 유적은 제천리 유적으로, 여기에서는 고려시대 주거지와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이외에 금강변의 대평동에서 통일신라시대 취락유적이 조사되었으며, 반곡동, 집현리, 석삼리 대박골에서는 고려시대 석곽묘가 조사된 바 있다.

이처럼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장군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나 문화유적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지만 장군면의 주변지역에서 확인되는 유적과 역사적 상황을 기초로 장군면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장군면

은 통일신라시대 웅천주, 그리고 고려시대 공주목의 외곽 혹은 주변지역으로 위치하며, 문화유산 역시 이와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가 잔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장군면과 그 주변지역의 국보 및 보물

장군면에서 확인되는 신라·고려시대 유적은 확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다만, 장군면이 속해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대부분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편년되는 불상들이다. 이 중 현재 국립공주박물관과 청주박물관에 이관되어 있는 것은 공주시와 청주시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원 출토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군면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는 백제부흥운동기의 대표되는 유물들로, 장군면이 속해 있는 지역이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백제의 중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백제유민들의 망국의 한과 백제 불상양식을 계승하려 한 유민들의 의지가 충실히 반영된 작품이며 유물에 기록된 명문을 통하여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문화재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보와 보물(통일신라시대)

번호	명칭	시대	지정사항	지정일	소재지	비고
1	계유명전씨 아미타불비상	통일신라	국보 제106호	'62.12.20	전의면 비암사길 137	현청주 박물관
2	서광암 계유명 삼존 천불비상	통일신라	국보 제108호	'62.12.20	조치원읍 서광암	현.공주 박물관
3	기축명 아미타불비상	통일신라	보물 제367호	'63.1.21	전의면 비암사길 137	현.청주 박물관
4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	통일신라	보물 제368호	'63.1.21	전의면 비암사길 137	현.청주 박물관
5	세종특별자치시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	통일신라	보물 제649호	'78.12.7	연서면 연화사길 28-1	12.12.27. 명칭변경
6	세종특별자치시 연화사 칠존불비상	통일신라	보물 제650호	'78.12.7	연서면 연화사길 28-1	12.12.27. 명칭변경

1) 서광암 계유명 삼존 천불비상 (瑞光庵 癸酉銘 三尊 千佛碑像)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서광암(瑞光庵)에서 발견된 작품으로, 비석 모양의 돌에 불상과 글을 새겨 놓은 것이다. 사각형의 돌 전체에 불상을 새겼는데, 앞면의 삼존불(三尊佛)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글이 새겨져 있고, 그 나머지 면에는 작은 불상을 가득 새겨 놓았다. 삼존불은 연꽃무늬가 새겨진 반원형의 기단 위에 조각되어 있는데, 4각형의 대좌(臺座)에 앉아 있는 중앙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양 옆에 협시보살이 서 있다. 본존불은 옷을 양 어깨에 걸쳐 입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체가 많이 닳아서 세부 모습을 알아볼 수 없다. 특징적인 것은 불상이 입고 있는 옷이 무릎 아래로 길게 흘러 내려와 대좌까지 덮고 있다는 점이다. 양 옆의 협시보살도 손상이 많아 세부 모습을 살피기는 어렵지만, 무릎 부분에서 옷자락이 X자형으로 교차되고 있어 삼국시대 보살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불상들의 머리 주위에는 연꽃무늬와 불꽃무늬가 조각된 머리광배가 다른 부분에 비해 파손이 덜 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삼존불상 외에도 사각형의 돌 전체에 일정한 크기의 작은 불상들이 규칙적으로 새겨져 있는데, 깨진 부분에 있었을 불상들까지 감안한다면 천불(千佛)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다. 이들 작은 불상들은 모두 머리광배를 지니고 있으며, 옷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있다.



〈사진 23〉 계유명삼존천불비상

이 작품은 삼존불 좌우에 새겨져 있는 글을 통해 볼 때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백제 유민들이 망국의 한과 선조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작품이란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기축명아미타불비상(己丑銘阿彌陀佛碑像)



〈사진 24〉 기축명아미타불비상

기축명아미타불비상(己丑銘阿彌陀佛碑像)은 비암사에 있었던 3점의 비상(碑像) 가운데 하나이다. 배(舟) 모양의 큰 돌에 조각을 하였는데, 앞면에만 조각이 있고 뒷면에는 4줄의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다.

앞면에는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여러 번 변하는 듯하여 마치 극락세계의 장면을 돌 위에 새긴 것과 같다. 맨 밑에는 연꽃을 둘러 석상 전체의 대석(臺石)으로 삼고 그 위에 난간과 계단을 놓았다. 그 위에는 물결 무늬로 연꽃을 표현했고, 난간 좌우에는 사자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했다. 연꽃 중앙에 큰 연꽃이 있고, 그 위에 본존인 아미타불이 앉아 있다. 좌우에는 서 있는 자세

의 여러 불상이 나열되어 있어 엄격한 좌우대칭 수법을 따르고 있다. 크게 새긴 본존불의 옷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있으며 오른손은 뚜렷하지 않으나 왼손은 가슴 아래에 들고 있다. 본존 좌우에는 보살상이 있고 그 사이에 열반의 경지에 이른 성자인 나한(羅漢)의 상반신만 표현하였다. 보살상 옆에는 사나운 귀신인 야차상(夜叉像)이 한손을 들어 천궁(天宮)을 받들고 있으며, 그 옆에는 수호신인 인왕상(仁王像)이 있다. 본존 위에는 반월 모양으로 5구의 작은 부처가 새겨졌고, 그 위에는 다시 7구의 작은 부처가 표현되어 있다. 이 불상들 사이에는 나뭇가지와 잎이 표현되었고, 구슬과 장신구가 새겨져 극락의 화려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뒷면에는 4행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기축년(己丑年-689년)이라는 명문으로 미루어 이 석상이 백제 멸망 직후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신라 신문왕 9년(689)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삼국시대 불상 요소와 새로 들어온 당나라 요소가 혼합된 통일신라 초기 불상양식의 좋은 예로 본존이 아미타불인 점으로 미루어 당시 신앙의 흐름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기축명 아미타불비상은 2010년 7월 9일 기축명 아미타여래제불 보살 석상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

전의면 비암사에서 발견된 이 삼존석상은 4각의 긴 돌 각 면에 불상과 글씨를 조각한 비상(碑像) 형태이다. 정면은 가장자리를 따라 테두리를 새기고, 그 안쪽을 한 단 낮게하여 아미타삼존상을 조각하였다. 커다란 연꽃 위의 사각형 대좌에 앉아 있는 본존불은 얼굴 부분이 가름한 모습이며, 신체는 건장하면서 안정된 자세를 이루고 있다. 부처가 설법할 때의 손모양을 하고 있는 손은 비교적 크게 표현되어 삼국시대 이래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어깨를 감싼 옷은 사각형의 대좌(臺座)를 거의 덮고 있으며, 대좌 밑의 좌우에는 사자상을 배치하였다. 동근 머리광배는 3줄의 동심원 안에 연꽃을 장식하고 있다.



〈사진 25〉 계유명전씨 아미타불비상

사자 등위의 연꽃무늬 대좌 위에서 서 있는 협시보살상은 본존불 쪽으로 몸을 약간 튼 자세로, 얼굴은 훼손이 심하여 알아볼 수 없으나 연꽃이 새겨진 동근 머리광배가 남아 있다. 본존불과 협시보살의 어깨 사이에는 나한상이 얼굴만 내밀고 있으며, 협시보살상의 양 옆에는 인왕상이 서 있다. 불상 위로는 불꽃무늬가 새겨진 광배가 이중으로 있으며, 안쪽의 광배에는 5구의 작은 부처가 새겨져 있다. 광배 밖의 좌우 공간은 한층 더 낮추어 비천상을 새겼다. 양 측면의 하단에는 정면을 향하고 있는 용머리를 조각하고, 그 위로는 연꽃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표현하였다. 뒷면은 4단으로 나누어 각 단마다 5구씩의 작은 부처가 앉아 있는 모습을 조각하였으며, 불상 사이사이에 사람의 이름과 관직을 새겨 넣었다.

조각이 정교하면서도 장엄하고, 세부 양식에 있어서도 옛 형식을 남기고 있는 점이 계유명삼존천불비상(국보 제108호)과 비슷하며, 만든 연대는 삼국통일 직후인 문무왕 13년(673)으로 추정된다. 이 미륵보살 반가사유비상은 2010년 7월 9일 미륵보살반가석상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4)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 (彌勒菩薩半跏思惟碑像)



〈사진 26〉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彌勒菩薩半跏思惟碑像)은 그 생김새가 탑비(塔碑)를 닮았다 하여 비상(碑像)이라 불리는데, 아래쪽의 대좌, 중앙의 사면석, 위쪽의 덮개돌이 모두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T자형을 이루고 있는 이 비상은 정면에 왼발을 내리고 오른발을 왼쪽 다리에 올린 반가상을 크게 새기고 있다. 오른손을 들어 뺨에 대고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가상은 머리에 화려한 관(冠)을 쓰고 있으며 목걸이와 구슬장식을 갖추고 있다. 양 측면에는 두손에 보주를 들고 정면을 향하고 있는 보살입상이 새겨져 있는데, 반가상을 본존으로 삼아서 3존 형식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뒷면에는 보탑(寶塔)을 크게 새겼는데 이 보탑으로 보아서

정면의 반가상이 미륵보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각형의 대좌에는 중앙에 둥근 화병을 놓고 그 좌우에 꿇어 앉은 공양상을 조각하였는데, 대좌의 양 측면에도 정면을 향해 꿇어 앉은 공양상을 표현하였다.

이 석상은 삼국시대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미륵신앙을 배경으로 크게 발달한 반가사유상 양식의 귀중한 유품이며, 만든 연대는 조각솜씨로 미루어 보아 충남 연기군 비암사에서 함께 발견된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국보 제106호)과 같은 673년으로 추정된다. 백제가 멸망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그 영역에서 조성된 이들 석상은 백제의 석조미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예이다.

5) 세종특별자치시 연화사 무인명불비상(世宗市 蓮花寺 戊寅銘佛碑像) 및 대좌(臺座)

세종특별자치시 연화사 무인명 불비상 및 대좌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의 연화사에 소장되어 있는 두 개의 비상(碑像:비석 모양의 돌에 불상을 조각하거나 또는 글을 적은 것) 중 하나로 1961년에 발견되었으며, 원래 위치는 연화사 부근의 생천사지(生千寺址)라고 한다. 4면의 돌에 각각 불상을 조각하고, 다른 돌로 대좌(臺座)를 만들어 놓은 형태이다. 앞면은 본존불인 아미타불과 좌우 양쪽으로 나한상·보살상이 2구씩 놓여진 5존불(五尊佛) 구도이다. 본존의 머리 부분에는 둥글게 연꽃이 새겨진 머리광배가 있고, 좌우로 구슬장식과 작은 부처가 새겨져 있다. 본존이 앉아 있는 대좌는 연못에서 솟은 연잎과 줄기로 표현되어 있다. 뒷면에는 본존불로 반가사유상이 표현되고, 좌우에 보살상이 꿇어 앉은 삼존불(三尊佛) 구도이다. 본존불은 사각형의 대좌 위에 앉아 있는데, 오른손을 우측 뺨에 대고 왼손은 오른쪽 발목에 얹고 있다. 좌우의 보살은 향로를 들고 꿇어 앉아 본존불을 공양하고 있는 자세이다. 좌우 측면을 보면 위쪽에는 불상이 있고 아래쪽에는 긴자 무늬를 난간처럼 만들어 놓았으며, 그 위에 불상을 조각한 연도 등을 적은 글을 새겼다. 글에 나타나 있는 무인(戊寅)년은 백제가 이미 멸망한 이후인 신라 문무왕 18년(678)이므로 그 때 만들어진 작품으로 보인다



〈사진 27〉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

6) 세종특별자치시 연화사 칠존불비상 (世宗市 蓮花寺 七尊佛碑像)



〈사진 28〉 연화사칠존불비상

세종특별자치시 연화사 칠존불비상(燕岐 蓮花寺 七尊佛碑像)은 (구)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서 발견된 일련의 비상(碑像:비석 모양의 돌에 불상을 조각하거나 또는 글을 적은 것)들과 같은 계열에 속하는 작품으로 반타원형의 곱돌로 만들었다. 연꽃무늬가 새겨진 마름모꼴의 돌 표면에 본존여래상을 중심으로 7존불(七尊佛)이 조각되어 있다.

상단에 옷주름이 새겨진 네모난 대좌 앞면에는 두툼한 연꽃 봉오리를 중심으로 좌우에서 연줄기가 피어 오르고 있고, 끝에는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 연줄기 위에 앉아 있는 본존불 좌우에는 협시보살이 서 있으며, 본존과 협시보살 사

이에는 상체만 내밀고 있는 나한상이, 밖으로는 인왕상이 사자 위에서 서 있는 모습이다. 본존불은 얼굴이 마멸되었지만 당당한 신체에 몸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게 양 어깨를 감싼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 이는 다른 비상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삼국시대의 조각전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존불과 좌우 협시보살은 각각 원형의 머리광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舟) 모양의 광배에 포함되어 있다. 광배에는 연꽃무늬와 불꽃무늬, 7구의 작은 부처가 새겨져 있다.

삼국시대 조각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부분적으로 새로운 요소가 가미된 이 석상은, 조각양식으로 보아 비암사와 연화사의 비상들과 동시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연대는 문무왕 18년(678)으로 추정된다. 특히 광배의 연꽃무늬나 협시보살의 가늘고 긴 신체 등에서 백제 양식을 엿볼 수 있어 백제 유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제5절 조선시대 유적

1. 장군면 조선시대 유적의 개요

장군면은 조선의 충신 절재 김종서(金宗瑞, 1383-1453)의 자취가 남아있는 고장이다. 그의 묘가 있는 장군산의 지명을 따 ‘장군면’이란 행정구역명을 정하였으므로 김종서는 장군면의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체 유적 중 장군면에 해당하는 지정문화재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도기념물 제2호로 지정된 김종서장군 묘소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자료 제6호로 덕천군사우 등 2곳이다. 2014년 2월 현재 유형장군호패가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지정 예고된 상태이다. 그 외에 사우와 정려·묘소·신도비 등 유교유적 뿐만 아니라 사찰이나, 요지가 존재한다, 수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유적들이 확인된다. 이는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사족들의 입향과 활발한 추송 활동 등이 잘 나타나 있음을 대변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교천을 따라 나타나는 요지와 건물지 등도 확인되고 있어 전통시대에 중요한 육로 및 수로 교통수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시대 유적편에서는 장군면에 해당하는 유적 중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사족들의 입향과 추송활동, 학문적 교류, 대교천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유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장군면의 조선시대 유적

1) 지정문화재

(1) 김종서장군 묘소 (金宗瑞將軍 墓所)

- 소재지 : 대교리 산45번지 외 7필지
- 연 대 : 1746년(영조 22)
- 지정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시도기념물 제2호



〈사진 29〉 김종서장군 묘소

김종서(1383-1453)의 묘는 장군면 소재지 국도를 따라 약 2.5km 정도 떨어진 대교리 밤실마을 산 45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그가 태어난 곳에서 불과 6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계유정난 이후 김종서에 대한 본격적인 신원작업은 김종서가 죽음을 당한지 227년만인 1680년(숙종 6) 무렵부터 시도되었으며 이후 영·정조에 이르면 김종서를 비롯한 황보인, 정분 등에 대한 선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1746년(영조 22) 드디어 김종서를 비롯한 삼상의 관작이 추복되면서 비로소 김종서의 묘비를 ‘조선좌의정절재김선생종서지묘(朝鮮左議政節齋金先生宗瑞之墓)’라고 새길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도 김종서의 묘소 앞에 비석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있었다면 당시 황보인의 묘에 ‘영천황보공지묘(永川皇甫公之墓)’라고만 쓰여 있고 관작과 이름은 쓰여있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종서의 묘비도 ‘순천김공지묘(順天金公之墓)’라고만 쓰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 6일이 지난 영조 23년 1월 2일에서는 황보인·김종서와 함께 죽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와 김승벽도 복관되었다. 이듬해에는 김승규에 대한 정려가 내려졌고, 10여년이 흐른 1758년(영조 34)에는 김종서에게도 충익공(忠翼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김종서 묘소 전면에는 2기의 비석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중 구비(94cm×45cm×13.5cm)는 복관 2년 후인 1736년(영조 24)에 공주판관 이익진(李翼鎭)과 지방 유생들에 의하여 세워진 것으로 호패형의 형태이다. 전면에는 ‘조선좌의정절재 김선생종서지묘(朝鮮左議政節齋金先生宗瑞之墓)’라고 기록하고, 뒷면에는 이곳에 비를 건립한 사연에 대하여 적고 있다. 신비(157cm×56.5cm×26cm)는 1963년에 세워진 것으로 이 유적과 김종서의 행적을 자세하게 적고 있다. 서하 임감재가 비문을 짓고 14대손 김창준이 글씨를 썼으며, 전면에는 ‘대광보국승록대부좌의정익충익호절재순천김공종서지묘’(大匡輔國崇祿大夫左議政諡忠翼號節齋順天金公宗瑞之墓)’라고 새겨져 있다. 한편, 김종서의 묘소로부터 남쪽방향으로 100여m 앞에 있는 신도비(219cm×77cm×45cm)는 1987년 세워진 것으로, 김상홍(金相洪)이 비문을 짓고 김영기(金榮其)가 글씨를 썼다.

김종서의 묘는 1977년 1월 6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되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됨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도기념물 제2호로 재지정되었다. 한편, 김종서 장군 묘소로 올라가는 길 입구에는 1981년에 건립한 김종서장군 신도비가 있으며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생가터에는 1981년에 세워진 ‘충익공절재김종서장군유허비(忠翼公節齋金宗瑞將軍遺墟碑)’가 있다.

(2) 덕천군사우(德泉君祠宇)



- 소재지 : 태산리 101번지
- 연 대 : 조선
- 지정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자료 제6호

덕천군 사우는 조선 제2대 임금인 정종의 10남 덕천군(德泉君) 이 후생(李厚生, 1397~1465)을 제향

한 사당이다. 공주에는 본래 덕천군 사유지인 논과 밭이 있었고, 금강의 홍수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자 덕천군이 이를 구제하였다는 신도비의 기록으로 보아 이미 덕천군은 생존 시부터 공주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54년(효종 5)에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이 과거 연기 방축리에 부조묘를 건립한 이후 1677년(숙종 3)과 1704년(숙종 30)에 충청감사로 부임한 후손 이덕주(李德周)와 이덕성(李德成)이 사우 수리와 제전을 정비하였다. 1714년(숙종 40)에는 도운(陶雲) 이진망(李眞望)이 암행어사로 충청지역에 왔을 때 사우를 살펴본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다.

이진망은 1722년(경종 2) 청주목사로 왔을 때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이기성(李麒成)과 함께 사우 중수를 발의하였고, 이듬해 1723년(경종 3) 황해감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평안감사 이진검(李眞儉)과 후원하여 이진급(李眞倂)이 물자를 모으고 관양(冠陽) 이광덕(李匡德)이 유사가 되어 전면적인 사우중수에 착수하였다.

이때의 대대적인 사우중수와 함께 현 위치인 공주지역으로의 이견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까닭은 연기지역에 거주하는 종손이 어리고 생활이 어려워 사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까 염려하여서였다고 전한다. 공주지역에는 이미 덕천군의 손자인 상산군(常山君)의 후손인 이몽경(李夢慶)이 낙향하여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광세(李光世)·이광언(李光彦) 등이 사우이건을 위해 적

극적으로 활약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어 종손을 도와 사우관리의 일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1723년(경종 3)에 시작된 사우이건은 영조의 즉위와 소론의 실각으로 인하여 정국이 어수선해지자 일시 중지되었으나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1739년(영조 15)에 완공되었다. 당시의 중수서문은 이진망이 짓고, 이광태가 이건기를 작성하였다. 사우건립과 함께 종손이 거처할 집을 지어 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전을 장만함으로써 현재의 위치에 있는 사우의 모든 시설을 완비하였다.

그 후 약 50여년이 지난 다음 이조판서 이면공·이조판서 이면승·승지 이면구 등이 다시 사우를 중수하였으며, 고종 때에는 이진창이 암행어사로 내려와 사우 보수와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일제시대에는 서울과 공주에 거주하는 종인들이 합심하여 재실(齋室)을 건축하였으며, 1960년에 대대적으로 사우를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우는 산의 중턱에 3단의 축대를 쌓고 서남향으로 대지를 조성, 여기에 삼문과 담장을 시설하고 사당을 배치하였다.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으로 후칸은 제단을 설치하였고 전칸은 참배 공간을 둔 전형적인 사당 건물이다. 사우 뒤편에는 덕천군의 신도비와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2) 비지정문화재

① 충렬사(忠烈祠)

- 소재지 : 하봉리
- 연 대 : 조선 후기



〈사진 30〉 충렬사 외삼문



〈사진 31〉 충렬사 내삼문



〈사진 32〉 충렬사 사우



〈사진 33〉 본당 상량식

충렬사는 장군면 하봉리 하산마을에 위치한다. 장군면사무소에서 북서쪽으로 1.5km 들어간 거리에 있으며 당진-상주간 고속도로가 마을 안쪽의 산봉우리를 지나고 있다. 하봉리는 금사공 유충걸의 넷째아들인 충의공 유병연의 후손들이 대대로 세거해 온 곳이다.

충렬사(忠烈祠)는 충경공 유형(柳珩)장군의 영정과 위패가 봉안된 사우로 1972년 9월에 조성되었다. 사우가 건립된 것은 불과 40여년 전이지만, 사실 건립 연원은 1827년(순조 27) 후손들에 의해 과거의 송원리에 건립되었던 금호서사(錦湖書社)에서 비롯된다. 대교천과 금강이 만나는 송원리는 유형의 3자인 유신걸의 아들 포옹공 유비연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었다.

진주유씨가에서는 1827년에 금호서사(錦湖書社)를 세워 충민공 유진동(柳辰叟, 1497~1561), 충경공 유형(柳珩, 1566~1615), 금사 유충걸(柳忠傑) 3인을 배향해 왔으나 아쉽게도 조정으로부터 사액을 받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공주의 유생 이계원(李繼遠) 등 37명이 1851년에 올린 등장(等狀)을 보면 “죽당 유진동, 석담 유형, 금사 유충걸의 충절을 찬양하고 이미 해남과 함평에서 사당을 지어 모시고 있으니 공주에도 서원건립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거둬진 요청에도 허락을 얻지 못하다가 1868년 금호서사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는 운명을 맞았다. 해남과 함평은 유형의 사적이 남아있는 지역이었고 공주에는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었으므로 사우를 건립한 것이었지만, 이미 서원이 있는 인물을 중복해서 배향하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이었다.

진주유씨의 세거지는 원래 경기도 고양지역으로 유진동과 유형의 묘는 모두 고양 반덕동에 위치해 있다. 공주로 이거하게 된 것은 유형의 장남인 금사공 유충

결대로 알려져 있다. 광해군 폐모사건을 계기로 혼탁한 조정에 나아가기를 거부한채 낙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주는 어머니 전주이씨의 고향이면서 처 능성구씨가 가진 전장이 있던 곳이었다. 유충걸이 입향한 후 그의 후손들이 대교천을 따라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며 대교천 주변 지역 곳곳에 세거지를 마련하였다.

후손들이 세거했던 공주에 금호서사를 두고 선조를 제향하였지만 끝내 훼손되고 말자 아쉬움이 컸던 후손들은 유형 장군 관련 고문서와 유품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1971년 유형장군을 모신 충렬사를 장군면 하봉리에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진주유씨가의 후손 뿐만아니라 공주지역 유림이 창건을 발의하였고 장군면 하봉리에 대대로 살아온 충의공파[忠毅公 柳炳然]에서 부지를 내었으며 진주유씨종문화[당시 회장 유근창]가 주도하여 1년만인 1972년 11월 19일에 건축물의 준공을 마칠 수 있었다. 건물의 구조는 온양의 현충사를 본떴고 당시 소요된 비용은 국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중문성금 250만원으로 총 550만원이었다. 같은 해 11월 21일 조선일보에는 충렬사의 건립과 함께 유형 장군의 일대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기사가 실렸다.

충렬사는 사우와 내외삼문, 비각 2동, 동·서재, 관리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역은 사고석 담장으로 말끔히 단장되어 있다. 충경공 유형(忠景公 柳珩)의 위패를 모신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익공계 가구 수법을 따랐다. 사당의 정면 우측의 비각에 있는 비는 1874년(고종 11) 금호서사를 건립하면서 세운 비이며, 좌측비각은 이 비를 번역하여 1976년에 노산 이은상이 짓고 영가 김충현이 쓴 비를 보존하고 있다. 내삼문은 ‘창의문(彰義門)’, 외삼문은 ‘충의문(忠義門)’이라는 현판이 걸려있으며, 사우의 동편 담장 밖에는 이 지역의 진주유씨들이 배출한 삼강인물의 사적비 4기가 세워져 있다. 서재는 유품전 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유형장군유물(柳珩將軍遺物)

1594년(선조 27)의 무과급제 교지(教旨) 1매와 상아에 음각된 호패(戶牌) 1점으로 충남유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어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관리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본래 소유자인 하봉리 충렬사종중 소유자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됨에따라 유물 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귀속되었는데 2014년 2월 현재 류형장군 호패(柳珩將軍 戶牌) 1점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지정 예고’ 된 상태이다.

이 호패는 1602년~1615년 사이에 소지하였던 것으로 상아로 만든 호패는 2품이상 고위 관리들만이 소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호패의 앞면에는 성명과 태어난 해, 과거에 급제한 연도가 음각되어 있다. 크기는 7.6×2.4cm이다.

② 문성영당 터(文城影堂 址)



〈사진 34〉 유성하 영정

■ 소재지 : 송문리 문성마을

■ 연 대 : 18세기

장군면소재지인 도계리의 북쪽으로는 대교천이 흐른다. 이 도계리에서 서북쪽으로 대교천변 도로를 따라 약 2.5km 정도 올라가면 송문리가 나오는데, 문성영당지는 송문리 문성마을 북쪽에 위치한다. 문성영당(文城影堂)은 진주유씨(晉州柳氏) 유성하(柳星河, 1657~1712)의 영당으로, 지금은 소실되어 그 터만이 남아 있다.

문성영당의 문성(文城)이란 명칭은 마을 이름이기도 한데 『지명총람』에 의하면 문성산(文城山) 아래에 자리해 있어 불려진 것이라고 한다. 문성영당은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던 유성하(柳星河, 1657~1712)의 영당으로, 그가 전라도 함평현의 현감으로 있을

때 청백리로 이름이 높아 함평현 사람들이 그의 화상을 그려 생사당(生祠堂)과 비석을 세웠었는데, 그후 본손들이 고향인 이곳 장기면 송문리로 옮겨 와 봉안하게 되었다고 한다(『공주승람』 1971년 간, 『공주군지』 1988년 간).

입향 이후 공주에 세거하던 진주 유씨집안은 유충걸 이후 여러 인물을 배출하여 나름대로의 정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게되고 동시에 공주지역에서의 사족적 기반도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로 미루어 문성영당의 원래 건립 유서는 전라도 함평에 있었던 유성하의 생사당이었던 사실과, 후손들에 의한 송문리에의 이거는 유씨들의 동족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지만, 유성하의 아버지 유병연의 신도비가 1797년(정조 21)에 세워지는 것을 미루어 보면

그 어간이나 그 이후가 아니었을까 추측될 뿐이다. 이 영당이 없어진 연대도 현재로서는 정확하지 않은데, 영당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공주군지』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터만 남아 있었던 상태였다.

유성하(柳星河, 1657~1712)는 본관은 진주, 자는 천향(天鄉)으로 공주 충렬사에 제향된 유형(柳珩, 1566~1615)의 증손이며, 무과에 급제하여 남병사, 포도대장, 통어사 등을 역임하면서 북벌계획에 참여하였으며, 그의 조부인 유형을 본받아 등에 ‘정충보국’ 이라고 문신을 한 유병연(柳炳然, 1625~1681)의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 유병연은 이완의 추천을 받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원종공신으로서 형조판서에 증직되었고, 충의공(忠毅公)의 시호를 받았다.

유성하는 1689년(숙종 15)부터 관직에 나아가 함평현감으로 있을 때 충의청백리신(忠義清白吏臣)으로 함평고을 사람들이 생사당(生祠堂)과 비석을 세웠다고 하나 현재 함평에는 유적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묘소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둔지 언덕에 있으며 묘지문(墓誌文)은 차자인 현장(顯章)이 찬(撰)하였다. 호조참판으로 증직받았다. 현재 문성영당은 소실된 상태이고 터만이 전해질 뿐이며, 송문리 문성마을 북쪽 언덕에 유성하가 강당을 열고 글을 읽던 곳이라 전해지는 초당바위가 있다.

③ 진주류씨 삼효열 정려(晉州柳氏 三孝烈 旌閭)



〈사진 35〉 삼효열 정려



〈사진 36〉 정려현판의 상태

- 소재지 : 하봉리 6-2번지
- 연 대 : 1725년(영조 1) 명정

충렬사 경내의 동쪽에 정려각과 정려비가 나란히 세워져있다. 이 정려는 열녀 증정부인 전주 이씨, 효자 증병조참판 유선기(柳善基), 열녀 증정부인 경주 이씨의 효열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정려내부에는 1742년(영조 18)에 명정 받은 사실을 기록한 정려현판 3개와 1988년 후손들이 세운 정려비가 있다. 증정부인 전주 이씨는 무민공 유취장(柳就章)의 부인이며, 증병조참판 유선기는 유취장의 아들이고, 증정부인 경주 이씨는 유선기의 부인이다.

유취장(1671~1722)은 결망화 유담연(柳燦然)의 손자로서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훈련원정, 훈국아장 등을 역임 하였으나 경종의 등극으로 소론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발생한 신임사회에 휘말려 역모의 누명을 썼다. 국문이 시작되자 회령부사로 있던 아우 유정장(柳貞章)은 자결하고, 혹독한 형문 끝에 결국 노론의 거두 김창집(金昌集) 등과 함께 유배되었다가 곧 사사되어 이른바 ‘5절도’ 라고 일컬어 졌다. 숙천부사로 있을 때 선정으로 특진을 하는 등 관(官)으로서의 업적과 제가(齊家)의 법도에 있어서는 본받을 점이 매우 많았다고 하나 사회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청백(清白)과 효우(孝友)의 행실만이 회자되고 있다.

유취장의 아들 유선기(1695~1722)는 무과에 급제하여 이천부사로 재임중 부친의 죄에 연좌되어 곧 사사되었다. 부자가 함께 사사되자 고부간인 전주 이씨와 경주 이씨도 남편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함께 죽기를 약속하였으니 전주이씨는 남편이 유배갔던 장성 땅에서, 경주이씨는 공주 땅에서 각각 13일간 아무 음식도 먹지 않은채 하루사이에 모두 목숨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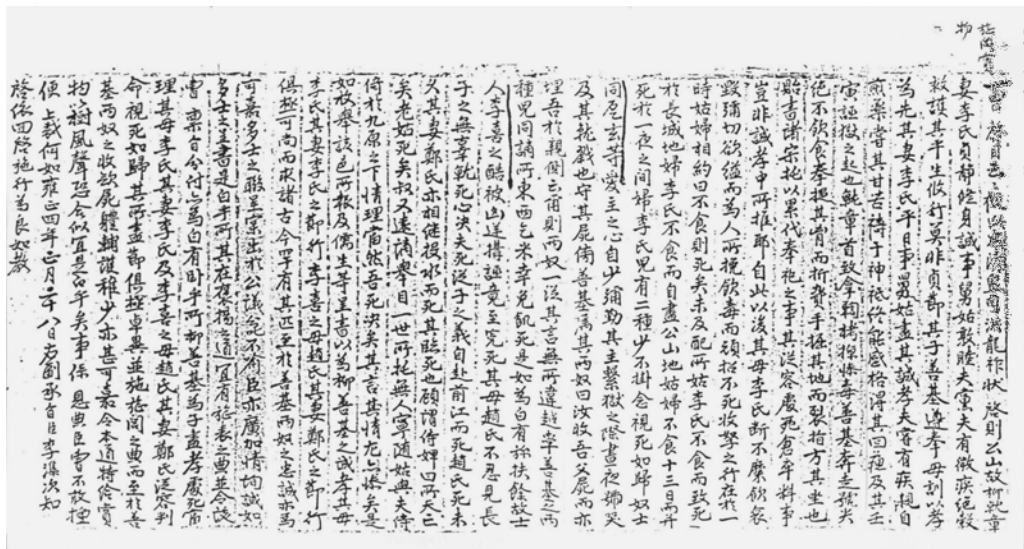
유취장의 처 전주 이씨는 이두천(李斗千)의 딸로, 과거의 공주지역에 세거하는 덕천군파(德川郡派)의 후손이다. 덕천군파의 세거지는 태산리 일대로 진주유씨의 세거지인 대교리·중흥리 등과 인접한 지역이다. 유선기의 처 경주이씨는 이중익(李重翊)의 딸이다.

사회로 인해 가문에 큰 화가 미칠 수 있었으나 정국이 다시 노론계로 바뀌면서 곧 억울하게 죽은 대신들에 대한 복권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1725년(영조 1) 충청감사 홍용조(洪龍祚)의 보고로 이들 세명의 효행과 절행에 대해 명정(命旌)의 은전을 내려졌다. 또한 유선기의 노비로서 주인의 시신을 거두고 유선기의 두 아들을 정성으로 돌본 사동(士同)과 돌현(堶玄) 등에게도 상물을 내렸다.[충효등록] 1726년(영조 2) 억울하게 죽은 유선기의 가에 홀전(恤典)을 거행하라는 명이 있

었고 1740년(영조 16)에 부자가 복관되며 가문의 효열의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1742년(영조 18)에 유선기는 좌승지로 증직되었다. 그런데 여지도서와 충청도읍지 등의 자료에는 증직과 함께 명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가 난다. 지리지의 기록이 명정이 아닌 정려 건립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 후 유취장은 1782년(정조 6) 병조판서에 증직되었고, 이어 1802년(순조 2)에 심환지의 주청으로 무민(武愍)의 시호를 받았으며 1805년(순조 5)에는 부조지전(不祧之典)을 받았다. 1808년(순조 8) 유생 김정언(金鼎言)의 상소에 의하여 신임충량(辛壬忠良)으로 불리었으며 1890년(고종 27) 유취장의 종손(宗孫) 유석관(柳錫觀)이 무과에 급제하자 조정에서는 특별히 참상 선전관(參上宣傳官)을 가설(加設)하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명정현판은 모두 마모되어 지금은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중앙에 류선기의 명정현판(162X34), 좌측 전주이씨 명정현판(158X34), 우측 경주이씨 명정현판(138X38)이 걸려있고, 정려각 내부 중앙에 1988년 8월에 유근무가 쓴 진주유씨 삼효열 정려비가 세워져 있다.

정려각 옆에는 4기의 정려비가 있다. 이 정려비는 유씨문중의 효열을 기리기 위해 1988년 후손들이 세운 비석이다.



〈삽도〉 『충효등록』 진주류씨 삼효열 관령기사

■ 충신 증좌승지 유공풍노정려비(忠臣 贈左承旨 柳公豐魯 旌閭事蹟碑)

충신 유풍노(柳豐魯, 1812~1871)의 행적을 기리는 정려비로, 유풍노는 1871년(고종 8) 신미양요때 어영청(御營廳)의 초관(哨官)으로 중군 어재연(魚在淵)의 휘하에서 활약하다가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좌승지로 증직되었고, 충신 정려를 받았다. 90세 노모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를 따라 전장에 나아갔던 유재로(柳在魯)에게 특별히 관직을 주어 가솔을 돌보도록 혜택을 내렸다. 비문은 유석규(柳錫珪)가 짓고 글씨는 최병무(崔秉武)가 썼다.

■ 효자 증동몽교관 유공홍원 정려사적비(孝子 贈童蒙教官 柳公弘源 旌閭事蹟碑)

유홍원(柳弘源, 1743~1815)의 정려비이다. 유홍원은 맛있는 음식과 과실이 생기면 먹지 않고 반드시 부모님께 드렸으며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거르지 않았다. 67세 되던 해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자 병세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변을 맛보고 밤마다 북두칠성을 향해 자신이 대신 앓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와같은 효행이 알려져 1860년(철종 11) 동몽교관에 증직되고 효자정려를 받았다. 그 후 병화로 정려가 소실되어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후손들에 의해 비석이 세워졌다. 비문은 유근무(柳根茂)가 짓고 글씨는 유선호(柳善浩)가 썼다.

■ 열녀 증정부인 부령김씨 정려사적비(烈女 贈貞夫人 扶寧金氏 旌閭事蹟碑)

부령김씨는 유형의 7대손인 유희원(柳晦源, 1751~1798)의 처로 남편이 후사 없이 죽자 양자를 들이고 장례를 치른 후 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그 열행이 알려져 특별히 정문이 내려지게 되었다. 양자 상목(相穆, 1765~1840)이 호서병마절도사(湖西兵馬節度使)에 제수되자 부령김씨는 정부인에 추증되었다. 남편 유희원은 177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충청도수군우후(忠淸道水軍虞侯)를 역임했고 1795년(정조 19)에 통정대부 삼수도호부사가 되었다. 아들 상목이 병사가 되면서 가선대부 병조참판을 증직받았다. 유희원과 부령김씨의 묘는 신평면 동원리에 있고 부령김씨의 정려도 묘역이 있는 동원리에 있다. 이곳의 비문은 이종선(李種宣)이 짓고 유재호(柳在浩)가 한글로 풀어 썼으며 이공권(李公權)이 글자를 썼다.

■ 충신 증조봉대부 호조좌랑 진주유공지결 정려사적비(忠臣 贈朝奉大夫戶曹 佐郎 晉州柳公智傑 旌閭事蹟碑)

1988년 8월에 후손들이 건립한 충신사적비로 유지결의 12대 종손인 유근무(柳根茂)가 비문을 짓고 최병무(崔秉武)가 썼다.

④ 충신 유지결 정려

- 소재지 : 장군면 송학리 253-3
- 연 대 : 1796년(정조 20) 명정 및 건립



〈사진 37〉 유지결 정려



〈사진 38〉 명정현판

유형의 아들 유지결 정려는 송학리에 위치하고 있다. 유지결(1602~1619)은 석담 유형의 아들로 1618년(광해군 10) 명의 지원 요청에 따라 강홍립의 막하로 요동지역에 출정하였다가 광해군의 밀지에 따라 강홍립이 거짓 항복할 때 이를 반대하다가 17세의 어린 나이에 순절하였다. 그의 충절이 알려져 1796년(정조 20) 호조좌랑의 증직과 함께 명정을 받았다. 1796년 8월 유씨집안과 이순신 집안에 시호를 내리는 문제로 논의가 있을때에 정조 임금이 전교 내리기를

“유씨의 집안에는 어쩌면 그리도 충신과 명장이 많은가. 대체로 증 영상 유형과 그 손자 증 판서 유병연은 곧 충무공 이순신과 정익공 이완이 혹 천거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기도 하고 혹 장수의 재질이 있다고 천거하기도 한 사람들이니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진충 보국’ 네 글자로 등에 문신을 한 충성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똑같았으니,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우리 나라의 두 무목에게 시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먼저 하겠는가. 특별히 아울러 증시하라. 고 충용사 유림(柳琳)은 중국 조정을 위하여 금주(錦州)의 싸움에서 절개를 온전히 하여 저들이 아직까지도 칭찬해 마지 않고 있다. 유효결(柳孝傑)은 유형의 아들로서 강홍립의 부름에 굴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서제 유지결(柳智傑)이 20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상투를 틀고 스스로 대신 가기를 청하여 심하(深河)에서 숨을 거두었다. 유효결의 아들 가운데 또 고 훈련 대장 유혁연과 병연이 모두 정익공에게 천거받아 중요한 정사에 모두 참여하였는데, 사람들이 서로 호흡이 잘 맞는 것을 두고 마치 오른손과 왼손 같다고 비유하였다. 지난번에 무사들을 시험보이는 일로 인해서 가마가 태평교(太平橋)를 지날 때 길 곁으로 고 장가(將家)의 유허가 나타났는데 한참 동안이나 탄식하였었다. 유지결에게 만약 정증(旌贈)한 바가 없으면 상세히 상고하여 초기하라. 이로 인하여 또 생각건대, 충무공의 아들이면(李勉)이 정유년에 순국하고 이훈(李薰)이 갑자년에 순국하였으며 이신(李薰)이 정묘년에 순국하였는데 정증하는 전례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유지결을 정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는 때에 차마 충무공의 집안에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조로 하여금 각기 화함(華啣)을 증정하도록 하라.”

라고 하며 진주유씨가 충절을 칭송해마지 않았다. 그후 한달만인 9월에는 유지결의 명정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이 문헌을 상고하여 유지결은 심하(深河)의 싸움에서 강홍립(姜弘立)이 군대를 다 데리고 투항하자 홍립의 휘하에 있던 자들은 모두 적의 포로가 되었지만, 끝까지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고 백기(白旗) 아래에 몸을 던져 죽었던 사실을 아뢰었다. 훗날 강홍립은 귀국하여 유지결의 형인 효결을 만나 ‘나는 지결의 죄인이다.’ 라 하였다는 일화도 함께 전했다. 관례도 치르지 않은 나이에 순절하였으니 정려하고 추증해야 하는데 정조임금이 윤허하였고, 지결의 묘가 없으니 아버지 유형의 묘 아래에 정문을 세워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유지결의 충신 정려는 과거 연기군 남면 송원리(현 세종시 한솔동) 금호서사 근처에 건립되었다.

또한 1800년(순조 원년)에 그 봉사손을 정하라는 명에 따라 1832년 유진옥(柳鎭玉)의 주관으로 유연(悠然 : 신결의 3남)의 6세손 상집(相集)을 봉사손으로 정하였다는 예조입안문서가 전한다. 유연의 후손이 모두 공주에 거주하였으므로 8대손 징노(徵魯)가 유지결 정려를 현 한솔동 금호서사 옆으로 옮겨 중수하였다.

금호서사가 훼손된 후 정려는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1967년 11대 종손 유응호에

의하여 송학리로 이견되었다. 정러기는 유협기(柳協基)가 찬하였으며, ‘좌랑공 정려이건기(佐郎公旌閣移建記)’로 명명된 이건기는 1970년 11대 종손인 유응호(柳應浩)가 찬하였다.

유지결의 정려는 초익공 계통의 건물로 정측면 1칸이며, 정려 안에는 비석과 명정현판(忠臣 贈朝奉大夫戶曹佐郎柳智傑之閣 24), 이건기 현판이 있으며 전면의 창방 위에는 충신의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에는 충신 유지결의 정려(忠臣 贈朝奉大夫戶曹佐郎 柳智傑之閣)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유지결의 단묘가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궁골(구룡동)에 조성되어 있다. 중흥리 궁골은 대교천의 상류로 대교천 일대를 중심으로 세거했던 진주유씨가 세거지 중 하나로 유형의 후손이 거주하면서 유지결의 묘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11대손 유응호(柳應浩)가 주도하여 단을 조성하였다.

⑤ 충효 김중서·김승규 정려(忠孝 金宗瑞·金承珪 旌閣)



〈사진 39〉 충효 김중서·김승규 정려

- 소재지 : 대교리 산45
- 연 대 : 1804년(순조 4, 김중서)·
1747년(영조 23, 김승규) 명정

대교리에 있는 이 정려는 김중서(金宗瑞)[1390~1453]의 충절과 아들 김승규(金承珪, ?~1453)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804년(순조 4)과 1747년(영조 23)에 각각 명정을 받아 건립된 것으로

김중서 장군 묘역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장군면소재지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약 400m 정도 더 가면 대교(大橋)가 나오고, 다리를 건너 도로 왼쪽에 김중서 장군 묘역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있다. 이정표를 따라 1.5km를 가면 김중서의 묘역이 나오는데 정려는 묘역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김중서와 아들인 김승규의 정려는 장군면 대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804년(순조 4)과 1747년(영조 23)년에 각각 명정을 받아 건립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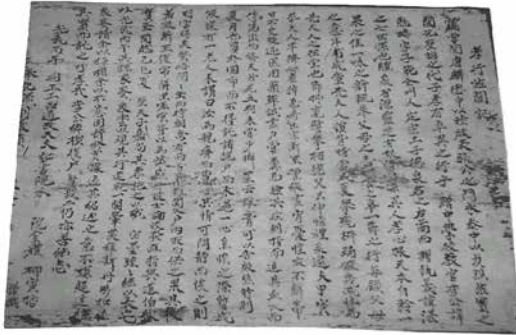
김종서가 명정 받기까지의 과정은 알려진 기록들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계유정난 때 죽은 후 그에 대한 신원(伸冤)과 복관(復官)이 이루어지는 연장 선상에서 명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종서의 신원·복관 등은 조선왕조실록이나 묘비문, 정려현판 뒤의 정려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규가 명정을 받게 되는 과정은 현판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명정현판에 의하면 1781년(정조 5)에 명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중 『영조실록』 23년 11월 28일조 기사를 찾아보면 그가 훨씬 전인 1747년(영조 23)에 이미 명정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승규 명정현판 뒷면의 김종수(金鍾秀)[1728~1799]가 지은 기문에 의하면, 김종서의 11대손 지복(志復)이 상언하여 김승규가 효자명정을 받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 현재의 정려는 공주시 김종서 묘역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후손인 김기원이 서산에서 보관하던 현판을 옮겨와 1981년 건립한 것이다.

정려는 정·측면 각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사면은 홍살처리 되어 있다. 내부에는 김종서의 명정현판과 효자 김승규의 명정현판이 걸려있다. 김종서의 명정현판에는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영경연 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증시충익공 김종서지문’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左議政 兼領經筵 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贈諡忠翼公 金宗瑞之門(219cm×36cm)라 기록되어 있으며 효자 김승규의 명정현판에는 ‘효자 통정대부 병조참의 김승규지문’ (孝子 通政大夫 兵曹參議 金承珪之門)(219cm×36cm)라고 쓰여 있다. 또한 김종서와 김승규의 명정 현판 뒷면에는 복관, 시호, 명정 등의 사실을 기록한 이채(李采)[1745~1820]와 김종수(金鍾秀)가 지은 기문이 각각 새겨져 있다. 현재 장군면 대교리에는 김종서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곳에는 김종서의 묘와 묘비, 그리고 신도비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 40〉 효자문 현판

⑥ 효자 이면주 정려(孝子 李勉疇 旌閭)



〈사진 41〉 효행정려기

- 소재지 : 용암리 154-1
- 연 대 : 1905년 명정, 1906년 건립

본관은 전주(全州). 정종의 10남인 덕천군의 13대손이고, 덕천군의 현손인 공주 입향조 이몽경(李夢慶)의 4남 이담(李澁)[580~1642]의 7대손이다. 아버지는 이무형(李茂亨)

[1793~1861]이고, 어머니는 결성장씨(結城張氏)[1789~1832]이다.

효심이 지극하여 늘 부모를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아버지가 출타하여 친구들과 노닐면 그 곳에 따라가 개를 잡아 아버지의 친구들이 흥겹게 놀도록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중병으로 자리에 눕자 변을 맛보며 병의 상태를 살피는 등 정성을 다했으나 차도가 없었다.

한 의원이 꿩고기 기름을 내어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일러 주었으나 여름이라 꿩을 구할 수 없어 상심하던 차에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효심이 가상하니 내일은 꿩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과연 새벽에 꿩 두 마리가 집으로 날아들어 이를 잡아 약으로 써서 아버지의 병이 완쾌되었다고 한다. 그 후 또 다시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차도가 없자,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어 아버지에게 먹였다. 그러자 차도가 있는 듯하였으나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면주의 지극한 효행에 감탄한 유림들이 이 사실을 관찰사에게 알려 1905년 명정을 받아 1906년 효자 이면주 정려(旌閭)를 세웠다. 이면주의 손자인 종9품 부교원 이상뢰(李象賚)[1849~1926] 또한 하늘이 낸 효자로 칭송을 받는 등 2대에 걸쳐 효자를 배출하였다.

효자로 명정 받을 당시의 입안(立案)에는 충청도의 유생 김태현(金台鉉) 등이 이면주의 효행을 예식원장례경(禮式院掌禮卿) 남정철(南廷哲)에게 알리고, 남정철이 임금에게 보고하여 정려를 내릴 것을 주청하자 임금이 정려를 내리도록 비답한 내용과, 정려를 세울 때 재목과 목수를 관청에서 제공하고 그 자손들의 환

곡과 모든 잡역 일체를 면제해 주도록 조치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통정대부비서원승원장례(通政大夫秘書院丞院掌禮) 유인철(柳寅哲)이 쓴 정려기에는 이면주의 효행 사실과 정려 과정이 적혀 있다.

정문(旌門)은 용암리에 있으며, 이면주의 5대손 이은팔이 관리하고 있다. 정문은 맞배집으로 안에 ‘효자증구품중사랑중학교교관이면주지문(孝子贈九品從仕郎中學校教官李勉疇之門)’ 이라고 쓴 현판이 있고, 정려기와 정려비(너비 43cm, 높이 144cm, 두께 20cm)가 있다.

⑦ 유충걸 묘와 신도비



〈사진 42〉 유충걸 신도비



〈사진 43〉 유충걸 묘역

- 소재지 : 대교리 독골
- 연 대 : 신도비; 1687년(숙종 13)

장군면 대교리는 마을 전방에 대교천이 흐르고 국사봉 산줄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으로 골짜기가 깊어, 조선초의 명장 절재 김종서(金宗瑞)의 유허가 남아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대교리 독골에 진주유씨가의 공주 입향조인 유충걸(柳忠傑, 1588~1665)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독골은 국사봉을 뒤로하고 장군봉을 앞에 둔 명당 터라고 전해진다.

유충걸은 유형의 장남으로 자는 신백(薰伯), 호는 금사(鎡少)이다. 1613년(광해군 5) 정조(鄭造)·윤인(尹訥) 등이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론을 주장하자 그들의 죄를 강경히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처벌을 당하였다. 1618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해 인목대비를 폐하여 서인으로 강등시켜 서궁(西宮)에 유폐하자 이에 분개하여 대과를 단념하고 공주에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비로소 벼슬에 나갔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에는 사재감직장(司宰監直長)으로 있으면서 의병을 모집하여 남한산성으로 향하였으나 화의 성립으로 의병을 해산하였다. 그뒤 세자익위사익위(世子翊衛司翊衛)를 거쳐, 현감을 지냈다. 청나라와 화의가 성립된 뒤에 설욕책을 상소하였는데, 세자사부로 있던 이유태(李惟泰)가 그의 상소문을 읽고 그의 충의심에 감탄하였다고 한다(참조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유충걸의 선대는 원래 경기도의 번덕동에 대대로 세거했는데, 유충걸이 공주 세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암 송시열이 찬한 유충걸의 신도비에는 광해군 폐모 사건이 발발하자 이 사건을 주도했던 정조(鄭造)의 외가 쪽 친척이던 금사공이 정조의 죄를 꾸짖고 금강가로 이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향 시기는 1620년경으로 보인다. 후손 중에는 송시열이 공주 이거를 권유하였다고 전하기도 하지만 이와같은 기록으로 보아 신빙성이 적다. 그런데 왜 하필 공주로 이거했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다만 금사공의 외가와 처가가 주목된다. 금사공의 어머니 전주이씨는 공주에 세거하던 전주 이씨 이세장(李世璋)의 증손녀이고, 금사공의 처는 역시 공주에 세거한 능성구씨의 구사맹(具思孟)의 손녀이다.

이세장은 한재(寒齋) 이목(李穆)의 아들로서 이목이 유배되자 그의 외향인 공주 부전동으로 이거한 인물이다. 유형의 부인은 바로 이세장의 증손녀이다. 또한 공주 탄천에 세거하는 함양 박씨 가문의 박시립(朴時立)은 군자감 판관을 지낸 인물로 유형장군과 동서지간이기도 하다. 금사공의 처가인 능성구씨는 공주 의당면 중흥리에 세거하고 있는 가문으로 구씨 집안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구사맹이 일찍이 공주에 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손자인 인조 임금이 이괄의 난에 공주로 파천했던 배경에는 외가와외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금사공의 외가와 처가가 모두 공주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집안이었고 광해군의 폐모 사건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해지자 금사공이 외향이자 처향인 공주로 이거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유충걸의 묘역 입구에는 1687년(숙종 13)에 세운 신도비가 있다.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글은 유지발(柳之發)이 썼으며 김수항(金壽恒)이 전서(篆書)를 썼다. 방형 대좌에 빗돌을 세우고 옥개형 이수를 올린 형태로 총 높이가 184cm,

폭 71.5cm, 두께 20cm의 규모다. 묘역은 묘비, 상석, 문인석, 동자석, 석주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대교리 독골마을에는 1997년에 건립한 금호재(錦湖齋)가 있는데 이곳에서 매년 제례를 올리고 있다.

유충걸의 묘 옆에 충걸의 고손자인 종기(宗基, 1685~1733)의 묘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100m 정도 거리에는 종기의 차남 진항(鎭恒, 1720~1802)의 묘가 있다. 유진항의 묘 앞에 있던 석등과 석물 일부가 2008년에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1년만에 되찾아 제자리에 두었다. 유진항의 묘 앞에는 홍양호(洪良浩)가 찬한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⑧ 덕천군 이후생(德泉君 李厚生) 신도비(神道碑)

- 소재지 : 태산리 산 17
- 연 대 : 1808년(순조 8) 건립

태산리에는 덕천군 이후생(德泉君 李厚生)의 사우(부조묘)가 있다. 덕천군 이후생(1397-1465)은 정종의 10남으로 성빈 충주지씨 소생이다. 선천적으로 효성과 우애가 뛰어 났고, 인후함이 남달라 특별히 후(厚)자를 붙여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봉군할 때에도 인덕이 출천하다하여 덕(德)자를 넣어 덕천군이라 하였다 한다. 종실임에도 평소 항상 검약하고 사치를 멀리하여 칭송이 있었으며, 누이 덕천옹주 덕에서 누이의 병을 간호할 때에는 도둑이 들었는데 사정을 듣고 필요한 물품을 도둑에게 주었다는 일화는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덕천군은 공주에 전장이 있었는데 왕자의 몸으로 몸소 농사에도 힘 썼다고 알려지며 어느 해 여름철에는 장마가 저서 금강이 넘쳐 수백 호가 떠내려가 공주에는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에 덕천군은 가산을 털어 이들을 구제하였고, 이후 공주에서는 적덕공(積德公)이라는 별호로 불려졌다고 한다. 1872년(고종 9) 광록대부 영종정경에 추증되었다.

원래 덕천군의 묘소와 신도비는 광주군 남한산성 서문 밖 거여리에 있었으나, 그곳이 군용지로 수용되어 있어서 부득이 후손들이 많이 살고, 또한 덕천군을 기리는 사우가 있는 태산리로 1974년에 이장하게 되었다. 이 때에 신도비도 함께 이전하였다. 그리고 2001년 신도비각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신도비는

백현 이경석이 주동이 되어 1650년 석재를 마련하였으나, 병자호란으로 지연되다가 1754년(영조 30)에 10세손인 원교 이광사(李匡師)가 찬하고 書, 篆을 써 놓았지만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1808년(순조 8)에 이주국(李柱國), 이면공(李勉兢)이 광주 거여리 묘역에 건립하였다.

특히 이 신도비가 주목되는 이유는 먼저 이광사(李匡師, 1705-1777)의 찬, 서, 전이라는 점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원교 이광사는 육진의 한 사람인 예조판서 이진검의 아들로 운순에게 글씨를 배워 원교체라는 독특한 필체를 탄생시킨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저명한 서예가이다. 그는 진서, 초서, 전서, 예서에 모두 능하였고 각지에 그의 유묵이 남아 전한다. 다음으로는 공주가 덕천군의 전장(田莊)이 있었고 적덕의 일화가 전해지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묘소, 사우, 신도비를 하나로 종합하여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⑨ 유형(柳珩) 신도비(神道碑)

- 소재지 : 하봉리 하산
- 연 대 : 1874년



〈사진 44〉 유형 신도비각



〈사진 45〉 유형 신도비

장군면 하봉리 충렬사 경내에 들어서 사우방향을 바라보면 우측에 유형의 신도비를 보호하는 비각이 있다. 원래 유형의 묘가 있는 경기도 고양시 능곡 번덕동

에 있었던 것인데 충렬사를 건립하면서 1973년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

신도비의 비문은 일사 이정구(李廷龜)가 짓고, 김현성(金玄成)이 글씨를 썼으며 김상용(金尙容)이 전(篆)을 하였던 것을 1874년 정학교(丁學敎)가 다시 쓰고, 이남식(李南軾)이 전(篆)하여 개립하였다.

충렬사 경내에 신도비 옆에 세워져 있는 충렬비는 1976년에 이은상(李殷相)이 짓고 김충현(金忠顯)이 글을 써 세운 것이다.

⑩ 이덕사 이태연 묘비(李德泗 李泰淵 墓碑)

- 소재지 : 평거리 산 42-13
- 시 대 : 이덕사 묘비 1666년(현종 7년)/ 이태연 묘비 1725년(영조 1년)

평거리에는 조선 중기 문신인 이덕사(1583~1664)와 그의 아들 이태연(1615~1669)의 묘비가 있다. 이덕사의 본관은 한산으로 목은 이색의 10대손이다. 밀양박씨 박정로(朴廷老)의 딸을 부인으로 맞았으며, 큰 딸은 우암 송시열에게 출가하였다. 1616년(광해군 8) 생원시 합격하고, 의금부도사를 지냈으며, 뒤에 아들 태연의 지위가 높아지자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이덕사의 묘비는 1666년(현종 7년)에 세워진 것으로 높이가 144cm, 폭 67cm, 두께 24.5cm이고, 비문은 사위인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글씨도 직접 썼다.

이태연은 이덕사의 아들이자 우암 송시열의 매부이다. 자는 정숙(靜叔), 호는 눌재(訥齋)이고, 부인은 문화류씨 유경집(柳景緝)의 딸이다. 1642년(인조 20) 진사로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정자·검열·정언·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1650년(효종 1) 공산현감을 지내며 자신의 녹봉을 모아 마곡사를 보수하는 등 공주 지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1659년(효종 10)에는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하였고, 1661년 전라도관찰사, 1666년 경상도관찰사를 거쳐 1668년 대사간·이조참판을 지내고 이어 평안도관찰사를 지냈다. 이태연의 묘비는 1725년(영조 1)에 세워진 것으로 높이 163.2cm, 폭 68.5cm, 두께 28.5cm의 크기이다. 1713년(숙종 39)에 수암 권상하(權尙夏)가 비문을 짓고 글씨를 썼는데, 바로 비석을 세우지는 못하고 1725년(영조 1)에 아들 만직이 강원감사가 된 뒤에야 비석을 세웠다.

이 두 부자의 비문을 지은 우암 송시열과 그의 수제자인 수암 권상하는 당시 최고의 학자이자 노론의 영수로 추앙받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비문을 지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한산이씨 가문의 위세를 어찌하였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진 46〉 이태연 신도비



〈사진 47〉 이덕사 묘비

⑪ 김태영(金台永)·김수(金陞) 묘소(墓所)

- 소재지 : 대교리
- 연 대 : 조선초기



〈사진 48〉 김태영 묘소



〈사진 49〉 김 수 묘소

김종서장군 묘소의 서쪽편으로 약 50m 낮은 구릉 뒤쪽에 김종서의 조부인 김태영의 묘가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부친인 김수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김태영은 조선초기 문화 시평으로 병조판서와 좌찬성에 올랐던 인물이며 김수는 도총제공 영의정(都摠制公 領議政)을 역임하였다. 김태영의 묘는 호석을 2단으로 가로 4.7m, 세로 4.5m, 높이 40~50cm로 봉분을 조성 후 잔디를 식재하였으며 전면에는 「조선국사헌부지평 현대부병조판서의정부좌찬성순천김공태영지묘(朝鮮國司憲府持平 憲大夫兵曹判書議政府左贊成順天金公台永之墓)」이라 기록된 묘비가 있으며 1998년 후손들이 성금을 모아 상석과 무인석을 건립하였다.

김종서 장군의 부친인 김수의 묘는 조부의 묘 아래쪽에 조부의 묘와 같은 방향의 양식으로 전면은 자연석을 3단으로, 측면은 1~2단을 경사지게 가로 4.3cm, 세로 6m, 규모로 축조 하였고 전면에는 상석과 망주석을 설치하였다. 이 묘는 고려말 ~ 조선초기 상위계급의 분묘 조성양식인 상원하방(上圓下方)형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⑫ 충의공 유병연(柳炳然) 묘역과 충의사



〈사진 50〉 유병연 신도비



〈사진 51〉 유병연 묘역

- 소재지 : 하봉리 하산
- 연 대 : 1681년(묘), 1797년(신도비), 1998년(충의사)

장군면 하봉리 하산은 충렬사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을로 이곳에 충의공 유병연의 묘역과 그를 제향하는 재실인 충의사가 있다. 하봉리 하산은 일찍이 게 형국의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었다. 큰 게가 엮드려 양 발로 감싸 안은 듯한 지형으로 게 모양에 대입해보면 오른쪽 발이 있는 자리가 유병연의 묘역이고 왼쪽 발은 마을회관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소나무 군락이 있어 수구막이 역할을 하였는데 수십년 전에 나무를 모두 베어 지금은 흔적이 없다.

유병연(柳炳然, 1625~1681)은 유충걸의 넷째아들로 자는 문숙(文叔)이다. 1648년(인조 26)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고 여러 벼슬을 거쳤다. 길주목사로 있을 때에는 수로를 파서 농사에 도움을 주어 백성들의 신뢰를 받았다. 1664년(현종 5) 한성부좌윤을 거쳐, 1672년 함경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때에 정령(政令)을 엄명히 하고 기강을 확립시키려 하였으나 백성들이 이를 매우 불편하게 여겼고, 관찰사가 또한 그의 죄를 거짓으로 꾸며 보고하여 중형을 받게 되었으나 대장 신여철(申汝哲)이 그의 강직함과 청렴 공명함을 증언하고 변호하여 파직에 그쳤다. 그뒤 다시 부총관으로 임명되어 포도대장·전라도수군절도사 등을 역임하고, 경기통어사를 지내고 죽으니,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사람됨이 견실하고 신중하였으며 여러 고을에 나갔으면서도 어디에서든 재화를 취하는 일이 없었고 일생을 청빈하게 살았다. 송시열(宋時烈)이 귀양갔을 때 허적(許積)·윤휴(尹鑣) 등이 송시열을 사형하도록 주청하였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앞장 서서 동지들을 이끌고 소문(疏文)으로 극간하여 구제하려 하였으나 일이 무사히 해결되어 그만두었다. 뒤에 송시열이 그의 비문을 지을 때 이 사실을 기록하여 깊이 통탄하였다. 형조판서에 추증되었고, 1796년 ‘충의(忠毅)’의 시호를 받았다. (참조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타우(打愚) 이상(李翔)이 지은 행장이 전한다.

유병연의 신도비는 그의 형 유담연의 요청에 따라 이상(李翔)이 지은 행장에 기초하여 송시열이 지었는데 후에 추록 되었으며 1797년(정조 21)에 세웠고 충의사 앞에 두었다. 묘역에는 상석과 문인석, 석주 및 최근 세운 묘비가 있다.

충의사는 1998년 8월에 건립되었다. 정면 3칸 측면 1칸 건물로 담장을 두르고 외삼문을 두었다. 사우 내부에는 충의사 건립 때에 제작한 유병연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그의 후손들이 하봉리에 대대로 세거하면서 충렬사를 창건할때에 충의공파에서 부지를 희사하기도 하였다.

⑬ 유담연(柳燾然) 묘역(墓域)



〈사진 52〉 유담연 신도비



〈사진 53〉 유담연 묘역

- 소재지 : 산학리 비학실
- 연 대 : 1698년(신도비)

장군면 산학리는 대교천의 서쪽에 접한 마을로 마을 뒤편의 장군봉에서 이어진 산줄기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으며 예로부터 배 형국의 명당 터로 알려져 있다. 유담연의 묘가 있는 비학실은 산학리의 여러 마을 중에서도 낮은 구릉으로 둘러 쌓여 마을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곳이다. 비학실은 학이 날아가는 모습의 땅이라고도 하고, 학이 쌀과 재물을 물고 날아드는 곳이라는 전설도 있다. 이곳은 진주류씨와 부안임씨가 대대로 살아온 마을이다.

유담연의 묘는 비학실 깊은 골짜기 안쪽에 배위 전주이씨와 합장되었고 어머니 전주이씨 묘와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유담연(1619~1686)은 금사공 유충결의 둘째아들로 자는 중명(仲明) 호는 결망와(結網窩)이다. 충신 유취장이 담연의 손자이다. 아들 성채(星彩)가 우암 송시열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무과급제한 후 관직이 삼도통제사에 이르고 병조참판에 증직되자 법에 따라 아버지로서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묘역의 입구에는 옥개형 이수를 올린 신도비가 있는데 비문을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후손 유일장(柳日章)이 글을 써 1698년(숙종 24)에 세운 것이다. 신도비

에서 50m정도 뒤쪽에 묘역이 있다. 문인석과 동자석, 상석, 석주 등의 석물이 조성되어 있다. 모친 전주이씨의 묘비는 1720년에 세운 것이다.

⑭ 유신걸(柳信傑) 묘(墓)

- 소재지 : 용암리 띠실
- 시 대 : 1600년대 중반



〈사진 54〉 띠실 전경



〈사진 55〉 유신걸 묘역

장군면 소재지에서 대교천을 따라 평기를 지나면 송학사거리가 나오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3.4km 거리에 용암리 입구가 있다. 이곳에서 마을 안쪽으로 1km 정도 들어가면 띠실 마을이 있다. 대교천의 지천인 용두천의 상류로 골짜기가 깊고 넓은 편이어서 옛 사람들의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일제강점기 초기였던 1900년대 초 공주 일대의 동족 촌락이 조사된 바 있는데 당시 용암리는 전주이씨의 세거지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덕천군과 후손들이 거주하는 집성촌이다. 진주유씨는 금사공 유충걸이 공주의 유력한 집안이었던 전주이씨와의 혼인을 통해 공주로 입향하는 계기를 마련한 집안으로 그 후손들이 대대로 전주이씨와 통혼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용암리에 유신걸의 묘가 자리잡게 된 데에도 전주이씨 가문과 이와같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신걸(柳信傑, 1604~1637) 유형의 셋째 아들로 자는 백(伯), 1626년 무과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의 관직을 지냈다. 선천군수 김응하(金應河)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탄연(坦然)을 두었다. 유탄연 또한 무과 급제하였고, 유탄연의 아들 성추(星樞)도 무과급제하여 영조 무신란때에 원종(原從)의 공을 세움으로서 가문이 위

상을 드높혔고 유신걸도 손자의 공으로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묘역은 상석과 묘비, 동자석, 석주 등의 석물이 조성되어 있고, 묘비에는 ‘증 병조참판행선전관 유신걸지묘 증정부인 안동김씨 정사년팔월일수(贈兵曹參判行 宣傳官 柳信傑之墓 贈貞夫人 安東金氏 丁巳年八月日暨)’ 이라 새겨져 있다. 유신걸의 묘 전방에도 고총 1기가 있는데 이 묘의 주인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고총 앞의 상석이 유신걸의 묘역 석물과 형태가 비슷하여 유신걸과 가까운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⑮ 오도일, 오수원 묘소(吳道一 吳遂元 墓所)

- 소재지 : 용암리 용머리
- 연 대 : 오도일 묘; 1719년(숙종 45)



용암리 용머리 북서쪽의 자귀동 마을에는 서파 오도일의 묘소와 아들인 오수원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 용암리는 조선시대의 용복리와 송암리의 이름을 합쳐 생겨난 이름으로 묘소위치로 기록된 용복동(龍伏洞)과 같은 곳이다. 오도

일의 문집인 『서파집』의 연보에 보면 1703년에 오도일이 졸하자 선영이 있는 죽산 구봉산(竹山 九峰山; 현 경기도 용인시) 선영에 장사 지냈다가 그 후 16년이 지난 1719년(숙종 45) 10월에 “공주 용복동(公州 龍伏洞)으로 이장”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장자 오수원이 공주에 정착하면서 아버지인 오도일의 묘소를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암리 자귀동 마을 뒷산에는 오산(吳山)이라는 지명이 있다. 이 마을에는 오산의 지명유래가 전해져 오는데 ‘옛날부터 오씨의 산소가 있는 마을’ 이라 하여 불려진 이름이라고 한다. 오도일의 묘소가 있는 곳은 풍수상 기맥이 뭉쳐진 입수 맥에 묘를 쓴 것이라고 하며, 아래로 내려가면 복을 누리며 살만한 땅인 복

지(福地)가 펼쳐져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해주오씨 집안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 유물들은 2011년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기획한 ‘공주의 명가 2’ 에서 전시 되었는데 공주 입향조로 전해지는 오수원과 관련한 문서를 중심으로 하되, 해주오씨 추탄공파의 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특히 오도일을 비롯해 첫째 아들인 오수원과 3째 아들인 오수엽, 그리고 4째 아들인 오수채의 친필 간찰이 공주 파평윤씨 종중에 보관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모두 윤증의 문인으로 특히 오수채는 소론의 영수인 윤증의 손녀딸과 혼인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혼인관계는 물론 학맥 등을 통해 소론명가로 도약했던 해주오씨가와의 교류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밖의 전시자료들은 오윤겸(吳允謙), 오도일(吳道一), 오수원(吳遂元)의 교지를 비롯한 제문(祭文)과 시고(詩稿), 녹패(祿牌), 차첩(差帖) 등이 있다.

⑩ 금암리 요지①

- 소재지 : 금암리 사기점
- 연 대 : 조선

금암리 요지는 공주 구석기유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주 석장리에서 동북쪽으로 약 2.5km 정도 계곡을 따라 들어간 금암리 사기점 마을에 위치한다.

요지는 사기점골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삭토하였으며 주변에 1기의 민묘가 들어서 있다. 현재 요지의 주변에는 소토무더기가 산적되어 있으나 백자편이나 기타 유물은 아주 적은 양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주변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소량의 백자대접 저부편만이 확인된다. 심하게 파손된 작은 편만 수습되어 이로서 정확한 요의 요업활동 시기를 추정할 수 없으나 이곳에서 수습된 유물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볼때 이 요지는 금암리 ②③호 요지와 관련된 유적으로 요지의 운영시기 또한 주변의 요지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태토비짐을 하여 구웠으며 유태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며 제작수법 또한 상당히 단아하다. 따라서 금암리 ①호 요지는 민수용의 자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운영한 조선 중후기의 백자요지로 판단된다. 현재는 건물 조성으로 인하여 지형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요지 일부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⑰ 금암리 요지②

- 소재지 : 금암리
- 연 대 : 조선

사기점골 마을 북서쪽의 해발 354.3m의 장군산에서 동남주한 능선의 남향사면 말단부에 위치한다.

요지는 마을 가운데에 개설된 소로의 오른쪽에 있는데 아래지점은 논으로 위는 밭으로 개간되어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곳은 ‘사기밭’ 이라고 불리우는데 말 그대로 상당수의 백자편과 소토편이 산전되고 있다. 경작지로의 개간으로 인하여 요는 이미 파괴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요지의 상황은 파악할 수 없으나 소토와 자기편의 산포 범위와 지현조건으로 미루어 볼 때 남동향으로 장축을 이룬 요가 2~3기 이상 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습되는 유물은 백자접시편과 종지, 대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곳곳에 요벽 파괴시 외부로 노출된 소토편이 산전되고 있다. 요지는 금암리 ①③요지와 관련된 유적으로 요지의 운영시기 또한 주변의 요지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습되는 유물의 형태가 ③요지와 유사한 것을 미루어 보아 동일지역 내에서 동시에 요업을 전개하던 지역군으로 파악된다. 수습된 유물의 제작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금암리요지는 민수용의 자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운영한 존선 중후기의 백자요지군으로 판단된다.

⑱ 금암리요지③

- 소재지 : 금암리
- 연 대 : 조선

사기점골 마을 전방에 있는 해발 180m의 앞산 서향사면 구름 말단부에 위치하는데 금암리 ②호 요지에서 동남으로 약 100m가량 떨어져 있다.

현재 요지가 위치한 지역은 아산의 말단 구릉으로 오름식가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비교적 평탄한 구릉 사면에 가지편과 소토편이 상당량 산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요역이 상당히 넓으며 2~3기 이상의 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되는 유물은 백자대접과 접시편이 대부분으로 접시의 경우 굽보다 넓은 내저원각을 파는 조선중기의 제작기법을 보이고 있으며 모래받침을 하였으나 유태가 상당히 양호한 점이 특징적이다.

기벽은 상당히 얇으며 구부는 넓게 외반하는 날렵한 기형을 갖추고 있다.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특징적인 유물이 없으므로 수습된 유물의 기형으로 미루어 판단할 경우 이 요지는 조선 중후기에 요업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⑱ 산학리 사지

- 소재지 : 산학리 미학실
- 연 대 : 조선

산학리의 미학실 쌍봉산의 중턱에 동향하여 위치한다. 사지는 산의 경사를 깎아 약 5m 높이로 축석을 한 후 상, 하의 2단 대지를 조성하여 이루고 있다. 현재 이들 대지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밭의 언저리에는 자연석으로 이루어진 초석형의 괴석이 산포되어 있고 주변에는 다수의 기와편과 자기현이 산포되어 있었다. 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면적은 약 50여평만이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인데 이 규모로 보아 이곳에는 소불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사역 내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기와편을 비롯하여 인화분청자편이 수습되고 있어 이 사지는 조선 초기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이 일대는 「효제암」이라 부르는데 이는 이곳에 있던 사찰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묘목의 식재, 비닐하우스 등으로 인해 지형적으로 변형이 심하게 이루어진 상태이며 수습되는 유물은 없다.

⑳ 하봉리 장고개 조선시대 건물지

- 소재지 : 하봉리 282-2
- 시 대 : 조선

이 유적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하봉리는 금강 북쪽의 청룡천과 대교천의 사이에 형성된 해발 200m 이하의 구릉지이다. 하봉리 장고개 유적은 해발 75m 내외의 구릉 능선부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건물지이다. 확인된 유구로는 주초식건물지를 비롯한 굴립주건물지 및 야외노지, 구상유구, 폐기장 등이 있으며 출토유물은 기와, 퇴기, 자기류가 주를 이룬다. 유물의 대부분은 폐기장에서 출토된 것들이며 일부 주초적심 및 굴립주건물의 주공에서 출토된 것들이 있다.

㉑ 도계리 유적

- 소재지 : 도계리 273-15번지
- 연 대 : 조선

조사지역의 지형은 동서방향으로 이어지는 구릉지의 북쪽 사면부에 해당하며, 전술한 ‘공주 하봉리 유적’ 과 연접한 북쪽 사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시굴조사 중 1번, 7번, 9번 트렌치에서 원삼국시대 목관묘, 주구, 수혈유구와 조선시대 토광묘 4기가 확인되었다.

㉒ 평기리 유적

- 소재지 : 평기리 265-4번지 일원
- 연 대 : 조선

평기리 유적은 장군면 평기리 265-4번지 일원이며, 북쪽에 위치한 국사봉(213.8m)에서 남쪽으로 진행되는 주능선이 대교천과 만나는 부근에서 남서쪽으로 분지한 구릉의 정상부 및 서사면과 이 구릉에서 남서쪽으로 다시 분지한 구릉의 동사면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원삼국-백제시대 유구와 더불어 조선시대 분묘 37기가 확인되었다. 분묘는 토광묘와 회곽묘가 조사되었는데, 토광묘의 경우 편방을 갖춘 분묘 2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청동손가락, 백자 발 등이 편방과 목관 상부에 부장되어 있다.

3. 장군면 조선시대 유적의 특징

조선시대에 장군면 지역은 충청도 공주목에 속해 있었다. 장군면 지역은 공주의 중심지역이 아닌 북동쪽으로 전의현, 연기현과 접경하고 있는 시외 지역이었으므로 역사 기록 속의 ‘공주’의 모습의 일부가 장군면 전체지역인 것이다.

장군면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유적은 총 24 곳으로 그중 지정문화재는 2건이다. 그 외에 사우와 영당, 정려, 신도비·묘비·묘, 요지, 사지, 분묘 유적 3곳 등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록으로만 전해질 뿐 현재 터만 남아 있는 유적도 다수 확인 되었다. 확인된 유적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그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아 있는 유적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고 있다.

〈표 7〉 장군면의 조선시대 유적 현황

구분	유적명	위치	시대	유적성격	비고
1	김종서장군 묘소	장군면 대교리 산45번지 외	조선	묘소	시도기념물 제2호
2	장군 덕천군사우	장군면 태산리 101	조선	사우	문화재자료 제6호
3	총렬사	장군면 하봉리	조선	사당	
4	문성영당 터	장군면 송문리 문성마을	조선	영당	
5	진주류씨 삼효열 정려	장군면 하봉리 6-2	조선	정려	
6	충신 유지길 정려	장군면 송학리 253-3	조선	정려	
7	충효 김종서·김승규 정려	장군면 대교리 산45	조선	정려	
8	효자 이면주 정려	장군면 용암리 154-1	근대	정려	
9	유충걸 묘와 신도비	장군면 대교리 독골	조선	묘소, 신도비	
10	덕천군 이후생신도비	장군면 태산리 산 17	조선	신도비	
11	유형신도비	장군면 하봉리 하산	근대	신도비	
12	이덕사 이태연 묘비	장군면 평기리 산 42-13	조선	묘비	
13	김태영·김수 묘소	장군면 대교리	조선	묘소	
14	충의공 유병연 묘역과 충의사	장군면 하봉리 하산	조선	묘소	
15	유담연 묘역	장군면 산학리 비학실	조선	묘소	
16	유신걸 묘	장군면 용암리 띠실	조선	묘소	
17	오도일, 오수원 묘소	장군면 용암리 용머리	조선	묘소	
18	금암리 요지①②③	장군면 금암리 사기점	조선	요지	
19	산학리 사지	장군면 산학리 미학실	조선	사지	
20	하봉리 장고개 조선시대 건물지	장군면 하봉리 282-2	조선	건물지	
21	도계리 유적	장군면 도계리 273-15번지	조선	분묘	
22	세종 평기리 유적	장군면 평기리 265-4	조선	분묘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활발한 사족 활동을 엿 볼 수 있는 자료들 중 대표적인 유적이 정려라고 할 수 있다. 정려는 대체적으로 18세기 후반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건립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선중기 사족들이 마을에 입향하여 세거 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성씨들의 입향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이 역시 조선시대 역사에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씨들이 발의 하여 정려 건립에 앞장서고 신도비나 묘비 문을 써 주는 등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후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유적들의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마을에 유허가 남아있다.

또한 조선시대 유적들 중 대교천을 따라 다양한 매장유적들이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묘지와 유물들이 확인되며, 요지 같은 경우는 동일지역 내에서 발견되고 있어 동시에 요업을 전개하던 지역군으로 파악된다.

제6절 기타 유적

장군면의 기타유적

장군면에 위치한 다양한 문화유산 중에서 특정시기로 구분되지 않는 유적은 총 4지점이다. 이를 기타 유적으로 분류하였는데, 유적은 크게 산성유적과 보호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유적들을 특정 시기로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산성은 기존에 산성으로 알려져 있거나 지표조사 과정에서 성벽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형조건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구체적인 유물이나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산성을 기타 산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보호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문화유산 범주 안에서 구분하기 어려우며, 구분한다 해도 시기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타유적으로 구분한 유적은 <표 8> 과 같다.

<표 8> 장군면의 기타유적

구분	유적명	위치	시대	유적성격	비고
1	평기리 산성	장군면 평기리	미상	성	
2	은용리 산성 ②	장군면 은용리 2구	미상	성	
3	태산리 보호수 ①	장군면 태산리	미상	보호수	
4	태산리 보호수 ②	장군면 태산리	미상	보호수	
5	하봉리 보호수	장군면 하봉리 200-6	미상	보호수	

먼저 기타로 구분된 산성은 평기리 산성과 은용리 산성②이다. 평기리 산성은 평기리와 대교리 사이에 있는 표고 40m의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용리 산성②은 은용리 2구 마을의 북편에 솟아있는 표고 325.1m의 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두 성은 모두 산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테피식 산성으로 판단되나 위치하고 있는 구릉의 표고차가 존재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웅진도읍기에는 웅진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 산성을 중요 교통로상에 환상으로 배치해 이원적인 방어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웅진지역에 있는 산성은 하천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웅진지역을 관통하는 하천으로는 대교천, 유구천, 정안천, 용성천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산성이 이러한 하천 주변에 솟아 있는 야산에 자리하고 있으며 기타유적으로 분류한 평기리 산성이나 은용리 산성도 이와 같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웅진지역의 산성의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게 차이는 없지만 분포양상에서 특징을 보인다. 즉 웅진도성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이다. 그런데 평기리 산성과 은용리 산성은 웅진성인 공산성을 중심으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웅진도성 주변 산성의 외곽 원형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에 위치한다.

더하여 평기리 산성 주변에는 봉안리 고분군, 평기리 유물산포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은용리 산성② 주변으로는 은용리 백제토기 고분추정지와 은용리 산성①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산성 주변의 백제시대 유적과 유물들은 이들 산성이 송정리 산성과 은용리 산성①과 더불어 백제시대 외곽의 방어성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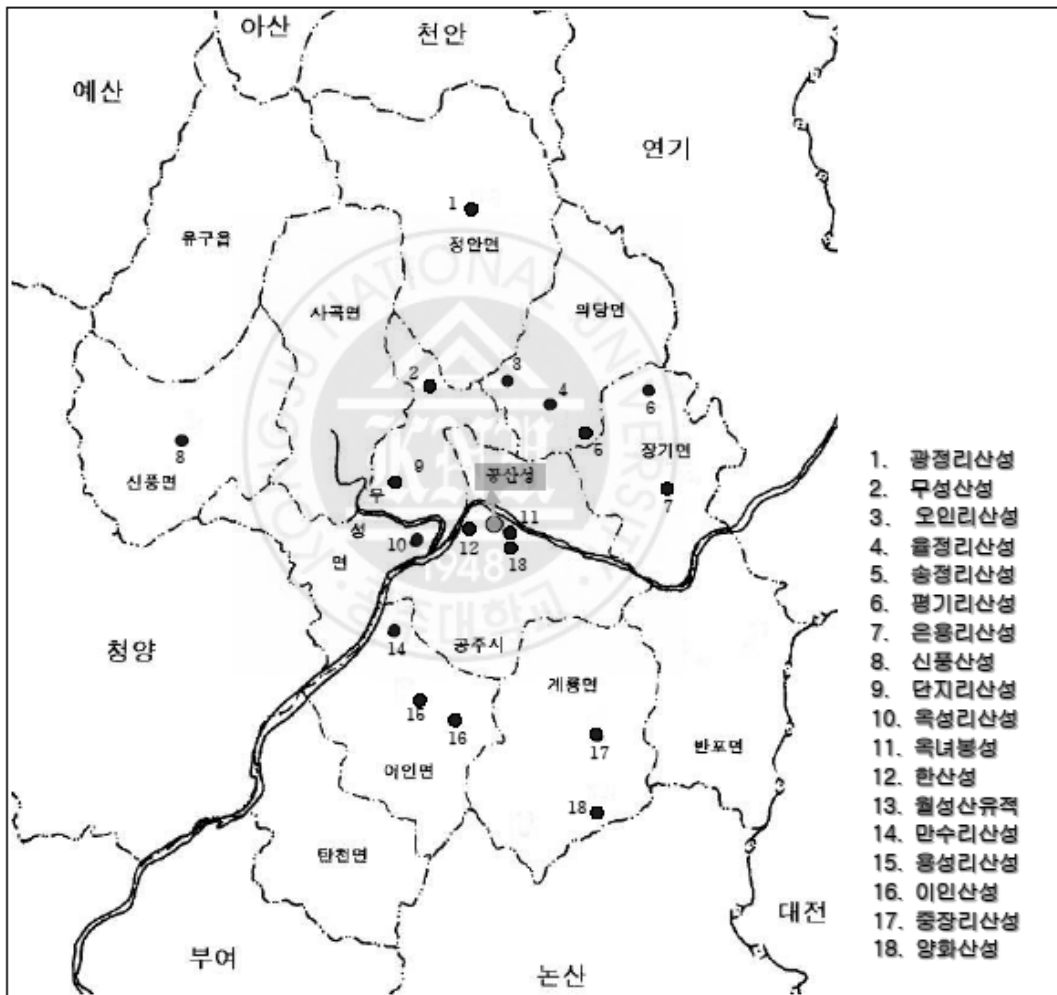
이외에 보호수는 세 그루인데 그 중 두 그루는 태산리에, 한그루는 하봉리 위치하고 있다. 태산리의 보호수의 수종은 느티나무이고 하봉리 보호수의 수종은 은행나무이다. 나무의 수령은 태산리는 각각 500년, 100년, 하봉리는 250년정도이다. 나무의 발육상태는 양호하며, 보호수 주변에 특별한 제사관련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1) 산성유적

(1) 평기리 산성

평기리 산성은 평기리와 대교리 사이에 있는 표고 40m의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주변 지형은 북에서 남쪽으로 뺏어있는 표고 100m이하의 얇은 구릉성 야산이 여러 가지를 이루며 형성되어 있고, 성의 남쪽으로는 서북쪽에서부터 남동쪽으로 굽이져 흐르는 대교천(大橋川)이 접하고 있다. 구릉의 남동지맥 끝 부분 가까이 돌출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산성은 성내에 서면 서쪽과 남쪽으로 하천과 천변 평야가 넓게 펼쳐져 시야가 트여있다.

성은 토축으로 축조되었는데, 주변 지역이 밭으로 경작되어 성벽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즉, 동벽과 남벽은 성벽이라고 인정할 만한 토루(土壘)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서벽과 북벽이 만나는 곳 극히 일부에서만 성벽의 일단이 확인된다. 성내의 시설물들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외편 일부만이 수습된다. 기와편은 선조문에서 복합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양이 나타나게 된 것들이다.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공주문화유적』>



<그림 7> 웅진성 주변 산성 분포도

(2) 은용리 산성 ②

장군면 은용리 2구 마을 마을의 북편에 솟아있는 표고 325.1m의 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산의 주변으로는 서쪽에서 동쪽방향으로 시루봉(354.3m)-장군봉(354.3m)-무학봉(316.5m)의 높은 봉우리들이 능선을 따라 연이어 있다. 연이어진 산맥은 북쪽의 은용리와 남쪽의 장암리(壯岩里), 금암리(錦岩里)를 경계지이며 동-서방향으로 병풍처럼 솟아있는데, 산성은 시루봉과 장군봉의 사이에 자리한다. 성은 정상부를 둘러싼 있는 둘레 약 300여m의 토축산성으로, 성내 지형은 정상부가 높고 주변이 낮아지는 테피식 산성이다. 주변으로 연이어진 길쭉한 능선의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어 평면 형태는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길쭉한 장 타원형을 이룬다.

성벽은 붕괴된 부분이 많지만 흔적이 잘 남아있어 성선의 축조방향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북벽과 남벽은 능선 선상부가 성내외로 연결되는 부분인지라 두텁게 협축(夾築)으로 축성되었던 흔적이 계측되는데, 남·북벽 모두 외벽이 10m 이상 높게 남아있으며, 내벽은 약 70~80cm정도가 잔존한다. 서벽은 모두 붕괴되어 현재는 경사면 일부를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벽은 지형에 따라 곡물을 이루며 축조되었던 성벽의 경사면과 성내 평탄면만이 남아있다. 성내에는 소규모의 평탄 공간이 형성되어 있지만 민묘의 조성으로 지형 훼손이 심하다. 확인되는 부대시설은 없으며, 유물 또한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사용 시기는 알 수 없다.

〈公州大學校 博物館·公州市, 1995, 『公州文化遺蹟』〉



〈사진 56〉 은용리 산성② 성벽 근경

2) 보호수

(1) 태산리 보호수 ①

장군면 면소재지에서 691 지방도를 따라 북쪽으로 약 5km 정도 가다보면 ‘용대’ 마을로 진입하는 소도로가 나오는데, 태산리 보호수①는 ‘용대’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다. 1982년 10월에 공주시에서 관리번호 8-2호 지정되었다. 수종은 느티나무이며 수령은 500년이다. 보호수의 수고는 18m이고 나무둘레는 640cm이다. 보호수 주변에 특별한 시설은 없으며 발육상태는 양호하다.

(2) 태산리 보호수 ②

장군면 면소재지에서 691 지방도를 따라 5km 정도 북쪽으로 가면 전의 방면으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전의 방향으로 691도로를 타고 약 1km 정도 가다보면, 의량초등학교로 진입하는 소도로가 나오는데, 태산리 보호수②는 의량초등학교 뒤편 ‘사우말’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호수의 관리번호는 7-5이고 수종은 느티나무이며 수령은 100년이다. 보호수 주변에 특별한 제사관련 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육상태는 양호하다.

(3) 하봉리 보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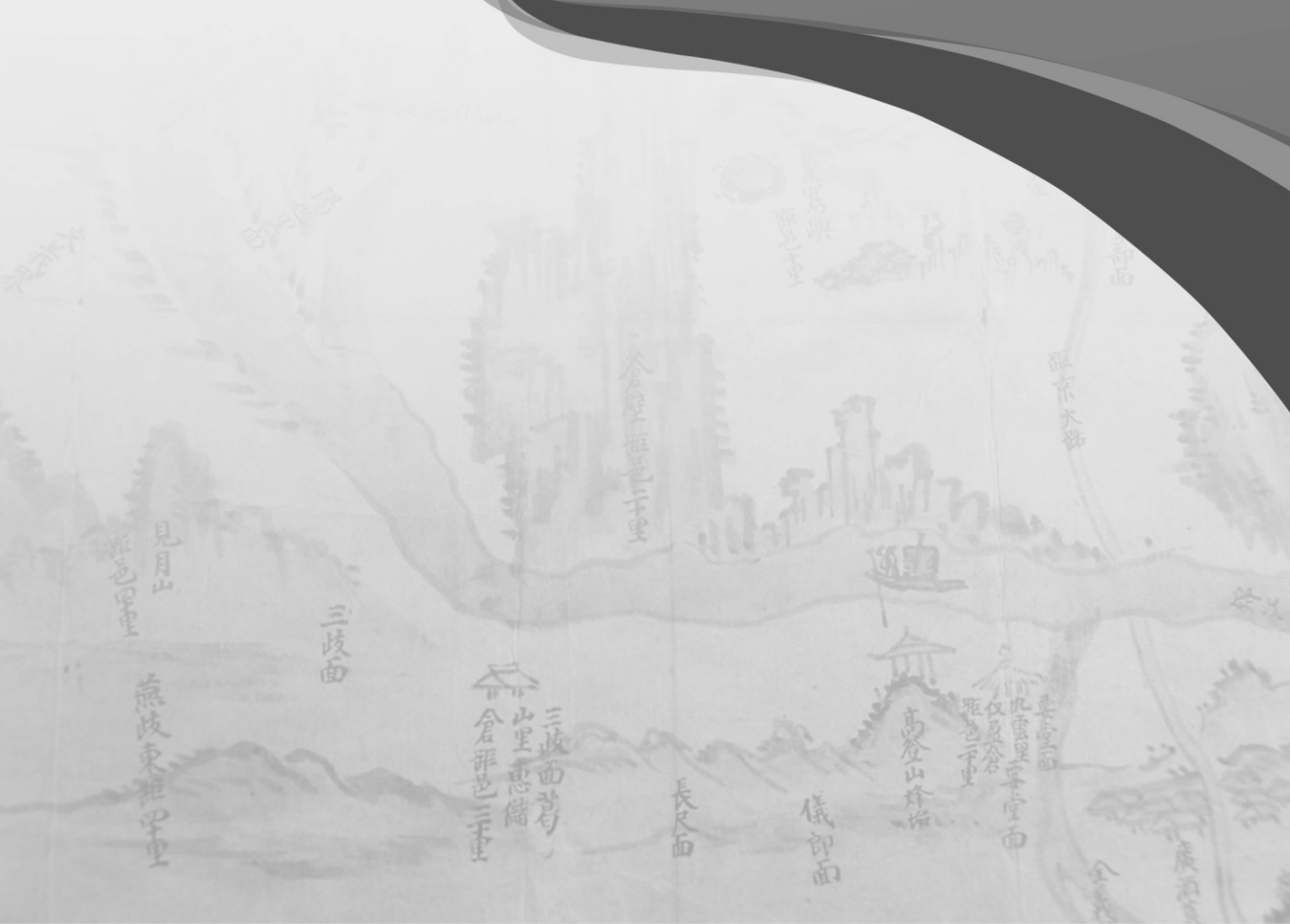
장군면소재지에서 하봉리 방향으로 2km 정도의 거리에 하봉저수지가 있다. 하봉리 보호수는 저수지에서 서쪽으로 약 3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보호수는 1982년 10월1일 지정되었으며 현재 관리번호는 세종-41이다. 수종은 은행나무로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나란히 서있어 쌍둥이 은행나무라고 불리고 있다. 보호수의 수령은 약250년 정도이며, 수고 14m, 나무둘레 3.8m 정도이다.



〈사진 57〉 하봉리 보호수 전경

將/軍/面/誌

마을편



마을별

1. 도계리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1.59km ²	
	경지면적	70.71 ha	
인구	가구	총가구 (468가구), 농가 (115가구), 비농가 (353가구)	
	인구수	합계 (990명), 남자 (510명), 여자 (480명)	
	60세이상	150명(15%)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1) 마을개관

장군면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한다리의 맑은 계류(溪流)를 높이 사서 도계(道溪)라 하였다. 북쪽은 송문리, 평기리, 대교리, 동쪽은 봉안리, 남쪽은 은용리, 서쪽은 하봉리, 송정리와 접해 있다. 지방도 691번이 남부에서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어 북서쪽으로는 대교리, 남동쪽으로는 은용리에 연결된다. 또한 시도가 남부에서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 북동쪽으로는 평기리에, 남서쪽으로는 하봉리에 연결된다.

도계리의 중부와 남부에는 각각 해발고도 1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북부와 동부에는 대교천(大橋川)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흐르면서 해발고도 60여m의 충적평야가 있다. 대교천 유역에는 인공제방이 대규모로 축조되어 있다. 대교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로 도계리의 주요 작물인 고추를 생산하고 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면적은 1.59km²이며, 총 468가구에 990명(남 510, 여 480)의 주민이 살고 있다. 총 경지 면적은 70.71ha이다. 1987년 4월 1일 공주군 조례 제992호에 의거 장기면 도계리가 1리, 2리의 행정리로 개편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봉계, 삼거리, 아래풍덕골, 한다리 등이 있다.

도계리는 장군면의 행정·경제·사회·교육 등의 중심지로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의용소방대, 치안센터, 예비군중대, 보건지소, 금융기능을 담당하는 농협, 새마을금고,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다. 또한 한의원, 의원, 약국 등 의료서비스, 정육점·치킨 등의 식품점, 세탁소, 옷가게 등의 의류점, 편의점, 슈퍼 등의 생활용품점, 대중음식점·주점 등의 요식업류, 여관 등의 숙박업류, 사설학원, 다방, 당구장 등의 여가오락류, 미용실, 이발소, 부동산중개소, 주유소 등의 영리성 서비스류, 각종 공업사 등의 제조업기능, 농협연쇄점 등의 시장기능, 마을회관·노인회관 등의 사회복지기능, 성당, 교회 등의 종교기능, 농약사 등의 농사관계기능을 갖는 기능체들이 분포하고 있다.

취락구조는 가촌(街村) 형태로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일반적인 2층 콘크리트 구조물들로 대부분 1층은 상가,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종시 중심지와와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원룸, 전원주택, 근린상가 등이 국도 주변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다.



도계리 중심지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했고 신라 때는 응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다. 조선 말기에 공주군 장척면(長尺面) 지역으로, 1914년 장척면 봉계리(鳳溪里)·삼거리(三巨里)·상풍리(上豊里)·중풍리(中豊里)·하풍리(下豊里)·평기리(坪基里)의 일부가 통합되어 장기면 도계리로 개편되었다. 1995년 공주군이 공주시와 통합되면서 공주시 장기면 도계리가 되었다.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편입되었다.

(1) 지명유래

- 상풍(上豊) : 풍덕골 위쪽에 있는 마을. 위풍덕골
- 중풍(中豊) : 풍덕골 가운데에 있는 마을로 가운데풍덕골이라고도 불리며, 마을에는 150여년이 된 팽나무와 바위가 자리하고 있음. 이곳은 과거에 주민들이 일하다가 쉬던 곳으로 배고플 때 한탄하며 울던 자리였다고 전함
- 하풍(下豊) : 풍덕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 아래풍덕골
- 사장들 : 도계리와 은용리 사이의 넓은 들. 전에 사정이 있었음
- 상정말 : 중풍과 하풍 사이의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서쪽의 고개로 안동네와 연결됨
- 상정말고개 : 안동네에서 상정말로 넘어가는 고개

- 안동네 : 장기초등학교 동쪽에 형성된 마을
- 풍덕골 : 안동네 동쪽 구릉과 은용천 서쪽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마을로 은용천을 따라 상풍, 중풍, 하풍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전에 곡식을 저장하던 사창이 있었다고 전함
- 구도계 : 도계교 서쪽 마을. 원래 도계의 중심지이었음. 일제시대에 대교리에 있던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많은 기관이 구도계 동편으로 이전됨에 따라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구도계라 부름
- 대교원터(大橋院) : 지금의 장기초등학교 자리로 예전에 대교원(大橋院)이 있었던 곳이라 함
- 봉계(鳳溪) : 한다리 북서쪽에 있었던 마을
- 삼거리 : 도계리에서 중심이 되는 거리. 장기농협에서 장기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의 교차로로 세 갈래 길이 있어 붙은 이름임. 지금은 시가지화 되어 있음
- 수만들 : 참시령골 북쪽, 대교천변의 넓은 들
- 시장터 : 도계교 서쪽, 근동천 주변지역에 시장이 섰음. 지금은 건물이 많이 들어차 있음
- 참시령골 : 도계교 북서쪽에 있는 마을. 매우 찬 물이 나는 샘이 있음
- 한다리 : 도계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한다리가 있음. 장군면사무소를 비롯하여 경찰지서, 우체국 및 초등학교가 있고, 또 시장이 있어서 장군면의 요지가 됨
- 한다리내 : 한다리 동네 북쪽에 있는 내
- 한다리내뚝 : 한다릿들에 있는 뚝으로 한다리내의 유역을 막았음. 대교천제방(大橋川堤防)
- 한다릿들 : 사장들 아래에 있는 큰 들

(2) 마을의 민속 · 문화

- 안향 두레

두레는 농촌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 작업을 하는 것으로 도계리에는 안향 두레가 있었다. 두레는 두레싸움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강화시켰다.

두레 싸움이란 두레 공동체가 활발해지면서 같은 들판에서 2개의 두레가 일을 시작하면 농지 소재지 마을 두레(본동 두레)와 외지 지주 두레(타동 두레)가 만나게 되는데 타동 두레가 본동 두레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외지인이 농토를 경작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본동 두레들이 시비를 걸어 싸우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두레는 두레마다 두레 싸움을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었다.

196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공주 지역의 두레에 관한 저술(1999, 이결재)에 의하면, 표본 44개 마을 중 두레 싸움을 하지 않았던 두레(3곳), 1동네와 싸운 두레(19곳), 2동네와 싸운 두레(14곳), 3동네와 싸운 두레(5곳), 4동네 이상과 싸운 두레(3곳)로 구분하였다. 도계리 안향 두레는 4동네 이상과 싸운 두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적 현황

리	개소	시대	문화재 성격	비고
도계리	3	청동기(1)	유물산포지	
		원삼국(1)	고분	
		조선(1)	고분	

3) 마을의 생활환경

(1) 마을조직

도계리의 행정 현황

행정리	반	자연마을명	반장명	가구수
도계1리	1	안동네	조영철	
	2		전서은	
	3		황삼익	
	4	풍덕골	한옥현	
	5		최학진	
	6	안동네		
	7			
도계2리	1	시녕골	김홍복	
	2		최현일	
	3		이시형	
	4		황명숙	

도계리 마을조직

행정리	조직	인원	주요활동
도계리	노인회		마을의 대소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음
	부녀회		마을 행사 및 애경사의 음식지원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한우작목반		도계2리 작목반으로 한우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공동체모임

역대 이장명단

행정리	순번	성명	임명기간	비고(수상여부)
도계1리		고영기		
		고영철		
		전영길		
		이흥세		
도계2리		한상건		
		한상록		
		최해운		
		김종천		
		한경희		

(2) 마을 공공시설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의용소방대, 치안센터, 예비군중대, 보건지소, 금융기능을 담당하는 농협, 새마을금고,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다.

장군면 주민자치센터는 장군면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하고 남은 시설과 공간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장군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목적은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여가 기능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28명)들이 주민센터 1층 헬스장(98.7㎡), 2층 대회의실(216㎡)의 시설과 장기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초등학교는 1930년 6월 5일 장기공립실통학교로 개교하여 1950년 6월 1일 장기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13년 현재 총 7학급(초등 6학급, 특수 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시설로 다목적강당, 도서관, 유치원 등이 있다.

도계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장군면자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의실, 헬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7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여가 기능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도모 	
장기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년 6월 5일 개교 - 2013년 현재 총7학급(초등 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2학급 편성 - 다목적강당, 도서관 등 운영 	
장기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년 6월 장기 농업협동조합으로 면 일원 합병하면서 출발함 - 지역의 핵심 금융기관으로 영농 조합원들의 편의지원을 위한 각종사업 운영 - 농산물유통 및 영농지원시설(저온 저장고, 하나로마트), 경제사무실, 농용자재 판매 등 운영 	
장군치안센터	<p>1992년 12월23일 공주경찰서 소속 장기치안센터로 준공되어 운영되다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편입되어 한솔파출소 장군치안센터가 됨</p>	



상풍



중풍



하풍



안동네



도계삼거리



도계새마을회관



저운창고



천주교 장기공소



가로고개



도계교



도계교



농촌풍경



구도계



장기초 앞길



장군면전담 의용소방대



장군우체국



도계2리 표지석



2. 대교리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5.45km ²	
	경지면적	118.26ha	
인구	가구	총가구(323가구), 농가(143가구), 비농가(180가구)	
	인구수	합계 (706명), 남자 (379명), 여자 (327명)	
	60세 이상	151명(21%)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도계리의 경계에 있는 다리의 이름을 따서 대교(大橋)라 하였다. 장군면의 중동부에 위치하여 동쪽과 북쪽으로 세종시 연기면, 서쪽으로 평기리, 도계리, 남쪽으로 봉안리에 접해 있다. 시도가 남부에서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 북동쪽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에, 남서쪽으로는 평기리에 연결된다.



대교천

2013년 12월 31일 현재 면적은 5.45km²이며, 총 323가구에 706명(남 379, 여 327)의 주민이 살고 있다. 총 경지 면적은 118.26ha이다.

대교리의 북부에는 국사봉(國師峰, 213.8m)을 비롯하여 해발고도 2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동부와 서부에는 100m의 비교적 낮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남부에는 대교천(大橋川)의 지류가 남북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주변에는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대교천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에서 발원하여 장군면 일대를 거치면서 충적평야를 이루며 금암리에서 금강으로 합류하는 지방 2급 하천이다. 상류부에서는 해발고도 약 200m 지점을 흐르며, 중류부에서는 약 100m, 하류부에서는 약 40m 지점을 흐른다. 대교천의 지류 유역에는 인공제방이 일부 축조되어 있고, 북부에는 대교저수지가 있다. 대교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유역과 완만한 구릉성 지대, 평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정계·구셋골 등의 자연마을이 들어서 있다.

대교리는 조선시대 공주 장기면의 중심지로 면사무소와 시장 등이 있었으나 대교천 범람 이후 도계리로 옮기면서 중심기능은 쇠퇴하였다. 최근에는 세종시 조성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교2리와 3리 일대에 원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한 들이었다. 신라 때는 응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 목에 속했다. 조선 말기에 공주군 장척면(長尺面) 지역으로, 1914년 장척면 요당리(要堂里)·상독리(上獨里)·유산리(柳山里)·울곡리(栗谷里)·정계리(淨溪里)·신주막(新酒幕)의 일부가 통합되어 대교리로 개편되었다. 1995년 공주군이 공주시와 통합되면서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가 되었다가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편입되었다.

(1) 지명유래

- 국사봉(國師峯) : 대교리 북쪽에 있는 산으로 동쪽과 북쪽으로 세종시, 서쪽으로는 공주시 의당면을 아우름. 봉우리가 수려하고 남쪽 밤실에는 김종서장군묘가 있으며, 장군면의 진산 역할을 함
- 김종서장군묘(金宗瑞將軍墓) : 대장골에 있는 단종(端宗) 때의 충신 절재(節齋) 김종서(金宗瑞) 장군의 산소로, 장군은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에서 출생하여 세종 때 6진 개척의 위업을 이루었고, 고려사절요 등을 편찬하였음. 2012년 12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됨
- 대교저수지 : 국사봉에서 흐르는 울곡 상류에 위치한 저수지
- 대장골(大將-) : 밤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 단종 때 충신 김종서의 산소가 있음
- 말무덤 : 대교 1리 회관 옆에 있으며, 단종 때 수양대군에게 김종서 장군이 죽자, 김장군의 말이 김장군의 한쪽 다리를 물고 한양에서 벗어나 여기에 와서 죽었다 함. 그래서 말의 무덤을 만들어 주어서 말무덤이라고 함
- 망태기골 : 큰망태기골, 작은망태기골 등
- 밤실 : 울곡(栗谷)이라고도 불리며, 지금의 대교 1리 대교천이 굽이도는 벌터로부터 정계 부락 사이의 명당터를 말함. 여기에서는 좌청룡우백호(左靑龍右白虎)가 길게 뻗어 청룡날이 지네형으로 되어 있는 형국으로, 만약 지네가 남쪽 들로 나오는 경우 김장군 후세들의 명당자리가 없어지게 되므로 어귀에 밤나무를 심고 지네가 흘러가지 못하게 한 지역임. 밤나무를 많이 심은 마을이라 밤실 또는 울곡(栗谷)이라 불렀으며, 이곳에는 김종서 장군의 묘가 자리하고 있음

- 아랫말 : 울곡천의 중류에 위치하며, 마을은 서편 산록에 형성되어 동향을 이루며, 남쪽에 외숫골이 있음
- 울곡천 : 대교1리 북쪽골짜기 저수지와 김종서 장군 묘역 앞에 흐르는 물이 진동날(지네혈) 앞에서 만나 남쪽으로 대교천으로 유입하는 하천. 회동 부근에서부터 평기리와 경계를 이룸
- 외숫골 : 아랫말 아래(남쪽),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 이름도 같음
- 큰절골 : 대교저수지가 있는 골자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함
- 광산골 : 양달뜸과 절골 사이의 서쪽 골짜기. 전에 광산이 있었다고 함
- 다락바위 : 다락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다락바위라고 부름. 옛말에 장수 한 사람이 산과 산을 뛰어다닐 때, 이 바위를 밟고 다녔으며, 그 때 밟은 발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는 바위임
- 덕고개 : 양달뜸 바로 아래쪽(남쪽)에서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독골 : 정계 북동쪽 골짜기 끝자락에 있는 마을로 산골짜기에 외롭게 자리한 마을로 옛날부터 선비들이 글을 읽기에 좋은 마을이었다 하여 독동(獨洞) 또는 독곡(獨谷)이라고도 불림. 서쪽 1km 국사봉 중턱에 약수사가 있음
- 새뜸 : 음달뜸 북쪽, 광산골 동쪽의 정계천에 건너편에 형성된 작은 마을
- 양달뜸 : 정계 북쪽에 있으며 정계천을 앞에 두고 동향으로 형성된 마을
- 유산(柳山) : 정계 서쪽에 있는 마을. 진주 유씨의 산소가 있음. 유산리
- 음달뜸 : 양달뜸의 앞쪽(동쪽), 정계천 건너 편 산기슭에 서향으로 형성된 마을
- 절골 : 하독골 서쪽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함
- 정계(靜溪) : 대교리 남쪽에 있는 큰 마을로, 산이 마을을 보호하고 마을이 농기구인 쇠스랑 모양으로 되어 있어 예부터 농사가 잘 되는 마을이라 함. 마을 앞에 큰 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정계 또는 진계라고도 불리며, 진계제방 등이 있음
- 정계천 : 국사봉에서 발원하여 울곡천 동쪽 골짜기를 따라 남쪽으로 흘러 봉안리와 경계를 이루며 대교천으로 유입함
- 지경재 : 정계교 동북쪽에 있는 고개. 예전에 한다리에서 연기리(세종시)로 통하던 작은 도로로 고개 마루에 이르기 전에 메추리 농장이 있음
- 하독골 : 아래 독골. 정계를 따라 하천 연안에 조성된 논밭이 끝나며 좁은 골짜기로 접어드는 초입에 있는 마을

- 구석골 : 마을이 소 구유(소의 먹이를 담는 그릇) 형국이라 하여 구유의 충청도 사투리인 구수로 부르다가 구석골로 바뀜
- 대교삼거리 : 봉안 방향과 정계(연기) 방향이 갈리는 삼거리
- 대교시장터 : 조선시대 대교천 주변에 우시장을 중심으로 큰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시장, 면사무소, 우체국 등이 있어 장기면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음. 하지만 1900년대 초 대교천 홍수로 인해 유실되면서 시장과 면사무소, 우체국 등이 도계리로 옮김
- 대봉교(大鳳橋) : 대교리와 봉안리 경계에 있는 다리. 장군면에서 세종시(조치원읍)로 통함
- 아래주막 : 밤실 아래 주막이 있어 아래주막이라 불렀으며, 과거에는 연기군에서 공주로 가는 길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 주막이 있었음
- 주막거리(신주막) : 장기면 대교리의 남서쪽으로 옛 국도변을 중심으로 과거에는 큰 장이 있었다고 함. 그 주위를 배경으로 흔히 장날에 술집, 탁주집이라 하는 주막집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큰 거리에 주막이 있다 하여 합쳐 부르길 주막거리라 하였음
- 취락구조 : 대교3리의 3반으로 새마을 운동 시기에 공주시 취락개선 시범마을이 형성되어 취락구조마을이라 불렀으며, 이시기에 외부에서 많은 주민들이 유입되었음
- 하주막골 : 주막거리 인쪽에 있었던 주막이라 하여 아래주막 또는 하주막이라 부름



취락구조 마을

(2) 마을의 민속 · 문화

- 용왕제

대교리 주민들에게 이 마을에서 태어나 외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손들의 안녕과 농사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의 우물에서 용왕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정월 초사흘날 소지값을 걷어 열이틀날 3일기도를 드린 후 열나흘날 용왕님께 제를 올린다. 열나흘날 새벽이 되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모두모여 미역국을 나누어 먹고 풍장을 치고 마을을 돌며 깃발을 들어 신명나게 지내는 제사이다. 그리고 보름날에 주민들이 모두 모여 윷놀이를 벌이며 마을의 행운을 기원한다고 한다. 현재도 마을에 우물이 남아있어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 김종서장군묘(金宗瑞將軍墓)

김종서 장군은 고려 우왕 9년(1383) 의당면 월곡리 출생으로 조선 단종 때의 충신으로 자는 국향(國鄉), 호는 절재(節齋),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태종 5년(1405)에 문과에 급제한 후 1433년 함길도절도사가 되어 세종 16년(1434)에 육진을 개척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았다. 또한 고려사절요 등을 편찬하였다. 문종 때 우의정이 되고, 이어 좌의정이 되어 나이 어린 단종을 받들었다. 단종 원년(1453)에 수양대군이 꺾한 단종의 비극이 시작될 때 삼부자가 몰살당한 김종서의 묘이다.

현재 김종서 장군 묘의 비석과 홍살문 등은 영조 22년(1746) 김종서 장군의 충절이 재평가 되어 복관(復官)되면서 조성되었다. 이때 김종서 장군 묘에 비석이 세워졌으며, 장군과 함께 죽은 삼부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장군의 묘 입구에 홍살문과 효자각을 세워 효행을 기리고 있다. 또한 김종서 장군의 묘는 순천 김씨의 종산으로 장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가 함께 있다. 김종서 장군의 할아버지인 김태영은 고려시대 사헌부 지평, 병조판서를 지냈으며, 아버지 김추(金鍾)는 도총제를 지낸 분으로 고려와 조선시대의 문무를 갖춘 집안으로 큰 의미가 있다.

김종서 장군 묘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16호였으며 2012년 12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11월 유림 및 관내 기관장들이 제향을 지내고 있다.



김종서 장군묘와 홍살문

- 한다리 전설

「한다리 전설」은 대교리에서 김종서의 무덤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공주민속』(공주문화원, 1992)에 의하면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려, 단종을 지키려는 김종서 장군의 집을 새벽에 쳐들어가 죽이고 능지처참하였다. 이 광경을 보던 김종서 장군이 평소에 아끼던 말이 느닷없이 뛰어와서 장군의 다리 한 편을 물고 한양을 뛰쳐나와 여기까지 와서 죽었다 한다. 마을사람들은 김종서의 다리 하나만을 물고 묘를 썼다. 그 무덤이 있는 곳을 ‘한다리’라고 하는데, 한자어로는 ‘대교리(大橋里)’라고 쓴다.

- 충마사

김종서 장군이 기르고 함께 전쟁에 수차례 참여했던 말이 장군이 전사하자 장군의 뼈를 물어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 말의 무덤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말의 넋을 기렸다고 한다. 현재는 이 말의 무덤은 남아있지 않으나 이를 기리기 위해 주민들이 정자를 건립하여 기념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말이 어떻게 이곳을 기억하고 찾아왔는지 알 수는 없으나 김종서의 부모님들이 자주 찾아 요양하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3) 유적 현황

리	개소	시대	문화재 성격	비고
대교리	2	조선(1)	분묘, 정려	시도기념물

3) 마을의 생활환경

(1) 마을조직

대교리의 행정 현황

행정리	반	자연마을명	반장명	가구수
대교1리	1	아랫말	박종근	22
	2	들방	우종철	12
	3	막달	백승태	25
대교2리	1	양달뜸	정해윤	14
	2	아랫말	임호	15
	3	음달뜸, 새뜸, 절골, 하독골	정희상	25
	4	독골	유정호	10
대교3리	1	주막거리	이영순	24
	2	윗 구셋골	서근만	17
	3	취락구조	김윤식	20

대교리 마을조직

행정리	조직	인원	주요활동
대교1리	대동계		주로 마을의 가구주들만 가입하고 있으나 청년회 부녀회 등과 함께 마을의 대소사를 맡아 운영함
	청년회		마을의 젊은이들이 마을의 대소사의 일이 있을 때 일선에서 힘을 모아 진행하는 모임
	부녀회		마을의 대소사 시 음식지원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노인회		마을의 대소사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음
대교2리	연반계	130	마을의 대소사를 맡아 운영하는 동계
	부녀회	60	마을행사시 음식지원 활동
	노인회	30	마을의 대소사 자문 역할
대교3리	청년회	32	마을의 애사관련 활동 및 체육 활동
	부녀회	45	마을 행사 진행 및 음식 준비
	대교3리 마을회	45	상호간 단결 목적

역대 이장명단

행정리	순번	성명	임명 및 재임 기간	비고(수상여부)
대교1리	1	박동순		
	2	박은규		
	3	정순래		
	4	우종선		
	5	김동윤		
	6	박종옥		
대교2리	1	김태섭		
	2	이동준		
	3	전호길		
	4	박종석		
	5	김춘식		
	6	정복수		
	7	박승근		
	8	이재만		
	9	김지천		
	10	원종윤		
	11	박갑성		
	12	이봉재		
	13	박수연		
	14	김남식		
대교3리	1	임헌옥	87년 5월~90년 5월	
	2	전명복	90년 5월~93년 5월	
	3	이병춘	93년 5월~98년 5월	
	4	박종면	09년 5월~현재	

(2) 마을 공공시설

대교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1리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약 120㎡ - 1층 구조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 	
2리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약 90㎡ - 1층 : 1980년대 건립하였으며, 농업공동체활동, 생활공동체활동 등의 회의 장소로 사용 - 2층 : 노인들을 위한 교육과 함께 휴식, 여가생활 장소로 사용 	
3리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약 120㎡ - 1990년 건립하였으며, 2000년도에 2층으로 증축하였으며, 1층은 경로당과 회의 장소,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 	



장기농협간이집하장



태불사 장승



아랫말



밤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세종사 가는길



하독



독골



대교시장터



대교삼거리



대교3리 표지석



대교



3. 평기리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5.45km ²	
	경지면적	118.26ha	
인구	가구	총가구(189가구), 농가(86가구), 비농가(103가구)	
	인구수	합계 (416명), 남자 (210명), 여자 (206명)	
	60세 이상	76명(18%)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마을이 충적평야에 위치하고 있어 벌터 또는 평기(坪基)라 하였다. 장군면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동쪽으로 대교리, 남쪽으로 도계리, 서쪽으로 송문리, 북쪽으로 용현리와 접해 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면적은 5.45km²이며, 총 189가구에 416명(남 210, 여 206)의 주민이 살고 있다. 총 경지 면적은 118.26ha로 면 전체 면적의 6.70%를 차지하고 있다. 대교천과 정계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평기리의 동부·북부·중부로는 해발고도 1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서부와 남부로는 대교천(大橋川)이 남북 방향 및 동서 방향으로 흐르며, 주변에 해발고도 60여m의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 평야는 ‘평기앞들’ 이라고 불리운다. 이외에도 중부로 정계천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며, 해발고도 60여m의 충적평야가 있다.

하천 유역과 평야 지대에 벌터·회골·밤실·평장골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지방도 691번이 남북 방향으로 뻗어 동쪽과 남쪽으로는 대교리에, 북쪽으로는 용현리에 연결된다. 이외에도 소규모의 도로가 지방도 691번에 연결되어 있다.



평기리 전경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한 들이었다. 신라 때는 응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 목에 속했다. 조선 말기 공주군 요당면(要堂面) 지역으로, 1914년 요당면 산양리(山陽里)·평장리(平章里)·회동(會洞)·태성리(台城里)의 일부가 통합되어 평기리로 개편되었다. 1995년 공주군이 공주시와 통합되면서 공주시 장기면 평기리가 되었다.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편입되었다.

- 평기리 토성(坪基里 土城)

마을의 뒷산에 있는 백제시대의 토성이다. 평기리 토성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축조 시기를 알 수 없다. 다만 예전에 지표 조사를 통해 주변에서 백제토기편이 수습된 일이 있다. 때문에 백제시대 때 축조된 토성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웅진 왕도에서 동쪽으로 통하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기리 토성이 있는 곳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지맥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이 붕괴되어 성벽의 통과선마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벽의 대부분이 완전히 유실된 상태이며, 다만 주변에서 백제토기편이 출토되고 있다. 성내의 평탄면이 모두 밭으로 경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묘 조성과 개간 등으로 인해 성벽을 거의 확인할 수 없다. 동쪽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을 뿐인데, 이것도 성벽인지 불분명하다. 성벽은 약 1m 정도의 높이로 남아 있다. 이 성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성벽의 둘레는 350m에 이른다. 평기리 토성은 위치상으로 볼 때 공주에서 종촌을 거쳐 대전이나 조치원·천안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다. 하지만 성벽의 원형은 나날이 훼손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평기리 산성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져, 규모는 물론이고 축성법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 이태연(李泰淵)

자는 정숙(靜叔)이고, 호는 눌제(訥齊)다.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인조 24년(1624)에 진사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정언(正言)을 비롯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효종 원년(1650)에 공주현감을 지내고, 김자점(金自點) 일파로 탄핵을 받아 파직되

었다. 서기 1652년 당진현감에 등용되어 이어 효리(孝理), 필선(弼善), 보덕(輔德), 사간(司諫), 응교(應敎) 등을 역임하고, 그후 충청도 관찰사, 경주부윤(慶州府尹), 전라도 관찰사, 승지, 병조참의, 경상도 관찰사, 조선시대참의 등을 지낸 문신이다.

(1) 지명유래

- 문성삼거리 : 평기리 상정말에서 문성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대교천에 있는 문성교를 건너 송문리의 문성으로 통합
- 벌터 : 평기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평기리의 중심임. 벌터는 멧물을 밀어낸후 터를 잡아 형성한 마을로 특히 이 지명에서 유래한 ‘억센벌터’, ‘억센벌터사람’이라는 말은 마을의 형성과정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아수골 : 큰골 동쪽에 있는 마을. 사마석이라는 비석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며 사마석골로 불리던 곳이 사아수골로 불리게 된 것으로 추정됨
- 산양 : 평장골 북동쪽 골짜기. 아세아 산업개발 공장이 있고, 바로 이웃에 장안사가 있음
- 상정말 : 벌터 위쪽에 자리한 마을로 윗말이라고 하며, 문성으로 가는 삼거리가 있음. 간혹 갯정말로 불리기도 함
- 장수눈물바위 : 벌터 마을 입구에 있으며 장수눈물바위라도 부름. 바위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옛적에 한 장수가 과거 의당면 송정리에 있는 장군바위에서 은용리 장군봉까지 건너뛰다가 그만 실수하여 이곳에 떨어져서 바위가 갈라졌다. 바위가 갈라지면서 바위가 울기 때문에 바위에서 물이 흘렀다. 이것은 슬퍼서 바위가 우는 것이라고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바위이다.
- 장승배기 : 평기에서 송문리 문성으로 가는 삼거리에 있었던 마을로 장승이 있었음. 지금은 장승도 없어지고 이름만 전함
- 태성(台城) : 태성산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태성 부근에 자리한 마을이라 台城山 이름을 따라 태성이라 부름
- 평장골(平章골) : 벌터 북쪽 골짜기로 이 부근엔 명당이 있으므로 예부터 평토장(平土葬)한 것이 많이 있음

- 횃골 : 별터 동북쪽 산 너머 마을로 옛날에는 이곳에서 석회가 나왔다 해서 횃골 또는 회동이라 부름
- 절골 : 아세아 산업개발 뒤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과거에는 절이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도 절골이라 불리는 지역임
- 돌다리 : 평기리 별터마을 서쪽 마을에 있는 돌다리는 마을에 사는 박씨라는 장정 한 사람이 돌을 지게로 운반해서 여기에 돌다리를 놓았다 한다. 지금은 그 돌다리가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음
- 함봉 : 분탄들이 내려보이는 봉우리로 태조이성계가 켈터를 잡기위한 지세를 보이기위 함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랐다고 하여 함봉이라 이름 붙여진 봉우리임
- 꽃박골 : 산의 형상이 일반 꽃과는 달리 박모양으로 된 꽃과 같다하여 꽃박골이라 하였음
- 회동(會洞) : 횃골로도 불림. 별터 동남쪽 산 너머, 밤실 입구 서쪽에 있는 마을. 전에 석회가 났다고 함
- 산소골 : 한산이씨들의 묘가 모여 있어 산소골이라 하였으며 이태연 묘와 연관된 지명이라고 할 수 있음

(2) 마을의 민속 · 문화

- 별터 기고사(농기고사)

평기리 별터 기고사(농기고사)는 평기리 별터에서 음력 정월 보름에 기(旗)를 올리고 지내던 마을 제사로 신체는 마을의 기(旗)이다. 마을의 안전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위한 제사로 윗말 농기의 명문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고, 아랫말의 명문은 ‘신농유업(神農遺業)’ 이다.

평기리 별터 기고사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지낸다. 본래 윗말(평장골 · 강변말 · 상정말)과 아랫말(중뜸 · 동산 · 산소골)이 따로 모셨지만, 몇 년 전부터 함께 지낸다. 마을 사람들은 윗말을 할아버지로, 아랫말을 할머니로 파악한다. 기고사는 마을의 연장자(유사)가 맡아서 치르는데, 그 집 대문에는 농기를 꽂아둔다. 현재는 제주와 동계장, 부인회장이 함께 제관을 상의하여 올린다. 소요 경비는 정월 초사흘날부터 걸립하며, 물품은 삼색실과 · 명태 · 시루떡 등이다. 고사 날짜가

되면 기를 쫓은 집의 좌향에 따라 고사상을 차린다. 고사의 절차는 분향·헌작·독축·소지 순이다. 소지는 대동 소지와 개인 소지로 진행된다. 농기는 고사 후에도 2월 초하루까지 매어둔다.



서낭당

- 평거리 비듬나무

수령은 약 10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비듬나무는 순수 한국 비듬나무로서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상징하는 수호신적인 나무로 여겨지고 있다.

(3) 유적 현황

리	개소	시대	문화재 성격	비고
평거리	5	청동기(1)	유물산포지	
		원삼국~백제(2)	유물산포지, 생활유적	
		조선(2)	고분, 묘비	평양관찰사 송시열 선생 것으로 추정

3) 마을의 생활환경

(1) 마을조직

⇒ 평기리의 행정 현황

행정리	반	자연마을명	반장명	가구수
평기리	1	상정말	전효순	30
	2	벌터	홍영재	50
	3	벌터	민경석	35
	4	벌터	서인원	20
	5	사아수골	민선기	38
	6	회동	이근양	40

⇒ 평기리의 마을조직




행정리	조직	인원	주요활동
평기리	동계	62	마을의 대소사를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연령과 관계없이 주민들이 모두 이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음
	노인회	70	마을의 대소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음
	청년회	30	마을의 대소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음
	새마을회	75	마을의 대소사 시 주도적인 일을 하고 있으며 음식지원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 역대 이장명단

행정리	순번	성명	임명기간	비고(수상여부)
평기리		박기준		
		최상오		
		이상훈		
		백안기		
		백덕기		
		한광석		
		백영현		
		박임규		
		김홍인	1994 ~ 2000	
		이계식	2001 ~ 2004	
		최승환	2005 ~ 2007	
		박은규	2009 ~ 2011	
	정숙향	2012 ~		

(2) 마을 공공시설

⇒ 평기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평기리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과 여가생활 등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노인들의 공간이다. - 2층 :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평기리 회동(횃골) 경로당	<p>평기리는 마을 면적이 넓어 회관과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에 있어 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횃골에 경로당을 따로 두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p>	
평기리 새마을복지회관	<p>평기리의 마을회관 개념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다. 특히 경로당과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 노인회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p>	



장승배기



사아수골



평장골



평기리 앞들



평기교회



비듬나무



마을정자



마을놀이터



회동



4. 봉안리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3.55km ²	
	경지면적	93.37ha	
인구	가구	총가구(305가구), 농가(89가구), 비농가(216가구)	
	인구수	합계 (511명), 남자 (284명), 여자 (227명)	
	60세 이상	91명(18%)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1) 마을개관

예부터 산수(山水)가 수려하여 봉황새가 찾는 곳이라 하여 봉안(鳳安)이라 하였다. 장군면의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동쪽과 남쪽으로 세종시 연기면, 서쪽으로 산학리, 은용리, 도계리, 북쪽으로는 대교리와 접해 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면적은 3.55km²이며, 총 267가구에 511명(남 284, 여 227)의 주민이 살고 있다. 총 경지 면적은 93.37ha이다.

봉안리의 북부·서부·동부에는 각각 해발고도 100여m의 산지가 군데군데 형성되어 있다. 남서부로는 대교천(大橋川)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주변에는 해발고도 40여m의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유역과 평야 지대에 강산소·월현, 소미·봉산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중부에는 남양유업 세종공장(1980년 준공)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동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국도 36번이 동서 방향으로 뻗어 동쪽으로는 다정동 일부와 새뜸동으로, 서쪽으로는 도계리에 연결된다. 이외에도 소규모의 도로가 국도 36번에 연결된다. 봉안리는 세종시 개발지구와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원룸 및 근린상가, 전원주택 부지가 조성 중에 있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마을 전경

2) 마을의 역사

조선 말기 공주군 장척면(長尺面) 지역으로, 1914년 장척면 봉산리·구월현동(舊月峴洞)·시식동(時食洞)·강산리(姜山里)·안기리·중산리(中山里)·우산리(牛山里)의 각 일부가 통합되어 봉산리(鳳山里)와 안기리(安基里)에서 ‘봉(鳳)’자와 ‘안(安)’자를 따 ‘봉안(鳳安)’으로 개편되었다. 1995년 공주군이 공주시와 통합되면서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가 되었다.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편입되었으며 2014년 1월10일 봉안1리와 봉안2리로 분리되었다.

봉안리라는 지명은 산수(山水)가 수려하여 봉황새가 찾는 곳이라 하여 봉안(鳳安)이라 하였다는 주장과 처음 봉안리를 다름고개라 하였고, 후에는 월현이라고 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다름고개나 월현은 봉안리 내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봉안리 고분군(鳳安里 古墳群)

봉안리 강산소의 동쪽 산 남동사면에 있으며 1979년 수습 조사되었다. 당시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석실분 형태의 고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장 조사에서 유구는 훼손되어 확인되지 않고, 대부호 2점이 수습되었다. 봉안리 고분군에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구는 없다. 다만, 지표면에 고분 석재로 추정할 수 있는 석재가 일부 노출되어 있는 것과 지역 주민들의 전언을 기초로 석실분 형태의 고분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봉안리 청동기 유적은 세형 동검과 동과 대롱옥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형 동검이 출토된 유구는 전언에 따르면 토광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1) 지명유래

- 가는쟁이골 : 봉안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골짜기. 대교리에서 세종시 남면으로 연결되는 고개에 있는 골짜기로, 대교리와 봉안리의 경계를 이룸
- 강산(姜山) : 다름고개 남서쪽에 있는 마을. 강산소(姜山所)라고도 하는데, 조선시대 통정대부를 지냈던 강치황(姜致瓚)의 산소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이름
- 강산소고개 : 안기 마을과 강산소 마을 사이에 있는 고개

- 골고래 : 위다름마을 서편 아래쪽에 있는 마을
- 다른고개 : 다름고개를 현지 주민이 부르는 이름
- 다름고개 : 봉안리 북쪽에 있는 고개로 다른고개라고도 부름. 산 모양이 달과 같이 둥글다하여 월현(月峴)이라고도 함
- 답하니고개 : 36번 도로 봉산교차로에서 세종시로 넘어가는 고개로 다파니고개라고도 부름. 고개마루에 육교가 있는데 이 육교를 통하여 고개 남쪽으로는 당암리, 북쪽으로는 제천리로 이어지던 교차로임. 지금은 제천리와 당암리가 세종시 개발지역으로 변하여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음
- 대교천(大橋川) : 봉안리 서쪽을 흐르는 하천.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에서 발원하여 장군면 소재지를 지나 봉안리를 거쳐 금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 때밭골 : 정확한 지명의 명칭유래는 알 수 없으나 최근까지도 마을의 샘이 자리하던 곳으로 개발과 경지정리로 인해 현재는 그 흔적만 나타나고 있음
- 변답들 : 안기마을 앞 대교천변에 있는 들로 봉안리에서 가장 넓은
- 안기 : 강산소 안쪽에 있는 마을로 안기리, 안터라고도 함
- 봉산교차로 : 봉산리에 있는 교차로. 공주 ~ 세종 간의 주도로에 있으며, 봉안리, 산학리의 교차점임
- 주막거리 : 다름고개 앞 길가에 있는 마을.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생긴 이름으로 새술막, 신주막 등으로 불리었음
- 덕수(德水)마 : 봉산리 북쪽, 남양유업 자리에 있던 작은 고개, ‘-마’란 작은 고개를 의미하는 옛말임
- 때밭골 : 소미 서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일컫기도 함
- 봉산(鳳山) : 남양분유 남동쪽에 있는 산으로 산의 모양이 새처럼 생겼다 함. 산의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은 봉산리라 부름
- 봉산들 봉산 앞에 있는 들
- 소미: 봉산 남쪽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우산(牛山)이라고도 부름
- 소미고개 : 소미에서 봉산으로 넘어가는 고개
- 오류골 : 봉산 정자에서 동북쪽 당암리로 넘어가는 골짜기
- 오리봉 : 소미 남서쪽에 있는 봉우리

(2) 마을의 민속 · 문화

- 봉안 두레

마을 자체가 하나의 두레로 활동한 단일두레였다. 두레의 규모가 작고 구성원이 많지 않았지만 활동 밀도가 높고 결집력이 강한 두레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마을 앞의 들이 다른 마을에 비하여 좁은데 반하여 마을에 부자들이 있어서 인근의 다른 마을, 이를테면 송곡리나 용담에 나가 농사를 지어 오는 농가가 많았다. 두레가 운영되는 입장에서 다른 마을에 가서 공동작업을 해야 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은 타동의 두레와 갈등이 많음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전통사회의 두레들은 아주 심한 <뒷세>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타동 두레가 자기 마을에 들어와 일을 한다는 것은 마을의 경작지 중 일부가 타동의 소득이 되기 때문이며 안방을 내어준다는 마음들이 있어서 타동 두레가 마을에 들어서면 심사가 틀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두레간의 서열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지만 서열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많은 두레싸움을 하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봉안 두레는 언제나 결속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용담리 두레와 풍장 겨루기를 하다가 가락이 부족한 용담 풍장이 억지를 쓸 때 봉안 두레의 징집이가 용담 두레의 장구잡이를 논바닥에 거꾸로 메어 꽃았다는 등의 두레 싸움이 현재 생존한 노인들의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도 강성한 두레 싸움과 결집력 높은 두레 운영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봉안 두레는 1년에 한 차례 논매기만 하는 한물두레였다. 논매기는 농가에 따라 두 물과 만 물 중 농가가 희망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봄 두레 먹는 날의 떡매를 마을의 대농가에 의지하였고, 썰 등의 운영은 특이한 면이 없다.

두레 풍장의 규모는 상쇠, 부쇠, 장구, 북,이 각 1명에 5~7명의 복고잡이와 농자 천하지대본의 농기를 4명이 들고 영기는 청색 홍색 한 쌍을 세웠으며 특이한 것으로는 길나래비가 없는 대신 청사초롱 한 쌍을 앞세웠다. 풍장 가락은 굿거리(길나래비), 늦을마치, 잣은마치, 세마치, 칠채가 근간이었다.

두레를 구성하는 조직은 일반적이다. 좌상이 1명, 공원과 총각좌상이 각각 1명이었으며, 명칭은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두레 공동 작업 출력에 빠진 사람을 대상으로 징취하는 썰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몸이 아파 못나온 사람 외에는 모두 썰을 물렸는데 벌금을 받아내는 일 역시 좌상이 직접 시행했다.

공원은 총무였다. 일감 품의 기록, 두레꾼의 출력 사항 기록, 두레 운영 경비의 기록과 총 수입금에서 지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출력한 장정의 수로 나누어 장정들에게 배분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총각좌상의 역할은 총각들의 지휘자 역할과 좌상의 심부름꾼 역할 겸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두 두레 모두 봄과 여름 2회 두레를 먹었고, 봄 두레 먹는 날은 모심는 일정을 조정하고 당해년도 품삯을 정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으며, 여름두레 먹는 날은 두레가 공동으로 논을 매서 벌은 품삯을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루를 즐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봉안리의 풍장은 마을의 규모에 비하여 규모나 가락 모두가 매우 번성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마을 풍장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연주해온 두레 풍장과 백제문화제 등 면을 대표해서 타른 지역이나 시(당시 읍내)에 나가 풍장 실력을 자랑하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백제문화제에 출연하는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이야기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반포면을 대표하는 풍장패로 출전하였다는 것은 이 마을 풍장이 얼마나 번성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봉안리의 두레 풍장 규모는 상쇠와 부쇠, 징잡이가 각각 1명이었고 북과 장고가 각 2명이었으며, 북구잡이는 5~7명 내외로 열두발 상모를 돌리는 사람이 대를 이어 계속 존재했었다. 농자천하지대본의 농기를 드는 사람이 4명, 풍장패를 선도하는 길나래비와 나발꾼이 각각 1명 등 모두 18~19명이었다. 두레 풍장은 대부분 두레의 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논매는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두레의 속성상 풍장을 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논을 매는 작업의 일꾼이 줄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포면 중에도 마을의 규모가 적어 마을이 가장 번성하였을 때가 36호 밖에 되지 않았다는 봉암에서 많은 15명 이상의 두레 풍장패가 운영되었다는 것은 한 집 당 1~2명의 장정이 출력하는 두레의 인원을 생각할 때 자칫하면 「일하는 사람보다 풍장잡이가 더 많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특이한 사항에 해당한다. 1960년대 봉안리 풍장이 장기면을 대표하는 풍장으로 백제문화제에 출연한 연도는 분명하지 않다. 마을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백제문화제에서 개최하는 풍장대회의 1회부터 3회까지 연 3년 동안과 그 몇 년 후 2~3차례 출연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의 출연 규모는 상쇠와 부쇠 외 삼쇠를 더하고 장고와 북을 각 1명 정도 더한 수준에서 잡색은 세웠으며 북구잡이는 7명, 열두발 상모와 나발 등은 마을에서 행하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출연 당시의 연주한 가락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

이 없으나 잣은마치, 늦을마치, 세마치, 꽃내비장단, 칠채, 길군내비, 짹짹이가락 정도였다. 1970년대 들면서 앞서 기록한 풍장꾼들이 사망하고 새로운 문명의 그늘 하에서 점점 쇠퇴하여 지금은 그 명맥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 봉안리 거리제

거리제는 정월 대보름에 지내졌으며 마을에 따라서 대보름의 첫시작을 알리는 자시(子時)에 올리는 풍습으로 음력 정월 14일 밤에 11시에 올리고 일부 마을에서는 보름날 밤에 올렸다. 정월 대보름 외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올리는 고사로는 두레 먹는 날, 농기 고사가 유일하다. 이는 마을 신앙으로 보기보다는 두레문화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엄연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고사였으며 장군면의 모든 마을에서 빠지지 않고 모두 올린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마을 고사들은 1970년대 미신 타파의 정책에 의해 사라지고 올리지 않는다. 산신보다는 생활속에서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자연신을 섬기는 특징이 있으며 엄숙한 가운데 올리는 고사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고사를 지내고 함께 즐기는 형태로 나타난다.

(3) 유적 현황

리	개소	시대	문화재 성격	비고
봉안리	2	청동기(1)	유물출토지	
		백제(1)	고분	

3) 마을의 생활환경

(1) 마을조직

봉안리의 행정 현황

행정리	반	자연마을명	반장명	가구수
1리	1	월현	이병욱	25
	2	위다름고개	김학진	32
	3	강산소	장상덕	18
	4	안기	이재경	15
2리	1	소미	전용균	25
	2	소미	임주수	18

봉안리의 마을조직



행정리	조직	인원	주요활동
봉안리	오이작목반	4가구 정도	
	벼작목반	농가 대부분	

역대 이장명단

행정리	순번	성명	임명기간	비고(수상여부)
봉안리	1	김상규	12년	
	2	서흥석	14년	
	3	황태호	16년	
	4	박종대	4년	

(2) 마을 공공시설

봉안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봉안리 마을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은 약 120m² - 마을회관에서는 농업공동체활동, 생활공동체 활동 등의 회의장소로 사용 	
봉안리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서는 휴식, 여가생활 등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노인들의 공간으로 조성 	



안가입구



소미산



인삼밭



대교천



봉안교차로



원룸단지



남양유업



5. 금암리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9.60km ²	
	경지면적	ha	
인구	가구	총가구 (317가구), 농가(83가구), 비농가(234가구)	
	인구수	합계 (544명), 남자 (288명), 여자 (256명)	
	60세 이상	92명(17%)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금암리는 금강변 절벽의 수목이 울창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정자가 있었는데 금벽정(錦壁亭)이라고 하였다. 행정구역 개편 전의 이름인 금벽정과 창암리(蒼岩里)·외암리(外岩里)에서 ‘금(錦)’자와 ‘암(岩)’자를 따 ‘금암(錦岩)’이 되었다. 장군면 최남단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은용리, 산학리에 접하며, 동쪽으로 세종시 연기면, 남쪽으로 공주시 반포면, 서쪽으로 공주시 의당면과 월송동에 접한다.

금암리의 총면적은 9.60km²로, 장군면에 소재한 마을 중 가장 면적이 넓다. 총가구 및 인구는 각각 317가구, 544명이며, 남자가 288명, 여자가 25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암리의 북부와 동부·남부·서부에는 각각 해발고도 300여m와 2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북서부에는 장군산(將軍山, 354.3m)과 앞고개가 있다. 남부에는 금강(錦江)이 동서 방향으로 흐르고 주변에는 충적평야가 있다. 서부·남부·동부에는 금강의 지류들이 산지 사이에서 남서 방향 또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흐르면서 해발고도 40~60여m에 군데군데 충적평야가 있다.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유역과 평야 지대에 배터·정자말·소진골·송침·정동·시덕골·사기정골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마을 북쪽은 은룡리, 동쪽은 산학리, 남쪽은 반포면, 서쪽은 장암리에 접해 있다. 국도 32호선이 남서부에서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어 북서쪽으로는 장암리에, 남동쪽으로는 반포면 마암리에 연결된다. 지방도 96번이 동부와 남부에서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 북동쪽으로는 은용리에, 남동쪽으로는 지방도 96번에 각각 연결된다.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한 강과 들이었다. 신라 때는 웅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송침리(松沈里), 반상리(盤床里), 정동(靜洞), 사덕리(四德里), 사천리(沙川里), 우진리(牛鎭里), 창암리(蒼岩里), 외암리(外岩里), 원호리(遠湖里)의 각 일부를



마을 전경

병합하여 금암리라 하고 장기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편입되었다.

금암리, 송선리, 금흥리는 전주이씨의 집성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중 금암리는 워낙 마을들이 곳곳에 산포되어 있는데다 현재는 다양한 성씨들이 함께 모

여 살고 있다. 전주이씨는 원래 경기도 김포 일대에서 살다가 약 400여 년 전 난리를 피해 우성면 내산리를 거쳐 이곳으로 입향하였다고 한다. 사덕골에는 궁정대부 의정부 우찬성을 지낸 이구순(李久洵)의 신도비가 종산 아래에 있는데, 이는 2004년에 공주 지역의 전주이씨 후손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 것이다. 또한 금암리의 사기정골에 전주이씨가 많이 살고 있는데, 10년 전에 새로 지은 전주이씨의 재실이 있다.

금암리는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편입되었으며 2014년 1월 10일 금암 1리와 금암 2리로 분리되었다.

(1) 지명유래

- 금벽정 : 배터마을에 있던 탁금정(濯錦亭)을 풍양조씨 집안이 정자말로 옮겨 지으며 금벽정이라 부름. 금벽정은 금강가 절벽에 수목이 울창하여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서 붙인 이름으로 금강 팔정 중 유일하게 아궁이와 구들이 있음. 도로 건설로 인해 철거하면서 공주시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보관중임
- 탁금정(濯錦亭) : 비단을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굽이굽이 금강과 어우러져 아름답고 절경이라 하여 탁금정이라 부름. 금벽정
- 금암삼거리 : 전원마을이 조성되고 강변에 96번 지방도로가 가설되면서 새로 생긴 교차로를 말함

- 대박골 : 사기점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며, 옛날에 돌부처가 있었다고 함. 지금은 한국영상대학교가 자리잡고 있음
- 도남삼거리 : 불티교 북쪽의 삼거리. 불티교가 놓이면서 금남면 도남리로 연결되는 통로가 됨
- 돌부처 : 대박골에 있는 돌부처(石佛). 높이 2척, 둘레 8촌의 작은 부처인데, 지금은 없어졌음
- 마라들(마른들) : 금강 접안도로인 96번 지방도로에서 한국영상대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들
- 말아귀나루터 : 반상 앞 남쪽 금강에 있었던 나루. 반상에서 반포면 마암리 말아귀로 건너감
- 반상(盤床) : 정자말 서쪽에 있는 마을. 반송이 있었음
- 불티나루(-峙-) : 소금장수가 배타고 금남면 도암리로 소금팔러오면 불티나게 팔려서 불티나루라 불렀으며, 돌아갈 때 사기점골의 사기와 흑연을 싣고 갔다고 함. 지금은 불티나루위치에 산림박물관과 연결하는 불티교가 가설되었음, 화치진(火峙津)이라고도 부름
- 사기점골(沙器店-) : 솔정자와 한국영상대학교 사이에 있는 마을. 전에 사기점이 있었으므로 사기정골 또는 사천(砂川)이라고도 불림. 지금은 원룸 등 대학촌의 면모를 보임
- 사덕골(四德-) 송침(송심)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옛적 난리 때 네 사람이 이곳에서 피난을 잘 하였다 함. 사덕곡(四德谷) 또는 사덕골이라 불림
- 소진골(소정골) : 전원마을 북쪽, 송침 삼거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와우형(臥牛形)의 명당이 있다 하며, 우진(牛鎭)이라고도 함. 새롭게 개발되고 있음
- 솔정자 : 사기점골 입구. 솔정자란 표지석과 몇 그루의 소나무가 있음.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아름답게 드리워져 정자 건물은 없지만 마치 정자처럼 보여 솔정자라 불려오고 있음
- 송침(松沈) : 소진골 북쪽에 있었던 마을로 지금의 송침(송심) 삼거리 일대임. 이곳 교차로에서 서북쪽으로 사덕골, 정동으로 갈라짐. 초치미 밭이 됨
- 외암(外岩) : 마을에 오얏나무가 많아 오얏리로 부르다 외암리로 부르게 됨
- 전원마을 : 최근에 농협연수원 뒤편(북쪽)으로 새로 조성된 마을.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새로운 마을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음

- 절골 : 정자말 뒤에 있는 골짜기. 절터가 있음
- 정동(淨洞) : 송침(송심) 삼거리에서 북쪽 사덕골로 들어서자마자 동쪽으로 접어든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사기점이 있어서 점말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정말, 또는 정동이 되었다고 함. 이 마을 서편에 대전공원묘원이 자리잡고 있음
- 정자말(亭子-) 금암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그 남쪽 금강 건너 쪽 곧 금남면 도남리 금강가에 있는 창벽의 이름을 따서 창암(蒼岩)이라 하였으며, 금벽정이 지어진 이후 정자말이라 부르고 있음. 최근에 이 마을 북쪽으로 전원주택이 많이 조성됨
- 초치미(송치미) : 송침 뒤에 있는 산. 높이는 306m로, 와우형의 명당이 있다 함

(2) 유적 현황

금암리에서는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요지가 3개소에서 출토되었다.

사기점 마을에서 발견된 1호 요지는 민수용의 자기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한 조선 중·후기의 백자요지로 판단된다. 현재는 건물 조성으로 인해 지형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요지 일부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호 요지는 장군산에서 동남주한 능선 남향사면 말단부에서 발견되었다. 마을 가운데 개설된 소로의 오른쪽에 있는데, 아래지점은 논으로, 위는 밭으로 개간되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곳은 사기밭이라 불리는데, 말 그대로 상당수의 백자편과 소토편이 출토되고 있다. 현재 경작지 개간으로 인해 요는 파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호 요지는 2호 요지에서 동남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다. 현재 요지가 위한 지역은 장군산의 말단 구릉으로, 오름식 가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되는 유물은 백자대접과 접시편이 대부분으로, 조선중기의 제작기법을 보이고 있다.

리	개소	시대	문화재 성격	비고
금암리	3	조선(3)	요지	

3) 마을의 생활환경

(1) 마을조직

금암리의 행정 현황

행정리	반	자연마을명	반장명	가구수
1리	1	정동	윤용구	
	2	사덕골, 사기정골	김정옥	
	3	마른들, 탁금정	한희수	
	4	외암리	최봉규	
2리	1	정자말	안복순	
	2	청벽전원마을	김영언	
	3	경동전원마을	이휘영	

금암리의 마을조직




행정리	조직	인원	주요활동
금암리	노인회	70	마을 행사 및 대소사 자문
	부녀회	55	마을 주민들의 행사, 봉사활동 진행
	금암장학회	37	한국영상대 앞 원룸주인과 상가주인들이 모여 한국영상대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음

역대 이장명단

행정리	순번	성명	임명기간	비고(수상여부)
금암리	1	이근배	해방전~1957	
	2	박동희	1958~1978	
	3	이충규	1978~1989	
	4	성하철	1990~1996	
	5	박공순	1996~1997	
	6	김광수	1998~2004	
	7	김종립	2005~2013	
금암1리	1	이진웅	2013~현재	
금암2리	1	임현만	2014~현재	

(2) 마을 공공시설

금암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마을회관	2008년 건축되었으며, 1층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어르신 쉼터와 마을 관련회의 시 사용하고 있음 2층은 공부방과 도서관으로 어린이와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성함	
공동창고	2008년도에 건축되었으며, 마을 농기계 보관 및 밤 등 농산물 저장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농협공제교육원	농협중앙회 산하 보험 교육 기관으로 2002년 1월 개원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의 금융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마을표지석(금벽정마을)



외암(오앗마을)



사기점골



정동



한국영상대학교



금암2리 전원마을



불티교



전주이씨 재실



슬정자 입석



이정환 효자비



효자동 비석



전주이씨 판부사 공덕비



전주이씨 판부사 묘



6. 하봉리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2.50km ²	
	경지면적	97.8ha	
인구	가구	총가구(199가구), 농가(96가구), 비농가(103가구)	
	인구수	합계 (392명), 남자 (210명), 여자 (182명)	
	60세 이상	50명(13%)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봉황새가 날아와 앉는 지역이라 하봉(下鳳)이라고 하였다. 장군면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북쪽은 송정리와 송문리, 동쪽은 도계리, 남쪽은 은용리와 공주시 동현동에 접해 있다. 국도 36번이 리의 남쪽을 통과하며,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리를 관통하고 있다.

하봉리의 동부·서부·남부로는 해발고도 50여m의 저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남부로는 근동천이 동서 방향으로 흘러 동부에서 대교천에 합류하며, 중부와 서부로는 근동천에 의하여 형성된 해발고도 40여m의 충적평야가 있다. 중부에는 하봉저수지가 있다. 근동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유역과 평야 지대에 새뜸·황골·하산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으며, 땅 속의 개미집처럼 분포하여 살고 있어 열두괘실이라 부른다.

하봉리의 총면적은 2.50km²이며, 총 199가구에 392명(남 210, 여 182)의 주민이 살고 있다.

하봉리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열두 개 자연부락 중 다섯 개 부락에서 아직까지도 기고사를 지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덩풍말 기고사, 별신당 기고사, 황골 기고사, 하산 당상제 등이 있다. 또한 고분군, 장고개 유적, 충렬사와 같은 역사자원이 존재한다.



하산마을 전경



황골마을 전경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했다. 신라 때는 응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말엽엔 공주군 장척면의 지역으로 봉황새가 비래(飛來)하여 내려 앉는 지역이라 하봉(下鳳)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하산리(下山里), 운동(雲洞), 도계(道溪) 일부와 요당면의 봉곡을 병합하여 하봉리라 하고 장기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편입되었으며, 2014년 1월 10일 하봉1리와 하봉2리로 분리되었다.

- 하봉리 고분군

하봉리 유적은 1993년 주민의 신고로 처음으로 알려진 후 국립공주박물관에 의해 긴급으로 수습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주구묘 2기를 확인했으며, 주변 지역에 대한 지표 조사를 통해 이와 관련된 유적이 넓게 분포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994년 정식으로 발굴 조사한 결과, 주구토광묘 8기·토광묘 5기·옹관묘 4기·구상 유구 1기·수혈 유구 5기를 확인하였다.

유물은 모두 무덤에서 확인된 것으로 토기류와 철기류가 있으며, 옥류도 소량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원저단경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형의 옹형 토기도 출토되었다. 토기의 출토 양상에서 심발형 토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은 인근 천안·아산·청주 일원의 주구토광묘에서 원저단경호와 심발형 토기가 세트를 이루어 출토되는 점과 비교되어 주목된다. 철기류는 환두대도·철모·철검·철부·철준·철착·철도자·철촉 등이 있으나 그 수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봉리 고분군은 발굴 조사 후 복토하여 보존 조치한 후 경작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별도의 문화재 지정이나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봉리 유적은 3세기 중후반대에 조성된 유적이다. 이와 같이 주구가 딸린 무덤들은 최근에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의 원삼국시대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하봉리 유적은 천안 청당동 유적·아산 갈산리 유적·청주 송절동 유적 등과 더불어 중부 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상 복원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와 연결 고리가 된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백제가 웅진에 도읍하기 전 공주 지역 재지 세력들의 모습을 도출해내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고개 유적

하봉리 장고개 부근에 조선 후기의 건물지가 나타난다. 장고개 유적은 당진~대전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2003년 6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발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주초식 건물지를 비롯한 굴립식 건물지 등이 발견되었다. 유구는 조사 구역의 남서쪽에 밀집되어 있으며 북쪽과 동쪽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들은 대체로 서쪽 계곡부를 향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남쪽으로 구릉 능선 및 서쪽 사면을 따라 당산제, 당앞들 등의 이름이 있으며, 이 지역으로 유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장고개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크게 주초식 건물지와 굴립식 건물지로 대별된다. 이 밖에 야외 노지, 폐기장, 구상 유구 등이 있다.



장고개 유적 터

- 충렬사(忠烈祠)

충렬사의 유래는 1827년 공주군 장척면 송원리(현 세종시 한솔동)에 금호서사를 세워 충민공, 충경공, 금사공을 배향해 오다가 1868년(고종 5년) 서원 철폐령으로 철거되었다. 그러나 아쉬움이 컸던 후손들은 류형장군의 고문서와 유품이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현 세종자치시 장군면 하봉리에 사우를 건립하고, 류형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여 그의 충절을 기리며 매년 음력 2월 25일 유림행사로 제향을 지내게 되었다.

충경공 유형(柳珩)은 1566년에 출생하여 임진왜란 때는 창의사 김천일(金千鎰)의 휘하에서 종군하였으며,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의 막료(幕僚)로서 노량해전에서 전공을 세우고 부산진 검절제사(釜山鎭 儉節制使)가 되었다. 그러다가 1600년엔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1601년엔 삼도수군 절도사가 되었으며 1609년에 함경도 병마절도사였다가 1615년에 죽은 무관이다. 황해병사에 재직 중 사망하였다. 충렬사 내삼문인 창의문(彰義門)과 외삼문인 충의문(忠義門)이 있고, 충열사는 정면(正面), 삼간(三間), 측면(側面), 삼간(三間)의 겹치마로 된 맞배 와목(瓦屋)이며 단청이 되어 있다. 교지(教旨), 일매(一枚), 호패(戶牌) 1개 영정이 전시되어 있으며 1972년 9월 1일에 晋州柳氏 대종회의 주선으로 건립된 사당이다. 어려운 시기에 국난을 수습한 장군으로서 장기에 무맥(武脈)을 이루어 놓은 조선시대의 충신 사당이다.



충렬사 홍살문

(1) 지명유래

- 봉곡(鳳谷) : 하산 동북쪽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예부터 봉황새가 골짜기에 자주 내려와 앉았다고 전해지며, 황골이라고도 부름
- 하산(下山) : 저수지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계란봉 아래에 있으며, 원래는 해산(蟹山)이라 불렀는데, 이후 변하여 하산이라 부름. 또한 마을 주민이 옛날 이 터의 묘를 설치할 때, 갑자기 학이 묘 주변에서 날아올라 학산이라고도 함
- 별신당(別神堂) : 저수지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부터 별신굿을 하던 신당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별신당이라 부름. 성황당에서 마을 주민들이 별신제를 올렸으며, 임오군란 후에는 파평 윤씨들이 자리잡고 살아 현재 이 마을에는 봉곡재실(윤씨재실)이 있음
- 동편말(東便말) : 하산 서쪽 마을로, 예부터 동쪽으로 마을이 있다 해서 동편말이라 부름
- 계란봉(鷄卵峯) : 하산 뒤에 있는 산으로, 달걀 모양과 같다하여 계란봉이라 부름. 계란봉의 자세한 유래는 다음과 같음. [옛날에 계란봉 산 아래에 두 형제를 둔 농부가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그는 농부로 살면서 소원이 있다면 큰 벼슬살이를 한번 해 보는 것이었다. 원래가 미천한 사람이라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자식 두 사람이 벼슬길에 오르도록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게 하고 서당에 다니게 하였다. 아들이 자라서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보고 죽는다면 더 행복한 것이 없겠다고 아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열 한 살, 둘째 아들이 열 살 때, 그는 그만 병에 걸리고 병석에 눕게 되었다. 그는 병석에 누워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때, 아들 형제를 불러 놓고 간곡히 유언하기를 “내 생전에 벼슬길을 오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런데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였고, 너희들이 벼슬길에 오르도록 노력을 하였는데, 그 서광을 보지 못하고 죽는가 보다. 부디 아버지의 말을 잘 새겨 듣고 큰 너는 문관에, 작은 너는 무과에 급제하여 앞으로 큰 인물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만 눈을 감아 버렸다.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형제는 처음 크게 벼슬살이를 해야겠다고 처음은 열심히 공부를 하였으나, 동생은 자라면서 성격이 우락부락 해지면서 책을 버리고 엉뚱한 짓만 하고

다녔다. 아버지가 죽은 지 10여년 만에 큰 아들은 과거에 응시해서 급제를 하고 벼슬길에 올랐다. 형은 벼슬길에 오르는데 동생은 아예 벼슬길을 포기한 듯 매일 술만 퍼마셨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도 하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동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형이 잠자리를 청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 속에서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선, “이 애야 큰 애야, 네 동생이 지금도 물건을 훔치고 있구나. 아니 저런 지나가는 새댁 패물을 강탈하고 있구나. 이 애야 네가 좀 타일러라. 만약 도둑질만 하고 다닌다고 쉬 죽게 할 것은 물론이야 죽으면 게가 되어 땅속에 묻혀 살게 하리라.” 하고는 슬픈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을 불러 들이고 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네가 나쁜 짓을 계속한다면 아주 죽여서 땅속을 기어다니는 게를 만든다는 말까지 해 주었다. 그러나 동생은 형의 말이 아랑곳 없다는 듯이 “나를 죽여요. 나를 어떻게 죽여요. 뭐요. 나를 죽여서 게를 만들어 땅속을 기어 다니게 해요. 자기가 뭔데요. 옥황상제나 된대요. 이봐요, 형님. 아버지도 농부였어요. 그까짓 농부가 죽으면 천신이 될 리가 없어요. 형님, 돈이나 주슈. 세상은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아니요.” 하고 형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단 형제뿐인 형은 동생에게 간곡한 말을 되풀이 한 다음 동생이 딱해서 돈까지 주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생은 그런 것은 상관없다는 듯이 형네 집에서 물러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벌써 물건을 훔쳤고, 사람들을 괴롭혔었다. 동생이 죽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또 도둑질을 하며 이번에는 사람까지 해치던 날 동생은 돌아오는 길에 산에서 바위를 헛디디고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 동생이 죽자 몹시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가 쏟아지면서 그들이 어렸을 때 살던 여기 산의 산형이 이상하게 변모하기 시작했다. 산의 아래 부분은 게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달걀 모양으로 변하였다. 산형이 변하면서부터 이상하게도 게가 땅속에 많이 살게 되었다 한다. 땅속에 사는 게는 땅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으레 상봉(上峯)으로 오르다가 달걀 같은 산봉에 오르지 못하고 푹푹 아래로 떨어진다 하는데, 이것은 산봉까지 땅이 가파른 것이 아니고 산봉까지는 오를 수 없는 처지이므로 도중에서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라 한다. 계란봉 산봉엔 벼슬길에 올랐던 형의 닢이 서렸고, 산 아래는 도적질을 하다 죽은 동생이 게가 되어 먹을 것을 찾아 낮에는 하루 종일 헤매고, 밤에는 굴속에

- 서 살며 옛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 할미터골 : 하봉리 저수지 남쪽 마을로 옛날 공주 지역에서 제일가는 부자 할머니가 살았던 곳이라 후에 할미터골로 부름
 - 비석골(비성골) : 하봉저수지 북서쪽 지역으로 옛날 안동권씨의 큰 비석을 옮길 때 하봉고개가 높아 산을 깎아내리는 중 혈(穴)이 나왔다고 전해지며 큰 비석이 놓여진 이후부터 비석골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함
 - 부릉계골 : 하봉리와 동현리 경계에 있는 골로 부엉이가 많이 울고 묘도 있으며, 특히 지세 및 고개 형태가 험했다 하여 부릉계골이라고 부름
 - 가로고개 : 도계에서 장기중학교 앞을 지나 은용리에 이르는 고개를 말함
 - 구석뜸 : 하봉리 서북쪽, 송정리와 경계에 있는 마을로 세종요양병원의 서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음
 - 새뜸 : 동편말과 별신당 사이에 있는 마을로 두 마을 이후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에서 새뜸으로 부름
 - 수렁골 : 송산저수지 위쪽의 골짜기로 한 가구가 살고 있음
 - 요골 : 황골의 남쪽 마을로 요골과 황골 사이에 서세종 인터체인지가 있음
 - 재지골 : 하봉저수지 서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송정리와 경계를 이루며 세종요양병원의 동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음
 - 황골 : 충렬사 동쪽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하봉리에서 제일 큰 동네임. 박사와 서기관이 탄생한 지역으로, 봉곡(鳳谷), 방아골, 용사뿔 등으로 부름. 최근에 마을 남쪽에 서세종 인터체인지가 생겼음
 - 무넘이골 : 마을입구로 삼한시대 유적이 발굴된 지역이며, 물이 넘어간다고 하여 무넘이골이라고도 부름
 - 짐시녕골 : 황골마을 남쪽으로 금수동(비단금)이라 전해오며 비단마을이라 하였으며, 뽕나무 재배가 성행했던 곳임
 - 절골 : 계란봉 중간에 절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오래된 기와조각과 토기 그릇이 나오고 있음
 - 들팍제 : 마을의 수호신으로 별신당 입구 양쪽으로 자연석 돌을 세워 거리제제를 올리던 곳임

(2) 마을의 민속 · 문화

- 덩풍말 기고사

하봉리 덩풍말에서는 정월 보름날마다 동구나무에서 두레 관련 마을 제사를 지낸다. 하봉리의 열두갸실 중 다섯 개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 보름날에 기고사를 지내는데, 열두갸실 가운데 비교적 큰 마을에 속하는 황골, 하산, 동편말, 한미터굴, 별신당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하산에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뜻에서 기고사를 지낸다. 현재 기고사에 사용하던 농기는 농협중앙회 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다.



덩풍말 기고사가 이루어지는 쌍둥이 은행나무(세종41)
(보호수지정 1982, 수고 30m, 둘레 3.8m, 수령 280년)

- 별신당 기고사

하봉리 별신당에서 정월 초와 두레 먹는 날 농기를 올리고 마을 제사를 지낸다. 하봉리 별신당 기고사 가운데 여름 두레 기고사는 1960년대 이후 사라지고, 정월에 지내는 기고사만 남아 있다.

- 황골 기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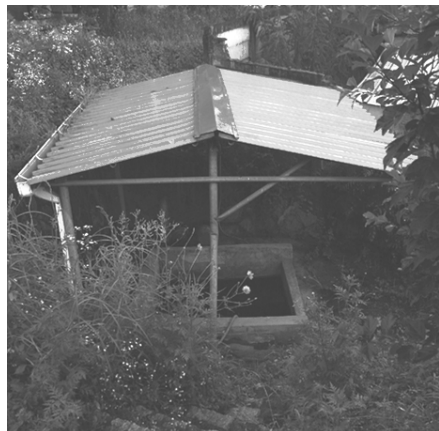
하봉리 황골에서 지내는 두레 관련 마을 제사이다. 신체는 ‘신농사명(神農司命)’이라 쓰여진 기(旗)이다. 기는 정월 보름에 세웠다가 2월 초하루 영동 올라갈 때 내린다. 황골 기고사는 정월 보름과 여름 두레 때 일 년에 두 번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황골에서는 짐시녕골과 함께 기고사를 지낸다.

- 하산당산제

하봉리 하산동네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 이른 새벽에 농기를 세우고 제사를 지낸다. 농기 밑에 떡과 주과포를 차려 놓고 당산신령에게 국태민안과 세화연풍을 축원한다. 그 다음에 마을주민과 가정의 건강을 비는 소지를 올린다. 당산제를 주관하는 제관으로 지정되면 외출을 금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목욕재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한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떡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풍물을 치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지덕발기 곳 풍물도 치며 흥겹게 논다고 한다. 현재에도 매년 지내고 있다.

- 황골 샘제

하봉리 황골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에 샘터에서 지내는 마을 제사이다. 황골 샘제는 마을에 있는 샘[井神]이 신체이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샘을 이용하였다.



황골 샘제를 지내는 우물

(3) 유적 현황

리	개소	시대	문화재 성격	비고
하봉리	3	원삼국(1)	고분	
		조선(1)	건물지	
		근·현대(1)	사묘	

3) 마을의 생활환경

(1) 마을조직

하봉리의 행정 현황

행정리	반	자연마을명	반장명	가구수
하봉1리	1	무넘이	이병일	
	2	황골	서관호	
	3	황골	서해남	
	4	짐시녕골	최재식	
하봉2리	1	하산	유근주	
	2	할미터골	김순경	
	3	동편말	이동주	
	4	새뜸	윤천한	
	5	별신당	윤흥근	
	6	구석골	조두형	

하봉리의 마을조직

행정리	조직	인원	주요활동
하봉리	부녀회		일년에 몇차례씩 마을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잔치 및 각종행사를 유치하고 있다.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노력 봉사를 하는 단체이다.
	청년회		일년에 몇차례씩 마을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잔치 및 각종행사를 유치하고 있다.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노력 봉사를 하는 단체이다.

(2) 마을 공공시설

하봉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마을회관 (경로당)	붉은 벽돌의 일반적인 2층 구조물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노후되어 새건물로 증축하였는데, 1층은 경로당으로, 2층은 마을회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머니방	붉은 벽돌의 일반적인 1층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약 120㎡이며 휴식과 여가생활 등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할머니들만의 공간이다.	
마을정자	마을회관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되어있으며 방한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계절 모두 사용 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산림경관과 어우러진 저수지가 보인다. 농사일에 지친 몸을 잠시 이곳에서 쉴 수 있다.	
쉼터	마을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느티나무 3그루가 그늘을 제공하고 밑으로 파란 천막을 지붕과 철 기둥으로 만들었다. 주변으로는 넓은 저수지가 보인다. 농사일에 지친 주민들이 몸을 잠시 이곳에서 회복하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이다.	
곡물건조기	할머니방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곡물건조기이다. 곡물을 저장할 때 변질을 방지하고, 도정할 때 가공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조를 한다. 수확 때 곡물의 함수율은 보통 20~30%이며, 이를 함수율 14~15%까지 건조한다. 보통 퇴적곡물에 상온의 공기 또는 열풍을 통풍하여 건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봉리 표지석



별신당윤여사적비



효자열녀비



학곡묘



천석군할아버지비



옛날창고



장기중학교



세종요양병원



7. 은용리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5.92km ²	
	경지면적	115.93ha	
인구	가구	총가구(155가구), 농가(81가구), 비농가(74가구)	
	인구수	합계 (346명), 남자 (190명), 여자 (156명)	
	60세 이상	51명(15%)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은용리는 시루봉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 마을이다. 행정구역 개편 전의 이름인 노은리(老隱里)·어은리(魚隱里)와 와룡리(臥龍里)에서 ‘은(隱)’자와 ‘용(龍)’자를 따 ‘은룡(隱龍)’이 되었다. 장군면 중서부로, 북쪽은 하봉리와 도계리, 동쪽은 산학리, 남쪽은 금암리, 서



마을 전경

쪽은 공주시 동현동에 접해 있다. 지방도 691번이 북부에서 동서 방향으로 뻗어 동쪽으로는 산학리에, 서쪽으로는 도계리에 연결된다.

은용리의 남부·동부로는 해발고도 300여m와 200여m의 산지 형성되어 있고, 남부로는 장군산(將軍山, 354.3m)이 높이 솟아 있다. 북부·동부·서부 일부로는 대교천(大橋川)의 지류들에 의한 충적평야가 산지 사이에 군데군데 형성되어 있다. 북부에는 바탕골저수지가 있으며, 동부에는 은룡저수지가 축조되어 있다. 대교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유역과 평야 지대에 농골·은골·바탕골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은용리의 총 면적은 5.92km², 경지면적은 115.93ha에 이르며, 총 1557가구에 346명(남자 190명, 여자 15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은용리의 주요작물은 벼와 고추다. 특히 은용2리 평지지역에서는 벼가 주요작물로 생산되고 있다. 마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으며, 농부의 손길이 많이 가서 밥맛이 매우 좋다고 평가된다. 은용1리의 고추는 지역적 특성상 산골 마을로 공해가 없는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무공해 고추이다. 비료보다는 유기질 비료를 주로 사용하며 고도가 높기 때문에 병충해 발생이 적어 저농약이 가능하고 또한 신선한 산바람이 항상 불어 신선한 고추이다. 거래는 주로 직거래와 시장판매, 농협 출하를 통해서 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한 들이었다. 신라 때는 웅주에 속했다.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의 지역이었다. 용이 땅속에 누워 있다 해서 은룡(隱龍)이라 불렀는데, 조선시대 말엽엔 공주군 장척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노은리(老隱里), 어은리(魚隱里), 백운리(白雲里), 구유리(舊富里), 늑동(勒洞), 세동(細洞), 와룡리(臥龍里)를 병합하여 은용리라 하여 장기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편입되었다.

옛날 지혜로운 장부(丈夫)가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 용과 지혜를 겨루는 내기를 하다가 그만 장부가 죽고 말았다. 용이 생각하기를 장부만한 사람이 죽은 것이 매우 섭섭하였다. 그래서 용은 돌로 상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데 그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던 날 용도 땅속으로 들어가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또한 용이 땅속에 숨었다 하여 은룡(隱龍)이라 하였다. 행정구역 개편 전의 이름인 노은리(老隱里)·어은리(魚隱里)와 와룡리(臥龍里)에서 ‘은(隱)’자와 ‘용(龍)’자를 따 ‘은룡(隱龍)’이 되었다.



장군 보광사 산신도

- 장군 보광사 산신도

장군 보광사 산신도는 은용리 400-6번지에 있는 일제강점기 때의 불화로, 문화재자료 제11호로 등록되어 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우리 민족의 토속 신앙인 산신 신앙은 불교가 전래되면서 산신들이 호법

선신으로 포용되어 신중 탕화 하단 위목 중의 ‘만덕고승성개한적주산신(萬德高勝性皆閑寂主山神)’으로 자리 잡았다. 이 호법 선신이었던 산신의 위치가 다시 한 단계 성장하여 독립된 신앙 체계를 갖추게 되자 사찰 안에 따로 산신각을 짓고 산신 탕화를 봉안하게 되었다.

삼성각 안에는 「장군산 보광사 산신도」가 중앙에 있고, 왼쪽에 「독성도」, 오른쪽에 「칠성도」가 있다. 산신 그림은 견본(絹本) 채색(彩色)으로, 화폭의 크기는 95×123cm이며, 액자의 크기는 112×127cm이다. 「장군산 보광사 산신도」는 전체가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를 연상시키는 구도이다.

화폭 왼쪽상단에는 달이 떠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소나무 잎들이 마치 해처럼 둥그런 모양의 다섯 원으로 배치되어 있다. 멀리 산봉우리 세 개는 남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가까이에 산봉우리 넷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한 번 꺾이는 폭포수가 보인다. 화폭 아래는 바다와 절벽으로 되어 있다.

산신의 상징으로 호랑이와 이를 인격화한 노인도사(老人道士), 시중을 드는 동자상을 소나무 아래에 배치하였다. 호랑이와 노인도사는 일체임을 보인다.

종교적 체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궤를 질서정연하게 도상화한 것이 불화로, 삼성각 안의 「장군산 보광사 산신도」 역시 결국 민간 신앙의 불설산왕경(佛說山王經), 불설북두연명경(佛說北斗延命經)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절골굴

은용리에 위치한 불뭇골 옆 절골 골짜기에 있는 큰 굴이다. 큰 석벽에 있는 굴의 넓이는 40척(약 12m), 높이는 5척(약 150cm), 깊이는 10척(약 300cm)이나 된다. 절골이란 원래 이 골짜기에 절이 있기 때문에 불리운 명칭이다. 또한 이곳에 굴이 있어 ‘절골굴’이라 부른다. 즉 골짜기 지명에서 ‘절골굴’은 이차적으로 형성된 지명이다. 현재는 절골굴 속에 절을 짓고 부처를 모셨으며, 절골굴 안에 좋은 우물이 있다고 한다.



절골굴

- 은용리 산성

은용리 성재산 정상부에 있는 시대 미상의 토축 산성이다. 은골의 서남쪽에 해당한다.

산성의 형태는 전형적인 테뫼식이다. 다만 남쪽과 서쪽이 높고 북쪽과 동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성 내부는 평탄하게 지면을 조성한 반면에 외면은 경사 지게 만드는 삭토법에 의해 성벽을 조성하였다. 서벽은 흔적만 남아 있어 성벽의 통과선만 겨우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동벽과 남벽 쪽은 상대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산성과 관련된 부대시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성벽을 따라 회곽도가 둘러져 있는 것이 주목된다. 성내에서 삼국시대 토기편을 다수 수습하였다고 전해 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건물지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민묘가 들어서 있는 곳이 원래의 건물 터로 추정된다.

- 은용1리 느티나무

은용1리 노은골에는 느티나무가 2그루 있는데 주민들은 이를 둥구나무라고 부른다. 수령은 약 5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과거에 물을 길어먹었던 우물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은골로 올라가는 길가에도 느티나무 한그루가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마을의 풍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은골 느티나무 2그루

- 은용2리 향나무

은용2리 입구에는 수령 약 300년(보호수 지정당시 수령을 약 220년 정도로 추정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수령이 약 300년가량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된 향나무가 위치하고 있다. 이는 마을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액운을 막기 위한 마을의 수호신 개념으로서 선조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심어 놓았다고 한다.



은용2리 향나무

(1) 지명유래

- 바탕골 : 구례실 동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로 백운(白雲)이라고도 함. 전에 나무꾼들이 장을 치던 곳이 있었음
- 바탕골저수지 : 바탕골 입구에서 200m 쯤에 있는 저수지
- 넓은터골 : 바탕골에서 서당골로 가기 전 바탕골에서 동남쪽으로 들어간 골짜기. 동쪽 고개를 넘으면 은골 양달말에 이름
- 가는골 : 바탕골 저수지 위에서 동쪽으로 쭉 들어간 좁은 골짜기
- 도장골 : 바탕골 저수지 위에서 동쪽으로 가는골 옆의 작은 골짜기
- 서당골 : 바탕골에서 남쪽으로 더 들어간 골짜기
- 은골 : 장군봉 북쪽 골짜기로 서쪽의 바탕골, 동쪽의 미학실 사이에 위치함.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 이름이기도 한데, 양달말과 음달말로 나뉘며,

특히 은골 중에서도 작은 골짜기에 속하는 갈망골(갈마음골이라고도 함)의 유래로는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짐. 또한 불뭇골은 후백제의 토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전해지며, 은골의 일부지역에는 고려시대 사찰(석은사로 추정된)의 주춧돌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함

- 도장말랭이 : 음달말 뒤쪽으로 북향하여 뺏어나간 나지막한 언덕줄기를 말함
- 바탕골 고개 : 양달말 서쪽에 있는 고개로 바탕골과 연결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다니지 않음
- 불뭇골 : 은용저수지와 은골마을 중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부처가 춤추는 고랑이라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음
- 뽕쪽재 : 양지말 서쪽, 장군봉 아래에 있는 뽕쪽한 산
- 살구골 : 은골저수지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은용저수지 : 은골 첫머리,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아래를 통과하면서 바로 위쪽에 있는 저수지
- 양달말 : 은용저수지 상류 쪽으로 1km 쯤에 있는 마을.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을이 나뉘는데 남동향의 마을을 양달말, 북서향의 마을을 음달말이라 부름
- 음달말 : 은용저수지 상류 방향으로 1km 쯤에 자리한 북서향의 마을
- 절골 : 양지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전에 절이 있었다고 함
- 절골굴 : 절골에 있는 굴. 큰 석벽에 넓이 40척, 높이 5척, 깊이 10척 가량 되는 큰 굴인데, 그 속에 절을 짓고 부처를 모시었으며, 그 안에 좋은 우물이 있음
- 정동고개 : 음지말 남쪽의 골짜기 따라 금암리 정동을 오가던 고개. 정동 사람들이 이 고개를 통하여 장기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함
- 농골샘 : 노은골 사람들이 쓰던 샘. 지금은 폐쇄됨
- 농골 : 노인들은 은둔한 곳, 즉 노인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에서 내려오는 이름이라고 함. 와룡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좋은 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함. 노은(老隱), 노은골이라고도 함
- 느드리들 : 은골저수지 아래에 펼쳐진 들로 최근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통과함. 느더리들이라고도 함
- 부숫돌 : 농골 앞 북쪽에 있는 들로 부숫돌로도 부름

- 서낭당 : 소징이들에 서낭당이 있었음
- 소징이들 : 은용2리에 있는 들을 가리킴
- 신선고개 : 노은골 동쪽에 위치한 나지막한 고개. 이 고개를 지나며 은골로 접어들게 됨
- 여흥 민씨 재실 : 노은골 신선고개 동쪽에 위치한 재실로 근래에 새로 세운 것임
- 와룡(臥龍) 구레실 북동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누운 용처럼 생겼다 함
- 청골 : 노은골 북쪽의 대교천변 들
- 청골도랑 : 은골저수지에서 흘러 대교천으로 들어가는 도랑으로, 은용리와 산학리의 경계를 이룸
- 구레실(구리실) : 시루봉 북쪽의 골짜기로 은용리에서 가장 길고(2km), 지형이 깊은 굴레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으로 늑동(勒洞)이라고도 부름. 대표적인 마을로 아랫구레실과 윗구레실이 있고 골짜기 끝자락에 보광사가 있음
- 아랫구레실(아랫구리실) : 구레실 입구에 있는 마을회관 주변 동네를 말함
- 윗구레실(윗구리실) : 구레실 골짜기의 중간쯤(1km)이 되는 곳에 동향한 마을
- 애장터 : 옛날에 어린아이가 죽으면 묻었던 곳. 윗구레실과 아랫구레실 사이의 은용골가든 동편 골짜기와 서편 큰봉 골짜기에 위치함
- 윗구레실골 : 윗고래실 마을에서 1km 정도 올라간 안쪽 골짜기로 보광사가 자리하고 있음. 그 서편으로 소친골, 횃가마골, 흥두깨날, 부영골, 너른번식, 꽃날, 오시락골 등이 있음. 보광사 아래쪽으로는 두터골이 있고 그 뒤쪽으로 깎은별이라는 능선이 윗구레실 마을 동편까지 이어짐
- 횃가마골 : 예전부터 회(하얀 흙)가 많이 났었다는 설이 있어 횃가마골로 불리웠다고 함
- 안골 : 윗구레실 마을 입구에서 깎은별 동편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 서당골 : 안골의 입구로 예전에 서당이 있었다 함
- 회부(回富) : 구레실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골짜기 및 마을로 보광사 쪽이 되는데 예전에 회를 굽던 가마가 있었기에 불리는 이름으로 횃가맛골, 횃가물골이라고도 함.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음
- 바탕골고개 : 구레실에서 바탕골로 가는 산길. 풀베고 나무하러 다니던 길
- 행상바위 : 구레실과 바탕골 사이의 능선에 있는 바위로 상여바위라고도 함.

- 큰 바위가 상여처럼 보이고, 그 뒤에 만사와 조문객이 따르듯 드문드문 작은 바위들이 연달아 있음
- 느랏번데기들 : 구레실과 바탕골의 중간에 있는 평퍼짐한 경사의 골짜기로, 이곳을 통하여 구레실과 바탕골로 연결됨. 구레실 마을회관 앞의 옛 도로를 300여m 동쪽으로 가다 남쪽으로 바꾸어 바탕골로 가는 길에 있는 소나무편 덩이 있는 곳임
 - 장승백이고개 : 구레실 입구(은용2리의 입구) 바로 앞을 통과하는 36번 도로의 공주 쪽 고개로, 예전에 장승이 있었다 함
 - 고아원 : 6.25전쟁 당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데려다 키웠던 마을로 현재는 마을이 거의 사라지고 그 흔적만이 남아있음. 주민들은 그 마을(골짜기)을 고아원이라고 불렀다고 함
 - 큰봉산 :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위해 횃불을 밝혀놓은 봉우리로 여겨지며, 현재 봉화터 등은 남아있지 않으나 마을 주민들의 구전에 의해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음
 - 시루봉 : 떡시루처럼 봉우리에 구멍이 7개 있다고 하여 붙여진 봉우리로, 여기서 말하는 7개의 구멍이란 시루봉에서 마을을 보면 총 7개의 명당(배산임수)이 보인다고 전해짐
 - 산적골 : 과거 전쟁당시 적들이 모여 있었던 본거지였으나, 적들을 토벌하고 다 흩어지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옴

(2) 마을의 민속 · 문화

- 농골 동신제

은용리 농골 공동묘지에서 정월 열 나흘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자 지내는 마을 제사이다. 은용리 농골 동신제에서 주민들은 음력 열 나흘날 밤이 되면 마을의 공동묘지에 모여서 떡과 여러 음식, 술 등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낸다. 이는 마을 사람들의 한 해 동안의 건강, 농사의 풍요로움, 자식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마을의 돌림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뒤풀이로 마을 사람들이 고사가 끝나고 나서 춤을 추곤 했지만 현재는 뒤풀이 없이 간소하게 고사만 지낸다고 한다.

과거에는 은용리 농골 동신제를 샘물도 푸면서 보름 동안 크게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이를 내지 사흘 동안 치르며 마을 회관에서 끝낸다고 한다. 동신제를 지낸 유래로는 옛날에 마을에 일명 손님이라는 얼굴이나 피부 등에 구멍이 뚫리는 전염병이 들어 아이들과 어른 할 것 없이 주민의 절반 이상이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 후 이러한 재앙을 막고자 은용리 농골에서는 동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과거에는 돌을 세워놓고 제를 올렸으나 2013년에 석장승을 세워 이 제를 보존하고자 하였으며, 동신제가 이루어지는 이곳을 동신제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동신제단과 석장승

- 은용1리 마을길 이야기

과거 은용1리에는 천석꾼들이 많이 살던 마을이었으며 현재와 같이 길이 잘 정비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는 이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시주를 하기위해 천석꾼들을 찾아갔지만 한명도 시주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님은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 마을에 길을 잘 만들면 마을에 천석꾼들을 제외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길을 만들었고 이후 천석꾼들은 몰락하였다고 하며 그 길이 현재의 마을길이 되었다고 한다.

- 은용2리 향나무와 노신제

은용2리 입구에는 수령 약 300년(보호수 지정당시 수령을 약 220년 정도로 추정 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수령이 약 300년 가량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가량의 향나무가 있는데 전해 내려오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마을의 안녕과 풍수 재앙(자연제해)을 막아주는 수호신으로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주민들이 모여 술과 떡을 차려놓고 이 향나무에 노신제를 지내고 있다. 이때 마을사람들이 한해 동안 건강하고 농사와 자손들의 무탈을 기원하는 소지(소원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금줄과 함께 올린다. 금줄은 노신제를 지내기 일주일 전부터 쳐서 마을과 향나무에 부정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향나무는 현재 세종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하여 주민들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 향나무에는 돌(바위)이 4개있는데 60년마다 돌을 하나씩 세워 노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즉 노신제의 역사는 최소 24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용2리 노신제의 한글 축문은 다음과 같다.

“정월 십사일 제수 ○○○는 주민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가로신께 고하나이다. 마을과 주산을 보호하는 신께서 기쁜 것은 들어오게하고 나쁜 것은 쫓아내게 해주시옵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축은 번성하게 하여 마을 주민들이 평화롭고 복된 땅에서 살게해주시기를 기원하옵니다. 비록 작은 제물을 올리으나 경건한 마음으로 공손히 바치오니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은용2리 노신제 축문



은용2리 노신제 장부

- 은용2리 향나무에 얽힌 이야기

일제강점기 때 현재 36번 국도를 따라 과거에도 길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일본 군 순사 두 명이 말을 타고 그 길을 가다가 마을 입구의 향나무의 상수냉덩이(사람으로 치면 머리, 향나무의 맨 꼭대기)를 총으로 쏘아 맞추는 내기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일본순사한명이 향나무의 머리를 명중하였는데, 그 다음 가로고개에 도착하여 말과 함께 넘어져 목이 부러지고 즉사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3) 유적 현황

리	개소	시대	문화재 성격	비고
은용리	3	백제(2)	산성, 유물산포지	
		근·현대(1)	산신도	

3) 마을의 생활환경

(1) 마을조직

은용리의 행정 현황

행정리	반	자연마을명	반장명	가구수
은용1리	1		정수만	35
	2		송해선	20
은용2리	1	윗구레실	안병석	20
	2	아래구레실	정영복	24
	3	바탕골	정승택	4

은용리의 마을조직

행정리	조직	인원	주요활동
은용1리	부녀회		마을의 부녀 중 70%가 70세 이상이고 30%가 40~60대 정도 되는데 60세 미만의 아주머니로 구성된 마을 부녀회는 주로 폐자원 모으기 활동과 생활 용품 공동구매와 년 2회의 경로잔치를 하고 있다. 인구는 점차 감소되어가지만 변하지 않고 해가 갈수록 부녀회는 그 정성과 사랑이 차고 있다.
	청년회		마을의 젊은이들이 마을의 대소사의 일이 있을 때 일선에서 힘을 모아 진행하는 모임이다.
	노인회		은용1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오랜 마을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대소사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은용2리	부녀회	22명	은용2리의 부녀회는 대부분이 고령의 부녀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추어 온 이웃으로서 마을 행사시 음식 장만을 비롯하여 청년회를 지원하고 마을 대소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회	58명	은용2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의 젊은 층을 도와 마을 행사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오랜 마을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대소사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역대 이장명단

행정리	순번	성명	임명기간	비고(수상여부)
은용리(1,2리 분리 전)	1	구철희		
	2	신성균		
	3	신성균		
	4	신용현		
	5	이순기		
은용1리	1	김동식	2년	
	2	김덕현	2년	
	3	이병익	2년	
	4	송선용	2년	
	5	이성규	16년	충남도지사 표창, 공주시장표창
	6	구자선	4년	
	7	이해병		
은용2리	1	이순기	24년	공주시장 표창
	2	신상철	10년	공주시장 표창
	3	임헌택	5년	세종시장 표창

(2) 마을 공공시설

은용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은용1리 노은경로당	1997년 건축되었으며 붉은 벽돌의 일반적인 1층 구조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부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마을회관에서는 농업공동체활동, 생활공동체활동 등의 회의장소로 사용하며 면적은 약 120㎡이다.	
은용1리 은골경로당	1999년 건축되었으며 노은동까지 가서 회관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은골에 따로 건립된 회관이다.	
은용2리 경로당	붉은 벽돌의 일반적인 1층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약 120㎡이며 휴식과 여가생활 등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노인들의 공간이다. 마을회관 앞에 마을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공동으로 주차를 할 수 있다. 주차면적은 약 150㎡이다.	



마을표지석



양지말



장승배기터



농골



은용천



여흥민씨 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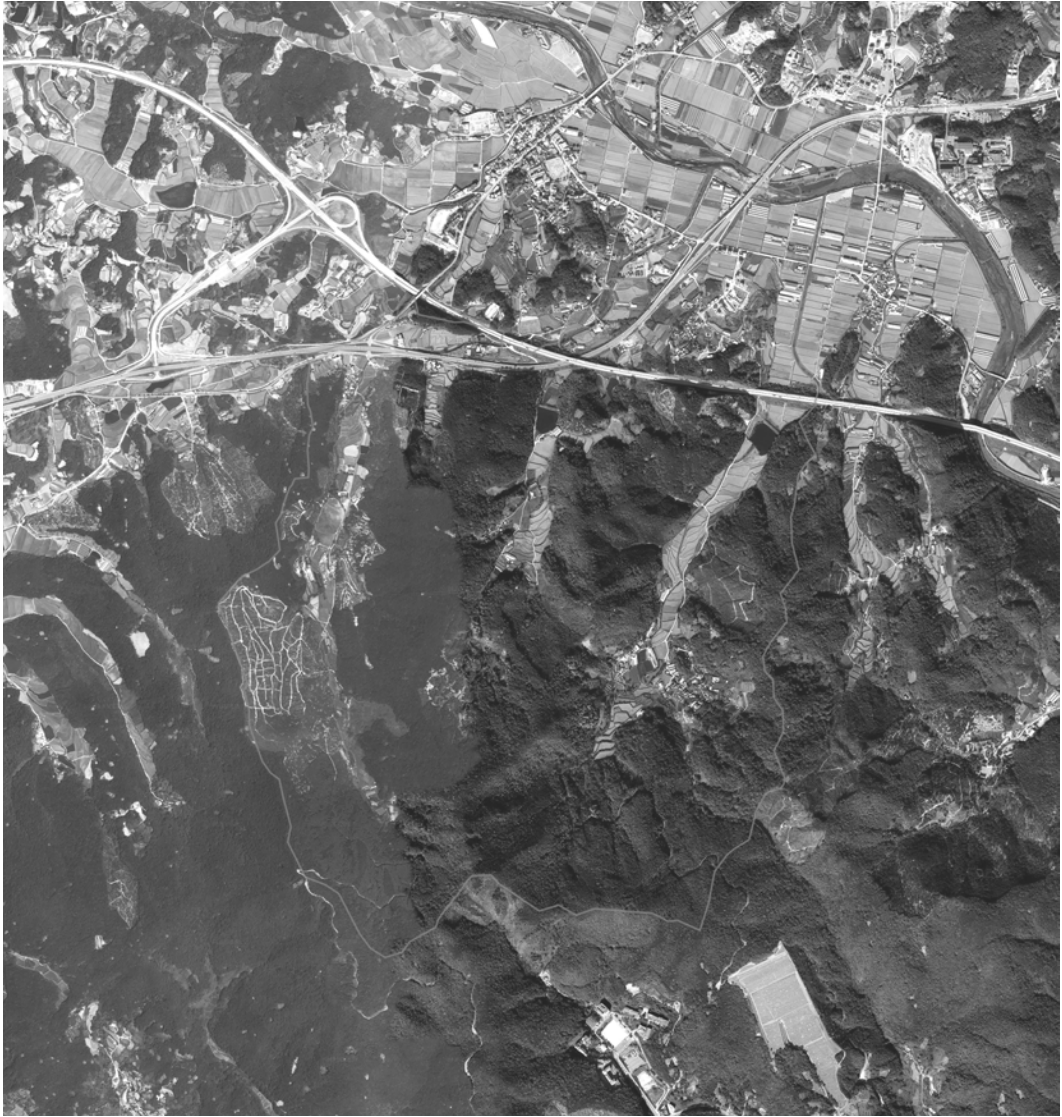
효자각



노은골 우물



은골 느티나무



8. 산학리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3.94km ²	
	경지면적	73.13ha	
인구	가구	총가구(146가구), 농가(72가구), 비농가(74가구)	
	인구수	합계 (318명), 남자 (168명), 여자 (150명)	
	60세 이상	75명(24%)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마을 전경

산학리는 장군산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 마을이다. 예부터 산에 학이 많이 날아다니는 지역으로 산학이라 하였다. 장군면의 남동부에 위치하여, 북쪽은 봉안리, 동쪽은 한솔동, 남쪽은 금암리, 서쪽은 은

용리에 접해 있다. 지방도 691번이 북부와 동부에서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어 북서쪽으로는 은용리에, 남동쪽으로는 연기군 남면에 연결된다. 이외에도 소규모의 도로가 지방도 691번에 연결되어 있다.

산학리의 중부와 남부에는 각각 해발고도 2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북부로는 대교천(大橋川)이 흐르고 있고, 주변에는 충적평야가 있다. 이 평야는 구레들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동부와 북부의 경계를 흐르는 대교천 유역에는 인공제방이 대규모로 축조되어 있다.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유역과 평야 지대에 쉼말·행정·미학실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산학리의 총 면적은 3.94km², 경지면적은 73.13ha에 이르며, 총 가구 및 인구수는 각각 146가구 318명(남자 168명, 여자 150명)이다.

산학리는 일반적인 평지의 주거 형태를 하고 있다. 주변으로는 농업경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축 주택지와 옛 한옥집이 잘 어우러져 있는 특징을 보인다. 산학리는 많은 주민들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47가구가 1400여두의 소를 키워 비교적 부농을 이루고 있다. 목장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인근 남양유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한우 브랜드 ‘토바우’ 로 등록된 농가도 5가구나 된다. 또한 장군면 농가 전체에 공급할 수 있을 규모의 TMR 사료 공장이 들어서 있다.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했다. 신라 때는 응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말엽엔 공주군 장척면의 지역으로 산에 학이 많이 날아다니는 지역으로 산학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효제동, 송학리, 신학리, 소학리, 학림리, 행정리, 중산리, 우산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산학리라 하고 장기면에 편입되었다. 부안 임씨, 진주 유씨, 성씨 등 22개 성씨가 고루 잘 균형을 이루고 살고 있다.

- 산학리 사지

산학리 미학실로부터 두 개의 능선을 넘어 산길 약 2km 쌍봉의 중턱에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 사지이다. 계곡 옆의 경사지를 깎아 5m 높이의 축대를 쌓고, 상, 하 2단의 대지를 조성하였다. 여기는 그 건물지로 추정하여 보면 이 사지는 일종의 암자와 같은 조그만 불당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영평사

- 영평사

영평사는 조선 중기에 창건된 사찰로 회자되고 있으나, 정확한 창건 시기는 모른다. 1987년 주지 환성이 요사 건립부터 시작하여 중창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마곡사 말사로서 6동의 문화재급 전통건물과 3동의 토굴을 갖춘 대한민국 전통사찰 제78호의 수행도량이다.

영평사(주지 환성스님)는 산학리 장군산의 동쪽자락에 자리하고 있어 주변에 마곡사, 갑사, 동학사 등 고찰들과 연계한 명찰순례 불자들이 많이 찾는다. 영평사에는 아직도 반딧불과 가재, 다슬기가 사는 청정한 물과 공기를 간직한 수행도

량이다. 영평사에서는 포교 외에 장학회를 설립하여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영평사는 세시풍속 알리기, 다도, 꽃꽂이, 서예, 예절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다.

특히 매년 10월경 개최되는 영평사 구절초 꽃 축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야생화와 사찰의 조화로움으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연예인, 음악인을 초청하여 음악회를 열기도 하며, 구절초 차 음미하기, 템플스테이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영평사의 건물로는 일주문(2001년 건립), 대웅보전(1990년 건립), 삼성각(1996년 건립), 적묵당(1999년 건립), 삼명선원(2001년 건립), 설선당(1998년 건립) 등이 있으며, 이외에 3동의 토굴이 있다. 성보로는 아미타대불, 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불, 아미타여래불, 관세음보살상, 지장보살상,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독성탱화」, 「산신탱화」 등이 있다.

(1) 지명유래

○ 병풍정이 : 장밭들 위쪽의 마을로, 그 유래는 다음과 같음. [마을과 마을 사이에 큰 바위가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서 이웃 마을과 연락하기가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큰 병풍같은 바위를 돌아가려면 하루 해가 꼬박 걸렸다 한다.



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천지신명(天地神明)께 빌기를 우리가 살기에 가장 불편한 저 바위에 길이 뚫리게 해 달라고 항상 빌었었다 한다. 하루는 여기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천지신명께 알려졌던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이 울리며 번개가 번적번적하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 그 후 하늘에서 불줄기가 무섭게 바위 위로 내리면서, 그 바위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서 우중에 모두 밖으로 나와 구경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너희들의 정성이 기특하여 소원을 들어 주노라. 이 바위가 땅속에 들어가면 그 바위 위에 곡식을 갈아 먹을 만한 흙이 덮힐 것이다. 그 흙을

놀리지 말고, 거기에 전답을 만들어 곡식을 심도록 해라.” 하는 소리가 들려 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는데, 정말 비가 개인 후 바위가 가라앉은 곳을 찾아가 보니 그 넓은 바위가 지하로 가라앉고 흙이 덮여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거기에 곡식을 심고 일 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낸다 한다. 바위가 가라앉은 마을이라 하여 병풍쟁이 또는 병풍정이라 부른다.]



○세집매 : 평말 위쪽 마을로, 그 유래는 다음과 같음. [오랜 옛날 각기 성이 다른 세 사람이 집을 짓고, 세 집이 살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가 어찌나 싸우는지 날이 새면 온종일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하루 종일 싸우다가 각기 헤어져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내일도 너희들이 싸우면 아주 염라대왕에게 보내어 혼내주겠다.” 고 말하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이튿날 세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었다 하여 그 이후론 싸우지 않고 다정하게 살았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마을이 커져 갔다 하며 세 사람이 처음 정착한 마을이라 해서 세집매라 부른다.]

○비학실(飛鶴실) : 장밭들 남쪽 골짜기 마을로 지형이 마치 학이 나르는 형국이라 하여 비학실, 미학실, 송학동, 비학동 또는 미학동이라 부르며, 그 유래는 다음과 같음. [옛날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마을에 살고 있었다. 어찌나 가난했는지 곡식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초근목피로 연명해 가고 있었다. 하루는 망태기를 메고 먹을 것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가 나물을 캐기 위해 우선 먼저 숲을 헤치고 있었다.



그런데 다리를 다친 학이 날지를 못하고, 퍼덕거리고 있었다. 그는 학을 안고 황토흙이 있는 곳에 가서 황토를 바른 다음, 칫덩굴로 다친 다리를 꼭매어 줬더니 그 자리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였다. 그는 허기가 저서 기진맥진해 있는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학떼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을 바라보니, 학떼가 날아와선 입에 물고 온 쌀을 물고 날아와서 뒷마당에 깔아 놓은 맷방석에 놓고 가는 것이었다. 두 말은 족히 되었다. 그런 일이 매일 계속되어 식량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다. 학떼들이 가끔은 동전도 물어다 주어 부유하게 살게 되었다고 한다. 학이 쌀을 물고 날아다닌 곳이라 하여 미학실이라고도 부르다가 지금은 비학실로 변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 행정(杏亭) : 장밭들 동쪽 마을로, 옛날에 이곳을 지나 다니는 행인들이 쉴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은행나무 정자를 만들어 쉬어가곤 했다고 함. 그 은행나무 정자가 있는 마을이라 행정이라 부르게 되었음



- 장밭들 : 중산 아래에 있는 마을인데, 넓은 벌판이라 밭이 많은 마을이라 함. 넓은 들에 밭이 길고 커서 장전(長田)이라 부르며, 아래뜸, 윗뜸을 합하여 장밭들이라고 부름

- 개미고개 : 억너머라고도 부르는 고개로, 그 유래는 다음과 같음. [옛날 고개 아래에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집이 가난한데다가 우환이 겹쳐서 하나밖에 없는 딸까지 팔아 버렸다. 그는 딸을 팔아 버리던 날 밤, ‘이 지경으로 세상을 살면 뭘 하느냐.’ 고 죽기를 결심하고, 새끼를 손에 들고 뒷산 고개에 올라갔다. 그리고 목을 매달아 죽기 위해 새끼를 고목 나뭇가지에 걸치고 목을 매달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새끼가 ‘툭’ 하고 끊어지는 바람에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그는 다시 새끼를 두텁게 해서 또 목을 매달았다. 몸에 힘이 차츰 없어져서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새끼가 ‘툭’ 하고 끊어져서 이번에는 땅에 뒹굴며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이래서는 죽을 수 없다고 새끼를 몇 갑절로 꼬아서 나뭇가지에 던지고 땡땡하게 늘인 다음 목을 매달았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죽을거라고 눈을 감고 목을 늘이고 있는데, 숨이 끊어지려는 찰나에 또 새끼줄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땅에 떨어져서 나뭇가지를 바라봤다. 나뭇가지엔 새끼줄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는 이래가지고 살아서 어찌 집으로 돌아가겠느냐고 다시 죽기 위해 새끼줄을 내려오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다달았을 때다. 그 나뭇가지엔 개미가 우굴우굴 했고, 먹을 것을 나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생각했다. ‘나도 열심히 일을 하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끝에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하였다. 그 후, 팔려갔던 딸도 데려오고 해서 노년엔 부자로 잘 살았다고 한다. 개미가 사람에게 정을 베풀었던 고개라 하여 개미고개라 부른다.]



○팽이못 : 미학실에 남아 있는 못으로, 그 유래는 다음과 같음. [옛날에 못 근처에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과부는 자식 없어도 혼자서 부지런히 일하며 잘 살고 있었다. 하루는 밭에 나갔다

가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생각하고 집에 데려와서 미음을 주고 치료를 하였더니, 바로 살아나서 고양이와 재미있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커짐에 따라 고양이가 나들이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고양이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열 마리 정도까지 늘어났을 때도 그녀는 고양이를 귀여워하였다. 잠깐 사이에 고양이가 수십마리로 늘어나자 공연히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 해 따라 가뭄이 극심해서 고양이에게 먹일 것이 없었다. 과부는 그렇다고 자기를 찾아온 고양이를 죽일 수도 내쫓을 수도 없고 해서 자기가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붓짐을 챙긴 후 마지막으로 하룻밤 잠을 자기 위해 잠자리에 누웠을 때다. 주인이 집을 나가려는 것을 눈치챈던지 제일 늙은 고양이가 밤에 잠자리에 나타나더니 자기 목을 누르려는 것이

었다. 하지만 과부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너희들 끼리 잘 살아보라고 말을 했다. 고양이는 더욱 힘을 주어 목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하늘에서 번개가 몇 번 번쩍번쩍 하더니, “빠져 죽어라. 주인의 고마움을 알아라. 어서 못으로 뛰어들어라.” 하는 벼락같은 노성이 들려오자, 고양이들은 모두 못속으로 빠져 죽는 것이었다. 과부는 신기하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못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못에 빠진 고양이의 시체는 단 하나뿐, 다른 고양이의 시체는 없었다. 그래서 과부는 이것은 천신의 조화라고 생각하였다. 빠져서 죽은 고양이는 자기목을 조른 고양이고, 다른 고양이는 승천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고양이 시체 하나를 건져서 못 근처에 묻어 주고, 각별히 연못을 아꼈다 하며 고양이가 빠져 죽은 연못이라 하여 팽이못이라 부른다.]

- 장수못 : 보안아래 대교천 부근에 남아 있는 못으로, 유래는 다음과 같음. [옛날 이 부근에 허약한 농부 한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몸이 허약해서 장수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힘이 장사인 사람만 바라보아도 공연히 부러워했다. 어느 날, 그는 산에 나무하러 가기 위해 밥을 싸서 지게에 매달고 산에 올라갔다. 나무를 한참 하다가 배가 고파서 200년 정도 묵은 나무 아래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잠이 들었을 때였다. 그가 곤하게 잠을 자는데 꿈에 하얀 백발노인이 나타나선, “네가 장수가 되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라. 네 집 근처 큰 냇물이 굽이치는 곳에 못이 있는데, 거기에 20년 묵은 잉어가 살고 있으니라. 그 잉어를 네가 먹을 수만 있다면, 너는 큰 장수가 될 수 있으리라.” 하고 말하곤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허나 장수되기가 소원인 그는 꼭 잉어를 잡아먹고 장수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후 집에 돌아와선 칠펝 굴로 그물을 만들어서 그물을 치고 있으니 과연 3척 가량 되는 누런 잉어 한 마리가 펄쩍펄쩍 뛰는 것이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잉어를 잡고 집에 와서 잉어를 달여 먹었다. 이후로는 날로 힘이 좋아져서 큰 장수가 되었다고 한다. 장수를 낳게 한 연못이라 하여 장수못이라 부른다.]

- 날매고개 : 소잠고개의 효제암 가는 길에 있는 고개로, 그 유래는 다음과 같음. [옛날부터 이 고개엔 곰이 살고 있었다 한다. 옛날 신라 때 포수 한 사람이 곰

을 잡기 위해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웅진(熊津)쪽으로 곰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뒤쫓아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포수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날이 저물어서 곰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룻밤을 곰이 있는 굴 아래턱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를 잡으러 온 포수가 여기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곰이 바위를 굴러 포수는 그 바위에 깔려 죽었다고 한다. 그 뒤 여기 사람들은 이 고개를 지나려면 곰이 살고 있어서 걸어서는 갈 수 없고 나는 것처럼 다녀야 할 고개라 하여 날매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목거리 : 통미라고도 부르는 산학리 2반 비학실에 있는 거리로, 유래는 다음과 같음. [옛날에 호랑이가 많이 살아서 사람들은 해가 기울면 길을 다니는 것을 꺼렸다 한다. 그런데 산기슭 넓은 공터 호목거리에 주막집을 차리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다. 하루는 밤이 이슬해서 일찍 문 닫고 잠을 자고 있는데, 주막집 문을 두드리는 인기척이 있어 나가보니 기골이 장대한 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는 병어리인지 손짓, 발짓으로 먹을 것을 원하여 차려준 술과 음식을 맛있게 먹고서 안방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다. 과부도 하는 수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룻밤을 그 사나이와 지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이상하게도 남자가 없었다. 부엌과 변소 등 사방을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냇물가로 가보니 호랑이가 사람의 옷을 벗으면서 세수를 하고 있었다. 과부는 뚝에 숨어서 바라보다가 호랑이가 냇물을 건너갔을 때, 달려가서 호랑이가 벗어놓고 간 옷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다. 그러자 산에 오르던 호랑이가 냇물 가까이로 오면서 으르렁댔다. 그녀는 재빨리 집에 가서 기름을 가져와 옷에 뿌리고 불을 지르자 호랑이는 도망갔다 한다. 그 후부터 과부는 밤에는 일체 손님을 받지 않았다. 호랑이 잠자고 간 자리라 하여 호목거리라 부른다고 한다.]
- 효제암(孝悌庵) : 산학리 남쪽 골짜기 마을로, 옛날 임자의, 임태의 형제가 살면서 효성과 우애가 두터웠던 마을이라 효제동 또는 효제암이라 부름. 또한 소잠이라고도 불림
- 절골 : 효제동 뒤에 있는 골짜기로, 능암이란 암자가 있었는데, 절은 없어지고 돌담만 남아 있음. 또한 절이 있던 마을로 과거에 사찰을 짓고 지내던 스님이

빈대가 너무 많아 다른 곳으로 떠났다 함. 후에 절은 허물어지고 지금은 큰 돌담만이 남아 있음

- 신학골(新鶴골) : 송학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이 부근에서 마을이 새로 생겼다 하여 신학골이라 부름
- 썩말 : 장밭들 남쪽에 있는 마을로, 꺾말 또는 썩말이라 부르는 마을인데, 구석에 자리하며 썩이 많은 마을이라 전해짐



- 장수바위 : 소룡골이라고도 부름. 옛날 힘이 무척 센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소변을 보아서 닳아 구멍이 난 바위이다 함. 장수가 쉬면서 앉은 자리와 지나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음
- 뒬봉 : 마을 뒷산을 가리킴. 생김새가 비탈졌기 때문에 뒬봉이라고 불림
- 쌍봉 : 황새봉 장군산 줄기에서 나온 봉우리로 영평사 뒷산을 가리킴

(2) 마을의 민속 · 문화

- 산학리 기고사

정월 대보름날 동회계장이 제사를 주관하는 마을 동제를 지내고 있다. 산학리 기고사는 타 마을과 달리 정월 대보름 새벽에 제사를 지내는 특징이 있다.



산학리 기고사

(3) 유적 현황

리	개소	시대	문화재 성격	비고
산학리	2	조선(1)	사지	
		현대(1)	사찰	

3) 마을의 생활환경

(1) 마을조직

산학리의 행정 현황

행정리	반	자연마을명	반장명	가구수
산학리	1	효제동	이은환	28
	2	비학실	유응호	13
	3	세집메	채수환	12
	4	경말, 병풍정이	송창희	17
	5	윗뜸	황영길	17
	6	아래뜸	강승기	26
	7	행정	김태권	19

산학리의 마을조직

행정리	조직	인원	주요활동
산학리	청년회	43	마을행사, 체육대회 행사 진행
	부녀회	38	마을행사, 체육대회 행사 진행
	한우작목반	47	방역활동 및 친목도모

청년회(43명), 부녀회(38명)는 정기적으로 어르신 위안잔치, 마을환경개선 등 다양한 범위에서 활동하며, 마을의 보다 나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한우작목반은 한우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공동체 모임이다.

또한 사찰경제 자립과 수행자도 노동을 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공덕회가 조직되어 있다. 모든 원자재를 토종만 사용하는 장류(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와 재래전통방식을 고집하는 죽염 제조에 애쓰고 있으며, 설립 취지대로 청소년회와 공덕회 목적사업을 착실히 후원하고 있다.

역대 이장명단

행정리	순번	성명	임명기간	비고(수상여부)
산학리	1	유석현		
	2	임광수		
	3	유명호		
	4	이근영		
	5	유관호		
	6	신기순		
	7	노환		
	8	한기수		
	9	유관호		
	10	김학현		
	11	이의규		
	12	유근도		
	13	최총수		
	14	황필성		
	15	침총수		
	16	박항기	2000~현재	도지사상 1회, 장관상 2회, 시장상 8회

(2) 마을 공공시설

산학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팔각정	장군면사무소에서 산학리 가는 길가에 있는 정자로, 1985년도 농지정리 시 만들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경로당은 1998년 지방도 공사로 인해 현재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마을회관은 2007년도에 1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의 마을회관을 준공하였다.	
약수터	산학리 영평사에 위치하고 있는 약수터이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방문객들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공동창고	마을 농기계 보관 및 농산물 저장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효제동 마을회관



행정



효제동



영평사



마을회관 준공식



한우축사



1960년대 산학리 4H활동



전통가옥



산학리 경로잔치



산학리 마을주민들



9. 송문리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3.03km ²	
	경지면적	109.11 ha	
인구	가구	총가구(130가구), 농가(72가구), 비농가(58가구)	
	인구수	합계 (285명), 남자 (143명), 여자 (142명)	
	60세 이상	62명(22%)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조선말기 소나무 정자가 있어 송정이라 한 이후 1983년 송정리와 분할되면서 송문리가 되었다. 장군면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리로, 북쪽과 서쪽은 공주시 의당면, 동쪽은 평기리, 남쪽은 하봉리에 접해 있다. 지방도 691번이 동부에서 남북 방향으로 뻗어 남쪽으로는 평기리에, 북쪽으로는 용현리에 연결된다. 이외에도 소규모의 도로가 지방도 691번에 연결된다.



마을 전경

송문리는 완만한 구릉성 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마을의 서부와 북부로는 해발고도 2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북부 경계에는 종고개가 있다. 동부로는 대교천(大橋川)이 남북 방향으로 흘러 주변에 층적평야가 있고, 남부에도 대교천의 지류에 의한 층적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이 평야가 평기앞들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대교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유역과 평야 지대에 토끼자리·문성·증말·송정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송문리의 면적은 3.03km²이고 그 중 경지면적은 109.11ha에 이른다. 총 130가구 285명의 인구를 보이며, 그중 남자가 143명, 여자가 142명으로 성비가 매우 균등하다.

송문리의 주요 특산물은 인삼, 밤, 벼, 고추 등이다. 특히 당뇨병 예방, 항암작용, 동맥경화·고혈압 예방 및 간장 보호 작용, 숙취 제거, 항스트레스 작용 등 신체기능의 향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건강식품인 인삼을 재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송문리는 2008년 3월 27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열차승무사업소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 농사철 일손 돕기와 직거래 등을 하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했고 신라 때는 응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고, 조선시대 말엽엔 공주군 의당면의 지역으로 소나무 정자가 있으므로 송정(松亭)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문성리(文城里), 점촌리(店村里), 월대리(月埜里), 평기리(坪基里) 각 일부를 병합하여 송정리라 하고 의당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문제 및 원송정 마을이 1983년 행정구역 개편, 조정에 의거 장기면으로 편입되면서 송문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편입되었다.

- 유성하

조선 후기 충청남도 공주 출신의 무신으로,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천경(天卿)이다. 증조할아버지는 공주 충렬사에 배향된 유형(柳珩)[1566~1615]이고, 아버지는 포도대장을 지낸 유병연(柳炳然)[1625~1681]이다. 원래 진주유씨 세거지는 경기도 고양이었었는데 유형의 장남 유충걸(柳忠傑)이 공주로 이거(移居)한 것으로 추정된다. 묘소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언덕에 있으며, 묘지문(墓誌文)은 둘째 아들 유현장(柳顯章)이 지었다. 문성영당에 영정이 있다. 유성하가 전라도 함평현감으로 있을 때 청백리로 이름이 높아 함평현 사람들이 유성하의 화상을 그려 생사당(生祠堂)과 비석을 세웠는데, 그 후 후손들이 고향인 장군면 송문리(당시 공주시 장기면)로 옮겨 와 봉안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문성영당은 소실되어 터만 전해질 뿐이며, 송문리 문성마을 북쪽언덕에 유성하가 강당을 열고 글을 읽던 곳이라 전해지는 초당바위가 있다. 유성하가 초당(草堂)을 짓고 글을 읽던 곳에서 마을로 내려오려면 사립문을 여덟 번 거쳐야 한다 해서 팔납(八納)쟁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지금의 문성마을 버스정류장 부근을 말하며, 이 마을의 50~60대 이상 어른들은 팔납쟁이라는 지명을 잘 알고 있다.

- 송정리 사지

백제시대의 절터로 1974년 백제시대의 금동관음보살입상이 출토되었던 지역이다. 주변에서 고식(古式) 기와편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 기와편 중에는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찰이 화재를 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송정리 사지에서 출토된 금동관음보살입상은 의문의 처리가 부여 군수리 사지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며, 여러 가지 형태가 대체로 백제의 말기 수법으로 보인다.

(1) 지명유래

- 문성(文城) : 문성산 아래 마을로 문재라고도 함. 산 정상에 산성이 있어 부르게 됨
- 문성영당(文城影堂) : 문성에 있는 숙종 때 청백리(清白吏) 유성하(柳星河)의 영당. 함평 현감이 되었을 때, 그 고을 사람들이 유성하의 청백한 덕을 추모하여, 그 화상을 그리고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었는데, 그 후에 유성하의 자손들이 고향으로 옮겨서 지금에 이름
- 점막 : 문성 서쪽에 있는 마을. 송정과 경계를 형성하는 골짜기 가운데에 생겨난 마을로, 그릇 굽던 곳이 있었다고 함. 점막, 점촌(店村)으로 부름
- 토끼자리[토좌(兔座)] 문성 동북쪽에 있는 마을. 뒷산에 토끼가 앉은 것 같은 바위가 있음. 토좌등이라고도 함
- 토끼자리: 초당바위골 15분 거리에 있는 산
- 나무쟁이골 : 송정마을 남서쪽 골짜기. 일설에는 호랑이 머리를 닮았다 하여 또는 호랑이가 자주 출현해서 백두고개라는 설이 있음. 고개를 넘어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를 오갔으며, 서낭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돌을 쌓고 액운이 멀어지도록 빌었다고 함
- 상바지 : 토끼자리 북쪽에 위치한 송문리에서 가장 위에 있는 마을로, ‘상(上)’ 자를 써서 상바지라 하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곳에서 금부처가 근래 발견되었다는 점임. 이곳에서 출토된 백제 시대 금동관음보살입상은 김연식씨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현재 국보 제247호로 지정되어 공주 박물관에 소장 중임
- 성안고개 : 성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성재 또는 성안이라 하며 일제시대 공주 산성의 의병과 이곳의 의병들이 서로 봉화로 연락을 했다고 함. 현재 성터는 남아 있으나 봉화대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음
- 성재골 : 송정리와 경계를 이루는 지점으로, 골짜기가 성재봉을 향해 깊이

들어가 있으며, 농성이라고도 부름. 마을 뒤편 정상부에 성터가 있어 부르는 이름이며, 현재도 성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음. 또 옛날 큰 부자 한 사람이 국난을 피하여 이곳에 성을 쌓고 은신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함

- 송문(松文) : 송문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자 중심마을임. 소나무 정자가 있다 해서 송문이라 부름
- 원송정(原松亭) : 송문은 원래 송정리의 중심마을이었는데 송정리와 송문리로 분리되면서 송문리의 중심 마을이 되어 송문이라고 하며, 원송정이라 부르기도 함
- 작은골 : 옛날 고려장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전해지며, 가까이 상여집이 있었음
- 초당바위 : 문성마을 뒤편에 있는 바위. 옛날에 마을에는 힘센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한다리(대교리)까지 한걸음에 활보할 정도였으나, 공교롭게도 분탄들(평기리)까지만 활보했는데 그 출발점이 장수바위이며 도착점이 분탄들이었다고 전해짐



초당바위

(2) 마을의 민속 · 문화

- 집고사

매년 정월대보름에 집고사를 지내고 있다. 마을곳은 1년에 1회, 혹은 수차례 마을 대동신(大同神)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공동체 의례이다. 비용은 집집마다 정성껏 쌀이나 돈을 내어 마련한다.

- 문성, 송정의 공동우물

문성, 송정의 공동우물은 예부터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문성 공동우물은 2014년 5월 마을에서 세심정(洗心亭)이라는 현판을 걸어놓을 예정이다. 문성 공동 우물 주변은 예부터 세심이로 불리며, 특히 우물은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거나 줄어들지 않아서 명당중의 명당이다. 세심이란 마음을 깨끗이 씻는 다는 의미로 마을주민들이 예부터 마음이 넓고 정직하여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문성 공동우물



송정 공동우물

(3) 유적 현황

리	개소	시대	문화재 성격	비고
송문리	1	백제(1)	사지	

3) 마을의 생활환경

(1) 마을조직

송문리의 행정 현황

행정리	반	자연마을명	반장명	가구수
송문리	1	토끼자리		9
	2	문제		9
	3			20
	4	초당바위		10
	5	즘말		22
	6	송정		20

송문리의 마을조직

행정리	조직	인원	주요활동
송문리	청년회	30	
	부녀회	30	
	노인회	50	

(2) 마을 공공시설

송문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마을회관	붉은 벽돌의 일반적인 1층 구조의 마을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부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마을회관에서는 농업공동체활동, 생활공동체활동 등의 회의장소로 사용하며, 면적은 약 120㎡이다.	
(여)경로당	송문리는 마을회관과 독립적인 경로당을 지니고 있는데, 여성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자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한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사계절 모두 사용 할 수 있으며 산림경관과 어우러진 농업경관이 보이며, 농사일에 지친 몸을 잠시 이곳에서 회복할 수 있다.	
농기계보관소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물로 지붕은 파랑색이다. 마을 농민들이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이며 앞쪽으로는 농기계를 청소할 수 있는 공터가 있다.	



마을표지석과 정자



성재골



문재



문성교



수령 200년 이상 소나무



마을 공동저온창고



10. 송정리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1.41㎢	
	경지면적	34.46ha	
인구	가구	총가구(32가구), 농가(22가구), 비농가(10가구)	
	인구수	합계 (70명), 남자 (33명), 여자 (37명)	
	60세 이상	19명(27%)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송정리는 조선말기 소나무가 정자처럼 길게 늘어져 있어 사람들이 휴식하던 곳으로, 송(松), 정(亭)이라 하였다. 장군면 중서부에 위치하여, 북쪽과 동쪽은 송문리, 남쪽은 하봉리, 서쪽은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접해 있다. 국도와 지방도는 지나지 않으나, 시도 7번이 동쪽 및 남쪽 방향으로 지나 동쪽으로는 청룡리에, 남쪽으로는 송선리 및 하봉리에 연결된다.

송정리는 완만한 구릉성 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의 서부와 북부로는 해발고도 100여m의 낮은 산지가 있고, 동부와 남부로는 대교천(大橋川)의 지류인 송정천(松亭川)이 동서 방향으로 흐르면서 해발고도 60여m에 형성된 충적평야가 있다. 송정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을 따라 평야 지대에 성재골·월대 등이 들어서 있다.

송정리의 총 면적은 1.41km², 경지면적은 34.46ha이다. 총가구는 32가구, 인구는 70명(남자 33명, 여자 37명)으로 장군면 소재 법정리 중 가장 인구규모가 작다.

마을의 특산물은 인삼이다. 송정리 인삼은 당뇨병 예방, 항암작용, 동맥경화·고혈압 예방 및 간장 보호 작용, 숙취 제거, 항스트레스 작용 등 신체기능의 향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건강식품으로서 마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마을 전경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했고 신라 때는 응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고 조선시대 말엽엔 공주군 요당면의 지역으로 소나무 정자가 있으므로 송정(松亭)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문성리(文城里), 점촌리(店村里), 월대리(月埜里), 평기리(坪基里) 각 일부를 병합하여 송정리라 하고 의당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 조정으로 문제 및 원송정 마을이 송암리로 명명되면서 장기면으로 편입되어, 송정리 2구였던 곳만이 송정리로 되었다. 이후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편입되었다.

- 송정리 산성

백제시대 석축 산성으로 공주에서 전의쪽으로 빠지는 지방 도로를 타고 8km쯤 가면 송정리 성재골이 나온다. 송정리 산성은 이 마을의 뒤편, 즉 북쪽에 솟아 있는 ‘성재’에 위치해 있다. 이 산성의 축조 경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성 시기부터 정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송정리 산성에 대해서는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축성 시기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축조 배경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 송정리 산성은 테뫼식 산성의 형태를 하고 있다. 다만 성벽이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비슷한 높이로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동쪽이 높고 남서쪽이 낮은 형태이다. 삼태기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동쪽 성벽이 정상부가 아닌 정상부 가까이 산봉 동사면을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성벽의 대부분은 붕괴되었다. 면석은 찾아볼 수 없고, 뒤채움석만 남아 있어 정확한 축성법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전에 토축 산성으로 보고되었던 것도 그 때문으로 여겨진다. 성내의 평탄면은 밭으로 개간되고 있고, 민묘가 조성되어 있어 성내의 지형도 원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다. 대체로 10km 내외의 거리에 산성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치 관계로 볼 때 대부분이 백제 웅진시기 왕도를 방비하기 위해 축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송정리 산성도 백제 왕도를 방비하던 산성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발굴 조사를 통해 축성 시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송정리 산성 터

(1) 지명유래

- 아랫뜸 : 송정1반으로 배뜸과 위뜸의 제일 아래에 있는 마을임
- 위뜸 : 송정2반으로 송정에서 제일 큰 마을로 송정리의 중심임. 1983년에 송정리가 분리되어 의당의 송정리와 장기의 송문리로 나뉘었음. 원래 송정리의 중심은 송문리가 되고 월대가 새로운 송정리의 중심이 되었음
- 배뜸 : 송정 3반으로 배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던곳으로 현재에도 4가구가 살고 있음
- 안골 : 송정리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금은 한 집만 살고 있음. 안골의 북동 골짜기가 송문리의 성재골임
- 월대(月臺) : 지형이 달과 같다 하여 월대 또는 월터라 부르는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송정리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송정이라 부르고 있음
- 육거리 : 송정 남쪽에 위치하며 하봉리와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와 경계를 이룬 지역으로, 길이 일곱 갈레로 갈라지는 곳이라 칠거리라 불렀는데, 지금은 여섯 갈레로 바뀌어 육거리라 부름
- 웃갬실 : 월대마을. 갬실이란 개미실 개미집을 의미하는데 하봉에서부터 12개미실이 있었다고 함. 또 다른 의미로는 해가 뜨면 가장 먼저 날이 개는 마을이란 뜻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웃갬실이란 이름은 사용되지 않음

- 윗대 : 송정2반. 고개마루 동쪽에 두 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중 북쪽에 위치한 마을임
- 장터거리 : 송정 부근으로 여기에서 옛날에 작은 장이 섰다고 전함
- 장고개 : 장터거리를 가려면 이 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해서 명명됨

(2) 마을의 민속 · 문화

- 송정리 농기고사

송정리에는 1개의 농기가 섰다. 송정과 송문리가 같은 마을일 때는 2개의 농기가 있었으나, 송문리가 장기면으로 분할되고 나서는 단일두레였다. 농기는 농자 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대본기며, 크기가 작은 형태다. 이 마을의 농기는 아직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관리되고 있으며, 정월 대보름에 마을 고사로 다른 고사와 섞이지 않은 단일 고사가 올려진다.

고사의 진행은 ① 정초 안택풍장을 쳐 주고 돈이나 쌀을 걷는 거둬들이 ② 장보기 ③ 농기바탕 청소 ④ 농기 모시기(세우기) ⑤ 농기 고사 순으로 충청 일원의 농기고사와 유사하다.

이 마을의 농기고사가 다른 마을과 다른 것은 잔을 올리는 횟수다. 일반적으로 공주·세종 일원의 농기고사는 단잔 북배라 하여 한잔 술을 올리고 두 번 절하며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마을에서는 3배를 올리고 마을 남자 주민 모두가 함께 절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마을의 농기고사는 아직도 정월 열나흘 밤에 전통대로 열리고 있으며 다음 날인 보름에는 마을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젊은이들이 윗놀이를 즐기는 형태로 이어진다.

(3) 유적 현황

리	개소	시대	문화재 성격	비고
송정리	2	백제(2)	산성, 유물산포지	

3) 마을의 생활환경

(1) 마을조직

송정리의 행정 현황

행정리	반	자연마을명	반장명	가구수
송정리	1		이은홍	31
	2		장미숙	
	3		전민순	

송정리의 마을조직





행정리	조직	인원	주요활동
송정리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역대 이장명단

행정리	순번	성명	임명기간	비고(수상여부)
송정리		배창문		
		윤기한		
		배재평		
		윤현호		
		윤유근		
		신춘수		

(2) 마을 공공시설

송정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마을회관	최근에 건축된 건물로 농업공동체 활동, 생활공동체활동 등의 회의장 소로 사용하고 있다.	
마을정자	최신식 팔각정으로로 방한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을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공동창고	지붕이 파란색 판넬로 되어 있으며, 마을의 주요작물 등을 공동으로 저장한다.	
솔밭	마을회관 앞에 위치한 솔밭으로 아름다리 소나무들이 산재하고 있다.	



배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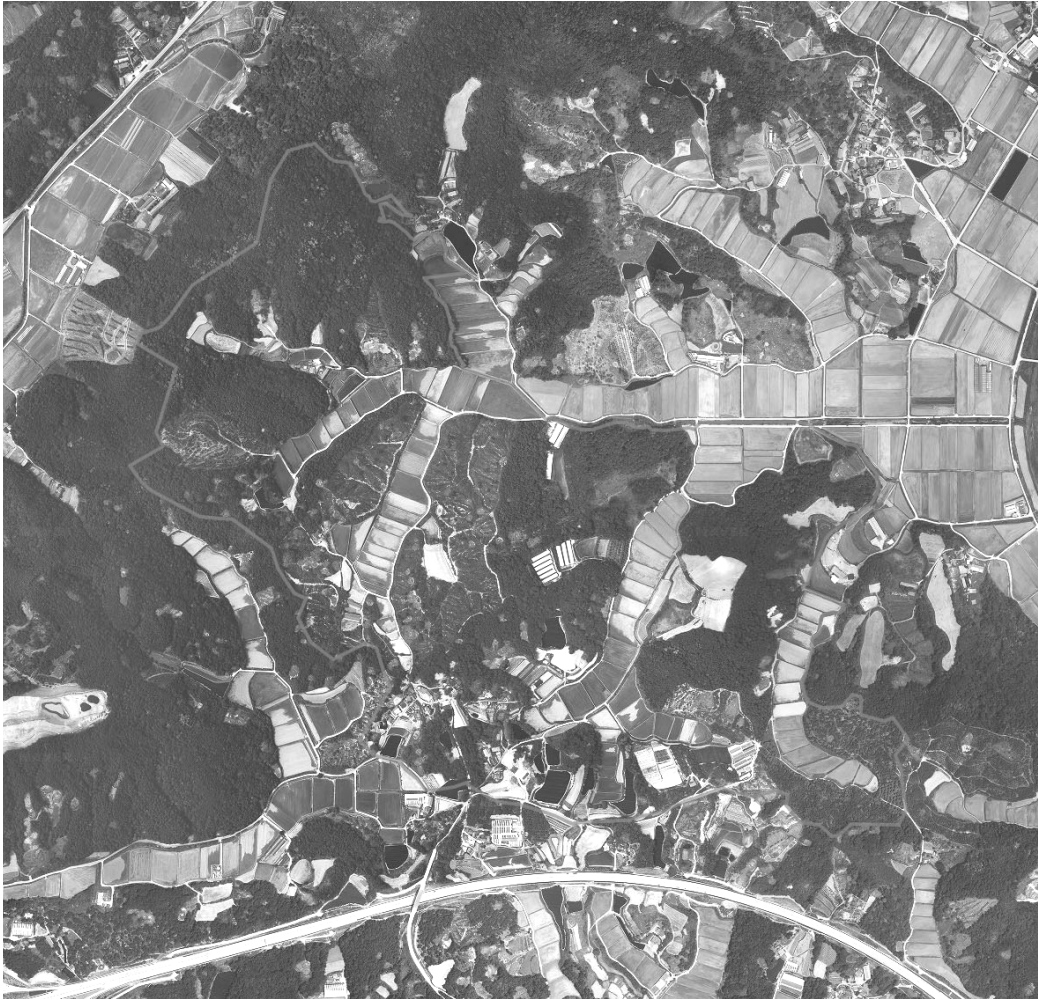
아래뜸



육거리



송정리 산성



11. 송학리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3.70km ²	
	경지면적	107.0ha	
인구	가구	총가구(141가구), 농가(80가구), 비농가(61가구)	
	인구수	합계 (303명), 남자 (159명), 여자 (144명)	
	60세 이상	33명(11%)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평지가 대부분의 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송학리는 예로부터 소나무 위에 학이 모여 앉아 있었다하여 송학이라 부른다. 장군면 북부에 위치하며, 북쪽은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동쪽은 용현리, 남쪽은 송문리, 서쪽으로는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마을 전경

와 월곡리에 접해 있다. 지방도 627번과 지방도 691번이 중동부에서 만나며, 지방도 627번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 북동쪽으로는 용현리에, 남서쪽으로는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에 연결된다. 또한 지방도 691번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어 북쪽으로는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에, 남동쪽으로는 용현리에 연결된다.

송학리의 서부·북부·남부 및 중부로는 각각 해발고도 1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남부 공주시 의당면 경계에는 종고개가 있다. 동부의 산지 사이로 대교천(大橋川)과 용두천(龍頭川)이 흐르면서 해발고도 80여m에 형성된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대교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을 따라 평야 지대에 은곡·학미·창촌·들말·방울바위·몸치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송학리의 면적은 3.70km²이며, 그중 경지면적은 107ha에 이른다. 송학1리와 2리를 합하여 총 가구수는 141가구, 인구는 303명으로, 남자가 159명, 여자가 144명을 차지한다.

송학리는 송학리와 용현리에 걸쳐 있는 송학들을 기점으로 여러 마을이 형성된 지리적 특징이 있다. 송학들은 용두천과 대교천이 해발고도 40~60m에 형성해 놓은 충적평야이다. 이 송학들 한가운데서 용두천과 대교천이 X자 모양으로 교차하고 있으며, 이 주변으로 은곡·학미·창촌·들말·방울바위·몸치와 용현리의 용대 등이 대표적 자연부락으로 들어서 있다. 또한 송학리는 현재까지도 전해오는 민속행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들말 장승제(長丞祭)와 몸티 기고사(旗告祀)가 역사 깊은 마을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했고 신라 때는 응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말엽엔 공주군 의량면의 지역으로 평촌리(坪村里), 송정(松亭), 양촌(陽村), 유산리(柳山里), 풍천리(豐川里), 학산리(鶴山里), 구암리(九岩里), 미동(美洞), 백자리(栢子里), 은곡리(隱谷里)를 병합하여 송학리라 하고 의당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편입되었다.



유지결 정려

- 충신 유지결 정려

유지결은 1618년(광해군 10) 명나라의 요청으로 후금(後金, 뒤의 청나라)을 정벌하기 위한 요동정벌군(遼東征伐軍)에 형 효결(孝傑)을 대신하여 종군하였다. 이듬해 요동의 심하에서 후금의 군대와 대적했을 때 광해군으로부터 중립을 취하라는 밀

지를 받은 도원수 강홍립(姜弘立)은 투항하였으나 유지결은 이를 반대하여 저항하다 순절하였다. 1796년(정조 20) 그의 충절을 기려 명정이 내려지고 정려가 건립되었다. 정려는 원래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송원리(현 한솔동)의 옛 금호서사 옆에 세워진 것을 1967년 후손들이 지금의 위치로 이 건하고 1998년 중건하였다. 정면 1칸, 측면 1칸의 초익공 맞배지붕 구조이며, 앞면은 홍살로 처리하였다. 정려 안에 ‘충신증조봉대부호조좌랑유지결지려(忠臣贈朝奉大夫戶曹佐郎柳智傑之闕)’라고 적힌 명정 현판이 걸려 있고, 정려기와 정려비도 세워져 있는데 정려기는 심하게 훼손되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 거북이 명당 유래 및 모티프

송학리에는 거북이가 찾은 명당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 동해안의 깊은 바다에서 살던 거북이가 명당자리를 찾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명당자리를 찾다가 이 마을에서 죽었다 한다. 마을에는 지금도 이 유래와 관련된 상여바위, 조이(교의)틀산, 요령바위, 송장산이 있다. 마을 주민들은 ‘언젠가 역사가 기록할 큰 인물이 거북이가 본 명당에 묻힐 것’ 이라고 말한다. 현재 거북바위는 1970년 도로 확장 때 훼손되어 전하지 않는다. 거북이 명당 유래의 주요 모티프는 소주길흥의 명당이다. 예로부터 ‘명당은 주인이 따로 있다’ 고 한다. 억지로 명당을 찾아서 쓰려고 해도 인물이 맞지 않으면 화를 입고, 이와 반대로 참된 명당의 주인이라면 굳이 길지를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명당을 사용하게 된다는 인식이다. 즉 소주길흥이란 명당에 맞지 않은 사람이 차지하면 흉하게 되고 반대로 맞는 사람이 점유하면 길하다는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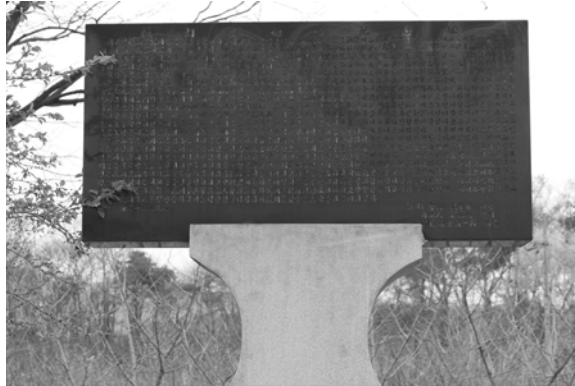
- 의량면영회의 헌신적인 활동

옛 의량면 지역의 8개 마을(송학리, 용현리, 용암리, 태산리, 가산리, 중흥리, 도신리, 덕학리)의 이장들이 불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1년 이은춘 초대 회장과 2대 구본태 회장을 중심으로 창립하였다.

의량면영회의 초창기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비좁은 도로 확장공사를 완공하여 버스 노선을 개통하였다. 이를 계기로 의량골 주민들은 애향심과 단결심이 강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교통의 편리로 인해 의량골은 공동생활권이 강화되었으며 엽연초 재배, 전기와 전화 개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변영회를 중심으로 미미하게 조직되었던 농협들을 통합시켜 의량농협을 탄생시켰다.

의량농협 발족시 송학리 마을 주민들이 농협 부지를 제공하여 송학리가 의량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마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량천변 체육공원 조성, 농업 소득 증진을 위한 중흥저수지 조성 및 경지정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의량면영회는 1961년부터 2012년까지 의량지역의 변영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의당면 일부지역이 장군면으로 편입되면서 변영회는 해체되었다.



의랑번영회 기념비

의랑번영회 역대 회장 명단

순번	성명	마을	순번	성명	마을
1	이은춘	송학리	5	이은록	용현리
2	구본태	송학리	6	홍덕중	의당면 가산리
3	유근춘	용암리	7	송영묵	송학리
4	이은찬	용현리			

(1) 지명유래

- 들말 : 요랑바위 안쪽에 자리 잡은 마을로 앞쪽에 벌판에 퍼져 있음. 평촌(坪村)이라고도 함
- 방축골 : 몸티와 요랑바위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송학제방(松鶴堤防) : 송학리 앞 대교천변에 있는 뚝
- 양지말 : 들말 안쪽에 자리 잡은 마을로 햇볕이 잘 들어서 붙은 이름임
- 요랑바위 : 들말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송학1리 경로당이 있는 주변 마을임. 전설에 의하면 마을 부근에 요령(상여 앞에서 고인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 흔드는 것)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요령바위라고 불렀으며, 요랑은 요령의 방언이며, 영암(鈴岩)으로도 부름
- 상여바위 : 몸티 앞산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여와 비슷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바위위에는 장군이 탔던 말의 발굽과 신었던 신발 자국이

있다고 전해짐

- 몸티 : 송정 남쪽에 있는 종고개의 아래 서쪽에 있는 마을. 고개 밑에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새 新(신), 고개 峙(치)라 하여 ‘신치(新峙)’라 부르던 것이 ‘신티(身峙)’로 변하였다고함. 또는 몸티의 몸을 몸 신(身)자를 써서 신티(身峙)라고 부르는 데 상여바위 밑에 있어 왕의 시체를 뜻하는 것으로 시체라는 뜻보다 고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신체라고 했다는 구전 있음
- 종(鐘)고개 : 송학리와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사이의 고개. 왕의 뒤를 따르는 종의 행렬고개의 지형이 마치 종을 단 것과 같다거나, 종을 달았던 곳이라 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종현이라고도 부름
- 거북자리 : 창말 옆에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었는데 1970년대 새마을 공사로 없어지고 거북바위가 있었던 곳이라 거북자리로 불림. 이곳에는 마을도 있었는데 거북바위, 또는 구암(龜岩)이라 불렀음
- 전원마을 : 몸티 북쪽 언덕에 새롭게 조성된 마을
- 당골 : 창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지금은 한 두집만 살고 있음
- 두집매 : 창말 입구에 있는 마을로 원래 두 집이 살았으므로 두집매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여섯 집이 살고 있음
- 버덕골 : 당골과 두집매 사이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중간에 작은 저수지가 있고, 그 윗쪽에 두어 집이 살고 있음
- 송정(松亭) : 송학리의 원 마을로 소나무 정자가 있었음
- 숨은고개 : 은골 서쪽에 있는 고개
- 은골 : 들말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산에 둘러싸여 있음. 마을 앞쪽으로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서쪽 고개를 통하여 이웃과 연락함. 서쪽 고개를 숨은고개, 언고개, 은곡(隱谷)이라고 함. 송학에서 가장 북쪽으로 공주시 의당면과 경계를 이룸
- 창말 : 들말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의영창(義盈倉)이라는 창고가 있어, 환자 쌀 224석을 저장하였다고 전하며 창촌(倉村)이라고도 함
- 창고뜸 : 의당농협 의량분소 주변의 마을. 원래 농협 자리는 송학2리 경로당 북쪽의 기와집이었으며, 창고는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 기와집 북쪽에 있음. 지금의 농협 자리는 논밭이 있던 곳으로 새롭게 조성된 것임
- 학미(鶴-) : 들말 북동쪽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학처럼 생겼음. 학미 북쪽에

형성된 마을도 같은 이름으로 부름 → 황미

- 황미 : 학미 북쪽에 형성된 마을로 보건소가 위치해 있음. 학미 또는 학산(鶴山)이라고도 부름. 마을 북쪽에 흐르는 하천으로 창고뚝과 경계를 이룸

(2) 마을의 민속 · 문화

- 송학리 들말 장승제(松鶴里 들말 長丞祭)

송학리 들말에서 정월 대보름에 남, 여 장승을 세운 후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자 지내는 마을 제사이다. 조선 전기 노표(路標) 윗부분에 귀신이나 무서운 인간 얼굴을 새긴 장승이 만들어졌다. 이 노표 장승은 조선 말기에 폐지되어 전국의 도로에서 사라졌으나, 아직도 전국 곳곳에 장승배기나 장성고개란 지명들이 남아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우리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사찰의 입구에 장승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찰장승은 단순한 노표가 아니라 사찰의 수호신 역할을 하였다. 비로소 장승이 노표에서 수호신으로 그 역할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사찰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보니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송학리 들말 장승제는 조선시대 노표 장승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조선 후기부터 들말에서 장승제를 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마을에 사는 노인 어른 중에는 장승 앞을 지날 때면 반드시 걸음을 멈추고 장승을 향해 두 손을 모은다. 날마다 출입하는 생활공간에서 만나는 소박한 장승이 어느덧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자리한 것이다. 송학리 들말 장승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승과는 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동편의 천하대군은 67cm 정도이고 지하여장군은 65cm 정도의 작은 크기라서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치면 보이지 않을 만큼 소박한 돌장승들이다. 돌을 다듬지도 않았다. 자연의 돌을 그대로 세우고 1년에 한번 먹물로 그려 넣는데 천하 대장군은 개구쟁이 남자 아이를 닮았고 지하 여장군은 통통한 여자 아이를 연상하게 한다. 제사 당일이면 마을 사람들은 장승 목(木)을 베러 산으로 가는데, 대장군(大將軍)이나 삼살방(三煞方)이 없는 방향으로 간다. 장승 목은 소나무로 선택하며, 베기 전에 술과 북어를 놓고 절을 올린 다음 음식을 나누어 먹고 베어 온다. 베어 온 장승 목으로 남, 여 장승을 깎아 세운 후, 금줄을 드리우고 황토를 뿌린다. 이러한 장승은 해마다 세우지 않고 격년으로 세운다. 장승제 끝에 대동 소지를 올

린다. 제사가 모두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음복하며 잔치를 벌인다. 이처럼 주민들이 모두 모여 마을의 평온과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장승제 터

- 송학리 몸티 기고사(松鶴里 몸티 旗告祀)

송학리 몸티 기고사에서는 정월 초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뜻에서 기고사를 지낸다. 제관과 유사의 선정은 생기복덕(生氣福德)을 살피서 뽑으며, 부정이 든 사람은 역시 제외한다. 소요되는 경비는 정월 초 걸립과 기부금으로 마련하며, 제수는 삼색실과·명태·시루떡 등이다. 고사 날짜가 되면 마을 농기를 꽃은 집의 좌향에 고사상을 차린다. 고사의 절차는 분향·헌작·독축·소지 순이다. 소지는 대동 소지와 개인 소지로 진행하며, 농기는 고사 후에도 2월 초하루까지 매어 둔다.

(3) 유적 현황

리	개소	시대	문화재 성격	비고
송학리	1	조선(1)	정려	

3) 마을의 생활환경

(1) 마을조직

송학리의 행정 현황

행정리	반	자연마을명	반장명	가구수
송학1리	1	들말	염용균	
	2	양지동	윤현정	
	3	앞고개, 요량바위, 방축골	김진홍	
	4	몸티, 송정골	이명주	
송학2리	1	은곡	이각주	14
	2	창말	오정훈	16
	3	창고	고재준	10
	4	황미	김동관	17

송학리의 마을조직

행정리	조직	인원	주요활동
송학1리	노인회	40	마을 대소사의 자문역할을 맡고 있음
	부녀회	40	마을 행사시 음식 장만
	청년회	15	대소사 및 마을행사 진행
송학2리	노인회	37	마을 대소사의 자문역할
	부녀회	35	마을 행사시 음식 장만
	청년회	10	대소사 및 마을행사 진행

역대 이장명단

행정리	순번	성명	임명기간	비고(수상여부)
송학1리	1	하재욱		
	2	최병로		
	3	김정배		
	4	김용식		
송학2리	1	이은식		
	2	이용빈		
	3	이은환		
	4	송영묵		
	5	임재복		
	6	이은환		

(2) 마을 공공시설

송학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마을회관 (1리)	붉은색 벽돌구조의 일반적인 1층 건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수는 약 150㎡이다. 마을회관에서는 농업공동체활동, 생활공동체활동 등 회의장으로 사용된다.	
마을회관 (2리)	붉은색 벽돌구조의 일반적인 1층 건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수는 약 120㎡이다. 경로당은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장소이다.	
공동창고	마을회관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지붕은 파랑색에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있다. 면적은 약 300㎡로 보이며 마을의 주요작물 등을 공동으로 저장한다.	
보건진료소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로 외벽은 붉은색이며, 2층으로 되어 있다. 1층은 진료실이며, 2층은 입원실이다.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진단하거나 치료한다.	
송학정	마을 안길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붕은 기와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기둥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다. 팔각정을 이용 시 계단을 이용한다. 주로 마을의 남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마을정자	마을회관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만든 것이며, 농사일에 지친 주민들이 잠시 몸을 이곳에서 회복하거나 담소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저온저장고	마을회관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지붕은 파랑색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고 주위로는 농경지와 산림이 보인다.	
양수장	마을의 농업시설에 관개를 위한 시설이다. 농촌공사의 시설로서 주변 농업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두집매



몸티



송정골



버덕골



안몸티



우물터



양짓말



언고개



전원마을



종고개



창말



황미



향나무 보호수



향나무 보호수 간판



12. 용현리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2.18km ²	
	경지면적	54.30ha	
인구	가구	총가구(47가구), 농가(26가구), 비농가(21가구)	
	인구수	합계 (87명), 남자 (50명), 여자 (37명)	
	60세 이상	25명(29%)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장군면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용고개 아래에 위치하여 용현(龍峴)이라 하였다. 용현리의 북쪽은 태산리와 용암리, 남쪽은 평기리, 서쪽으로 송학리, 동쪽으로는 연기면 수산리에 접해 있다. 지방도 627번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 북동쪽으로는 용암리에, 남서쪽으로는 송학리에 연결된다. 지방도 691번도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어 북서쪽으로는 지방도 627번에, 남동쪽으로는 송문리에 연결된다.

용현리의 북부·동부 및 남부로는 해발고도 1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서부 및 중부로는 대교천(大橋川)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고, 용두천(龍頭川)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흘러 해발고도 60여m에 형성된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대교천과 용두천의 충적평야는 송학들이라 불리운다. 대교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평야 지대에는 용대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용현리의 총 면적은 2.18km²로 비교적 작은 편이고, 경지면적은 54.30ha로 전체 면적의 3.35%를 차지하고 있다. 총가구 및 인구는 각각 47가구, 87명(남자 50명, 여자 37명)으로 작은 마을이다.



마을 전경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했다. 신라 때는 웅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말엽엔 공주군 의량면의 지역으로 용고개 아래에 있으므로 용현(龍峴)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천변리(川邊里), 주암(舟岩), 행현(杏峴), 용대리(龍垜里), 용두(龍頭), 용계(龍溪), 소룡리(巢龍里) 일부를 병합하여 용현리라 하고 의당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편입되었다.

(1) 지명유래

- 냇계 : 용현 남쪽 냇가에 있었던 마을로 천변(川邊)이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마을도 땅이름도 없어짐
- 배바위 : 냇계 동북쪽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배와 같이 생겨서 주암(舟岩)이라고도 함
- 용계(龍溪) : 용현 동쪽에 있는 마을
- 용두(龍頭) : 용대 옆에 잇는 마을. 용두산 밑이 됨. 용머리
- 용두산(龍頭山) : 용현리 뒤에 있는 산. 높이는 131m로, 산의 모양이 용의 머리와 같이 되었음. 용산(龍山)이라고도 함
- 용터 : 용현 서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용못이 있었으며 용대(龍垜)라고도 부름
- 용현(龍峴) : 용두산에 있는 고개로 용고개라고도 함
- 텃골고개 : 용현에서 동쪽, 남면 수산리 텃골로 넘어가는 고개
- 참새골 앞들 : 의량교 동쪽의 넓은 들

(2) 마을의 민속 · 문화

- 용현리 노제

정월 14일 노제를 지낸다. 우선 마을의 태평을 빌고 마을주민 전체가 소지리를 울리고 개인과 가정의 안녕을 빈다. 제관 선출, 금기 사항, 제수용품 및 진설, 제의절차, 경비 거출 등은 다른 마을과 유사하다.

3) 마을의 생활환경

(1) 마을조직

용현리의 행정 현황

행정리	반	자연마을명	반장명	가구수
용현리	1	용대	임이순	20
	2	새뜸	정순애	17
	마을지도자		오연진	

용현리의 마을조직








행정리	조직	인원	주요활동
용현리	부녀회	30	웃놀이 · 마을안길청소 · 미화활동 · 친목도모 등
	노인회	30	웃놀이 · 마을안길청소 · 미화활동 · 친목도모 등

역대 이장명단

행정리	순번	성명	임명기간	비고(수상여부)
용현리	1	이상정		
	2	이철하		
	3	이명하		
	4	이근덕		
	5	이병하		
	6	이은석		
	7	이은록		
	8	이영하		
	9	이은찬		
	10	이흥하		
	11	이조하		
	12	이송하		

(2) 마을 공공시설

용현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마을회관	붉은색 벽돌구조의 일반적인 1층 건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수는 약 150㎡이다. 마을회관에서는 농업공동체활동, 생활공동체활동 등 회의 장소로 사용된다.	
공동창고	마을회관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며 지붕은 파랑색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있다. 면적은 약 300㎡로 보이며 마을의 주요작물 등을 공동으로 저장한다.	
정자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농사일에 지친 주민들이 잠시 몸을 이곳에서 회복하거나 담소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전통손메주 공장	지역여건에 알맞은 농산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제고 및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에스더학교	마을회관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로, 교육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일반 가정 주택으로 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쉼터	마을회관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농사일에 지친 주민들이 잠시 몸을 이곳에서 회복하거나 담소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게이트볼장	마을회관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노인들이 여가생활로 즐기는 스포츠 장소이다.	



마을표지석



용대



용두천



넋끼



배바위골



용현리 느티나무



13. 용암리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5.00km ²	
	경지면적	111.74ha	
인구	가구	총가구(101가구), 농가(65가구), 비농가(36가구)	
	인구수	합계 (180명), 남자 (92명), 여자 (88명)	
	60세 이상	28명(16%)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장군면의 최북단에 해당되는 마을로, 북쪽은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와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 남쪽은 용현리, 서쪽으로 태산리,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에 접해 있다. 용이 노는 바위가 있다고 하여 용암(龍巖)이 되었고, 행정구역 개편 전의 이름인 상용리(上龍里)와 송암리(松岩里)에서 ‘용(龍)’ 자와 ‘암(岩)’ 자를 따 ‘용암(龍岩)’ 이 되었다. 또한 지방도 627번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 북동쪽으로는 연기면에, 남서쪽으로는 용현리에 연결된다. 이외에도 곳곳에 소규모의 도로가 있다.

용두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연변과 평야 지대에 신산·띠실·자귀동·위용머리·평촌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용암리의 북부와 서부·동부로는 2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남부와 중부로는 용두천(龍頭川)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며, 해발고도 80여m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 용두천은 용암리에서 발원하여 대교천으로 흘러드는 지방 2급 하천에 해당된다. 또한 용암리에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잣나무림이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용암리의 총면적은 5.00km², 경지면적은 111.74ha에 이른다. 총가구 및 인구는 각각 101가구, 180명이며, 이 중 남자가 92명, 여자가 88명을 차지한다.



마을 전경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했었다. 신라 때는 웅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의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말엽엔 공주군 의량면의 지역으로 용이 노는 바위가 있다 해서 용암(龍岩)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보리(龍湫里), 오산리(吳山里), 수포리(水包里), 송암리(松岩里), 갑산리(申山里), 상룡리(上龍里), 석현리(石峴里), 소룡리(巢龍里) 일부를 병합하여 용암리(龍岩里)라 하고 의당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편입되었다.

- 효자 이면주 정려



용암리 154-1번지에 소재한 조선시대 정려이다. 이씨 조선 말엽에 이면주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는 착실한 젊은이로 효심이 지극하여 항시 부모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하루는 부친께서 무서운 병으로 병석에 눕게 되었다.

그는 부친을 간호하며 사방으로 약을 구하러 뛰어다니며 약을 구해다가 부친께 드렸으나, 병환은 좀처럼 낫지가 않았다. 하루는 몇 십리 길을 약을 구해서 헤매었으므로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약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는데, 어째서 멀리만 뛰어다니냐?’ 고 하므로 그는 꿈에도 그럼 ‘약이 가까운 데 있다면 어디에 있냐?’ 고 물은 즉, ‘너의 아버지 병에는 평 밖에 다른 약이 없느니라’ 하곤 사라지는 것이었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밤이 깊었다. ‘내일 아침엔 평을 잡아야겠다’ 고 생각하고 평을 잡을 궁리를 하다가 동이 틀 무렵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살에 ‘탁’ 하고 부딪히는 것이 있었다. 언뜻 보니 평이었다. 그는 땅에 떨어져서 팔딱거리는 평을 잡

으려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머리 위로 썰매가 날더니 집 기둥에 부딪쳐서 한 마리가 또 떨어졌다. 그는 이것은 천신(天神)이 아버지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썰매로 약을 썼더니 아버지 병환이 나아지는 것이었다. 부친이 병환에서 회복되매 그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효도란 살아생전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이번에는 또 부친이 병석에 눕게 되었다. 그는 또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천신(天神)께도 기도를 했었다. 하루는 그가 생각하기를 위독할 때는 사람의 피를 먹이면 병이 쉬 고쳐진다는 말을 듣고, 그는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어 아버지께 드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금 병환이 나은 것 같았으나, 그 후 돌아가셨다 한다. 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하며 효심이 지극한 이면주의 효행에 감탄한 마을 사람들이 관에 알리어 왕께서 알게 되고, 그에게 정려(旌閭)를 내렸다. 효자비 정려의 내용을 보면, 이면주는 당시 부친과 어르신들이 야간에 투전놀이를 즐길 때 하루도 빠짐없이 야식을 준비하였고, 투전놀이를 하던 어른들은 그의 효심에 감탄하여 투전놀이도 하지 않고 마을 영농에 열중하게 되었다고 한 내용이 있다.

- 전주이씨 유복손파 재실



- 진주류씨 참판공파 제각과 종산

용암2리에는 진주류씨 참판공파 제각과 진주류씨 종산이 위치하고 있어 진주류씨가문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 오도일 묘(吳道一 墓)

자귀동에 오도일 묘가 있다. 그의 자는 귀지(貴之)이고, 호는 서파(西坡)이고,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현종 14년(1673)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고, 숙종 6년(1680)에 지평(持平) 부수찬(富修撰), 이후 지수교(知數教)를 거쳐 1687년에 승지(承旨)가 되었다. 1694년엔 개성유수(開城留守)를 거쳐 태청부사(泰淸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대사간(大司諫), 부제학(副提學), 강원관찰사(江原觀察使)에 이어 1696년에 도승지(都承旨), 부제학(副提學), 대사헌(大司憲)을 지냈다. 그 후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사직(司直), 이조(吏曹), 공조(工曹)의 참판(參判) 등을 역임하고 서기 1700년 대제학(大提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거쳐 호조판서에 이르렀다. 문장에 뛰어나서 그의 주위엔 항시 선비들이 떠나지 않았으며, 그가 지그시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다가 쓰는 문장은 당대의 일품이었다 한다.

- 전주공 이흥주 공덕비

생전에 덕망이 높고, 마을주민을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토지를 희사하여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한 전주공 이흥주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리는 공덕비로 용암1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비이다.



(1) 지명유래

- 관불산(觀佛山) : 용암리, 태산리와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 297m 되는데, 전에 관불사라는 절이 있었음
- 방축골 : 용암1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로 예전에 방축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 지금은 방축을 메워 농경지로 활용함
- 뱀날 : 관불산 남쪽, 작은안골 동쪽에 있는 낮고 길쭉한 능선으로 모양이 뱀같이 되었음
- 수룡 : 위용머리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소룡(巢龍)이라고도 불렀으며, 지금은 평촌이라 함
- 양지말 : 용암2리 경로당에서 북쪽 용두천을 건너 바로 북쪽 언덕에 자리 잡은 마을
- 오산(吳山) : 수회리 옆에 있는 마을. 오씨의 산소가 있음
- 용복골 : 자귀남골 북쪽에 위치하며, 방축골의 가장 안쪽 골짜기임
- 왕대들 : 예전에 이곳에 왕서방네가 농사지었다고 함
- 작은안골 : 용암1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 옛날부터 자귀나뭇골, 자귓골, 자귀동(自貴洞)이라고도 함
- 평촌 : 용현리에서 용암1리로 들어오는 초입에 위치한 마을. 마을이 북향하고 있으며 마을앞에 넓은 들이 펼쳐지고 용두천이 동에서 서로 흐름. 예전에는 소룡(巢龍)이라고 불리기도 했음
- 허동골 : 양지말 북쪽, 이면주 정리를 돌아가면 나타나는 마을로 허서방네가 살던 곳이라 허동골(허동골)이라 함
- 구레논들 : 신산 앞쪽(서쪽)에 위치한 들로 들이 넓어 구레논들이라 부름
- 돌고개 : 용암2리에서 연서면 와촌리로 넘어가는 고개. 돌이 많으며 석현(石峴)이라고도 함
- 동막고개 : 띠실의 가장 안쪽(북쪽)에서 연서면 쌍류리로 넘어 다녔던 고개
- 띠실 : 수회산 북쪽 용두천 골짜기에서 가장 큰 마을이라 큰말이라고도 하고, 띠가 많이 있어 띠을 또는 모곡(茅谷)이라고도 함. 마을 입구에 550년 된 느티나무가 있어 이 마을의 역사를 짐작하게 함
- 띠실고개 : 띠실 마을의 동쪽에 있는 고개. 마을에서 연서면 기룡리를 통해

서 신림고개로 가는 주요 통로였으며, 한 때는 마을 학생들이 연서중학교로 통학하던 길이었음. 한 때는 용현리, 태산리 는 물론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의 주민들이 조치원으로 통하던 주요 교통로였다고 함

- 무도리 : 위용머리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띠실에서 내려오는 용두천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이곳에서 휘돌아 서북쪽으로 흘러가는 굽이에 위치하므로 물돌이(무도리)라 부르며, 수회리(水回里), 무드리라고도 함
- 바방골 : 띠실 입구 남쪽 골짜기
- 부처작골 : 신산 서북쪽 관불산 기슭의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함
- 용암(龍岩) : 띠실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두어집만 살고 있음. 마을에서는 비암골(뱀골)이라 부르기도 함
- 수회산(水回山) : 무도리 뒤에 있는 산. 높이 154m 되는데, 띠실에서 내려오는 시내가 산을 싸고 휘돌아서 흘러감. 마을에서는 허봉이라 부르는데 허씨들이 살았던 곳이라 함
- 신산(申山) : 띠실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평산 신씨의 증시조 묘가 있다 하여 신산이라 부름
- 언미기 : 용암1리 허동골에서 띠실로 다녔던 고개
- 용두천(龍頭川) : 신산 북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수회산을 휘돌아 서북쪽으로 흐르다 위용머리 앞에서 다시 꺾이어 남서쪽으로 흘러 대교천으로 들어가는 하천. 용머리내라고도 함
- 용보(龍伏) : 위용머리 앞뜰에 있는 마을. 전에 보가 있었는데 용보라 하였는데 지금은 논으로 되었음. 마을 앞에 있는 들을 용뫼들 또는 용보평(龍伏坪)이라 함
- 용뫼들[용보평] : 용보가 있는 들
- 위용머리 : 용머리내의 가에 있는 마을. 용현리의 용두산 위쪽이 되므로 상룡두(上龍頭), 상룡리(上龍里), 상룡(上龍)이라고도 함
- 종고개 : 용암1리 방죽골에서 띠실로 다녔던 고개
- 큰골 : 용두천 골짜기 중에 제일 큰 골짜기로 띠실 마을을 가리킴
- 논골 : 들, 용암1구
- 안터골 : 마을 안쪽에 들어앉았다고 안터골이라 함
- 용머리 : 용머리 모양의 산 아래에 있다하여 용머리라 하며, 윗용머리와 아랫용머리로 나뉨
- 정골 : 용암1리에서 용암2리로 넘어오는 골짜기

(2) 마을의 민속 · 문화

- 띠울 동구나무제(동제)

띠울마을 앞 노목(老木) 정자나무 앞에서 매년 정월 보름날에 동민의 안일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동제라 부른다. 제관 선출, 금기 사항, 제수용품 및 진설, 제의 절차, 경비 거출, 제의 후 뒤풀이 등은 다른 마을과 유사하다.



동구나무제

- 운탕골 약수터

신산 뒤편에 약수터가 있다. 팔월 추석 때에는 연기 일대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물을 마시는데 피부병, 종기에 특효가 있는 약수터로 알려져 있다.



운탕골 약수터

- 금광폐굴

일제 강점기 때 사용하였으며, 마을에 금 방앗간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지역보다 전기가 일찍 들어왔다고 함



금광폐굴

(3) 유적 현황

리	개소	시대	문화재 성격	비고
용암리	1	조선(1)	정려	

3) 마을의 생활환경

(1) 마을조직

용암리의 행정 현황

행정리	반	자연마을명	반장명	가구수
용암1리	1	평촌마을	이은섭	25
	2	양달마을, 허동골	이은각	27
	3	방축골, 작은안골, 용복골	이은군	12
용암2리	1	큰말	유관호	9
	2	큰말	유진호	13
	3	신산	임권수	7

용암리의 마을조직





행정리	조직	인원	주요활동
용암1리	노인회	55	마을중대사 결정
	부녀회	38	마을행사 준비 및 협조
	청년회	16	마을행사 준비 및 협조
	대동계	전체주민	마을행사 준비 및 협조
용암2리	노인회	31	마을중대사 결정
	부녀회	15	마을행사 준비 및 협조
	청년회	5	마을행사 준비 및 협조

역대 이장명단

행정리	순번	성명	임명기간	비고(수상여부)
용암1리	1	이신하	2년	
	2	변상우	2년	
	3	심재학	2년	
	4	이성주	4년	
	5	이용하	2년	
	6	이훈주	17년	
용암2리	1	유일호	6년	
	2	유기복	4년	
	3	유근춘	4년	
	4	유영호	2년	
	5	유진호	4년	
	6	유석윤	2년	
	7	유원근	2년	
	8	김남중	4년	
	9	심재선	4년	
	10	염동섭	4년	
	11	유진호	4년	
	12	이도형	14년	

(2) 마을 공공시설

용암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마을회관(1리)	<p>붉은 벽돌의 일반적인 1층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약 210㎡이며, 휴식과 여가생활 등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노인들의 공간이다.</p>	
마을회관(2리)	<p>붉은 벽돌로 구성된 2층 건물이다. 면적은 약 120㎡이며 2층을 이용 시 외부의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공동으로 사용한다.</p>	
마을정자	<p>마을회관 옆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농사일에 지친 주민들이 잠시 몸을 이곳에서 회복하거나 담소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p>	
공동우물	<p>옛 마을 주민이 공동우물을 통하여 식수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물을 먹으면 쌍둥이를 많이 낳았다는 전설이 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공동우물의 존재감은 없어져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p>	



방축골



작은안골



뱀날



양달말



관불산



허동골



봉화대



신산



쌍태바위산



작은안골



해주오씨재실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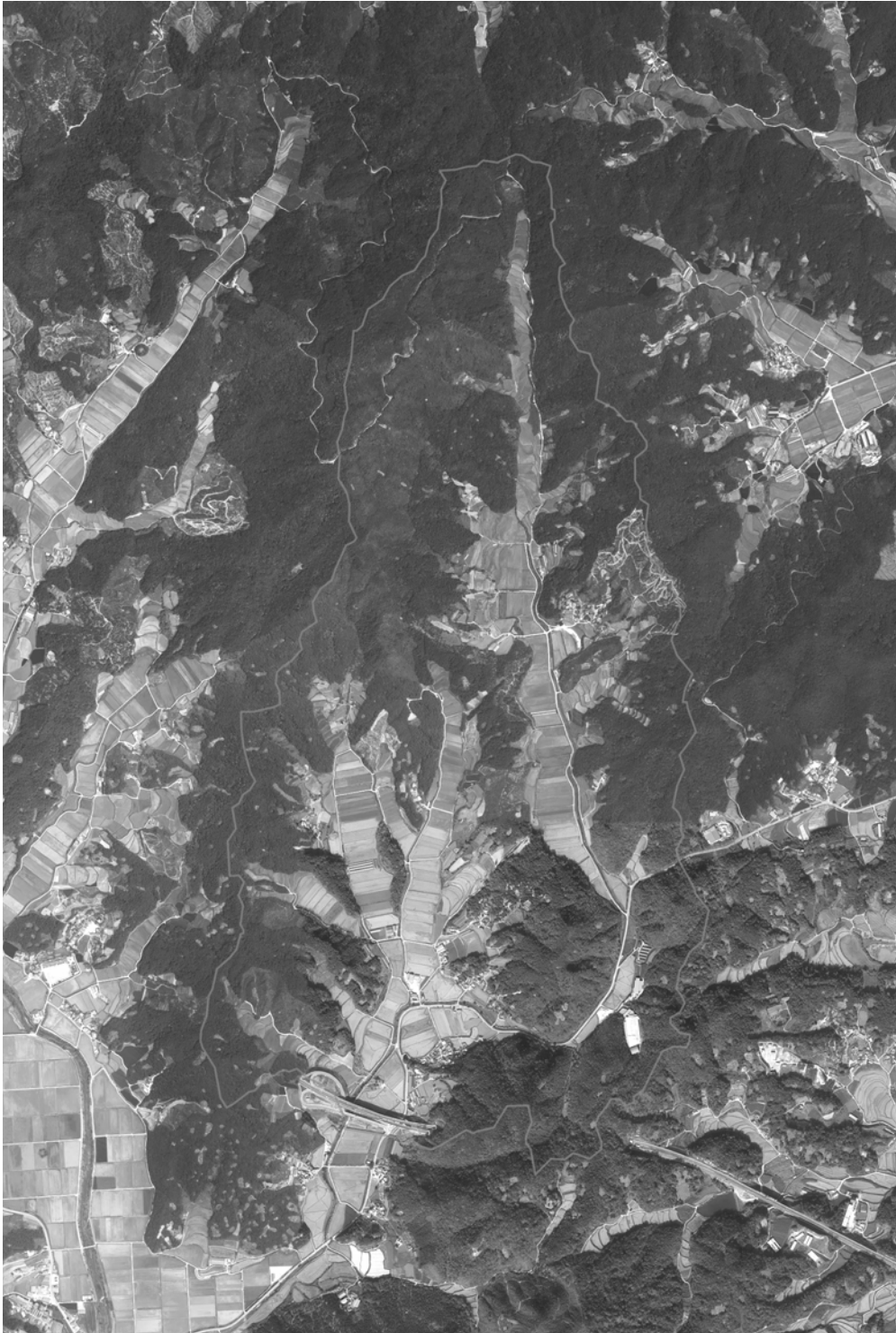
공동창고



효자 이면주정려



평촌



14. 태산리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2.03km ²	
	경지면적	60.35ha	
인구	가구	총가구 (72가구), 농가(44가구), 비농가(28가구)	
	인구수	합계 (159명), 남자 (82명), 여자 (77명)	
	60세 이상	54명(34%)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태산리는 행정구역 개편 전의 이름인 상태리(台山里)와 관불산(觀佛山)에서 ‘태(台)’자와 ‘산(山)’자를 따 ‘태산(台山)’이 되었다. 장군면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동쪽은 용암리, 남쪽은 송학리, 용현리, 서쪽으로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에 접해 있다. 리의 남서부 경계부에 지방도 961번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을을 지나는 소규모의 도로가 나 있다.

태산리의 북서부로는 1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서부·남부 및 동부로는 대교천(大橋川)과 그의 지류들에 의해 해발고도 80여m에 형성된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대교천 연변에는 인공제방이 축조되어 있다. 대교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연변의 평야 지대에 성덕골·사우말·행정 등의 마을이 들어서 있다.

태산리의 총 면적은 2.03km², 경지면적은 60.35ha에 이르며, 총 가구 및 인구는 각각 72가구 159명(남자 82, 여자 77)이다.



마을 전경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했다. 신라 때는 응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말엽에는 공주군 의량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사우촌(祠宇村), 상태리(上台里), 용연리(龍淵里), 성덕동(聖德洞)을 병합하여 상태와 관불산의 이름을 따서 태산리라 하여 의당면에 편입되었다.

- 덕천군 사우(德泉君 祠宇)

태산리 101번지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자료 제6호인 덕천군 사우가 있다. 덕천군의 휘는 후생(厚生)이고 시호는 덕천(德泉)이다. 정종의 10남으로 모후는 충주 성빈지씨(誠嬪池氏)이다. 성빈지씨가 흰 기린 꿈을 꾸 뒤 공을 낳았다고 전해진다. 덕천의 천성이 효심이 깊



덕천군 재실과 묘소

고 우애로워 정종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厚)’자로 이름을 지었다고 전한다. 1456년(세조 2) 원종훈(原從勳)에 책록되었고, 1873년(고종 10)에 증직을 받았다.

고종 때에는 이견창이 암행어사로 내려와 덕천군 사우 보수와 운영에 도움을 주었고, 일제강점기에 서울과 공주에 거주하는 종인들이 합심하여 재실(齋室)을 건축하였으며, 1960년에 대대적으로 사우를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덕천군 사우는 산의 중턱에 3단의 층대를 쌓고 서남향으로 대지를 조성, 여기에 삼문과 담장을 시설하고, 사우를 배치하였다.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맛배집으로 뒤 칸에는 제단을 설치하였고, 앞 칸에는 참배 공간을 둔 전형적인 사당 건물이다.

덕천군 사우와 관련된 유적으로는 묘소와 신도비가 있다. 덕천군 묘는 본래 남한산성의 서문 밖인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거여리에 있었는데, 이 지역이 군용지로 편입되면서 1974년 덕천군 사우가 있는 장군면 태산리로 이장하고 석물(石物)

도 그대로 옮겨 세웠다. 덕천군의 신도비와 묘비 등도 이때 옮겼다. 덕천군 신도비는 1808년(순조 8)에 건립된 것으로 10세손인 이광사가 짓고 썼다. 신도비는 높이 250cm, 폭 77cm, 두께 45cm이다.

(1) 지명유래

- 강당말(講堂-) : 사당말 남쪽에 있는 마을로 이씨의 강당이 있음. 뒷산에 소나무가 울창하며, 강당촌(講堂村)이라고도 함
- 사우말(祠宇-) : 태산리에서 가장 큰 마을. 정종의 열째 아들 덕천군(德泉君) 후생(厚生)의 사당이 있으며 사우촌(祠宇村)이라고도 부름
- 성덕동(聖德洞) : 사우말 동북쪽에 있는 긴 골짜기. 그 안쪽에 웃말, 가운데말, 아랫말 등의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일컬으며 승덕골이라고도 부름. 웃말은 모두 이사하여 사람이 살지 않음
- 솔밭모랭이 : 의랑초등학교 서쪽, 산기슭의 쑥 내민 귀퉁이에 있는 마을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음. 마을 뒤로 솔밭이 있음. 모랭이는 모퉁이, 모롱이의 방언임
- 용못(龍-) : 강당말 서쪽에 있던 못. 예전에 용이 살았다 하는데, 현재 논이 되었음. 용연(龍淵)이라고도 부름
- 행정(杏亭) : 강당말 아래에 있는 마을. 늙은 은행나무가 있어서 붙은 이름으로 은행정이(銀杏亭-), 행정리라고도 함

(2) 마을의 민속 · 문화

- 마을고사

정월대보름 새벽1시에 지냈던 것을 최근엔 오전 10시에 지내고 있다. 이장이 제사장이 되며 축문을 외우고 소지를 올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처음에는 마을동계에서 하던 것을 5년 전부터 마을회에서 주최하고 있다.



태산리 마을 고사

(3) 유적 현황

태산리에는 문화재자료 제6호로 지정된 덕천군 사우(德泉君 祠宇)가 가장 대표적인 유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다.

리	개소	시대	문화재 성격	비고
태산리	1	조선(1)	사묘	문화재자료 제6호

3) 마을의 생활환경

(1) 마을조직

태산리의 행정 현황

행정리	반	자연마을명	반장명	가구수
태산리	1	사음만	이용구	10
	2	양달	이은혁	12
	3	행정	이영주	19
	4	솔모랭이	이송주	12
		성덕골	김덕영	11

태산리의 마을조직

행정리	조직	인원	주요활동
태산리	노인회	38	마을행사 및 봉사활동에 협조
	부녀회	42	마을 주민행사 및 봉사활동 주최
	청년회	36	마을 주민행사 및 봉사활동 주최

역대 이장명단

행정리	순번	성명	임명기간	비고(수상여부)
태산리		이원주	18	
		이은규	4	
		이은덕	4	
		이희주	4	
		이용현	5	

(2) 마을 공공시설

태산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마을회관	2009년 신축하였으며 마을 주요 회의 및 노인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방2개, 회의실1개, 건강관리실로 구성되어 있다.	
경로당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구조로 1층 건물로 마을 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부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면적은 약 120㎡이다.	
마을정자	마을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농사일에 지친 주민들이 잠시 몸을 이곳에서 회복하거나 담소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의량초등학교	1942년 의당초등학교 태산간이학교로 개교 후, 1947년 의량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 교훈은 '정직, 질서, 성실' 이고, 교목은 향나무, 교화는 장미이다. 특색사업으로 사이버 학력 강화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자율 학습력 신장을 시행하고 있다.	
양수장	마을의 농업시설에 관개를 위한 시설이다. 농촌공사의 시설로서 주변 농업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서당골



성덕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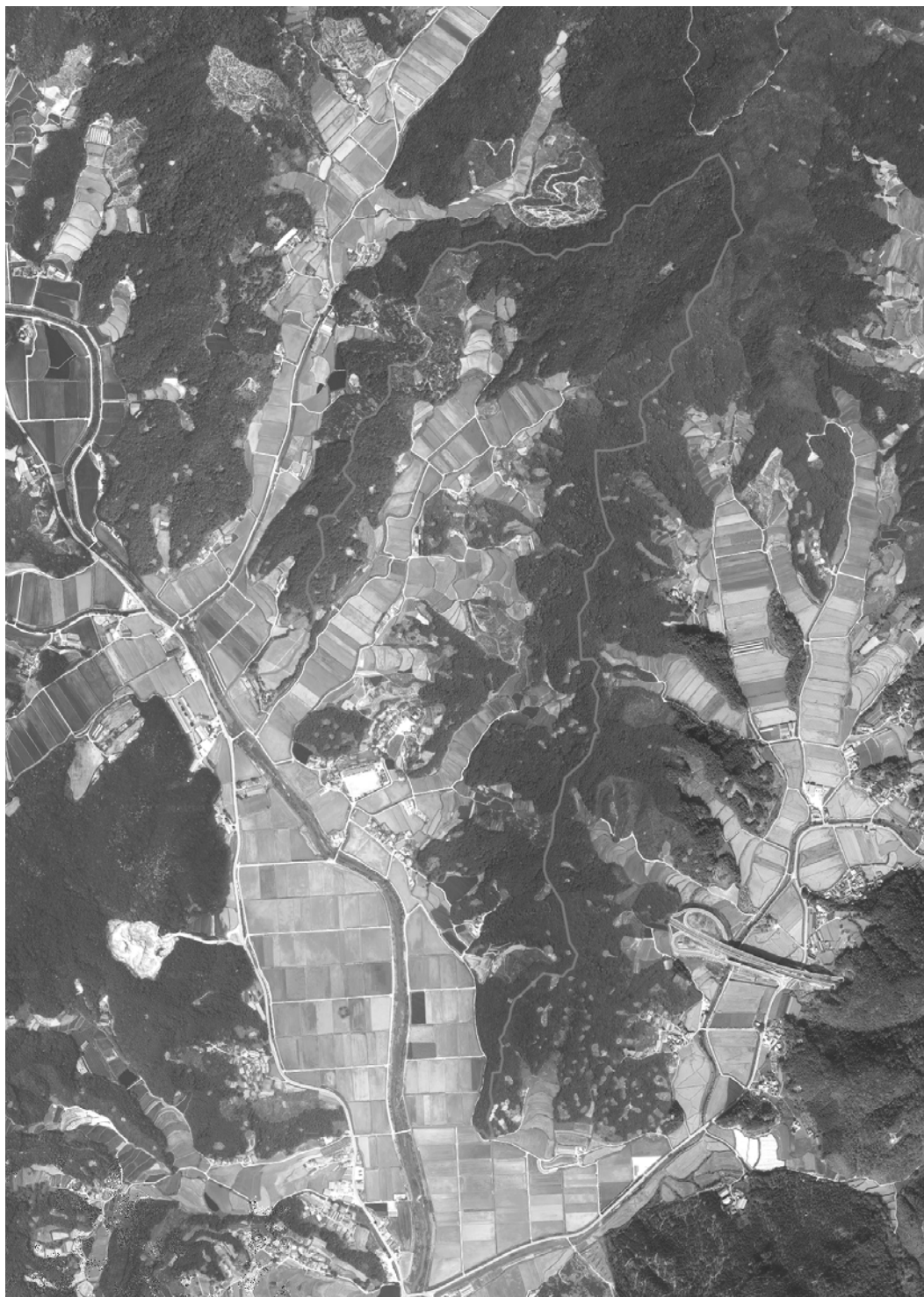
강당골



솔모랭이



보호수



15. 송선리

※ 송선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기점으로 공주시 장기면으로 편입된 마을이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장기면이 사라지면서 공주시 월송동에 편입되었다. 비록 현재는 세종시 장군면에 속하지 않으나, 마을의 유구한 과거를 기억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마을자료편에 삽입하였다.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4.00km ²	
	경지면적	131.17ha	10.42%
인구	가구	총가구 (220가구), 농가 (가구), 비농가 (가구)	
	인구수	합계 (583명), 남자 (322명), 여자 (261명)	
	60세 이상	명(%)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09.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소나무가 우거진 산에 신선(神仙) 터가 많다 하여 송산(松山)이라 하였는데, 행정구역 개편 전의 이름인 송곡리와 선유동에서 한글자씩 따서 송선리가 되었다. 공주시 중동부에 위치하여 북쪽은 의당면, 동쪽은 하봉리, 남쪽은 동현리, 서쪽으로 공주시 월송동과 신관동으로 접해 있다. 국도 36호선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어 북서쪽으로는 의당면 청룡리에, 남동쪽으로는 월송동에 연결된다. 시도 36번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 북동쪽으로는 동현리에, 남서쪽으로는 금흥동에 연결된다.

송선리의 북부와 서부로는 경계 지대를 중심으로 해발고도 100여m의 낮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중부로는 버드래고개와 구렁고개 등이 있다. 동부와 서부로는 중산천과 그의 지류들에 의한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근동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유역과 평야 지대에 동편말·

황새말·덕흥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송선리의 총면적은 4.00km², 경지면적은 131.17ha로 총 면적의 10.42%를 차지한다. 또한 총가구 및 인구는 각각 220가구 583명이며, 남자가 322명, 여자가 261을 차지한다.

송선리는 표고버섯, 감자, 고구마, 인삼, 쌀, 콩, 고추 등 다양한 특산물을 재배한다. 감자와 고구마는 그 맛과 질이 매우 좋다고 평가되며, 쌀의 경우 농부의 손길이 많이 가서 밥맛이 좋고 금강유역이라 용수확보가 용이하며 수질이 좋고 오염이 없는 청정쌀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친환경 재배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인삼의 경우 신체기능의 향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건강식품으로, 특히 송선1리의 주요작물로 재배하고 있다. 또한 산간지에서 질 좋은 참나무 원목을 이용하여 버섯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윤 창출을 위해서 표고버섯 작목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송선리는 현재 월송동으로 편입되기 이전에도 비교적 큰 규모의 마을이었으며, 장기농공단지가 소재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과거 금암리, 금흥리와 함께 전주이씨의 집성촌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을 전경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했다. 신라 때는 웅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의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말엽엔 공주군 동부의 지역이었다. 소나무가 우거진 산에 신선 터가 많다 하여 송선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자은리(自隱里), 송곡리(松谷里), 은동(錦洞), 선유동(仙遊洞), 마근동(麻近洞), 중산리(中山里), 요동(要洞)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송선리라 하고 장기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공주시 월송동으로 편입되었다.

(1) 지명유래

- 은구덩이 : 송선리 뒷산 계곡으로, 그 유래는 다음과 같음.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여기에서 4km 떨어진 곳에 한 지관이 살고 있었다. 그가 살펴본 즉 산 줄기에 틀림없이 김은맥(金銀脈)이 있을 것 같아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다니니 이곳에서 쿵쿵 소리가 들렸다. 땅을 파니 먼저 은이 섞인 물이 나오고, 다음엔 큰 은덩어리가 나와서 큰 부자가 되었다 한다. 지금은 은이 섞인 물은 아니나 아무리 가물어도 샘물이 줄지 않는 샘이 있는데, 이 샘을 은구덩이라 부른다.]
- 수렁골 : 송선저수지 북쪽 골로, 그 유래는 다음과 같음. [옛날 한 농부가 논에서 소와 함께 논갈이를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논에 물이 고이고, 마침 한 곳에서 수렁에 빠져 소와 함께 농부가 죽게 되었다. 그러자 농부는 소등을 타고 살아나고 소만 수렁에 빠져 죽었다. 소가 빠져 죽은 수렁이 있다 하여 수렁골이라 부르다가 변하여 수덩골이라 부르는 들이다.]
- 금동골(錦洞골) : 송선리 1구 황새말 동쪽에 위치한 마을. 예부터 산세가 수려하여 가을엔 마치 금색에 무르익는 절경을 이루는 마을이라 하여 금동(錦洞)골 또는 금동(錦洞)이라 부르며, 마을 주민들은 검동골이라고도 함
- 막은골(麻斤골) : 공주여상 북쪽에 위치한 마을. 예부터 주위를 산이 막고 있다 하여 막은골 또는 망골이라 불림. 일설에는 삼베농사가 행해졌다고 함
- 방머리 : 황새골 남동쪽 마을.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누에치기를 장려하여 누에치는 집을 두었던 마을임. 누에를 많이 치던 곳이라 비단으로도 유명한 곳이며, 과거에는 방두동(芳頭洞), 자은동(自隱洞)이라 불리기도 하였음
- 선유동(仙遊洞) : 버드레고개 안 마을. 예부터 마을이 아늑하여 신선들이 놀았던 마을이라 선유동이라 불렸음.
- 황새골 : 금동골 남쪽 골짜기 마을. 마을에 소나무가 무성해서 송곡(松谷)이라고도 부르는데, 소나무 숲에 황새가 향시 떠나지 않는 마을이라 황새골이

라 불리움

- 요골 : 황새골 남쪽 마을. 마을을 낮은 산이 둘러싸서 매우 아늑한 마을로, 요골은 사기 굽는 집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도 됨
- 정자뱀들 : 금동골 외곽 마을. 과거 이곳에는 정자가 있었고, 지금의 논 주위를 통틀어 정자뱀들이라 하였음
- 서당골 : 송선리 1구 북쪽 마을. 옛날에 이 터에 서당이 있다 하여 서당골이라 하였으며, 서당골 옆의 들을 서당들이라 함

3) 마을의 생활환경

송선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마을회관	붉은 벽들의 일반적인 구조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농업공동체·생활공동체활동 등의 회의장소로 사용된다. 마을회관 앞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공동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약 150㎡의 주차장이 있다.	
마을표지석	마을회관 앞에 효도마을이라고 쓰여진 마을표지석이 있다.	
공주정명학교	장애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 주며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가꾸어 주어주는 학교이다. 1984년 3월 22일에 개교하였으며, 현재 90여명의 교직원 이 250여명의 학생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지역사회의 관심 있는 분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공동스포츠 체험학습장	예전에는 교육건물인 학교였으나 학생수가 적어 폐교가 되었다. 2000년 8월 3일 공주학생수영장을 건축하여, 2000년 9월 1일 공주학생수영장을 개장하였다. 현재는 공동스포츠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며 마을주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장기농공단지	1984년 12월 장기면 송선리 534번지 일대가 농공단지로 지정되어 1985년 6월 실시 계획이 고시되었다. 동년 9월 공사에 착공하여 1986년 장기농공단지가, 1993년에는 보육 시설이 차례로 준공되었다. 현재 장기농공단지에는 축협지대공장, 정현섬유, 정양수지, 정양수지 제2공장, (주)제이와이 모드테크, 한독옵텍(주), 에스아이알(주), (주)에센스, (주)한일, 웅진섬유, (주)구원섬유, (주)화인울, (주)녹산 등 1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16. 동현리

※ 동현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기점으로 공주시 장기면으로 편입된 마을이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장기면이 사라지면서 공주시 월송동에 편입되었다. 비록 현재는 세종시 장군면에 속하지 않으나, 마을의 유구한 과거를 기억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마을자료편에 삽입하였다.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4.74km ²	
	경지면적	108.95ha	8.28%
인구	가구	총가구 (155가구), 농가 (가구), 비농가 (가구)	
	인구수	합계 (388명), 남자 (220명), 여자 (168명)	
	60세 이상	명(%)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09.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예부터 마을 동쪽에 고개가 있어 동고개 또는 동현리라 불린 곳으로, 공주시 중동부에 위치하여 북쪽은 의당면, 동쪽은 하봉리, 남쪽은 동현리, 서쪽으로 공주시 월송동과 신관동에 연결되어 있다. 시도 36번이 북부에서 동서 방향으로 뻗어 동쪽으로는 은용리에, 서쪽으로는 송선리에 연결된다. 이외에도 소규모의 도로가 시도 36번과 연결되어 있다.



마을 전경

동현리의 동부에는 해발고도 3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남동부에는 장군산(將軍山)[354.3m]이 높이 솟아 있다. 북부와 남부에는 100여m의 낮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서부에 흐르는 월송천은 동현리에서 발원하여 월송동 중앙부를 남북 방향으로 흘러 금강에 합류하는 지방 2급 하천이다. 월송천 주변에는 해

밭고도 80여m의 층적평야가 있는데, 이 하천 유역 및 평야 지대로 주막거리·떡정이·낚은터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또한 월송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를 이루고,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를 이룬다.

동현리의 총면적은 4.74km²이며, 경지면적은 108.95ha로 총면적의 8.28%를 차지한다. 총가구 및 인구는 각각 155가구, 388명이며, 남자가 220명, 여자가 168명을 차지한다.

동현리의 특산자원은 인삼, 한우 등이다. 인삼 경작지는 주로 마을 안길 좌측으로 있으며, 당뇨병 예방, 항암작용, 동맥경화·고혈압 예방 및 간장 보호 작용, 숙취 제거, 항스트레스 작용 등 신체기능의 향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건강식품으로서 동현1리가 주로 재배하고 있다. 한우는 공동축사에서 기르며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하고 있으며, 질 좋은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예부터 황우마을이라고 불리었으며, 토종한우를 사육하여 농촌의 일손과 경제적인 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한 들이었다. 신라 때는 웅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말엽엔 공주군 장척면의 지역으로 마을 동쪽에 고개가 있으므로 동고개 또는 동현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의 별당리(別堂里), 묵정리(墨亭里), 장현리(長峴里), 진목정(眞木亭)의 각 일부를 동부면의 가흥리와 요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동현리라 하고 장기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공주시 월송동으로 편입되었다.

(1) 지명유래

- 떡정이 : 진고개 남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그 유래는 다음과 같음. [옛날 성격이 부리부리한 진씨(眞氏)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조선시대 영조 때 이야기인데 진씨는 지나가는 행인을 괴롭히기가 일쑤여서 이 근처를 행인들이 피해 다녔다고 한다. 하루는 키가 육척이 넘고, 기운이 장사인 김씨 한 사람이 여기를 지나다 보니, 진씨가 지나가는 한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발걸음을 멈췄더니, 진씨가 느닷없이 김씨에게 가까






이 와서 싸움을 청하므로 김시가 한 번만 때린다고 주먹으로 진씨 눈 근처를 때렸다. 그랬더니 그만 진씨는 쓰러져서 실신해 버렸고, 김씨는 그 여인과 어디론가 사라졌었다. 그 후 깨어난 진씨는 늙어 죽을 때까지 눈가까이에 검게 멍든 자욱이 있었고, 그 후부터는 그런 행실이 없어졌다 하는데 눈 가까이 검게 멍든 진씨가 사는 마을이라 진씨의 별명 ‘떡쟁이’가 그가 죽은 후에도 마을 이름이 되어 버려 떡쟁이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

- 지랭이 : 동현리 1구 농협창고 부근 마을로, 그 유래는 다음과 같음. [동현 북쪽 1.5km 지점에 있는 천태산 동혈산 줄기에 옛적부터 8명당이 있다 하여 풍수에 따라 지관들이 뒤지는 장소로, 그 지맥이 지렁이에서 뻗쳐 나가는 원천지라 한다. 지형이 지렁이처럼 생겼다 해서 지랭이 또는 지렁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한 옛날에는 계량마을로 불리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동고개라 하였고, 계량마을이 잘못 와전되어 지랭이라 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이를 고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낚은터 : 정명학교 남쪽에 있는 마을로, 그 유래는 다음과 같음. [옛날에는 도깨비가 있어서 밤에는 외출을 못했던 곳이다. 도깨비불이 많아서 밤이 되면 다른 마을에서 볼 때 불야성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 살기를 두려워하였는데, 어느 한 해에 원인 모를 화재가 나서 마을의 집들이 모두 불 탔다. 그 후에 집이 들어서서 마을을 이루었는데 이 마을을 낚은터라 부른다.]
- 가흥(佳興) : 묵정 서북쪽에 있는 마을. 마을이 언덕골 끝에 자리해 있으며, 옛날에 이씨(李氏)의 큰 부자가 살았던 마을로 가흥 또는 어더기라고 부름. 가인이 흘러와서 자리를 잡아도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을이라 함
- 신나무골 : 너드러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는 참나무의 정자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가 널리 알려졌음. 산나무가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신나뭇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진묵정(眞墨亭)이라고도 불렀던 마을임. 또한 옛날 평산 진씨들이 배포하여 자리잡은 터로 신나무가 많이 있어서 명칭했다는 설도 있음
- 주막거리 : 동현리 2구 동현 저수지 남서쪽에 있는 거리로, 이곳의 명칭은 대교리 주막거리와 동일하며, 이 자리에 유명한 주막이 있었음. 사람들이 흔히 주막거리라 하였다고 전함

- 영전들 : 주막거리 상단에 위치한 마을로, 당시 이곳에 목화논이 많이 있었고, 논이 길게 늘어져 있었음
- 무념이들 : 장기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들로, 논 형상이 흡사 문(間)자와 닮아 무념이들이라 하였다는 설과 물이 이곳을 지나쳐 넘어간다고 하여 무념이들로 하였다는 설이 있음

3) 마을의 생활환경

동현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마을회관	붉은 벽돌의 일반적인 1층 구조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부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면적은 약 120㎡이다.	
노인회관	붉은 벽돌로 구성된 건물로 노인들을 위하여 1층을 경로당으로 만들었으며, 휴식과 여가생활 등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면적은 약 120㎡이다.	
마을표지석	마을입구 도로가에 지랭이마을이라고 쓰여진 마을 표지석이 있다.	
공동창고	지붕이 파란색 판넬로 되어 있으며, 마을의 주요작물 등을 공동으로 저장한다.	
삼성아이텍	2001년 4월에 설립된 안경 렌즈 제조업체이다. 대지 면적은 955㎡이고, 건물 면적은 444㎡이다. 2011년 기준 대표이사 1명(이용진)과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5억 6,800만 원, 매출액은 40억 원이다.	

17. 석장리

※ 석장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기점으로 공주시 장기면으로 편입된 마을이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장기면이 사라지면서 공주시 월송동에 편입되었다. 비록 현재는 세종시 장군면에 속하지 않으나, 마을의 유구한 과거를 기억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마을자료편에 삽입하였다.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5.11km ²	
	경지면적	53.11ha	4.03%
인구	가구	총가구 (69가구), 농가 (가구), 비농가 (가구)	
	인구수	합계 (154명), 남자 (80명), 여자 (74명)	
	60세 이상	명(%)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09.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마을 전경

석장리는 과거 장기면의 남부에 위치하였으며, 현재 공주시 중동부에 해당한다. 마을 북쪽은 동현리, 은룡리, 동쪽은 금암리, 남쪽은 반포면, 서쪽으로 공주시 월송동과 신관동에 연결되어 있다. 국도 32호선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어 북서쪽으로는 무릉동에, 남동쪽으로는 장암리에 연결된다.

석장리의 북부와 동부·남부로는 해발고도 300여m와 2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북부에는 장군산(將軍山)[354.3m]이, 북서부에는 시행이고개가 있다. 남부와 서부로는 금강의 지류인 석장천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며, 해발고도 40m의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금강과 그 지류인 석장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

대,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며, 이 하천 유역 및 평야 지대에 석장, 시행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석장리의 총면적은 5.11km²이며, 경지면적은 53.11ha로 전체면적의 4.03%를 차지한다. 총 69가구에 154명이 거주하며, 남자는 80명, 여자는 7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장리는 특히 구석기시대의 여러 가지 유물이 확인된 곳으로, 석장리 구석기 유적은 사적 제 334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주로 공주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거리의 금강 북안 하안단구에 위치하며, 공주시는 이 부근에 구석기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석장리 박물관을 건립하였다.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했다. 신라 때는 웅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말엽엔 공주군 동부면의 지역으로 웅장한 바위가 있는 지역이라 하여 장암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석장(石壯), 대추리(大秋里), 초왕리(草旺里), 신식리(新式里) 일부와 장척면의 외암리 일부를 병합하여 장암리라 하고 장기면에 편입되었다. 2011년 6월부로 '장암리'에서 '석장리'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2012년 7월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공주시 월송동으로 편입되었다.

-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公州 石壯里 舊石器 遺蹟)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은 1964년 미국인 대학원생에 의해 뎀석기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이후 연속적으로 연가구학교 손보기 교수 등에 의하여 모두 12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해방 후 남한 지역에서 최초로 발굴 조사된 구석기 유적지로 밝혀졌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은 1지구와 2지구로 나뉘어 발굴 조사되었으며 모두 12개의 문화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적의 지질층은 강바닥층과 강가 비탈 쌓임층으로 나뉜다.

유물은 주먹도끼·밀개·자르개 등 구석기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석기가 출토되었다. 석기의 특징으로 볼 때 전기의 곧선 사람들은 차돌과 편마암을 거칠게 떼어 내어 외날 찌개 안팎날 찌개의 무거운 석기를 만들어 썼고, 중기의 슬기 사람들은 돌려떼기 수법으로 굽개·찌르개·자르개·흙날·톱날 석기를 만들어 썼으며, 돌날 자르개·돌날 굽개·돌날 밀개·돌날 새기개 등 세밀한 작업을 통한 석기도 사용했음을 알게 되었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은 현재 사적 제33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석장리 박물관이 설립되어 보호되고 있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에서는 전기 구석기층에서 후기 구석기시대의 집자리를 비롯하여 중석기시대의 문화층까지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전기 구석기시대부터 중석기시대에 이르는 여러 시기에 걸쳐 사람이 살았음을 밝혀준다.



석장리 선사유적지 표지석

(1) 지명유래

- 구적골, 구절골, 구사동(九寺洞) : 시행이 마을 동쪽 골짜기 마을. 옛날에 큰 절이 있었던 골짜기로 구절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해서 구적골이라 부름. 또한 절(황개절, 높은절, 구창골절, 약수당, 샛터절, 암절, 학무당 등)이 9개가 있다 하여 구절골이라 함
- 너븐들 :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예부터 넓은 바위가 있었던 마을이라 너븐들이라 부르는 마을임. 또한 석장리에서 가장 넓다고 하여 너븐들이라고도 하였음

- 대추골 : 장암리와 무릉동 경계에 있는 마을로, 마을에 대추나무가 많이 있었다 하여 대추골이라 부른다 함
- 모종텃골 :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모정(茅亭)이 있었다 하여 모정텃골 또는 모종텃골이라 부른다 함
- 배나무정이 : 석장 앞마을로, 예부터 배나무가 있었던 들이라 배나무정이라 부른다 함
- 베짜던굴 : 구적골에 있는 큰 굴. 이 굴은 높이가 8척이나 되며 넓이가 5척, 깊이가 15척이나 되며, 옛날에 나라에 난리가 났을 때, 이 굴에서 피난을 하면서 사람들이 베를 짰다 하여 베짜던굴이라 부름. 1970년 이 굴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석기 시대에도 사람이 살았던 굴로 추정됨
- 석장(石壯) : 장암교 아랫마을로, 마을 뒷산에 웅장한 바위가 많이 있는 마을. 웅장한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석장(石壯)이라 부르는 마을이며, 또한 금강변에 위치하여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인류가 일찍이 정착하였던 것으로 보임. 또한 석장리는 예전에 삼일에 한번 장이 열렸는데, 삼일의 석[三], 장날의 장(場)이 합쳐져 석장리라 부름. 마을 아래 강쪽으로 구석기 유물 발굴 흔적지가 있음
- 석장진나루터(石壯津나루터) : 석장 앞 금강변에 있는 나루터로, 석장리에서 계룡면 상왕리로 건너다니는 나루터. 조선시대 명종 때 사화를 피한 조정의 대감 한 사람이 10여년을 이 나루터에서 어부로 살다가 후에 이탁(李鐸)의 바른 정사 때 다시 벼슬길에 올랐다는 한 대감의 숨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임
- 숫대배기 : 석장 동쪽 산기슭에 있는 길로, 옛날에 이 길에 숫대가 박혀 있었다 하여 숫대배기라 부르는 길거리임
- 시행이 : 석장 북쪽 마을로, 옛날에 시초가 많이 자랐던 마을이라 시행이 또는 초왕, 초왕리라 부른다 함. 또한 과거 강을 끼고 있는 석장리 마을이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던 것과는 달리 마을 위쪽에 위치한 시행이 마을은 농토를 생업으로 하며 살아서 부농이 많았다고 전함.
- 황새미 : 석장 서북쪽 산으로, 산 모양이 황사와 같다 해서 황새미 또는 황새미테라 부르는 산. 또한 ‘한(大)+샘(泉)’, 즉 큰 샘이나 약수가 나던 산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음
- 시루봉 : 이 봉우리에 묘를 쓰면 떡이 익을 때 부자가 되고, 다 익으면 차차

- 식어가면서 가정이 기울어지므로 묘를 옮겨야 한다는 데서 유래하였음
- 김태환 생가 : 노인회관 오른쪽 위에 있는 고택. 김태환 선생은 1905년 9월 24일 출생으로 공주 최초의 치과를 개원하였고, 후에 후손 교육에 힘을 썼다고 함

3) 마을의 생활환경

석장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마을회관	붉은 벽돌의 일반적인 1층 구조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부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마을회관에서는 농업공동체활동, 생활공동체활동 등의 회의장으로 사용하며 면적은 약 120㎡이다.	
여경로당	마을회관 앞으로 약 50m 지점에 석장리동 여경로당이 위치해 있다.	
마을표지석	마을에 들어서면 마을회관 앞으로 정자나무와 함께 마을표지석이 있다. 마을표지석에는 석장리의 유래와 함께 최고의 석기마을이라고 쓰여져 있다.	
공동창고	마을 안길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벽에 지붕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면적은 약 240㎡이며 마을의 주요작물 등을 공동으로 저장 할 수 있다.	

석장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금벽초등학교 (폐교)	예전에는 교육시설인 초등학교였다. 학생수가 적어 폐교를 하였고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아 많이 망가져 있다.	
보건진료소	붉은 벽돌의 일반적인 1층 구조물 되어있다. 면적은 약 120㎡이며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진단하거나 치료한다.	
석장리박물관	공주 지역의 구석기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석장리 출토 유물의 전시와 구석기 문화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학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선사 문화 체험 등 학생들이 고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시설로는 선사시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관, 선사공원,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 체험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18. 당암리

※ 당암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기점으로 공주시 장기면으로 편입된 마을이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세종시 한솔동에 편입되었다. 이후 진행된 개발계획에 의해 과거 당암리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마을의 유구한 과거를 기억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마을자료편에 삽입하였다.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1,76km ²	
	경지면적	75.89ha	5.77%
인구	가구	총가구 (38가구), 농가 (가구), 비농가 (가구)	
	인구수	합계 (81명), 남자 (42명), 여자 (39명)	
	60세 이상	명(%)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09.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당암리는 옛날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킬 때, 당나라 군사들이 주둔하였다 하여 당골이라 하고, 이들이 마을에서 철수할 때 용암바위를 부수고 금을 채취하여 떠났다 하여 당암(唐巖)이라 하였다. 과거 장기면의 중동부에 위치하였으며, 마을의 북쪽은 제천리, 남쪽으로는 송원리에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 산학리, 봉안리와 연결되어 있다.



마을 전경

당암리의 서부와 동부에는 각각 해발고도 100여m와 60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동부 경계에는 금강(錦江)에 의해 대규모의 충적평야인 장남평야(長南平野)의 일부가 있었다. 서부 경계에는 제천천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흘렀다. 제천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였으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남평야 일대에는 당암·소골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었다.

2009년 12월 기준, 당암리의 총면적은 1.76km²이며, 그중 경지면적은 75.89ha로 5.77%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총 38가구에 81명(남자 42명, 여자 39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의 지역이었다. 신라 때는 웅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말엽엔 공주군 삼기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입석리(立石里), 두곡리(杜谷里), 당동(唐洞), 용암리(龍岩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당동(唐洞)과 용암(龍岩)을 따서 당암리라 하여 장기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행정동인 한솔동에 편입되어 법정동인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으로 분리되었다.

당암리에는 권첩묘(權慄墓)가 있었다. 문신 권첩(權慄)의 자는 토경(土競)이고, 호는 기오현(寄傲軒)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숙종 17년(1691)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가 되고 정언(正言)을 거쳐 세자시강원보덕(世子侍講院輔德)을 지냈다. 뒤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의주부윤(義州副尹), 경상도·충청도·경기도 관찰사와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등을 역임하고 영조 때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거쳐 좌참찬(左參贊)에 이르러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 지명유래

- 당골 : 당암리 1구에 속했던 마을. 옛날 나·당군이 백제를 멸망시킬 때, 당나라 군사들이 주둔하였다 하여 당골이라 하였다 함. 당나라 군사들이 이곳에서 철수할 때 용암바위를 부수고 금을 채취하여 떠났다고 전함. 동쪽 기슭에 큰 바위가 있으며 산제당도 있었음. 또한 성황당이 있던 마을인데 줄여서 '당골' 이라고 볼 수도 있음

- 소골 : 당암초등학교 아래도로에 있던 마을로, 지형이 마치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하여 소골이라 불렀는데, 후에 변해서 솟골이라 불리움. 솟골에서는 소를 키워야 부촌이 된다 해서 소를 많이 키우는 마을이었음. 또한 이 마을을 용암(龍岩) 또는 용암리(龍岩里)라고도 불렀는데, 마을 뒷산에 용암(龍岩)바위가 있어 그리 불림
- 망골 : 당골 북동쪽에 위치했던 마을로, 예부터 마을을 산이 둘러싸서 막은 것처럼 되어 있어, 막은골 또는 두곡(杜谷)이라 불림 이후 변해서 망골이라 하였음
- 선돌 : 망골 남서쪽 마을로, 예부터 마을에 선돌이 있어서 선돌마을이라 불림. 이후에는 선돌 대신 문관형의 장승이 마을 양쪽에 있었는데, 한쪽 장승은 중간에 유실되었음, 동제는 없이 개인적인 신앙의 대상이었음
- 횃골 : 망골 아래쪽 마을로, 옛날에 석회가 나온 마을이라 횃골이라 불림
- 부기동 : 망골 서쪽 마을로, 옛날 이 지역에 부자가 터를 잡고 살았는데, 그 터에서 기와장이 발견되어 그 설을 입증했다 하여 부기동이라 불림
- 불무고개 : 이 지역에서 불을 피울 때 연기가 잘 빠지는 것을 돕기 위해 불목이라는 것이 존재했음. 불목이고개를 통해 연기를 내보내서 불무고개라 하였음.
- 언고개 : 응달 마을과 당암초등학교 사이 고개로, 예부터 마을과 마을 사이에 얽혀 있다는 뜻으로 언고개라 하였으며, 상당히 높게 경사져 있어 마을에서 한눈에 보이는 고개였음.
- 불탄터 : 부기동과 망골 사이에 있던 터로, 불무고개에서 불을 지피고 나면 부기동을 지나게 되어 재(숯)가 남게 되는데, 이 재를 처리하게 되는 곳을 가리켜 불탄터라 하였음
- 왕박골 : 소골 위(북쪽)에 있던 마을로, 조선시대 某 임금(어느 왕인지는 알 수 없음)이 이곳을 거쳐가다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왕이 숙박했다 하여 왕박골이라 전함

(2) 마을의 민속 · 문화





- 당암리 당골 산신제(唐岩里 당골 山神祭)

당암리 당골에서 매년 음력 10월마다 지내던 마을 제사이다. 당암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당동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과거 당암리 당골 산신제를

치르던 산제당이 있던 곳이다. 당동은 당골 혹은 당곡(唐谷)이라고도 부르는데, 당골의 서쪽 산속 약 700m 지점에 산제당이 있었다. 약 80여 년 전까지는 그곳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 매년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칠 정도로 큰 산제를 지냈지만,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당집이 유실되면서부터 산제를 지내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후 1980년경 신도안에서 마을로 이주한 무량천도교인들이 산제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단과 당집을 짓고 다시 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지금은 당암리 당골 산신제의 온전한 모습은 알 길이 없고, 다만 다른 지역의 산제와 마찬가지로 유교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물은 통소[牛], 과일, 떡을 마련하여 올렸다고 전해진다.

3) 마을의 생활환경

당암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마을회관	붉은색 벽돌구조의 일반적인 1층 건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면적은 약 120㎡이다. 마을회관은 농업공동체활동, 생활공동체활동 등 회의장으로 활용되었으며, 경로당은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다.	
마을정자	노거수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목재로 구성된 사각형의 정자이다. 마을주민들의 만남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공동창고	마을 농기계 보관 및 농산물 저장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당암초등학교 (폐교)	당암초등학교는 1949년 개교 이래 제 57회 졸업까지 3,093명의 지역 인재를 배출하였다. 이후 2008년 장기초등학교에 통합되었다.	

19. 제천리

※ 제천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기점으로 공주시 장기면으로 편입된 마을이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세종시 한솔동에 편입되었다. 이후 진행된 개발계획에 의해 과거 제천리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마을의 유구한 과거를 기억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마을자료편에 삽입하였다.

⇒ 마을개관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면적	총면적	3.04km ²	
	경지면적	108.35ha	8.23%
인구	가구	총가구 (24가구), 농가 (가구), 비농가 (가구)	
	인구수	합계 (86명), 남자 (60명), 여자 (26명)	
	60세 이상	명(%)	

출처 : 장군면 내부자료(2009. 12. 31. 기준)

1) 마을개관 및 자연환경

(1) 마을개관

제천리는 마을 앞에 긴 하천이 흘러서 예부터 진내, 진해, 또는 제천(濟川)이라 하였다. 과거 장기면의 중서부에 위치하였으며, 국도 36번이 동서 방향으로 뻗어 동쪽으로는 연기군 남면에, 서쪽으로는 봉안리에 연결된다.



마을 전경

제천리의 동부·서부·남부·북부 사면으로는 해발고도 100여m의 낮은 산지가 군데군데 형성되어 있었고, 동부·서부·남부·북부의 각 일부로는 제천천의 지류가 흐르며, 주변에 해발고도 40여m의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로 활용하였다. 하천 유역과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음지말·양촌·진해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었다.

2009년 12월 기준, 전체 면적은 3.04km²이며, 경지 면적은 108.35ha로 전체의 8.23%를 차지하였다. 또한 총가구 및 인구는 각각 24가구, 86명이며, 남자가 60명, 여자가 26명을 구성하여 남초현상이 두드러진 마을이었다.

제천리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마을이지만, 수백 년 전부터 전래되어온 제천리진해 산신제, 들로 내려온 산신당과 같은 특징적인 문화가 남아있었던 곳이다.

2) 마을의 역사

백제 때는 웅천에 속한 들이었다. 신라 때는 웅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말엽엔 공주군 삼기면의 제천리로 되었으나 갑인 1914년 제천천을 중심으로 동쪽은 연기군, 서쪽은 공주군 장기면으로 군계가 설정, 현 행정구편을 개편되어 월현, 당동의 각 일부와 연기군 남면 소야리(고정리) 일부를 병합하여 제천리라 하고 장기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행정동인 한솔동에 편입되어 법정동인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고운동으로 분리되었다.

제천리에는 임헌성묘(林憲成墓)가 있었다. 묘비 및 석물은 없고 묘만 남아 있었는데, 임헌성(林憲成)은 3·1 운동 당시 대동단원으로 최시린(崔時麟), 임헌빈(林憲斌), 권성채(權聖采), 윤집(尹集), 오지항(吳志恒) 여사 등과 항일운동을 하였다. 그는 연기군청에서 재직 중 대동단원으로 활동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함북 갑산에 피신 중 귀향했다가 출향 후 피검되어 여순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그 후 출옥하여 사망하였다.

(1) 지명유래

- 지내마을 : 리를 남북 중심으로 내가 흘러 나누어졌으나 서로 통하여 마을이 형성되어 내를 건너다니는 마을이라 하여 지내라고 부른 속명. 또 일설엔 내가 길어서 지내, 지내형(오공혈)이 있다 하여 지내, 임난 때 왜병이 지나쳐 가서 지내라고 하나 사실이 아님. 이곳에는 부안임씨 제천파 100여호가 소야

- (고정리), 두곡(당암2구) 제천에 집단화 하여 살았으며, 과거 이 마을은 행정 구역상 양촌은 제천1구, 음촌은 제천2구로 구분되었음
- 양촌 : 양지바른 마을이라 하여 양지말, 양달말로 불리었으며, 월현(다름고개=달너머가는 고개), 양산동(양양산, 양산, 양곡, 양미), 위말, 중뜸, 아랫말 단위로 구성되었음
 - 음촌 : 음달진 마을로 제천2구 음지말(음달말), 너무말(월양동, 녘말), 새뜸(간동), 감나무골(시목동), 갈월(갈월, 갈곡)로 구성되었음
 - 양산동(양양산, 양산, 양미, 양곡) : 조선 초 부안임씨 양양부사를 지낸 임목의 산소가 있어 붙여진 이름. 임목은 여말 충신 전서 임난수공의 자로 재직시 선정을 베풀고 향교를 창흥하여 치적이 매우 큼. 일찍이 벼슬을 버린 후 공주삼기행담(연기 남면 양화리)으로 낙향하여 나성강상에 독락정을 지었는데, 이 독락정에는 남수문 선생이 지은 정기와 송우암 선생이 쓴 정액, 서거정 선생이 쓴 명시가 전하고, 이글이 동국여지승람과 동문선에 실려 있음. 또한 이곳에는 김치산 선생이 지은 비문과 석물, 양산제가 있었음
 - 월양동(너무말, 녘말) : 제천2구 남쪽 능선너머에 위치한 제천리 원 마을. 마을 뒤로는 잠두산, 청룡은 당산으로 아늑한 정 남향 마을로 앞은 작은 안산 밖으로 광활한 평야와 금강이 흐르고, 계룡산이 나성을 이루고 있는 비산비야인 명당지라 전함. 예전에는 삼 십 여 호로 기와집이 많았다 하고, 옛 집터에는 토기, 기와 등 유물이 출토되었음. 또한 한말 유학자 간송 임호철 선생의 생가와 함께, 완산 최병심, 취암 이익모 선생이 지은 정기, 정암 조성우 선생이 쓴 정액, 유시, 문집이 후손에게 전하나 애석하게도 6.25전난 때 소정은 유실되었다고 함
 - 상봉산(翔鳳山) : 양지마을 뒤에 있던 주산으로, 봉황새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형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이 산은 제천리 주산으로 높이가 124m이고 영산으로 신선 시 하였으며 산 중턱에는 영험한 바위가 있어 아들을 못 낳은 여인들이 아들을 얻기 위하여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얻는다고 전했음. 상봉산 남쪽 양지바른 산기슭에는 부안임씨 제천파 도조상인 수현공, 희원공의 묘와 효행비, 석물, 재실이 있었음

- 산제당 : 아랫마을 청룡 말미(족지미) 담중에 위치했으며, 본당은 마을의 대 소사와 동민의 안녕과 번영, 화합을 기원하기 위하여 온 동민이 일심으로 정 성을 드렸던 당으로 음력 11월 1일 밤에 산신에게 제를 올렸음. 옛적에는 상 봉산 중턱에 위치했던 것이 당시 촌장의 꿈에 산신이 현몽하기를 현 위치로 옮기라고 하여 옮겼다는 전설이 있고, 그 당시는 산능선이 현 위치까지 되었으 나 일제 때 신도로 개설과 개담, 하천 정리 등으로 논 가운데 위치하게 되었음
- 다파니고개(닭알품은 고개) : 제천에서 봉안으로 넘어가는 고개현, 남양유업 공주공장 방향에 위치하였음. 풍수상 금계포란 형이 있다하여 불려진 고개 이름이었으나 일제 때 신도로가 신설되어 고개를 다 파내어 다파니고개라 부 르게 되었다 함
- 군량동 : 다파니고개 동쪽 계곡에 위치한 이곳에는 장군대좌 명혈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함. 옛적에는 민가가 있었으나 후에 없어졌으며, 독 막골(장군막사), 호병제(군령내리는곳), 보초골, 복병재 등 군사에 관련한 지 명이 붙여졌던 곳이기도 함. 일설엔 옛날 전쟁터라고도 전함
- 덕대골 : 제천2구 남서방(당동 앞)에 위치했던 옛 공동묘지로, 시신을 계속에 되 봉하고 혹은 씨오재이에 넣어서 나무에 매달았다고 전함. 약 80년 전까지도 그 잔재가 있었으나, 개화 이후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어 없앤 후 과수원이 되었음
- 갈월 : 제천2구 서남방에 위치했던 곳으로, 예부터 갈대가 많고 달이 이 방 향으로 넘어가서 갈월, 갈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함
- 가시골 : 제천2구 서남방에 위치했던 곳으로, 예부터 가시나무가 많아서 붙 여진 지명임. 뒷산에는 사모바위가 있었고, 국사봉하 7대명당의 하나라는 임 원수씨(전 동아건설 대표) 선조 묘가 있던 곳임
- 줄박골(불바위골) : 상봉산 서편으로, 산능선에 바위가 줄지어 내려와서 골 짜기를 이루어 줄바위골이라 붙여진 이름임. 옛날 돌무더기가 일렬로 줄줄이 줄지어 있어서 줄박골이라 했고, 그 옆편에는 주락골이 위치했으며, 유래는 돌무더기가 마치 그 형상이 사람 서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주락골이라고 전 하였음
- 떼주막거리 : 제천1구 동남방으로 제천 서쪽에서 흐르는 물과 고정 북쪽에서 흐르는 물이 합하여 만나는 삼각지대인데, 옛날 떼로 집을 지어 만든 주막거 리로 대평장, 공주장, 유성장, 조치원장, 부강장을 보러 다니는 행상인과 행

인, 근동민이 이용했던 주막이었음. 70년대 말 까지 성업 중이었으나 80년대 초부터 주인이 없어 집이 헐리고 개답으로 논이 되었음. 옛날 신혼 신랑이 이 주막에 머물다 근동민이 독 버드나무에 매달아 다루다 안동리에 불이 나서 모든 사람이 진화하러 가는 바람에 신랑이 목숨을 잃을 뻔 한 큰 봉변을 당했다는 전설 등 서민의 많은 화제와 애환이 깃들었던 곳임

- 사모바위(사모암) : 제천2구 주산인 매봉산 남쪽능선에 있던 바위로, 마치 옛 우리 의관인 사모(모자)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임. 높이가 4.5m, 주위가 약 35m나 되는 큰 바위로 근동 무속인들이 자주 찾아 치성을 드렸던 영암이었음
- 뽕쪽바위(숫바위) : 제천2구 월양동 청룡날 능선 넘어 위치했던 바위. 약 2.5m 정도의 높이로 남자신 같이 생겨 뽕쪽바위, 숫바위라 불렀고, 건너편에는 여자 음부와 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 암바위라 불렀음. 제천리 2구에서는 영암으로 풍수상 장사가 나고 부귀한다 하여 신선시하였음. 그러나 당동에서는 이 바위가 동리를 들여다보여(주작이 안대) 광인이 생긴다 하여 매년 정월 보름이면 떼를 덮고 내리고 하는 숨박꼭질이 최근까지 이루어졌으나 유감스럽게도 황씨라는 사람이 과수원을 개간하기 위하여 파손하고 그 처가 변사한 후, 영암(靈岩)의 벌이라 하여 화젯거리가 되었음. 암바위는 일제 강점기 때 일인이 토목공사용으로 폭파하였는데, 그곳에서 금부처가 나왔다고 전함
- 임현성 묘 : 제천 삼봉산 동쪽 능선에 있던 묘로, 연기군지에 보면 임현성이 3.1운동 독립운동가로 기록되었으나, 어떤 연유인지 최근까지 생가가 있었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만한 근거가 없었음. 만일 연기군지 대로라면 보훈대상자가 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연구와 자료 개발이 필요함

(2) 마을의 민속 · 문화

- 제천리 진해 산신제(山神祭)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며 음력 11월 1일에 지낸 마을 제사이다. 제천리 진해 산신제는 수백 년 전부터 전래되어온 의례이다. 매년 음력 동짓달 초하룻날 진해를 구성하는 양지촌(양달말)과 음지촌(음달말)에서 공동으로 산신제를 지냈다. 산제당은 양지촌과 음지촌 사이의 논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당집 내부


에는 산신도 한 점이 봉안되어 있었다. 산제당을 삼봉산으로 옮긴 적도 있으나, 한 노인이 현몽하여 꾸짖어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고 한다. 꿈에 나타난 노인은 꿈속에서 ‘오곡백과가 모이는 곳에 산제당을 모셔야 한다’ 고 말했다고 한다. 원래 제천1리와 제천2리가 합동으로 산신제를 지냈다가 주민이 많이 줄어들고 유사를 정하기도 어려워 최근에는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축문은 산제당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산제당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들로 내려온 산신당(山神堂)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전해지는 「산신당 전설」이라는 유형과 비슷한 이야기이다. 산신의 목적이 전자는 산신당의 이전이고, 후자는 정성껏 제사를 모시게 하려는 것으로 약간 변형되었다. 대개의 산신은 산을 주관하며, 그 아래에 사는 마을 주민들도 수호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전설은 주로 산신의 계시, 재앙 발생, 해결을 위한 제사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매년 산신에게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들로 내려온 산신당」의 주요 모티프로는 현몽계시, 산신의 징벌, 계시 순응 등이다. 이 전설은 산신당을 이전한 내력을 바탕으로 산신의 위력을 보여준다. 산신제와 같은 마을공동체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다수의 마을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전설을 지니고 있다. 현몽계시, 산신의 징벌, 계시 순응 모티브를 내재한 전설은 산신의 존재를 마을사람들에게 각인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하며, 또한 공동체신앙의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3) 마을의 생활환경

제천리의 주요 시설

시설	주요 내용	사진
서창산업	1989년 설립된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체이다. 음료 시장의 추세가 천연 과즙 음료로 전환되어 가는 시장 환경에 부응하여 관련 설비를 도입, 최상의 원료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자본금은 20억 원(2011년 기준), 매출액은 460억 원(2010년 기준)이며, 상시 종업원 수는 약 70명이다.	

장군면지발간추진위원회 명단

연번	직책	성명	주소
1	위원장	이충열	봉안리
2	부위원장	박항기	산학리
3	감사	이성규	은용리
4	총무	김종립	금암리
5	운영위원	이순기	은용리
6	”	이은찬	용현리
7	”	임재유	도계리
8	”	임준길	제천리
9	”	황필성	산학리
10	위원	박은규	대교리
11	”	전호길	대교리
12	”	윤승현	하봉리
13	”	윤찬중	도계리
14	”	이각주	송학리
15	”	이은양	송선동
16	”	최해운	도계리
17	”	한상록	도계리
18	”	정승환	봉안리
19	”	서효원	도계리



발간추진위원회

위원장 : 이충열

부위원장 : 박항기

감사 : 이성규

총무 : 김종립

운영위원 : 이순기, 이은찬, 임재유, 임준길, 황필성

위원 : 박은규, 전호길, 윤승현, 윤찬중, 이각주, 이은양, 최해운, 한상록, 정승환, 서효원

표지 : '장군면지' 題字 : 中然황필성(장군면 낙우회 회장)

집필진

연구진

연구책임 : 정환영(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연구원 : 정석호(공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계약교수), 최근혁(공주대학교 대학원)

총괄편

자연 및 인문환경 :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류주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역사 : 이남석(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해준(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현숙(공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안지혜(공주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행정과 정치 : 이정만(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산업과 경제 : 조상희(공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교육 : 이일주(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민속 : 이결재(석장리 박물관 관장)

문화유적 : 이남석(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현숙(공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장영미(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김대영(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지명조사 : 장길수(공주시 향토문화연구회 운영위원)

마을자료편 : 김형수(공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강종현(공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곽병조(공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조소진(공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교정 : 김영미(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정현정(공주대학교 사학과 강사)

이일주(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장 군 면 지

인 쇄 2014년 4월 18일
발 행 2014년 4월 28일
발 행 처 장군면지 발간 추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400-1
편집·교정 공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인 쇄 처 필성인쇄사 (042)252-1689

ISBN 58-5690071-000001-01